

발간 등록 번호

11-B553921-000004-01

'제주어와 제주 전통 문화 전승과 보전'을 위한 조사 사업 1  
- '초집(초기)' 구술 자료

# 옛날 집은 춤낭으로 현 거난 멧 백년 가도 꼬딱 잇어

연구 책임: 김순자  
공동 연구: 고창근 김미진 양성필 오경임  
연구 보조: 서수빈 현혜림

20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원



# 차 례

I. 사업(연구) 개요 .....	5
1. 사업(연구) 목적과 필요성 .....	5
2. 사업(연구) 기간 .....	5
3. 사업(연구) 방법과 사업(연구) 범위 .....	5
4. 연구진 .....	7
5. 주요 연구(사업) 내용 .....	7
6. 기대 효과 .....	8
7. 자료 사진 .....	9
II. 제주 초가 구술 .....	21
1. 삼양동 초가 구술 .....	23
2. 상가리 초가 구술 .....	167
3. 성읍1리 초가 구술 <1> .....	243
4. 성읍1리 초가 구술 <2> .....	435
5. 신례리 초가 구술 .....	461
6. 안성리 초가 구술 .....	573
• 연구 참여자 .....	658



# I. 사업(연구) 개요

## 1. 사업(연구) 목적과 필요성

- 제주 사람들은 예로부터 ‘구덕’, ‘옹기’, ‘갯’, ‘불미’, ‘초가’, ‘갈옷’, ‘목수’, ‘사냥꾼’ 등의 독특한 민속 문화를 만들어왔음. 이들 문화는 민속학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방언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사람들의 전통 문화의 원형인 제주어 자료로 제대로 구축된 바 없어 시급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하여 사라지는 제주의 민속 문화와 관련한 제주 전통 문화 전승자를 대상으로 제주 민속 관련 제주어 자료를 연차적으로 구축하여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 나아가 소멸 위기의 제주어와 전통 문화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큼.
- 그 첫 번째 사업인 이 사업은 제주전통 민가인 ‘초집(초가)’ 관련 일을 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초가 관련 자료를 채록하여 집대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또 조사 지역을 제주시 삼양동,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와 하가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남원읍 신례리, 대정읍 안성리 등 다양화하여 제주 초가와 관련한 서로 다른 언어와 풍습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음.

## 2. 사업(연구) 기간

2019년 4월 1일~2020년 4월 30일

## 3. 사업(연구) 방법과 사업(연구) 범위

- 조사 지점: 현재 제주 지역에 전통 초가가 남아 있는 조사 지역은 제주시 삼양동,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와 하가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남원읍 신례리, 대정읍 안성리 등 6개 지점임.

- 제보자: 제주시 삼양동,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남원읍 신례리, 대정읍 안성리 등 5개 지역에서 그 지역 출신으로 70~80대 가운데 초가를 지어봤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 제보자는 제주시 삼양동 3명, 애월읍 상가리 4명,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5명, 남원읍 신례리 7명, 대정읍 안성리 3명 등 22명임.
- 조사 일시: 8차례의 조사와 2차례의 추가 조사 등 총 10차례의 현지 조사를 함.
- 조사 방법: “집 지었던 경험 돌아줍서”, “집 종류는 어떤 것덜 이신고예”, “집 지을 때 필요한 도구는 어떤 것덜 잇수과”, “집줄은 어떻게 멘들 아마씨”처럼 제주어로 묻고 답하는 구술채록 형식으로 조사함으로써 온전한 제주어와 제주 문화를 채록할 수 있도록 함.

다음은 마을별 제보자, 조사 일시, 조사 마을 현황임.

<표 1> 마을별 제보자, 조사 일시, 조사 마을 현황

번호	제보자	성별	출생 연도	조사 일시	조사 마을
1	민정부	남	1942	2019. 11. 27.	삼양동
2	김건의	”	1936	2020. 1. 6.	
3	홍성관	”	1940		
4	강응수	”	1944	2019. 6. 11.	상가리
5	변옥규	”	1929		
6	변학근	”	1939		
7	양창근	”	1928		
8	현동옥	”	1934	2019. 4. 23.	성읍리
9	홍상표	”	1949	2019. 4. 23.	
				2019. 5. 16.	
10	김춘화	여	1942	2019. 5. 16.	
11	변정석	남	1933	2019. 4. 23.	
				2019. 5. 16.	
12	송순원	”	1937	2019. 5. 16.	
				2020. 3. 27.	
13	고방순	여	1937	2019. 7. 22.	신례리
14	양영생	남	1944		
15	양태길	”	1944		
16	양태춘	”	1931		
17	이순하	”	1935		
18	정기령	”	1940		
19	양군필	”	1939	2020. 3. 27.	
20	송응률	”	1933	2019. 9. 5.	안성리
21	임영일	”	1937		
22	조이전	”	1937		

## 4. 연구진

<표 2 > 연구진 현황

구분	이름	소속 및 분야	연구 역할
연구책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국어학/제주도방언)	조사, 3차 전사 확인, 집필, 교열
공동연구	고창근	전직 교사(국어학/제주도방언)	조사, 1차 전사, 교열, 집필
	양성필	제주국제대학교(건축학)	조사, 1차 전사, 교열, 집필
	오경임	동화작가(국문학)	조사, 1차 전사, 교열, 집필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국어학/제주도방언)	조사, 2차 전사 확인, 교열, 집필
연구 보조	서수빈	제주학연구센터	사진 및 영상 촬영, 정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사진 및 영상 촬영, 정리

## 5. 주요 연구(사업) 내용

- 초가와 관련하여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술 채록을 함.
- 주요 연구 내용: 조사 지역별로 △초가를 지었던 경험, △집 종류, △집 짓는 방법, △초가 재료, △초가 짓는 법, △집 구조 △지붕 이는 방법 △민속 △연장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채록하여 정리함.
- 전사: 한글 전사하여 초가 관련 구술자료집을 발간하고 어휘와 용례 자료 등은 《제주어대사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카이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녹음 및 영상 장비: 녹음기는 소니 PMC-A10, 캠코더는 캐논 FDR-AX100을 이용하여 녹음하고 영상 촬영함으로써 향후 교육 자료, 콘텐츠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결과물:
  - 1) 책자  
초집(초가) 구술 자료 《옛날 집은 춤낭으로 헌 거난 멧 백년 가도 끄딱 엇어》 발간 외
  - 2) 녹음(영상)·사진 자료

<표 3 > 조사 마을별 성과물

조사마을	성과물			자료집
	녹음(시간)	영상(시간)	사진(점)	
제주시 삼양동	4:10:40	3:55:42	230	구술자료집 외 1건
애월읍 상가리	2:05:46	2:05:34	23	
하가리			230	
표선면 성읍리	7:56:02	7:51:35	465	
남원읍 신례리	3:27:13	2:56:18	311	
대정읍 안성리	2:23:15	2:23:15	128	

## 6. 기대 효과

- 제주 전통 초가와 관련한 어휘와 민속 등을 망라한 조사로 제주 사람들의 주거 문화는 물론 제주어, 제주 민속 등을 담아낸 자료 구축으로 제주 전통 문화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음.
- 사라져가는 전통 초가 관련 어휘를 종합적으로 조사 정리함으로써 제주어와 제주 민속 등 전통 문화 보급 등을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음.
- 제주어와 제주민속 연구자들의 연구 자료와 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함.
- 《제주어대사전》 어휘 및 예문 활용의 기초 자료로도 널리 쓰일 수 있음.
- 구술 채록된 자료는 전사하여 구술 자료로 구축하는 한편 관련 어휘와 용례, 사진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주어대사전》 발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7. 자료 사진

### 7.1. 제주시 삼양동

#### 7.1.1. 조사 장면



제주시 삼양동(2020. 1. 6.)



제보자 김건의 씨



제보자 홍성관 씨



제보자 민정부 씨

7.1.2. 초가 및 도구 사진



제주시 삼양동 강운봉 가옥(2019. 3. 28.)



강운봉 가옥 '통시'



강운봉 가옥 '공쟁이'



강운봉 가옥 '늘굽'



강운봉 가옥 '정주석'과 '정낭'

## 7.2. 애월읍 상가리(하가리)

### 7.2.1. 조사 장면(상가리)



애월읍 상가리 조사 장면(2019. 6. 11.)



제보자 강응수 씨



제보자 변옥규 씨



제보자 변학근 씨



제보자 양창근 씨

7.2.2. 초가 및 도구 사진(하가리)



애월읍 하가리 문귀인 가옥(2020. 3. 28.)



문귀인 가옥 '풍체'와 '풍체작대기'



문형행 가옥 '물팡'



변효정 가옥



변효정 가옥 '쉐막', '메낭', '메낭지등'

### 7.3. 표선면 성읍리

#### 7.3.1 조사 장면



표선면 성읍리 조사 장면(2019. 5. 16.)



제보자 현동옥(왼쪽) 씨와 홍상표 씨



제보자 김춘화 씨



제보자 변정석 씨



제보자 송순원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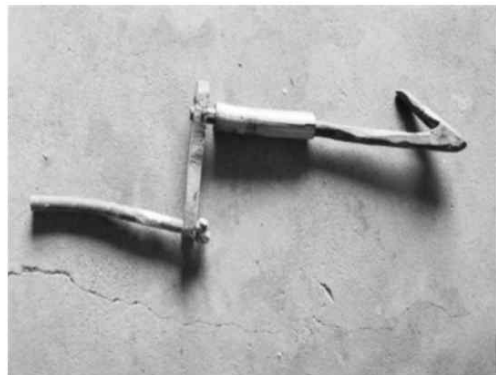
7.3.2. 초가 및 도구 사진



성읍 고평옥 가옥 안거리(2019. 3. 27.)



송순원 소장 '뒤치는 호렝이'



송순원 소장 '호렝이'



송순원 소장 '손톱낫'



송순원 소장 '메호미'

## 7.4. 남원읍 신례리

### 7.4.1. 조사 장면



남원읍 신례리(2019. 7. 22.)



남원읍 신례리(2019. 7. 22.)



제보자 고헩순 씨



제보자 양영생 씨



제보자 정기령 씨



제보자 이순하 씨



제보자 양군필 씨



제보자 양태훈 씨



7.4.2. 초가 및 도구 사진



신례리 양금석 가옥 안거리(왼쪽)와 몽커리(2020. 3. 27.)



양금석 가옥 안거리 '호령청', '대문'



양금석 가옥 '부섭'



양금석 가옥 '돛집'



양금석 가옥 '반축'과 '물팡'(아래)

## 7.5. 대정읍 안성리

### 7.5.1. 조사 장면



대정읍 안성리 조사 장면(2019. 9. 5.)



제보자 송응률 씨



제보자 임영일 씨



제보자 조이전 씨

7.5.2. 초가 및 도구 사진



안성리 가옥(2019. 9. 5.)-추사적거지



송응률 씨 소장 '줄호령이'



송응률 씨 소장 '뒤치기'



'이문간' - 추사 적거지



'늘왓' - 추사 적거지



## II. 제주 초가 구술



# 1. 삼양동 초가 구술

# 1. 삼양동 초가 구술

- 일시: 2019년 7월 22일
- 장소: 삼양동 모 카페
- 조사자: @1 김순자 @2 고창근 @3 양성필 @4 오경임 @5 김미진
- 제보자: #1 민정부

- .....
- 일시: 2020년 1월 6일
  - 장소: 삼양2동 경로당
  - 조사자: @1 김순자 @2 고창근 @4 오경임 @5 김미진
  - 제보자: #2 김건의 #3 홍성관

## 1.1. 구조 ①

@1 삼촌 여기 집 종류, 이 동네 집 종류는 어떤 것들이 이수과? 삼촌 살 때.

#1 그때? 그때는 집들이 그자 혼 서너 가호. 막 많은 디는 막 하곡. 좀 혼 디는. 웨떨어진 디는 서너 가호. 혼 두 가구, 세 가구 뭐 이 정도로 행은에 살고. 막 많은 디는 띠엄띠엄 이웃집들이 영 막 부떠근에 울담들이 잇어근앵에. 쉼도 들어오고, 물도 들어오고. 경 널르게 사는 사람들은 큰 동네 이디, 이디, 가름, 가름에가 허고. 흐쉴 베끼터레 변두리레는 집도 두 가호, 세 가호 경 헤근앵에.

@1 겐디 그거 다 초집들?

#1 다 초가집.

@1 다 초가집예. 게난, 언제 이 동네 그 집이 바뀐 거 닐아마씨?

#1 겐에 그 우리가, 나가 혼, 거 사삼사건 때 영 헤근에 헤가니까 사삼사건 거의 끝나가니까. 신촌에 강 살아, 요 베끼디. 신촌 가근에 좀 살단에 다시 삼양으로 왔는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 부니까, 아, 이제 뿔뿔이 가족이 다 흐터지게 될 거지. 거부니까 이제, 나 참 어린 때부터 친척도 엇이 그자, 부모도 엇이 경 허난에, 뭐 베운 것도 엇고 헤근에 우리 아버지 친구신디 간에 그 말을 옛말을 헨 거라이. 나 죽어 불쿠덴 허난에.

(생략)



## 집 종류

@1 삼촌. 집에 대한 거만 알아줘야 돼예. 게난 이 집 종류는 이 동네 초가 집 있고, 지금 스투트 있고, 이제 어떤 집들이 있어? 이 동네.

#1 허, 이제는 빌딩 숲. 빌딩이, 빌딩 콘크리집.

@1 콘크리트집도 있고예, 옛날 그 초가집 있으면.

#1 아, 이디 저, 와개집은 저, 원당봉에 원당사.

@1 예.

#1 그기 그 와개집 있어났어. 사월 초파일날 그디 가면은 그자 와개집은 그디 벅기 엇어났어.

@1 아, 원당사에 와개집은 있고예. 그다음에 그 집이 있으면 보통 한 집, 집이 있으면 집이 몇 채가 있습니까?

#1 아니, 큰동네, 너팡동네, 뭐 저 선반지 그 스시에는 집은 막 만해났수다. 또 동카름 곳덩이 짝더레. 브름코지 짝더레는 집 몇 개 엇고, 또 이 바닷가 해수욕장에도, 우리 해수욕장 옆에 살앗주만은. 경 폭도 왓젠 허민 물이 들어갓 다근에 경 현 일도 잇엇주마는. 그때도 집 몇 개 별로 엇어나고. 경 해근에 그 때 그 시절은 경 해났수다.

@1 흥 집이 있으면, 우리 집이면, 집이 몇 개? 몇 거리 있어? 흥 집에 보통?

#1 보통 그때는 다 가족들이 이, 그때는양 집이 별로 엇어놓니까, 가족이 그자 어떤 때는 방이 좁으면은 아까 그디 마루방이엔 현 디 이수게양. 마루 안논 디, 못사는 사람은 마루 안 놔근에 검질 낄양 그기도 막 자고 경 해근에 해났수다게.

@1 그 마리에. 마리 안 논 방은 무슨 방 험니까? 그 검질 낄 방은?

#1 그 검질 낄 방. (웃음)

@1 북덕방? 북데기방?

#1 예, 예, 검질방.

@1 검질방. 그런 식으로 하고예. 게민, 집이 하나 있으면 안거리.

#1 응. 두 개 이시민 밧거리.

@1 안거리, 밧거리. 그다음에 옆에도 또 하나 더 잇이민?

#1 잇이민 그땐 쉼막이라고 해근엔에 하나 만들어근엔에 쟁 잇어나고 현디. 겐디 쉼막은 안 행 웬만하믄 ㄱ찌 부찌근엔에. 자꾸 집 일젠 허믄 성가시주게. 이리 일곡 저리 일곡 허젠 허믄. 불치막이엔 현 거 하나 잇긴 잇어났어. 불치막이엔 현 것은 검질로 밥헤 먹어나곡, 무시거 그 저 방에 ㄱ시락불 때근에 방 딱시게 해낭 재 거디 모아논 거 허믄 그거는 불치막이엔 해근에 그레 가근에

헌데 모아뉓당은엿에 농사질 때에 그거 가정 가근엿에 밧에 가근에 뿌리고 무시거 허곡 허젠 허문.

@1 게민 그 불치막도 집 크기가.

#1 아니, 그 불치막은 이는 게 아니고, 그냥 영 낭으로 이렇게 뭐 삼밭이, 세밭이 영 헤근에 영 행 둘러근에 검질로 무꺼근에, 그다음에 ㄴ람지엔 헌 거 더꺼근에, 주쟁이 탁 씩우면 불치막. (웃음)

@1 아, 경 행 불치막허고예? 알앗수다. 혹시 삼춘 삼간집 영 짓으는 거 봐 난마씨?

#1 응.

@1 어떤 식으로 짓읍디가? 집 짓을 때.

#1 집 짓을 때?

@1 응. 뭐부터 짓읍디가? 땅 다지고.

#1 땅 다지고. 자, 자로 재어근엿에 줄 심어근엿에 행. 잘 헤근에 어디 어디에 위치 정헤근엿에. 어디 이거 주춧돌 놓 거 어디 놓곡 어디 놓곡 어디 놓곡. 어디 놓고. 게근엿에 그 이제 그 지동을 우선 세와.

@1 예.

#1 지동을. 게근엿에 세와근엿에 허면은 지동 씨러지지 안허게시리 작데기로 다 받쳐.

@1 응.

#1 작데기로 다 받쳐놔근에 게근엿에 상므루든 이거 이제 와근엿에 놓젠 허면은 ㄹ이 서리덜을 영 행, 거 지동 상므루 닦은 것들을 딱딱딱딱 걸청 그디? 지 거의 가. 게민 그 상므루는 쥬 냉중에 놔.

@1 쥬 냉중에예?

#1 게민 냉중에 놔근에 허면은, 걸 헐 때, 그때 그 시절에는 못, 못이 귀허니까 낭못을 줘, 낭못을.

@1 낭못예?

#1 나무못. 아까 얘기헌 뭐 거는 거 여기 지동에.

@1 예, 공장처럼.

#1 그런 식으로 끌로 다 파근엿이 헤근엿에 박아. 경 헤야 그게 움직이질 안허고 털어지질 안헌다 이거라. 그처럼 헤근엿에 잳아가명 만들엿근엿에 다 완성시키면은 그다음에 대가 많은 디는 대로 헤근엿에 여꺼근에 그레 영 행 쫘아근엿에 거 허곡. 또 그런 것이 엇이면은 설피엔 헌 것이 이 ㄱ는 영.

@1 낭.

#1 손가락 ㄱ처럼헌 거 낭 ㄱ튼 거 그런 거 엇이면은 소낭이라도 영 깨영,

질게 깨영 헌 거 해근에 깨어근에 둥글렁둥글렁허면 튀어나오고 무시거 허곡 허난, 경 해도 흐쓸 덜 튀어나오게 허젠 허면은 그 저 그런 낭가쟁이 걸쳐근에 이제 무시거나 베로. 무신거라? 새끼엔 허나?

@1 새끼 꼬양.

#1 응, 새끼로 해근에 영 다 무썩 얼거놔근에 밀려나지 안허게시리 헤영 허여근엔에 헌 다음에는 다 헤 놓으면은 흐루에 집을 짓어지는 게 아니.

**흑질**

@1 예.

#1 멧 날 메칠 걸려. 그거??장 헐 때??지. 경 해근에 그다음에는 흑질이엔 헌 게 들어가.

@1 예, 흑질.

#1 흑질, 흑질. 게문 구르마로 막 흑을 이제 파근엔에 허곡. 땅 존 디는 마당 파근엔에 마당 팡 그 흑으로 해근에 허는 수도 잇긴 잇고. 게문 그때 검질은 제일 쉬운 것이 뭐냐 허문 보리짚.

@1 예.

#1 그다음에 썬 먹어난 저.

@1 대취.

#1 저 그 풀 그런 거. 경 안 허민은 그 검질 불 때젠 허니까 이제 풀 비어 다근에 그런 거 해근엔에 게문 그땐 그런 걸 작두로 썰어. 썩 안 허민 장호미로 기치나. 썩 해근에 그 흑 잇는 디. 흑을 어떻게 사람으로, 엇은 디는 사람으로 꾸엇지마는 잇인 집들은 소나 말이나 그걸 영 불, 그디 담아놔근엔에 막 돌리멍 밝은다 이거라.

@1 예.

#1 게문은 그 밝아가고 뭐허고 허문 흑물도 올라오고 뭐허곡 헤가문 이제 따시 가근에 검질을 또 뿌려. 썩해근에 헤가문 이제 썬시령으로 이제 그걸 잡아 덩겨근에 어퍼. 게문 흑 잘 허꺼지라고. 썩 행 썬로 잇인 집들은 썩 허고, 엇은 사람들은 이녁 사람으로 발로 불라. 그췌룩 해근엔에, 게문 진 사다리, 지금은 알미늬 사다리도 뭐 잇고 허주마는 옛날에는 아까 서리, 이 지붕에 이 는 서리이.

@1 예.

#1 서리 그런 걸로 사다리를 만들앙. 게문은 이디서 퍼주는 사름, 날라가는 사름, 올리는 사름, 그디서 흑 꺾는 사름, 게문 천장에. 오늘 보니까 흑으로 깨 곳이 불라져십디게.

@1 예, 예.

#1 갱 헤논면은 이제 능중낭중 트멍으로 나와, 그 흑이. 게면은 그자 그 나온 것만 그자 영 물 빠지른 기차불면은 이젠 걸로 끄이지. 게면 그다음부터는 이젠 집 이는 걸로 들어가야지.

## 집 일기

@1 집 일젠 허면은?

#1 집 일젠 허면은 우선 각단을 먼저 헤와, 각단.

@1 각단에.

#1 각단이엔 현 거 알아지쿠과?

@1 예.

#1 각단. 저 새보다 쫄른 거. 웨 그게 필요허냐? 지금은 엇으난 새로도 줄 낚실지 모르겠지마는. 그걸로 막 헤다근앵에 각단을 줄 헐 만큼, 현 식구들이 다 나가근앵에, 가근에 헤와근앵에 멧 날 메칠 헤근앵에 허믈. 다 집집마다 자기네들 집을 일어야 될 거니까 가근앵에 흐끔이라도 일찍 일어나고, 흐끔이라도 빨리 가근앵에 헤근앵에. 막 멧 날 메칠 가근앵에 집줄 놀만큼 정도 가근에 헤오믈게. 남을 정도로 헤와야지. 모지릴 정도로 헤오믈 것도 안 좋아. 게난에 헤다냥 그다음엔 뭘 허느냐, 새를 허기 시작허는 거라, 새

@1 각단 먼저 현 다음에예?

#1 응. 새는 일다근에 모지레믈 남은 집도 잇어근에 꺾을 수도 잇고 사올 수도 잇고 허지만은 각단은 꺾주거나 뭘 풀아주거나 그런 일이 없어. 다 이녁 집이마다 헤부니까. 방법이 없어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는 알 찢를 거엔 헤근앵에. 집을 일젠 허민 알 찢를 거.

@1 예.

#1 알 찢를 거를 가근에 이젠 헤오는 거라. 게면 알 찢를 거는 뭇로 헤오느냐. 그냥 아무 잡풀이라도 헤오는다. 뭇 수 잇으면 좀 썬 걸로, 저 뭇냐.

@1 어욱.

#1 어욱, 어욱 그런 거. 게면 막 긴 거는 또 것도 안 좋아. 영 헤근에 각단보다 흐쓸 저 그 정도나, 그 정도보다 흐쓸 긴 걸로 헤여근에. 그것은 흐쓸 부력지가이 굵거든, 각단보다는.

@1 예.

#1 게난 그걸로 헤근앵에. 거 헤다근에 딱 놀영 놔뒀당. 집을 일젠 허면은 아무 날이나 이는 게 아니라.

@1 예. 무슨 날.

#1 장 담는 것도 아무 날이나 담는 게 아니고. 집 이는 거허고 저 장 담그는 것은 반드시 이거 육갑을 잘 지프를 줄 알아야 돼어. 육갑을 잘 지폄느냐 못 지폄느냐 허곡, 일기를 잘 봐근엥에 헤근엥에 헨다 이거라. 게면은 육갑을 잘 지프는 사람안티 가근엥에 어느 날 집 일어근에 좋암직허파? 우리. 게면 이녁 일도 바쁘주만은 집 일젠 허민 열일을 제쳐놓고, 그날은 건 아까도 말헛지만은 켈 급헌 일부터.

@1 예.

#1 그다음에 헐, 다 일헐 거부터. 그다음 이달부터 헤영 허는디 그것도 급한 일이라. 장 담는 거 허고 세 가지라. 장 담는 거, 김치 담는 거, 집 이는 거. 첫째 집 짓는 것이 집이 일 년에 헐 번. 것도 마찬가지로. 장 담는 것도 일 년에 헐 번이지, 두 번 안 허거든. 김치 담는 것도 일 년에 헐 번이거든. 게난에 딱 그거 세 가지는 딱 헤난에. 집 지는 거만큼은 반드시 택일을 더 잘헤야 웬다. 웨 더 잘헤야 뉘느냐. 브름이 불려도 불려나지 안허게끄름 헤야 뉘고. 그다음에 그 뉘 이 저 뉬이나 옛날에는 이. 지금은 참새엔 헐 거. 옛날에는 걸 밥주리엔 허거든.

@1 밥주리.

#1 밥주리엔 헤근엥에. 저 참새 들어와근엥에 막 알에 찹을 영 빼내뉘근엥에 그디 집 짓어근엥에 자기 알 낳곡 새끼 헤근에 허곡 허른 베염이 뉘겨.

@1 응.

#1 베염이 또 뉘기고. 그 또 집이 허술헤놓니까 베염도 잘 뉘겨. 쟁허고 이 족제비도 뉘겨근엥에 허곡 허니까. 게면 그기서도 제일 첫째 꼽는 것이 날짜를 잘 보고 꼽는 것이 뉘냐. 화일을 피허라 이거야. 화일, 화일을 피허라 이거야. 게면 화일을 어떻게 어떤 사람이 잘 아느냐.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지퍼야 잘 지프는 거냐. 어떻게 헤야 해석을 잘허는 거냐. 그것을 알아야 뉘는디 요즘은 그게 없어. 요즘은 시대가 좋아놓니까 방송국에서 언제 브름 분다, 아니 저 기상청에서 언제 무시거 브름 분다, 언제 뉘 태풍이 뉘 호 올라온다, 뉘 비가 언제 저녁 때 온다, 아침, 낮이, 아침이 온다. 뉘 이런 식으로 영헤근에 영 헤쥬 놓니까 좋은데.

@1 화일은 언제우파?

#1 응?

@1 화일은 언제라?

#1 언제, 화일은? 그때 다 틀려. 웨 틀리느냐. 거 아무케나 뉘 지정헤 불민 아무라도 그날 피허민 뉘는디, 그날 초허루가 무슨 날이냐, 그날 보름날이 뉘 날이냐, 일월이냐 이월이냐 삼월이냐. 그 세 달 중에 주로 그, 그.

@1 집 짓을 때.

#1 그 세 달 때 그때가 집을 주로 많이 일어. 다른 사람한테도 강 들어봅서 마는. 나가 뭐 집 일거나 그런 건 아니고. 겐디, 그때 가서 그 화일을 이젠 우리 언제, 언제 읍서, 아이고, 그때 잔치도 있져, 어디 뭐 불일도 있져, 이제 조상이 갑자기 난다 이거라. 사람이 죽어근에 해 불은 것도 날 받아놔도 안 된다 이거라. 게문 안 돼니까 이젠 그걸 피, 그것도 피허고 저것도 피허곡 해근에 화일을 해근엔에. 날짜가 지나가고 념영 이달이 지나가곡 이날이 넘어가곡 이달이 지나가곡 다음달이 가곡 또 그다음달이 가더래도 그 삼 개월 이내에는 해야, 반드시 해놔야 된다 이거라.

@1 예.

#1 겐디. 줄을 놓는 것도, 경 저, 정성들여근엔에 허는 사람들은 날짜 봐근엔에 날 뜻은 날, 경 해근엔에 화일은 아니라도, 웬만이 그자. 베염날 아니고 영 해근에 뭐 현 날은 경. 줄을 머, 미리 낳 놔둬야 줄을. 미리 만들영 낳 놔둬야.

@1 게문예, 삼춘. 그 우리 띠가 열두 개 아니꽈예?

#1 응, 그렇주.

@1 보통 집 일거나 이럴 때 어느 띠 할 때, 아까 뱀날 안 되는 것처럼 뭐 종이날도 안 돼고.

#1 응. 종이날도 안 돼고.

@1 그런 띠로 안 되는 날도 이수과?

#1 저, 줄 놓는 거?

@1 예.

#1 아, 집 이는 거?

@1 응, 집 이는 거.

#1 집 이는 거. 집 이는 거 그런 건. 거. 그것도 잊지마는, 그것도 잊지마는. 그 열두 띠 중에서도, 띠도 띠만큼 잊어이. 몰도 몰 나름이라이. 게문 백말띠는 경오생이 백말띠이고, 임오생은 가라물띠라 이거라. 가라물띠 알아?

@1 예. 거멍헌 거.

#1 응. 그다음은 이런 띠가 있어예. 게문 그 띠 중에서도 그날에 뭐에 걸리느냐. 게문 갑자을축하면 해중금 한다 이거야. 해중금. 바다 가운데 금이다 이거야이. 병인정로가 뭐냐. 게문 노중화다. 불 허리 가운데, 불 가운데 불이다 이거라이. 불 가운데 불. 가운데 불이다 이거라. 화리에, 화리에. 게난 옛날에는 화룻불을 많이 영 해근에 허난. 그걸 가지고 허곡. 그 집안에 대주가 누구냐. 대주는 누구꽈?

@1 대주는 남자 삼촌이주.

#1 아, 그렇주. 그 대주가 무슨 그런 것에도 걸리지 안허고. 그 저 뭐에도 허고. 영 해근에. 그디 잘못허면은 집 일레 뭐 허는 거. 집 이는 사람이나 본인이 일 거면 본인도 허지마는, 놉을 빌영 해도 집 이는 사람이 씨러지거나 내리치거나 다치거나 뭐 허면은 안 좋거든. 그렇지 았우파게.

@1 맞수다.

#1 요즘도 건축허는 데에. 공사허는 데 안전사고 방지라고 해서 그거 미리 맨 앞에 세우지 안 허여?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쟁 해근엔에.

@1 좋은 날 택일 허영.

#1 어. 좋은 날 헤영.

@1 집 일어 봅서.

#1 집을 이는 디는, 나는 일해보진 안헛지마는. 집 이는 디는 현 사람만 이는게 아니라. 손발이 맞아야.

@1 예.

#1 거짓말도 어떠면 짹짹헤연에, 이추룩 조금 어느 정도 통헤야 허지. 둘이서 의논헤근엔에 허듯이. 그런 식으로 그 저 밑에서 일허는 사람, 지붕 위에서 일허는 사람허고 다 틀려. 밑에서 허는 사람덜은 탁 새 지고 일 것을 올려주면은 지붕에 잇는 사람덜은 양쪽에서 받아놔. 그 저 올려 놉, 받아놓면은 반쪽을 나놔나. 게문 저 뒤편도 잇고 앞편도 잇고. 이렇게 오른쪽도 잇고, 왼쪽도 잇고. 게니까 이제, 그것을 그디 깔아논 딜로 텅기면은 그것이 다 밀려나 분다 이거여, 그것이. 밀려나 불어. 게니까 집 일 사람들은 다 올려놓민, 받아놓면은 뒤트레 먼저 멧 못, 옆드레 양쪽으로 멧 못. 쟁 해근에 앞드레 멧 못 헤근엔에.

@1 보통 삼간집 허젠 허면 새 멧 못 정도?

#1 아, 그것까정은 몰라. 그때 나가 헤박시믄 알 건디.

@1 맞수다.

#1 걸 아니 현. 게난 이론적으론 쟁 해근에 허는데. 육지 집 이는 거허고 여기 집 이는 거는 완전히 틀려예.

@1 예. 맞수다.

#1 육지 집은 이영이라고 해서 허여근에 허는데. 그거는 이, 이, 대나무 침을 주거나 무슨 나무 침으로 쥘근엔에 영헤근에 헤가멍 허는데. 우리는 그런 식이 없어요, 이.

@1 응.

#1 기냥 이것이 새다, 이것이 새다 허믄 이렇게 사십오 도 각도가 뉘 부니

까 집이.

@1 예.

#1 게니까 이거 밑에서부터 깔아 올라가는 거여. 저 위에서부터 깔아올 수는 엇고 허니까. 이게 물이 우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아래서, 우에서부터 깔아와근에 경혜근에 헤 불면은.

@1 안 뵈주예?

#1 거슬러 불면은 안 뵈거든. 게니까 순리적으로 허젠 허민 밑에서부터 깔아올라가야 뵈다 이거라. 게믄.

@1 보통 집 일젠 허면 지붕 위에는 멧 명이서 입디가?

#1 두 사람이 헤야 뵈, 두 사람.

@1 두 사람이.

#1 두 사람이. 세 사람 허믄 더 좋주마는.

@1 보통 두 사름예?

#1 두 사람이 헤야 좋주. 겐디, 게야 존디. 뭘 빨리 허젠 허믄 것도 오전이부터 시작헤근에 아침 밥 먹으면은 시작허면은 그때 그 시절에는 지금으로 생각허믄 헛 으덥 시나 아홉 시쯤에 뵈 될 거라. 쟁 헤근엔헤 허면은 거의 빨리 허는 사름들은 한 낮이면 그거 다 더퍼, 더프는 건. 쟁 헤근에 더퍼근엔헤 허면은 집줄을 매기 시작하는 거라. 게믄 집줄을 거 아래서부터, 집줄도 매는 것이 딱 헛 군데로만 매는 것이 아니거든. 이 진줄부터 먼저 매어.

### 집줄 매기

@1 진줄부터예?

#1 진줄부터 짝 매어근엔헤 헤 놓곡 허면, 밑에 사름들은 뭘 허느냐. 게믄 진줄부터 우선 먼저 매고, 7로 저쪽에 거 7로 밀곡 웬짝 7로 밀고 오른쪽 7로 밀곡 저 영헤근에 무끄곡 헤어놓곡 그다음에 또 이제 가운데로 장.

@1 예.

#1 그것을 하나 행근에, 행근에. 게믄 거왕대에 그것을 멧 번째, 저 가운데 거는 거왕대 반드시 반, 중심에, 그디 그레, 그디 그거를 잘 좇아근엔헤 메라 영헤근에 위에서 하달을 헤여, 명령을 내려. 쟁허면은 그걸 앞에 사름은 앞에 거왕대 매고, 뒤에 사름은 뒷거왕줄을 매곡. 게믄 거왕줄 매는 디 줄 매는 사름이 둘이라. 줄, 거기도. 워냐허믄 이 왼쪽에 하나 잇어야 뵈곡, 오른쪽에. 왼쪽에 가라, 오른쪽에 가라. 명령 내리민. (웃음) 쟁헤근에 매야 뵈어. 쟁헤근에 영 헤야 새가 밀려오지 안허게 허젠 허난게.

@1 예, 예. 맞수다.



#1 경 허젠 허난에, 그걸 경 허난에 경 헤근에 메는 거라. 쟁 헤근에 딱 헤 근엥에 어느 정도 그 저 헤 놓면은 우에 가면은 마무리헤근에, 그 우에 \*\*상 구박두 거는, 헛 그거는 잘 모르겠네. 헛 멧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즘음에 아랫줄 두 번이나, 세 번쯤 멘 다음에 그걸 먼저 무끄는 건지, 가운데 줄 먼저, 그 \*\*상구박두 거를 먼저 무끄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

@1 예. 그건 확인허민 뉘 거고예, 쟁 행 다 무꾼 다음에. 그 거왕대 무경 메 칠 줍자나근에 딱시 무끄는 거 아니우꽈?

#1 아, 그거는. 그거는 메칠 줍자낭 무끄는 게 아니고, 건 조금 저 북름만 안 불고 무시거허꼭 허면은 비도 안 하고 허여근에 허면은.

@1 땡겨근에.

#1 땡겨근에. 집 주인이나 친척들이나 와근엥에 이거 헛쓸 메도, 다시 등기 멧 메도라 영헤근에 헤근에. 멧 번째 줄 영헤근에 허는 헛 사람만 메도 되는 거.

@1 응.

#1 앞으로 영헤근에 즘근즈근 등기멧 메낭. 또 영 돌아가멧 영 또 절로 강 딱시, 딱시 등기멧 영 헤근에 메곡 행근에 영 헤근에 허민 헛디. 그 첫 번째 집 다 일면은 허는 일이 뭐냐 허면은 단발을 해야 돼어.

@1 응. 단발 해야주.

#1 단발 해야 돼어. 웨냐민 것도 ㅋ짱허게 허면은. 이거 이제 집지스령이다 영헤영 하령이다 허면은 영행 요만큼 나오게시리 일거든. 게민 이건, 이건 ㅋ짱허게시리 이것은. 요새는 ㄱ새도 잇꼭 허난 허지 옛날은 ㄱ새가 막 귀헌 물 건이난. 옷 찢르고 귀지 찢를 때만 헛지, 그런 디 잘 쓰젠 아니 허여. 게난 호미로 헤근에 슬째기 잡아근엥에 등기지도 아니 허멧. 꼭 누들멧 헤근엥에 경 헤근엥에 기차야 된다 이거여. 게난 호미도 잘 곶아근엥에, 날, 놀 잘 들게시 리 헤근에 그추룩 헤근에 요새는 신식이 뉘놓난에 ㄱ새로 가근에 영헤근엥에.

@1 삼춘 아까 그추룩 헤근에 집 짓엇잖아예. 알은 언제 박을 거우꽈? 알 박는 거.

#1 알 박는 거?

@1 아까 알 찢를 거. 저기.

#1 아 그거. 헛자녀게, 아까. 아까 아니현?

@1 집 인 다음에 알 안 찢릿수게. 어욱만 행오고. 어욱만 헛주.

#1 아니, 집 일젠 허면은 처음 허는 일이 뭐냐. 거 안 곶아져신가?

@1 예게.

#1 게민 다시. (웃음) 게민 그 집 일기 전에. 알부터 먼저 찢러.

@1 아, 알부터 먼저 찢른 다음에 저기를 하는 거예?

#1 응. 그다음에 집이 일 사람들이 알부터 먼저 다 지붕 올라가기 전에 알부터 먼저 다 찢러. 저 그 올라가근엔에 집 일 사름이. 게문 아래서 찢러지는 디는 아래서 찢르주마는 지붕 야픈 집은 경 뉘주마는 아래서는 사다리나 안 놓으면은 알 찢르지 못허거든. 게난 지붕 위로 올라간 사람이 알 찢러. 올라.

@1 올라가근에.

#1 올라강 알 찢를 거 올리면은. 쟁 찢른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집 이는 새를 더프기 시작허는 거. 쟁 헤놉근엔에 줄, 그다음에 다 일면은 줄 올려 헤근에 경헤근엔에.

@1 줄 이제 거왕에 다 무꺼근에 눈썹 찢르면 뉘는 거예?

#1 아, 거 이발허는 건 다 인 다음에.

@1 인 다음에예?

#1 인 다음에 그날 어둑어 불면은 못허고, 뒷날 허고. 어둑지 아녕 집 일씩 일어지민 그날 그 단발허는 거, 이발허는 것은 그날 허곡.

### 주춧돌

@1 게문예, 이제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크라예. 삼춘 알아지는 것만 골아주면 뉘. 아까 우리 주춧돌 봤수게?

#1 응.

@1 거 이 동네에서는 뭐렌 헙디가? 옛날.

#1 이 동네에서는 건 다 맞아. 다 똑같아.

@1 주춧돌.

#1 응, 주춧돌이엔 허여.

@1 주춧돌 역할은 뭐우파?

#1 그건 기둥이, 기둥이 움직이지 말고 기둥이 굳작하게 잘 세와근에 든든 허게 허젠 허난 그거는 반드시 그걸 깨끗이 이 율이 보담도, 율이도 깨끗허게 시리 헤지민 좋지만 저, 냉가돌 모양으로, 냉가돌은 일본말이지. 저 벽돌 모양으로 깨끗이 삭 니 귀가 ㅋ짱허게시리 헤지면 좋은디. 걸 허젠 허문 멧 날 멧 렉 공력 들여근엔에 이젠 그 겐노로 페어놉근에 그다음에 저 뭐냐 자귀로 돌 차귀엔 현 게 잇어, 또.

@1 돌차귀.

#1 돌차귀로 헤근에 독독독 좇아근에 옛날 ㄱ레 만들듯이. 쟁헤근엔에 그 나물 편안하게 영 헤근엔에 아메도 반듯헌 디가 낭 세우기가 좋지 안헤게?

@1 예.

#1 계난 그런 식으로 해근에 다 만들어 논 다음에 이제 다 갖다놔근엔에 그 디 또 다지기도 허고.

@1 음. 다지기도 허고. 계난 추춧들은 기둥 세울 때 밑에 놓는 돌이라예?

#1 예.

### 지둥

@1 그럼 지둥은 멧 개나 필요합니까?

#1 그건 나가 집을 안 짓어부난 건 잘 모르겠네.

@1 건 모르고예?

#1 응.

@1 혹시 지둥이 쫓지둥이여 개윗지둥이여 헨 말 들어봣디가?

#1 응? 쫓지둥?

@1 응, 지둥, 그런 얘긴 안 들어보고예?

#1 응.

### 대들보

@1 포는 멧 개 잇는 것도 모르고? 아까 대들포 잇고.

#1 응. 거 대들보는 쥘 위에 것이 대들보엔 해근엔에. 상량할 때 용호헝 쓰 고. 거기 무신거 글자가 써 잇는 게 잇어. 쟁 우리 집도 보면 그 어디 좃아보 민 잇일지 모를 거다마는. 그다음에 그 영 영 그 대들보에서 밑으로 이디??지 넘어오는 것이 보가 하나 둘 셋 네갠가? 건 잘 모르겠네.

@1 예.

#1 그 정도 쥘 거라.

### 서리

@1 삼춘 옛날에 집 헐 때는 아까 서리도 헛잡아예. 낭, 서리. 보통 그 서리 낭은 무슨 낭으로 허는 거?

#1 그때는 저, 소낭이 주로 많으니까. 소나무가 많으난 헨디. 소낭이 저 귀 헨디는 저, 산 오래 헨 디는 저 웃드르 가근에 고지 가근엔에 그 낭, 그디 강 그차당. 것이 곧작곧작 그걸, 곧작곧작 길어야 뉘거든. 계난 쥘 수 잇으믄 썩 대낭이나.

@1 예.

#1 계, 아니믄 소낭이나 주로 많이 헤신디. 그 거 엇인 디는 거 어디 고지 덴기당근에 방 켜 거 이시믄 아, 이, 이거 서리낭 좋기여, 해근엔에 일부로 하

나 시경 구르마에 부짱. 부짱 왕 낫당 모양 낫다근앵에 풀기도 허고 이녁네도 쓰고 경 해근에 허곡.

@1 계난에 그거는 서리 이렇게 걸쳐 갖고 허는 거고, 그다음에 집 일젠 허민 그 안에 아까 이제 설피, 설피로 해근에 영.

#1 설피 꿀앙.

## 설피

@1 꿀앙 헌덴 헛잖아예? 설피가 뭐우짜?

#1 설피. 설피엔 헌 건 게, 그.

@1 낭 깨어근에.

#1 아니, 낭이 영 행 잊이면은 ㄱ늘고, ㄱ늘고 가지가 막 이레저레 막 경 헛지 안 허여게. 경 허민.

@1 예.

#1 계난 그것을 허는 설피는 뭐냐하면은, 다른 그런 것은 이거 허면은 설피가 잊이니까. 흑이라도 흑질허영 꿀면은 구녁이 족으니까 벨로 많이 빠지지 아냐 이거여. 경 안 허민, 대로 허면은 대 쪼개여근앵에 저 무시거 발 만들듯이. 그처럼 행 해야 흑이 얼마 안 빠지거든게. 흑질헌 흑이. 경허난 계난 주로 그 설피로 주로 많이 허젠 헤. 그래서.

@1 아, 설피는 입사귀 이렇게 넓은 그런 낭들을 꿀아근에 헌 거구나?

#1 어, 어. 그거는 입사귀가.

@1 팡팡낭 같은 거.

#1 껍팡낭이여 무슨 낭이여. 무신 그런 이름들이 많지 안허여. 게민 입생이는 다 털어져 불고게.

@1 예, 가쟁이만.

#1 요런 가쟁이들만 요런 거 막 부떠 잊지 안허여게. 경허민 아멩헤도 흑영 꿀아나근앵에 흑질 갖다근에 영 헤 놓고 허면은 영 알로 빠지는 율이 쪼금 덜허거든. 경 우게서 영해근에 허민. 게민 그 흑을 많이 더퍼져야 뉘거든. 웨 더퍼져야 좋으냐. 단열이 뉘야 뉘 거고 단열이 뉘면 집도 뜻으고 또 브름도 덜 들고 경 해근에. 요즘은 뭐 유리창문으로 해근에 뉘로 해근에 뭐 허곡 허난 방풍장치를 잘 해근에 허난 헌디. 옛날엔 그런 게 엇거든게. 계난 잘 허민 제일 저 종이 불른 데는 문풍지엔 해근앵에 그 달타령 나올 때 그런 그 무시거로 쟁해근에 문풍지 시월은 뭐 문풍지 다는 식으로 해근에. 문풍지 해근에 허면은 또 놀개도 듣져.

@1 응.

#1 웨 듣지느냐 허면은 그계 놀개 듣진 것이 또 바람방지라. 쟁해근에 허곡. 계난 그 대문은 저 상방문은 그런 거는 이 그디 잠을 자는 사람들은 게도 무시거라도 영 흐쓸 치나 뭇 허나 영허민 것도 의진 뉘고. 쟁 해근엔에 검질 끌아냥 자곡 허난 그 저영 북덕방인가 해근엔에. 북덕방이, 북덕방이렌 헛일 거라. 북덕방. 검질 끌아냥 자는 방.

@1 북덕방, 북대기방, 북덕방.

#1 이, 이, 북덕방.

@1 계난 그 삼춘예. 아까 대를 허든 설피를 허든 해근에. 위에 흑을 올리지 안헛니까양. 그 흑은 무신 흑이렌 헛디가? 흑시 알아지쿠과?

#1 응. 그 흑?

@1 뭇 올리라. 이렇게.

#1 아니.

@1 고데 올리라. 고데흑

#1 고데? 고데. 고데흑이엔도 허긴 맞으긴 맞을 거라. 고데흑이엔 헛 거는 높을 고 자, 이. 인다 해서 일 대 자.

@1 어쨌든예. 그, 고데 그 말은 앓고. 그다음엔 또 뭇가 잇냐면, 그 돌들 싸짱아예? 축들예. 돌 쌓는 건 언제 싸?

#1 돌 쌓는 거?

@1 예. 아까 지붕은 다 일어 불어신디. 돌 싸는 건 안 헛.

#1 아, 그 집 짓을 때. 그 저, 뼈다구 저.

@1 칸 갈라근에.

#1 세와근엔에 헛 수, 헛 때도 잇고. 쟁 아니 허면은 담부터 문저 쌓놔근엔에 저 헤여.

@1 응. 담부터 싸 놔근에예?

#1 담부터. 이거 멧 칸 집 허면, 멧 칸 집 짓을 거 허면은 다 줄 떼어놔근엔에 이거 장축 꺾돌을 다 놔. 장축 꺾돌 여기, 여기 허곡. 양 귀떼기 허면 딱, 발르게 해근에 게문, 그걸 면을 보는 거라이.

@1 예.

#1 이, 이 면을 보는 거라. 게문 요것은 집안에다. 이것은 집 베끼디다 허민, 흑 발른 데 잇지 안허여? 그쪽에는 멘짜헤야 된다 이거라. 민짜헤야 뉘고. 요쪽에는이 시간이 엇곡, 바쁘니까. 또 이것꺾장 다 헤지문 이디도 멘짜허게 이거 벽돌같이 헤지면은 좋은데, 거 못헛 경우에면은 인력은, 헛 일은 옛날엔 농사일이니까, 농경시대니까 할 일은 많으니까, 게니까 이젠 막 사름이 많이 와근에 헤지문 빨리 빨리 헛 좋은디 쟁 못헛 경우에는 이 속에가 엉망진창이

라. 게문 여기는 엉망, 엉성해야 된다 이거라. 워 엉성해야 됩느냐? 민짱헤 불  
문 흑을 못 발라. 게난 엉성해도 민짱허게 불르는 거라. 게문이 이 집을 짓젠  
허민 혼 멧 달 걸려. 웨냐허면 이거 이게 그냥 뭐 조끔씩만 담는 게 아니고,  
그, 그냥 갖당 막 친다 이거라이. 게문 돌은 무너지진 안허여.

### 흑질

@1 응.

#1 요 혼 주먹씩 행 탁 탁 치어근앵에 막 그레 드러 데끼는 힘이 헤근에 흑  
이 들어가렌 헤근에 헤놓민은 그다음에 또 뭘 허느냐, 거기도 흑을 꾸어근에  
흑을 띄시 발라. 쟁 그 말르젠 허면은 말르젠 허민 혼 두어 돌 서넉 돌 경 걸  
려, 것도. 게민 집 경헤근에 헤놉근앵에 집을 만들어 논 다음에 쟁헤근에 허  
민, 경 허민 허영창 뉘근에 문이 없으니까 브름은 잘 통허니까. 쟁 그걸 물론  
다 이거여. 물론 다음에는 이제 그때는 신문지로 불르든 무신 뭇로 불르든 헤  
근에 경 헤근에.

@1 쟁 그추룩행은에 이제 하는 거고예?

#1 응.

@1 게문 그 담 쌀 때.

#1 예.

@1 흑 놓멍 쌓습니까, 혼 도리, 두 도리 놓니까? 아니면 담부터 민짱허게  
싸난 다음에 흑질합니까?

#1 게난 그때 엇인 사름들은 것도, 집 짓는데 방법이 틀려이?

@1 예.

#1 웨 틀리느냐 허민 요즘도 잇는 사름덜은 빨간 벽돌로 허, 허, 짓는 사름,  
콘크리로 짓는 사람 영 행은앵에 허는데. 그때 그 시절에는 형편에 따라서 틀  
려.

@1 응.

#1 웨냐허민 잇인 사름들은 아까 식으로 이거 외, 외벽면이 깨끗허게 먼지  
저 헤근앵에 헤놉근앵에 허, 허는 사름도 잇곡, 그냥 엇인 사름은 능중낭중허  
게시리 헤근앵에 영 행 바깥면만 흑쓸 영 영 발라불민 그냥 놓곡 헤근앵에, 흑  
놓멍 헤근앵에 다 경헤근앵에 싸놉근앵에 이 안에는 얼크럭덜크럭 튀어난 것  
도 잇곡 들어간 것도 잇곡 막 헌다, 이거라.

@1 응.

#1 게난 이제 그걸 발루기 위해서 흑질을 헤근앵에 그걸 이제 또 말, 어느  
정도 그 집 올려 짓인 다음에.

@1 어.

#1 짓인 다음에는.

@1 어.

#1 이젠 문이 없으니까 바람이 막 삼.

@1 예, 예.

#1 동서남북으로 다 터지니까 바람이 불어오는데 허곡, 비도 오곡 허곡 허민  
이게 말리젠 허민 혼 두어 들, 서낙 들 말려야 뉘어게.

@1 응.

#1 그처럼 행은에 게난 방법이 틀린 것이 뭐냐하면 잇인 사름, 엇인 사름  
차이가 그때도 잇었다 이거라게.

@1 예, 예.

#1 가족이 많은 사름도 잇곡 족은 사름도 잇곡 헤 놓니까.

## 튀기

@1 맞수다. 경, 경허고 삼춘예, 집 짓이민 안에 백혈 때, 그 백혈 때는 그냥  
허지 안허영 거기 대나무나 뭐 영 헤 갖고 허지 안합니까?

#1 아, 그거는.

@1 튀기.

#1 건 튀기 허는다.

@1 응.

#1 그거는 어디 허느냐, 허면은.

@1 응.

#1 방, 방, 방과 이 방과 이 고팡 사이.

@1 예.

#1 거기는 올쿠룩돌쿠룩 돌로 쌓을 수가 엇잡여.

@1 예, 예.

#1 경허니까 그 대, 대, 대로나 그, 그디도 저 거 뭐, 뭐냐, 설피나 낭 깡 거  
나.

@1 낭 깡.

#1 깡 거나 행은영에, 게문 기둥이 좀 이 두꺼우니까.

@1 예.

#1 그 기둥 안에만 헤근영에 혈 정도민 이제 흑질해도 양면이 깨끗할 거 아  
나라게.

@1 응.

#1 게문 백장 밑에도 그것이.  
 @1 들어가고.  
 #1 들어가야 돼어. 백장 우이도 들어가야 돼어. 웨냐하면은 그걸 끌어근엥에, 게난에 그것이 그.  
 @1 그게 튀기렌 허는 거, 여기서.  
 #1 어, 튀기, 튀기.  
 @1 게난 벽, 집 베꼈디 말고 안에 벽들 할 때는 튀기로 이제 하는 거라예?  
 #1 으으.  
 @1 쟁 튀기허고.  
 #1 응.  
 @1 그다음에 이제 문도 짜야 뉘 거 아니?  
 #1 응.  
 @1 응, 그다음 문 튀기, 튀기 현 밑에 영 빈지널은 안 헛수과?  
 #1 응.  
 @1 빈지? 빈지렌은 안 들어봄디가?  
 #1 빈지 뭐, 빈지는 예, 들어나기도 허고 안 들어나기도 헛주마는, 저 그 빈지엔 현 것은.  
 @1 튀기현 밑에 널로 영 \*\*\*\* 거.  
 #1 그런 거는 거, 그.  
 @1 거는 통과.  
 #1 아니, 아니.  
 @1 응.  
 #1 그냥 그 튀기로 행은엥 허난이 흑으로 민작허게 블라불민 종이 블르게 좋게 해서 그 튀기를 허는 거거든.  
 @1 예.  
 #1 게난 그거는 거 허는 디도 잇고 아니 허는 디도 잇곡.  
 @1 어. 맞수다. 허는 디도 잇고 안 허는 디도 잇고예?  
 #1 응.  
 @1 그다음 삼춘, 흑질허젠 허면 동네 사름들 다 모다들엥 헤 주고 허잖아예?  
 #1 아, 물 질어 오는 거.  
 @1 물 지는 거, 응.  
 #1 그거는 이 그때는 수도가 없으니까, 호수도 없으니까, 방법은 물허벽으로 이 질어오는 물벧긔 엇어.



@1 응.

#1 경허니까, 거는 동네 다 부주라. 누게네 집이 흑질험저, 와근엥에 물 흐  
쓸 질어다 도라 허른 동네사름들 질어다 주렌 안 헤도 험젠 허영은에 다덜 모  
다 들영은엥에 혼, 혼, 혼 집이서 와근엥에 혼 다섯 번 만이 혼, 혼, 혼 사름  
이 다섯 번씩만 헤도 다섯 허벅이거든.

@1 응.

#1 겨른 이십 리터씩이민 혼 백 리터쯤 돼거든.

@1 응.

#1 게른 그 사름들 그냥 그냥 막 가부는, 바쁜 사름은 물만 질어다 줘뵈  
가부는 사름도 잇주마는, 경 아니민 건 오후에도 질어다 주는 사름덜이 잇어  
게. 경허른 이 집이서 점심도 먹곡게. 흑질허젠 허난게 일허는 사름이 많으니  
까, 그추룩허영 헤근엥에.

@1 응.

#1 게른 그건 동네 부주라게. 게난 다시 말하른 방언으로 말허면은 수눌음  
이라.

## 집 종류

@1 응, 맞수다예, 수눌음이엔 헝은엥에 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그 강운봉  
초가는.

#1 응, 강운봉.

@1 예, 집이 네 칸짜리예?

#1 응, 사칸.

@1 보통은 삼, 사칸집이고.

#1 응, 보통은, 보통은 그자 보통은 옛날에는이, 사칸짜리 집은이, 많지 안허  
여.

@1 응.

#1 경허른 삼칸.

@1 삼칸이 보통 아니라예, 삼간집?

#1 응. 삼칸집 그자.

@1 그다음, 이칸집 허는 디도 잇입디다?

#1 이칸집도 잇주게. 엇은 사름들은.

@1 이칸집은 뭐하고 뭘로 돼어 잇수과?

#1 방허고 저, 저 부억허고. 그, 저 경 헤근에 그, 그 저 아까 상방 헤난 디  
잇지 안 허여게.

@1 예, 예.

#1 그디, 그디 앞드레 헤근엥에 저 솟덕 걸엥은엥에 거 밥헿 먹고 허믄 건 이칸집.

@1 이칸집.

#1 게믄 쉼, 뭘 그런 건 못 허여, 메여. 그런 거는.

@1 응.

#1 겨난 방법이 없어, 거는. 엇은 사름, 겨난 옛날도 상하층이 있어. 상하층이 있어, 있어.

@1 응.

#1 지금도 무시거 허주마는.

@1 겨난 아까 이제 그 강운봉 허는 디는 사칸이라예?

#1 응.

@1 겨믄.

#1 건 새로 만들어 부난게.

@1 예

#1 고치난 게.

@1 고쳐 부난.

#1 수선허난.

@1 만약에 사칸집.

#1 옛날 그 집은 그대로 놔두지 못허지 안허여게.

@1 맞수다. 겨난 그 강운봉 봤을 때 우리 아까 거기서 헿지만 삼춘이 강운봉초가 구조. 맨 가운데는 상방이여.

#1 응.

## 구들

@1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웬쪽은 큰구들이여 헿 그 말을 곱아줍서.

#1 예, 큰구들.

@1 응.

#1 큰구들은 대주가 사는 방이고 제사 멩질허는 방이고. 그다음에 작은방은 할망이 거주허는 방이고 옷, 이불, 빨레 부인덜, 친척덜 오민 거기서 이 대화 허는 방이고.

@1 응.

#1 또 상방은 멩질.

@1 응.

#1 제사 때, 구들에 젓상 올려 불곡 허니까 앓일 자리가 엇잡여.

@1 응.

#1 계난 어쩔 수 없어. 상방에서 이거 다 주고받고, 지나간 이야기허고 앞으로 혈 계획허고, 계획도 허고. 또 뭐 앞, 앞으로 혈 일도 어떻게 허고 그런 무슨 철에는 무슨 뭘 어떻게 해야 뉘고. 누겐 장가보내, 언제 보내야 뉘곡. 누게는 언제 이 저 시집보내야 뉘고. 경 혜근에 누게네 집이 누게가 허고 경혜근에 허믄 그 제사, 말혈 시간은 제사 멩질 때뵈긔 엇어.

@1 예.

#1 요즘은 제사 멩질 때 허면은 이 싸움 바락이 나가지고 무신 뉘 경혜근에 허는디, 뉘 흐쉴 트집 잡앙은에. 그럴 일이 아닌데 어뎡 경허민 웃어른이 경 허민 영 허민 아, 그건 아니고 영 혜근에 차례로 영 혜근앵에 영허곡 허는디. 젊은 사름은 젊은 사름 고집으로 경 말허고 나이 먹은 사름은 거 순리대로 영 혜근에 헤고 경 어쩔 수 엇어. 건 어쨌든 간에 헤야뉘, 진행헤야 뉘 일인디 건 헤야 뉘, 경허지 안 헛냐, 경허멍 혜근에 허당 보면은 나중에는 또 불만이 생겨 가지고.

@1 예.

#1 싸울 수도 잇고 경허지마는 다, 그, 그 인생 살아가는 디 잇을 수 잇는 문제.

@1 예, 경혜근에 이제 마루에선 그런 거 하고.

#1 응.

## 봉덕

@1 아까 마리 가운데 잇는 사름들은 또 무신거를 낫어마씨?

#1 아, 그 봉덕.

@1 예.

#1 봉덕이라고 헤서이, 그 불추곡.

@1 예.

#1 경 혜근앵에 거기서 또 뉘 겨울철에는 거기서 담소도 허곡. 또, 또 큰일 때나 대소사에는 거기서 뉘 이 적도 허곡 뉘도 허고 음식도 만들곡 거기서도 허는 일이사.

@1 응.

#1 계난 요즘은 다 여자들이 뉘 대소사에 다, 다 참여행 다 헤지곡 허난 남 자들을 별로 엇영 술이나 먹고 뉘 어찌고저찌고 영혜근에 허는디, 옛날에는 남 자혈 일, 여자 혈 일 딱 구분이 다 뉘엇어이.

@1 응.

#1 견디 요즘은 남자덜, 겨난 여자덜만 시켜부난 불만이 많아가지고 경혜근에, 경혜근에 허는 것이. 지금은, 거 다 구분이 이제 게난 지금은 남자도 설거지 다 허곡게 뭐 허곡 행은영에 허지 안허여게. 경혜근에 허난.

@1 응.

#1 뭐 게난 돈 벌어 오는 사름이 이젠, 이제는 가주다 헛주.

@1 가주다.

(웃음)

#1 경 행은에 허는디, 아, 여자 남자도 뭐 실업혜근영에 뭐 아무 것도 헐 중 모르면 뭐 그 뭐 실업자주, 뭐. 경허니까 돈 벌어 오는 사름은 큰소리치는 거 주. 겨난 방법 엇잡여.

@1 예, 맞수다. 게문 그 봉덕을 이렇게 허기도 허고.

#1 응.

### 고팡

@1 그다음 고팡은 뭐 허는 디우파?

#1 고팡이 중요한 디라.

@1 예.

#1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은 먹을 것도 애끼곡.

@1 응.

#1 족손 줄 것도 남겨놓고.

@1 아.

#1 약, 그 약도 거기다가 보관허고. 다 그디가 아주 보고라.

@1 응.

#1 게난 그것도, 돈도 또 거기 낫당 잘 잊어먹기도 허곡, 또 거기 존디기도 또 그기가 금고도 뉘곡.

@1 응.

#1 경혜근에 경허난 고팡 열쇄, 영혜근에 지금은 열쇄가 뭐 남바들허고 뉘도 잇고 영혜근에 허주마는. 옛날에는 영혜근영에 시커멍헌.

@1 예.

#1 쉼통, 이만큼 긴 거 잇주. 이만큼.

@1 예.

#1 영 알로 꺾고냥으로 찢러 영 여는 거.

@1 예.

#1 그 열쇄.

@1 귀청.

#1 그 귀청, 저, 저 그.

@1 통쇄.

#1 그거를 그, 그 이 결혼행 들어가면 며느리가 시, 시에서 그것을 물려받을 때까지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 집안을 지키는 거여.

@1 으으.

#1 집안을 지키는 거. 남자는 그디 꺾도 못허곡. 그디 가보지도. 가봐도 구경 어떻 생겼는지도 몰라.

@1 응.

#1 아는 사름은 아들, 딸벳긔 몰라. 아덜, 남저는 그디 관여를 허지 못하고 가지도 안허.

@1 응.

#1 아는 사름. 웨 나가 걸 아느냐, 우리는 어리곡 경 허고렌 어멍 조름에도 좃아가곡 저 무신거 뭐 뒷조름에도 좃아가곡 그디 옛을 또 잘 행 놔뒤.

@1 응. (웃음)

#1 그때는이 옛이 무슨 옛이 쥔 많으냐 허민이, 저 드르에 가믄 꿩.

@1 응.

#1 꿩코를 놔근에 꿩 행 잡아당 놓곡 헤근앵에 헤믄이, 그것을 꿩옛이라고 헤근앵에 허곡 기냥 옛도 많이 만들어 놔. 게믄 그 옛을 어떤 때 딸리냐 허면 제사 멧질 때 또 쓰고 꿩옛도 그런 것도 헤근앵에 영 행 아이덜도 주곡. 귀헌 손지덜도 어디 멀리서 오곡 경허민 주곡. 경헤근앵에 행 허민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고 이녁이 먹고 싶어도 다 춤으멍 헤근에 애경 낫당은앵에 다 그 즈손 위해서 경행 주는 거. 그 고팡이 아주 중요헌 역할을 허고 그다음에 중요헌 디는 장독대라.

## 장항뒤

@1 예.

#1 장독대는 지금은 아닌디 그 장독대는 일 년, 이 년, 삼 년이, 먹을 그 반찬 창고라, 그기가.

@1 예.

#1 반찬 창고라, 거기는. 게난 춤 지극 정성 다해서 가근앵에 아침이 일어나 근앵에 가근앵에 장 거리레 가서 살피고. 누가 덩겨났냐, 무신 이상헌 물건이, 저, 저 짐승이 덩겨트냐 영헤근에 허곡. 깨끗이 강 거, 거 지극 정성으로 잘 닦고. 영 잘 영 슬피고 반드시 확인을 우리 저 어디 뭐, 문 잘 증가졌나, 안

증가했냐.

@1 응.

#1 확인하듯이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고 그걸 안 한다 이거야, 허기 실프고. 김치나 담그는 것도 허곡 그런 거 잘 아니 허여. 게난 거 여자들이 거 각성해야 될 일이다. 거 엇어부니까 경 허는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고.

@1 예.

#1 그런 걸 이제 반드시 알았 놔둬야 돼겠다, 책으로 발간행 놔둬야 돼겠다, 허기 위해서 허는 거 닮는다.

@1 예, 맞수다.

#1 경허는다. 그게 있어야 될 거로. 겨문 다 필요로 허여. 남자는 지필묵. 여자는 침, 침소.

@1 응.

#1 침소류.

@1 바느질을 잘 해야 되고.

#1 침소를 허여, 바늘 침 자이.

@1 예.

#1 응.

@1 삼촌, 아까, 장독대렌 헤신디, 삼양에서는 그 장독대를 뭐렌 부릅디가?

#1 장독대?

@1 응.

#1 그 저, 저.

@1 장팡뒤?

#1 아니, 아니.

@1 장항뒤?

#1 으으, 장항뒤.

@1 응.

#1 장항뒤, 뒤, 뒤.

@1 장항뒤.

#1 장항뒤. 게난이, 별도로 그 옆이 허는 사람도 있고 거의 대부분 집 뒤에 허여 집 뒤에.

@1 응, 정지 뒤에 경혜근에.

#1 정지 뒤에도 행은영에 빨리 출입허기 좋도록, 경혜근영에.

@1 경허곡 이제 그 삼촌 이제예, 아까 체 거, 거 그 고팡에 마리 놔십디다 예?

#1 예.

@1 다른 데도 다 마리 놓니까, 거기?

#1 아니, 거 잇인 사름이난 거 논 거지.

@1 응.

#1 엇은 사름은 마리 안 놔.

@1 그냥 흑예? 응, 흑땅만 행은에 이제 허고.

#1 응.

@1 그다음에 큰구들 잇고 족은구들 잇고 쳇방도 잇입디다.

#1 응.

### 쳇방

@1 쳇방은 뭐 허는 디가 쳇방이우파?

#1 쳇방은 그, 그게 그, 그걸 지금도 몰람구나게. 쳇방은 정지에서 이거이, 현 디는 정지는이, 요즘은 타일도 깔곡 미시거 흑도 반듯허게 헤근에, 헤근에, 영헤근엥에 허곡. 아니 허면은 비닐이라고 깔앙 헛는데. 옛날에는이, 정지가 이 그냥 그 검질로 헤근엥에 허고 흐썰 잘사는 집은 장작으로 사당은에 놔근 엥에 영 불 때믄 정지가 흐썰 ㅋ콜헌디.

@1 응.

#1 제주돏 말로 ㅋ콜, 깨끗헌데. 걸 아, 안 헌다 이거라이. 게믄 음식을 어 느 정도 만든 것은 쳇방드레 보내여.

@1 응.

#1 게, 쳇방에서 걸 정리를 헤여.

@1 응, 응.

#1 무시거 티도 안 들게끄름 허고, 무시거 흑도 먼지도 들어가지 안 허게끄 림 허게 허고. 경헤근에 행, 경행 허기 위해서 그 쳇방을 만들어 놓는 거.

@1 게난 밥도.

#1 목적이 그거다, 이거여.

@1 밥도 쳇방에서 먹엇수과?

#1 쳇방에서 먹는 사름. 경 막 바쁜 사름은 부엌에서밖에 어쩔 수 없이 부 엌에서도 먹고게.

@1 부엌에서도 먹고예?

#1 방법이 없어, 방법이.

## 백장

@1 그다음에 그 집에 허면 아까 백장들이 잇었지 았우파양?

#1 어어.

@1 백장은 큰구들이나 족은구들이나 다 낫수과?

#1 아, 구들목이 셔, 방 논 디는 다 놔. 만들어야 뉘어.

@1 응.

#1 웨냐허면은.

@1 응.

#1 그 큰구들의 백장은 웨 필요로 허냐허든 딱 두 가지라. 하나는 궤, 하나는 이불 놓는 디라. 게문 옷은 어디 놓느냐, 옷은.

## 휩

@1 옷은 궤 소꿉에도 놓고 휩에도 영 걸고.

#1 휩, 휩. 주로 휩에. 옷은 휩에 잘 걸어, 휩에. 줄 메영은앵에, 대나무 허영.

@1 응.

#1 휩에 잘 걸어. 게면은 옷은 그 궤에 놓는 옷은 저승 갈 옷이나 어디 큰집이, 사돈칩이 갈 때 입을 옷이나 그런 거 허고 보통 옷은 다 휩에 걸어.

@1 응.

#1 휩에.

@1 휩에 걸멍 포장도 씌우고. 응.

#1 포장은 잇어서 씌우주기. 이제사 무신거 포장 허곡 허주마는.

@1 (웃음)

#1 옛날은 포장이 어디 셔게.

@1 엇어. 게난 대나무로만 걸멍은에.

#1 걸멍은에. 게문 보통 지금은 여기는 갈옷이니까 허지, 육지는 다 흰옷이라.

@1 예.

#1 겐디 그, 그 거 씌울 때 뭐 그냥 헤근앵에 헌디, 여긴 갈옷이니까 별로 티가 안 나.

@1 응.

#1 경 요새, 요새는 뺱기도 엇곡, 잇곡 허난에 뺱기도 튀곡 무신거 흑여, 기름도 튀고 경허난. 옛날은 기름도 귀해서. 게난 불도 쌀 때 기름불 싸근앵에 헤근앵에 허든 지, 지름불, 각지불, 솔각불허여. 겐 불, 불이 종류도 세 가지



라, 네 가지라.

@1 예, 예.

#1 게은 종류, 불의 종류를 한 번 읍프렌 허민 알 사람이 별로 없어.

@1 응.

#1 경혜근에 경허문, 그 휘에 혜근앵에 허곡. 경허면은 하르방 그 큰방에는 큰 구들에는 그 무신 서류.

@1 예.

#1 족보, 뭐 편지 온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옛날에는 \*\*내기세 내는 것도 다 쓸로 내곡 무시거 허곡, 영수징 받는 일이 없어.

@1 예.

#1 영수징 받는 일이. 요새니까 영수징이여, 무신거여, 뭐, 뭐, 뭐여 혜는데. 옛날에는 쓸로 무신거 콩으로 쫓으로 무시거 곡석으로 영혜근앵에 허고. 할망방에 궤는.

@1 응.

#1 그 이불도 놓고 이녁 이불도 있어야 헐 거 아니라게.

@1 예.

#1 겨난 이불도 놓고 여, 저 무신거 이제 무슨 옷감.

@1 응.

#1 계실, 무신거. 그 자기 필요한 거 경혜근에, 거 혜근앵에 그레 놓고. 그 씨앗 같은 것도 어떤 땀 거기 놓을 수도 있고. 그냥 허영 영 허영 돌아메기도 허기도 허는다. 경허영은에 허는다 그런 디도 영행 귀중헌, 귀헌 씨앗 7튼 거, 어디 멀리서 온 씨앗이나 어디 뭐 일본서 가져온 거나 뭐 어디 육지서 가져온 거나 어디 웨국 강 헐 땀 가정 온 거나 뭐 이런 거 헐 때, 경혜근에 그런 디 좀 낫당. 이거 튼내기 좋고 빨리 좃기 좋게시리 허기 위해서 궤에델 경혜근에.

@1 게난 씨앗들은 할망방에 낫구나.

#1 응, 이런 디 걸기도 허곡게, 보통.

@1 걸기도.

#1 걸영 놔두곡 허는다, 조, 보리 뭐 이런 거 콩 그런 거는 다 베끼디 걸어 놔 뒤도. 경허난 쳇방 7튼 디 어디 게.

@1 어.

#1 걸영 놔뒤당은앵.

@1 예, 예. 그다음에 아까 그 구들목.

#1 응.

## 구들목

@1 구들목 허젠 허면 구들목 그 밖에 영 공간이 있는 거지에, 거기는 독도 질르곡 헛수과?

#1 독은.

@1 응.

#1 정지에.

@1 아, 종, 정지에.

#1 웨 정지에 질랐느냐, 엇인 땀 그디도 허긴 헐디.

@1 응.

#1 거기 허면은 그때 시절에는 식도 잇고 고냉이도 잇곡 족제비가 많아.

@1 응.

#1 족제비, 쟁허믄 와근에 돌아댕기당 영혜근에 즐고 잇일 때, 그냥 와근엔그런 짐승들이 와근에 헤친다 이거라. 잡아가 불기도 허고 물어가 불기도 허고 그냥 죽여 불기도 허곡, 혜근에 허는디, 경헌디 정지에 웨 독을 가두느냐 허면이 정지 요 트명으로 고냥으로 하나 내놔어이.

@1 응.

#1 독이 들어오게끄롬 허근엔그경도 허곡. 쟁 아니믄 독도 시간 맞췌, 시간을 잘 아는 게 독이라.

@1 예.

#1 다른 짐승보다도 독이 쥔, 딱 시간 뉘민 울곡 딱 시간 뉘민 내려오곡 딱 시간 뉘민 들어가곡, 경허는 것이 독이다 이거여. 응. 독이다, 이거여.

@1 따듯헌 물.

#1 겨니까 독이 땀 시에 들어가느냐, 다섯 시, 여, 늦어도 다섯 시 들어가는디 늦어도 ㅁ섯 시까지는 다 들어와.

@1 응.

#1 겨믄 거 웨 그 정지에 독을 올리느냐 하면은.

@1 불치.

#1 응, 이것이 솟덕이라 하믄, 이것이 솟이믄 뒤에 불치가 요만이 영 나왕 잇다, 이거야.

@1 예, 예.

#1 게믄 독은 요만쫘 오게 올라 가근엔그살게끔 혜가믄, 온기도 뉘곡 그 웨침을 방지허기 때문에.

@1 응.

#1 정지에 그거를 허는 거. 게믄 정짓문 딱 더꺼불곡 허면은이 큰 동물들은

못 들어와.

@1 응.

#1 우선 가는 그 뽀튼, 이런 거나 이런 거나 행은영에 족제비도 어떤 디고냐르나 팡 들어오지 안허면은 전혀 못 들어와. 고녕이도.

@1 응.

#1 게니까, 거기서 해근영에 게문 봉변은 어떤 때 많이 당허느냐 하면은 바깥 나왓을 때가.

@1 응.

#1 그때 족제비한테 물려가거나 뭉, 독, 바, 오랑, 도, 아니, 공중에 돌아뎡기는 거 뭐냐.

@1 수렁이, 독수리.

#1 독수리. 매.

@1 매, 응.

#1 그게, 이제 병아리 이제 영 깨왕 이실 때. 거 봄에 거 많이 당허주게. 게민 그 영해근에 병아리 관리허멍 영행 허노렌 허당보믄 확, 허게시리 체어 가 불곡 허민 이걸 큰일 낫다 해근에 막, 해근에 현 거.

@1 예.

#1 독은 그디서 길르멍. 게난 쳇방은 음식물을 관리허기 위해서.

@1 하고.

#1 때문에 목적이 그거다, 이거지.

@1 예.

#1 나가 아는 대로는 그거라.

## 정지

@1 예, 삼춘 경허고, 이제 그 정지에예?

#1 응.

@1 정지에도 옛날에 살레도 놓고.

#1 응.

@1 물항도 놓고 허지 안헛수과?

#1 예.

@1 뭉, 뭉 낫수과?

#1 살레가 잇인 사름은 살레가 영 해근에 칸으로 만드아근영에 해근영에 그저 남국자.

@1 예.

#1 낭밭자. 미시거. (웃음) 웃지 말아게. 거 옛날에 그것벳긔, 그것이 계난 일부러 이녁으로 다 만들은 거.

@1 예.

#1 어디 강 돈 쥘 사온 거 아니. 경혜근에 다 경혜근에, 혜연근에 허고, 하도 그것이 허당보난이 닳아지곡 카 어떻허고 떨어정 불에도 카곡 영 허영 뭐 현디. 살레도 거 잇인 사름들이 현 것이지. 엇은 사름들은이 능금 하꼬나.

@1 응.

#1 게 아니 허민이 판자로 만들영. 한 칸만 만들영 그기 다 그릇도 놓고 접 시도 놓고 본 저, 뭐 종지도 놓고 손가락도 놓고 낭푼도. 영혜근에 경혜근영에 혜근영에 허고. 요즘 사는 사름들은 이거 대궐 부럽지 않은 사름덜이지.

@1 맞수다.

#1 냉장고여 무시거여. 무신 뭐, 저, 식기 건조기여 무시거여. 들으난 처음이 곡 그렇게 춤 행복헌 살림을 허는디, 여기도 불만이 많다 이거라, 이 사름들 도.

@1 그러니까마씨, 너무 하부난.

#1 불만이 많아이. 게문 나가 보기엔 이 사름들이 상류층도 아니고 하류, 하류층으로 좀 가, 갖다왔으면 좀 정신 차리겠는데. 나 생각이 그 생각이라. 쥘.

@1 예.

#1 어떤 의학자도 이런 말은 안 헤줄 거여.

@1 예. 삼춘, 아까, 저기 저 정지에도 이렇게 고망 툄르고.

#1 응.

@1 고팡에도 이렇게 툄랑 잇짚우파양?

#1 응.

@1 그 고팡은 미신거렌 굴아?

#1 그건 환기통이지. 우리 지금으로 말허든 환기통이라.

@1 계난 옛날 어른들은 걸 뭐렌 불릅디가?

#1 아, 그거는 잘 모르크라.

@1 창곰.

#1 어, 아니, 그디 맞아. 그것이 경허고 낭살.

@1 살도, 살도 영 박고.

#1 아니 낭창살을 헤 놔. 낭창살을 거기다가. 계난에 거 보통 존존헌 벌거지 들이나 뭐 이 그런 거는 다 들어뎡기는데, 큰 거, 만일에 고양이 뭐 식, 이런 거 못 들어오게시리, 그런 낭창살을 만들어. 경혜근영에 거, 환기통으로 알고 잇엇는데.

@1 예.  
 #1 그거는 계난 못 들어봐, 못 들어봐.  
 @1 창곰이렌 말 안헛디가?  
 #1 아, 창곰?  
 #1 응.  
 #1 아, 창곰이엔 말도 허긴 헛주마는 그거, 그건.  
 @1 응.  
 #1 창곰, 창곰엔 말도 듣긴 들어나신디.  
 @1 예, 그거는 몰라도.  
 #1 잊어 불언.  
 @1 상관 엇수다.  
 #1 잊어 불언.  
 @1 예. 그다음에 그 물항은 어떤 항 놓디가? 저기 정제에.  
 #1 아이, 그 춤 옛날 종류가 틀려게. 그때는이, 처음 나올 땐 무신 검은 항으로 놔신디 어떻 헤신디, 냉중에는 붉은 항이.  
 @1 응.  
 #1 우이 색깔이 빨그룽헌 거이.  
 @1 응.  
 #1 그런 것도 뭐 흰항은 엇엇어.  
 @2 (웃음)  
 #1 (웃음) 흰항은 엇어, 물 담는.  
 @1 삼춘네, 그 살 때는 무슨 항 낫?  
 #1 우린 저, 그냥 그 어떻헌 거, 여기는 그런 게 잇대게. 불그룽헌 항, 거 색깔이.  
 @1 예.  
 #1 거 색깔은 헌 건 아니고, 거 색깔 헌 거는 틀려.  
 @1 거 대정항마씨?  
 #1 으, 거 색깔은 헌 거 아니고 숨 쉬는 항이라고 해서이, 그 이제 이 저 더운 때 추운 때 무시거 더, 더운 때는이, 물이 스, 항 베꿏디이 서리.  
 @1 예, 물 서리.  
 #1 서리.  
 @1 이슬.  
 #1 서리 헌 거이, 숨 쉬는 항이라이.  
 @1 응.

#1 경혜근에 그것에 혜근에 허믈이 그 뭐, 저 물, 에구 이 물 말 허지 말아. 옛날에는 아이구, 물 귀혜근에 허믈이, 비나 오믈이 물 안 나는 디, 엇인 디는 이, 저 산에 강 내창에 굴른 물은 돌랑은엿에 허벅에 질엿와근에 두 세 참씩. 우리 영화로 저 텔레비로 보는 식으로이, 외국에 그런 식으로이. 그추룩행도 살았어, 그추룩행.

@1 게난 삼춘도 물 툐르레 가봐?

#1 아, 우린 저 저 저디 가시리 살 땐이 뵙긱오름궂지 그디 훈 서넛 참 뵙어.

@1 아.

#1 그디 강은에 허벅 정 강. 게민 남자덜도 다 허벅 쥬야 뵙어.

@1 응.

#1 겐 어릴 때난, 아이덜 때난 경 허난에, 가근에, 혜근에, 가근에 정오곡 경혜난. 혼자만은 안 가. 다 것도 벳도 행 가야 뵙어.

@1 예, 예, 맞수다. 그 솟은 멧 개나 안칩데가?

#1 솟?

@1 응.

#1 솟 훈 대여섯 개씩 앓져.

@1 응.

#1 그 잇인 집덜은. 엇은 집은게 서너 개.

@1 응.

#1 웨냐, 웨냐하면이.

@1 삼춘네는 엇어신디, 멧 개 안천?

#1 우린게 두 개, 세 개벳긱 안 허연.

@1 두 개, 세 개벳긱 안 안치고.

#1 건 밥허는 밥솟 하나 허고.

@1 응.

#1 국솟 하나 허고.

@1 응.

#1 그다음은 이 냄비엔 현 거, 냄비에 혜근엿에 그거 반찬 자리 궂튼 거 쥬라근엿에 밧디 가정오라, 영행 허믈 그거 영 혜근엿에 허믈이, 그것에 행은엿에이 그 이 세발소엔 현 게 잇어.

@1 예, 세발소.

#1 세발소이, 게믈이 쥬쥬현 낭계기로 혜근에. 그건 큰볼 때믈 안 뵙겨든. (웃음) 게근에 그걸로 혜근엿에, 혜근엿에.

@1 자리.

#1 어어, 겐디 솟 대여섯 개 허는 사름덜은 좀 그, 살만헌 사름덜이라이. 밧도 많고 농스도 많이 지고이, 거른이 솟이 이름이 많아.

@1 예. 솟 이름 곱아줘봅서.

#1 세 말치.

@1 세 말치.

#1 두 말치, 혼 말치, 닷뉘지기, 이렇게 헤믄 이거, 이거, 이거.

@1 서도뉘기.

#1 아니, 게고 이거 네 가지라이.

@1 네.

#1 그다음에 이제 국솟이.

@1 응.

#1 게믄 그다음에 큰일 허젠 허면은 가마솟.

@1 가마솟, 응.

#1 경혜근앵에 국도 가마솟디, 밧도 가마솟디.

@1 응.

#1 것도 빌어와사 뉘어. 가마솟도 이녁집이 벨로 엇어. 아, 이녁집이도 잇는 사름도 잇긴 잇주마는. 게난에, 게난 보통 세말띠기, 두말띠기렌이, 그건 워냐 허면이 엇도 허곡이.

@1 응.

#1 또 뭐 콩도 솟곡이, 장 담젠 허니까이.

@1 예, 예.

#1 경혜근앵에 허곡 헤근에. 경행 그후에 이제 우리가 커가니까 뉘이 나오냐면 방엿공장에서 거 콩 솟아 준다 행, 도로무깡 헤근에.

@1 예.

#1 (웃음) 헤근앵에 헤근에.

@1 도로무깡에서 솟아줍디가?

#1 어, 도로무깡에서. 겐디 거 어떤 디는 저, 그 가마솟디서 솟으는 디도 잇고게, 경허난게. 도로무깡에서도 솟아보니까 것도 쁘찬녀데.

@1 응.

#1 헤보니까. 우리 봤지만은. 게난 그 큰일 때는 돼지고기 솟으는 것도 도로무깡에서 경 헤근앵에 경허고. 그디도, 그디도 그 가마솟에서 솟긴 헌디 엇은 디덜은 거 동네별로 차이가 잇으니까게. 게난 영 보면은 그, 그 워냐, 저 도로무깡으로 헤근앵에, 헤근앵에 헤신디, 그거 워냐허면은 경허여근에 산 거 아

니. 게 옛날 지나간 이야기 막 물어가니까이.

@1 (웃음)

#1 튼내지도 못헐 뿐더러.

@1 잘 튼냄수다게.

#1 튼내지도 못 헐 때도 잇고 거 험신게, 나 원이. 난 집줄 이야기 허곡 집 이는 것만 허젠 험시카부덴 간단허게 헤근앵에. 아이고, 경허니까.

문

@1 삼춘, 문 들젠 허면 무신거 멘들아야 뉘어?

#1 어?

@1 문 들젠 허면.

#1 문 들젠 허문?

@1 응.

#1 문을.

@1 웨, 앞에 대문도 돌아야 허곡 방문도 들젠 허면.

#1 어.

@1 여기 문입쟁이도 세우고 헤알 거 아니우파?

#1 게 입쟁이, 입쟁이. 거난 거 뭐 옛날 거 다 들젠 허난 튼내명 곤젠 허난 뉘허긴 허다마는이. 뉘, 아까 우리 그런 집들은이.

@1 응.

#1 옛날에는이, 원칙은 거 저 쉼 질르곡 뭐 놀굽 잇고 뭐 허곡 허민 대문이 잇어이.

@1 응.

#1 게문 입질을, 입쟁일 세와이.

@1 응.

#1 경헤근앵에 그, 그디 흐쓸 잘사는 사람은 그디다가 쉼막을 허는 수도 잇어.

@1 예, 맞수다.

#1 쉼막을.

@1 이문간에.

#1 경헤근에 이 이문간에 헤근앵에 이문간엔 헤근앵에 쉼막도 허곡. 경헤근 앵에 허는디. 게문 그디다가 이제 또 그디도 명칭이 많아. 대문에도 뭐 이 입춘대길이렌 허영 쓰는 사름덜도 잇곡. 이제 뭐 거 무신거 건양다건이여 미시거 그디 들어가는 글자가 그 입춘대길 건양다건이 문제가 아니라.



@1 응.

#1 여러 문구가, 그 문구가 많아. 거기도, 거기.

@1 예.

#1 아는 것이 켈 쉬운 것이 입춘대길, 뉘 건양다건 거 무시거 대건이여, 무시거여, 경 행허는디 거기는이 그 쓰는 글자가 많아. 거기는. 대문에는 모르지, 요즘 사름덜은 모르니까 허지. 그런 거 우리도 그거 해보믄이, 다 문에마다 그 글귀를 썩 부치는 디, 입춘날은 다 그걸 썩 부친다고, 다.

@1 응.

#1 잘 쓰던 못 쓰던 이녁으로 썩 부쳐야 뉘어. 놓 빌어당 쓰는 법은 없어.

@1 아.

#1 다, 자기가 써야 뉘어. 경혜근엿에 경허믄, 쉼, 쉼 질루는 디도 막 그런 거 다, 몰 질루는 디도 다 그런 거 다 써 부쳐야 뉘어.

@1 응.

#1 경 행 다 이름이 다 잇어. 경혜근에, 경혜근에 허곡. 경허는 건데, 걸 아는 사름이 얼마나 잇느냐.

@1 응.

#1 것이 문제지, 겨니깐.

@1 계난 그 이름은 무신 이름들 잇입디가?

#1 무신 이름? 아까 다음에 말허, 그것??장 다 곧젠 허믄 나.

@1 (웃음)

#1 나. (웃음)

@1 그다음에 집은.

#1 응.

## 집 일기

@1 삼양은 집 멧 년에 훈 번 입디가?

#1 저 집은 잘 일믄 삼년에 훈 번이믄 뉘어.

@1 응.

#1 삼년에 훈 번 일믄 뉘어. 웨냐하면은. 처음에 이는 해 훈 번 잇지.

@1 예.

#1 일엇지. 훈 해 갖지, 봄에 일엇으니까. 그다음에 훈 해 걸령.

@1 응.

#1 또 다음해 일면 뉘어.

@1 응, 계난 이 년에 훈 번이구나.

#1 삼 년. 거 다음에도 다음에 못 일면은 그다음에 이니까, 삼 년은 일어야 하여.

@1 이 년이나 삼 년 뉘쿠다예?

#1 많이 빨리 일어지민 많이 좋지.

@1 예.

#1 그거는 거 삼 년에 한 번.

@1 이제 그런 식으로 행은에 허고.

#1 겐디 그 줄을 어떻게 놓느냐.

**줄 놓기**

@1 응.

#1 줄이.

@1 줄 놓는 건 허끔 잇당, 삼춘. 그다음에 그 여기 호령창은 없지예?

#1 호령창?

@1 응, 여기 아까 그 삼춘, 저 방에서 헐 때는 방문에 이렇게 유리 영 박앙 누게 완신가, 영 본덴 헛는데.

#1 응, 응.

@1 다른 덴 가면.

#1 건 봉창이렌 허주.

@1 건 봉창이렌 헤여, 어.

#1 어.

@1 그다음에 마리에 보면 마리 대문 두 개 잇영예, 족은 대문은 호령문, 호령창헙디다.

#1 아.

@1 여기는 그런 건 엇수과? 남군은.

#1 게문 세 개 잇어났구나?

@1 예.

#1 세 개 잇어났구나. 응, 게난 지금은 그 마루방에 문이 두 갠데.

@1 응.

#1 옛날엔 한쪽에 족은 문이 잇어났다, 이 말이구나?

@1 예.

#1 아, 그거.

## 굴묵

@1 여기는 이제 그런 거는 엇고, 건 서귀포냐예, 저 남군쪽에는 경허고. 그 다음에 굴묵은 진젠 허면 무신 걸로 짚엇어마씨? 아까.

#1 ㄱ시락.

@1 예.

#1 ㄱ시락이엔 해근앵에 그, 그거는 그 글자는 못 봤네. 그걸 ㄱ시락이엔 현 글자는 못 봤네.

@1 응.

#1 ㄱ시락이엔 현 글자를 못 봤고, 그 ㄱ시락 그거는이.

@1 응.

#1 지금 우리 이 쌀로 말허면은.

@1 응, 보리.

#1 저 조, 조, 아니, 아니.

@1 보리.

#1 저, 저 피밥.

@1 응.

#1 피밥이고. 그다음에 이 말뚱이나 소뚱이나 이것은, 이것은.

@1 산뒤밥.

#1 아니, 그자.

@1 조팍?

#1 아니, 그자 보리밥 정도.

@1 (웃음)

#1 보리밥 정도 뉘 거고.

@1 응.

#1 그다음엔 낭뿔리, 그 낭뿔리도 썩은 낭뿔리 말고게, 허썰 이 저 낭 그차 불영이 굽통 해근에 현 멧 년 뉘 것도 경 해도 쟁쟁허여.

@1 예.

#1 계믄 그거는 어떻게, 어떤 걸로 강 헤오느냐 허믄은 도치 가정 강은앵에 깨영근에 쫓개영 가정와이.

@1 응.

#1 경행 가정 와근앵에 해근앵에 겨믄 굴묵이가 넓으나, 허민.

@1 응.

#1 안 넓어이.

@1 예.

#1 막상 해봐야 요만큼벧긔 안 넓어.

@1 응.

#1 이거 흔 삼십 센치 뉘카.

@1 으, 예, 삼십 센치 뉘쿠다.

#1 이 넓이가. 이 정도 영 허근에 허면은 그디 들어갈 수 있어야 뉘지, 게 안허믄 또 그걸 뿌개야 뉘어이.

@1 응.

#1 그 뿌개어야 뉘니까. 그러니 낭토막 같은 거 영 찼라근에 쓰다근에 남은 낭토막 같은 거. 그다음에 그런 거 가근앵에 구들묵 딸 거 허믄이, 구들묵 자꾸 우리 어린 때 영헤근앵에 진으라, 영헤근에 허면은 짓젠 허민 거 추우고 눈 맞으고 브름 불곡 चु고. 쟁 그때 옷들이 상당히 허술헛다, 이거라.

@1 예예.

#1 허술헤 놓니까, 추워. 게면은 이걸 어떻게 행 허코 헤근에 허면은 날 뜻은 날은 돌아가근앵에 그냥 몰똥 주워다근앵에 마당에도 널고 질레에도 막 널곡, 널어. 널잉은앵에 몰리와근앵에. 그 때문이 지금은 이 그런 거 엇주마는 옛날은이 가멩이가 귀혀, 제주도는. 육지는 많은디, 가마니라고 여기는 맥, 멩텅이.

@1 멩텅이.

#1 맥, 그런 것에 막 담양근에 영 허민 쌓아 올려놓기가 좋거든. 경허면은 그거 헤근앵에 행 놔두믄이 흔, 흔 번이나 두 번벧긔 안 진어. 구들묵을.

@1 응.

#1 경 겨믄, 게믄 옛날은 게난 그 후에 뉘가 나오느냐 허믄 이젠 연탄이 나오고. (웃음) 연탄이 나와놓난 연탄 아궁이 경헤 놓니깐 그걸로 돌려부니깐 경헤근에 허난에.

## 풍체

@1 삼춘 집 앞에 그 아까 강운봉 헨 디는 풍체가 엇입디다예. 옛날도 엇입디가?

#1 아, 옛날은, 옛날엔 잇어났어, 거.

@1 응.

#1 겐디 그 풍체엔 헨 거 저 사름덜 만들기 실프니까 걸 안 헨 거거든. 풍체는이 비 올 때이 이 비를 덜 맞게 헤근에 신발도 이 베깃디 거 잇돌에 저 벗어놓곡, 헤근에 뉘기곡, 경 안 허민 아까 그디 금연이엔 써부쳐진.

@1 예.

#1 이런 하꼬 잊지 안허여, 거 신발장이거든 지금은.

@1 응.

#1 견디 그런 디라도 영 놔야 뉘는 디, 그런 게, 그것도 안 허곡 그것도 안 허곡 해부난 저것이 저건 아니라 저거 옛날 집은 아니라. 풍체가 있어야지. 게 난에 저 어디 가든 풍체가 이실 거라.

@1 성읍 가민?

#1 응, 성읍 가민. 그던 있어. 경헌디 이 시에도 잇긴 잇는디 있어.

@1 응.

#1 어디 어딘 줄 알았수과?

@1 중앙로.

#1 아, 중앙로 저 초집 이수과?

@1 예.

#1 어디?

@1 중앙로 중앙성당 그 골목으로 가믄예.

#1 응.

@1 하나 이수다.

#1 아.

@1 나 작년 재작년 조사해난.

#1 아, 거기 풍체 이십디가?

@1 예.

#1 이 만덕, 저 김만덕, 만덕 거기는, 그디는양 풍체 있어.

@1 예.

#1 풍체 있어.

## 물팡

@1 그추룩 하고, 아까 물팡은 멧 군데 놓니까? 보통.

#1 하나, 하나.

@1 하나, 건 어디 앞에 놔?

#1 정지 앞이주게, 정지 앞이 놓주. 계난 그디서 낮다근엿에 물항아리에 가 근에 물 비와 낱 물 빈 항, 저 허벅은 그 팡돌에 낱, 낮당은엿에 또 강은에 또 물 질레 가젠 허민 거 지어아정 가근에.

@1 계난 삼춘은 멧 설 때까지 물 질어 받?

#1 우린 게 총각 때쯤, 훈 열대여섯 솔 때 그때 그자.

@1 그다음에 삼춘 그 우리 올레예.

#1 응.

@1 여기허민 올레는 어디를 올레렌 험니까, 이 동네는?

#1 이 동네?

@1 응.

#1 올레?

@1 응.

#1 곧 들어오는 입구가.

@1 응.

#1 입구에서, 질에서.

@1 응.

#1 집 안터레 들어오는 것을 올레엔 허는다.

@1 응.

#1 그것은 방어고.

@1 응.

#1 문어로는 뭐라고 허느냐면 문로.

@1 응.

#1 문로라고 허여.

@1 문로.

#1 문로.

@1 문로. 어쨌든 우리는 방언으로, 제주도말 더 좋으난 올레. 올레도 보면 그 족은 디가 잇고, 막 진 디도 잇고.

#1 예.

## 먼올레

@1 게문 진 거는 뭐렌 헤? 진올레, 먼올레?

#1 (웃음) 먼올레. 방어로는 먼올레.

@1 응. 요즘 골목들 허는 거예?

#1 응.

## 목거리

@1 갱헤근에 이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문간채가 아까 이문간. 이렇게 하고. 쉼막은 따로 뭐 저기 목거리 이런 말 안 씩니까?

#1 목거리.

@1 응.

#1 목거리는 그 뭐냐면은 그 무신거 연장덜토 농곡.

@1 응.

#1 불치, 나 아까 불치막 말했지. 영 해근에 여꺼근앵에 느람지로 해근앵에.

@1 예.

#1 재 영 모여 놓는 디 그런 식으로 허는디, 목거리 이신 사름은 목거리 짓  
영근앵에 그디 뭐 연장덜토 농곡, 무신거 저 불치도 농곡, 또 방 엇인 사름은  
이제 방 흔 칸만 빌립서. 요즘은 독거인덜 사는디 식으로 그 다 치와똥은에,  
우리도 저 젊은 사름덜 학교 덩길 때 헤여근에 그거 다 뜯어 개조헤근에, 방  
만들어근에 막 학생덜 빌려 주곡 경헤났어, 그 목거리.

@1 응.

#1 그런 게 잇긴 있어.

### 놀굽

@1 응, 그런 건 잇고예. 놀왓은, 아까 보난 놀왓 두 개, 놀굽 두 개 이션게  
예?

#1 예.

@1 그 놀굽은 뭐하는 겨우짜?

#1 아, 놀굽은게 그 농경시대니까.

@1 응.

#1 조, 보리가 쥘 많아.

@1 응.

#1 조, 보리이. 그다음에 뭐 거 다 헤나면은 그 집 일젠 허든 저 새도 해당  
놀곡, 어욱 저 무신거 이 각단도 놀고, 뭐 어디 기냥 이 저 집이 허천에 뭐 데  
밀 디 그 집 안에 거 데밀 디가 많으면 그거 안 헤도 뉘는디.

@1 응.

#1 거 저 엇인 사름덜은 그런 디도 영 해근에 농곡, 경헤근에 허곡 막 강  
콩꼭질도 무신거 그런 것도 놀엇당은앵에 쉼도 주곡, 뭐, 숲으멍, 기냥도 주곡  
헤근에 허곡 헤난에 그거 필요로 헛 것이 그 농경시대니까게.

@1 응.

#1 지금은 그런 거 아무 소용 엇어. 놀굽 그냥 놀지 안햐서게.

@1 그러니까.

#1 그 아무 필요 엇으니까.

@1 놀굽하고. 삼춘도 놀왓디서 뭐 곱을락도 헤낫수과? 옛날 어릴 때.

#1 아, 어릴 때는 다 그거 아년 사름이. 그때는 장난감이 별로 엇고, 놀 디

도 엇고, 질레 강 놀곡 경 안 허민 놀굽에서 놀곡, 그 두 곤데벳긔 놀 디가 없  
어.

@1 예.

#1 지금은 학교도 강 놀고, 뭐 저 어디 뭐 다방에도 강 놀고, 이녁 놀구정헌  
디 노래 불르구정허민 그런 디도 강 놀고, 그자 지 생각나는 대로 취미 잇는  
대로 가근에 놀주마는, 옛날에는 그런 궁통이도 안 나고, 그런 생각도 엇고,  
밥 먹으믄, 일어나믄 일허는 거만,벳긔 몰르고.

@1 응.

#1 어린 때는 힘 없으니까 놈의 집이서 집직 잘허멍 놀곡, 썬 물 강 맥영  
오렌 허고, 저 바당에 자릿배 나가시면은 자리도 강 사당은에 현 뉘약세기에  
얼마 허여근에 허믄 거 두 뉘약세기 사는 사름, 뭐 현 뉘약세기 사는 사름 쟁  
사당, 그걸 지금은 뉘로 먹으레 뉘기주마는 옛날은 걸 하나 사오면은 현 이삼  
일 반찬을 헤여.

@1 응.

#1 그거 현 뉘약세기 사다근에 경허믄은 게믄 우린 어리난에 느네라근에 가  
당 바당물에 빠지곡 허난에 가지 말라 저 나 사다 주마 영혜근에 돈이영 혜근  
에 게믄 걸 사다 주렌 현 걸 부짚다 영 혜근에.

@1 응.

#1 자리 사례 보내, 부짚수다, 영 혜근영에.

@1 응.

#1 경혜근에 거 옛날 새, 이야기 막 새롭게 막 들어보난.

@1 (웃음)

#1 곶으멍도 우습다.

@1 재미지지 안 허우짜?

#1 아이고, 재미보다도 나원, 뭐. (웃음) 오줌도 막럽고.

@1 삼춘 도새기도 질루와 봤지양?

#1 아, 도새기, 그때는 다 도새기, 썬도 질루고, 물도 질루고, 거난 도새기  
질루는 거 나가 어린 사름이난 그때 어릴 때난게 게 질루진 안헛주마는게.

@1 응.

#1 도새기 집안에 이신 사름은 다 질루는 거나 마찬가지로.

**돛통시**

@1 예, 도새기 질루는 디는 어디우짜?

#1 응?



@1 도새기 질루는 디는 뭐렌 곶아?  
#1 돛통시.  
@1 돛통시, 응, 그 흥번 도새기 질루젠 허민 영 필요한 것들 영 곶아줘 봅서.  
#1 도새기 질루젠 허민.  
@1 예.  
#1 첫째는 오모록헌 디 가근앵에 헤야 뉘.  
@1 응.  
#1 저 이 집이서 흐썰 멀어야 뉘어. 집에서이.  
@1 응.  
#1 처갓집허고 돛통시는 멀수록 좋아.  
@1 응.  
#1 웨냐. 냄새도 마치곡, 들리는 소리도 잇곡 허니까 걸 방지허기 위해서, 처갓집허고 돛통시는 멀수록 좋다.  
@1 응.  
#1 게문 뉘들 시집 보내젠 허민 가까운 디 보내여근앵에 이녁 뉘 영 헤근앵에 어떻 강 도와주고 싶어도 안 좋다 이거라.  
@1 예.  
#1 사둔칩 들락날락헛저 말썽이 귀에 들어오고 뉘허 고, 뉘 좋은 일 곶은 일 막 들어오고 헤영 말 들어가믄 속상해서 좋지 안허다, 이거라. 게서 사둔칩도 멀어야 허고,  
@1 응.  
#1 돛통시도 멀어야 허고.  
@1 응.  
#1 돛통시는 웨 한쪽에 멀리 오모록헌 데 허느냐. 오모록허게 허는 그 이유가 잇다, 이거라.  
@1 예.  
#1 걸 아는, 다른 디 강 흥번 들어 봅서마는 걸 아는 사름이 별로 엇일 거우다.  
@1 응.  
#1 돛통시는 오모록헤여근앵에 그 헤야 허는 이유는.  
@1 응.  
#1 돌담을 똥그렇게 다 쌓아.  
@1 예.

#1 쌓아근엥에 사름이 가근에 통시 볼 때를 그기만 요렇게 반뜩허게시리 영  
헤근에 허면은 돌을 다 쌓논 다음에 이 걸짱 돌을 걸 놔야 돼어.

@1 예.

#1 걸짱 돌을 두 개.

@1 응.

#1 나무로 헤도 뒤킨 뒤킨. 견디 비 맞곡 오래 가곡 헤 가민이 썩어근에 허  
난 위험성이 많으니까 돌은 거꺼 불지만 안허민 만고불변이다, 이거야.

@1 예.

#1 만고불변 변허지 안허여. 거꺼 불지만 아녀곡 허면은 건, 누게 가근에 두  
드려 폐영 거꺼불지만 안허민 만고불변이니까. 그 돌담을 쌓앙 돛통시를 만들  
엇다.

@1 예.

#1 겐 돛도고리 잇는 디는 조금 야프게 헤야 돼어.

@1 응.

#1 돛도고리, 돛도고리 잇는 데는 웨 야프게 헤야 뉘느냐? 어른만 것 주는  
게 아니고, 아이도 가근에 심부름 헤 강 것 쥐뉘 오라 영 헤근에 현다, 이거  
라.

@1 예.

#1 겐 굿인물 향아리를 거기 놓는 거라이. 게문 그냥 맹물만 주민 도새기도  
안 먹거든.

@1 예.

#1 뭇 막 여름에나 아니믄 안 먹어.

@1 응.

#1 그 사름도 여름에는 물은 하영 먹주마는게, 겨울에는 물을 안 먹거든게.  
경헤근에 게난 먹게끄름 헤서 이젠 고기 삶아난 물이영, 무신 저 그릇 씻어난  
물이영, 무신 저 쓸 씻어난 물이영, 무시거 영 헤근에 게문 우리 밥 중에서 제  
일 맛존 밥? 추록 헤근에 그디 모영 낫당 준다, 이거라. 이땅 맛존 밥은 나가  
물어볼 거니까.

@1 예.

#1 물어볼 거니까 건 염두에 두영 놔두곡. 게헤근엥에 그디만 흐꼼 야프게  
헤곡, 도새기 살 집도 지붕을 잘 일어 줘야 뉘다, 이거주.

@1 예.

#1 돛, 도새기집을 잘 일어줘야 돼어. 게문 웨냐허면은 어웁이영 무시거영  
헤근에 막 헤근에 행 놓곡, 뭇 헤근엥에 잘 일어근에 헤근엥에 겨울에도 그디

문은 엇으난게.

@1 응.

#1 문은 엇으난게 우티라도 눈이라도 비라도 덜 맞곡 헤근엥에 허게 위해서 그거는 잘 일어줘야 돼어.

@1 응.

#1 게문 그 웨 오모룩헌 디 헤야 됩느냐 허면은 혼 일 년을 보릿짚도 갖다 주곡 갖다근에 꼬아주곡, 도새기 사는 집 안네.

@1 예.

#1 그디 도새기 텅기는 주변도 꼬아주곡 헤곡 허믄, 사름도 똥 싸곡 허믄 먹당 남은 것도 치우곡 경허면 뭍허곡 허곡, 또 도새기도 지가 똥 싸는 장소는 또 트나.

@1 예.

#1 사름 싸는 디, 똥 싸는 디 틀리곡, 그디 똥 싸는 디 틀리곡 허난 다 트나. 게문 트나면은 구분을 허는 거라이.

@1 응.

#1 경헌디 도새기는 것주는 것만 먹영도, 족아. 등치가 커놓니까. 게문 사름 똥도 먹어야 된다. 사름 똥도 먹으는디 그 인분이라고 해서 먹으는데, 아 이놈 도새기가 저 흐썰 건강허게 영 헤근엥에 헤여 허믄 좋은디, 아프기도 허여, 도새기도.

@1 예.

#1 아프기도 허고, 안 아프기도 허고 또 그 여자 도새기면은, 자돈이면은.

@1 응.

#1 자돈이면은 예, 저 그 수컷 도새기를.

@1 좇기도 허고.

#1 좇아. 좇는 그 방법은 그 주인이 알아.

@1 응.

#1 게문 아, 게문 이제 그 수토새기를 데려올 수는 엇고 허난에 이제 암토새기 집이 가서 양보를 헤근에 어려운 집안이니까 이제 그 돈 흐썰 드리크메 흐썰 헤줍서 영 헤영 허면은, 저 알아서. 경헤근에 헤근에 허곡. 경 안 허면은 흐썰 암토새기 집의 주인이 흐썰 셴 사름이면은 거 그 흐썰 빌려줍서 허렌 허면은 수토새기 몰아와근에 거기서 뭍 영 헤영 흐썰 헐 수도 있고 경헤근에 허고. 게문 그 거름을 허젠 허니까 흐썰 오무룩헌 디 야픈 지대에 가근에 멀리 헤근에 현다, 이거라. 거 이유는 뭐냐 허면은 도새기만 블라봤자, 혼엇이 블라봤자, 돌아뎡겨봤자 범위 적은 범위 안네니까 블라봤자 많이 블를 수도 엇다

이거라이. 그럴 거 아니니까.

@1 예.

#1 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울로 요만큼 여기가 통시다. 게문 여기가 도새기 집이든. 이걸 사름이 강은에 허는 디고, 게문 주변에 요기벳기 없다 이거야. 거름은 많이 써야 되겠는데.

@1 응.

#1 게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잇느냐 허믄 이제 그 저 보릿짚을 주로 많이 헤 나른 보릿짚을 강 집 안네도 깔아주고 그디도 가근에에 막 뿌려주고 헤근엥에 헤가면은 도새기가 지도 똥오줌 싸젠 허민 그 돌아댕기곡.

@1 응.

#1 똥 누레 사름이 온다 허면은 또 나왔다근에 게민 또 들어가곡 허멍 그 발로는 밭으곡 돌아댕기는 것은 그때벳기 엇거든.

@1 예.

#1 게민 여름에는 더우믄 그늘진 디도 가근에 드러눕기도 허고, 지녁 똥싼 딴 안 드러누워. 그다음엔 흐썰 깨끗헌 디만 강 드러눕곡 경행 헌다 이거라. 게문 여름에는 드러눕기도 허곡 뽕앙 뎅기기도 허곡 헌디 또 그때도 그 돼지는 또 뭐가 필요허느냐 허면은 덩기도 그 덩기도 허고 또 그늘지믄 드러눕기 만 허믄 뉘는 게 아니고.

@1 예.

#1 도새기도 모욕을 헤야 된다 이 말이야.

@1 응.

#1 모욕을 헤야 돼어. 워 모욕을. 게문은 비가 오곡 뭐 허면은 매날 우리가 강, 물 이녁 먹을 거도 허벅으로 질어당 먹는다 그디 물을 줄 수가 없어.

@1 응.

#1 게문 비 온 물이 거기 고여야 돼어. 게문 그 오줌, 자기 똥오줌에 그 인분에 헤서 서꺼져서 그 검질이 그 이제 물 먹으면은 돼지가 뎅기면서 밭아 줘야 된다, 이거야.

@1 응.

#1 밭아 주면은 일 년 이상을 거기 밭은다 이거야. 게 밭으면 이제 그 먹고 뭐허고 절여지고 뭐허고 허면은 배추 절이듯이 절여지고이, 헌다 이거라이. 게민 어느 정도 허면은 이젠 그 언제 그 거름을 내느냐 허믄 가을이나 겨울에 내야 돼어.

@1 응.

#1 여름에는 안 돼어. 여름에는 사름도 덥고.

@1 예.

#1 막 어쩔 수 엇일 때는 여름에도 냅긴 내는데 냄새도 나고. 게니까 언제나. 냄새 덜 날 때가 언제나 허면은 가을이나 겨울에 낸다 이거라. 게면은 그것을 이제 내젠 허면은 그때쯤 뉘든 물이 다 먹곡 물기도 거의 여름에 물이 거 저 수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해근에 물은 잘잘 흐르긴 흐르주마는 경 많은 아녀거든.

@1 응.

#1 게근 이젠 저 지금은 이 비니루가 나오고 비니루웃도 나오고 뭐허고 현디 옛날에는 이 궤야기라는 게 있어.

@1 응.

#1 궤야기가 뭘지 알아지쿠과?

@1 뒤에 저기 곁에 영 입는 저기 뭐.

#1 아이, 궤야기가 뭐냐허면은.

@1 응.

#1 소가죽.

@1 예.

#1 소가죽을 말허는 거라.

@1 응.

#1 그 궤야기라고 해서.

@1 응. 물 젖지 안허게 영 대여근에.

#1 대여근에 영 옆으롤 허든지 뒤롤 허든지.

@1 예.

#1 게근이 그걸 곶체로.

@1 응.

#1 그 지금 7뜨민 비니루 통, 뉘뉘 나이롱 통, 무신 통도 잇영 그걸로라도 허주마는 그건 못헌다 이거라이.

@1 응.

#1 게근이 곶체에 허면이 것이 무슨 음식 먹듯, 김치 저 찢르듯이 찢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거치장스럽게 막 흘기곡 뉘허곡 질질 흘리곡 허민 그걸로 날라다근앵에 옆으로 낫다근에 한 쪽에 올레나 어디 영 해근에 내어 놔근에 거름 내는 사름 빌어다근앵에 내여근앵에 해농민이 영 초복초복 쌓여노문은이 눌러지멍 지둘러지멍 잠재우멍 그 물이 조금씩 조금씩 빠지멍 어느 정도 다 빠진 다음에는.

@1 응.

#1 연후에는 어떻게 허느냐. 이젠 밭에를 내젠 허면은이 물기가 잇곡 현 거를 실으젠 허면은 좀 힘들거든.

@1 응.

#1 걸 담아서 가져가야 됩니까.

@1 예.

#1 갱 질에 조금씩 조금씩 해당 말려.

@1 응.

#1 갱 맥에다가 담아.

@1 예.

#1 갱 짙어정, 어디 소 말 이신 사름, 구루마 잇는 사름은 게 실어가믄 돼는데 엇인 사름은 등짐으로. 등짐으로 저 날라야 돼어게게. 그러니까 돛통시는 저 밑에 좀 흐썰 오모록헌 디 가근앵에 거기 만들어근앵에 허곡 도새기도 위생적인 문제가 잇기 때문에.

@1 응.

#1 자, 보리짚도 깔아주곡, 다른 것도 깔아주곡 경혜근에 허곡, 경혜근에 행 만들었다. 게 돛통시는 그 꺾난 거 이젠.

@1 응. 경혜근에 그 흑시 짓 주는 거 보리낭으로 이렇게 짓주는 거구나예?

#1 응?

@1 짓 준덴 허지, 여기도예.

#1 예. 거 저 이 깔아주는 거 저 곱게시리 거 뭐 영 행 살게끄름.

@1 예.

#1 깔아주는 거.

@1 아까 우리 그 응가허는 데.

#1 예.

## 디덜팡

@1 돌로도 두 개 놓고 낭으로도 헛덴 헛잖아예. 건 이름은 뭐렌 헛디가? 그거는.

#1 디덜팡.

@1 디덜팡, 응. 디덜팡 허젠 허면은 뒤에 응가힐 때는 영 막대기도 거기 준비도해 놓지 안합니까?

#1 그것이 그 도새기도이 그 좀 온순헌 도새기도 잇곡, 흐썰 성질이 귀박헌 도새기가 잇다 이거라이.

@1 응.

#1 계민 온순헌 도새기는 좋으니, 육지사름덜이 왓다근에 놀레는 것이 뭐냐 허면은이.

@1 응.

#1 그 와근에 험젠 허민 깜짝 놀래근에 막 웨올러 불어. 게 육지 사름덜이 와근에 그런 거 처음 봤거든. (웃음)

@1 응.

#1 경허면은이 기냥 기분 나쁘게 험젠 해근에 기자 도새기도 말은 못했주마는 우리가 통화를 안 해보난 잘 모르주마는. (웃음) 그냥이 그 저 물건 그 헌 뉘가 잇곡 그 귀에, 그 저 머리에 부튼 거 이신 거 기냥 탁탁 털어 불믄 그냥 사름이 놀령 자빠져근엿에 돌아나 불명 경헤 불면은 이게 이제 화근이 된다 이 말이여.

@1 응.

#1 아, 계민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엇고 경허니까 그 도새기를 달래는 방법은 찻도 강 곱닥허게 잘 깔아주고.

@1 예.

#1 우리같이 서로 마음이 통허게끄름 통할 수 잇는 방법을 연구헤근엿에 헌 것인디.

@1 응.

#1 경 안허곡 쥌도 졸바로 잘 안 깔아주곡 영허곡 허민이 영 오명도 저 누게 실픈 일 시켜가믄 인상 찌푸리멍 허듯이, 그것들도 경헤근에 허면은 그추룩 헤근에 헤불면 그냥 놀레 자빠지곡 허난 막덩이를 경헤근에 부에 나민 막덩이로 내후리고 경헤가믄 이젠 다시 안허고, 경헤근에 버릇을 ㄱ리친덴 막덩이를 갖다 놓은 거 그거 거. 어린아이들은 더 놀래고 겨허니까. 아이 경헤근에 갖다 논 거.

## 헛간

@1 그 삼춘 여기 헛간이렌 말도 씽니까?

#1 아, 헛간 잇어.

@1 응.

#1 헛간이 아까도 말했주만 그 불치막허고 비슷한 거.

@1 응.

#1 경허난 그 잘사는 사름 집은 대문, 대문 잇는데.

@1 응. 이문간.

#1 한쪽에는 쉼막허고, 한쪽에는 헛간이라고 해서 무시거 ㄱ시락도 데미곡,

그 일 년 땀 것을 헛간에다 데미는 거라.

@1 응.

#1 그래서 그것을 헛간이라고 한 건 이것 저것 히어뜯힌 거 놓는 장소라고 해서 헛간.

@1 거기에 멍석 7튼 것도 거기에.

#1 응, 멍석 7튼 것도 놓곡 뭐 허곡 헤근엥에 허난에 헌디 그 이 엇인 사름덜은 그냥 그 안혀지마는 이신 사름덜은 그걸 반드시 그 이문간이엔 헤근엥에 그 짓어놔근에 한쪽에는 기냥 이 소막, 쉼막허고 한쪽에는 헛간이엔 헤근에 이것저것 저 그 덕석도 헤 낫다근에 그디서 꺼내근에 뭐 말리곡 몰아근에 그레 세우곡, 또 다른 것도 맥도 그디 놔두곡 뭐, 제일 주로 많이 데미는 것이 뭐냐 허믄 7시락.

@1 7시락예.

#1 겨울내 때야 됩니까.

@1 구들묵 때젠 허민.

#1 응, 방법이 없어.

@1 삼춘 아까 덕석이란 말 나완게마는예. 덕석 잇고, 멍석 잇고.

#1 응. 거뿐.

@1 그 동글랑헌 건 뭐우파?

#1 7렛방석.

@1 건 7렛방석 응. 덕석허고 멍석은 어떻 특납니까?

#1 똑7튼 이름이.

@1 크기가.

#1 똑 그 크기도 가뜨고 종류도 가뜨고 말허는 방법도 똑7튼디.

@1 응.

#1 멍석이 덕석, 출레가 반찬 허지 안혀여.

@1 응.

#1 반찬이 출레가 반찬 허는 말허고 덕석이 멍석이엔 허는 것도 동일한 말.

@1 응. 똑7튼 말예. 쉼막은 집집마다 다 잇엇수다예?

#1 아, 쉼 질루는 사름만 잇주. 잘사는 사름만 헛지. 엇은 사름덜은게.

@1 쉼도 엇영예?

#1 쉼도 엇영 놈의 쉼 빌어근에 허곡 헛지 안혀게.

## 쉼막

@1 게믄 쉼막에 대허영 곱아 줘서.



#1 쉼막?

@1 응. 보통은 여기는 옛날엔 어쨌든 농경사회니까 쉼 이서야 밧도 갈곡 헐 거 아니예?

#1 예.

@1 주로 암쇄 질루왓수가, 부룽이 질루왓수가?

#1 저 두 개 다 질루는 사름도 있고.

@1 응.

#1 하나만 질루는 사름이 있고, 경헌디 쉼 엇인 사름은 몰로도 밧을 갈아.

@1 응. 맞다. 이 동쪽에는 몰로도 밧을 갈아서예. 게믄 몰막도 뜨로 허여?

#1 몰막은 잇인 사름은 허고 엇은 사름은 안 헤여근앵에 베끼디 메어불어. 비도 맞곡 뵈도 허곡 헤도 뭉 기냥 내불어.

@1 응. 몰은예. 쉼는 쉼막에 헤야 뵈 거 아니우짜예.

#1 음, 쉼는 이 그 웨냐면은이 몰보다는 흐썰 저 추위를 더 타는가 어떻게 지 몰라도 쉼막을 헤여. 게믄 겨울에만 경허고 여름에도 허긴 허는디 저 겨울에는 허는디 여름에는 여름비는 맞아도 쉼도 어떻 안 헤여. 베끼디 기냥 목장에 올령 내분다 이거라. 여름철 훈 철은.

@1 응.

#1 경혜근에 이제 그 쉼번 당번, 몰번 당번 헤근에 헤근에 메경 내불면 이 녀이 다 알앙 책임정 행 오당 저 다 들어, 몰앙 들어오곡, 몰앙 나가곡 경혜근에 허는디.

@1 응.

#1 쉼는 그 어떤지 몰라도 쉼막을 많이 허고, 몰은 몰막이 엇어도, 겨울에도 추운 때도 저 몰막 신 집은 저 허곡 저 엇은 사름덜은 기냥 베끼디 메영.

@1 응.

#1 내불더라고 나 보니까 경혜근에.

@1 삼춘도 출도 헤볶디가? 쉼 질루와 밧지양?

#1 쉼 안 질루와반.

@1 아, 삼춘은 쉼는 안 질루왓구나.

#1 우린 못살아부난게 그런 거 안 헤여.

@1 경해도 쉼번 보렌 덩겨 받?

#1 아이, 것도 안 덩겨. 쉼 안 질루는 사름은 쉼번 부껴주지도 아녀고.

@1 아.

#1 거 흐지도 못헤여.

@1 놈이 거 빌영은에 병작도 안 헤 밧구나.

#1 아이 거.

@1 예.

#1 우리는 그런 걸 안 해 보난에 잘 몰라 게난.

**장항뒤**

@1 아까 삼촌 그 장항뒤.

#1 응.

@1 보통 거기는 멧 개나 그 장항을 놓니까?

#1 장항?

@1 응.

#1 아, 건 사름이 차이에 있어. 잘살고 못사는 차이에 있어.

@1 응.

#1 게난 잘사는 사름덜은 이 부젯집은 이 삼 년 묵은 장도 잇곡, 사오 년 묵은 장도 잇곡 허주마는.

@1 응.

#1 못사는 사름덜은이 일 년 장이 부듯헤여.

@1 응.

#1 부듯헤여. 게난 그 육지 장허고 여기 장허고는 장 담는 방법, 저 담는 날도 틀리고, 담는 방법도 틀리고, 이젠 장 담는 방법은 거의 비슷비슷해 가는디 날이 틀려.

@1 응.

#1 여기는 이제 날 볼 중을 모르니까, 췌날 안 보고.

@1 응.

#1 저 베염날 안 보고, 경혜근에 그것 저것 무시행 담는 것이 교회, 교회 덩깁니까?

@1 아니우다, 절에 덩깁니다.

#1 절에? 우리 집사름은 교회 덩기는다, 저 난 아무 디도 안 덩겨. 게난 난 무신론잔디, 걸 웨 안 덩기느냐? 난 그 내력을 다 알아부니까 안 덩겨분다 이거지.

@1 응.

#1 몰라서, 무식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1 응.

#1 게난 제주도 장 담그는 날은 언제냐. 선덜그믐날 담는다 영혜근에 그것 이.

@1 응.

#1 그냥 이 아주 분리가 돼 불고.

@1 계난 삼춘네도 선달 그믐날 답습니까?

#1 견디 건 방법이이라. 건 아니라.

@1 응.

#1 계난 잘못됐 거라, 나 아까도 말했주마는.

@1 날 봐근에.

#1 날 봐근엔에, 날도 집 이는 날허고, 저 장 담그는 날허고, 김치 담그는 날은 저 반드시 날 봐근엔에 해야 돼는디, 짐치 담그는 날은 경해도 날 대충 봐도 돼고, 견디 반드시 두 가지는 철저히게 잘 봐야 된다 이거지. 게문 걸 뭐 때문에 봐야 돼느냐? 장 담그는 날은 그 띠 골리는 디가 많아.

@1 예.

#1 그 집 안네 다섯 사름이 산다.

@1 예.

#1 경허면 부부허고.

@1 예.

#1 톨 아덜허고.

@1 예.

#1 손지나 뭐 하나 이디 잇고 영 허민 다섯 사름 식구 아니라게이.

@1 예.

#1 그 중에서도 베염띠 가진 사름 이시면.

@1 못허고.

#1 그 날은 안 담아야 돼고. (웃음) 베염날은 그다음에.

@1 쉼날도 안 허고.

#1 어, 소날도 쉼띠가 이신 사름은 아이 안 뉘덴 헤근에 헤가지고. 게 뉘 날 이 좋느냐? 토끼날 존덴, 토끼날도, 용날도 안 좋덴 허고, 토끼날이나, 토끼날 허나 게 아니면 므날이나, 응.

@1 므날허고 독날.

#1 독날.

@1 응.

#1 그날 영 헤근에 허영은에 그 독날은 웨냐, 장에 이가 이니까 이 저 이빨 저 무시거 버랭이 좃어먹어 분다 헤근엔에.

@1 응.

#1 헤근엔에 좋덴 허는디, 건 우린 건 이론적인 거 닳아 뵈여. 경헤근에 문

자 허고 그.

@1 ㄹ날은.

#1 ㄹ날은 그 탈탈탈탈 뛰어댕기곡 돌아댕기곡 해근에 허난 기자 뭐 경, 것도 쁘차녀다 해근에 허영 허곡.

@1 툃날은.

#1 툃날 뭐 나도 거 모르겿어. 경헌디 거난, 그계 아니고, 그것을 진리적으로 잘 알고 그 해근에 허는 것은 반드시 택일을 해여근앵에 허는 사름이 해근에 해야 쁘다 이거여. 게문 뉘 택일을 어떻게 허느냐. 이 육갑을 잘 뉘썩다 어뻗다 가르썩다, 뉘썩다 어뻗다 이게 해근에 허곡, 거꾸로 갖다 츠레로 왔다 해근앵에 질서에 대한 거 나 한번 들어보썩. 질서가 있어야 쉘는데.

@1 응.

#1 이 질서를 몰른 사름신디 가근에 어느 날 장 담그민 쉘쿠과 허난에 그자 아는 대로 지 쉘은 대로 곱아 불어. 거 어느 날 독날이난 그때 허문 어뻗허코. 아이고, 우리 우리 독해치 있어부난 건 아이 뉘고마썩. 경해영 허문 이젠 거 뉘앵 허여. 게문 아, 나도 몰르크라게 영 해영은에 경 해뉘니다게.

(중략)

@1 삼춘, 그다음에 여기도 츠를 뉘디가? 이 동네도.

#1 어?

@1 여기도 츠향 이십디가?

#1 츠향?

@1 츠. 응.

#1 여기는, 아니, 아니 나가 곱아썩크메. 이 이 이 북군썩에는 츠 메는 디 없어.

@1 아.

#1 남군에가 많아, 츠은. 게민 그긴 어느 무슨 낭에 츠를 메느냐 허문이 돛 박낭에다가 츠을이 영 해근앵에이 게근앵에이 츠을 이 향아리나 저 뉘냐 뉘허 벽이나이.

@1 예.

#1 경해근앵에 이 뉘이 귀허니까 뉘허니까이 거 산춘에 가문 많아. 쉘디 이 북군에는 거 츠 메는 디가 없어.

@1 여기는 또 뉘 나는, 나는 뉘덜 이시난예?

#1 응, 경허고 허난 츠 메는 디 없어. 게난, 아 벨 거 다 들어보네이. 그 츠 이엔 현 거 쉘은 사름덜 알아지카?

@1 여기 삼춘 여기 게문 어디 강 보통 뉘 질어당 먹언, 여기서는?

#1 여기는이 썰 물 좋은 디가 이 감수, 감수, 이름이 감수.  
 @1 가물개.  
 #1 감, 감수, 감수.  
 @1 감수.  
 #1 들 자, 감 자, 물 수 자, 감수.  
 @1 응, 든물이로구나, 든물.  
 #1 든물이라고 해서이 이름이 감수라, 감수동, 감수동.  
 @1 응.  
 #1 경헌데 이젠 그 이름을 또 바꾸와서 이 요즘은 언어순화라고 해서이 그 옛날 말을 바꾸아근에 막 좋은 말로만 막 그쪽으로만 막 가는 거라이.  
 @1 응.  
 #1 겐디 여기가 삼양이동.  
 @1 응.  
 #1 이동이 가물개.  
 @1 예.  
 #1 가물개, 가물개는 어떤 동이냐. 감수가 있어서 가물개엔 허고 감수동이다 이거여이.  
 @1 응.  
 #1 감수동이다 헛는데, 저 여기서 한 블록 더 올라가면은.  
 @1 응.  
 #1 일주도로가 있어이.  
 @1 예.  
 #1 그기는 거석동 해불어이.  
 @1 응.  
 #1 겐디 이젠 통합을 헤 불엇어. 이젠이.  
 @1 응.  
 #1 거기도 삼양이동.  
 @1 응.  
 #1 일동은 이기가 이 여기서부터는 일동.  
 @1 설개.  
 #1 설개가 일동. 경혜근에 허면은 그 이름을 어떻 언어순화를 헤근에, 경헌 디 이름을 좋게로만 막 만들어 간다 이거라이. 게문 이놈이 저거 난 구별을 허기가 어떤 땐 힘들 때가 많은데, 이런 디는 물이 좋다 이거라이.  
 @1 응.

#1 게 우리는 어디 물 먹었냐면 여기 감수동 물은 아니고 저기 가까운 디 백딘 디 그 저 사삼사건 때 물 속에 들어갓당 죽을 뻔 행, 멧 번 허멍 살앗덴 현 디 그디 가문, 요만인 현 디 딱시 물이 들어와, 나와. 나와근엥에 허는데 또 물 들어불곡 허민 짚물이영 막 서꺼져 불어이. 게문 조금 짚물에. (웃음) 쟁 우린 그런 물 먹으멍 헤근에 헛는다.

@1 그 물 이름은 뭐우파?

#1 거, 거 잇어불엇어게.

@1 아.

#1 굴강물인가?

@1 굴강물?

#1 어어, 아, 겐에 굴강물인가 경 헤나신디 게 흐썰 저짜 동쪽에 동카름더레 그 저 저 그디 설개레 그디 가면은 그디, 그디는 또.

@1 물통도 이십디다.

#1 응, 물통도 잇곡 경헤근에 영 이 궤 닳은 그 밑에 이 물이 잇어이. 게문 이 짚물도 들어오곡 든물도 나가곡 경헤근에 허는다. 그디 보문 은어라고 경허 는디 이제 거 엇어져 불엇어.

@1 아, 옛날에 은어도 잇엇구나.

#1 응 막 잇어낫인디 것도 엇어져 불고. 물이 막 오염돼가지고 계난에 그디 물도 경헤근에 먹곡 허민. 저 동카름에 그디 설개엔 현 디 그디도, 그디도 저 행 헤근에 현 디 그디도 물이 흐썰 짜.

@1 예.

#1 게근엥에 헤근엥에 현디 짚물 무시거 뭐 헤도 이쪽에 해변에 사는 사름 델은 상당히 물 걱정은 안 허고, 촌이엔 현 건 저 웃드르 사는 사름, 우리말로 제주도말로 방어로 웃드르 사는 사름.

@1 응.

#1 아, 게문 문어로 말허문 산촌이지.

@1 응.

#1 산촌인디 그 그쪽에 사름델은, 아, 그 촌이엔 현 것도 아, 것도 기록을 헨, 옛날에 잇어난 불러난 이름이니까.

@1 예.

#1 이름이니까 혈 수가 잇다 이 말이지?

@1 예.

#1 경헤근에 현디 맞아 그거는.

## 1.2. 구조 ②

@1 계난 집 몇 거리라났수과?

#2 집. 하나, 둘, 세 개. 창고까지 허민 네 개.

@1 계민 그거를. 뭐 삼촌네 사람들은 안거리?

#2 안거리.

@1 바깥딴 건?

#2 목거리.

@1 목거리.

#2 집 뒤에 나중에 짓은 집덜이난 뒷방.

@1 뒷방.

#2 응, 겐 집이 혼 대엿 개 잇어났어.

@1 댓 개 지언예. 계문 집들을 보통 보면 안거리 잇고, 밖에 거는 무슨거렌  
합니까?

#3 밧거리.

#2 밧거리.

@1 밧거리.

#3 목거리.

#3 그다음 목거리.

### 먼문간

@1 그다음에 이문도 이실 거 아니짜?

#3 이문간.

@1 거는 이문간.

#2 먼문간.

@1 먼문간. 응, 먼문간예. 삼양은 먼문간이엔 헛지예?

#2 거 우리 집들은 먼문간을 엇언 살았어.

@1 예. 건 나중에 지은 거난.

#2 아니, 옛날부터 거 지었는데, 타붙어도 먼문간 엇이 살았어.

#3 대개 조금 부자 어른들은 먼문간을 지었주게.

@1 예.

#2 우리 동넨 몇 집.

#3 먼문 달아붙면은 소 같은 것도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허고.

@1 예.

#3 그때는 또, 침 도둑도 엿어났주. 쟁해도 이제 그거 먼문 딱 더꺼블면은.  
 #2 게 잇는 가정이 몇 집 엿어서, 우리 삼양에.  
 @1 예.  
 #3 먼문.  
 @1 먼문에.  
 #2 먼문 잇는 집이 삼양에 열 집이나 안 뵈어.  
 @1 아.  
 #3 나 알다시피.  
 #3 게난 먼문간에 이제 멍석들도 이렇게 돌아맹, 이렇게, 돌아메곡 이렇게 놓주게이. 게곡 한쪽에는 소도 질루곡, 경행 먼문간.  
 @1 가운데는 문.  
 #3 응.  
 #2 옆에는 방 하나. 소 하나.  
 @1 응.  
 #3 방도 꾸명 사는 사름도.  
 #2 딱 집을 지면은 일로는 복판으론 문 둘앙 안거리 가고. 이건 소, 여기는 사람.  
 @1 그 방을, 먼문에, 먼문간에 현 방을 무신 방이엔 헛수과?  
 #2 원래는 거 부제칩은 종 사는 집이주. 아이고.  
 @ 장남 둘앙 사는데?  
 #2 부제칩은.

### 흑돌집

@1 부제칩은. 경해근에 이제 하고 먼문간 잇고 게문 네 개가 이신 거 아니라예. 게문 옛날 집들은 돌집이우파? 흑집이우파? 제주도 집은?  
 #2 보통적으로 돌집.  
 @1 돌집.  
 #3 흑돌집, 흑돌집.  
 @1 흑돌집. 근데 어쨌든 돌로는 해근에 흑으로 짓는 거지예.  
 #2 흑 놓고 해근에.  
 #3 응.  
 @1 흑 한번 깔고 돌 놓고 이런 식은 아니지예?  
 #3 경 헛주, 대개.  
 @1 아, 경 하기도 하고. 돌로 다 다근에 흑만 깬 것도 아니고. 보통은 돌집



이런 골앗구나예?

#2 돌집이주.

### 주춧돌

@1 돌집예. 그다음에 삼간집 짓젠 허민, 집 훈번 지어봅서. 땅 다지는 것부터. 순서를 대략.

#2 옛날에 우리 삼양에는 모래가 없으니까 땅이 단단하여. 땅이, 걸으면 데 각헌 땅이거든. 그대로 집을 지어.

@1 음. 게문, 그대로 짓젠 허민. 단단한 땅을 다지고.

#2 돌 저.

@1 주춧돌.

#2 주춧돌을 만들어근예. 네 귀만 만들어 놓은 뉘는 거지.

@1 네 귀예. 가운데는 안헤 마씨?

#2 제일 복판이 포가 양쪽에 잇어야 헤여. 그것이 네 개 주춧돌이라. 이 옆에는 아무거라도 뉘어. 돌면만 이시면 뉘어. 덜 까지거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

@1 응, 포 놀 자리. 포 걸 디.

#2 포가 두 개거든. 하나가 아니고. 딱 그 두 개가 젤 중요한 거.

@1 게난 이렇게 길이로 영.

#2 요 정도 만들어.

@1 음. 주춧돌예?

#2 다 우리 냥으로 난 만들언 헛어.

@1 예. 기본적으로 주춧돌이 네 개가 필요한 거고.

#2 젤 필요한 거.

@1 예. 네 개가 필요하고. 그렇게 헤서 주춧돌을 헤놓고.

#2 아, 으섯 개.

@1 여섯 개. 가운데 거까지.

#2 가운데 상무루.

@1 상무루.

#2 딱 으섯 개.

@1 주춧돌 여섯 개예. 주춧돌 논 다음예. 그다음 험 일이 뉘우파?

#2 그다음에는 집을 올라가는 거지. 지동 허영.

@1 지동 허영.

#2 그다음 포 걸청, 그다음 서리 걸청.

#3 포 위에 상머루 허지 안합니까?

#2 아이, 게난 포 걸청 지둥 허영, 포 허여, 중도리 다 메와. 이 딱 \*\*중동 거리 다 메와. 이제는 저 한가운디 저.

@1 상머루.

#2 상머루에 것도 맞춘덴 허문, 옛날 집들은 요런 식으로이, 이런 식으로. 영 받침 잡고 올라가게.

@2 볼펜 드릴까요?

#2 이거 허젠 허민 이중으로, 이중으로이. 여기가 이중으로 또 영 올라가야, 여기, 여기, 요 정도. 이게 낭을 또 그쳐줘야 헤. 겐 낭 그차주고. 게 나중에 또 하나 올려, 여기서.

#3 맨 위에.

#2 예. 맨 위에 상머루.

#3 그 물매 잡젠 허민.

#2 상머루 영 헤줘. 이것이 기초라, 집이.

## 지둥

@1 삼촌 예. 이거는 포 아니우파예?

#2 포.

@1 포.

#2 포 이거 지둥. 지둥.

@1 지둥들 하는 거고예. 게문 이 지둥은 무슨 지둥헤?

#2 꽃지둥.

@1 꽃지둥이 하나, 둘, 세 개.

#2 ㄹ섯 개.

@1 ㄹ섯 개. 꽃지둥이 여섯 개예.

#2 이짜 이거, 이거 하나, 하나로만 헛 거고. 또 하나 이서야 집이 뉘어.

@1 예. 게난 꽃지둥이 여섯 개 뉘 거고. 그다음에.

#2 이거 들어가고.

@1 이거는 무슨거파?

#2 이거. 이것도 포. 대들포, 이것이.

@1 대들포

#2 쉘 대단한, 큰 포라 이것이.

#3 이 포 다음 이게 상머루.

#2 상머루 다음 거.

@1 중므루.

#2 중, 중도리.

@1 중도리.

#1 중도리, 상머리.

@1 상므루. 게난 이제 중도리, 중므루 이렇게 하는 거고예. 그다음에 또 지  
동 들어갈 게 뭐 이수과?

#2 여기에서 으섯 개 헛지? 요쪽에 방 만들 디 이서. 겐 거실만 기라.

@1 예.

#2 거실만. 방 만드는 이 가생이에 또 요구에 따라서 이제 지동을 헤 주어  
야 허여, 지동을.

@1 방 만들젠 허는 그 지동은 무슨 지동이우파?

#2 것도 마찬가지로 지동이지.

@1 게난 지동. 게난 뭐 저기, 텃지동도 잇을 거고.

#2 텃지동. 허.

@1 개윗지동도 잇을 거고.

#2 개?

@1 개위, 개윗지동 이런 말 안 들어봤수과?

#1 안 들어받.

@1 그냥 지동?

#2 어. 우린 지동.

@1 삼춘넌 그냥 지동.

#2 이 지동은 썬고. 이거 썬금 약헌 걸로 헌 거라.

#3 (웃음) 제라헌 목수가 아니란. 제라헌 목수덜은 다 인제 수가 잇주게.

#2 이거는 제라한 지동이고. 이거는 슝치각으로 딱 만들영. 큰자귀로 까깁.  
각 만든 거고. 이것은 둥그렁헌 것도 뉘어.

@1 예.

#2 갱 만들었어.

## 도리

@1 그다음에 그예 기둥하고. 도리는 몇 개가 필요험니까?

#2 도리?

@1 응.

#2 중도리가 하나, 둘, 셋. 여섯 개.

@1 중도리가 여섯 개고.

#2 응. 이거 이것도 허며는 이것까지 허면. 여덟 개, 열 개 뉘겟네.  
 @1 열 개. 도리가 열 개.  
 #2 이 준비허면은 이것가 들어가니까.  
 @1 예. 그다음에 도리 중에 곱은 도리도 들어가.  
 #2 곱은도리가 이것이 역할을 허는 거라.  
 @1 옆에. 지동 옆에.  
 #2 응, 이거에 다 연결 헤어. 이거이. 요걸로 전부 다.  
 @1 경혜근에 지붕 도리들 하고, 포도 걸고 다 한 다음에, 지붕에 올려야 뉘  
 거주. 지붕 허젠 허면 낭으로 서리 걸치고.  
 #2 게난 이거 위에 다 걸쳐.  
 #3 상머루 현 다음에.  
 #2 집 딱 세우면은 딱 나와.  
 #3 경 혜가민 서리허주게.  
 @1 게난 상머루 혜근에 걸치고.  
 #2 이건 간단허게 헛네.  
 @1 예, 육지 식으로.  
 #2 이거 옛날엔 이거 우리 다 헛어, 이거. 올려놔 이거 혜영 받침 딱로 헛  
 어.  
 @1 이거 동자기둥.  
 #3 동자기둥.  
 #2 요새 이건 창고식이야, 이건.  
 @1 이거 창고식이지에.  
 #3 초가집도 이런 식으로 헛어.  
 #2 아니, 창고집. 우린 이런 집을 안 짓어. 창고식이라 이거. 제라헌 집은  
 영 안 헛어. 아까 식으로.  
 #3 맞아. 이 위에 다시 또 이 상머루가 또 잇고. 경 혜야 이제 물매를 잡주  
 게. 물매 잡아.  
 #2 여기가 거난 못 뺨 집으로도 이거 나왔는데. 일로 테두리가 다 나와. 못  
 뺨 집이여, 이거.  
 @1 이렇게. 여기가 상머루 뉘고.  
 #2 게난 이거 추년인데, 이거이.  
 #3 여기 초가집 지금 뜯지 안헌 디 시난.  
 #2 추년이라부니까 이거 이 집도 이거 간세허연, 이런 식으로 집을 우린 안  
 짓어 봤어.

@1 응.  
 #2 이런 식으로 우린 집 안 지어보고.  
 @2 요게 주춧돌.  
 #2 응.  
 @1 응, 밑에가.  
 @2 밑에. 영 올라오는 요거는.  
 #2 지둥. 다 지둥.  
 @2 이거 다 지둥예, 풋지둥 아까 그거예.  
 #3 응.  
 #2 게 이거 복판에 두꺼운 것이 제일 지둥도 좋아야 헤여.  
 @1 복판에 게.  
 #2 낭으로 깨끗하게 까까근예. 사 개로 뒤편이, 네 개로 뒤편.  
 @1 거난 앞에서 딱 볼 때에 이제 가운데.  
 #2 들어가면 거실에 보면은 딱 여섯 개가 딱 있잖아.  
 #3 요 밑에 가민.  
 #2 거실에 딱 들어가면은 마루방 놔도.  
 @2 네 귀가 딱.  
 #2 딱 잇단 말이여. 베끗디 방안이 건 다 막아져부난 몰르거든.  
 #3 이런 식으로 다 뒤편예, 응 이거 맞아. 우리 밑에 집도 이런 식으로 인제 영 헨 위에 올린 딱.  
 #2 게난 이 저.  
 #3 서리 걸치난.  
 @1 이게 포 아니우파예?  
 #2 응, 포. 포 우이 이추룩 허여, 올라가게.  
 @1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  
 #3 것도 포.  
 @2 이것도 포고.  
 #2 이디 올라 강 하나 이서야 상, 상마루.  
 @2 이건 상마루고.  
 #2 상마루 걸청. 이거 추년이 영 나와 이거. 양쪽에 으섯 개, 네 개.  
 @1 예, 이렇게.  
 #2 우리 제주도는 경.  
 @2 추년서리가 딱 잇어야. 이거는 이제 난간. 뿔지둥 헤갖고.  
 #2 난간이렌 헨 것도. 이 지둥은 좋아야 헤여. 이 안에 거나 마찬가지.

@1 예, 예.  
 #2 보기 좋은 거 해야 하여, 양쪽에. 양쪽에 있어야 됴.  
 #3 대개 이제 노가리 많이 썼지, 굴무기 같은 거.  
 #2 사삼, 사삼 전이 다 낭간 행 나가 살았는데.  
 @1 계난 이 지둥 헤갓고 낭간이, 텃지둥을 노가리로 헛어마씨? 낭들?  
 #2 노가리가 어디 경 이서게?  
 #3 아, 옛날에 노가리 있어.  
 #2 굴무기, 노가리.  
 #3 굴무기는 조금 \*\*연드릅주게.  
 #2 사오기.  
 @2 이거.  
 #2 이거 초가집이네.  
 @1 예, 성읍 거.  
 #2 성읍리 집 짓는 거는 여러 사람이 집을 새를 더퍼놓니까 골짜가 생겨.  
 걸 알아야 됴.  
 @1 계난 혼자.  
 #2 혼자 허면은 우린 이 년에 딱 더프잖아. 이걸 매해 더퍼, 성읍리. 계도  
 골 까져. 여러 사람 헤놓니까, 손이 다 틀리거든. 많이 놓는 사람. 덜 놓는 사  
 람.  
 #3 겨고 성읍리 새가 조금.  
 @1 비도 하영 오고예?  
 #3 약허주게.  
 @1 아, 새 자체가.  
 #3 이 제주시 관내는 땅이 뉼땅에서 허니까 새가 아주.  
 #2 이거는 못 뺨 집이라, 못 뺨 집.  
 #3 좋고. 그쪽에는 뜯땅이라이. 뜯땅에서 인제 새가 난 새는 조금, 그 무슨  
 새엔 험니까? 거.  
 #2 하여튼.  
 #3 새가 안 좋덴 허여.  
 #2 새가, 여기 새하고 성읍리 새허고 틀려, 질이.  
 @1 질이.  
 #2 웨냐, 흑밭디 춘흑밭허고 죽은흑밭허고 틀려. 심이 없어.  
 @1 저긴 식은땅들이구나예?  
 #3 계난 성읍리에 그 초가집들은 일 년에 혼 번씩 이는 거주게.

@1 예.  
 #2 겨고 여러 사람이 일어부니까. 거긴 하루에 다 줄 놓고 일고 허지 안허여.  
 @1 예.  
 #3 전문적인 사람들이 잇주게.  
 @1 계난 우리 보통 집 지을 때 지둥들은 아까 얘기 헛던 것처럼 굴무기를 하영 썬예.  
 #2 굴무기 없어.  
 @1 없어. 소낭?  
 #2 소낭.  
 #3 우리 밑에 집은 굴무기, 사오기 다 써십디다.  
 #2 경헌 집 멧 집 없어.  
 @1 계난 옛날에는 마루 놓젠 해도 굴무기 마루, 사오기도 하고예.  
 #3 굴무기 마루데 뜯지 안행 그냥 잇주게, 그 집은. 근데 반은 인제 집 새로 개조행 쓰켄 허영 목수가 고쳐분 거라. 짤랑들.  
 #2 옛날엔 이거 맞아. 이거 돌 요정도 허고 요기는 튀기 올련에 흑 발르고. 옛날 영 헛어.  
 @1 응. 튀기 올련은에 허는 거예?  
 #2 이 위론 튀기 올련 흑 발르고, 보기 좋게. 돌 싸멍.  
 @1 반축 허젠 허니까 영 헨 거 아니파예? 반축.  
 #2 아니 원래 이거 모양이라, 모양.  
 @1 모양으로.  
 #2 모양으로 돌아가멍 집 싸악 헛어.  
 @1 예.  
 #2 문 우에. 문 우에도 다 이런 식으로 헛어. 옛날 초가집은.  
 @1 그것도 잘 사는 집이나 해야 그렇게.  
 #2 그렇지. 잘 사는 집.  
 @1 일반 사람은 저런 거 안 헛수게. 그냥 돌로 좌악.  
 #2 무조건 올려.  
 @1 예. 일반 사람들은.  
 #2 올릴 사람은 무조건 올렸어.  
 #3 올로 요 사이에도, 나무로, 촘나무로 이렇게 딱. 그 판자, 판잘 만들앙.  
 @1 빈지.  
 #3 응, 이렇게 부쳐주게.

@1 예, 빈지널예.  
 #2 지금 우리, 빈진가? 우리 지금 밑에 집에 그렇게 헨 이수다게.  
 #3 풍채, 풍채.  
 @1 계난 집 앞에 거 이제 하고. 그다음에 삼춘 그 서리 같은 경우는 무슨 나무로 험니까?  
 #2 옛날에는 아주 여러 가지 낭 헛어. 잡낭으로.  
 @1 잡낭으로.  
 #2 응.  
 @1 서슬은?  
 #3 대게 인제.  
 #2 서슬은 대.  
 @1 대로 하고.  
 #2 대하고, 저 우리 동네는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자라난 아카시아나무로. 대, 대가 주로 많이 헛지.  
 @1 응. 아카시나무로도.  
 #2 응. 가는 거 헤다근예.  
 @1 아, 경 걸로도.  
 #2 헤나고, 서리 다 헤나고. 옛인 집은 그런 거 해당 허는 거주. 어떻 헐 거라.  
 @1 그다음에 튀기 헐 때는 무신 낭으로 허여?  
 #2 튀기 헐 때게 똑같이 대나무.  
 @1 대나무로.  
 #2 낭도 까깁 허고.  
 #3 낭도 깨영들 허곡이.  
 #2 낭도 깨고.  
 @2 낭도 깨고.  
 #3 우리 밑에 집에 헨 거 보니까, 촌나무 그 서실대들 다 썬더라고.  
 @1 예.  
 #3 겨곡, 서리도, 그 뿔고, 굴무기 아니고, 사오기. 그걸로 짝 헤연. 옛날도 인제 그런 사오기 헤야, 좀 안 먹영 오래 간덴 헤영. 그것 썬더라고.  
 @1 삼춘네는 부자라났구나예.  
 #3 아니, 놈이, 우리도 회천 7는세 간 살던 집 뜯어단 이제 그 집을 저 지 옛젠 허더라고.  
 #2 옛날 집 사단 헨 거.



#3 계난 지금쯤은 한 백오십 년 뉘 집이주. 백오십 년 뉘 집.  
 #2 우리 할아버지 산 때는 그런 낭이 있어났는데 불 타부니까 사삼 때.  
 @1 예. 불 타부난예. 계난 옛날 불 타도 그.  
 #2 그런 낭으로 헤낫주.  
 #3 요 밑에 가면 초가집.  
 @1 예, 예.  
 #3 그 초가집엔 제라한 나무 씻을 거야. 거긴 삼칸집이니까, 제라헌, 그 옛날 부자.  
 @1 문화재.  
 #3 거기 인제, 그 집에가 박사들이 많이 난 집이여.  
 @1 아, 기파?  
 #3 강○○이라고 그분이 중앙대 교수헛는데 그분허고 큰형은 일본서 국문학 박사허연 여기 왔다갔다 헤낫주게.  
 #2 그 집이 머리는 다 좋앗어.  
 (부분 생략)  
 @1 그다음엔 예. 그 삼촌 이제 튀기엔 허고 그다음에 아까 빈지, 영 빈지도 부찌고. 널. 튀기 밑에.  
 #3 응. 그 초가집엔. 빈지 부쩍 잇일 거라.  
 @1 예. 그런 것들 하고.  
 #3 그 오랜 집들은 대개 빈지 부쩍주게.  
 #2 난 경헌디 안 살아보민 몰라.  
 @1 그다음에 방은 어떤 식으로 꾸며집니까? 보통. 방은 몇 개 헛니까?  
 #2 딱 옛날 세 개. 네 개 허는 집은 스칸집.  
 @1 스칸집이고. 삼칸집은 세 개 또는 두 개. 게은 하나는 큰구들.  
 #2 족은구들. 북덕방 하나. 아이들 공부 허는 방.  
 #3 대개 방 두 개 헛수다게.  
 @1 두 개.  
 #2 우리 집은 방 네 개 헛어. 사칸집이니까.  
 #3 건 늦게 지으난. 일찍 헌 건.  
 #2 아니 큰 집 헌 건 타 불어도. 경 헤난 거. 큰 집.  
 #3 큰방허고 족은방허고, 그다음은 찻방이엔 행 잇엇주게.  
 @1 예, 찻방.  
 #3 또 한쪽에는 또 고팡이엔 헤연, 그 쌀 같은 거 이렇게 놓는 디 잇고.  
 @1 고팡 잇고. 쟁 네 개에 또 마루 이제 놓고예. 이 삼양에는 마루에 돌화

로 같은 것도 낚신가마씨?

#2 엇어.

@1 여긴 엇어예?

#3 여긴 안 낚.

@1 부섭 박는 거 이런 건 엇지, 여긴예?

#2 그건 삼달리 가야 있어.

@1 삼달리 가야.

#3 삼달리들 마리에 잇더라고.

#2 나가 잘 알거든이.

### 흑질

@1 거난 보통은 흑질은 어느 때 흑질허는 거우파?

#2 무신 흑질?

@1 집을 벽에 영 흑질헤야 헐 거 아니우파? 고데 올령도 허고.

#3 아, 집들, 새 집 지영.

#2 집 지을 때에 동네 상뒤꾼 모영 헐 때에.

@1 응. 그건 언제.

#2 그때는 날짜 방 허는 거주.

@1 그니까.

#3 거난 아까 굴안게. 무슨 날, 무신 날 나쁜 날은 안 헌덴 말이주.

@1 게난 지붕 일 때 말앙. 흑질 허는 날.

#2 흑질 허는 날 마찬가지로.

@1 삼춘 풋죽 헤근에 헌 그 얘기를 헤줍서.

#2 게메 거라.

#3 흑질 헐 땐 날을 별로 안 보고.

@1 흑질 허젠 허민 동네 사람 다 모다지고.

#2 다 모여정.

#3 동네 사름 다 모여정.

#2 물 질어오는 사름부떠 우린이 우리 집은 멀어 놓니까, 바닷가 멀어 놓니까  
소소한 물을 헤영은에 흑질 못허지게.

@1 예, 게난 어떻?

#2 상뒤꾼 막 동원헐지 뭐. 물 질어오민 고마와, 옛날에는.

@1 게난 다 허벅으로들.

#2 다 허벅.

#3 질흑 해당 이 위에 질흑탕덜이주게.

#2 마차들 싣고.

#3 요 위에 가면 맨, 도련이동에 그 밧들이 대개 질흑땅이라. 거기 질흑땅덜 파당 인젠.

#2 흑질허는 거지.

#3 뭐 저 뵈고, 처음은 지푸럭지덜 영 썰영 낳. 그다음은 인제 막 그걸 블라.

#2 하튼 촌흑. 저.

#3 발로 불르고 어튼 땀 쉼로도 인제 영 그 불양 인제. 그걸 막 꾸영. 경 행 인젠, 그 수리허기 전에. 튀기 얽은 위에 인제, 그걸 저 튀기 올려낳, 흑을 인제 놓는 거라. 경해야 인제 옛날은 어른들이 참, 머리가 상당히 좋은 어른들이라. 경해야 덤지도 안허고 춥지도 안 헌덴 헤영, 그걸 헌 거. 경 또 영 보민, 집도 가지를 이렇게 내령, 내리니까 바람도 덜 들어오고, 또 시원허고 여름이면. 아, 거 참 그렇게 집을 지어놔더라고 경 행 우리도 어릴 때는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게문 상당히 그 옛날 어른덜도, 지금도 과학이 좋덴 헤도 옛날 어른덜이 더 좋았어, 영 보니까.

#2 하여튼 옛날 어른들이. 흑집에 사는 분들이 이 돌을 싸는 것이 특수헌 머릴 가진 사람들이라.

@1 으음.

#2 이거 아무나 못허여. 브르끄집은 저리 가라야. 이걸 헤놓면은 브름이 안 들어와. 푸건허여. 옛날엔게 땀감 엇이 저 7시락만 때도.

@1 살아신디.

#2 방이 후끈후끈헛는데. 이거 덕분에, 돌이 막아졌. 흑 불르겏다, 딱헤영 이거 최고 좋은 거여. 옛날 어른들 머리가 좋아.

@1 이제 그런 식으로 헤근에 이제 하고. 그 집 앞에는 풍채 아까?

#3 응. 풍채.

#2 것도 아무 집에나 안 허여. 것도 부제 잇는 집이.

#3 부제 아니라도.

#2 난간 잇는 집이 난간. 난간 잇는 집이 걸 해서.

#3 그 대개민 우리 삼양이동에는 동향칩이 만허니까, 동향은 셋브름 불곡, 셋바람 불 때가 비가 많이 오주게. 게민 채양이 있어야 헤여. 경허고 햇빛이 또 집에 얼른 저, 채양 쳐불면 햇빛이 안 비추주게. 경 행 채양 지곡. 여름엔 시원허고. 비 쳐도, 비가 와도, 집 안터레 비가 안 들어오고.

@1 게난 삼양은 무사 동향이 많은 거우파? 집이.

#3 지형이. 지형이 대개 동향, 지형이라고 경들 많이 허고.

#2 지형 따라 집을 낫는데, 남향판 동향판이 지경 따라 터 보는 사람덜은 경허는데, 남향판이 많네요.

@1 보통 남향하는데 여기는 동향도 많다라는 거잖아예?

#2 남향판이 원래 많아.

### 백장

@1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방을 꾸미면 방에 백장들은 다 낫수과? 아니면은.

#2 백장은 다 낫지.

@1 아, 족은방에도예?

#2 것이, 하여튼. 궤들 하나씩, 옷들 놀 거 다 낫어. 거 없는 집도 잇긴 잇는데.

@1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백장할 거고예, 백장 말고 옆에 이렇게 그 휘도 멘들아근에 옷들도 걸어신가마씩?

#2 아, 대로 헤영?

@1 예.

#2 그런 집도 있어.

#3 건 인제 낭중에 헛주. 처음은 그런 거 못헤여.

#2 그런 집덜이, 옛날 그 대 해당 걸은 집들이 멧 집 엇엇어. 우리 집들은 엇엇이니까.

@1 예.

#2 타기 전이도.

#3 옛날이야. 지금이난 옷들 낫주. 중간 부튼 디 옷덜 그런 거 행 걸곡 영 헛는데. 아주 옛날엔 그런 옷을, 여유 잇지를 못헤영이. 우리도 인제 초등학교 뎅길 때도 참, 옷 하나 가정 겨울도 살곡. 여름에 살곡 영 헛주게이. 여기가 또 바람이 상당히 많이 허난. 여기가 동산, 아이고, 학교, 초등학교 뎅길 땐 옷 이라도 두껍게 입엇어? 저 동네도 잘 못 입으니까. 침 축게덜 행 뎅겻주.

#2 옛날덜이 요샌 호강 헤서 거지. 양말이 어디 셔? 응. 신발이 어디 셔? 우리 초신 신언 학교 가낫어요.

@1 예.

#2 멘촌 사름들은 낭으로만 저.

@1 남신.

#2 남신 신영. 경 헨 뎅겻어.

@1 아이고.

#2 이제 사람들은 굴민 몰라.

@1 마리는 뭘로 헛수과?

#2 마루? 옛날엔 게도이, 조금 오랜 집들은 \*\*잡낭으로 낚어, 잡나무.

@1 잡나무로 하고. 그다음.

#2 사오기 7튼 거이.

#3 사오기, 굴무기 대개 씻주.

#2 굴무기 그런 것덜 많이 낚어.

@1 잡나무 완전 좋은 나무 아니예.

#2 응, 좋은 거주.

#3 경 해야 첨 번들번들허주. 이추록, 이 색갈 낭이.

## 마리

@1 게난. 그 마리도 보면. 요즘에 짹 짹 헤근에 쪽마루 이렇게 헛주마는 옛날에는 그 무신 마리렌 헛니까? 그거.

#2 쪽마루.

@1 쪽마루?

#3 아니, 쪽마루 아니, 이렇게 넓어.

#2 쪽마루, 쪽마루. 요 정도게 \*\*도리 메와근에 흙 갈앙 딱딱 \*\*젍젍수게.

@1 끼우지 않습니까? 요만씩 헤근에 딱딱.

#2 일로 시작헿, 일로 찢렁, 또 일로 헿 일로 메왕 찢렁. 이만쯤에 딱 헿 마 무리 헤불면 뉘.

@1 게니까 그게 여기 마루널 끼워 넣는 게 잇고. 이렇게 긴 낭 잇지 안허우 파?

#2 거의 다 흙 갈아 잇어.

@1 그 낭은 뭘렌 헤?

#2 거, 것이 뭘냐허면은. 예, 마루. 마룻골이쥬, 골.

#3 귀클, 귀클이렌 허는가?

@1 응. 귀클.

#3 게민 그것도 광작하게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이 비식허게 파놓는 거라. 경 헿, 마루가 이렇게 놓면은 튀어나오지 안허고. 못질 안허도 그대로 뉘게끔. 딱 딱 헿. 참 잘 헿더라고.

#2 옛날 어른덜 머리가.

@1 거니까.

#2 흙 갈앙.

@1 흙덜 헤근에예. 그다음에 그, 그 널마리 논 거 아니라, 널. 마릿널 헤갓고 예.

#3 응.

## 정지

@1 그다음에 이제 정제, 정제 험니까, 여긴 정지 험니까?

#3 정지? 정지, 부억.

@1 예, 부억. 여기는 정지에는 무신거 무신거 낫수과? 일단은 솟덕 앓질 거고.

#2 솟덕 앓지고 저, 찻장.

#3 살레엔 헛주, 살레.

#2 찻장.

@1 찻장을예?

#3 지금 찻장이고 그땐 살레엔 헛어.

@1 옛날 살레. 살레 놓고.

#2 낭으로만.

@1 살레도 놓고. 그다음엔? 물항도 놓고.

#2 물항 놓고. 또

#3 물팡.

@1 예. 물팡은 집앞에예?

#2 집 밖에, 안에 물항 놓고.

@1 보통 솟은 몇 개 앓져신고예?

#2 건 집에 따라 보통 세 개 뉘어.

#3 세 개.

@1 세 개.

#2 보통 세 개, 네 개. 부젯집은 네 개, 큰다가리까지. 건 고구마 찌는 거.

@1 큰다가리에.

#2 메주 삶는 거.

@1 메주 삶는 거. 맨 큰솟예, 그거는 뭐엔, 큰다가리엔 곱아?

#2 응, 큰다가리.

@1 그다음 두 번째 거는?

#2 밥통이주. 밥.

@1 밥허는 솟. 말치.

#2 그다음 국.

@1 그다음 국 허는 거.

#3 큰다가리.

#2 아, 큰숫이주, 큰숫.

@1 게난 맨 그 가마숫, 그거를 큰다가리엔 헙니까? 여기서?

#2 응.

@1 건 어느 정도 들어가는고예?

#2 크, 많이 들지. 콩 혼 두 말, 두 말 이상 들어.

@1 두 말.

#2 숲으믄 메주가 뉘게.

### 굴묵

@1 걸 큰다가리엔 헤예. 네 개, 세 개 이렇게 이제 허고. 그다음에 그 재들은 굴묵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 불 솟젠 허면, 방에 불 때젠 허면.

#2 굴묵은 딱로 만들어야주. 굴묵 들어가는 거 만들어. 돌로 다프면서 굴묵에 돌 깔앙, 것도 머리가 좋아야 방이 뜻아. 거 나가 다 헤본 사름이난.

### 구들돌

@1 돌 다 들어가게 영 돌 좌악 놔야 험 거 아니우짜? 그 돌은 무슨 돌 헙니까?

#2 그냥 돌.

#3 구들돌.

@1 구들돌.

#2 구들돌 헤도. 구들돌도. 눈이 훑어야지, 눈이 줌진 건 뜻질 안허여.

@1 아, 그런. 돌을 험 올 때 눈을 훑은 걸로.

#2 헤야 뜻아. 흑 깔아도, 뜻아.

@1 거난 고망 보롱보롱 나지 안헙니까, 제주도 돌예. 그걸 굵은 걸로.

@2 그게 눈이렌 곤는구나예?

#2 것이 훑어야.

@1 훑어야 뉘. 보통 구들돌은 멧 개 놓니까?

#2 중앙지만이 일로 예, 일 메다, 일 메다 이십 정도는 일로 돌 중간중간 놔가고. 이 더프는 것이 마찬가지로. 더프는 것이 두 개냐, 네 개냐, 세 개냐. 돌에 맞춰. 이것이 넓은 거냐 좁은 거냐 허는 식으로. 게, 놓면은 여기서 불 때면은 일로 허민 여기서 양쪽으로 불이 나가니까.

## 고팡

@1 경 해근에 구들돌 잘 놔야 되는 거고예? 그다음에 구들 허면 또 뭐가 있나. 그다음에 아까 저기 고팡에, 고팡에는 보통 뭐 놔마씨?

#2 향아리.

@1 향아리에, 그 향아리들이 다 쓸 놓고 허지예?

#2 쌀 놓고.

@1 그다음에 그 고팡에는 또. 마리를 깔아수과? 아니면 어떻게수과? 여기는.

#2 옛날은 다 마루 깔았지. 옛날에는.

@1 옛날에는 마루 깔았구나. 거기도 문들도 잇잖아예?

#2 응, 문 헛지.

## 창곰, 고팡

@1 거 무슨 문 헛니까? 거기는.

#3 창곰, 창곰.

#2 아, 그냥 거실에 들어가는, 거실에 들어가는 문 하나가 잇고.

@1 널문으로 들어가는 건 널문 허고. 저기 안에는 창곰들 멘들고.

#2 창곰 요멘헌 거.

@1 예, 거 창곰은 무사 멘드는 거라마씨?

#2 거는 흙곰 붉아지게. 옛날엔 전기가 잇이니까.

#3 붉아지고. 공기 순환허게.

@1 공기도 순환허고.

#2 밝아지게.

@1 예.

@2 고팡에 마리를 깔았다고마씨? 그냥 흑바닥 아니고?

#2 흑바닥 허당 매번 그거 맨발에 그디 갈 건디.

#3 지금 우리 밑에 집에 향아리가, 상당히 큰 향아리가 잇는다. 이사 뎡기, 우로 이사허멍 그냥 내불엇주, 지금. 고팡문이영 못질행 증가불어동. (웃음) 거기에 흥두깨비여 뭐, 향도 큰 향. 그건 꺼내질 못허여.

@1 삼촌 그거 우리 나중 사진 한번 찍영 놔뉘야크라. 그 향은 무슨 지세향 이우파? 아니면 어떤 향이우파?

#2 아니, 쓸향이주게.

@1 쓸향이면 저 뭐, 대정향이구나.

#3 응, 쓸향 흑으로 만든 거주게이. 경 행 옛날 집은 다 그런 것들 잇어났주



계. 쟁 대개 깨불고 영 허는디 난 그걸 깨불지도 못허고 그냥 내부난.

#2 거 골동품으로 놔둬야 허여.

#3 (웃음)

@1 나중에 한번 그 흥두깨영 한 번 사진 한번 찍으쿠다. 거 문 열아 줘서.

#3 지금 거기 막 문지로 쓰곡, 그실목으로 그냥 막 집이 똬을 건디. 그딘 더  
꺼 내부난.

#2 그 맛으로 찍는 거라.

@1 그 맛으로 찍는 거 맞아, 맞아.

#2 그 맛으로 찍는 거지, 옛날 골동품이.

#3 흥 삼십 년.

@1 찍영 놔둬야지.

#2 그렇지.

#3 나가 거기 나온 지가 한 스십 년 이상 똬난.

@1 아이고, 그거 막 썩엄시쿠다.

#2 골동품 썩진 안허여.

@1 안 썩읍니까?

#2 절대 안 썩어.

#3 건디 거기가 인제 고팡문도 이렇게 헤연 종이 싹 블라불언 출입도 안허  
고. 세 든 사람들도 그거 열어볼 생각도 안 허고.

@1 아니, 고팡만 따로 허곡.

#3 창곰으로. 거기 무신거 들어서카부덴 귀헌 거 들어서카부덴, 창곰으로 저  
똬고, 똬 사람들 들어갓더라고.

@1 아, 도굴꾼들.

#3 응, 계난 거기.

#2 보물 들어서카부덴.

#3 보물 이시카부덴. 쟈 거기 인제 조금 막아불엇주, 인젠.

문

@1 그다음에 삼춘. 문들도 들앗지 안허우파예? 옛날 집들은 어떤 문들 돌아  
신고예?

#2 미달이문들 잇주게.

@1 미달이문들 하고. 그다음에 옛날 대문은 널문 아니?

#2 대문은 널문.

@1 예, 마루, 마루문 다 널문예?

#2 널문.

@1 널문으로 헤근에.

#3 참나무로 헛지, 대개 영 보민 이, 옛날 집들. 참나무들. 이 소낭으로 허면은 좀 일고 비바람 치면은, 그냥 훈 멧 년 안 가. 대개 참나무로 헤야 오래 가주게이. 게민 사오기나. 굴무기로 대개 헤영 비바람 맞아도, 얼른 좀 먹지도 안허곡 썩지도 안허니까. 그런 나무들을 많이 사용허여.

@1 게난 그 널문을 허젠 허면, 그 마루예, 이 밑에 영 헤근에 그 저.

#2 돌치기.

@1 아니 지두리.

#2 게난 영 팡.

@1 지두리고망.

#3 지두리고망. 게 돌치기엔 허나?

#2 돌치긴디 것이.

@1 지두리고망마씨? 지두리고망.

#3 응, 지두리고망

@1 돌치기는 옆에 박는 거고.

#2 지두리고망.

@1 예, 지두리고망예. 쟁 그 밑에는.

#2 그 밑에 것이 낭이 좋아야 허여.

@1 그 지방. 그 현 거예?

#3 지방.

#2 지방 그것이 좋아야, 이거 돌아가도 안 허지. 게 안 허민.

@1 쉰 나무로 헤근에. 우알로 다 박지예?

#3 우알로 박지.

@1 예, 우알로 박아근에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긴 창문들은 옛날엔 어떤 걸로 헛수과?

#2 쌀문.

@1 쌀문으로, 응. 저 창호지 불리는 걸 쌀문이렌 곶아?

#2 쌀문 잇고. 또 이 저.

@1 지게문.

#2 베꿏디 지겟문 잇어, 알룬 거. 것도 마찬가지로. 거 블라근에 것이 혈민 또 불르고. 안에 건 안 불르고.

@1 그다음에 문 이름들도 다 특나지 안헤마씨?

#2 다 틀리지.

@1 어떻게? 마리에서, 아니, 바깥에서 마리로 가는 것은 대문이잖아?  
#3 응. 대문.  
@1 방에서 마리로 가는 것은 무신 문이우짜?  
#3 지갯문?  
#2 맞아, 지갯문.  
@1 지갯문 말고 그럼 부엌에서 쳃방으로 가거나.  
#3 쳃방문. (웃음)  
@1 쳃방문. 셋문은 어디우짜?  
#3 셋문? 셋문이 이제 마루에서 찻방드레 가는 걸 셋문이엔 헛일 거라.  
@1 아, 마루에서 찻방으로 가는 게 이제 셋문예? 부엌에서 찻방으로 가는  
거는?  
#2 부엌에서 찻방으로 가는 거는, 부엌으로 뜨른 문을 허는 것이 엇어.  
#3 쳃방문이엔 허지. 쳃방문.  
@1 쳃방문예?  
#2 예. 없어.  
@1 부엌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 잇잖으짜?  
#3 그건.  
#2 정젓문. 저 낭으로 헌 것이 정젓문이주.  
#3 그건 이제, 거 뭐엔 헛드라마는. 정낭, 대문 말고 거기는.  
@1 것도 잇어불언예?  
#2 것도 문은 문이다. 그때 낭으로 만든 거.  
@1 정지뒛문.  
#2 뒛문도 낭으로 만들어.  
#3 정지 들어가는 문 잇고, 또 어디 뒤에 가는, 장항더레 가는 문 잇주게.  
그런 문들. 뭐 다 옛날에는.  
#2 문은 문인데. 이제 잇어 불언게.  
@1 잇어 불언예?  
#3 정짓문이엔 헛주, 정짓문.  
@1 그냥 정짓문예?  
#3 들어가는 건 정짓문이엔 허고. 저쪽으로 가는 건 몰르겠어.  
#2 나가는 문, 저디 가는, 저 장항에 가는 건.  
@1 장항드레 가는 건.  
#3 응, 장항드레 가는 건.  
@1 어딘 가난 정짓뒛문 뭐 이렇게도 얘길하고예?

#2 정짓뒤문이 맞추게.

@1 삼춘, 여기도 그 호령창이렌 헌 거 잇수과? 그 마리문 옆에 작은 문이 또 잇어마씨? 저 성읍 가면은 누게 와시냐 허멍 영 물어 보는 거. 그런 건 엇어난?

#3 어, 여기는.

@1 여긴 엇어예, 그다음에 그 굴목디레 가는 디 허면은 이렇게 공간이 따로 영 잇지 안허우과?

#2 어.

@1 건 뭐렌 험니까? 여기서는.

#2 거 부억에 가는 거 거기 이짜엔 몰르주마는 우리는 그런 것이 엇엇어.

@1 아.

#2 여기는.

@1 여기는.

#3 어, 굴목 들어가는 디가.

#2 딱로 딱 들어가는 디가 만드아불곡.

@1 예.

#2 이 남군은이, 또 걸 엇인 거 닻더라.

#4 그거 굴목문이렌 헤신디.

#3 굴목.

#4 굴목문이렌 허여.

@1 굴목문예?

#4 굴목드레 들어가는 디가.

#3 겐디 굴목드레 들어가는 디가.

@1 흐꿈 공간이 잇지 안허우과?

#3 어.

@1 지들커들도 놔두고.

#3 게난 거 ㄱ시락들 거기 놓주게.

@1 예, 예, 예.

#3 그 굴목 그 바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1 예.

#3 ㄱ시락덜 낱 또 불치도 이렇게 거기서 설레로 꺼내곡이.

@1 예.

#3 쟁 행 ㄱ시락 헛당 거기 또.

#2 집안마다 다 틀린데.

#3 7시락으로 담양 불 때곡.  
#2 우린 저 굴목에서 이레 난간디레 나오지 못허게 방디레 나오지 못허게 건 막았어.  
@1 아.  
#2 거기 안 막으면.  
#3 형님네 집은.  
#2 연기가 형편없거든.  
@1 응.  
#3 늦게 짓은 집은 그런 거 엇고.  
@1 엇고, 이제.  
#3 옛날 집들은 다 그거 잇주게.  
@1 게난 그 공간을 뭐렌 헤마씨? 어디 다른 데 가난 무신 호랑가지여, 호렝 쟁이여, 뭐 이런 말 허던데.  
#2 호랑가지는 쭙은 질이 호랑가진데.  
#3 호랑가지는.  
#2 건 난 거기서.  
#3 쭙게 들어가는 거 보고 호랑가지엔 허고.  
@1 예, 가지 잇은 거 보고.  
#3 으.  
@1 응.  
#3 건 호랑가지엔 행, 가지 잇엉 쭙게 들어가는 거 보고 호랑가지렌 허는데 그 굴목드레 들어가는 디도 인제 대개 문을 안 달렸주, 영 보민.  
@1 예.  
#3 그 굴목문이엔 허민 저 바깥으로 저.  
@1 예.  
#2 베꼈디로 문이 없어.  
#3 거 영 보민 그 채양이엔 현 것덜 여경.  
@1 예.  
#3 채양이엔 헨. 그걸 여경 영 세왓주게, 대개.  
@1 아. 그 거적 식으로.  
#3 지금 7치 나무가 풍부힐 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뭐 판자덜도 잇고 허니까.  
@1 예.  
#3 판자문허영 영 세웁지마는.

#2 나무로 풍체 모양으로 만들엉.  
 @1 응.  
 #3 그때는 침.  
 #2 새로 허영.  
 #3 새나 뭇로 허영.  
 #2 굴묵 질어나민, 질은 다음 나온 다음 더퍼도 바람 안 들고.  
 @1 게문 그것도 새로 헝 여꺼근에 헨마씨?  
 #2 응.  
 @1 게문 지직 식으로 이렇게 헤신가마씨?  
 #2 예. 여간 해야주.  
 @1 게문 그 지직헌 거는 뭇런 곶아? 삼춘네 굴묵 질어 나근에 영 그 굴묵  
 앞이 영 세우는 거 아니라예?  
 #3 채양, 채양이렌 허여.  
 @1 채양이렌 헛수과?  
 #3 대게 그런 거 여꺼 논 것덜 보든 채양이엔덜 허주, 영덜 허민.  
 @1 여기 이 동네말로.  
 #3 응.  
 @1 그 채양이 저 풍체도 채양 아니라예?  
 #3 풍체는 그.  
 @1 집 앞이.  
 #3 집 앞이 영 그.  
 @1 예.  
 #3 영 돌아맨 것보고 풍체엔 허주게.  
 @1 예.  
 #3 바람도 막고 비도 막고 허는 거 보고 풍체엔 허는 거고.  
 @1 예.  
 #3 응.  
 @1 채양이엔 현 거는 세우는 거?  
 #3 응, 건 인제 굴묵에 바람 들어가지 안허영 바람막이허는 거 보고 채양이  
 엔 허는 거주게.  
 @1 아, 게민 그건 지직 식으로 헤갓고.  
 #3 응.  
 @1 세로 여경은엔에 만드는 거.  
 #3 응.

#2 지직 못 만든 사람은 양철 7튼 거 봉가당은에 만들영 놓는 사람도 잇  
곡.

@1 응. 양철로도 허곡예?

#2 으라 질.

#3 게난 굴묵 돌이 또 잇주. 굴묵돌.

@1 예, 굴묵돌.

#3 굴묵돌허영 그걸 인제 그 불치 헤영 이렇게 물로 허영 그걸 뒤게 허영  
그 고낙을 딱 막아야 그.

#2 굴묵이 뜻아.

#3 상당히 뜻주게.

@1 아.

#2 경 허곡.

@1 바람이 박으로 안 나가니까.

#3 응, 예.

#2 거 불치들도 허는다.

@1 예.

#2 옛날은 소 메는 집이는 소똥으로 다 막았서.

@1 예, 예, 구들, 굴묵돌 가쟁이를.

#3 응.

@1 응. 쉼똥으로예?

#2 쉼똥으로. 쉼 좋아 것이, 오래 가곡.

@1 아, 쉼똥으로 굴묵도 짚주마는.

#2 응.

@1 그 젖은 거 헤 갖고.

#2 응.

@1 으.

#2 거 다 우리가 헤받.

@1 게문 삼춘, 그거는 게문 굴묵 짚을 때마다 그거를 다 막아줘?

#3 어, 막아줘.

#2 어, 꺼낸 다음, 불치 꺼낸 다음.

@1 불치 꺼낸 다음 무조건 막아 줘예?

#2 불치 꺼낸 다음에 이제 저 고사, 저 7시락 담양.

@1 예.

#2 불 부짱.

@1 예.  
 #2 이제 연기 나오지 못 하게, 딱 연기 막아불민, 거 막아불민 연기가 안 나와.  
 @1 응.  
 #2 그 안에서 연기가 다 돌아가는 거, 순환 되는 거.  
 @1 게문 항상 저기 쉼퐁은 여기 갖당 놔둬구나.  
 #2 응.  
 @1 게문 물 물르면은 물 적시명 영.  
 #2 물도 적지곡.  
 @1 젖은 걸로 그냥 허기도 허곡예? 아.  
 #3 게, 대개 이 어른은 쉼퐁 헛주마는 우리는 그 불치.  
 @1 예.  
 #3 거 쉼퐁허곡.  
 #2 재 안 해도 돼어, 재 안 해도.  
 #3 불치로도 헛주게.  
 @1 불치로도 그 구들 굴묵돌을 다 이렇게.  
 #3 응.  
 @1 막고예.  
 #3 경 행 그때는 연통을 잘 빼지. 지금은 연통들을 잘 빼잖아, 그때는 연통들을 잘 안 허민, 방안이 왁왁헌 거라. 이 굴묵 짚엉 놔두민.  
 @1 예, 예.  
 #3 방안이 그냥 연기로 꺽뚝 행, 쟁 문 열앙 뭐 허곡.  
 @1 게도 그 연기가 좀도 안 일고예?  
 #3 응, 상당히 좋아.  
 #2 최고로 존 거주.  
 #3 응.  
 @1 예.  
 #2 사람 몸에 좋곡.  
 @1 사람 몸에 좋곡, 연기가 무사 사람 몸에 좋아마씨?  
 #2 모르겠어. 거 충이 죽는 거 보니까 사름도 충이 없으면 좋은 거지.  
 @1 어.  
 #2 충이 없어.  
 @1 예.  
 #2 그 연기 때문에.



@1 예, 보통 굴묵 때젠 허면은 무시걸로 뗏수과? 7시락도 때곡.  
 #2 옛날에는 저 말뚝 좇어당.  
 #3 물뚝 좇어당.  
 #2 산에 가서.  
 @1 산에 강 물뚝 주워당예?  
 #3 응.  
 @1 여기는 물뚝을 하영 좇엇구나.  
 #2 응.  
 #3 흥겨울 지내젠 허민 물뚝, 거 솔입 걷어오곡.  
 #2 헤 와야허주.  
 #3 춤 그때는 이 나무도 존존헌 나무덜, 어디 강 비어 당 헤 놔야 이제 한겨울을 냉것어. 영 보민.  
 @1 웨냐 하면 삼양가튼 경우는 해안이기 때문에예?  
 #3 응.  
 @1 아멩헤도 땀감허는 게 좀.  
 #2 힘들어.  
 #3 힘들어.  
 @1 힘들어실 거라예. 게민 보통 어디 강, 아까 회천?  
 #2 회천 우에 저 절물??지.  
 @1 절물까지 여기서. 게난 살젠 허난 다 힘든 거라.  
 #2 게난 시상 모르게 살앗어이.  
 @1 시상 모르게.  
 #2 아, 우스개 아니고 시상 모르게 살안.  
 #3 시상 몰르게.  
 @1 시상 몰르게 살안예? 게난 요즘은 대통령 삶보다 더 잘살암수게.  
 #2 겨난 말이주게.  
 #3 옛날 임금.  
 #2 우리만 쥘 불쌍허여.  
 #3 이렇게 살질 못 헛으니.  
 @1 무사 삼춘네 불쌍헬 말이우파?  
 #2 웨냐, 우린 고생고생만 허곡 새끼덜 공부만 시기고.  
 @1 예.  
 #2 허단 보난 이 놈이, 몸이 늙어부난.  
 @1 게도 그런 경험을 하영 가정 잇수게.

#3 으.

#2 이것 참.

@1 누계가 이렇게 젊은 사름한테 왕 굴목이여 뭐여 이런 말 들어봐지쿠과?

#2 (웃음)

@1 (웃음)

#2 모르주게, 건 몰라.

@1 예. 게, 굴목, 몰라예. 굴목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풍체 ㄱ튼 거는  
 멧 개 헤마씨?

#2 하나든 뉘어, 부억에. 어디, 거실에?

@2 으, 으, 으.

@1 예, 마루, 마루, 마루.

#2 마루, 잇는 사름은 두에도이 허는 사름이 잇어.

@1 집 두에도 허곡.

#2 어, 거 여러 사름이, 사름이 잇고게, 다 틀려.

@1 풍체 영 세우젠 허민 무시거 필요해?

#2 지등.

@1 지등, 지등이렌 허민.

#3 받침대.

#2 받침대, 지등.

@1 작데기?

#3 어, 작데기.

#2 지등이주게.

@1 예.

#2 삼발이 지등으로 딱 받치는 거난.

@1 예.

#2 건.

@1 건 풍체작데기 헛수과, 풍체작쉬 헛수과? 삼춘넌.

#3 풍체작데기 경 허주.

#2 나는 그런 걸 안 헤 봐시니까.

#3 우린 허연.

@1 삼춘은 현대식 건물을 지어시난.

#2 응.

#3 여기는 남향집이고.

@1 예.

#2 난 그런 건 안 해보니까이 몰라.

@1 예.

#3 우린 동향집해 놓니까 비 와가민 우선 난간들에 비 치니까. 그걸 못허게 헛주게.

@1 삼춘, 그다음 집 앞이 물팡을 허잡아예?

#3 응, 물팡, 반드시 물팡 잇엇주.

@1 응, 물팡은 멧 개 놓니까?

#2 하나.

#3 하나.

@1 게문 물팡은 그 물팡돌들은 어디 강 구행 와, 여기서는?

#2 아니, 제주도 돌 핫어.

#3 그때는 돌덜 혼헌 때난 그냥.

#2 웬체 핫어.

#3 돌덜 이녁냥으로덜 까깁.

@1 예.

#3 경 행 갖다 놓주. 영 보민.

@1 아, 아, 직접 까깁은에 갖다 놔.

#2 저 웃면이 흐뎡 나쁜 건.

@1 으.

#2 망치로 흐뎡 허고. 아래 거 돌 세워놔 우트레 딱 놓민 딱딱 맞아.

@1 예.

#2 난 그런 거 박사라.

@1 그니깐.

#3 이 사름은, 이 어른은 돌챙이, 목수, 뭐.

#2 난 박사라놓난. 난 몰라.

@1 아.

#3 이것저것 다 해났어. 그자.

@1 아, 돌챙이도 헛구나. 게문 돌챙이 헛 때 쓰는 연장들도 다 알큰게예?

#2 거 뭐 망치 하나 저 족은 망치 하나 큰 망치든 뉘지, 뭐, 무시거.

@1 징도 잇어야 뉘고.

#2 아, 징은 깨는 사름이고.

@1 삼춘은 그냥 다듬는.

#2 응.

@1 망치만 잇이민.

#2 건축도 허곡 산담도 허고, 늪으 거.  
 @1 아.  
 #2 말앙.  
 @1 삼춘, 산담도 하영 헛구나.  
 #2 산담도 다고.  
 @1 예.  
 #2 그런 거 해야 아이덜 공부시기주, 농사만 쳐근에 시겨지나.  
 @1 게니까예.  
 #2 나가 육 남맨데 말이야, 큰아덜 딱 대학교 들어가 부난이, 툇, 우이로 툇 은이 대학교 못 들어가.  
 @1 응.  
 #2 그때 보리밥도 못 먹을 때야.  
 @1 게니까.  
 #2 게, 우리 아이덜 불쌍히 커서.  
 @1 삼춘만 불쌍헌 게 아니라 아이덜도 불쌍허여. 경 행 물팡허고, 삼춘 여 기, 이 동네는 허벅 잇잖우파예?  
 #3 응, 허벅.  
 @1 허벅을 어떤 허벅 젓수과 물 질레 덩기젠 허민.  
 #3 지세허벅이엔 허영 그 흙으로 영.  
 #2 빨간 것도 잇곡 꺾은 것도 잇곡.  
 @1 겐디 보통 삼춘네는 지세허벅으로.  
 #3 응. 지세허벅.  
 @1 근데 그 지세허벅은 어디에서 멘든 겨우파?  
 #2 삼양일동에서 만들어났어.  
 @1 아.  
 #2 삼양일동에서.  
 #3 육지서 들어오주. 육지서 오고.  
 #2 삼양에서도 만들곡, 육지서 들어오고.  
 #3 제주에서도 구웁 저 풀레 오는 거 사곡.  
 @1 삼양일동도 허벅 멘드는 디가 잇어났어마씨?  
 #3 예, 아주 옛날에.  
 #2 예, 기와도 만들어 나고.  
 @1 기와 허는 디.  
 #2 기와도 멘들곡.

@1 계난 지세허벅을, 아까 내가 물어 본 게, 지세허벅 찢덴 허니까. 응, 그런 식으로 지세허벅허고. 여기 허벅 족은 것?란 뭘렌 헤? 애기들.

#3 건 무슨 옛날 것, 것도.

#2 것도 허벅은 허벅이지.

@1 대바지.

#3 족은. 족은 허벅 잇다고. 저.

#2 대배기.

#3 아이덜. 대바지, 대바지.

@1 대바지. 여기는 어디 강 물 질어당 먹었수과?

#2 감수동, 수원지.

@1 수원지.

#3 여기가 물이 좋주게.

#2 옛날.

#3 감수동이엔 허영이 막.

#2 막 팡팡.

@1 단 물 나는다.

#3 달 감 자, 물 수 자 쓰주게, 경 행 마을 동자 쓰는데 단물이 난덴 허영, 여기가 그전에는 일강정 또 산짓물 다음 삼양물 첫주게.

@1 응.

#3 제주도에서 삼양물이 또 한때는 제일 좋은 물이엔 헛주.

@1 응.

#3 지금은 제일 좋은 물이고.

@1 제주시 뭐 여기 다 삼양.

#3 응, 제주도, 제주시 일원에서 거즘 다.

#2 산짓물허고 우리 삼양물을 \*\* 올라가지 안 험서게.

#3 산짓물이 상당히 좋아났주. 겐디 우에서 다 거 뽑아 써부난 산짓물이 약 해졌주마는 옛날 우리 커 올 때는 산짓물이 그냥 물이 엄청 썰어서.

@1 예.

#2 저 로타리, 로타리 내 동쪽에는 삼양물 엇어시민 다 굶어, 물 엇영.

@1 응.

#3 여기도 물이 상당히 썰어났주.

@1 계난 그 감수동은 이 동네 말로는 뭘렌 헤났수과?

#2 감을개, 감을개.

@1 가물개잖아예? 계난 그 물은 가물이렌 헤? 여기서는 무슨 물 헤?

#2 감을개, 감을개.  
 #3 감을개, 단물 나오는 동네렌 헌 거주, 계난.  
 @1 계난 그냥 든물이렌 헛지예?  
 #3 달 감 자, 호미 흘자 씻주게, 이렇게 휘어진 동네엔 헤영.  
 @1 예.  
 #3 그 감을개렌 헛주게.  
 @1 예, 감을개. 옛날에.  
 #3 감수동이엔도 쓰곡, 감을개엔도 허곡.  
 @1 계난 감수동 이전에는 감을개라나지 안헛수과?  
 #2 감을개.  
 @1 예, 감을개예?  
 #2 나중에 동자 들어간 거고 감을개.  
 @1 예, 감을개예. 그다음에 여기 물구덕들은 어디서 멘들아?  
 #2 멘촌.  
 @1 멘촌에 거 사당예? 이 동네서 저기.  
 #2 만드는 사름이 엇어.  
 @1 엇어. 다.  
 #2 멘촌 사름이 잘 멘들어.  
 @1 으.  
 #3 또 이녁냥으로 멘드는 사름도 잇곡.  
 #2 예, 엇저.  
 #3 우리 아버지는 뭐 그냥 물구덕 여꺼시난.  
 @1 예.  
 #2 우리 아이덜 클 때 나가 여기서 살 적에는.  
 @1 응.  
 #2 저 물지게.  
 @1 예.  
 #2 물지게 깡 저서 물을.  
 #3 그건 육이오사변 후에고.  
 #2 올라갓거든.  
 #3 깡통덜 나오니까 인제 그게 헛고.  
 #2 요새에 그것도 정 올라오렌 허민 다 살림 갈릴 거라.  
 @1 예.  
 #2 난 이 아기 어멍, 아기 나부난 어평허여.

@1 아기 나부난.  
 #2 물 질어와야 뉘어.  
 @1 응.  
 #2 겐 밥 헛 직을 먹으멍 오늘까지 살았어.  
 @1 게난 물지게로 헤갓고 영.  
 #2 응, 날라왓주.  
 @1 날라완예?  
 #2 이 동산 막 높아났어.  
 @1 그러니까. 으, 그런 식으로 헝은에 살고예? 그다음 아까 삼춘, 먼문 헛 디는 올레도 길크라예? 여기 올레도.  
 #2 응, 가까운 사름도 가까운 디가 만헤여.  
 @1 가까운 디가 많고.  
 #2 웨냐, 옛날에.  
 #3 옛날에 저.  
 #2 안거리 밧거리 헛 디가 먼문허거든.  
 @1 응.  
 #2 쟁 가까워.  
 #3 아니.  
 #2 아니, 아니.  
 #3 옛날에 즈끔 잘사는 사름덜은 그 올레가 상당히 길엇주게.  
 @1 예.  
 #3 올레 긴 집덜 지금 밑에 그 초가집 잇는.  
 @1 예.  
 #3 그 민속 초가집도 안 골목에 골목이 상당히 길엇다고.  
 @1 응.  
 #3 그 대개 부자 어른덜이 골목집에 살았주, 안골목 집에들.  
 @1 안골목 집에.  
 #3 웨냐면 얼른 소도 얼른 들어가지 안허곡 또 걸인도 얼른 가지 안 허곡. 모든 게 긴 골목에서 모든 게 춤 잘 뉘 헛주, 카바헛주. 게문 바로 길 옆에 집은 대개 피헛어. 옛날 옛날 그 집 지을 때덜 영 보민, 길옆에도 이렇게 들어강 먼문을 만들엇더라고.  
 @1 응.  
 #3 대개.  
 @1 들어간 다음에예?

#3 건, 그게 하나의 그 옛날 어른덜.  
 #2 옛날 나가 살아, 이 우리 동네.  
 #3 모든 게 방비허기 위해서 그렇게 헨 거.  
 #2 우리 이동에, 예, 경험상 예, 밧거레.  
 @1 예.  
 #2 밧거레, 조금 빗겨나서 먼문간을 지으면은 베꿏디로 문을 들고.  
 @1 예.  
 #2 경 아니 허든 마주 앓은 디는 밧거레 복판으로 문을 헛어.  
 @1 응.  
 #2 게 올레를 뭉허는 사름은 밧거레를 안거렌 여기 잇고 밧거렌 올로 이레,  
 게 일로 들어와서 정문 행 베꿏디 문 든 다름이 잇고, 멧 집이 엇엇주. 삼양에  
 도.  
 @1 삼양에도.  
 #2 멧 집이 엇어.  
 @1 게난 정문 안 행 옛날엔 또 다 정낭헌 거 아니라예?  
 #3 정낭.  
 @1 응.  
 #2 여기는 정낭 논 집이 멧 집이 엇엇어.  
 #3 아, 많이 낫어.  
 @1 아.  
 #3 이 어른은 이 여기서 늦게 집 짓엉 살아놓난.  
 #2 아니, 아니, 나가 먼문에 산 사름인디.  
 #3 우리 집들은 다 밑에 집들은 다 정낭 놔.  
 #2 아니, 우리 밑에 사름덜은 이.  
 #3 ㄱ만이 잇어 봅서.  
 #2 엇인 사름덜, 나쁜 사름이 한 디라. 우린 엇어.  
 #3 쉼덜 잇잖아. 그때는 집집마다 쉼 질랏주게.  
 @1 예, 못들어 가게.  
 #3 게민 쉼들 놓민 정낭 놔불민 쉼가 얼른 들어가질 안 허주.  
 @1 예.  
 #3 이녁 쉼만 들어가젠 이제 정낭을 내려놓민 몰앙 들어가는 거라.  
 @1 응.  
 #3 경 허곡 정낭이 딱 영 그 낫을 때 아, 이 집엔.  
 @1 누게 엇구나.



#3 그 임제가 어디 나갔구나, 영 허영 정낭도 두 개 놓주게.  
 @1 예.  
 #3 우이 정낭, 밑에 정낭 허영.  
 #2 세 개 논 사름도 이십니다. 보통은.  
 #3 보통은 정낭을 영 걸치주게.  
 #2 세 개. 표시가 다 뒤편.  
 #3 겐디 이 어른은 저 신식 집에 살아놓니까.  
 #2 (웃음)  
 #3 정낭을 모르는 거라.  
 @1 응.  
 #3 우리, 우린 정낭 헤난.  
 @1 게난 올레도 보면 아까 이제 안골목허는 것처럼.  
 #3 응.  
 @1 이 다른 동넨 가면은 이제 진올레 이렇게 얘기를 해.  
 #3 긴올레, 긴올레.  
 @1 예, 허잖아예, 여기는 먼올레라는 말은 안씻수과?  
 #3 어?  
 @1 먼올레.  
 #3 그 길은 그 먼 쪽에 잇는 게 먼올레주게.  
 @1 예, 예, 올레가 긴올레?라 먼올레렌 허는디. 이 동넨 먼올레렌 허지예?  
 #3 으으.  
 #2 먼올레덜 맞아.  
 @1 아니, 도련 가니까 먼올레렌 굽디다게.  
 #2 으으, 먼올레.  
 #3 여기도 올레, 그.  
 @1 조, 보딘올레도 잇고.  
 #3 우리도 쫘 골목집에 살아놓난, 먼올레렌 헛주.  
 #2 먼올레, 먼올레가 맞아.  
 #3 먼올레 강 보라, 영 행 들어왓시냐 영 행. 쉼 들어왓시냐, 영 행 강 보렌  
 허곡 경 헤낫주게.  
 @1 예, 먼올레.  
 #2 게난 도련드레 가니까.  
 @1 예.  
 #2 집 울타리 안에 돌을 다와졌거든.

@1 예.  
 #2 이 먼올레가 이 멀리 입구가 잇거든.  
 @1 예.  
 #2 게난 올로 이레는 먼올레여.  
 @1 예.  
 #2 올로 이레는 아니고 올로 이레만 먼올레난 거 물론 사름들은이.  
 @1 게난 먼올레는 그 아까 이문간, 이문간 베꼈디로예 길까지.  
 #2 응 것이.  
 @1 먼올레.  
 #2 먼올레.  
 @1 예, 예, 예.  
 #2 경 것이 맞아.  
 @1 그다음에 집안에 이렇게 가면 이문간 안에 그 마당이 이시고 마당 옆으  
 로 또 놀들 놓는디도 잇지예?  
 #2 출놀.  
 @1 건 뭐렌 험니까?  
 #2 응, 출놀.  
 @1 출놀도 놀고.  
 #3 놀굽, 놀굽  
 @1 놀굽. 놀굽은 뭇로 이렇게.  
 #3 돌로 이렇게 낡.  
 #2 아, 밑에.  
 @1 밑에 꼭 돌을 놔야 뉘예?  
 #2 웨냐하면은 짚을 놓기 때문에 썩어불주게, 아래가.  
 @1 예.  
 #2 걸 똑 놔줘야 헤.  
 @1 똑 놔야 뉘고. 게난 그 놀굽 논 그 공간은 놀왓이렌도 험니까? 여기도.  
 이 동네는 놀왓이라는 말은 안 써?  
 #3 물왓(?)이엔 허주게.  
 #2 놀왓이엔 허긴 허는데.  
 #3 물왓이엔도 허꼭 물왓도 잇고 우영팻도 잇주게이.  
 @1 예.  
 #3 게난 물왓은 그 놀굽덜 영 헌디 보고 이제.  
 @1 놀왓.

#3 놀awat.

@1 놀awat, 물awat이 아니라.

#3 또 우영팻 영 허영.

#2 놀awat도 부제칩인 잇어도 다른 집인 경 엇어.

@1 맞아예, 경 행 놀 놀어난 다음에 어.

#3 이 어른은.

#2 웨냐하면은 고구마 누는 디가 또 잇어.

@1 예, 예, 감저놀.

#2 감저놀. 겐디 툄 집은 경 엇어.

@1 응.

#3 아, 대개 다 잇엇수다게. 웨냐하면.

#2 아니 나가 알다시피 경 헛단 말이우다. 가난허게 살아부난.

@1 예.

#3 저 우리가 그 때는 보리덜허고 조혈 때 아니라게.

@1 예, 예.

#3 게문 감자는 대개 서숙엔 허영 감저를 주음식으로 헛주게. 웨냐하면.

@1 예.

#3 사삼사건 때 감자 엇이민 살질 못헛어.

@1 응.

#3 감자 해당 감자는 상당히 실굶은 농사주. 조 7튼 건 태풍 그 바람 세부  
 니까 거 바람 불어불민 자빠져 불영 인제 조는 실농혈 때가 많고 또 보리는  
 인제 보리도 인제 영 보민 든쟁이엔 허영 이 춤 저 어디고 우리 그 도련이동  
 에 그 벵디.

@1 예, 벵디.

#3 벵디가 대개 보리가 잘.

#2 삼화지구, 삼화지구.

#3 잘 뉘긴 허는디 비가 많이 와불민 그냥 그 보리가 낭중엔 그 이렇게 누  
 웅 보리가 나불어.

@1 응.

#3 경 행 인제 쫓끔 실농혈 때가 잇고 게민 대개 인제 그땐 그 보리헤 오민  
 보리 놀 디 보곡 놀굽덜 만들어 놓곡 허영. 보리도 비어당 데며낭 인젠 그걸  
 그 흘트는 거라.

@1 응.

#3 흘텅 인젠 그 도께로 이젠 때리고.

@1 응.

#3 경 행 낭중엔 테작허는 것덜, 이 어른덜은 돈 많이 벌엇저마는. 우린 돈, 경운기 엇어, 돈 엇어부난 경을 못 허고, 경 허연 거 도께로 허곡.

@1 어.

#2 이 사람 나 맥타헤 주민 고맙덴 안 헤영이, 아니 우스개가 아니고.

@1 맥타기 헤낫구나.

#3 맥타기 헨.

#2 단체로 우리 삼양이동에 멧 집이만 기계 있어 놓니까 엇는 할망덜 삼백 평 오백 평 짜리덜 맥타로 허질 못허여.

@1 예.

#2 경 해서 나가 단체를 만들엇주게. 경운기 헨 이십 명 딱 모연에 단체 만들언 구간.

@1 예.

#2 일 하루 작업할 거 백, 천 평, 이디 천 평, 천 평이면 다섯 밧디로 딱 나 뉘정 헛는데 할머니덜 지금도 산 할망덜 나한테 고맙덴 허여.

@1 응.

#2 어려울 때 맥타 헤 줘 나니까.

@1 예.

#2 나 경 행 살았어, 지금까지는.

@1 예.

#2 겐 지금도 어디 가봐. 삼양이동에 강 저.

#3 아니 그것도 영 보난 이 어른.

#2 이 저 삼양 건의엔 허민 몰른 사름이 엇어.

@1 (웃음)

#2 아, 우스개 아니고.

#3 조금 어려왕 밧덜 조금 도르갱이 헨 서말 지기나 헨 그런 거는 조금 낭중에 허여.

@1 예.

#3 막 즈들랑.

@1 즈들랑.

#2 난 헤줘.

@1 엇인 사름은 즈들리고.

#3 어.

#2 나는 헤졌어게.

#3 저 큰 밭부터 문침 강 먹엉.  
 @1 예, 맞수다.  
 #2 \*\*\*\*.  
 #3 족은 밭은 이번이나 오카부덴 헤도 막 늦게야 왕, 그 어둑은 후에야 왕 이젠 즈들라 낱 허는 거라.  
 #2 아니, 나는 그때 병 난 서울까지 강 살아온 사름이데 참 좋은 일 헛어.  
 @1 예.  
 #2 우시개 아니고.  
 @1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놀급 허고. 아까 감저농수를 무신거마씨? 실농 이 아니라 실굳은, 굳은 농사.  
 #2 예, 실굳은 농사.  
 #3 예.  
 @1 실굳은 농사렌 헛니까? 그거는.  
 #3 응.  
 @1 감저농사는.  
 #2 거는 비부름 쳐도이 무난헌 거난.  
 #3 감저는 실농이 엇엉이.  
 @1 예.  
 #3 계난 감저덜 해당 감저구덩일 인제 헤영 물어야, 한 겨울을 인제 편안허 게 지내난.  
 @1 응.  
 #3 우리 그 때는 배불리 못 먹어놓난 감저덜 이젠 꼭 청, 하루에 혼 번 감 저를 쳐야 그걸.  
 @1 때가.  
 #3 아침에 밥 혼 번 먹으면 정심은 감저로 때우는 거라.  
 @1 예.  
 #3 게, 저녁에는 저녁밥 먹젠 허민 쌀이 없으니까 그때는 죽 췌.  
 @1 예.  
 #3 죽 췌 먹기도 허곡 감저로 뭉허고 계난 이 배고파 놓니까 그때는 거즘 다. 사삼사건 때는 배고팠주게.  
 @1 예.  
 #3 여기 삼양에서는 원당오름이 이제 그 자욱허게 인제 그 연기가.  
 @1 예.  
 #3 연기가 자욱허여.

@1 예.  
 #3 아이고, 원당 오름에 연기 남수다게. 우리도 밥헝서게 허믄. 밥은 뭐 썰  
 이 있나. 게믄 죽 썰덜.  
 @1 예.  
 #3 게믄 콩죽 썰 때도 잇곡 콩국에.  
 #2 근데 이디는 죽 썰 먹을 정돈 부제칩이고. 아니 우스개 아니고.  
 @1 예.  
 #2 고구마도 없는 집이 엄청 만헝거든.  
 @1 예, 맞수다, 맞수다.  
 #2 이 알지도 못 허멍 아는 책.  
 #3 (웃음)  
 #2 엄청 만헝어요.  
 @1 그 돼지들도 질루왓지예? 돼지 질루젠 허민 어떻 해야 됩니까?  
 #3 통시엔 허영 통시에.  
 @1 예, 통시에 해근에.  
 #3 예, 겐 지들, 지들팡 만들곡 두가리, 도새기 두가리 만들앙.  
 @1 예.  
 #3 거기 이제.  
 @1 돛도고리.  
 #3 체이, 체 쥘.  
 @1 예, 체 주고.  
 #3 질루왓주. 헛 집에 헛나 꼭 길루왓주. 그것도 인제 돈 나오는 거엔 허연.  
 도새기 길르곡.  
 #2 저 도새기 나왔주게.  
 #3 응.  
 #2 아, 나 돼지 질루완 나 큰 아들 풀앗는데.  
 #3 응.  
 @1 맞아.  
 #2 벅 근 이상짜리.  
 @1 아, 헛 칭.  
 #2 결혼시키젠 허민 도새긴 꼭 길루왓어이.  
 @1 예.  
 #3 저 우침도새기엔 허영.  
 #2 우침돛.

#3 어.  
 @2 무신 듯?  
 @1 우침돏.  
 #2 우침돏.  
 #3 어. 그 도새길 인제 길랑. 경 허영 길루다보민 훈 집이 훈 백이십 근짜리  
 길랐져, 뭐 이렇게 경 도새기덜 길라났주.  
 #2 나 우리 아덜 풀 때 돼지 백 근 이상 텨 거 세 마리 먹언.  
 @1 세 마리 큰 아들 풀 때.  
 #2 어.  
 @1 삼춘, 우침돏은 무사 우침돏이렌 헛수과?  
 #2 몰라, 옛날 어른덜 우침돏이엔 질루완 잔치 아들 풀렌.  
 @1 그니까.  
 #2 응, 경 헨 훈 모양이라.  
 #3 근데 우침돏이렌 허영 인제 그때는 도새길 잡앙 그 여жат 집에 가져 가났  
 어.  
 @1 예.  
 #3 응, 도새기.  
 #2 것도.  
 #3 응, 경 행 도새기 가정 가는 거 보고 우침돏이렌 헛주.  
 @1 우침돏.  
 #2 것도이 첨 없는 집인 못 앗아갓어게.  
 #3 아이고, 경사 헛주게, 거.  
 @1 예.  
 #2 불쌍허여, 보문.  
 #3 게난.  
 @1 우침돏 이런 식으로 헿은에 이제 가져가예, 어느 정도 가져가마씨?  
 #2 훈 다리.  
 @1 훈 다리에, 술허고 훈 다리허고, 계란도 보낸덴 헿게마는.  
 #2 계란은 안 보내고.  
 @1 아, 훈 다리 헿은앵에.  
 #2 흐끔 낮은 집은 쓸 훈 말, 돼지 다리 하나.  
 @1 게 그렇게 헿은에 보내는 것을 이버지렌은 안 곺아?  
 #2 이바지엔도 곺는 사름은, 이바지는 것이 아니고. 우침돏 곺.  
 @1 게난 집에서 질루왕은에 잔치허젠 질루는 것도 우침돏이렌 곺읍디다.

#3 응.  
#2 계난게 우침돏, 보내는 거 아니라게.  
#3 응.  
@1 응, 거 보내젠 허난.  
#2 우침돏.  
@1 우침돏헌 거라예?  
#2 어.  
@1 그다음은 도새기집, 돏집.  
#2 어.  
@1 어, 돏집도 이렇게 멘들아주잖아예?  
#2 응, 건 짚으로, 낭 걸청.  
@1 낭 걸청은에.  
#2 짚으로 더평.  
@1 짚으로? 무슨 짚으로 보통 험니까?  
#2 아, 거는 뭐. 새도 해당 허고 어욱도 비어당 허곡, 억새도.  
#3 대개 보리짚으로 헛주.  
#2 억새도 비어당 허고.  
@1 보리짚으로.  
#3 보리짚으로 해당.  
#2 억새집이 오래가.  
#3 보리짚으로 허민 그거 쏘끔 삭아가민 인제 또.  
@1 짓 주는 거.  
#3 그 걸름 낼 때는 걸름 내뵐 그걸 이젠 또.  
#2 억새, 억새가 오래 가주. 오래가.  
#3 깔곡.  
@1 응.  
#3 경 행 다시 또 보리, 보리나 조, 조칩으로 또 역 더끄기도 허곡.  
@1 그.  
#3 계난 새 ㄱ튼 것으로 허민 오래 가긴 허주게. 어욱 ㄱ튼 걸로 대개 어욱도 허곡.  
#2 게 오래 가주게.  
@1 응. 그 삼춘네 그 보통 그 돏 질롤 때는 암툏 질릅니까, 수툏 질릅니까?  
#3 대개.  
#2 돈 별젠 허민은 잔치 말앙.



@1 응.  
#2 돈 별젠 허민 암툫 해서 새끼 내왕 풀아.  
@1 응.  
#2 옛날에는.  
@1 예.  
#2 겐, 난 경 행 살았어.  
@1 응, 게문 그 도새기 그 훈 머리 두 머리 헐 때 셀 땐 어땡 셉디가?  
#2 돼지 훈 머리문 훈 머리, 새끼?  
@1 응.  
#2 훈 머리, 두 머리 뉘어.  
@1 두 머리 영 허잖아예?  
#2 훈 머리, 두 머리.  
@1 그 두 개 갈를 때.  
#2 훈 짝.  
@1 옥으문 갈라야 헐 거 아니, 멧 개씩 갈라.  
#2 하나 갈르는 사름이 잇고.  
@1 예.  
#2 두 개 갈르는 사름이 잇곡.  
@1 예.  
#3 대개 두 개 가져가주.  
@1 두 개 보통 가정 가지 안헙니까?  
#2 게 경.  
@1 건 뭐렌 헙니까?  
#2 없는 사름은이.  
@1 으.  
#2 그 잇는 사름은.  
#3 훈 짝이엔 허는가, 훈 짝.  
#2 훈 짝.  
@1 훈 짝헙니까, 훈 자리헙니까?  
#2 훈 자리.  
@1 예.  
#3 훈 자리주, 훈 자리. (웃음)  
#2 훈 자리.  
@1 훈 자리. 훈 자리 허는디 훈 자린 못 가져가고 훈 짝만 가정 가는 사름

도 잇잡우파?

#2 많으지, 험 짝만 가정 가는 사름.

#3 대개 험 자리 가정 가민.

@1 예.

#3 쪼끔 머리 벗이민 돈벌주게, 그거.

@1 예, 예, 예.

#3 갈르, 그거 짓갈르면은.

@1 짓갈르면.

#3 그걸 다시 저 험 무린 풀곡 험 무린.

#2 키우고.

#3 키웁곡 경 헛주.

@1 그걸 짓갈르면 험니까?

#2 짓갈르면.

@1 두 개 가정 강은에 질루당 어느 정도 크면 이거를 하나씩 나누는 거를  
짓갈르면 헤예?

#3 으, 짓갈르면.

@1 응, 짓갈르, 보통 짓갈르 때는 어느, 크기가 멧 근 정도 나가?

#2 아, 저 돼지가.

@1 예.

#2 크는 과정이 틀려.

@1 예.

#2 잘 맥인 건 험쪼 빠르곡.

@1 으.

#2 경 안 허민 험 둘 이상 잇어야.

@1 아, 험 둘 이상 보통예?

#2 어. 이제.

@1 우리가 도새기 풀젠 허면예, 죽은 거 허영은에 보통 자릿도새기렌 행은  
에 두 개씩 행은에 풀잡아예?

#3 응.

@1 경 행 그거를 두 개 상 강은에 이렇게 나눠주는 걸 짓갈르면 허는구나?

#3, (웃음) 짓갈르면.

@1 아.

#2 계난 거 맥이는 과정이 틀려.

@1 예. 막 수툷 좇앙은에 튀어나곡 허는, 암툷 좇앙 튀어 나는 거.

#3 수퇘 훑암져.  
 @1 수퇘 놓레도 가곡예?  
 #3 응.  
 @1 그런 것도 헤뵈?  
 #3 겐.  
 #2 열.  
 @1 튀어나지 안헝니까?  
 #3 게 수퇘 놓레덜 몰앙덜 가주게. 그때는.  
 @1 예.  
 #3 그 전문적으로 인제 수퇘 놓는 집이 잇엇어.  
 @1 응.  
 #3 삼양도 멧 군데 영. 게민 도새기 몰앙 강 수퇘 낡 경 행 몰아오곡.  
 @1 게민 돈으로 줘마씨? 어떤 식으로.  
 #2 돈으로.  
 #3 돈으로 줘주.  
 @1 돈으로.  
 #2 돈.  
 @1 얼마 줘난 건고예?  
 #2 모르주게.  
 #3 (웃음)  
 @1 아까 그 요즘 영 화장실이엔 허주마는 옛날은 다.  
 #2 통서.  
 @1 예, 통서.  
 #3 통시.  
 #2 통시.  
 @1 통시, 통시허민 영 저 돌맹이.  
 #3 지들팡.  
 #2 발걸이.  
 #3 지들팡게.  
 @1 지들팡.  
 #2 게, 발걸이.  
 @1 발걸이, 지들팡.  
 #3 지들팡이지 발걸인 거 옛날에 그거 안 씻어. 지들팡이엔 허영.  
 @1 (웃음)

#3 지들팡이엔 허연.  
 @1 지들팡엔 허면 또 작데기도 거기 영 하나 놔두기도 허고.  
 #3 (웃음)  
 #2 그 놈의 돼지가 다 성질이 틀려.  
 @1 예.  
 #2 돼지 성질이 덕분에 오지 말라 허명 대변 누는 거난.  
 @1 예, 예.  
 #2 거 나쁜 것이 있어. 돼지가.  
 @1 예. 돼지가예? 게난 거 먹을 거 엇언부난마씨게.  
 #2 아니, 버릇이 경 험 것이 있어.  
 @1 아, 버릇이.  
 #2 하튼이 돼지도 여라 질이라, 질라 보민.  
 @1 사름도 여라 질이우게.  
 #2 게니까 다 으라 질이라.  
 @1 자, 그다음에 그렇게 화장실 행은에 옛날 통시허고, 게난에 삼춘, 돼지가 사는 데는 통시엔 안 곺, 안 허여?  
 #3 통시.  
 @1 화장실 행 볼 일 보는 데는?  
 #3 건 지들팡.  
 @1 건 지들팡이렌 허고?  
 #3 응.  
 @1 돛통이렌 안 험니까, 여기서는?  
 #3 응?  
 @1 돛통.  
 #2 도, 돛, 저 돼지 것 먹는 딴 돛통이주게.  
 @1 아, 돛통.  
 #2 거 것 주는 디가 돛통.  
 @1 것 주는 디가 돛통, 것 맥이젠 허면은 이 뭐에.  
 #2 도고리.  
 #3 도고리.  
 @1 돌도고리 돌도고리에예?  
 #3 돌도고리. 응.  
 @1 예, 그다음에 헛간은 어디 멘들아?  
 #2 헛간?

@1 예, 헛간.  
 #2 헛간은 없는 집이 많으지.  
 @1 아, 없는 디도 잇고.  
 #3 헛간은 대개 영 보민, 그때 따로 만들앙.  
 @1 예.  
 #2 헛간 만드는 거 힘들어.  
 #3 촌, 몰똥 ㄱ튼 거 좇어당 거기 낫당 굴묵 짚고.  
 @1 예.  
 #3 또 ㄱ시락눌은 따로 인제 만들앙 그 ㄱ시락 데미는 디가 잇어낫주, 경 허민.  
 @1 예.  
 #3 게민 굴묵 짚젠 허민 이제 그거 빠당 인제 짚곡.  
 @1 응.  
 #2 하튼 비를 못 맞게 허니까.  
 @1 예. 게난 보통 \*\* 가튼 경우 멍석이라도 놓젠 허면 이문 잇인 디는 이문 간 한 구석에 허는 거잖아예?  
 #3 이문간.  
 @1 이문 없는 집들도 잇이난.  
 #3 어.  
 @1 예, 그러면은.  
 #2 그런 때는. 집에, 이 앞에.  
 @1 예.  
 #2 이 앞에, 요쪽 엠에. 아까 그 뭐 잇지.  
 @1 굴묵 짚는 디.  
 #2 굴묵질 잇지?  
 @1 예.  
 #2 거 만들어 놓은 디.  
 @1 예.  
 #2 그런 디 안에 세와.  
 @1 응.  
 #2 없는 사름.  
 @1 게난 굴묵에 한 귀통이가 헛간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예?  
 #2 엇는 사름은 경 헛어.  
 @1 없는 사름들은. 경 헤영은에 이문간 잇는 사름은 거길 헛간을 허고예?

#2 경 헛어.  
 @1 그다음에 이제 쉼막.  
 #2 응?  
 @1 쉼막.  
 #3 웃음, 쉼막.  
 #2 쉼막은 이디 아까 이런 식으로 이디.  
 @1 먼문간도 허고.  
 #2 먼문간 허고 이디 쉼막 허는 거.  
 @1 먼문간 없는 디는.  
 #3 없는 딴 뜯로 인제 쉼막 하나 영 짓엉 허고.  
 #2 별도로.  
 @1 별도로예? 밧거리 허든가 목거리 허든가?  
 #2 여기 하나 별도로 짓으면은.  
 @1 응.  
 #2 여기는 소 질루곡.  
 @1 응.  
 #2 여기는 비품 놔.  
 @1 아, 거기는 헛간 쓰고예? 예.  
 #2 경 헛어. 옛날은.  
 @1 이 삼양에는 물을 하영 질랏수과, 쉼를 하영 질랏수과?  
 #2 삼양이동에는 소가 많이 질랏어.  
 @1 아. 쫘 웃드르 가면은 몰도 하영 헛덴 헛디다.  
 #2 건, 봉개동.  
 @1 아.  
 #2 도련은 훈 집이 많이 질랏고, 봉개동이 많이 질랏어.  
 @1 예.  
 #2 우리 이동에는 없어.  
 @1 여기는 쉼예?  
 #2 쉼가 많이 질랏어.  
 @1 응. 여기는 밧이 쫘 큰 편이우과?  
 #2 밧이 쉼 없어.  
 @1 쉼 엇어.  
 #2 삼양이동이.  
 @1 응.

#2 다 도련 경이야.  
 @1 아.  
 #2 이 삼화지구에 멧 개 있어났는데.  
 @1 응.  
 #2 이 삼양이동에는 이, 뭐 옛날엔 높은 사름이 안 살아신디, 땅도 엇어.  
 아, 우스개가 아니고.  
 @1 게난 여긴 공부도 허고 여자덜도 이 동네는 물질을 안 행은에.  
 #2 없어.  
 @1 옛날에 저기 뭐 헛잡우파? 이제 양태허고.  
 #3 탕건허고 양태허고.  
 @1 탕건하고 양태하고예? 망건허고예?  
 #2 그디 멧 가정, 멧 가정.  
 @1 멧 가정 하고.  
 #3 그때는 주업이 인제 탕건하고 양태 헛주.  
 @1 여자덜은예?  
 #3 여자 어른덜.  
 @1 게난 물질, 말 안 들면, 저기 해변에 시집보내 볼켄 영 헛덴 헉디다.  
 #2 우리 어머니는 신촌서 왔는데.  
 @1 예.  
 #2 거 상즙녀라났어, 우리 어머니가.  
 @1 아.  
 #2 여기 왕.  
 @1 여기 왕, 상즙녀. 즙녀 중에도예? 자, 그다음에 삼춘, 여기 그 장독대는  
 여기 뭐렌 골읍디가?  
 #2 장독?  
 @1 장독, 장독. 장항 놓는 디.  
 #3 저, 장항.  
 @1 어. 장항 놓는 그 공간을 뭐렌 골아?  
 #2 거 장항독이주게. 장항.  
 @1 장항뒤.  
 #2 장항\*, 장항, 장항.  
 @1 장항두에.  
 #3 장항뒤.  
 @1 장팡뒤, 장항뒤.

#2 장항, 하여튼 장항.  
 @1 장항뒤를 만들젠 허면 영 돌 쌓앙은에 허지예?  
 #3 으, 돌로 이렇게.  
 #2 우리 삼양이동에 돌로 다왕 헌 디가 나가 큰 다음에.  
 @1 예.  
 #2 영 덩겨봐도 멧 집이 없어.  
 @1 예.  
 #2 돌 다운 디가.  
 @1 그대로.  
 #2 응, 겐 우리도 나도 그 장항돌을 만들엇는데.  
 @1 응.  
 #2 세멘헌 다음에.  
 @1 응.  
 #2 옛날 ㄱ레 잇잖아?  
 @1 예, 예.  
 #2 그런 거 하나 좇어당 딱딱 놔.  
 @1 예.  
 #2 경 헨 낱 헤불어나니까 난 모르겟어.  
 @1 게난 그거는 ㄱ레 안 쓰난 가져온 거고, 옛날에는 돌로 요렇게 헤 갖고,  
 장항굽 멘들지 안헛수과?  
 #2 게난 그거 만든 사름이.  
 @1 응.  
 #2 삼양이동에 멧 사름 엇어.  
 @1 없어예.  
 #2 나 아니 허믄 없어.  
 @1 예.  
 #2 우스개 아니고.  
 @1 예, 예.  
 #2 못 허니까 못 만드는 거지.  
 #3 아니 대개 인제 장항뒤 돌 옆으로 인제 쫓끔 큰 돌로 영 박아 놓곡.  
 @1 예.  
 #3 그다음은 안에는 그 족은 돌로들 이렇게 낱.  
 @1 응.  
 #3 그 항들 놓게 허주게.



@1 예.  
#3 경 행 허곡 또 냥가 돌이엔 헌 게.  
@1 예.  
#2 건 나중에.  
#3 거 뵈고, 여기가.  
@1 벽돌.  
#3 어, 벽돌.  
@1 예.  
#3 그거 일본 사름덜 벽돌 찍당 남은 것덜 이제 그걸 좇어당 여길 깔아놔주  
게, 영 보민.  
#2 거기는 감수동에.  
@1 감수동에.  
#2 감수물에 잇일 적에.  
#3 우리 옆에 마을에.  
#2 일본 아이덜이 완에 벽돌 허당 내분 것덜, 그 근방에.  
@1 응.  
#3 여기는 편허게 썬어. 우리는 문직아 보지도 못허고.  
@1 예.  
#2 경 헛어.  
@1 아, 게난 여기도.  
#2 건 자네네만 헛어, 우린 못 헛어.  
#3 봉가 가렌 해도 안 봉가가.  
#2 (웃음)  
@1 안 봉가가. 돌 잇어부난. 돌일 허난예?  
#3 멀어 놓난 멀어 놓난.  
@1 아, 멀어 놓난. 그런 식으로 허고. 혹시 여기는 물이 안 귀혜, 물이 좋잡  
아예, 저쪽 설개도 물 잇곡 다예?  
#3 응.  
@1 게니까 그 춤을 메거나 영은 안 헤시껴예? 여기는예, 웃드르 아니니까.  
#3 아, 소 메연.  
@1 아니, 소 말고 춤. 춤이라고 물 행은에 영 그 새로 영 짱예? 낭에 영 들  
아메는 건 안 봐놔지예?  
#2 엇어.  
@1 엇어예.

#2 건 저 웃드리나.  
 @1 웃드르.  
 #2 저 웃드르나 허는 거주, 물 귀헌 디.  
 @1 물 귀헌 디. 겨난 여긴 워낙 나는물도 하곡.  
 #2 어, 여기는 물 걱정은 안 헛고.  
 @1 물 걱정은 안 헤 보고예?  
 #3 어, 물이 좋으난 요 밑에 마을이 이뤄졌주게.  
 @1 예.  
 #3 첫 번째, 이제 강씨 성이 먼, 촌 들어완 살앗고 그다음은 장씨 성.  
 @1 예, 장씨도 많잖아예?  
 #3 계난예, 강씨 성이 들어온 지가 인제 거즘 삼백 년 거즘 뽕실 거라.  
 @1 응, 계난 설촌은 강씨가 헛덴 헛니까?  
 #3 응, 설촌이 강씨가 문침 이루엇주.  
 @1 계문 이 삼양 혈 때 가장 먼저 설촌헌 디가 어디우파?  
 #3 삼양일동일 거라. 삼양일동.  
 @1 저 성창 잇는 디.  
 #3 응. 그다음 삼양이동일 거라.  
 @1 응.  
 #3 계, 선사시대에는 여기가 문침 헛고.  
 @1 예, 예, 예. (웃음)  
 #3 여기 저 촌 민속 뽕도 잇주마는.  
 @1 근데 이 동네 삼양이 뽕뽕헌 사름이 많덴, 옛날부터예. 학자들이 많잖음  
 니까?  
 #3 학자들, 겐디 딴 마을에 비하면 경 많질 안 허여. (웃음)  
 @1 옛날 어른덜 보민 일본에 가거나 영 공부헌 사름덜이 잇덴 말들을 하는  
 데.  
 #2 일동보단 삼양이동이 낫지.  
 @1 이동이 나아예, 으.  
 #3 아까 말헛주마는 이 아까 초가집 민속.  
 @1 예.  
 #3 거기 강○○이 그 형제분들이 거즘 다 박사주.  
 @1 예, 예, 예.  
 #3 다 박사. 계난 거기허고 박사, 요새 박사는 많이 남주마는 건 크게 보이  
 질 안 허니까.

@1 음.  
#3 경 해도 어쨌든 거기가 참 상당했주. 영 보민.  
@2 아까 일강정 영 허던데, 두 번째 뭐마씨? 첫 번째는 물 좋은 딘가마씨?  
#3 계난 제주시에서는 산짓물 다음 삼양물이엔 헛주.  
@2 예.  
#3 겐디 그때는 우리도 어릴 때 그 로타리에서 이렇게 오다 보민.  
@2 예.  
#3 거기서 이제 밤이민 다 목욕덜 허는 거여, 다.  
@1 응, 산지.  
#3 으, 산지. 우리도 거기서도 목욕도 헤 보고. 여기서, 대개 여기서 이제 이 부근에 사름덜은.  
@1 응.  
#3 저녁이민 다 목욕, 물통에 강덜 목욕허주게.  
@1 예.  
#3 겐 물이 너무 추워놓니까.  
@1 응.  
#3 한 이 분, 오 분을 못 잇어.  
@1 응.  
#3 지금도.  
@1 지금도 경.  
#3 지금도.  
#2 엄청 차가와.  
#3 겨난 옛날엔 물이 좋니까 여기가 마을덜 이뤄정, 주로 여기는 마을이 아 니 옛주. 여기 드른들은.  
@1 응.  
#2 겨도 멧 가흔 잇엇어.  
#3 멧 가호 잇엉.  
@2 계도.  
#3 가난헌 사름덜이 드른들 살앗젠 허고.  
#2 웃음, 나 가난허지 안 헤서이.  
@2 웃음.  
#3 쫓쫓 사는 사름덜은 이 밑에.  
@1 예.  
#3 우선.

@1 물 잇는 쪽으로.  
 #3 물이 좋은 디, 물 따라랑 살아야 허니까.  
 @1 맞아.  
 #3 응, 경 허연.  
 @1 그다음 삼춘, 아까 그 할 때 도련허민 든전이라는 말을 헛어예?  
 #3 든전.  
 @1 예, 든전은 뭐우파?  
 #3 든전은 농사 잘 뉘는 곳을 든전이렌 허주게.  
 @1 예.  
 #3 게문.  
 @1 게문 안 뉘는 디는 난전이렌 곱아?  
 #3 응, 난전이렌 허곡.  
 @1 응.  
 #3 게문. 빌레깁인 돌이 그 알 받는 땅 돌덜 잇는 덜 보고.  
 #2 밧이 나쁜 디는 난전.  
 #3 빌레깁이렌 허고, 든전은 밧이 좋고.  
 #2 존 디.  
 #3 농사 잘 뉘는 디 보고 든전이엔 허주.  
 @1 든전이렌 허고예?  
 #3 응.  
 @1 게난 동네마다 참 달라마씨.  
 #2 다 틀려.  
 #3 응.  
 @ 예. 게난 삼춘은 커 오명 무신 일 허명 이제까지 살읍디가?  
 #3 나?  
 @1 예.  
 #3 난 배고파 놓난 막.  
 #2 뭐 육지도 살곡.  
 #3 육지도 강 살곡.  
 @1 응.  
 #3 저 제주도 살곡 경 헛주.  
 @1 어, 게난 농사짓거나 이런.  
 #2 나중에 완 농사지언.  
 #3 농사지언.

@1 나중에 농사지언, 젊었을 땐 아니고.  
#3 응.  
@1 삼춘은?  
#2 난 어린 때부터.  
@1 어린 때부터?  
#3 이 어른은 어릴 때부터 일을 잘 해놓니까.  
@1 으. 그니까 일찍 건재(\*\*)헌 거.  
#3 계난 돈 벌엉 애들 다 교육시키곡 다 헛주.  
@1 예.  
#3 우린 돈 못 벌언.  
@1 계난 삼춘넌 농사로만 지언? 평생을 농사지언마씨?  
@2 아까 돌도.  
#3 쉼만, 몰도 그냥 생몰 사당 그냥 ㄱ리치곡 다 행.  
@1 예.  
#3 경 행 쉼나 몰이나 거, 늪 내부는 쉼덜 해당 또 ㄱ리쳐 낱 이제 풀곡.  
@2 손재주가 있어.  
#3 이 어른이 우턴 어른, 우턴 어른. 웃음.  
#2 밤이.  
@1 예.  
#2 저, 하도로부떠이.  
@1 예.  
#2 이 평대로부떠이, 저 김녕으로 행원으로 행 허믄이, 밤에 소 하나 상은엥  
에 밤에 와봤어. 삼양ㄱ지.  
@1 으.  
#2 걸엉.  
@1 걸엉.  
#2 계민 깡패들이 만허여.  
@1 아.  
#2 겨잡아, 밤이.  
@2 예.  
#2 그런 때난 큰소리 빵 허멍 왓어. 나가.  
@1 지금도 이렇게. 건장허니까 젊어서도.  
#3 이 어른은 키도 크곡 그때는 이 키민 상당히 큰 키라.  
@2 예.

#2 그때 거기가 하도에서 우마이, 소나 물이나 사면은. 만 원짜리 상 오면은 여기 와서 한 겨울 맥영.

@1 예.

#2 마차 가르치면은.

@1 응.

#2 만 원짜리가 이만 원 받아.

@1 응.

#2 만 원 장시가 그땐 컷주게.

@1 그니까.

#2 겐 아이덜 공부시켰어.

@1 삼춘 쉼장시 허곡.

#2 쉼도 하영 헤 보고.

@1 쉼장시허고.

#2 물장시도.

@1 물장시도 헤보고.

#3 (웃음)

@2 집도 짓고.

@1 집도 짓고, 돌도 깨고, 산담도 허고. 나중에 삼춘한테 삼춘 일생을 한번 들어봐야큰게.

#3 백공이.

@1 백공예.

@2 못 허는 게 엇어신게예?

#2 아니, 놈 못허는 거 나, 잘 허주게.

#2 고생 많이 헛주.

### 1.3. 초가 지붕 이기

@1 알아수다. 그 삼양동에서는 초집을 몇 년에 한 번 일언마씨?

#2 이 년에 한 번.

@1 이 년에 한 번예? 보통 어느 철에 집을 일어수가?

#2 딱이 봄 나가면은.

@1 응.

#2 이월달.

@1 이월달에예? 게문 집 일젠 허면 준비해야 될 것덜은 뭘 준비해야 집을

일 건고예?

#2 들에 잇는 새.

@1 예.

#2 새허고, 그다음은 새 준비헌 다음은 각단이 있어. 각단. 각단은 쫄른 거, 새는 진 거.

@1 예.

#2 거 집 일 거고, 쫄른 건 줄 놓는 거고.

@1 응.

#2 게서 준비헌 다음에 날이 널 좀직허다 허면은 준비헛다가 아싯날 전부 다 줄을 놓고 준비헛다가 뒷날은 집을 일어. 집을 일어. 쟁 헨 헛어.

@1 게문 그 각단 허젠 허면은 어느 철에 강은에 허는 겨우짜? 각단 준비는.

#2 지금 허믄 늦엇지?

@1 응.

#2 십일월달에 십일월 이십일, 요새도 가서 허는 사름은 잇는데. 조금 발아. 이 절기가.

@1 예.

#2 시기적으로 절기가 조금 늦어. 조금 빨를수록 새가 조금 심이 있어. 것도 절이 있어.

@1 예. 절기에 맞추영. 보통 게문 좋은 각단을 허젠 허면은 어느 철에 비는 거?

#2 하여튼 시월 이십일 경부터 십일월 한 달간.

@1 한 달 간예. 아, 시월 이십일경은 음력이우짜, 양력이우짜?

#2 양력으로.

@1 양력으로예? 시월 이십일경부터 한 달간 준비를 하고. 게문 보통 새는, 새는 우리 보통 삼간집 아니우짜? 옛날에는예?

#2 삼간, 이간, 사칸.

@1 사칸.

#2 오칸 집은 멧 개 없엇어. 이 동네 하나.

@1 아, 이 동네 오간집도 잇언예?

#2 우리 집은 사칸이고, 오간집이 하나 잇엇어. 거석동네.

@1 아, 거석동네예. 그러면 그 오간집은 개인 집이우짜? 아니면 도갓집.

#2 가인집.

@1 가인집인데. 게문 삼간집이 일반적인 집이다. 삼간집 허젠 허면은 새는 멧 못이나 필요헤마씨?

#2 삼간집은 새, 그 돈 많이 잇는 사름은 재료를 많이 쓰고, 돈 없는 사름은 재료를 덜 써.

@1 응.

#2 게믄 똑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근본이. 잇는 사름은 많이 더플수록 좋고, 없는 사름은 알루게 더프고.

@1 경 해도 보편적으로 보통 사름은.

#2 보통 에 두 바리 반, 두 바리 반이민 혼 단이 서른 몯이 혼 단이라.

@1 혼 바리가 서른 몯.

#1 응, 서른 단.

@1 서른 단예?

#3 칠십다섯 개.

#2 갱 칠십 단.

#3 다섯 무꿈.

#2 무꿈.

@1 그 삼간집 헐 때.

#2 어.

@1 각단은마씨?

#2 각단은 일할도 아이 들지. 그 줄 놓는 거니까.

#3 다섯 무꿈?

#2 하여튼 삼십으로 잡으면 뉘어.

@1 응.

#2 쫄른 건 더 들어가도.

@1 예.

#2 보통으로 좋은 거는 삼십 단.

@1 삼십 단예. 그 각단도 혼 바리가 서른 몯이우파?

#2 응. 똑같아.

@1 아, 새도 혼 바리가 서른 단이고예?

#2 어.

@1 그러면 보통 여기는 이 새왓들이 하나신가마씨?

#2 무신거?

@1 새왓.

#2 새왓들 우리가 없으니까 새왓을 잇는 사름아피 가서 돈 주고 사곡, 멧 사름이 동아리 해서 사고 비어 왓지.

@1 게난 이 동네는 새왓덜이 그렇게.



#2 없어.  
 @1 계민 보통 어느 동네 강 사 와.  
 #2 회천동.  
 @1 아, 회천에 가갖고.  
 #2 회천 엇이면 또 성읍리 강 사 오는 사름도 있고.  
 @1 응.  
 #2 차로 가서.  
 @1 차로 가서예? 그니까 그 집집마다 저 새왓이 이신 건 아니구나예?  
 #2 없어.  
 @1 응.  
 #2 멧 집벧귤 엇어.  
 @1 아, 대부분은 다 사다근에 집 인 거라예? 경헌 거 보문 하영 이제 못 헛  
 을 수도 잇겟구나.  
 #2 그렇지.  
 @1 돈을 쥘은에 허니까, 예. 그러면.  
 #2 잇는 사름은 아니주마는 없는 사름은 못헤여.  
 @1 우리 다른 데 강 조사할 때 보면 직접 돈 주영도 안 뉘니까. 직접 놈의  
 도둑새예. 고망새덜도 비어당.  
 #2 계난 저 성읍리 근방에나 허지, 우리는 경 행 안 뉘어.  
 #3 막 어려울 때난.  
 @1 예.  
 #3 이 사삼사건 금방 낫날 때는 새덜 강 놈의 밧디 강 그 저 몰래덜 헤와낫  
 주게이.  
 #2 도둑질 행.  
 @1 예.  
 #3 또 경허고 각단 같은 거는.  
 #2 경혈 수가 잇는데.  
 #3 영 보민 농사덜 잘 안 뉘영 그 우의 회천 우트레 가 보면은 그 쯤새가  
 막 이제 몽근 거.  
 @1 예.  
 #3 조금새가, 새에서도 째은 걸 각단이엔 허주게. 그걸 강 비어 오는 거라.  
 @1 예.  
 #3 경허곡 그거 비어 오멍 어욱이엔 헌 게 셔. 인제 집 이는 데 이제 그.  
 #2 가쟁이 찢르는 거.

#3 가지, 가지에 이렇게 그걸.

#2 두꺼와지게. 새로만 더평 안 뉘니까, 두꺼와지게 조금 박아주는 거.

@1 알 박는 거예?

#3 응. 알 박는 거.

#2 걸 박아줘야 뉘어?

#3 그거 해야 집이 모양도 있고 경허주게이.

### 집줄

@1 예. 그런 식으로 하고예.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각단을 준비하고, 그 각단 비영 오면 집줄을 놔알 거 아니우파예. 아까 봄 나면 집 인텐 허면 각 그 집줄 놓는 거는 언제 놔마씨?

#2 아니, 봄 이제 음력 명질 넘곡 허면은 날 좋아 가면은 그때에 일기 보면서 놔.

@1 응.

#2 널 아, 일기가, 집 일기가 뉘겏다 허면은 오널 놔.

@1 경 행 그러면은 줄은 혼 번 놔 볍주예? 같이예. 줄을 혼 번 놔 보게예? 게민 줄 놓젠 허면 아까 서른 단 정도 필요헌덴 허지 안헤수가? 진줄은 몇 개 필요허고, 썩른줄은 몇 개 필요허여마씨? 삼간집 헐 때.

#2 예, 진줄이 열하나면은.

@1 예.

#2 존줄은 혼 이십 개.

@1 응.

#2 그런 식으로 허믄 뉘.

@1 거의 배 이상.

#2 예.

### 줄 만드는 순서

@1 저기 뉘겏네예. 게민 그 집줄을 놓젠 허면 순서가 이실 거 아니우파? 집 줄 만들젠 허면 어떤 식으로 줄은 놔마씨.?

#2 비는 거, 줄을.

@1 줄 비는 거.

#2 으. 게 사름이 놔주지.

@1 예.

#2 게민 비어가민 자꾸 놔줘서, 혼쪽에 가서 편 다음에 여기서 이젠 놓는

사름이 또 헨 다리로 불르고.

@1 예.

#2 또 와서 비어가.

@1 예.

#2 게서 합청 낫다가 줄호랭이로 감는 거야.

@1 예. 게민 그 줄 놀 때 새 영 맥여주는 사름 잊지 안허우꽂? 그 사름을.

#2 아, 이 사름이 나가.

@1 예.

#2 줄을 논다.

@1 예.

#2 우리 회장이 비어간다.

@1 예.

#2 나가 놔주는 거여. 목적지가 오십 메다.

@1 예.

#2 게 오십 메다 가민 거기서 말뚝을 박곡, 거기 찢러 두고 왕 또 가서 허면은 여기가 합청 허영.

@1 예.

#2 낫다가.

@1 예.

#2 만일에 열하나다.

@1 예.

#2 예, 그다음 스무 개다.

@1 응.

#2 쫄른 거 스무 개다. 경 헨 다음에 다 논 다음에 이것을 합치는 거야.

@1 어울리는 거. 게난예 줄을 이제 빈 거 두 개씩 어울릴 거 아니우꽂예?

#2 응.

@1 게민 그 어울리는 사름은 뭐렌 곶아? 그냥 줄 어울리는 사람?

#2 줄 어울리는 사름이주. 뭐엔 헤여.

@1 줄 어울리는 사름 잇일 거고.

#3 뒤엔 줄을 뒤치기 허는 사람.

#2 줄 놓는 사름이 원래 이것??지 다 헤여.

#3 뒤치기 허는 사름.

@1 뒤치기 허는 사름.

#3 경 허곡 그 줄을 만들젠 허민 네 사름이 들주게이.

@1 예.  
 #3 호롱이 들르는 사름이 두 사름이고.  
 @1 예.  
 #3 또 뒤치기 허는 사름이 한 사름이고, 또 어울려가는 사름이 한 사람.  
 @1 응.  
 #3 경 혜영 네 사름 들주게.  
 @1 게문 그 줄 빌 때 쓰는 기구는 뭐렌 험니까, 여기선?  
 #2 게메 이것이.  
 #3 호롱이.  
 #2 호렝이.  
 #3 호롱이.  
 @1 호렝이 험니까? 휘롱 험니까?  
 #2 휘롱이엔 험 건 동의 말이고.  
 #3 여기선 호렝이.  
 @1 여기선 호렝이예?  
 #2 다 틀려 지방마다.  
 @1 맞수다. 게난 삼양 말 우리는 조사허는 거니까.  
 #2 줄 놓는 호렝이.  
 @1 예, 호렝이. 알아수다. 호렝이 허고예. 게난 이제 그 네 사람이 이제 험 팀이 뉘는 거라예?  
 #3 응.  
 @1 게난 아까 열 줄, 스물 이렇게 험지만 정확하게 멧 줄, 진줄 멧 개 들어 가는 건 모르쿠과?  
 #2 뭐냐면 집이, 이거 계산 안 헤보니까 이거 계산허면은 나오는데.  
 @1 응.  
 #2 하여튼 열세 개, 열다섯 개. 폭이 크면은, 폭이 넓을수록. 좁으면 덜 들고.  
 @1 응.  
 #2 길이가 질수록 더 나오는 거고.  
 @1 예.  
 #2 똑 스무 개가 아니고 열하나에서 스무 개 잡앙.  
 @1 예.  
 #2 계산 허면은 집에 맞춰서 나오는 거난.  
 @1 예.

#3 게난 든든하게, 브름이, 좀 든든하게 허젠 허민 줄을 조금 더 많이 놓고, 저 대개 인제 바람이 세난 든든하게덜 허젠덜 허주게 영 보민. 경 행 여겨 놓지. 영 보민.

@1 게난 삼양 같은 경우는 바당 브름도 있고 허난예?

#2 아이, 하여튼 저 셋브름, 태풍 오민 무서와.

#3 옛날에는 바람도 세고, 눈도 많이 오고 경 헛주게이.

@1 예. 건디 요즘은 눈이 엇언.

#3 눈 구경허기 힘들어. (웃음)

@1 게난 이 그 줄 영 놔두는 게 이제 말뚝 박아근에 그디 걸영 놔두는 거구 나예?

#2 걸엇다가 다 쫄른 것까지 다 헌 다음에 어울리는 거야.

@1 예.

#2 쫄른 거 어울리고 큰 거 나중에 어울리고 허민 끝나는 거야. 뒷날은 날이 좋으면 전부다 묵은 것을 거제 허곡.

@1 예.

#2 알로 짬 박곡 이는 거주.

@1 예. 그니까 이제 그 줄을 다 허면 이제 집 이는 날은예, 지붕 이는 날은, 집 일 때 어느 날 입니까, 보통?

#2 보통은 날 좋아야.

@1 게난 날 좋은데, 날 안 봅니까?

#3 날 보주게, 므날.

@1 아, 므날.

#3 어, 거 천화일이엔 허영 대개 므날에 허주게이.

@1 예.

#3 거 첨, 므날이 영 보민이, 천화일이엔 불도 잘 안 일어나곡, 또 비도 잘 안 오는가? 날이 상당히 좀 관찮덴 헤영 보통 그 날을 택허주게. 영 보민.

@1 응. 천화일예. 므날. 그리고 집을 일지 말아야 되는 날도 잊지 안합니까?

#3 으, 그건 인제 대개 인제 존나비날 인제 좀먹는 날덜은 잘 안허주게. 영 보민.

#2 옛날덜은 날짜를, 날짜를 봐서 허여.

@1 옛날은예.

#2 나는 아무 날이라도 허는데.

#3 교인덜은 날을 안 보주게.

@1 아, 삼양교회 유명허지 안허우파예?

#2 그런 건 난 뭐, 나 처갓집에 가서, 금악인데.

#3 삼양교회 장로, 김 장로렌 행.

#2 금악이 우리 처갓집인데, 나가 바쁘다 보니까 음력 명월에 가서 집을 일어서 온 사름이여, 내가 처갓집이 간.

@1 아, 예.

#2 금악에.

@1 금악에.

#2 한림 우의 금악.

@1 예.

#2 그디 켜당네 다 웃었지. (웃음)

@1 집 이는 선수니까. (웃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아까 천화일에 날 봤잖아 예?

#2 게 날 봤 허메.

@1 존나비떠 안 허고, 그다음에 좀 이는 날은 어느 날을 좀 이는 날이렌 험니까?

#3 그 여기 보민 대개 염소날 같은 때 안 허주.

@1 아, 염소날 안 허고예? 쥐날도 안 허지 안험니까?

#2 응, 쥐날도 안 허고.

@1 예. 쥐날 안 허고, 존나비도 안 허고.

#2 응.

@1 어쨌든 낚날이 좋덴.

#3 최근에는 그런 거 잘 안 보주게.

@1 예.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3 마, 옛날에는 콤콤히덜 책 보명, 날 보명덜 헛주게이. 겐디 인젠 진스일 대개 피허곡 영 행덜 허주. 영 보민. 대개 옛날엔 진스일 허민 비오는 날이엔 덜 헤영.

@1 예.

#3 잘 안 허잖아이.

@1 예. 맞수다. 옛날엔 비 온덴 헤영예. 자, 그러면 그 새도 다 준비헿 오곡.

#3 으.

### 집 이는 순서

@1 각단헤영 줄도 다 낚어예. 집을 한번 일어봅서. 게면 집 일젠 허면 그

순서가 이실 거 아니라예? 거 삼춘 쪽 골아줘 봅서.

#2 어웁이란 거 아까 골았주마는, 어웁이란 것이 이만한 정도를 비어다가.

@1 예.

#2 그 가에로 이걸 다 찢르는 거라, 돌아가명.

@1 예. 먼저.

#2 예. 먼저 가생이 전부 다 찢러.

@1 예.

#2 찢르민 조금 높아질 거 아니라.

@1 예.

#2 그다음은 순서대로 여기서 이 정도 맞아서 일로 더프기 시작헤여.

@1 응.

#2 세 단으로 더프면서 헛 번 돌아가.

@1 예.

#2 그다음 또 올라강, 세 단으로 또 헤영 올라강, 일어가, 마지막엔, 마지막  
으로 더픈 다음엔 줄을 메는 거야.

@1 그러면.

#2 줄 메는 것도.

@1 예.

#2 차례가 있어. 찢른 거 하나 메곡 진 거 하나 메곡.

@1 응.

#2 찢른 거 먼저 두 개 메곡.

@1 응. 양쪽.

#2 긴 거 두 개 메곡, 그다음에는 또 찢른 거예? 그다음 진 거.

@1 응.

#2 찢른 거, 진 거. 게서 더퍼 가는 거야.

@1 응.

#2 것도 차례로.

@1 것도 양쪽으로 이렇게 뒤는 겨우파?

#2 응, 똑같이.

@1 똑같이.

#2 일로 더퍼주고, 일로 똑같이.

@1 응.

#2 그래야 줄이 탄탄허거든.

@1 응.

#2 이렇게 오고 영 헤지니까.  
 @1 예. 바둑판 모양으로 딱.  
 #2 응. 딱 움직이지 않아요.  
 @1 예.  
 #2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1 예. 그러면은 아까 삼춘 새 더플 때, 새 더플 때는 어느, 가생이부터 더  
 펍니까? 우에로부터 더펍니까?  
 #2 알.  
 @1 알로부터.  
 #2 알로 점점 올라와야 마지막에 젤 우의 잇잖아?  
 @1 예.  
 #2 집이 딱 보면 중간에.  
 @1 예. 가운데.  
 #2 양쪽 그 추년 다음 상무를. 그디가 마지막 딱 더평, 거기서 줄 멘 다음  
 에.  
 @1 예.  
 #2 줄 멘 다음에 더프기 시작하는 거야. 움직이지 안허게.  
 @1 응.  
 #2 줄을 메기 시작해.  
 @1 응. 게난 줄을 해서 줄을 더픈 다음에, 줄을 메는 거.  
 #2 응, 완전히 더픈 다음에.  
 @1 예.  
 #2 여기는 밧줄로 무꺼, 복판에.  
 @1 예.  
 #2 움직이지 못허게. 게 사름이 항상 덩기거든.  
 @1 예.  
 #2 여기 강 허곡 이쪽으로 허곡 더퍼가민 자꾸 움직이니까. 게서 딱 해서  
 이 마지막 오면은 마지막 딱 줄 헤영 쫄른 걸로 다 더퍼.  
 @1 응. 삼춘예. 아까 그 가운데 메는 줄을 무슨 줄이엔 굴아?  
 #2 밧줄(?).  
 @1 걸 밧줄(?)이엔 헉니까? 무사 밧줄(?)인고예?  
 #2 아, 우리 보통 짐 시끄는 밧줄 잇잖아?  
 @1 아, 밧줄.  
 #2 응.



@1 밧줄로, 우리 집줄로 메는 게 아니라 밧줄로 임시로 멩 놔두는 거구나.  
움직이지 안허게.

#3 가운데, 그 새를 불리지 안허게.

#2 거 무꾼 다음에.

@1 응.

#2 사름이 덩기면은, 이거 줄을 안 메니까.

@1 예, 예.

#2 움직이잖아.

#3 거난 가운데 것만 불러볼민 안 될 거난.

#2 다 꺾난 다음에 클러서 빠 붙어.

@1 예, 예. 밧줄로 먼저 이제 움직이지 못허게 메는 거라예?

#3 어.

@1 쟁 그건 상관없이 양 옆으로 썩른줄 흔 줄.

#2 큰줄 흔 줄.

@1 큰줄 흔 줄.

#2 양쪽으로이?

@1 예. 양쪽으로.

#2 똑같아.

@1 똑같이. 것도 저기 앞이도 마찬가지로예?

#2 응. 똑같이.

@1 응. 게문. 쥬 우의.

#2 영 휘어지는 거니까.

@1 예.

#2 여기나 여기나 똑같이.

@1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집줄 헛잖아예? 알도 다 박고. 집줄 허면 양쪽에 거왕대를 메든지 팽고대를 허잖아예?

#2 밑에.

@1 예.

#2 밑에를 대로 다 준비허여.

@1 아, 또 대로.

#2 응, 이 밑에 그 끈을 무꺼야 헐 거 아니라.

@1 예.

#3 거왕대, 거왕대.

#2 예. 거왕대는 대로 안 무끄민 안 뒤어.

@1 응.

#2 대 없는 집은 옛날 철사로 했어요. 녹 안 드는 철사.

@1 철사, 아, 철사로도 하고예?

#2 아.

@1 낭으론 안 험니까?

#2 낭으로도 허는디 낭이 오래 안 가요.

#3 처음은 대로 헛주, 대나무.

#2 대가 쥔 오래 가.

@1 왕대.

#3 저, 7늘게 깨영이.

@1 예.

#3 경 해영 인제 대로 무끄는 거라.

#2 아, 통으로 허는데 이 저 보통적으로 대나무로 많이 헛지. 없는 디는 할 망덜 낭으로 허민 낭이 오래 안 가요.

@1 예. 거난 그 거왕대 메는 거 말고, 그 밑으로 해서 널 같은 거 팽고데로 이렇게 허진 안헤낫수가? 초집. 요즘들은 스투트집 나온 이후로 팽고데 헤갓고 이렇게 널판으로 헤갓고 요만큼허게 헤근에 쪽 박던데.

#2 아, 밖에?

@1 예.

#2 저 앞에 풍체?

@1 아니, 풍체 말앙. 지붕 거왕대 바로 그 안에.

#3 그런 건 안 헛주.

@1 그런 건 안 허고.

#3 응.

#2 원래 집 지을 적에.

@1 예.

#2 원래 집 지을 적에 놔.

#3 나무떼기로.

#2 서리 우에다가 원래 낭을 놔.

@1 예.

#2 낭을 깔앙 못으로 박아. 튀기, 튀기 허는 식으로

@1 튀기허는 식으로.

#2 현 다음에 흑 불른 다음에 허는 거.

@1 그거는 서슬 아니우파?

#2 서실인디.  
 @1 응.  
 #2 서리 다음에 요 넓은 거 깔아 줘.  
 @1 앞부분만.  
 #2 으, 앞부분만 싹 돌아가명. 그다음 서리를 허영 흑을 불리는 거야.  
 @1 계난 그 깔아주는 그 냥은 무신거렌 곶아마씨?  
 #2 이걸 뭐 알고 보민 서리 저.  
 @1 걸 펑고데렌 안 헷디가?  
 #2 펑고데엔도 허꼭 여기 사름덜은 뭐.  
 @1 어쨌든 여기서 펑고데란 말은 안 헷 거 아니파예?  
 #2 응.  
 @1 예. 알아수다. 그다음에 이제 집줄은, 집줄 한 번만 메는 건 아니잖아예?  
 #2 헷 번, 헷 모작 땡경.  
 @1 응.  
 #2 헷 모작 땡길 거 아니라?  
 @1 응.  
 #2 헷 모작 땡긴 다음에 꼭 찢러.  
 @1 예.  
 #2 안 클러지게만. 안 빠져요.  
 @1 예.  
 #2 한 보름, 비 맞곡.  
 @1 응.  
 #2 헷 다음에 짐을 자. 새가 조금 짐을 자.  
 @1 예.  
 #2 짐잔 다음에 날짜 뵙 첫 번부터.  
 @1 응.  
 #2 가쟁이부터.  
 @1 가쟁이부터. 줄 헷 거.  
 #2 응. 첫 번 멘 디부터 하나 둘, 이쪽으로 먼저 헷 다음 또 저쪽으로 땡겨서, 방방허거든. 그런 식으로 다 헤줘.  
 @1 예. 그거를 잘 무끄는 거를 뭐 봉울룬다 이런 말은 안 헷니까? 줄 봉울르라 이런 말은 안 허여?  
 #2 아, 줄 봉우는 것이 거라.  
 @1 응.

#2 심을 잇엉 허는 것이 줄 봉우는 거.  
 @1 응.  
 #2 마지막에 허는 거. 완전히 땡경 딱 무끄는 거.  
 @1 예. 걸 줄 봉울르는 거.  
 #2 끈이 남으면은 요것을 찢라부는 거야.  
 @1 예. 게난 그 찢르는 거를 뭐렌 험니까? 줄 찢르기도 허고 새도 찢르지 안험니까?  
 #2 예, 건 저 눈썹 찢르는 거.  
 @1 어, 눈썹 찢르는 거예?  
 #2 이 눈썹이랑 똑같아. 사름이영 똑같아.  
 @1 예. 보통 눈썹은 뭇로 찢라신고예? 그때.  
 #2 그때는 호미로.  
 @1 호미로.  
 #2 호미 날을 잘 굴고.  
 @1 응.  
 #2 호미로.  
 @1 게난 그 눈썹 찢르는 건 앞이만 찢릅니까? 사방에.  
 #2 전부다 돌아가멍. 게민 보기가 좋주게. 흔짝 안 허곡 흔짝 허민 안 됩니까.  
 @1 응.  
 #2 게, 우리 동네 여기 문칩이 어르신 두 사름은 가위로 찢랐어.  
 @1 응.  
 #2 경 현 사름이 잇어. 가위로.  
 @1 께끗허게.  
 #2 예.  
 @1 건 치레허는 집덜은 그런 식으로 허고.  
 #2 치레는 뭇, 그 정돈 다 .  
 @1 호미로도 찢르주.  
 #2 호미로도 다 찢르주, 뭇. 신식으로 흐꿈 벤헌 사름덜이주.  
 @1 응. 호미로도 다 됩는 건디. 그다음에 그 쓰다 남은 집줄들은 뭇로 써신고예?  
 #2 묵은 것덜은 전부다 때는, 불 때는 걸로.  
 @1 예. 지들커로 쓰고.  
 #2 밥도 헤먹곡. 나중에 찢라분 것도 다 밥도 헤먹고.

@1 그다음에 뭐 방석 같은 거는 안 만듭니까?  
 #2 옛날엔 방석 만들었주게.  
 @1 응.  
 #2 줄 흠뻑 진 것은 영 막 돌려서 딱 해서 딱 무끄면은 방석 뒀주게. 보통 부엌에 방석이라.  
 @1 예. 그 방석 일름은 무시겨우파?  
 #2 방석이주게, 원래.  
 @1 방석. 줄방석.  
 #2 예. 줄방석, 원래.  
 @1 원래 줄방석.  
 #2 방석.  
 @1 예. 그다음에 우영에 그 저 느람지 우의도 더끄고.  
 #2 (웃음) 느람지 저 주쟁이.  
 @1 예.  
 #2 주쟁이도 아무나 못헤여. 것도 기술자라야 뒀여.  
 @1 주쟁이는 뭘로 만듭니까?  
 #2 새로.  
 @1 것도 새로 다예. 어욱으론 안 험니까?  
 #2 어욱으론 안 뒀. 켜어. 거 켜서.  
 #3 어욱으로도 허긴 허는데.  
 #2 아니. 새를 주쟁이로 저 느람지 더뜨면은.  
 @1 응.  
 #2 어욱은 이디가 뒀이 없어. 꺼꾸로 뒀어. 새는 딱 대면은 뒀는데, 어욱은 안 뒀어.  
 @1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허고. 혹시 삼춘 이 동네 다, 집 다 일엇덴 헤신디.  
 #2 아, 나 연배로는 나만이 험 사름 엇일 테지.  
 @1 삼춘 그 집 일레 덩기면 뭘 품은 뭘로 받읍디가?  
 #2 그때?  
 @1 응.  
 #2 그때는 이 인정상 강 수놀영도 허곡.  
 @1 예.  
 #2 그 옛날은 좋았어요. 수놀영도 허곡. 그 사름 우리 집이 왕 줄 메어 주면 건 수누는 거 아니?

@1 예.

#2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았어.

@1 계난 줄 비는 거 하고, 집 이는 거 하고는 일 대 일이 아닐 거 아니파 예?

#2 응.

@1 응. 삼촌 집 흔 번 일어 주민 멧 사름이 왕은에 줄 비는 거라, 어느 정도.

#2 아, 뵐 수 잇이민 저 이웃 사름덜.

@1 예.

#2 왕은에 ㄱ찌덜 해주어.

@1 모다들엉예?

#2 옛날엔 경 헛어.

@1 응.

#2 그 성읍리 근방은 이 하루에 줄 농명 집 일거든.

@1 예.

#2 집이 일 년에 흔 번 일어.

@1 예.

#2 게 골째가 많이 생겨. 집이 비가 많이 오니까. 이 골 나는 것이 뭐냐 허면. 물을 많이 들어가는 거야.

@1 예.

#2 물 나오지 못허여 놓니까 이거 파져 불어. 매해 일어도 그래. 우리 이 삼양은 그런 것이 었어.

@1 응. 계난 그 빗물 들어가는 걸 골째렌 험니까?

#2 응.

@1 응. 골이 난다고 해서.

#2 응, 글로 물이 셨아.

@1 예.

#2 걸 없이 해야 기술자야.

@1 계난 옛날 집을, 요즘은 집 이는 거 보면 막 지붕도 확 걷어뵐들 허는데 옛날도 걷어은에 집 입디가? 아니민 어떤 식으로 험디가?

#2 우리는 보통적으로 오래지 안헌 건.

@1 응.

#2 그대로 일고. 예, 백 년이, 이 칠팔십 년이 넘어 가면은 두껍거든.

@1 예.

#2 게서 반 건영은에 농장에 강 버리곡.

@1 예.

#2 그다음 일었지.

@1 오십 년 이상은 안 건영 계속 이년에 한 번씩.

#2 응.

#3 오십 년 안 돼도 우의 두꺼우민 멧 년에 한 번씩은 그.

#2 걷는 집이 멧 집 었어.

#3 기신새 걸주게이.

@1 예.

#3 기신새엔 행이. 경 행 건영 고르게 그걸 고르게 인제 또 깔아놔. 경 행 이제 우에 더퍼야 골 치지 안행덜 좋주. 게난 그것도 기술자덜이 해야 돼. 이런 양반덜, 이런 어른들이 대개 허주, 솜씨 잇는 어른덜.

@1 예. 거난 집 이는, 집 잘 이는 거는 골 치지 않게 잘 일고, 물메 잘 세와 근에 곱게 일고.

#2 그렇주.

@1 이런 거네예. 게도 집 일명은에 재미 잇엇던 일덜도 이실 거 닙아예?

#2 놉으 거 해주민 막.

@1 예.

#2 우리 친구가 삼양삼동에 살았는데.

@1 예.

#2 그 양반 나기 전이부터 비 셨아난 모양이라. 방안에 엇날은 백장 잇잖아.

@1 예.

#2 백장 우의 저.

@1 궤도 올려놓고.

#2 궤 올려놔어. 궤 우의 다라가 잇더구만. 흥번 저 무신겨우파? 허난. 비 셨안 놔어. 그래, 저 비 쟈 거이 다 고쳐주민, 저 다라는, 그때는 빗놔어요. 다라 나 앓아 가키여 허난 건 안 주켤.

#2, #3, @1 (웃음)

#2 게서 집을 고쳐줘놔어.

@1 예. 그런 게 일이 하시크라예?

#2 예, 하요.

#3 그때는 풍속들이 좋아놓니까. 게민 집 일엄젠 허민 다덜 모여들영 이제 집줄도 메곡 영 허면은 그때는 밥도 인제 그 보리밥 허당 그래도 반지기엔 허영 쓸 서텅이, 쓸 아니민 좁쌀이라도 조끔 영 서텅 경혜영 인제 고기라도 허영

잘 대접덜 헛주게이. 게 그런 맛으로덜 품팔이해낫주게.

#2 사람이 수눌젠 허면은 양쪽에 두 사름, 네 사름이 있으면 좋아.

@1 응. 집 한 번 일젠 허면.

#2 저디 가지 말앙 여기서 메는 사름 여기서, 여기서 메는 사름. 다 동쪽으로 허민 동쪽으로, 서쪽으로 허민 서쪽으로 게서 멧어.

@1 응, 게난 보통 집줄 메젠 허민 넷이 필요한 거라예?

#2 어.

@1 그다음에 집 일젠 허민 멧 명이 필요한 거라?

#2 혼 사람.

@1 게도 저기 올려주는 사름도 있어야 헐 거고.

#2 아, 게난 그 줄 메는 사름도 잇이니까. 올려 줘. 앓아주곡.

@1 예.

#2 던져 주곡.

@1 네 명은 이시면 좋은 거라예?

#2 아주 펜허주. 게난 둘이, 엇는 사름 둘이.

#3 옛날에는 좀 많이 그 이웃디서덜 막 모여들엉덜 헛주. 영 보민 대개. 경 허민 또 그다음 집에 일 때도 또 같이 수눌엉덜 해주곡.

@1 응.

#2 하여튼 남저 잇는 디는 많이 수누는데.

@1 예.

#2 없는 집은 빌어야 뉘.

@1 응.

#2 새도 못 올리거든.

@1 예.

#2 그 정도 헤연 살았어게.

@1 응, 맞아예. 경헌디 이제 개과천선해갓고 다 달라전예. 삼춘 경 허고 그 집 짓젠 허민예. 목수도 좀 헤 볍디가? 목순 안 해받?

#2 아, 소소한 건 나가 다 지언.

#### 1.4. 연장

@1 응. 게른 집 짓젠 허면 연장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고예? 집 짓젠 허민.



#2 톱허고.

@1 예.

#2 옛날은 막 그 스괘에 물리멍 헛는데 사삼사건 후에는 스괘에 물리지 안  
허고 그대로 낭 헤다가 서리 걸치곡 못으로 다 헛어, 못으로.

@1 못으로 다헛예? 게문 연장이 필요할 게 뭐 뭐 이수과?

#2 뭐 뭐. 망치허고, 자구허고, 톱허고 거만 시민 다 허주.

@1 낭 오령 오젠 허면은 어떤 톱이 필요해신고예?

#2 낭 오리는 집이 옛날 제라헌 집 짓을 때는 낭을 저 오려당 허는데, 우리  
정도는, 우리 클 때는 오릴 사름이 없어.

@1 아.

#2 큰자구 허는 사름라야, 큰자구.

@1 예. 큰자구.

#2 영 치고, 영 치는 사름이, 이만 소나무 헤서 까끄는 사람. 그런 사름 잇  
어 우리 집은 경 행 지엇는데.

@1 예.

#2 우리 아버지 살 때 경 헛는데, 요새는.

@1 요새는 그런 건 엇고예? 그 낭 오려 올 때 그 자구로.

#2 으, 자구로.

@1 큰자구로 오리는 거라예? 성은에 허는 거.

#2 응, 큰자구로, 큰자구. 하여튼 할아버지들 잘헤여. 큰자구질을.

@1 건 성은에 헤야 뉘는 거예?

#2 어.

@1 도치 닳은 거예?

#2 어.

@1 그다음에 톱도 으라 개 안 헤마씨?

#2 게난 집 짓는 디는 건물만 잇는 디는 톱 하나문 충분헤여.

@1 거는 무슨 톱 쓰믄 뉘마씨?

#2 그대로 요즘 나오는 톱덜.

@1 응.

#2 웨냐면은 예, 문장 오리고 뉘허는 톱덜은.

@1 예.

#2 둘이가 땡기는 거 잇는데 그거 안 헤도 요새는 톱 하나.

@1 그 톱을 거두렌 헤수가? 뭐 고비끼리는 뉘우파?

#3 거두, 거두 맞아.

#2 거두는 톱이주게.  
 @1 응. 거두는 톱이니까.  
 #3 그 톱도.  
 #2 이거 땡기는 거 톱덜.  
 #3 거 뺏고, 이 큰 나무 인제 베젠 허민 양쪽에.  
 @1 응.  
 #3 요쪽에도 사람 땡기고 요쪽에서 땡기곡 경 그런 톱 잇엇주게.  
 #2 양쪽 땡기는 톱.  
 @1 톱톱.  
 #3 잇어불언 생각만 나주. 이젠 잇어불언 안 뉘크라.  
 #2 우리 큰 후에는 그런 것을 안 썼어.  
 @1 아, 삼촌네는 안 쓰고, 삼촌네 아버지네가 그런 톱덜 썼구나예?  
 #2 큰자구로 썼거든.  
 @1 큰자구로 쓰고예? 자구도 여러 개 아니우꽈? 종류가.  
 #2 자구도 여라 개주마는게 우린 보통으로 하나로믄 다 뉘어.  
 @1 하나로 다 헤불언. 선수구나.  
 #2 하나로믄 뉘주 무신거. 못 들어갈 때, 만일에 이 나무가 이디 둥글다, 쪼금 파쥬야거든.  
 @1 예.  
 #2 게 서리가 허젠 허믄 이레 톱 들어가게. 게서 박아주는 거.  
 @1 응.  
 #2 경 헛어.  
 @1 다 자구로예?  
 #2 응.  
 @1 그다음에 그 못뽑이, 못 뺨 때는 무슨 걸로 씹니까?  
 #2 빠리.  
 @1 아, 빠루로.  
 #2 응, 빠루.  
 @1 빠루를 못빼기렌은 안 헛니까?  
 #3 못빼기, 못빼기. 빠루는 일본말이고.  
 @1 예.  
 #3 대개 이제 일본말덜 썼주. 빠루엔 행이.  
 @1 예.  
 #2 못빼기 가져오라 헛거든.

@1 못빼기 가정오렌예.  
 #2 어.  
 @1 못빼기. 그다음에 망치도 필요할 거고.  
 #3 응.  
 @1 망치는 어떤 망치 썼수가?  
 #2 망치 저 옛날은 코 저 빠는 것도 있는데, 이 거림 영 오그라져서 못 박고 헤영 이제 이 못을 찢렁 빠는 것도 있고.  
 @1 응.  
 #2 그거 없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여. 망치는 여러 가지여.  
 @1 응. 망치는 여러 가지. 대패는 어떤 것이 이수가?  
 #2 대패는 이 마루 7튼 거.  
 @1 예.  
 #2 문장골.  
 @1 예.  
 #2 그런 거 허는 거주.  
 @1 대패도 종류가.  
 #2 여라 가지지.  
 @1 어떤 거 있어마씨?  
 #2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웨냐허면 큰 거는 거친 거.  
 @1 예.  
 #2 그다음 흠뿔 중간에 거, 그다음 또 막 좁진 거. 깨끗허게 허는 거.  
 @1 흠 내는 건? 문골들 내젠 허민.  
 #2 문골 내는 거는 것이 있어불엇는데. 것도 끌 호레미가 잇는데.  
 #3 흠자귀, 흠자귀?  
 @1 흠말이.  
 #2 이런 식으로 허영.  
 @1 흠백이.  
 #2 그런 건 우린, 집을 그런 집을 안 헤난.  
 #3 흠백이 허는 그 대패가 잇주게.  
 #2 그런 건 안 헤보니까.  
 #3 좁작헨 허는 거.  
 #2 옛날 헤난 그런 건.  
 @1 자는 어떤 자 쓰니까?  
 #2 자?

@1 예.

#2 자도 아무 집이나 엇엇주게, 그때는. 우리 집.

#3 기억자.

@1 응.

#3 쉼로 댜 거 기억자.

#2 기억자 잔디.

@1 예.

#2 그다음, 그다음에 줄자가 나왔지.

@1 그 기억자는 여기선 뭘엔 불렀수가?

#2 아, 기억자주게, 원래.

@1 삼촌네 기억자 가정 오라 영 굴안예.

#2 응, 게문 가정오는 거. 자, 기억자.

@1 기억자. 기억자 가져오라. 그걸 곱은자렌 안 굴아?

#2 곱은자엔 곧는 디도 있고, 기억자엔 곧는 사름도 있어.

@1 삼촌네는 주로.

#2 기억자.

@1 기억자예. 기억자 가정오라. 그다음에 먹통허고 먹술은 뭘 험 때 쓰는 거라?

#2 거 저 나무를 조금 일정허지 못헌 거, 일정허지 못헌 거 줄로 먹통 헤영은에 줄로 딱 헤영 땡기면은 요 가생이 있고, 요만큼 들어간 디가 있고 있어.

@1 응.

#2 게면은 요걸로 계산허영 요 안에 걸로 계산해서 줄을 치면은 착. 게 거 까끄는 거, 큰자구로.

@1 큰자구로. 그 줄 험 디를 쪽 까까 나가는 거라예?

#2 응.

@1 톱으로 허는 게 아니라 자구로, 자구 허나 이시민 문딱 짓어질 거구나.

#2 난 뭘, 이제 나 집 많이 지었는데.

@1 응. 그다음에 보통 그 먹술은 무신걸로 멘들아마씨?

#2 거 저, 먹, 글 씨는 먹이 잇주, 먹.

@1 예.

#2 먹에 걸로 보통 굴앙 놓는데.

@1 응.

#2 걸로 헛는데 주로.

#3 솟검덩이로도 헛주게.

#2 솟검덩인, 솟검덩인 잘 약해영 안 돼어.  
 @1 아.  
 #3 솟검덩인 솟밑에덜.  
 @1 예.  
 #3 옛날 불 솟아나민 그냥, 거멍허게덜 잇는 거. 그거 굶어당덜토 허곡.  
 @1 아.  
 #2 것이 헝곰 약해여.  
 @1 약해여예? 아무래도 먹 곶앙 현 것보단예?  
 #2 먹보다 약해여.  
 @1 솟검덩이로도 먹술 그 거기 담양 헛구나. 그다음에 흑시 옛날 집 지을 때도 이런 썩손이나 이런 것도 썩수가?  
 #2 옛날에는 썩손이 잇었지.  
 @1 응.  
 #2 그 저 사강이 잇어. 그런 기술자덜.  
 @1 예.  
 #2 우리가 초불, 집을 지영 텬기 헛 다음 사름이 보통 동네 사름덜이 왕 집 짓을 때 다 흑 불러주거든.  
 @1 예.  
 #2 그다음은 흑하고 7시락.  
 @1 응.  
 #2 예, 멘짝허게 7시락을 치어서 이긴 다음에 불러거든. 우아래.  
 @1 응.  
 #2 깨끗, 종이 불르듯이 경 행.  
 #3 손으로 불러 낱.  
 @1 예.  
 #2 서깁 텬기헛 다음에.  
 #3 남손, 남손은 썩손 허기 전에 이제 남손이엔 현 게 잇주게.  
 @1 예, 남손.  
 #2 낱을 까깁 즈루 헤영 미는 거.  
 @1 예.  
 #3 대게 그거 썩주. 경 헤난 다음 썩손 나완 썩손덜 쓰고.  
 @1 게난 삼춘네는 예전엔 남손으로 썩던 거라예? 썩손 나오기 전엔예?  
 #3 게난 목수덜은 제라헌 목수덜은 썩손덜토 잇곡 허는디, 일반 인제 가정 에는 썩손덜 없는 디 이 남손 만들앙, 남손으로도 쓰곡 경 헤낱주.

#2 하여튼 보통 초가집 짓어서 튼기 우에 불리는 건 쇠손으로 해야 정확하거든. 경 기술자가 필요해여.

@1 응. 튼기 행 마루나 이런 데덜은예. 경 안 행 축부름 같은 경우는 손으로 이제.

#2 아, 초불.

@1 초불은 다 손으로 허고.

#2 그다음은 두불은 아까 3시락허고.

@1 예.

#2 흑허고 헤영 서경 불르민.

#3 게난 튼기 얽어냥이, 튼기.

@1 예.

#3 그기 나무 저 뒹고 대나무 즘질이 여경 다 이렇게 부찌주게이.

@1 예.

#3 튼기 여꺼 낱 그걸 이제 흑 불리는 거라.

#2 초불 헌, 초불덜은 동네 어른덜 왕은에 집.

@1 흑질 허는 날.

#2 흑질 허는 날 다 불라주거든.

#3 옛날은 집 허나 짓젠 허민.

#2 튼기 헤 주곡, 흑 불라주곡.

#3 동네서 모여들엉덜 헤 주어났어이.

@1 예.

#2 그때는 상당히 풍속 좋을 때.

@1 물도 질영 오곡.

#3 응.

#2 막 풋죽도 썬 오곡. 옛날 인심이 좋앗주게.

#3 물 지영 오는 사람, 흑 꺾는 사람. 사람이 상당히 많이 들어. 쟁 또 조금 꺾참게 사는 집엔 사람이 많이 모여들곡, 조금 어려운 집인 경 많이 모여들지 안 허곡 경 헛주.

@1 예.

#2 옛날 마당 잇잖아. 마당에 흑 앓당 농곡, 물 쥐 가명, 보리짚.

@1 예.

#2 요 정도면 세 개 짤랑은에 농명 불르면서 불랏어, 옛날은.

@1 수세.

#2 것이 \*\*기세라.

@1 그다음은 흑 받는 거, 흑 받는 것도 이수가? 흑받침.  
 #2 응, 받침.  
 @1 그건 뭐렌 험니까?  
 #2 고데.  
 @1 고데, 응.  
 #2 고데.  
 @1 고데 헤갓고, 고데 행은에 쉐손으로 영 허는 거라예?  
 #2 고데.  
 @1 고데, 응. 일본말.  
 #2 고데받이.  
 @1 예. 그거 이제 우리 흑 불른덴 행은에 아까 남손을 흑손이렌은 안 곶아?  
 #2 게난 우리는 보통적으로 나 집 짓을 땐 그런 건 안 써 봤어, 난.  
 @1 안 현 거예?  
 #2 이 바닥 불를 때는 낭손을 쓰는데, 이거는 쉐손으로. 나냥으로 불르니까.  
 @1 어, 건 삼춘이 이젠.

## 1.5. 민속

@1 혹시 여기 이제 집 다 짓고 허면 집 울영은에 제 같은 것도 지냅니까?  
 가신이엔 헤영 올레키시를 헌다든가.  
 #2 아, 거는 난 몰라. 이 사름덜은 알아.  
 @1 응, 삼춘은 교회니까.  
 #2 이 사름 알아도 난 몰라 그런 거.  
 @1 그런 건 어떻.  
 #3 그 아주 조금 뭐헌 집안덜은 영 보민 그 제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제 안 지내는 사람도 있어.  
 @1 음, 그래도 일 년에 혼 번 행 뭐 안택이렌 헤갓고.  
 #3 응.  
 @1 그런 거 삼춘넌 안 헤 받마씨?  
 #3 집 일 때나 뭐 헐 때는 제 안 지내.  
 @1 예. 다 짓어나근에 살아갈 때.  
 #3 응.  
 @1 그런 건 엇고.

#3 응.  
 @1 그 성주는 내지 안협니까? 성주거시리는 거?  
 #3 아, 집 다 준공행, 지금 같으면 준공이주게이.  
 @1 예.  
 #3 계난 집을 그 뒀고.  
 #2 다 허기 전이. 성주내리는 건 다 허기 전이.  
 #3 뭐엔 허느니, 기둥.  
 @1 예.  
 #3 기둥덜 다 세왕, 인제 포덜 걸지 안허여.  
 #2 전부 다 헌 다음에.  
 #3 포 딱 우에 포 걸면은 이제 그땐 제 지내는 거라.  
 @1 응.  
 #3 상량식.  
 @1 예.  
 #3 음, 상량식, 상량문 썩 인젠 그걸 인제 뒀고, \*\*네광목으로 이제 무껍 올  
 리주게, 양쪽에서.  
 @1 예.  
 #2 득 하나 돌아메근에.  
 #3 쟁 그거 딱 올리면은.  
 #2 건 목수가, 목수가 앓는 거여. 인정거는 거.  
 #3 쟁 행 그걸 인제 그때는 제 지내는 거, 상량제.  
 @1 예. 상량제 하고, 경 허영 그거 저기 득 올령 딱 짤랑.  
 #3 응.  
 @1 피도 불르곡.  
 #3 쟁 행 그 피 헤영 네 기둥에 이제 불르곡 경 헛주.  
 #2 거 게민 저 뒀이라. 득 머린 떨어지민 어디 문엇어? 건 모르지?  
 #3 거 뒀고, 집 뒀고 상간에 불르주게, 상간에 문으주게.  
 @1 떨어진 자리에.  
 #2 떨어진 자리에 득 머리를 땅 팡 물어.  
 @1 아.  
 #2 걸 알앙 놔 뒀.  
 #3, #2, @1 (웃음)  
 @1 상량허멍 딱 잘라서 떨어진 자리에 거 묻고.  
 #2 우의서 딱 때리거든.



@1 상무루에서.  
 #2 자구로 딱 허믄 떨어져.  
 @1 예.  
 #2 여기도 가고 여기도 와. 그 자리에 묻어 주는 거.  
 @1 예. 떨어진 자리에?  
 #2 게 목수가 거 먹는 거. 그날 잔치 아니라. 돈도 걸곡.  
 @1 그다음에 삼춘 거예, 그 상량 헐 때는 잔치 헛지 안허꽈? 사탕도 막 뿌  
 령은에 좇어먹기도 헤나수다, 저도.  
 #3 그때는 사탕이 귀헐 때라놓난 그런 게 엇엇어.  
 #2 돈도 허곡 그때 목수 잔치지.  
 #3 옛날에는 목수.  
 @1 고생헛다 헤갓고예?  
 #2 잔치야. 잔치.  
 @1 그러면 아까 득머리 하면 그 방향에 따라서 운도 만약에 동쪽 가민 아이  
 고 이 사름네 부자로 살키여, 이런 말은 안 헤마씨?  
 #2 그런 건 엇어. 그 사름덜 목수도 몰라.  
 @1 아, 건 몰르고예?  
 #2 게 무식헌 것이 존 거.  
 @1 그다음에 집 다허민 성주, 심방 빌영 성주 내리는 거.  
 #2 거 나신디 굴지 말아게. (웃음)  
 #3 성주는 집을 다.  
 @1 다 곳낭예.  
 #3 으, 다 곳난 때 인제.  
 @1 심방 빌어근예.  
 #3 집에 어떤 액운을 막곡,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인제 성주풀이 허주게이.  
 @1 예.  
 #3 예, 경 헤영. 뭐 허는 집도 잇고, 못사는 집은 그냥, 그냥 행 살곡.  
 #2 못사는 집은 우리 삼양에 삼양이동에 열 집이민 일곱 집은 못 허지.  
 @1 아, 성준, 웨냐면 것도 큰 돈 드는 거난예?  
 #2 게 보리밥도 잘 못 먹을 땐디 어디.  
 @1 흑시 문전, 식게 헐 때는 문전젠 허지예?  
 #3 으, 문전제.  
 #2 이 사름덜 다 헤야주게. 안 허민 안 뉘주.  
 #3 문전제, 안방제.

@1 예.

#3 겐 이제 제들 지내주. 영 보민.

@1 응.

#3 게난 문전제 지내민 인제 뭐 고팡이엔 허주. 옛날엔이?

@1 예.

#3 그 고팡이엔 이제 창고허고. 안에 창고허고.

#2 쌀창고야, 쌀창고.

#3 조금 이제 메 헤영 농곡.

@1 예.

#3 또 조왕에 인제 거기도 인제 술 부영 영 올리곡. 처음은 이제 좃불 키곡 그것도.

@1 예.

#3 이렇게 해서 조왕제라. 경허곡 인제 문전제, 문전제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때는 조금만 허민 그 제를 지냈주 뭐. 소 길루는 데는 쉼막제엔 헤영 쉼막에도 제 지내곡.

@1 응.

#3 경 헤영 그 제들 지냈주. 영 보민, 게문 대개 인제 저 문전제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은 인제 첨 본제엔 헤영.

#2 경 아무나 못했수다게. 옛날에는 잇는 집이나 헛주. 없는 집인.

@1 게난 옛날에는 보면 삼춘예, 문제 지내는 거는, 문전제 지내는 거는 식 게나 멩질 때 지내는 거 아니라예?

#3 응.

@1 게문 문전제 지내낭 본제 지내는 겨우짜?

#3 응.

@1 문전제를 먼저 지내는 거예?

#3 응, 먼저.

@1 그러면은 아까 안방제, 그 안방제는 뭐우짜? 그게 고팡제?

#3 응, 고팡.

@1 아, 그 고팡제를 여기 이 동네는 안방제렌도 허는 거라예?

#3 응, 게난 고팡이엔 허주, 대개, 고팡.

@1 예. 고팡제.

#3 예.

@1 그 고팡제는 누게가 지냅니까, 그거는?

#3 거는 이제 딱로 인제 상을 이렇게 놔.

@1 아, 고팡에 출려?  
#3 아니, 이제 문전젠 혈 상 놓고.  
@1 예.  
#3 그다음 이제 본제.  
@1 예. 본 상 놓고.  
#3 그다음은 저 고팡제.  
#2 고팡제.  
#3 지내는 거 따로 영 출려 놓주게.  
@1 아, 거난 제 벌일 때 흠치 게민 세 개를 벌이는 거라예?  
#3 응.  
@1 만약에 쉼막제는 허젠 허면?  
#3 건 인제 따로 인제 강 영영 술 부영 올리주게.  
@1 아, 게문 상에, 상 폐우는 거는 세 개.  
#3 응.  
@1 그다음 조왕제 허는 거는 따로 상은 안 출립니까?  
#3 응.  
@1 아, 세 개라예?  
#3 게난 조왕제는 조왕에 건영.  
@1 예.  
#3 조왕에 인제 영 강 올리주.  
@1 예.  
@1 게문 그 초는 그 본상에도 촛불 싸고, 문전에도.  
#3 문전제 지낼 때도. 초 이렇게 강 경 인제 제 지내고.  
@1 그다음에 고팡이라는 것도, 초 싸근에.  
#3 아, 고팡에는 별도로 안 허고, 그자, 제 지내나민 거기 그자. 술 부영 이렇게. 다 똑같이 허는 거라.  
@1 따로 저기.  
#3 신위 모신 디허고 똑같이 허여.  
@1 따로 고팡에 그걸 가져가거나 영은 안 험니까?  
#3 낭중에 따로 이제 철변헌 다음엔 거기 따로 강 이제 올리주게.  
@1 아. 철변헌 다음에 허는구나예? 게민 그 고팡제 헛던 거는 놈안티 안 준덴 험디다, 음식들?  
#3 (웃음) 인제 그런 놈안테 주진 안허고 것.  
@1 가족만 먹어야 뉘덴.

#3 아니. 이제는 뭐. 대개 이제 식구끼리들 허는 거니까.

@1 예. 이런 식으로 행. 삼촌네는 지금도 그걸 험구나예?

#3 지금은 아니. 지금은 이제 문전제 허고. 거 신위 모신 제 허고이.

@1 쟁 조왕에 나중에.

#3 응.

@1 문전제 걸로 허지 안합니까예? 조왕에는예. 이제는 고팡제는 안 험구나예?

#3 응.

@1 혹시 여기도 칠성도 모셔놨수과?

#3 칠성 모사난 집들도 잇주. 영 보민.

@1 예.

#3 그 옛날부터 쪽 내려오명, 그 칠성 모시는 집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도 어릴 때 영 봤는데. 그 주쟁이엔 현 거 잇주게.

@1 예.

#3 그 새로 영 여쭈. 주쟁이 이렇게 더쭈. 거기다 이제 칠성제를 허더라고.

@1 이 삼양에도 그 주쟁이 현 거 한 이천 년 초에도 봐놨수다.

#2 많이 잇었지.

#3 많이 잇었어.

#2 웨냐면은 우리 동네. 삼달리?

@1 예.

#2 삼달리 어른이 그 삼양에 이스 왔어. 이스 와서, 그 뭐냐면은 그 마루. 뒤쪽에 북쪽에 장항 놓고. 향아리들 많이 봤는데, 그 옆에 주쟁이 해서 더평 잇어. 보면은, 저 뭐인고 헛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뱀이 쫓아왔다 헨에, 거기서 집을 지어준 거야. 그런 건 흐끔 들었어. 난 안 헤, 난 몰라, 무시것산디.

@1 삼촌네는 몰라. 아니 근데 이제 그 이천 년 초까지만 해도. 우영에들 영 보면, 그 주쟁이 더큰 집이 삼양에 몇 군에 잇었거든예?

#3 잇었어.

@1 예. 저도 봤었으니까 삼양 왔을 때.

#3 그 영 보민 동쪽에서 인제 여자 어른이 여기 시집 왕 혈 땐. 그 뿔고, 베 염신이 쫓아왔젠 허영 주쟁일 딱 행 허더라고. 쟁 행 거기 인제 제 지내고, 경 일 년에 한 번씩 제 지내.

@1 주쟁이 곱아주기도 허고예?

#3 또 거기 뱀이 보인덴 허여, 영 보민 우리 안 봤주마는. 게곡, 영 보민 돼

지제엔 행 도새기제엔 헤연. 대개 김녕 사람들이 그런 도새기제를 지내주게. 김녕, 또 어디가 토산 쪽에 사람들은 대개 그런 제들을 지녔다 헤.

@1 아, 그러면은 그 돼지제를 그 돛제 헤갖고 그걸 정월에 지네지 안헉니까?

#3 응, 정월달에, 정이월달에.

@1 정이월예예. 그때는 돼지를 위허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돼지 잡양은에 큰 제 지내는 거지예?

#3 응, 큰 제 지내는 거.

@1 응. 걸 여기선 도새기제렌 허는구나예?

#3 응, 돛제.

@1 돛제, 도새기제. 그니까 다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른 거라예?

#2 다 풍습이 틀려. 난 몰라, 일절 그런 거.

@1 삼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뎡깁디가?

#2 응, 게난 몰라.

@1 여기 이 삼양교회가 뉘게 오래뉘 교회 아니파예?

#2 백, 금년 백오년.

@1 백오년. 경허니까. 아버지 때부터 계속 다녔수과?

#2 할머니.

@1 할머니부터. 게난 이 교회를 설립할 때 같이 참여헉나 보구나.

#2 그 정도 뉘주게.

@1 (웃음)

#3 이 어른들이 첨 삼양교회를.

@1 장로님이렌 헉지, 첨.

#3 만든 어른들이지, 설립헌 어른들.

@1 삼춘. 집 지엇던 경험 잇이건 말헤 줍서. 어떤 집 멧 거리나 짓고, 언제 부터 집 짓엇던 허는 거. 멧 살 때부터 집 짓어신지.

#2 사삼사건 후에이, 집을 불타부난이, 지엇주게. 나 열세 설에 우리 집도 낭, 동회천 강 시꺼왔어, 마차에. 열세 솔에.

@1 열세 솔에?

#2 열세 설에 요섯 아이들은 어멍 젓이나 먹을 건데, 나 갱 행 끗어왔어.

@1 (웃음) 게난 동회천 가근예.

#2 겐 시꺼오멍 헉어, 어린 때.

@1 동회천은.

#2 놈의 밧, 낭밧 산.

@1 아, 낭박 사근에. 집 짓젠 허난.

#2 어. 놈의 거 끈어와져게. 쟁 헨 살았어. 그다음은 우리 누님네 집 짓고. 우리 창고 짓고. 우리 집이 원래는 민박?추룩 나가 짓언 살아났어, 옛날에는. 것도 허가 엇이덜. 이제가 우리 집에 살아난 사람들이 혼 오십 명 이상은 뉘어.

@1 으음.

#2 거 집 빌려 주렌 허민 빌려 주고.

## 2. 상가리 초가 구술

## 2. 상가리 초가 구술

- 일시: 2019년 6월 11일
- 장소: 상가리 경로당
- 조사자: @1 김순자 @2 양성필 @3 고창근 @4 오경임
- 제보자: #1 양창근, #2 변옥규, #3 변학근, #4 강응수(노인회장)

### 2.1. 구조

@1 우리 집 짓어난 거 하나씩 행 들어보커라예. 삼춘은 집 직접 짓어봤수  
과?

(중간 생략)

#1 아, 초집 짓는 거야 봐십주.

@1 예, 언제쯤마씨? 그때는.

#1 아유 그때 연령이사 우리 훈 으, 열댓 설. 그 스시.

@1 그 스시.

#1 초집, 초집 헐 때에.

@1 예.

#1 경혜가지고 집을 짓고, 초집에서 이제 일 년에 훈 번 집을 일어십주게.

@1 예.

#1 집 새 비어다가지고, 이 우에 헤가지고, 거시기 헤가지고 이제 저, 줄,  
저 지금 골아도 몰라도 그것 7라 뵈이렌 허코?

#4 휘롱이.

#1 어.

@1 휘롱이?

#1 어. 걸로 헤가지고 줄을 멘들앗주. 줄을.

@1 예.

#1 줄을 멘들어갈 때, 그 저 새로 헤가지고 위로 올라가근에 쪼르르허게 돌  
아가게 헤근에 줄로 헤가지고 집을 줄을 메십주게.

@1 예, 기구나예. 삼춘은 집 짓는 거 봐받마씨?

#2 집 짓는 거?

@1 예.

#2 봐났어.



@1 예, 그거 쪽 골아쥐뵈서, 한번.  
 #2 집 짓으젠 허면은, 그때는 들에 가서 이녁 밧딘 아니라도 허가를 받아야  
 찢라왔주기에.  
 @1 예.  
 #2 찢라왔는데, 허가 없이도 찢라다근에 이녁 집을 짓고.  
 @1 낭예.  
 #2 응, 소낭.  
 @1 응.  
 #2 흑송이라게. 게서 솔친 낭은 으라이 오려서. 고부끼리라고 옛날 이 거두  
 쟁이.  
 @1 예.  
 #2 이거 등기곡 허는 그 고부끼리가 있어. 요즘?찌 그 톱질, 공장을 해서  
 멧 사람 뉘 것도 삭삭 오리지마는 그때는 고비끼리밖엔 없어.  
 @1 음.  
 #2 그러지 안해서 돈이 엇은 사람은. \*춘거리라고 큰 대톱.  
 @1 예.  
 #2 대톱을 해서 계를 조직했어. 예, 천지판이 사름이 죽어서 관 허는.  
 @1 음.  
 #2 그런 것도 그 대톱으로 계를 해서 오리고. 겨니 어떻게 해서 그 낭을 오  
 렷느냐 허니까 땅을 구덩이를 파.  
 @1 예.  
 #2 반쯤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오리고, 그다음 반꺼지 오려지면은 다시 꺼  
 꾸로.  
 @1 음.  
 #2 돌려세와서 그 나물 오려서 천지판이 저, 관널도 허고. 재목도 오리고.  
 @1 재목도 오리고.  
 #2 그때는 그렇게 헨 살앗주게. 경헨에 헝꿈헨 낭은 이 제자리 알아져?  
 @1 예, 예. 제자리.  
 #2 이 도깁디 납작헌 도끼라.  
 @1 음.  
 #2 납작헌 도깁디 이걸로 제자리를 해서 재목을 또 만들고.  
 @1 예.  
 #2 어려이 살앗주게, 참.  
 @1 예, 맞수다.

#2 경행 서슬 혈 낭은 없으면은. 큰낭 오려난 벤죽 7튼 것도 위에 더프곡,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부족하면 솔입.

@1 예.

#2 솔입 이파리를 그대로, 거시지 않고 그대로 짚아.

@1 음.

#2 집에 짚면은 딱 그순새 7치 새가 알려레 등기질 아녀게끔 짚아서 그 우의 그순새를 헤다가 더프고. 새 없으면 조짚.

@1 예에.

#2 조대를 해서 처음에 더퍼놔놓고, 그다음 새로 황노라고 해서. 그걸로 더프고.

@1 으.

#2 게니 더프는 것은 일 년에 한 번이 아니라 두 해에 한 번. 안팎거리 하면 안채에 한 해 더프면 밭채에 한 해 더프고 그렇게 해서.

@1 예.

#2 경해도 토기라는 것은. 여기 저 족대엔 한 게 있지?

@1 예, 예.

#2 그릇 문드는 거.

@1 예.

#2 그것을 해서 이런 디 이 벽에 흑을 부치는 그 토기를 여껴놔서, 여껴놔서 양쪽으로 사름이 사서 흑을 초벌 부르고.

@1 음.

#2 그다음 두불 차 뜨시 불르고. 이렇게 하면서 집을 지언 살았주게.

@1 예. 삼춘 그거는 몇 슬 때 그렇게 헛수과?

#2 예, 나 한 열댓 설 적이.

@1 아. 직접 삼춘이.

#2 게난 직접 나도 소를 질루젠 허니까 마구가 없어서. 마구를 집 늦추완 해놔주게.

@1 음. 쟁은에 직접 해받예, 예. 삼춘도 짓어봘디가?

#3 아, 짓곡말곡.

@1 예, 곱아봘서.

#3 우리 거, 첨. 아메도 스물댓, 스물댓. 그때 그, 첨. 낭 끊어단에. 낭 끊어단 그때는 조금 낭공장이 신 때.

@1 음.

#3 나무 낭공장이 신 때. 그디 완 구루마로 꾀영 간 오려단에, 집을 짓언에,

겐 찜, 집 짓으난 토기도 찜, 대로 스끼 꼬멍 그거, 토기 여건 흑 불란에. 겐 살멍 찜. 그땐 그 솔입도 잘 엇언. 찜 뭐든 보릿낭으로도 불 솜으멍. 그 보리 밥을 헨 먹언 살앗수다.

@1 예. 맞수다. 이제는 또 하나씩 다시 또 들어보크라예. 이 동네, 이 상가리, 여기 옛날 상더력이우파?

#3 상더럭.

@1 상더럭예.

#2 옛날은 가락리.

@1 가락리.

#2 이, 더혈 가 자 허고.

@1 예.

#2 즐길 락 자.

@1 예. 가락리.

#2 가락리로 헨 때는.

@1 예.

#2 고내, 하가, 상가를 해서 고내봉에 향교오름라는 오름이 있어요.

@1 예.

#2 잇는다. 고내에 현이 땀으로써 고내는 떨어져불고, 상하가만 더력으로 잇다가.

@1 으.

#2 우린 웃동네 사니까 상가리.

@1 음.

#2 하가는 알동네 사니까 하가리.

@1 락은 어디 가 불어신고예.

#2 예?

@1 가락 헨 때, 락은 어디 가불엇수과?

#2 가락?

@1 예.

#2 가락은 더혈 가 자 낚서 상, 웃 상 자 낚서 허고. 더혈 가 자 낚서 아래 하 자 낚서 허고.

@1 으.

#2 게난 우리 부락이 학교가 잇는데.

@1 예.

#2 원래 하가서만 보조 받아서 학교를 지어놨어요.

@1 음.

#2 지어놨는데. 하가서는 상가 학생을 믿었던 말이여. 호수도 많고. 인구도 많으니까 헛는다. 하가는 애월 보내지 하가 안 보낸다.

@1 예.

#2 그러니 하가 국민학교라고 헛다가 상하가 국민학교 했어요.

@1 음.

#2 상하가 국민학교로 해서 이젠 상가서도 학생이 많이 가고 해서, 운영을 하다가. 아, 하가서는 아, 상가 옷 상 자를 놔붙었다고 하 이거 리명을 고쳐야 겠다, 연화교로 허자.

@1 음.

#2 저 연화못이 있어요, 그디.

@1 예, 예.

#2 연화교로 허자 헐 때에. 우리 동네 훈 분이 서울도 서울국민학교가 있다. 더덕국민학교로 허자 이렇게 허니. 원 아무도 뜨기질 안했어요.

@1 음.

#2 게, 한글로 더덕으로 해서 국민학교명이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집 종류

@1 예, 예. 그 이 동네에 그 옛날 집은 어떤 집 종류들이 있어난고마씨?

#2 집?

@1 예. 종류, 예.

#2 집 종류는, 초가도 큰 집은.

@1 예.

#2 스간.

@1 예.

#2 춤 사간. 줄도 열두 발을 놔서 집줄을 메나고.

@1 음.

#2 그렇지 않으면 작은 집들은 삼간. 외채나 내채나 삼간으로 헤 짓고. 좀 부자로 잘사는 사름덜은 스간집들을 행 살았다.

@1 예.

#2 살고 또 문간도 허고.

@1 문간도 하고예?

#2 예.

@1 그 지에집도 있어났수과?

#2 지에집 었어났어요.

@1 었어예. 이 동네는.

#2 예. 저. 스테 후에야 기와집이 생겨났주.

@1 음, 그전에는 다 초집들.

#2 예. 전부 초가.

@1 초집. 그러면 집을 지을 때. 흑으로 지읍니까? 돌로 지읍니까?

#2 돌로.

@1 돌로.

#2 돌로 싸서 첨, 안팓달로 행에 흑을 파다가. 흑을 그디 수세는 뿔으로 낫  
냐허면은 보릿대.

@1 예.

#2 보릿대를 낫서 막 소로 불리고 사름으로 불리고 헤놓니까. 그게, 보릿대  
는 문짝 삭아지거든요. 게문 불랏자 얼른 비에 씻어지질 안했어요.

@1 예. 우리 제주돏말로 그냥 굴아도 뒤예.

#2 예, 예.

## 집 구조

@1 (웃음) 그러면 집 하나 잇으면 보통 안거리 밧거리 험니까? 어떻 험니  
까?

#2 안거리는 내채.

@1 예.

#2 밧거리는 외채.

@1 으음.

#2 게 또 못사는 사름은 집을 훈 거리만, 내채 하나만 짓고. 우마나 질르젠  
허민 마방을 뜯로. 한 이간쫘 허게 헤서 지어서 메고, 겨울에.

@1 집 세 거리 이신, 시 거리 잇는 집은 었어마씨? 집 시 채 이신 딴 었어?

#2 뜯어분 집?

#4 세 채.

@1 세 채 잇는 거.

#2 집 세 거리 잇는 거. 아 잇지게.

@1 게문 건 무슨거렌 험니까?

#2 게난, 내채, 외채, 문간.

@1 예.

#2 그렇게 헤서 세 거리가 뒤지.

@1 문간 이름은 뭐렌 곶아? 여기서.  
 #2 아, 문간이렌 허지.  
 @1 그냥 문간이렌 험니까?  
 #2 예. 문간.  
 @1 여기 목거리.  
 #2 갱헨 저, 판자담에도 목척 헨 치나 낱 널을 오린 거주.  
 @1 음.  
 #2 그걸 헤영 대문을 올라가민 기각기각 소리도 나고.  
 @1 게문 목거리는 안 지어마씨, 여기?  
 #2 아이 것도 부제칩은 목거리도 잊지게. 게난 문간을 아녀고 목거리로 지은 집들도 있어요.  
 @1 예, 게난 목거리는 주로 뭘 허는 겨우파? 거기는.  
 #2 그냥 목거리라고 허지.  
 @1 사람, 사람이 살아. 거기도?  
 #2 예,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식구가 엇으면은 안 살 수도 있고.  
 @1 예.  
 #4 헛간으로 그냥 내불어.  
 @1 게문 옛날에 안거리는 누계가 살고 밧거리는 뭘 헛수과? 용도가?  
 #2 용도가 안거리는.  
 @1 예.  
 #2 아버지민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외채라고 해서 밧거리는 자식이 장남이 이시면은 결혼을 시키면은 너 밧거리에 살라.  
 @1 음.  
 #2 이렇게 해서 밧거리에, 어 저 집 헨 귀야지에 솟 앓져서 참 궁허게 살았지게.  
 @1 예. 보통 일반 사람들은 삼간집 살았어예?  
 #2 무신 사름?  
 @1 일반, 보통 사람들은 삼간집 살았지예? 사간집이 아니고.  
 #2 예, 삼간집이 대부분이 살았주게. 스간집이 드물엇어.

### 집 짓기

@1 게문 삼간집을 헨 번 말로 헨 번 짓어봘서. 어떻게 땅 다지는 것부터 해서. 집 짓으는 순서를 쫓끔.  
 #2 아니 게난, 삼간집이라는 것은, 이 시에만 벌른 거라.

@1 예.  
 #2 시셋말로 스간집이엔 현 거는 싯에 딱 벌러. 게민 방도 으라 개 나오고, 스간집은.  
 @1 예.  
 #1 거 부제칩이라야 그렇게 스간집을 헛주게.  
 @1 게난 그 삼간집 짓젠 허면, 땅 다지는 것부터 행은에. 지붕 이는 것까지 쪽 흥번 곶아봐. 집을 한번 짓어봅서 삼춘이.  
 #2 그걸 뭇으로 그려놔.  
 #4 말로, 말로 헉서게.  
 @1 말로 곶읍서.  
 #4 말로.  
 #2 게난 땅이 이시면은.  
 @1 예. 여기 그림서, 여기.  
 (중략)  
 #2 대청마루라고 질 너르난에.  
 @1 예.  
 #2 여기 영허면은.  
 @1 예.  
 #2 여기 요렇게 헤서.  
 @1 예.  
 #2 구들.  
 @1 구들.  
 #2 궤팡.  
 @1 예.  
 #2 이건 마루, 대청마루.  
 @1 예.  
 #2 여기가 요렇게 허면 흥난 부억.  
 @1 예.  
 #2 흥난 창고.  
 @1 예.  
 #2 곶팡이라고 헤여. 곶팡.  
 #4 곶팡.  
 @1 곶팡.  
 #4 창고.

@1 예, 귀팡, 요 동넨 귀팡 험니까?  
#4 어.  
#2 창고주게.  
@1 예, 예.  
#3 귀팡.  
#1 옛날 말.  
@1 옛날 말론 귀팡예.  
#3 귀팡.  
@1 게문 삼춘 이, 여기 문은, 대문은 어디 드는 거우파?  
#2 문?  
@1 예.  
#2 문은 이게 전으로 봐야지.  
@1 예.  
#2 이게 앞으로 전으로.  
@1 남향이구나예, 예.  
#2 전이면 이걸 창문. 요디 여, 여 난간라고 험 게 있어.  
@1 예.  
#2 요렇게.  
@1 앞에 난간예.  
#2 요렇게 해서 요꺼지는 난간이 뉘고. 이 부엌 험 디는 이거 험나로 뉘어  
있어요. 요게 대청마루에 여기 난간이 잇고.  
@1 예.  
#2 요기 저 큰구들이라고 해서 난간이 있어요.  
@1 예. 큰구들 앞에도 난간이 잇고예.  
#2 예.  
@1 삼춘. 옛날부터 여기 여기를 대청마루엔 헤수과?  
#2 대청마루.  
@1 아, 대청마루예.  
#2 예.  
@1 상방이엔 이런 말 안 쓰고. 이 동네는?  
#2 예. 마루허고 첨 못사는 집은 흑마루라, 자갈 담아서 흑 더꺼서 그 우의  
마루방으로 쓰더라 이거지. 돈이 없는 사름은.  
@1 예. 게난 삼춘도 그런 거 계속 봐 온 거라예.  
#2 예.



@1 게문예. 큰구들허고.

#2 큰구들은 아버지.

@1 예.

#2 당대로만 봐서. 외채에는 아덜이 결혼허면 밧거리라고 해서 거기에 살리고. 어머니 아버진 여기고, 이 족은구들이라고 헌 디는 옛날 규수를 살렸어. 여자. 딸을 낳으면 족은구들 찍시라. 딸이 옛날은 구한 한국의 조선시대는 요 몸을 헌 번만 나가서도. 그 딸은 버렸다.

@1 게난 큰구들 옆이 족은구들예.

#2 부억 엠에 족은구들 헛주지게. 창고가 헌디 족은구들 침, 헌 평 반, 두 평 안 뉘지게. 게난 나상 다니질 못허여, 여자는.

@1 삼춘 다른 덴 가면. 큰구들 율이가 궤팡인데 여기는 정지 옆이가 궤팡?

#2 아니, 여기도 궤팡하면 여긴 신식으로 허민 여기가 궤팡을 헤여. 여긴 방을 꾸며 불어.

@1 옛날 헐 때는.

#2 옛날은 이디가 고평이지.

@1 기지예? 큰구들 옆이가 궤팡이지예.

#2 아, 큰구들 옆이가 고평. 여기 상깃밧이 딱 앓이면은. 부억에서 나오라서 여자가 뭐 뭐 허는 거 헐히 알게 뉘어.

@1 삼춘 상깃밧이 어디우짜?

#2 여기, 여기. 여긴 상깃밧이라고 허여.

@1 큰구들 옆에 그 벽 잇는 데가 상깃밧이우짜?

#2 어.

@1 게민 거기 이신 기둥은 상깃기둥이고?

#2 어.

@1 음, 그 대청마루가. 여기는 여봐라 헤갓고 밖에 나오는 그 호령허는 문은 엇어마씨?

#2 그거 스간집.

@1 건 스간집이고.

#2 스간집 부제들은 멧 밧디 잇어.

@1 스간집은 영 뉘 거 아니라예?

#2 응.

@1 게민 여기에서 큰구들은 어디우짜? 사간집 허면.

#2 이거 전으로 허면 큰구들이 이쪽에 와야지.

@1 게민 여기가 큰구들예? 여긴 앞이라예.

#2 응 전.

@1 큰구들. 그러민 여기는?

#2 이거 큰구들.

@1 큰구들 옆에는 뭘우짜?

#2 이디는 족은구들. 요즘은 다.

@1 요즘 말고, 옛날은 여기는 궤팡.

#2 고폡.

@1 여기 궤팡하고. 여기하고 여긴 뭘우짜?

#2 여기 여기도 구들.

@1 대청은 어디우짜?

#2 여기 구들.

@1 아, 여기 구들.

#2 여기 쳇방.

@1 여긴 쳇방.

#2 여기 부억허민 여긴 창고가 됩지 딱로.

@1 또 여기 이렇게 헤서예.

#2 예.

@1 여기 정지 험니까? 정제 험니까?

#2 정지. 정지.

@1 정지.

#2 부억이엔 요즘은 해도, 정지.

@1 정지 옆에는 또 무시거마씨?

#2 창고.

@1 궤팡.

#2 응, 고폡.

@1 여기도 궤팡이렌 허멍, 궤팡이 두 개?

#2 이걸 방으로 뉘엇지. 방으로 해야 맞지. 이걸 방이 하나 더 잇는 거난.

#3 호령창이렌 현 디가 여기에 잇어나수게. 이쪽은 족은마루엔 헤영. 이걸 큰마루고. 이걸 큰마루난.

#2 큰마루는 올로 요렇게 헤서 이디 딱 상깃밋디 앗앗다가. 올레로 사람이 들어와가면은 호령창 이 문을 열어서.

@1 예.

#2 어떤 사름이 오는가 그걸 알아서 안터레 들어오렌 허는 사름은 들어오렌 허고. 그렇지 안허민 말만 곱아뉘 갈 사름은 말만 곱아두고 가고.

@1 예. 삼촌, 계문 여기도 상깃밋이고 여기도 상깃밋?  
 #2 예. 삼간집은 여기라 원 중심이.  
 @1 사간집은?  
 #2 사간집은 여기 호령창이 신 집은 여기고. 웃인 집은 여기가.  
 @1 아, 계문.  
 #2 호령창이 스간집마다 신 것도 아니라.  
 @1 아, 호령창은예.  
 #2 저 알동네.  
 #3 ○○네 집.  
 #2 저 ○○네 집의 셔낫저.  
 #3 ○○네 집도 셔낫수게.  
 #2 ○○네 집이 셔나고. 셋동넨 저 ○○이네. 현 주사 살아난 집 그 집의 호령창이 있고.  
 #3 이 앞동네 ○○이네 집이 셔나수게.  
 #2 이 ○○이네. ○○이네 집은 호령창이엔 헤도 족은삼방이주게.  
 #3 족은마루가 이디 잇지 안헤수과?  
 #2 응, 마루가 돌.  
 @1 족은삼방.  
 #2 족은삼방이 잇었어.  
 @1 삼촌 계문 족은삼방이민 허민 대청마루도 삼방이렌 험니까?  
 #2 아니 이광 이영 혼내동. 손님이 앓질 때는 문 싹 열어두고 꺾지 앓지주게.  
 @1 아, 이거 여기 열게 됩수과?  
 #2 어. ○○이네 집. 저 족은마루가 신 집.  
 #4 예, 족은마루가 잇어낫수다.  
 @1 그 집은 다 뜯어 불어수과? 이제.  
 #2 응?  
 @1 다 뜯어 불언?  
 #3 다 옛날이난.  
 #2 다 뜯언, 스투트집이주게 전부. 게 안허믄 기와들 올리고.  
 @1 아니, 초가는 엇어도 옛날 집 형체는 이수과?  
 #2 없지, 엇어.  
 @1 잇어야 됩는다.  
 #2 아, 꺾만 잇자. 셋동네에 허나 잇저. 이제 백다섯 난 할망 사는 집.

#4 그디도 개량헨 고치지 안헤신가마씨?  
 #2 아이 고천. 그순새로 일엇저게.  
 #1 그순새로 일언.  
 @1 그순새로 일언예.  
 #2 새로 하르방이 무오생 지금 백하나인디. 돌아갓어. 돌아가고 할머니는 백  
 다섯인디 지금 여기 놀레도 오고.  
 @1 아이고. 그 집 한 번. 나중에 집 구경 헨 사진 하나 찍어야키여.  
 #3 우의는 검은 망사로 더껏어.  
 #2 계난 그기는 새로 더껬에 줄 잘 메고. 또 검은 비니루 헤단에 딱 더껬.  
 고무줄로 제깍 메고. 나 생각에는 다시 집 안 일젯다 영 헤근에. 하르방은 문  
 처 가고 할머니는 지금 살아잇어.  
 #3 내가 알기는 중간에 개량을 헷는데 두 거리로 만들안.  
 #2 안 헷저 안거리, 알녁거리, 알녁거리.  
 #3 알녁거리영 우녁거리영 ㄱ찌 짓어수게.  
 #2 아니 ㄱ찌 짓어도게 초가로.  
 #3 계메, 초가로 뉘긴 뉘어도.  
 #2 우녁거리는 저 스투트 더끄고.  
 @1 어쨌든 강 보믄 알테주양.  
 #2 그디 가민 저 돛 질루와난 디도 실 거라.  
 @1 아.  
 #2 돼지 질루와난 디.  
 #1 아, 통시 이실 거라.  
 @1 통시에.  
 #2 계영 그디. 하 저 엠비시서 왓던가. 나 노인훤장 시절에. 돼지 질룬 디  
 이수겐 허난에. 셋동네 권당한테 들으난 아무디 잇젠 허연. 간 ㄱ르쳐나명 헷  
 어.  
 @1 예. 삼춘 거기도 나중에 ㄱ르쳐 줍서. 삼춘 아까 보난. 알녁거리여 우녁  
 거리여.  
 #2 건. 형제간이.  
 @1 예.  
 #2 이디 형이 살민 동생이 여기 사난, 같은 형제찌리 푼 디 보내지 말자고  
 해서. 이웃디 집을 짓언 살앗주게. 시레도 보내지 말저.  
 #4 이 변○○ 어르신께서 말씀을 헷습시다마는. 중간에 헨 마디 허쿠다.  
 @1 예.

#4 지금 뭐냐면 그 아까 이 어른 말씀한 식으로. 요게 밧이 혼 이십 평 짜리라예. 혼 이십 평 짜린데, 이 밧디 뭐냐 허면은 집을 짓엉 이딘 큰아덜 살리젠 집 짓고, 이 밧디서. 또 여기는 인제 족은아덜 살리젠 이젠 집을 짓엇거든, 혼 밧에. 짓어가지고 영 올렐 내어가지고 성제가 덩겻거든, 인제. 질레. 뭐냐하면 우알녁거리. 우녁거리 알녁거리 해서.

#2 그게 그 말이주. 우녁거리 알녁거리엔 현 게.

#4 게가지고 인제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뭐냐면은 집을 짓젠 허면은 이제 흑을 뭐냐면은 어디 오름 흑 7튼 거 강 파다근에 흑을 이녁 거 꺾여놔야.

#2 촌흑이라고 해서.

#4 담을 영 이제 집 짓으면은 영 올타리 담을 다우면은 이제 그 흑을 파오는 거나 그 흑 이제 브르는 거나. 이 동네분이 새집을 짓엄다 허면은 동네분이 강 다 가가지고 일을 해줘. 협조를 해줘. 그 시절에.

@1 예.

#3 그때는 수도도 없을 때니까 물허벅으로 저당은에 물도 대어주고.

#2 물계가 셔낫젠 허난. 초가집 지을 때.

#4 그때가 뭐냐면은 여성들은 물허벅을 져가지고 이 못디 가가지고 물을 저왔습니다. 물, 물 저당 그 흑곳을 헤가지고. 동네분이 다 모다져가지고 흑을 꺾엉 그 집을 만들엇습시다게. 아까 말씀헷는데. 집을 만들아가지고 뭐 영허면은 목수는 집 형태를 고망 돌르명 집을 다 만들어가고. 동네분들은 흑을 꺾어가지고 이제 영헌 디 딱 흑을 불라 불어. 동네분들이.

#3 미장이주, 미장.

#4 다 발라가지고 요즘에는 세멘으로 다 방을 헷는데, 옛날은 다 흑으로 영헌디도 다 흑으로 뭐 허고. 바닥도 인제 뭐냐면은 돌 깔아가지고 흑으로. 이 굴목 7스락 7튼 거 질러 담아가지고 불로 이 방 뜨시게. 무시걸 헷 헷는데. 그 시절에만 해도 목수영 집을 영 짓엉 허면은 뭐냐면은 다 동네분이 헤가지고. 물 이제 집 짓는 거든 설메든 이제 목수가 헤놓면은 조금 눈치 이신 어른덜은 동네에서 다 협조를 헷습시다게.

@1 예. 예.

#4 겐, 첨 그 시절에도 그 시절에만큼 헤가지고 뭐헷는디 아. 아까 곶앗지마는 우녁거리여 알녁거리여 영 헷는데, 시대가 이제 뭇 시대가 와놓니까. 큰아덜도 떠나 불어, 족은아덜도 떠나 불어, 이게 이젠 남신디 갖다 이거라.

@1 예, 맞수다.

#4 이 재산이. 간 헤놓니까. 요즘 때는 뭐냐면은 요거 분할이라도 허영 이거 족은아덜 사는 디 노라도 영 만들앙 놔뒀시면은 이녁 땅으로 좇는데. 그렇지도

안 돼고 땅을 툐 사람신디 풀아 불고 이견 죽은아들 싯다 말이우다. 질도 일러 불었어. 우영팻 돼가지고. 여기선 뭐냐하면 다 끊어먹어 불언. 길도 없다 이거여.

#2 그런 경우가 합니다게.

#4 그런 뭇이 잇습니다게.

@1 예. 알아수다. 한 가지만 더 또 물어보게예. 우녁거리 알녁거리 헐 때에는 우알로 영허는 거파? 옆으로 허는 거? 오른쪽 왼쪽.

#2 남쪽은 우녁거리. 북쪽은 알녁거리.

@1 아, 우녁거리는 남쪽이라예.

#2 남쪽이라.

@1 아, 예. 알녁거리는 북쪽.

#2 알녁거리는 북쪽.

@1 예. 알아수다.

#3 동녁거리 서녁거리엔 헐 건. 동쪽에 건 동녁거리 서쪽에 건 서녁거리.

@1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주칫돌. 집 짓젠 허면 삼간집 짓젠 허면은 주칫돌이 멧 개나 들어가마씨?

#2 그거 웨와지크라? 질 처음은 스 지둥이라 스 지둥.

@1 아, 맨 처음에 질 때, 스 지둥.

#2 질 처음엔 스 지둥. 주칫돌이 네 개 맞이주게. 겐디 옆으로 잇어가민 멘막 구들 간도 이으민 주칫돌이 들어갈 거, 부억 간도 잇으민 주칫돌이 들어갈 거. 창고도 그렇게 헐 거. 죽은구들도 그렇게 허민 헐 거. 방 꾸밀 때마다 지둥은. 주칫돌은 들어갈 거주게.

@1 예, 게문 삼춘예. 네 지둥이렌 헛잖아예.

#2 어, 네 개는 풋지둥 네 개라게.

@1 아, 그 네 개가 풋지둥예.

#2 풋지둥이엔 허주게. 포는 두 개고. 지둥은 네 개가 돼어.

@1 예. 게문 네 개를 거니까 포가 되는 거라예.

#2 게난. 요거 삼간집을 허젠 허민 꼭 요만이 지둥 하나 잇고, 요만이 지둥 하나 잇고, 요만이 잇고, 요만이 잇고, 게서 이 대청마루 잇는 데가 대중에 주게. 대들포가 이거 포, 이거 포.

@1 이렇게 포가 잇는 거네, 그러면.

#2 게난 네 개. 게난 방을 잇을 때마다 이레 지둥은 들어가니까, 주칫돌이 들어간다 이거야.

@1 예. 그러면 여기가 대청마루 요렇게 지둥 이실 거 아니우파예?

#2 응.

@1 앞에 있는 지둥허고, 뒤에 있는 지둥허고 일름이 트나마씨?

#2 아니, 뜨나지. 니 지둥은 꼭?타. 니 지둥은 꼭?따. 그 개워라고 해서. 앞뒤로 잇쟁 허민 개워가 있어. 포에 잇어진 거. 잇어주는 거. 뒤로도 그게 잇고.

@1 아, 뒤에도 개워지둥이엔 험니까?

#2 아, 그디도 개워가 있어. 개워엔 현 게. 포 잇어주는 거. 요거 포면은 아메도 요만썸 알려레 흐끔 내려와서 이렇게 허민 서리 걸어서 물 발지게 좋게 끄.

#3 높이가 조금 야트게 개워는.

#4 영, 영, 과짝, 이거 포 영 뒤면은. 이디서 헤가지고 영.

@1 옆으로, 그 웨 텃마루 허는다. 텃지둥 잇는 옆에 개워지둥.

#2 텃지둥이 포 잇은 게 텃지둥. 포 잇은 그것?라 그. 현 발 정도 현 거 그 게 개워. 개워라고 해.

#4 그것도 지둥을 세와줘야 되는 거주.

@1 그러니까. 개워를 세운 게 개워지둥.

#4 예.

#2 그게 포를 이어준 거라. 개워.

@1 예, 아, 게난 쏫지둥은 포를 이어주는 게 쏫지둥이고. 개워지둥은 개워하고 포를 연결하는 거라.

#2 그렇지, 그렇지.

@1 연결한 게 개워지둥예. 게난 거기 세운 게 개워지둥. 연결하는 건 개워.

#2 개워.

@1 아, 정확하게 오늘 알아수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게민 지둥도 방의 수에 따라서 지둥은 으라 개가 나오는 거구나예.

#2 그렇지. 방 구조에 따라서.

@1 구조에 따라서예.

#2 게난 구조에 따라 이제 주춧돌도 잇고 지둥도 잇고, 따시 널러가면은 이 펜지라고 잇어.

@1 예.

#2 너미 방이 널러가면 지둥 저 못 전덤직허니 요렇게 요 정도로 해서, 이저 펜방을 세와가지고.

@1 예.

#2 이레 흙 쳐서 이게 들어가게끔. 이거?라 뒤이엔 허는다. (웃음) 펜방에

지동 세우민 이 아래 토기를 알로부터 허면은 못 전단다고 해서. 이 저 빈지를. 빈지, 빈지가 맞지.

#3 빈지, 빈지 드러서.

@1 게난 빈지허는 거는 보통 마리에 튼, 저기 토기 허기 밑에 놓는 거.

#2 어 밑에 놓는 거. 밑에 놓는 거가 마루널 닳은 거주게게. 그걸 \*\*툫지 넣는 게 빈지라고 해서.

@1 예. 예. 아까 앓앙은에, 상깃기둥. 거기 허는 데 아니?

#2 아니, 아니. 방에 이 저.

@1 방에도.

#2 방에, 마루방에 그걸 놓민 이쪽 구들에도 이어지고, 이쪽 부엌도 이어지게 뒤고 다 이어지게 뒤 거주.

#4 마루 허면 스각을 영 돌아오는 거난.

@1 대청만 말고, 구들에도 빈지를 들엿구나예.

#2 예, 예.

#4 게난 마루에도 빈지가 뒤고.

#2 구들에도 뒤고.

#4 구들에도 영 뒤고 영 이 마루는 스각을 돌아가는 거니까. 이거 마루면 스각을 도니까 이게.

@1 예, 아까 삼춘 말 곤던 중에 설메렌 헨게마는, 설메는 뭘우파?

#2 설메? 설메가 뭘?

#1 설메, 처음 집 짓젠 허민 설메 허지 아녀마썸? 그거 영 저 설메 저 지둥 썸곡.

#2 설메.

@1 아까 내가 잘못 들어신가? 게문 서리 허는 거는.

#3 서린 위에다 놓는 거.

#2 서린 위에게. 지붕 위에. 게민 이게 방 \*\*이라. 이디가 이제 푯지둥이 사 거든. 이디도 푯지둥 사고 이디도 푯지둥 사민. 경허민 또 위에도 가민 이 푯지둥을 받아주는 위에 천장이 위에 거 뭘, 중므루엔 허는가?

@1 중므루.

#2 뭇이엔 허는고?

#3 중므루, 상므루.

#2 게난 그걸 바타주는 것이 푯지둥이 뒤는 거주게게.

@1 게난 푯지둥허민 위에 허는 것이 중므루.

#2 어 그건 중므를.



@1 가운데 건 상머루.  
 #2 가운데 건 상동.  
 @1 예 가운데 상머루. 그렇게 행은에 이제 하는 거고, 중머루, 중머룬 몇 개  
 웹니까?  
 #2 중머룬, 하나, 두 개주게.  
 @1 양쪽. 앞뒤로예.  
 #2 앞뒤로 두 개.  
 @1 그다음 지붕 이렇게 가면 그거는.  
 #2 겐 그다음에는 그 꽃지등 예염이에 개워. 개워 앞에 지등이 설 거 아니  
 라. 지등을 양쪽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허민 그디 저 도리가 있어.  
 @1 도리, 예.  
 #2 도리가 있어. 양편 지등을 \*\*농구아주젠 허민.  
 @1 개워지등 연결 넘어지지 못하게 받치는 것이 도리구나.  
 #2 게난 그놈의 도리가 어디??지 가느냐 허면 부엌 쪽에도 가고.  
 @1 예.  
 #2 이쪽 구들 쪽에도 오고.  
 @1 음, 게난 이 낭들도 다 이름이 특난 거라예.  
 #2 다 이름이 특난 거주. 우리가 목수가 아니라부니까 모르지. 목수쯤이면  
 다 알주게.  
 @1 삼춘 잘 알암신게마썸.  
 #2 아이고 물론 게 한한.  
 @1 예. 그처럼 이제 하고, 우리 낭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까 꽃지등. 개워  
 지등.  
 #2 개워지등.  
 @1 개워, 아까 다음에.  
 #2 중머루, 상머루.  
 @1 중머루, 상머루.  
 #4 서리.  
 @1 서리, 도리.  
 #2 도리.  
 @1 예, 도리 이렇게 하고.  
 #2 굿도리엔 허주게.  
 @1 굿도리엔 험니까?  
 #2 굿도리엔 허여. 굿도리는 서리를 받아주기 위한 거라. 굿도리는.

@1 아, 제일 밖에 나온 거예.  
 #2 밖에 나온 서리를 이 나무를 아이 짚아주면 이게 늘어진 거 올라간 거  
 혈 거주기에. 게난 이 굿도리를 놔주는 거라. 이거 서리를 일직허게.  
 @1 게니까 서리가 이렇게 할려고 하면, 맨 바깥에 잇는 게 굿도리구나예.  
 #2 맨 바깥디 양쪽으로, 맨 바깥디 잇는 게 굿도리.  
 @1 굿도린 두 개? 네 개?  
 #2 네 개가 돼야주. \*\*점으로 다 이실 거난.  
 @1 예. 예. 이거는 네 개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추년서  
 리.  
 #2 추년?  
 @1 예.  
 #2 추년서리엔 현 건. 요기 상도 이실 거 아니라.  
 @1 예.  
 #2 여기 상도 이시면은 요렇게.  
 @1 여기가 상무루 될 거우파?  
 #4 상무루.  
 @1 이게 상무루라예.  
 #2 상무를더레 이기 동즈 또 세와줘. 이게 노프게 동즈 세와주메. 양편이 포  
 예.  
 @1 예, 동즈.  
 #2 동즈라고 헤여.  
 @1 아, 동즈.  
 #2 동즈, 동즈라.  
 @1 아, 동자. 아, 예.  
 #2 게난 옴로 요렇게 하고 옴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뉘거든.  
 @1 예.  
 #2 게난 이 놈으 집이 요렇게 뉘다는 거라. 이쪽으로 돌리고 요쪽으로 허민.  
 @1 예.  
 #2 물매가 뉘다는 거주게. 물매가.  
 @1 물매.  
 #2 게난. 요게 추년.  
 @1 예.  
 #2 요것도 추년. 이것도 추년.  
 @1 게난 이 추년이 잇어야 집이 물매가.

#2 아. 그래 그렇지. 계난 이 상방이민 거저 서리가 뛴는다, 이쪽더레 오민 굴른 낭을 놔줄 수가 셔. 너미 남이 약해 뛴면은.

@1 계민 그때는 무슨. 굴른 나무는 무신거렌 헤여?

#2 건 뭇 낭이엔 헌 걸 모르크라, 거. 뭇 낭은 놔 확실히 놔.

#3 보조. 움직이지 못허게.

@1 그걸 그냥.

#4 그 앞에 문쳐 헌 낭이 좀 약해 뛴니까 보조.

#2 예. 예. 보조. 보조해주는 겁주게.

@1 그런 이름은.

#2 반환주는 게 없어놓니까 약하다는 거지게.

#4 약하니까 그 옆에 보조로 받아주는 거.

@2 혹시 삼방낭이라고 못들어봐수과?

#2 음?

@2 삼방낭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마썸?

#2 함박? 삼박?

@1 삼방낭.

#2 삼박?

@2 삼방낭.

#2 삼방낭. 그런 말은 못 들어봤는데 우리는.

@1 예. 어쨌든 그렇게 큰 낭들은 헐 거고예. 그다음에 그 다 포도 걸고, 서리도 걸고 다 허면, 그다음엔 안에 집들도 공간들도 만들어야 뛴 거 아니예.

#2 계난 그 토기게.

@1 토기. 토기 헐 때 어떤 식으로 허는 거 곱아줍서. 토기허젠 허민 아까 그.

#2 토기는 아까 곧단 놔둔, 족대, 족대허고, 또 나무도 좀 미려운 거 시민 쓰고, 게서 스끼 끈 걸로 헤서. 여기 옛날엔 이제 산디찍이 잇엇어. 걸로 노 꼬아서, 걸로 헤근에 요 정도 고망 나게.

#4 요 식으로, 요 식으로 여겨 가는 거주.

@1 예.

#2 경해서 이쪽으로도 사람 허나 사고, 저쪽으로도 사람 허나 사서 양쪽으로 흑 편 것을 7찌 맞손질을 허여. 그레 사민 한쪽으로도만 불량 놔두민 혼쪽으로 밀어가면은 또 떨어져부니까.

@1 예. 그게 벽 허는 거 아니라예?

#2 예, 예, 예. 백이주.

@1 백이라 그게예. 그걸 여기는 토기렌 험구나예.

#2 예, 토기.

@1 예. 그다음에 아까 서리 올린덴 허면. 지붕 허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 우짜?

#4 서슬.

#2 서슬, 서슬.

@1 서슬은 뭘로 헤수과?

#2 게난 집도 예, 잘 허는 집은 남을 깨어서, 요만한 낭을 깨어서 쪽쪽 낄 아. 낄앙 슝기를 으파났어, 그다음에 보릿대 허고 흑 편 것을 낄서, 고데라고 해요, 것이.

@1 예, 고데.

#2 고데라고 해서 싸악허게 집을, 집 전체를 고데 올려요. 그렇게 허면은 화 패(?)를 만나도 재목이 아니 상한다고 해서. 게서 싹 그순새가 가면은 싹 쓸고 다시 새로 일수가 있다. 이렇게 헤낫젠 합니다.

@1 게민 여기는 옛날도 고데흑을 하영 올려수과?

#4 올렸주게.

#2 예. 아 우리 저 스투트집덜도 그 고데 올려수게. 너무 뜨겁다고 해서.

@1 뜨겁다고 헨예. 게난, 그 고데 허젠 허면은 무슨 흑으로 쓴 거우짜? 아 까 그 \*\*천화?

#2 아니, 서리레 서리광 서리 사이에 요렇게 슝기를 맵니다.

@1 예.

#2 슝기를 메서 서슬을 요렇게 눕니다. 그 새끼를 여꺼요.

@1 으음.

#4 경허영 그 우의 흑을.

#2 그 우의 흑을 딱 깔아놓으면 춤 완고허주게.

@1 예. 게민 그 저기 서리 허젠 허면 그 아니, 서슬 허젠 허면 무신 낭으로 헨마씨, 서슬?

#2 아니, 옛날 집들은 멘딱 곳낭이주.

@1 무신 낭마씨?

#2 곳낭, 곳낭.

@1 곳낭이렌 험니까?

#2 어, 산나무란 말이주.

@1 고지에 강 헤온 거.

#2 그걸 도치로 깨곡 자귀로 깨어서 싹 깔아놓고 그 흑을 부르민 춤 집매도

좋아.

@1 으음. 집매 좋아예.

#3 그다음에 짓는 거니까.

@1 게문 삼촌, 다른 데는 가면 이 서슬허는 거를 족대로 허는 데도 잇덴마 씨?

#2 아, 족대도 싣주게.

#4 족대로 허는 디도 잇고, 나무로 허는 디 잇고.

#2 족대도. 족대는 이 저 구들 천장.

@1 예.

#2 구들 천장은 족대를 쓰면은 안으로 안백 해도, 저 티가 엇어. 문짝허영 종일 불라도 붙이기가 좋고.

@1 예.

#2 그렇게 해서 저 어디 저 툐 대청마루 위에나 부엌 우에덜은 나무로 다.

@1 그냥 일반 나무로 하고예?

#2 예.

@1 예에.

#2 부엌은 대로 여꺼났어요.

@1 으음. 그다음에 그 안으로 현 거. 아까 안백 현덴 험니까?

#2 안백.

@1 아, 다른 동네에서 양토히는 걸 안백이렌 허는구나. 여기서는.

#2 안백.

@1 위에서 저기 더프는 거는 고데.

#2 예, 고데.

@1 고데예. 경허문 고데를 다헌 다음에 집을 이는 거. 그다음에 뭘 놔마씨? 고데 다헌 다음에.

#2 고데 허영은앵에 집 일거든,

@1 예.

#2 일면 안백은 맨 냉중.

@1 안백은 맨 냉중.

#2 맨 냉중. 알로 불르는 거난게.

@1 예. 게문 삼촌예. 고데 다 올려.

#3 그다음은 새로 허영.

@1 그다음은 새로 허는 거, 그신새로 허는 거? 그다음 올리는 거. 아까 삼촌 저 뭇로도 현덴 헛잖아. 소냥 그것도 헛덴 헛잖아.

#2 뭐?

@1 소낭, 소낭, 솔입.

#2 솔입은 서슬을 못 흘 경우.

@1 으음.

#2 서슬 흘 나무가 없어서 흘 때는 솔입을 그자 더껴서.

@1 서슬 대리로.

#2 고데도 못 올리고.

@1 예.

#2 사름만 떨어지지 말게 헤영 집을 일엇주게.

### 집 일기

@1 고데 행은에 집 일 때 얘기 곱아줍서.

#2 집 일 때게 고데헌 위의 집이는 거사, 춤 조그만 사람은 다 일엇주기에.  
집매가 다 나타남 이시난.

@1 예. 게문 집 허난 아까 삼간집 허젠 허면 새는 멧 못이나 들어가마씨?

#1 네 무더기. 헨 네 무더기.

#2 삼관집이도 아메도 헨, 헨 스십 못 내지 오십 못, 오십 못 들어.

#1 헨 마흔 못, 마흔 못.

#2 마흔 못에서 오십 경 들 게라.

@1 이 동네는 저 헨 바리가 새 멧 못이우파?

#2 헨 바리 허젠 허문 옷 못을 헨 바리로 허여.

@1 아, 여긴 옷 못을.

#2 헨 도름이 헨나씩. 헨 쪽에 세 도름이난에.

@1 예.

#2 으섯 도름이 뉘주게. 게민 옷 못.

#3 각단도 마찬가지로.

@1 삼춘, 도름은 뭐우과? 헨 도름 허는데.

#2 헨 도름?

@1 예.

#2 헨 도름? 거 몰르큰게.

@1 아까.

#3 요기선 도름이엔 안 헨 건디.

@1 아까 헨 도름, 쉼 헨 쪽에 세 도름씩이렌.

#2 아아, 거 헨 못을 경 곱으는 말.

@1 혼 뭇을 여기서는 혼 도름이렌.  
 # 어어, 혼 무꿈.  
 @1 여기서는 혼 도름이엔도 허는구나예.  
 #4 어어, 혼 두름. 혼 뭇, 혼 무꿈.  
 @1 예. 알아수다. 게문 그 세 뭇을 저기 혼 바리 허는구나예?  
 #2 어, 윗 뭇이 혼 바리.  
 @1 윗 뭇, 윗 뭇이 혼 도리. 혼 바리.  
 #2 혼 바리.  
 @1 게문 출은 뭇 뭇이 혼 바리 여긴?  
 #2 출, 육십 뭇이 혼 바리.  
 @1 출뭇이 요만씩이네.  
 #2 거 족지게.  
 #4 작아, 작으니까.  
 @1 예, 아.  
 #2 게난 혼 도름에 열 뭇씩이라.  
 @1 혼 도름이 열 뭇 뒤는 거예. 출은.  
 #2 열 뭇을 해서 딱 보달쳐. 보달쳐놓으면은 혼 뭇씩 앓앙 영 허는 것보다  
 는 혼꺼번에 허날 갖다다 놓으면이 으섯 번만 갖다다 놓으면 혼 바리가 헤지  
 주게.  
 @1 예, 게난 혼 도름에 열 뭇을예.  
 #2 예, 딱 보달쳐놔근예.  
 @1 보달쳐은예. 아아, 게난 그 옛날 솔입, 여기서도 솔입 굽으레 뎡겨놔수과?  
 #2 솔입 굽으레 뎡겨주게.  
 @1 솔입만 보달치는 게 아니라 이거 허는 것도 보달친덴 곱암수다예?  
 #2 어어.  
 @1 게난 다른 거 영 무끄는 거를 보달친덴 허여마씨?  
 #2 어어, 무끄는 걸 보달치는 거라고.  
 @1 아아, 무끄는 거를예. 소낭 7튼 것도 보달침덴 헤여?  
 #2 어, 어.  
 @1 예, 알앗수다. 게난 그추룩행은예 이제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마흔 뭇  
 예, 게난 이만큼 혼 게 마흔 뭇 들어가는 거?  
 #2 마흔 뭇 내지 쉰 뭇.  
 @1 마흔 뭇 내지 쉰 뭇.  
 #2 쉰 뭇.

@1 그, 그러면 그 저기 할 때는 어육으로는 안 헨마씨?  
 #2 으응?  
 @1 지붕일 때 어육은 안 쓰난?  
 #2 어육은 안 써.  
 @1 아아.  
 #3 고데 우이나 허지, 그 우에는 새로.  
 @1 어떤 딴 안에 어육으로 일어나근엥에 헨덴 헙디다.  
 #2 아니, 어육으로 처음에 일 때는 켜차녀.  
 @1 초불 일 때.  
 #3 응, 초불 일 때는 그.  
 #2 그게 대 힘이 시난에, 그 어육대 힘이 시난에 좋주기게. 사람 텅김도.  
 @1 계난 일반적으로는 다 새로만 허여?  
 #2 어, 새로만.  
 @1 아. 새로 허곡예.  
 #2 계난 집, 묵은 집 잇이민, 뜸으민 그신새 잇이민 먼지 털면서 무껍 놔뒀  
 다가 그걸로 초불을 일고.  
 #3 처음 일어난 그냥 일고.  
 @1 아, 그신새로도 초불 일어예?  
 #2 예, 초불을 일어.  
 @1 예, 그렇게 해근에 일면, 줄 메얄 거 아니우파?  
 #2 줄도 메야주게.  
 @1 줄은 어떤 식으로 저기, 줄 비는 거.  
 #2 아까게 이 휘롱이로.  
 @1 예.  
 #1 줄 놔근엥에.  
 #2 줄을 놔근에.  
 #3 새에서 작은 것이 각단이엔 허연 그걸로 줄을 낮주게.  
 @1 각단으로 줄 낮어예.  
 #2 각단. 새 못 된 거, 새보다 즈른 거.  
 @1 게믄 삼춘예, 아까 새는 옷 못이 헨 바리면 각단은 멧 못이 헨 바리우  
 파?  
 #3 각단도 마찬가지로.  
 #2 각단은 크게 무껍 옷 못이 헨 바리.  
 @1 옷 못이 헨 바리.



#3 계난 무끄는 게 좀 트나. 그 각단헝곡 새허고는.  
 @1 예.  
 #3 새는 그대로 이렇게 무꺼지는데 그 각단은 막 그 이렇게 놔야 된다고.  
 #2 그 양쪽으로 놔야.  
 #3 무끄는 게 트나.  
 @1 경허고, 아까 말 중에 삼춘 새 집 일젠 허면.  
 #2 응?  
 @1 집 일젠 허면 새가 익어야 될 거 아니우파예?  
 #1, #2 익어야주.  
 @1 그걸 황모렌 허더라. 황모.  
 #2 황모.  
 @1 예, 건 무신 말이우파?  
 #2 누린새엔 말이주게.  
 @1 예.  
 #2 띠 모 제라 거. 황모라고 누린 띠. 띠 모 제.  
 @1 예.  
 #2 띠 모 제주게.  
 @1 계난 옛날도 새를 가을에 익을 때 황모로 비어당 허는 거잖아예?  
 #2 어.  
 @1 게문 여기서는 청새를 뭍렌 험니까?  
 #2 무신거?  
 @1 파란 거를.  
 #4 청새.  
 #2 응. 청새, 청새론 안 일어. 집 이는 건.  
 @1 청새는 용도가 뭐우파?  
 #2 청새로 허는 거 옛날 초석 짤 때, 띠자리라고 해서 그 새로 짤 거.  
 @1 예, 띠자리.  
 #2 띠자리. 그거 청새로 허여.  
 @1 예. 계난 이 상가도 띠자리도 멘들어났수과?  
 #2 띠자리 상가서 많이 문들앗주. 거 그 클 해근에 침 돌리멍덜 헛주게. 거 계로 해났어.  
 @1 것도 계로 허고예. 아까 그.  
 #2 나도 그거 질러 봤는다.  
 @1 아.

#2 영 뭐 저 저, 예, 죽대 좋은 거 해근에 요기 거슴 돋쟁, 요걸 해당 요 공장이레 툯 걸영 콧 찢르민 착 빼어져. 대를 빼어 불민 착 허게 그걸 보디라고 흘 건가? 저거.

@1 예, 보디.

#2 예, 그걸로 탁탁 두드리곡.

@1 음, 게난 여기 초석클도 있어났구나?

#2 예, 초석클도 잇었어. 띠자리. 초석. 저 왕골초석도 그 모양으로 흰 거주게.

@1 응.

#2 왕골초석. 왕골초석은 저 열리서도 나오라났어.

@1 예, 열리 저기에. 예, 게난 여기는.

#2 뒤자리.

@1 뒤자리렌 허여.

#2 어, 거 새로 흰 건 뒤자리주, 뒤자리.

@1 뒤자리. 예예, 웨냐하면 새로 헛덴 헛디다게예. 게난 건 청새 비어당 허고.

#2 청새 비어당 건 허여.

@1 그다음에 이제.

#2 이제랑 그만허주게.

@1 아니, 이거 이거 봅서. 이만큼 이수게.

(웃음)

### 줄 비고 줄 놓기

@1 삼춘, 아까 줄 놓는 거.

#2 어?

@1 줄 놓젠 허면, 줄 멘들젠 허면 집줄 멘들젠 허민 멧 명이 있어야 헛니까?

#2 흰 구지가 휘롱이 둘, 어울리는 기계 하나.

@1 응.

#2 게민 사름이 하나, 둘, 셋, 넷. 어울리는 사람허면은 다섯 사람이 흰 구지가 뒹갯네.

#1, #3, #4 넷, 네 사름. 네, 네 사름.

@1 네 사름.

#2 아, 어울리는 사람이랑 그때 그 사람허곡.

@1 아까, 구지? 구지는 뭐우짜? 모르는 말만 막 씬수다. 헨 구지.  
 #2 어어, 헨 구지?  
 #4 줄 놓는 거 헨 구지. 구지 이런 건 네 사름이.  
 #2 아이고 구지엔 헨 건 네 사름이 헨.  
 @1 헨 조 허는.  
 #2 동아리가 뉘어야 줄을 놓고 어울리곡 흘 수가 있다 이 말해주게.  
 @1 게문, 아까 줄 놓는 거는 각단으로 헨덴 헤낫지예.  
 #2 어어, 각단.  
 @1 게문 이렇게 이렇게 허는 건 빈덴 헵니까?  
 #2 빈덴 곶아.  
 @1 줄 빈덴예.  
 #2 줄 비는 거.  
 @1 줄 비는 사람은 멧 사람이 빡니까?  
 #2 두 사름.  
 @1 헨 사름은 영 줄 각단 영 놔주는 사람은 뉘렌 허여?  
 #2 것도 두 사름.  
 #3 둘이 흐민 두 사름 혼자만 흐민 헨 사름, 경 흘 거주게.  
 #2 게난 두 사름 흐민 한걸허고 헨 사람은 바빠.  
 @1 헨 사름 허민 바쁘고예. 아, 거난 줄 논덴 헵니까, 줄 맥인덴 헵니까?  
 #1, #4 줄 놓는 거.  
 #2 줄 논덴 흐주.  
 @1 줄 놓는 거. 각단 영 맥여주는 거라예.  
 #2 맥여주는 거.  
 @1 그다음에 휘롱이로 해서 이렇게 돌려 가는 사름은 비는 거.  
 #2 건 둘.  
 #4 줄 비는 거.  
 @1 줄 비는 거.  
 #3 비는 사름.  
 @1 그다음 두 개를.  
 #2 두 사름 비곡 두 사름이 논 걸 이 펜이 앓은 사름이 이걸 영 부찌.  
 @1 예, 부찌.  
 #2 부찌 이디 톡 놔두곡, 놔두곡 허민.  
 #4 뉘싸갈 댐 어울려.  
 #2 어느 정도 이제 멘딱 뉘다 흐민 이젠 뉘치는 걸 갖다가 헨 사름은 뉘치

고 현 사람을 어울리고 두 사람은 비곡. 계민 네 사람이 현 구지가 된다.

@1 예, 네 사람이 예. 삼촌, 계문에 이 휘룡이 말고 뒤치는 거 흘 때 거기 영 안저근영에 영 돌리는 거 잊지 안허우파? 건 일름 뉘렌 험니까?

#2 건, 뒤치는 거엔만 헛지.

@1 뒤치는 거.

#2 계난 그거 7레착에도 그거 박아근에 허곡, 그자 땅에도 박양도 허곡.

@1 땅에 박양도 허곡.

#3 줄을 영 비는 건 호룽이렌 허곡.

#4 호룽이 건.

@1 예 호룽이 휘룡이 두 가지.

#3 나무로 만들앙 발로 영 영 허는 디도 있고 동촌에 가민 대나무에 꿰어 7정 이렇게 허는 디도 있고.

@1 예, 여기는 어떤 식으로 험니까?

#2 여긴 이만이 진 거.

#3 질게 만들엿은엿에.

#2 진 거 행 꾀엿 다니명.

#4 밀리명 나강은엿에.

@1 아아.

#2 계난 풀이 두루 아파. 요영 들러두서 허는 거는 풀이 좀 아파.

#3 대통 현 건 풀 아파.

@1 대통 허는 거. 여기는 낭으로 이렇게 현 거예, 계난 그것도 휘룡이렌 험니까?

#2 어, 휘룡, 휘룡이.

@1 긴 거 이런 말 안 허고예. 계난 지역에 따라랑 이것도. 그 휘룡이 집에 보 관허는 집, 엿인가?

#2, #3, #4 엿을 거라.

@1 우리 그 할머니네 집은 이실지 모르켜. 아까 그 할머니네 집.

#2 그디나 흑시.

#4 엿일 거라. (웃음)

#3 흑시 그 하르방 줄 놔나난.

@1 경 허니까. 아니 웨냐하면 저쪽 대정엔 가난에 휘룡이가 발 이신 겁디다 게. 여기도 그런 발 놓는 거.

#2 어어, 진 걸로.

@1 동쪽 가면 대로.

#2 어어, 대로. 혼 막작 혼영 영 돌르는 거.

@1 예, 여긴 그 족은 건 안 썰구나?

#2 예, 족은 건 안 써.

### 집줄

@1 예, 게문 그 줄은 몇 개나 됩니까? 진줄하고 쯤줄.

#3 육십 몇 개엔 허지 안헛수과?

#4 육십 개.

#2 삼관집 줄허곡 스관집 줄이 틀릴 거난.

@1 예, 삼관집을 허젠 허민.

#4 육십 개, 서른 개, 진줄이 서른 개, 서른 개, 마흔 개.

#2 그거 잘 모르큰게.

#4 서른 개, 마흔 개.

#2 쯤줄은 마흔.

#1 응, 경 뿔 거라.

#4 또 이 쯤 거 혼 쉰 어, 쉰, 육십 개, 쉰 개, 육십 개.

@1 게나저나 그 집을 하나 이제 삼관집 허젠 허면 각단은 멧 못이나 들어마  
씨? 그 줄 놓젠 허면.

#4 멧 단이렌 헤낫저마는.

#2 건 시 바리 들엄신가?

@1 시 바리.

#1 잇어 불언 뉘.

@1 맞수다게, 잇어 불 겨우다게.

#2 시 바리 들엇지.

@1 진줄은 멧 발이우파?

#2 진줄은 스관집은 열두 발.

@1 예.

#2 삼관집은 혼 아홉 발인가 원.

@1 쯤줄은?

#2 예?

@1 쯤줄은?

#2 쯤줄은 거 열메 아니 들 건디. 쯤라, 쯤줄은 ㄱ르 메는 거난.

@1 예예. ㄱ르 메고. 진줄은?

#2 그건 뉘 생각헛 세어보질 잘 안 헤진 거 닻고.

## 집 구조

@1 계난 잘 생각헿 놔둬야 돼는다. 거난 보통 헿 집에 구들은 멧 개, 삼춘?

#2 진줄?

#3 아니 구들, 구들.

@1 아니 방, 이젠 방안 좀 꾸며보젠. 구들.

#3 구들.

#2 구들? 삼관집에 구들 헿나, 둘.

#4 헿나, 둘, 삼관집엔 두 개.

#3 아이, 이 저 족은구들도.

#4 삼관집은 두 개, 스관집은 세 개.

#2 두 개, 아이 그냥 두 개만 허영 내불주게.

@1 (웃음) 두 개만 헿.

#2 두 개 좋아게.

@1 예, 두 개.

#2 아이, 경허고 세 개엔 헿자 족은구들은 침 벤벤치 안 허여.

#4 정지로 들어간 디.

@1 예, 삼춘 여기는.

#3 스관집에는 구들이 크게 두 개곡.

@1 헿 사름씩 곶아줍서예. 헿 사름. 삼춘 그다음에 여기는 정제는 정지에?

#2 전기?

@1 정지, 정지, 부역.

#2 부역?

@1 부역은 뜰로 멘들지 안헿수과?

#2 부역엔 공그리도 아니허곡 흑부역이렌 헿주.

@1 계난 흑부역인디 따른 외채로 멘들진 안헿? 하나에 삼관집 거기에만 만 들안? 구석에.

#2 어어.

@1 뜰부역은 안 허는구나예? 뜰정지.

#2 어, 뜰부역은 엇어.

@1 여기는 엇고예, 예, 그다음에 이렇게 방에 이렇게 있으면 이불 개어 놓 는디는 뭐렌 곶앗수과?

#4 백장.

#2 으? 백장, 백장.

@1 백장, 계난 옛날도 그 백장 허게 됬민 그 밑에가 굴묵 웰 거 아니라예.

#2 굴묵.

@1 굴묵 뒤는 거고예, 그다음 시렁이엔 현 것도 이수과, 이 동네. 시렁이런 들어봅디가? 시렁.

#2 시렁.

@1 시렁, 시렁, 나무 영 행 뭉 올령, 옛날에 무사 대청마루에.

#4 선반, 선반.

#3 우이 영 놓는 거.

#2 아, 이 천장에 그디 뭉 젓상, 병풍 그런 거 놔난 디가 셔났어.

@1 예, 그런 거기?란 뭉런 굴아?

#2 거 몰르커라.

#4 선반게.

@1 그냥 선반?

#4 선반.

#2 선반.

#1 아, 선반. 선반.

@1 아, 선반, 선반 메영예. 그 궤도 올려놓고 저기 백장에.

#2 백장엔 궤.

@1 예, 보통 궤 멧 개 올려놓게 만들엇수과?

#2 두 개는 놓주게. 백장 하나에 궤 둘은 낫어.

@1 예예, 거기 이불도 올려놓고, 그다음 보통 이불들은 어디 개어 놔마씨?

#2 이불?

@1 예.

#2 이불은 궤 우트리레 낫주게.

@1 궤 우트리레 놓는 거고예.

#3 백장에.

@1 우리 영 구들이 잇이므예 그 불 들어오는 쪽은 뭉런 험니까? 여기. 영 불허민 딱시민 어디레 왕 앓이라, 추운날 겨울날.

#2 부역?

@1 아니, 아니. 방에 안쪽에 뭉런 헤? 방이 잇이면 삼춘이 앓은 이런 방을 뭉런?

#4 어귀.

#2 아아, 이 저 화덕 불 들어오는?

@1 안자리.

#4 옛날 굴묵짚는 디 이디, 이디?라 안자리렌 험니까?

#2 안자리주게.  
 @1 안자리, 밧자리, 안자리가 딱신 거예?  
 #2 딱슨 거.  
 @1 으, 그렇게.  
 #2 바로 굴목 딱슨 딴 장판이 누렁케 카.  
 @1 예, 맞수다. 그다음엔 여기 마리, 아까 대청마리 헐 때는 여기 무신 걸로 마리 낱?  
 #2 마리, 춤낭.  
 @1 춤낭으로.  
 #2 춤낭으로 낱. 옛날, 옛날은 제주에 사름이 하영 안 산 생인?라. 그 널을 멘딱 세감으로 깨엇젠 곶아.  
 @1 췌감으로예?  
 #2 췌감으로 깨어서. 큰 췌감, 족은 췌감. 췌감을 서너 개 낱, 그뭇 내와 낱, 족은 췌역 박앙, 또 그다음 큰 췌역 낱, 그다음 또 세 번차는 스뭇 영 솔친 거 놓민 짹짹 나갓덴 허여.  
 @1 어, 삼춘 아까 두 가지로 곶아서예, 췌감이렌도 곶고 췌역이렌도 곶안.  
 #2 췌역?  
 #4 췌역이렌도 허곡 췌감이렌도 허곡.  
 #2 췌역이렌도 허고 췌감이렌도 허주게.  
 @1 게난 그 췌감은 무시 걸로 멘듭니까? 보통.  
 #2 건 나무로.  
 @1 나무로 허여, 돌 깰 때도 그 나무로 헉니까?  
 #2 어어, 낭으로.  
 #3 돌은 돌 깨는 건 췌로 허고.  
 @1 췌로 허고.  
 #4 췌.  
 @1 그럼 췌감 자체가 이렇게 헤근에 만들어진 게 잇구나예?  
 #3 만들어.  
 @1 만들영은영에.  
 #2 이 저 췌췌역은 나무로 저 불 떨어 때는 췌췌역을 문들아서.  
 @1 아, 췌췌역을 멘들고예, 예. 그냥 일반.  
 #2 불미황에 가서 문들아근에 그걸로 툽툽 두드리민은 짹짹 나가.  
 @1 예, 췌췌역도 만들곡 게문 남세역은.  
 #2 남세역은 옛날 말은 널을 오려내는 거주게.



@1 예, 게문.

#2 것?라 동귀쇄역? 무신 무신 쇠역이런 곶아 거. 막 솔친 거.

@1 동귀쇄역.

#2 동귀쇄역이엔 허는가? 동귀쇄역.

@1 응, 아무튼 그건 딱로 튼내보고예. 마라도 보면 옛날에는 긴 마리가 아니라. 요렇게 널마리들.

#2 족계계. 경해야 쩌기가 좋주게.

@1 예, 그런 마리는 무신 마리 험니까?

#2 어?

@1 그런 마리는 무신 마리엔 허여?

#2 마리엔만 허주 뵈이엔 허여.

@1 다른 말은 안 허고?

#2 다른 말이 엇어.

@1 우린 널마리 헤낫수다.

#2 응, 널마리 허고 이 저 귀클 훈 세 개, 네 개쯤 놓아근에.

## 마리

@1 응, 요렇게 네 개, 마리 허젠 허면 옛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마리 잇 어신디예, 이렇게 허민 귀클들 놓고 그다음 이쪽에도 이렇게 영행 뉘지 안험니까? 마리.

#2 응.

@1 이걸 뉘우꽂 이거?

#2 마리귀클게.

@1 마리귀클, 요 사이도 것도 마리귀클이고 이것도 귀클이엔 허여?

#2 마리귀클게.

@1 이게 마리귀클이잖아예?

#2 게난 낭이, 낭이 \*\*이중도린게.

@1 이 낭은 뉘렌 헤? 여기 영.

#2 게난, 이거 요 귀클 지금.

@1 연결뉘 거?

#2 옛날 집은 귀클을 저.

#3 옛날 마리는 이렇게 귀클을 이렇게 세워 놓믄.

@1 예.

#3 이거 새로 허영 이레가 다 이 물렸다고 나무를.

@1 물령은앵에.

#3 어, 그 나무가 들어가게 허영.

@1 예예.

#3 경허니까 이것은 넓은 냥, 넓은 것을 쪽 이렇게 놓으면 양쪽으로 마리  
족은 건.

@1 다 연결돼게시리.

#3 다 연결돼게.

@1 으, 보통 냥 허게 돼민 멧 개 들어, 그 널이.

#2 아이고, 멧 개 들 처렌지.

#4 넓은 것은.

#2 남은 넓이에도 메고.

@1 넓이에 따라예.

#2 넓이에 따라.

@1 예, 맞수다.

#4 족은 것도 있고.

@1 아까 삼춘, 마리아, 이렇게 널 냥 마리 놔근에 마리 놓는 데도 있고 흑  
만 해갖고 헌 디도 잇덴 허멍?

#2 흑마리는 돈 엇은 사름게.

@1 그걸 흑마리엔 험니까?

#2 흑마리게, 저 자갈들이 그 우이 흑을 짚앙 몬트글랑하게 행은앵에.

@1 게문 높이가 게문.

#2 높이가 마루 높이가 돼어 가주게.

@1 아아, 비어 잇지 았고 흑마리를, 이 동네도 그런 사람들 잇구나?

#2 어어, 흑마리. 돈 엇인 사름은 흑마리를 헛주기게.

## 화리

@1 예예, 게문 그 저 구들 높이까지 해갖고 똑?트게예, 흑마리에.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 산동네니까 부섭이렌 헌 것도 해낫수과? 화리, 저기 겨울에 노  
허고 영혈 때 화리, 돌로 만든.

#4 돌화리.

#2 화로, 화로 셔낫어.

@1 거 마리에 박은 것도 잇어낫수과?

#2 마리에 박은 건 우린 보진 못헤연.

@1 아, 여기엔 안 허고예, 그다음 돌화리 좀.

#2 돌화리가 둥그런 것도 있고, 요렇게 좀 소롱한 것도 있고. 소롱한 것은 적을 굽나헤여.

@1 아아, 소롱한 건예.

#2 적고지가 딱 맞아. 그레 썬 걸쳐 놔근에 적을 썬 걸 그디서 \*\*간데기 낫젠 허여. 소곰 블라근에 구우민 구운 적이 뒤텔주게.

@1 경헝 돌화리에예? 동고랑헌 거는?

#2 동고랑헌 건, 그자 불 담아 낡, 그자 추우민 마루방에 하나 놓으민 걸로 그자 곳.

@1 아아.

#2 담뱃대도 재도 털어놓곡.

@1 게난 화리가 이렇게 네모난 것만이 아니고.

#2 동고랑헌 것도 싶주게.

@1 동고랑헌 것도 잇구나예, 게난 우리 저쪽 부섭을 여기는 이런 식으로 헛네. 게난 이렇게 마루에 영 톨랑 박지는 안허고예?

#2 예, 예.

@1 게문 그 동글랑헌 거는 정지에도 가져강은에 쓰켜예?

#2 예. 저 아무디도 이녁 믿음대로 들렁뎅기주게, 건.

@1 건 요만큼 큰 거예.

#2 예, 들러 다녀.

## 정지

@1 예,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부억은 아까처럼 돌 깔거나 이러진 안허잖아예. 게문 정제는 마루보다는 낮지예?

#2 야트지.

@1 야튼 거예. 음, 야트구나. 그러면 옛날 부억에는 솟덕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앉져수과? 솟덕. 부억, 옛날 정지에는 뭐 뭐 잇어낫수과?

#4 솟 앞지는 거?

@1 예.

#2 걸 뭐 집 구조에 메어근예.

@1 예.

#2 헛난예, 그걸 딱 어디 지정이 안 뵈 거라.

#4 남쪽에도 돌리고 영 동쪽에도 돌리곡.

#2 게난 대부분, 이 솟 앞이 남더레 돌아가게끔, 동더레 돌아가게끔 그렇게 많이 구조를 헛더라 이겨주게.

@1 아, 솟 앞이에, 계난 불 때는 거기가 남쪽이나 동쪽.  
 #2 예.  
 @1 건 무산고예?  
 #2 그건 아맹해도 거 좀 방위를 그렇게 본 모양이야, 그거.  
 @1 음.  
 #2 요즘은 뭐 뒸는 대로 착착덜 뭐.  
 #4 요즘도 앓지는 디가 이실 거라.  
 @1 계난 삼춘 솟 앞이라고 하면 저기 불체, 여기 불체렌 험니까, 여기 뭐렌 험니까?  
 #2 으응?  
 @1 재를 여기 뭐렌 험니까, 이 동네에서는.  
 #1 불치, 불치.  
 #4 불경.  
 @1 불경.  
 #2 불경.  
 @1 불경 나오는 디가 앞이우파, 아니면?  
 #2 아니 건 틀리지게.  
 @1 건 뒤에예. 계난 불 숨는 디.  
 #2 불 숨는 디가 앞이주게.  
 @1 불 숨는 디가 동쪽이나 남쪽.  
 #2 응.  
 @1 다른 쪽에 험 건 못 봐봤수가?  
 #2 잘 못 봐서. 요즘은 뒸는 대름 험난게.  
 @1 예. 요즘은 뒸는 대로 허곡예.  
 #4 우리 동네는 지형이 경 뒸니까 동쪽이나 남쪽이나, 우리 동넨 지형이 경 해놓니까, 대부분 이제 그 식으로 뒸난. 또 그건 그 타 부락에 가면은 그 지형이 뭐 지형대로.  
 #2 동카름은 거자 서향이우다.  
 @1 아, 동카름은예.  
 #4 또 집 앓는 것도 거 지형대로 헤가지고 작을 이제 뭐 남이든 북이든 이제 그, 그, 그 지형 보면서 이제 그 다 뭐험니까.

## 궐팡

@1 예, 경허고 여기 궐팡에는, 궐팡 용도는 뭐우파?

#2 귀팡이엔 흔 게 곳간.  
 #1 곳간 첨, 곳간이주게, 귀팡이.  
 @1 예 게문 쓸항도 놓고.  
 #4 쓸항.  
 #2 쓸항 놓고.  
 @1 으응.  
 #4 탁배기항도 놓고.  
 @1 탁배기항도 놓고.  
 #2 탁배기항도 놓고, 첨.  
 @1 (웃음) 삼춘, 술 좋아하시는구나.  
 (웃음)  
 @1 게문 그 옛날에 그 곳간에 창문 영 들었지예? 그 문은 안 돌아도 그건 뭇렌 돌아마씨?  
 #2 문을 들었주게, 옛날 다 돌아서, 문을. 창곰을 요만이 내서 좀 왁왁허니까, 옛날엔.  
 @1 앞에는 그 대문, 저기 낭문으로.  
 #2 예, 널문으로 허곡.  
 @1 널문으로 허고예, 귀팡문허곡. 예, 맞고 창곰으로 허고.  
 #4 창곰.  
 @1 창곰 막는 거는 뭇로 막았수과?  
 #2 돌로 막앙 내불주 뭇, 게 안허민 대부분 막지 안헤여. 내불어.  
 @1 고양이 글로 들어갈 거 아니?  
 #2 고양이 들어왔자 뭇 항그릇이난 꺾딱 엇주게.  
 @1 아, 항그릇이난예. 맞수다. 혹시 여기도 그 칠성도 모십니까?  
 #2 응?  
 @1 안칠성, 밧칠성 헤갓고 모셔?  
 #2 아니.  
 @1 그런 건 여기 엇수과?  
 #2 엇어, 엇어.  
 @1 아, 게문 식게 때도 뭇 저기 고팡신한테 이렇게 식게 때 뭇 제물 올리거나도 안헤여?  
 #2 그거 저 ○○넌 걸맹을 경 여러 밧디 허민 늘굽에도 허곡 어디 뒤에도 허곡. 올레레도 허곡 걸맹을 하영 흐는 디라고.  
 #3 그건 어 저 어린비 양씨덜 헌덴 헤낫는디 이젠 그걸 안 험더라고.

@1 아, 어린비는 또 그런 거 좀 허는구나.

#2 어린빈 허단 설러 불엇주게.

#3 설러 불언 허진 안험덴 험디다.

@1 예에.

#3 그 알녁거리 사는 하르방네 그디 제사할 때 보민.

#2 게메 늘이 헤낫주.

#3 올레레도 케우리고, 놀 눈 디고 가근에 꺾쳐가곡 헤낫주.

#2 아 게, 송눔을 그레.

#3 다섯 갠가 멧 개 만들아근에. 여하튼간 그런 거는.

@1 여기는 결명을 몇 군데 헤마씨?

#2 응?

@1 여기는 결명 멧 밧디 헤마씨?

#3 하나, 하나.

#2 결명 허나.

@1 어디, 지붕?

#2 지붕.

@1 지붕에 하나만. 게문 그 조왕에 이런 것도 엇어마씨?

#2 조왕도 엇고.

#3 아, 조왕엔 허여.

#1 조왕엔 헤야주.

@1 조왕은 문전 헤난 걸로.

#2 문전 헤난 거게. 거 여자가 알앙.

@1 허는 거예. 별도로 허지, 그 궤팡에 뭐 음식을 차려놓거나 이런 건 안허 고예?

#2, #4 그런 건.

#2 고평에 허는 것이 칠성을 위허는 거주게.

@1 예, 예, 그런 거 여기는 엇고예?

#2 아니허여. 아니허여.

**물팡, 솟**

@1 동쪽에는. 예, 그다음에 이제 정지 앞에는 물팡, 물팡은 멧 개 놓니까?

#2 물팡? 물구덕 놓고, 허벽에 물구덕 놔근에 그디 부리는 디주기게.

@1 예, 게문 허 군데?

#4 허나.

#2 험 군데.  
 @1 응, 허나. 그다음에 솟은 멧 개 걸어마씨?  
 #2 솟은 널르민 니 개도 걸곡.  
 @1 보통은 멧 개 걸엄수과?  
 #2 보통은 니 갠 걸엄서.  
 @1 네 개 걸어예. 게민 맨 앞에 큰솟은 뭐렌 험니까? 제일 큰 거. 솟 순서 대로 영 곧지예?  
 #2 게메, 큰 걸 안네 걸아야 흘 처린디 족은 걸 안네 걸어.  
 @1 아.  
 #4 다섯테기여, 서말 무신거여 곧는 게마는.  
 @1 서두테기여, 말치솟이여.  
 #3 두말떼기여.  
 @1 두말떼기여.  
 #2 어게. 두말떼기여, 서말떼기여 뭐 다두테기여.  
 @1 서말떼기는 뭐?  
 #2 무췌솟 이름덜이 하.  
 @1 예. 서두테기여예.  
 #2 게난 무췌솟을 췌서게, 요즘. 쓰지 안허난 내불민 그자 뭐 좃으레 덩기는 놈들 오꼳 ㄱ져가 불곡, ㄱ져가 불곡.  
 @1 삼춘네도 옛날에 그 정제에 살레 낭 써낫수과?  
 #2 살레 잇엇주게.  
 @1 예.  
 #2 부억에 살레가 잇엇어. 쳇방 예염이라고 험 디. 대 여깁 청결허다 허면은 그 대 여꾼 걸 ㄱ정 강 물에 강 시청 오랑 물리왕 딱로 그디 짚곡 경헤낫주게.  
 @1 예, 아까 그 쳇방?  
 #2 쳇방.  
 @1 쳇방, 쳇방에도 마리를 낫수과?  
 #2 마리 논 디도 싣고 안 논 디도 싣고.  
 @1 아아, 게니까 마리로 들어가는 입구를 쳇방이렌 허는구나.  
 #2 어어. 게난 그 뒤쪽 그덜 칸칸 영 갈라근에 대로 여꾼 걸 짚앙 그디 물 빠지게 그릇을 어퍼낫주게.  
 @1 거 살레예?  
 #2 살레.  
 @1 청결, 청결 험 건 어느 적에 험 겨우과?

#2 천계? 청결?

@1 예.

#2 왜정 때 청결이주게.

@1 왜정 때, 청결 안 허민 막 검질메곡 시켰던 허명예?

#2 아이고, 동네도 청소허곡 집안도 궤도 다 내놓곡 대청소주 뭐 그계. 일본 이 허렌 현 계 그계 잘흔 걸로 뵈주.

문

@1 여기 보난 이 동네도 청결해선계, 오늘. 삼춘 그다음에 문들 영 돌아야 뵈 거 아니우파예? 그 마리에 잇는 문은 무신 문 험니까?

#2 마리에 잇는 문은 대문이주, 뵈 문이라.

@1 대문예.

#4 삼방문.

@1 삼방문인데 대문 옆에 아까 호령창은?

#2 호령창.

@1 호령창은 무신걸로 멘드는 거?

#2 어디 웨방 사름이 오라근에 주인 계시오, 훔 때 호령창을 몰아서 아는 사람이면은 들어오라고 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 없다, 헤서 보내 불곡.

@1 계난 그 문은 대문은 널문으로 만들잖아예?

#2 널문.

@1 호령창은 무신걸로 만들어?

#2 호령창도 널문.

@1 아, 그것도 널문인데 족게 만들엇구나?

#2 어, 족게 만들아도 널.

@1 그다음에 정지문도 널문?

#2 정지문도 널문, 원 그 당시엔 전부 널문이란계.

@1 창문은 안 헛수과?

#2 창문은 뜨낫주게.

#4 구들문은 창문이주게.

@1 지계문은 뵈우파?

#2 지계문? 삼방으로 구들더레 가는 그계 창문은 창문인디 지계문이영 허여.

@1 예, 창문 식으로 멘들아신가예.

#2 으, 멘들긴 멘들앗는디.



@1 응,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예, 그다음에 우리 그 문 들젠 허면 영 이거 영 만들어사 될 거 아니우파예. 문 들젠 허민. 무신걸 만들어근에 문 들앗수과? 거기.

#3 돌차귀.

@1 예?

#3 돌차귀.

@1 예, 돌차귀도 있고.

#2 아, 문 연결해서 열곡 더끄고 흘 때 거 돌철귀주게.

@1 돌철귀예.

#2 그것도 암컷 수커가 있어. 아래 건 구멍만 뚫라지고 우이 건 요만이 좀 나온 게 잇주게.

@1 나오게, 예.

#2 경해서 그레 영 고망에 질르면은 문이 올앗닥 더껏닥 허게.

@1 여기는 대문 허젠 허면 밑에도 이렇게 큰 나무로 이렇게 하고 위에도 큰 나무로 헛잡아예. 건 뭐렌 허여?

#4 지방, 지방.

@1 지방?

#2 지방, 문지방.

@1 문지방, 그냥 지방예, 우에 것도 지방이렌 험니까?

#2 으응.

@1 알 것도 알지방.

#2 아래 것도.

#4 알지방.

@1 아, 알지방, 웃지방예.

#2 게난 그디도 펜방에 흙 쳐근에 그레 양쪽으로 맥엿주기.

@1 삼춘 펜방, 아까도 펜방, 펜방 헹게마는 펜방이 무신거마씨?

#2 삼방에서 구들 가르젠 허민 펜방을 세워사. 토기도 여끄곡 흘 거 아니라게.

#4 문 들젠 허면은 대문 이런 디로 대문 들젠 허민, 펜방을 양쪽 영 세워야 문히고 이게 딱 맞게, 헤영 이 아래 지방, 알지방 웃지방 영.

#2 편지가 무시거.

#4 흐는 게 펜방.

@1 게민 펜방은 옆으로 세우는 게 펜방이우파?

#4 옆으로 영 영 헤영.

@1 지붕하고 지붕을 영 이렇게 받쳐주게 허는 그거구나?

#4 예에.  
 @1 게, 문얼굴이구나.  
 #2 펜방을 이 식으로 세와.  
 @1 예.  
 #2 게문 이디도 흙, 맨 밑에 그 펜지드레 갈 때에. 밑에도 흙 치곡 행, 그디 양쪽에 탁 물리민 데깁혀주게.  
 @1 그게 펜지방?  
 #2 펜지.  
 @1 펜지. 응, 펜지, 펜지. 펜방이엔도 허곡 펜지엔도 허곡.  
 #2 그건 셉는 지동 7라 펜방이엿 햅주게.  
 @1 아, 셉는 거는 펜방이렌 허곡, 끼우는 아래 거는?  
 #2 그 아래 거 널로 뉘는 핀, 펜지.  
 @1 빈지.  
 #2 핀지. 빈지.  
 @1 빈지, 아 아, 빈지에 영 세운 거를 펜방이렌 허는구나.  
 #2 아, 그렇지.  
 @1 예, 알아지쿠다. 그 벽혈 때에. 그다음에 또 무신거가 잇냐 하면은 여기 도 그 문 들 때, 그 아까 상기둥은 아까 빈지 잇는 거기가 상기둥 뉘는 거고, 상깃기둥예. 뉘창문이렌 현 것도 잇수과?  
 #2 귀팡문?  
 @1 뉘창문, 창문인데 족은 거. 햅나짜리만 뉘 창문도 잇어?  
 #2 그거 저 족은구들 창이로구나. 웨짱.  
 @1 아아.  
 #2 웨짱.  
 @1 웨짱이렌 헉니까?  
 #2 아니, 게난 족은 창이주기게.  
 @1 예. 여기서는.  
 #2 족은구들에 우리 집이도 거 웨문이 셔났어.  
 @1 영 여는 거. 걸 뉘렌 햅수과? 삼춘이 부를 때.  
 #2 아, 문이엿 햅주, 뉘이렌. 족은창문이렌 햅주.  
 @1 족은창문, 웨문예. 하나로 뉘문 웨문.  
 #2 햅짱만.  
 @1 햅짱, 응. 웨문. 여기는 그 창 불르는 건 언제 햅마씨?  
 #2 으응?

@1 창 불리는 건 언제 창 불러?

#4 아, 창 불리는 건.

#2 일 년에 한 번도 부르곡 두 번도 부르곡 한이 없어.

@1 주로 어느 계절에 불러?

#2 겨울 들어가면 불러야주게.

#4 추석 때, 추석 때.

#2 바람 들어오지 못하게.

@1 팔월 멩질에 저기 허는 거어. 창도 불르고예. 그다음에.

#2 쥐 한 때는 뭐 한이 셔.

@1 저 창문도 쥐들도 창문.

#2 창문으로 쥐가 종이는 구멍 툄랑 들어오주게.

## 굴묵

@1 풀들 잇고 영허난 그렁구나. 굴묵은 어떤 식으로 멘드는 거우짜?

#2 굴묵은 게 그 아랫목이엔 한 디가 굴묵이라.

@1 예, 아랫목 행 그 뒤에가.

#2 굴묵.

@1 계난 굴묵은 방마다 잇엇수과? 아니면 어떻 큰구들, 굴묵 영 들어가게  
헤영 옛날 독들도 질르고예, 거기서.

#2 옛날은 구들마다 셋주게.

@1 예, 구들마다.

#2 죽은구들도 부억 솟 앓친 예염으로 헤근에 그디도 텃게 헤낫어.

@1 큰구들 한 디는 별도로 굴묵을 만들엇잖으짜?

#2 응. 별도로 문들어야주.

@1 예, 거기는 들어가는 디도 그냥 굴묵이렌 험니까?

#2 아니. 들어가는 디는 이 축담을 다울 때 흙치 구멍을 내와.

@1 예. 축담험 때예.

#2 어. 옛날엔 마루, 마루로 헤영 영 감장 돌앙 들어갓주기, 그디 7스락통  
허곡.

@1 예예, 7스락통 놓고.

#2 경허난 경허단 요즘 집 지으믄 저 축덜 다울 때 흙치 구멍을 툄버 불어.

#4 굴묵질기 좋게.

#2 계난 구들은 컷주기계, 경허믄.

@1 예, 구들이 커예, 옛날에는예. 여기도 반축이렌 한 말도 씩니까? 집 짓을

때 반축. 영 골갱이 같은 거 올려 놓게 된 그런 집도 이십니까? 이 동네도.

#2 거 반축, 선반?

#4 선반.

#2 선반이주.

@1 계난 그 집 위에 벽을 이렇게 행은에 지붕까지 쪽 올라간 거 있는데 축담을예.

#2 응.

@1 그렇지 않고 중간까지만 축담 쌓앙 여기 영.

#4 축담 우이 영.

#2 아아, 그거 그런. 아, 요즘, 옛날 집 짓을 때는 다 경헛어.

@1 아, 옛날에는 다 경헛어예.

#2 계난 요게 집이면은 요??지는 담을 담고 울로 요 사이는 약 자가웃, 양 착 자가웃쯤 뵈까 헛 거, 그디는 안 허여.

@1 예, 예 자가웃 정도예?

#2 예. 안 허여.

@1 거기는 보통 뭐 골갱이도 놓고예.

#2 옛날은 거기 골갱이도 놓곡 독도 그디 올르곡.

@1 아아.

#4 주로 독 살앗주.

@1 아아. 독 허젠.

#4 응.

## 풍체

@1 그다음엔 여기 풍체도 허지예?

#2 풍체.

@1 멧 개나 헛니까, 거는 집 앞이?

#2 스관집 풍첸 춤.

#3 스관집은 두 개 헛곡, 삼관집엔 헛나 헛곡.

#2 두 개 헤야뵈여.

#3 삼관집이 하나, 지금 ㄱ뜨면 헛나로 뵈는데 그때는 나무가 긴 것이 엇주게, 두 개를 헛주게.

#2 나무가 엇어.

@1 헛시 여기도 풍체 집 앞에 말고 창문 앞에 이런 것도 헛니까?

#2 창문 앞에 다 헛주기게. 대문 앞, 창문 앞.

@1 예.

#4 벨도로 영허연에.

@1 창이영.

#2 나 쓰레뜨 흘 때 저 큰구들하고 마리하고 부억꺼지 오게 풍체를 멘들어  
났어.

#4 아니, 아니. 경헌디 그 어디 죽은방에 돌아도 비가 오면은 무시거엔 허  
나.

#3 비 들이빨 때는 헤사.

@1 그건 뭐렌 헉니까? 뭐 지직 이런 것도 헉니까?

#3 발풍체.

#2 발풍체.

#4 반풍체가, 발풍체가.

#3 발풍체 세와사.

@1 발풍체는 세우는 거고, 돌아메는 거는.

#4 돌아메는 거는 풍체고.

#2 풍체고, 돌아메영 셉는 건 발풍체곡. 반풍체가 맞지, 반.

#4 발, 발. 영 세와근에 창문 앞이 영 세와나십주게.

@1 예, 마리 앞이영 창문 앞이 세우는 그거는 무시거렌 헤마씨?

#2 그거게, 반풍체엔 흐 말해주게.

@1 그게 반풍체?

#4 발, 발.

#2 예, 우에 돌아멘 것은 제라헌 풍체.

@1 풍체고.

#2 뵈이고, 풍체?

@1 우에 영 돌아멩 흐는 것도 잇어마씨?

#2 돌아멘 게 잇주گی게.

#4 벨도로 흐영 돌아메영 작데기.

@1 풍체작데기이.

#4 작데기헤영 영 받아근에.

#2 작데기 바투와사주.

@1 작데기 바투는 게 든풍체우파?

#4 응.

@1 그거 말고 반풍체는 어떤 식으로?

#2 반풍체는 지등 두 개, 3는새 흐 서너니 개 박아근에 그디 새로 여꺼.

어욱이나 새로 여꺼서.

#4 비 못 들어오게 허는.

@1 아아, 그냥 세우는 거구나.

#2 예, 그렇게 영 세우니까 반풍체렌 허는 거주게.

#4 비 오라가면은 그걸 그 창문 앞에 영 세왕은에 비 들이빠지 말게.

@1 비 들이치지 말게. 그거를 반풍체렌 헤예. 계난 그 집 앞에 행 내분 거는 둔풍체. 거는 잇는데 작데기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둔풍체구나예, 그다음에 이제 물팡 허곡. 삼춘 그리고 여기는 그 집에서 밖으로 나오는 올레 잇잖우파양.

#2 올레.

## 올레

@1 여기도 올레렌 허지예?

#2 올레.

@1 올레도 막 진 것도 잇고 짝른 것도 이십니까?

#2 것사 거 지형에 따라근에 경허는 거주게.

@1 그런 올레는 무신 올레렌 허여마씨?

#2 옛날도 올레주기게.

@1 먼올레 이렇게.

#2 먼올레는 이녁 집이서 허꿈 먼 디는 먼올레. 가차운 디니까 그냥 올레.

@1 올레, 부딘올레렌 말은 안 허여?

#2 어, 먼딛올레엔 안 허영 기자 먼올레 영 헛주게.

@1 먼올레만 쓰고예, 계난 먼올레들은 허꿈 부잣집들이 먼올레 하영 헛어 양. 안으로 영허연.

#2 (웃음)

@1 그다음 아까 문간채, 문간도 헛덴 허지 안헛수과?

#2 문간?

@1 예, 집혈 때.

#2 건 대문.

@1 거기 대문이렌 헛니까?

#3 이문간.

#2 문간이엔 허주, 문간.

@1 이문, 이문.

#2 이문간.

@1 이문간, 이문간은.

#2 이문간에도 부제는 문간만 허지 아녀서 그디 쉼도 메곡 흥곰 크게 해서 또 남방에 ㄱ튼 것도 놓고. 경헛어, 부제집은.

@1 요셋말로 대문 잇는 디가 옛날 이문간 문간을 다 헨예.

#2 예.

@1 거기도 흑시 구들 ㄱ튼 것도 멘들엇수과?

#4 그런 건 엇고.

#2 그런 건 엇주.

@1 그런 건 엇고. 쉼막허고.

#2 쉼막, 남방에.

@1 쉼막, 남방에, 흥쪽에 메낭, 메낭이렌 험니까, 쉼 메는 거?

#2 게 횡격낭 딱 들여근에 바깳딘 남방에 놓고 안넌 쉼 메곡.

@1 다시 흥번 삼춘예, 그 쉼 멧던 낭을 여기서는 무신 낭, 횡격낭?

#4 횡격낭.

#2 횡격낭이라고. 영 칸 갈르는 디.

@1 예. 횡격낭.

#2 횡격낭.

@1 칸도 영, 이렇게 허고.

#2 어 그렇지. 이렇게 세와놔서 ㄱ는대 글로 이 저 데멍이 내물지 못허게.

@1 예, 그걸 이 동네는 횡격낭이렌 허는구나예?

#2 어, 횡격낭.

@1 다른 데는 메낭이렌 험디다. 메낭이렌 헨 말은 안 들어봍디가?

#2 아이 들어봍.

@1 안 들어봍예.

#4 그건 지역마다 그 이름이 틀리니까.

@1 예, 거난 제주도가 널러마씨.

#2 으음.

### 놀왓, 놀굽

@1 그다음에 여기 보난 놀왓들, 놀왓, 놀터들 이십디다?

#2 놀왓.

@1 예.

#2 그 놀 누는 디?라 놀왓이엔 헛주게.

@1 놀 누는 딴 놀왓이고, 거기 돌들 이렇게 깔앙 동글랑허게.

#4 놀굽.

@1 놀굽.

#2 놀굽.

@1 여기는 꼭 놀굽을 만든 거우꽈?

#2 아니, 뭐 어튼 땐 요 섬피도 비어당 놓고, 소낭도 거시려당 탁탁 꼬아근  
에 놀 놀곡 경헛주게.

@1 맨 밑에, 게도 돌들은 꼬아실 거 아니우꽈?

#4 옛날에는 잇어나실 거라.

#2 옛날에 저 뒛고.

#4 놀굽이라고 헤가지고.

#2 질왓, 질왓이엿 허민 물 골르는 땅이 잇주게. 게난 그런 디는 돌로 딱 헉  
게 놔.

@1 예.

#2 마당에 물이 골라도 놀굽드레 아이 들게끔.

#### 통시

@1 음,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돼지도 도새기에.

#2 음, 도새기 다 질루왓주게.

@1 옛날 다 질랐지예?

#4 건 별도로.

@1 별도로. 거기.

#4 통시라고.

@1 통시.

#2 통시.

@1 통시, 흑시 통시에도 집처럼 행 영 지은 디도 잇엇수과?

#4 돼지.

#2 돼지게.

@1 돛집.

#4 돛집.

#2 돛집.

@1 돛집 말고 사람들 응가허는 디.

#2 아, 아.

#4 그것도 이 엄막으로 헤낫지.

#2 거 그것도 이 판자로덜 헨에 헤낫어.



@1 엄막치록.  
 #4 엄막 식으로. 저 비 올 때 그자 조금 반만 뒤편.  
 @1 게민 거기 이렇게.  
 #4 디들팡.  
 #2 디덜팡.  
 @1 디들팡, 디들팡 낱은에 이제 허고예.  
 #4 경행 돌 이만이 나오게 허고.  
 @1 예, 쟁 옛날에 이렇게 막대기도 이렇게 헤갓고 하기도 하고. 옛날 여기  
 그 통시 그거 하면 막 짓 주기도 하고 짓예, 뭇로 짓 줍니까?  
 #4 보릿대.  
 @1 보릿대, 보릿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 뚫통담이엔 험니까? 통시담?  
 #4 응, 통시담.  
 @1 통시담, 통시담 우에도 그 가시낭도 영 올리고 헤낫수가?  
 #4 그건 돼지 튀어나가난.  
 @1 예.  
 #2 나가난 거주.  
 #4 그 튀어나지 못허게 가시도 허곡.  
 @1 예.  
 #4 돼지 이제 저 줄헤영 무꿈도 허곡.  
 @1 아, 줄로 무끄기도 험니까?  
 #4 응.  
 @1 게민 거 발도 무꺼 붙어?  
 #2 지달, 지달싸는 거영 헤여.  
 @1 지달싸는 거예.  
 #4 도망가지 못허게.  
 @1 쉼허고 몰만 안 헤영은에 도새기도 쟁 지달싸?  
 #4 응.  
 @1 수툫 훗일 때예.  
 #4 응.  
 @1 아아, 돼지도 지달쌌구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헛간도 별도로 헤신가  
 마썸?  
 #2 헛간이 셔서? 엇주. 헛간이 엇어.  
 @1 헛간이 엇어? 무사게 그 아까 불치간들은 어디에 헤수과? 거난 헛간이  
 아까 이문간 이런 디 현 거 아니?

#2 아, 그디게 남방에 농곡.  
@1 남방에 놓고 허니까.  
#2 저 안 칸엔 횡격막 들영 소 맵곡.  
@1 소 메곡예.  
#2 경헛주기게.

### 쉐막

@1 거난 별도로 아까 그 쉐막? 마귀?  
#2 마방?  
@1 마방.  
#3 쉐막.  
@1 마방이엔도 허고 쉐막이엔도, 여기도 몰덜도 하영 질랏수가?  
#2 아니, 몰보다는 쉐를 호호마다 다 질랏주.  
@1 예.  
#4 주로 쉐.  
@1 쉐예. 그다음에.  
#2 몰은 질루는 사름은 질루고, 안 질루는 사름은 안 질루고.  
@1 계난. 보통 쉐는 멧 무리씩 질랏마썸?  
#2 쉐 허는 사름덜은 으라 개 질랏주게.  
@1 음. 그거는 이제 그 쉐막에서.  
#2 쉐막에서 질루다가 봄 나면은 산더레 올려.  
@1 아, 아, 여기도 올립니까?  
#2 예. 산더레 올령 내불어. 게민 쉐가 추워가민 내려와.  
#4 집 좇앙.  
@1 여기서는 보통 어느 산으로 올렸수가?  
#2 여기도 엄부기엔 현 디가 우리 상가목장이주기게.  
@1 엄부기.  
#2 예. 경헌디 옛날 이전 안 헤부난예.  
@1 뺏겨 불언?  
#2 도, 도 땅이 뒤 불엇주게.  
@1 좇입서게.  
#2 좇아져게.  
@1 (웃음) 마을목장이어신디예.  
#2 예.

- @1 계민 그 엄부기 지경은 여기서 어느 쯤 뒤는 거우파?
- #2 엄부기 저 우터레 지금 천백고지 그디 소덜이 막 올라가.
- #4 바리악, 바리악 앞이.

**장항 놓는 디**

@1 아, 바리오름 거기 앞이가 엄부기렌 헤예. 응. 그다음에 삼춘 우리 똥장 놓고 영허는 데 거긴 뉘렌 헤마썸? 집, 보통 그 장독대를 여기서 뉘렌 험니까?

#4 뒤에, 뒤에.

@1 뒤에. 그냥.

#2 장항 놓는 디 말해주게.

#4 뒤에, 뒤에.

@1 예. 장항 놓는 디. 경혜근에 장항 논 디를 장항뒤에 험니까? 장항은 어디 뉘 보통?

#2 장항도 침 벧바른 더레만 등기명 놓았어. 나무가 시민 조금 태양 비치는 쪽더레만 등겨.

#4 뒤에, 뒤에.

#1 뒤에 다 낫주.

@1 집 뒤에예. 경헌디 벧 바른 디 놓고.

#2 예.

@1 건 무산고예?

#2 아이, 거 장이 잘 익주게. 벧을 발라야.

@1 벧 발라야 장이. 응, 그니까 지혜덜이 정말 좋은 것 같애. 혹시 삼춘 이 동네도 춤도 메났수가?

#2 음?

@1 춤이렌 험 거 들어반? 물, 여긴 물이 귀헌 편이우파, 어떻헌 편이우파?

#3 귀혜.

#2 물이 귀허지.

@1 물 귀혜. 게믄 여기서는 먹는 물은 어디 강은에.

#2 먹는 물은 이 부락 가차운 디덜 파서.

@1 예.

#4 용천수.

#2 파서 허다가, 이제 또 물이 그 물, 조그만씩 판 게 엇으민 이제, 께물이 라고 요 아래 유통센터 잇는 디 우알넉 통이라났는디, 그거 떨어지민 연화물을

먹었주게.

#4 연화물도 먹곡, 애월도 강 시꺼당 먹고.

@1 켓물은 어디우파?

#2 켓물이 이 유통센타 우녝.

#4 보건소.

@1 응, 거기는 뭐가 궤처럼 뉘어 이수가? 아니면.

#4 궤처럼 잇어났는데.

#2 메와져 불엇주게.

#4 그게 이 저 길, 길 허면서 그게 메와져 불엇지.

@1 거기 궤가 이서났구나예?

#2 어, 궤가 이서났수다.

#4 어, 물도 조금 나고.

@1 아, 나는 물. 게문 뉘 여기 포제힐 때 거기 거 질어당 헛갯네.

#4 응, 응.

#2 예.

@1 응. 그 물 이름이 켓물.

#4 궤돌이라고.

#2 켓물.

#4 요만인 벌러진 딜로 물이 그자 출출출 느령 허면은 허벅 갖다 놔근에 이저.

#2 흐루 저녁에 헛 스무 허벅 이상.

#4 톨라근에.

@1 물 톨랑.

#4 여성, 이제 여자들은 밤에, 낮인 일허당 밤에 그거 헛 허벅이라도 톨라와야 뒷날 이제.

@1 다른 데는 새벽에 강 물 진덴 헤신디 여기서는 밤에 물 질레 가났구나.

#2 경허당 버치민 연화물.

@1 연화물.

#2 연화물도 두 통이라. 알녁 건 소 먹는 물, 우녁 건 연통 먹는물 허단, 그 것이 뉘어 가면은 애월도 가고, 고내도 가고, 신엄도 가고.

#4 저 괏지 과물도 가고.

@1 과물도 가, 여기서 과물까지예?

#2 과물.

@1 예, 나는물이 거기니까. 게문 그 연화물도 보면, 이쪽 연꽃 잇는데 넓은

데가 먹는 물이었구나.

#2 예.

@1 저쪽 알쪽에가 이제.

#4 큰 건 소 맥이는 물이고.

@1 예,

#4 거기서 빨래도 허고, 또 그 연못 영 조그만헌 디는.

@1 예.

#2 질 우쪽에.

@1 저 우쪽으로예?

#2 우쪽으로.

@1 동산 잇는 옆이.

#2 응.

@1 거기가 먹는물이었구나.

#2 예. 먹는물.

@1 거기 이렇게 가로 놓여 있던데. 아. 그러면 옛날에 나무에 영 새로 헤갓고 춤이렌 행 영 무꺼근에 물 받아 보지 안헛구나, 여긴.

#2 그건 안 해받.

#3 하르방덜은 경 받아.

#4 새 영 무경.

#2 낭에.

#1 돌아멩 그 빗물을 받아주기게.

#3 ○○이 아방 받았수게.

#4 아까 그 저 풍체 말 잇지 안허여. 풍체.

@1 예.

#4 풍체 헤가지고 향아리 해당 이 저 풍체물도 받아났지.

@1 풍체물, 어.

#4 그 향아리에.

@1 아, 물이 워낙 귀헌 데니까.

#3 늙은 어른덜은 경 받아.

#4 요 세수혈 물이라도 물이 어려우니까.

@1 예, 예.

#4 세수혈 물이라도 허쟁 헤영 향아리 놔근에 풍체물도 받아나십주.

@1 예. 아 그러면은 여기 춤 메는 거는 보긴 봅디가? 영 새 헤갓고 낭에.

#2 아, 건 테레비로 봤어.

@1 텔레비 말고 이 동네서.

#3 환, 환 ○○이 헤난.

#4 헤어낫주게.

@1 헤나긴 헛는데 삼춘, 웨냐면 다른 동넨 가면예 삼춘네 또래들은 다 그거 행은에 물 먹엇덴.

#4 낭에 물덜.

#2 우리 동네 그자락은 안 허고.

@1 아, 여기 나는 물은 켓물 하나예. 이 동네는예. 어딘 가니까 물도 나는 건 샘이렌 허고, 그냥 판 거는 못이렌 험디다.

#4 예. 못, 못.

@1 여긴 못, 못 이렇게 얘기를 하고예.

## 2.2. 초가 지붕 이기

@1 그다음엔 삼춘 여기는 아까 지붕 이는 거는 이 년에 훈 번 일어? 여기 지붕 이는 거.

#2 집 이는 건 두 해에 훈 번.

@1 예.

#2 안채 일면은, 올리 일면 새해는 밧채. 훈 해씩 걸르민 두 해에 훈 번 되는 거지.

@1 지붕 이는 날은 어느 날에 지붕 입니까?

#2 옛날 어른은 자, 오, 묘, 유, 요 세 개 빼동, 네 개 빼동 다 일엇쟁 헤여.

@1 자, 오.

#2 자, 오, 묘, 유.

#4 그거 세 개만 빼동.

#2 예, 그거 네 개 빼동.

@1 쥐날허고 물날허고 토끼날허고, 독날 빼어뎡.

#2 예.

@1 아, 이때는 일어예. 집을 일고. 보통 여기서는 집은 어느제 일어마썸?

#2 영상집.

@1 응?

#2 뭇 집은?

#4 초집 이는 날.

@1 집 일 때.

#3 가을에, 가을에.

#4 겨울에.

#2 가을에?

@1 예, 집 이는 건 어느 계절에.

#2 계절에.

@1 워냐면 새 가을에 저기.

#2 시월, 동짓달 흔 달에 거저 일지.

@1 아, 동짓달에 십일월에.

#2 그때 해야 새 황모를 비어 오니까.

@1 예, 예. 거난 그 새 비어, 비레 뎡기멍, 잇어 불지 못헌 이런 말들도 하 시크라예. 놈이 것도 새도 비어당 허기도 허고.

#2 우린 새왓 지킴을 첨, 잘 지켜낫주게. 헤벤서 올라오랑 비어 가.

@1 예, 그 말을 흐꿈 굴아줘 봅서.

#2 내 어린 때 새 도둑을 심어낫어. 하, 보문동산 가난, 아버님이영 성님네 달은 새를 비고, 날?란 저 묵은잣 강 새왓을 지키라 영헨. 아, 묵은잣동산에 올라간 영 베려보니, 어떤 사름이 흔차 오란 새를 비어. 하, 요것 다올리민 다 올려도, 아이 똬 거고, 어찌허코 허다가, 고내 사름이랏어. 새 서 못을 비언 특 전 나오더라고. 조름에 즐즐 좇안, 보문동산 오난 요 사름덜 저 우리 새 비언 오랏수덴 허난 그놈 잡으라 헤놓난, 새 비언, 진 건 부려된 돌아나 불언. 경헨에 심어낫어.

#4 계난 그건 봉갓수가?

#2 예게.

(웃음)

@1 계난 워냐면 고내나 요런 데는 새왓덜이 엇고.

#2 새왓덜이 엇어놓니까 거주게.

@1 상가는 새왓은 핫구나예.

#2 이녁 새왓덜이. 다 들엿주게.

#4 새를 이제 그.

@1 새 들영예.

#2 사태 후제는 저 공초왓?지 간 새 비어오랏어.

@1 공초왓, 아까 공초왓 헨 디가 그 원.

#4 저 원으로 올라간 디.

@1 올라간 디예.

#4 바리메 저 우에.  
 #2 저 솔도가 가차와. 거기서.  
 @1 솔도.  
 #2 솔도가 가차와.  
 @1 그디 가근에 새 비어오고. 옛날에 막 고망새 비엇저 현 말은.  
 #2 고망새는, 이 놓는 디 새 현 콜씩 난 거, 놓는 게 고망새주.  
 #4 이 어디 고내봉에라도 가근에 새 봐지면은 그거 현 콜씩 모뎨근에. 툽툽  
 끊엉.  
 @1 없는 사람들은 경혜근에 집 짓은 거 아니라예.  
 #2 쟁.  
 @1 계난 각단도 그추룩 헤연?  
 #4 예, 각단도 거 마찬가지로.  
 #2 마찬가지로.  
 @1 마찬가지로. 계난 집 현 번 일젠 허민.  
 #2 옛날 하르방덜 어려워 살앗주게.  
 @1 예.  
 #4 아이고, 초가집 현 번 일젠 허면은, 십이월 돌아와오면은 하이고, 어떻게  
 영 집을 일코?  
 #2 집 일저, 줄 놓저, 줄 메저, 멧 가지우파게?  
 @1 줄은 멧 번 맵니까?  
 #2 줄은 현 번 집 일 때, 더프는 날 메는 거.  
 @1 메고, 그다음에 계도 어느 정도 잔 다음에 딱시 땡경 무꺼알 거 아니?  
 #2 계난 돈 일기 전부터.  
 @1 예.  
 #2 브름이 오카부덴 곳덜로 문쳐 줄을 메어.  
 @1 응, 곳덜로 메엉예.  
 #2 새 불리지 안허게.  
 @1 응. 그추룩 행은에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삼춘, 집 다 일어나면 밑으로  
 무끄는 거는 뭐에 무꺼? 집 일어근에.  
 #4 거왕.  
 #2 거왕.  
 @1 거왕예.  
 #2 왕대, 왕대 이렇게 솔친 거 헤다근에, 이 서리 알로, 서리 알로 서리레  
 멘딱 돌아메주게, 돌아메민 그레 오라근에 서리레, 그 거왕 멘 것더레 오라근



에 줄을 매는 거.

@1 여기는 펑고데는 안 봐봤수가? 거왕 말고 안에 펑고데 이런 거는 안 헤여?

#2 안 헤여, 안 헤여.

#4 그런 건 엇고.

@1 안하고예, 그냥 바로 거왕만.

#2 예. 거왕더레만.

@1 그다음에 이 줄 매는 거, 줄 매엄덴 헉니까, 줄 봉을렘덴 헉니까?

#2 줄 매엄젠 허주게.

@1 여기는 줄 매는 거라예.

#4 겨난에 서로가 저쪽 사곡 이쪽 사근에 줄 지붕에서 영 놀아면은 \*\* 영 영허민 등겨 영허영 신호허여, 경허른 영 영 등경 거왕대에 무끄는 거주.

@1 응, 등겨, 헤갓고.

#4 신호 쥐. 경 흔차만 땡겨 불문 이레만 하영 땡겨 불주게. 안 뉘주 건.

@1 게난 맨 가로 이렇게 메고.

#2 바우로부터 먼처 메고.

@1 바우로 메어근에 옆으로 메고 이런 식으로예, 게난 집 이는 사름도 선수들이 잇어예.

#2 손재주가 좋아야주.

#3 하여튼 집 이는 사름덜.

@1 그다음에 삼춘, 집 헤난 다음에 나머지 줄들예, 걸로는 뭐 방식도 헌덴 허멍. 줄들, 집줄.

#4 줄 매어근에 진 거 끊엉.

#3 아, 정짓방석.

#2 거 질민 호미로도 끊어 불고, 그냥 딱로 아까 식으로 요디 담을 답다가 특정 놔둔 디가 잇지 안허여.

@1 예.

#2 그디 저 방풍 뉘게끔, 줄이 질면은 줄로 여깁 그레 영 막아지게끔도 놔.

@1 게른 영 늘어정은에 이시키여, 늘어예.

#4 늘어정도 잇고.

#2 싹 허게 쫄라부는 디도 잇곡 .

#4 삼방 앞쪽 이 구들 쪽에는 쫄라근에 방석, 이 저 정지에 방석, 영 깔앙 앓게끔 헤영.

@1 게른 집 뒤에는 안 짤랑도 늘영 놔두키여예. 집 앞에만.

#4 아니 뒤에도 쫄르고, 건 ㅋ똥허게 다.

#2 다 뒤에도 쫄라.

@1 다 쫄르고예.

#2 대부분 쫄르는 거주게.

### 흑질

@1 삼촌, 옛날은 이렇게 집 짓젠 허면 낭 헤여 오는 거나, 아까 낭은 제 들 영 헛젠 허는 거나. 아니면은, 아이고게, 흑 이기는 건 안 골아졌수다. 흑질허는 거.

#2 흑질허는 거?

@1 예, 흑질허는 거 골아줍서.

#2 무사 우리 멧 번 골아진 거 님은디.

@1 아니, 거난 땅 팡은에 그 허젠 허면, 흑질허는 애기 흥번 골아줘 봅서.

#2 게난 흑질허쟁 허민 이녁 집이 조금 물 나는 집은 이녁 마당도 팡 헤여.

@1 예.

#2 마당도 팡 허주마는, 경 안 헌 던 이디 촌흑 신 디 강, 구루마로나 차로 나 시꺼 오라야지.

#4 그때 차가 셔수가게? 저 구루마로. 동네 기자 어른덜이 흑질 헌덴 허민 다 모다들영 서로가 해주니까 \*\*\*.

#2 물을, 물 받쟁 허민.

@1 예, 물 받쟁 허민. 물부주도 헌덴 허멍예.

#2 아시날 저녁부터 물을 받아, 경혜영 쉼로 불리곡, 게민 보릿대에 흑이 막 혼합뉘주게.

@1 예. 수세는 보릿대로 낱은에 허고, 게민 동네 사름덜 다 허벅 정은에 물 들, 게민 전날부터 물 받는 거?

#2 응, 흑질혈 물 지레 가자 헤영덜 뭐 동네가 나사주.

#4 다 협조가 있어나니까.

@1 삼촌, 흑질혈 물 어떻허레 가자?

#2 흑질혈 물 지레 가자.

@1 아, 지레 가자. 게민 동네 다.

#2 부인회에서.

@1 예, 게민 흥 사름이 멧 번씩 허벅으로.

#2 아, 그건 흑에 메지게.

@1 흑에 메영은에예, 음. 그다음에 이제 그치록 허는 거고. 그때, 집 일거나

흑질혈 때 동네 사름덜 오니까 그 사름덜 위해서 뭐 밥을 허거나.

#2 밥을 헤영 맥이주게.

@1 아.

#2 밥을 행 맥여.

#4 흑질허는 날은 대잔치가 돼지.

@1 아, 그 말씀 곱아줍서.

#4 예, 대잔치가 돼주. 흑 꾸는 사름, 흑질 이제 이거 불르는 사름, 동네 부인덜 뭐냐면은 그날은 대잔치가 되는 거주. 경허면은 그 집이 주인은, 큰 이제 서말띠기엔 허는가, 그것에 밥 헤가지고 첨 상뒤가 다 모다젼다 헤근에 뭐헛지.

@1 그다음에 그때 그 반찬 같은 건 무신거 헤마썸?

#4 반찬?

#2 반찬이 셔? 김치 최상이주, 뭐.

#4 김치, 그날 그때 김치 허난 뭐, 뭐.

#2 아, 들머귀썸으로. 김치벧귤 먹을 거 엇주예.

#4 배추 먹으믄 배추지. 그 시절에는 김치엔 허민은 뭐 첨.

@1 들머귀. 뒤에 들에 나는 거.

#4 들머귀 쓰우렁헌 거. 소금에 절인 건디, 순전 인제 아까 곱앗주마는 똥장.

@1 예.

#4 똥장 그자 뭐허곡, 이 풀고추.

@1 예.

#4 으, 주로 그자 옛날에는 뭐 반찬 뭐?

#2 반찬은 출려젼어?

@3 잔치헛덴 허면서 허니까.

#4 잔치, 그계.

@3 닥을 잡든가.

#4 아니, 아니 닥이 어디 잇고 돼지가 어디 잇어. 그 시절에는.

@1 거난 밥만 허는 거잖아, 밥. 밥은 무슨 밥헛수가?

#4 밥은 보리밥, 보리썰이주.

#2 보리밥이주.

#4 보리썰.

#2 보리썰에 풋 썸 서꺼.

@1 풋 서క్క예?

#4 어디 뭐 돼지 잡곡 하간 뭐 독 잡곡, 그건 요즘 소리고, 옛날에는 하이 고, 밥허곡 똥장국만 해도 참 아주.

#3 국은 콩국 끌렸주, 콩국.

@1 콩국, 예.

#3 콩국 해연.

#2 남군엔 결혼 때에 콩국을 끌리민 최상 출렸젠 해났저.

@1 예, 남군에선.

#2 남군은 콩이 아니 뉘어.

@1 맞수다. 땅이 워낙 안 좋아부난.

#2 나도 중문이 잔치 먹으레 가오랏어.

@1 예. 근데, 그 여긴 바당이 아니라부니까, 다른 덴 가면 몹치 헤갓고.

#2 몹.

@1 몹 헤갓고 몹치 행은에 집 일 때 쫓덴 험디다.

#2 아이, 저 여기도 사다근에, 몹을 사당 저 똥장, 그 장 담는 항에 크민 짜, 짜도 그거 반찬으로 먹어났어.

#4 몹치도 최근 말이라. 이 해변에서 뭐 영 기자 거기서 먹단 뭐 이시면 조 금 친해지건 요거 몹 굿다근에 절여 먹어 영.

@1 응, 몹예. 견디 동쪽에는 몹 안 납니까.

#2 여기 토종감 한 때는 감 7정 가민 자리 삼이 문제 아니라났어.

@1 아.

#2 그 그물에 감물 들이기 위해서 자리만 7정 가민 참 자리 삼은 쉬와났 어.

@1 그 풋감예.

#2 예. 풀감.

@1 풀감.

#2 그물에 감물을 들이기 위해서.

@1 예. 갱 삼춘네도 그 가정은에, 여기서 어디, 고내 갑, 어디 갑니까?

#2 고내도 가곡계.

#3 애월.

@1 애월도 가곡. 그게 어느 시절이라마썸?

#2 우리 어린 때주게.

@1 예. 경행 그니까 이게 지역마다 다.

#2 우리가 워정 때, 마루 공서도 해본 사름이고, 안해 본 거 없어. 세상, 으 라세상을 봤주기에, 참.

@1 예, 알아수다.

### 2.3. 연장

@1 삼춘, 집 짓젠 허면 연장들, 연장에.

#2 연장은 목수가 다 준비헤영 오는 거주게.

@1 게난 목수가 준비허는 연장이 뭘뭘 이수가?

#4 끝이여, 대패여, 자귀여.

@1 음.

#2 하영 들어. 목수 연장 목수 아니라놓난 다 웨와지크라게?

@1 게도 알아지는 거, 튼내지는 거.

#2 질 처음에 톱, 딱로 예, 뿔고 저.

#4 자귀, 자귀.

#2 자귀.

#4 끝.

#2 끝.

#4 대패.

#2 대패도.

#4 옥자귀.

#2 옥자귀, 못빠기.

#1 쳇짜 곱은자가 셔야, 곱은자.

#2 곱은자.

#4 먹통.

#2 먹통.

@1 먹통 있으면 먹술도 이서야.

#2 먹통 썬어?

@1 예, 먹통 썬수다. 먹술.

#1 게 먹통에 먹술이 든 거주.

@1 예.

#2 또 뿔이 신고?

@1 어쨌든 요 정도 허고.

#4 기리.

@1 무시거마썬?

#4 기리.

@1 기리, 기리가 뭐우파?

#1 낭 3망 돌르는 거게.

@1 아.

#2 기리, 기리. 기리라고 써.

@1 예, 영 돌르는 거.

#2 뱅뱅 영 영 뉘우민 고망 풀라지는 거.

@1 예. 기리.

#2 기리.

@1 예, 그다음에 그 목수들 담 다젠 허면, 무시걸로 다? 담 달 때는, 축담 달 때 드는 도군 엇수과?

#2 그런 거 엇어.

@1 엇어예. 게문예.

#3 겐노, 겐도 잇어야.

@1 겐노? 메, 메.

#2 겐노, 담 답는 거? 건 석공이 뉘 겨주게.

### 툽

@1 건 석공이구나, 맞수다. 게문 삼춘예, 툽 잇잖아. 아까 큰 낭 비어 오젠 허면 췌던 툽이 무슨 툽마썸?

#2 고부끼리.

@1 고부끼리. 고부끼리가 겨두우파?

#2 어, 거도.

@1 겨두가 고부끼리예.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라예.

#2 어어, 맞아, 맞아. 이디가 사뭇 넓어.

@1 예, 이렇게 넓은 거. 이거 췌도 막 두꺼웁디다.

#2 두꺼와.

@1 거는 영허는 거? 건 멧 명이 쓰는 거파?

#4 둘.

#2 둘이 베 조름에 즐라메근에 뒤으로 텅기곡, 앞에 사름은 그 먹술 논 딜로 잘 툽 가게만 만들고.

@1 아, 뒤에서 누군가가 또.

#2 으, 등겨집사.

@1 등겨집예. 줄 메갓고. 경헤야 힘. 고비끼리 허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우리 박 탈 때처럼.

#2 그건 저 대톱으로 허는 거.  
 @1 건 대톱예. 예, 대톱도.  
 #2 톱계가 셔났어, 그거.  
 @1 톱계예. 게난 그 계헛던 거를 곱아줍서. 톱계는 어떤 식으로 헤나신지.  
 #2 남을 사서.  
 @1 예.  
 #2 사서 계원덜이 강 쪽르곡, 널을 오려놓면은 배가 이상 남주기게. 겨허니까 톱계를 헤났어.  
 @1 예. 거난.  
 #2 연말 뉘가민, 구정 뉘면은 돛덜 잡아서 훈 빼씩덜 노놉가지고. 쉼도 잡아 먹곡. 경헤났주.  
 @1 쉼도 잡아먹고.  
 @1 게난 옛날에는 집 짓는 것도 허주마는 아까 이제 관널 짜젠 헤도 허고 예. 게난 그 계는 무슨 계, 톱?  
 #2 톱계라고.  
 @1 톱계. 톱접?  
 #2 톱계, 따빗계, 다 계가 잇어.  
 @1 응, 따비도 계가.  
 #2 따비도 계로 해서.  
 @1 따비도.  
 #2 따비로 저 새밭까지 이겨근에 농서 지영덜 또 버을어 먹곡.  
 @1 게문 새밭 이겨주는 계구나, 그거는.  
 #2 아, 따비.

## 자귀

@1 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자귀는 아까 제자리도 잇엇잖아예. 제자리허고.  
 #2 제자리는 도끼가 납작헌 거라.  
 @1 예.  
 #2 영 옆으로 착착 ㄱ리는 거주게.  
 @1 예.  
 #2 게서 재목을 제자리.  
 @1 제자리. 제자리해서 영.  
 #2 어, 그 사름을 빌어서 낭을 가깃주게.

#4 통나무에서 스모 냅는 거.

@1 그, 그거를 여기에서는 귀자귀렌은 안 골읍니까?

#2 뒤자리?

@1 귀자귀. 자권데 귀자권 뭐우꽈?

#2 뒤자리 몰라.

@1 자귀. 자귀, 낭 까끄는 자귀.

#2 자귀이.

@1 예.

#3 옥자귀엔 허는디, 이딘 옥자귀.

@1 옥자귀엔 험니까?

#2 거 큰 건 거 옥자귀엔 허고.

@1 아, 큰 거가 옥자귀.

#2 응.

@1 그다음에 족은 건. 손으로 영 영허는 건 손자귀?

#2 족은 건 거 개인이 다 쓰는 거.

#4 건 손자귀.

@1 건 손자귀.

#1 응, 손자귀.

@1 아, 큰 걸 옥자귀렌, 옥자귀가 낭 꺼죽 뱃기는 거우꽈?

#4 거죽도 허고 낭도 가끄곡.

@1 가끄는 거예. 옥자귀예. 게문 제자리허고 옥자귀허고 트난 거?

#2 옥자귀, 요 ○○이 아방 오래 써먹어시네.

@1 음, 이신가? 그 집에.

#2 음?

@1 누구네 집에 이신가? 옥자귀.

#2 엇어. 엇어. 가 불 건디도 오래고 하르방.

@1 아, 다른 동네는 강 보난 보관헌 집도 이시긴 험디다.

#2 보관 안 험지. 어디 저 석어 불엄주게, 녹 실언.

@1 음.

#4 박물관에도 가실런지도 모를 거우다.

## 대패

@1 예. 그다음에 대패는 멧 가지가 이수과?

#2 대패?



@1 예.

#2 대패도 으라 가진디이.

@1 예.

#4 흠파는 것도 있고.

#2 영 밀리곡, 둥기곡 허는 것도, 두 사름이 허는 것도 있고.

@1 예.

#2 헨차 조그만헌 거 요만헌 거 헨차 쓰는 것도 있고.

@1 옆으로 허는 거.

#4 흠파는 것도 있고.

#2 또 요 지레기 진 것은 일로 맥임 시작허믄 이??지 짝 허게 땡기는 것도 있고, 첨 여러 가지라.

#1 흠파는 거.

@1 흠파는 것도 있고, 게난 그 대패 일름은 몰르고예?

#2 몰라, 몰라.

### 못빼기

@1 그다음에 못뽑이, 못빼기는?

#2 못빼기엔 헌 건 요 지러긴 헌 거 헌 일 메다 지러기 뉼 거라.

@1 예.

#2 요디 요영헌 게 오그라진 게 셔.

@1 음.

#2 이거 요영헤여근에 못 빼곡.

@1 못 빠곡. 거 못빼기렌예.

#2 어, 못빼기.

### 곶은자

@1 예. 그다음에 자도 아까 곶은자.

#2 곶은자.

@1 예. 목시덜 행 다니는 거.

#2 아, 목수들 곶은자.

#1 곶은자.

### 먹통, 먹술

@1 응, 옛날 곶은자, 그다음에 먹통, 먹줄은 뉼헐 때 쓰는 겨우짜?

#2 그거 이 발룰 때 뭐.

#1 과짜허게게, 뭐.

#2 이디 술 멩 이게 딱 맞앙 헤도 술을 탁 놓민 틀릴 수가 싣주기게.

@1 예.

#2 게난 술을.

#4 그게 알기 쉽게 허젠 허면은 통나무에 아까 그 옥자귀엔 말 잇지 안헤  
이.

@1 예.

#4 옥자귀가 아까 그 통나무에 스문을 냅젠 허면은.

@1 예.

#4 흥쪽 가까가지고.

@1 음.

#4 먹, 먹, 먹술을 때려야, 때려야 이제 그게 줄 딱 헤영 허면은 이 거죽 쪽  
으로 영 튀어난 게 잇고, 안네 들어간 게 잇잖아. 그러믄 먹줄을 딱 땡경 옥자  
귀를 영 놓아가지고, 바로 영헤영 착착 가끄는 거주게.

@1 어쨌든 먹을 이렇게, 먹줄을 멘들앙 거기서.

#2 으.

@1 선에 맞춰예.

#4 경헤가지고 스문을, 통나무에서 스문을 냅는 거.

#2 먹술이 선생이주기게.

@1 예, 먹술이 선생이라예.

#4 경헤영 그거 스문 냉 허면은 아까 곱은자엔 헨 거 이제 거기 싣수 말행,  
요디 문을 흥착 들젠 허면은 아, 요거 멧 자 멧 치를 놓아야 뉘겏다 허영 연  
필로 영 굿영, 그디 구멍 톨랑, 옷지방이 알지방이 박는 거거든.

@1 예. 게난 먹술, 먹줄, 곱은자 이시믄 다 뉘는 거구나, 옛날.

#2 예. 그게 먹술 첨 목시주, 바로.

### 췘손, 낭손

@1 삼춘 그리고 옛날에는 이 요즘 사깁덜 가정 다니는 췘손 같은 거는 안  
가져 뉘겏수가?

#2 췘손 셋어.

@1 예. 저기 집 할 때, 초집 헐 때도 그런 거 췘?

#4 아니, 아니 그 세멘, 세멘.

#2 췘손 싣고, 낭손도 잇고, 요즘에 씨는 건 낭손도 셔.

@1 낭손 크게 낭으로 만든 거.  
 #2 어, 낭으로 만든 거, 판자로 만든 거.  
 @1 예.  
 #2 걸로 영 시야길 잘 허여.  
 @1 아, 그런 것도 허기도 헛구나. 손으로, 흑질혈 때 손으로 헛덴 허멍.  
 #2 흑질혈 땀 손으로.  
 @1 음.  
 #2 장갑은 셔서? 장갑도 엇엇주.  
 #1 그거 췌손은 요 구들바닥이나 혈 때.  
 @1 아, 예, 예. 방 저기 혈 때.  
 #2 판씩 영 바르게 허젠 허난.  
 @1 근데 바르게 혈 다른 데는예, 사발로도 해서 사발 어평은예.  
 #2 (웃음)  
 #4 사발? 솟두껍이.  
 @1 아, 솟두껍이로도 헛수가?  
 #4 영 짹짹 밀면은 일정허주게.  
 @1 예.  
 #4 솟두껍이로 영헝 짹짹 밀면은.  
 @1 솟두껍. (웃음)  
 #1 솟두껍으로 경.  
 @1 여긴 솟뚜껍예.  
 #4 구들 장판 짹.

### 장판들이기

@1 장판 들일 때들예. 여기도 장판 들일 때는 저 뭘로 헛수가? 유치름으로?  
 유로?  
 #2 처음엔 감으로.  
 @1 감으로도 헛난, 아.  
 #2 감으로도 장판 헛어.  
 @1 저기 장판들일 때 말 곱아췌봄서.  
 #2 장판 들일 때 감으로만 헛낫어.  
 @1 예, 감으로예.  
 #2 유치름으로 헛나 뭇 헛나 허는 건 부제칩이덜.  
 @1 아, 그러면 감허면, 가끔 가다 누렇게 뵈 게 감들인 집이구나.

#2 감들인 거주. 그렇지.  
 @1 계문 감들인 다음에도 우에 뭐 콩지름을 불러거나 영도 됩니까?  
 #2 아니, 콩지름은 안 불러났어.  
 @1 감으로만 낫?  
 #3 감으로만 낫.  
 #2 유지름을 불러민 구둑은 안 이는 모양이여, 아마도.  
 @1 예, 예, 맞아마씨. 딱 절라져 갖고.  
 #2 경해서 부제는 유지름을 스용헛주게.  
 @1 예, 아 감으로 들엿덴 말은 처음 들엄수다.  
 #1 여기서 감으로만.  
 #2 감으로만.  
 @4 무슨 종이 깔아서 들이지?  
 #2 미녕에 감을 딜영 옷헿 입으면 또꼬리낭 까신 작작 발아.  
 @1 예.  
 #2 찢어지질 안허여. 요즘 저 나오는 것은 광목이난 작작 찢어져 불어도.  
 @1 경허니까예. 옛날엔 미녕은 워낙.  
 #2 미녕에 감물 들여놓민 가시, 소소헌 가신 발앗주게.  
 @1 아까 또꼬리낭 가도.  
 #2 어, 작작 발아.  
 @1 음, 작작 발아는 무신 말이파?  
 #2 건 옷을 걸려 찢지 안허더란 말이라.  
 @1 예. 작작 발앙 그냥 가 불어예. 발앙 가부는 거구나, 옷이.  
 #2 어.

## 2.4. 민속

@1 그다음에 삼춘 흑시 여기 집 지어나면, 집 지기 전에 제 지내잖아예, 토신제. 집 짓젠 허면.  
 #2 집 짓젠 허민 허고, 짓젠 허민 허는 거. 토신제.

### 토신제

@1 그때 토신제 헿 때는 어떤 거, 제물 거튼 거 알아지쿠가? 뭐 어떤 식으로 제 제내는 거.  
 #2 제물?

@1 예.

#2 제물. 희생도 허젠 허민 허고.

@1 예.

#2 돛머릴 허나 득을 훈 머리 허나, 조기, 명태, 곤메 둘, 조메 둘, 예, 딱로 페벽.

#4 페벽허민 다 뉘십주.

#2 음, 예 또, 실과, 밤, 비자, 대추 해서 거 오과라고 해서 허나에 합청 허곡, 음 미나리, 고사린 안 써.

@1 고사린 안 쓰고.

#2 음 초, 불 키는 초.

@1 예.

#2 생감주.

@1 생감주허고.

#2 딱로 뉘이 신고?

#4 유자.

#2 유자, 예, 오과에 유자는 벨도, 유자는 꼭 들어가야, 향기가 좋으난에.

@1 삼촌, 오과엔 허게 뉘면 뉘 오과렌 험니까?

#2 밤.

@1 예.

#2 비자.

#4 대추.

#2 대추, 밤, 비자, 대추, 딱로 뉘 신고? 딱로 두 개가.

#4 감?

#5 아니, 감 아니고 사과.

#4 아이, 아니. 사과 아니.

#2 감.

@1 유자는?

#2 유자, 이렇게 오괄 거라.

@1 그 밤, 비자, 대추, 감허고 유자허고?

#2 감허고 유자허고, 밤, 비자, 대추, 감, 유자 게민 오과가 뉘는 거.

@1 경 뉘수과?

#2 유자는 꼭 들어가야.

@1 유자는 꼭 들어가야 뉘는 겨우과?

#2 뉘 디덜 족은 거 신 쉘인디.

@1 은행은 안 들어가마씨?

#2 은행은 안 써, 여기.

@1 여기는 은행은 안 쓰고예. 우리 제주도엔 은행 없으니까. 감을 써수과?  
감.

#2 감, 감도 건감이주게.

@1 건감예.

#2 건감.

@1 예, 예. 꽃감을 저기 건감, 여긴 건감, 게문 여기도 옛날에 감을 물령 놔  
뒀수과?

#2 경해났주게.

@1 옛날도. 게난 토신제 허젠 허민 건감을 쓰면, 요즘은 꽃감이렌 허주마는  
예. 게난 집에서 이거 물렸구나예.

#2 아니, 아니 셔난 거라.

@1 셔난 거예.

#2 저 명심보감에 그런 말이 셔. 동저슬에 어머니가 감을 먹고 시프다 이렇  
게 허니, 감을 구할 수가 셔? 아들이 감나무 밧디 강 불그도록 다녀도 원 감  
이 엇거든. 호제가 나타나서 밧 풀리고 타라는데, 하 이거 요새 사름도 무시올  
건디 그때 무시운 생각이 엇어신?라, 경헨 타니, 어디 멀리 가더라 이거라.  
멀리 가니, 올레 가니까 내리라고 헤연, 내런 들어간 보니 제사가 닥쳐어. 예  
부모 제사가 돌아와근에 흥시를 훈 백여 개 저장을 허면은 훈 이십 개나 불과  
남질 안헤났는디, 좋은 것이, 올리는 훈 오십 개가 남앗다고, 이거 당신을 위  
한 거로구나. 그래서 그 감을 가지고 어머니신디 오젠 허니 호제를 또 타고 오  
니 득이 고기오 고고 허고 어머니는 별세허더라 허여. 게니 효자가 나둔 것은  
옛날엔 뭐 냉장고가 셔게, 그렇게 엇어도 무사히 감을 경 나두니까 당신을 위  
한 거니 당신이 가지고 가라. 겐 가정 오니 어머니는 별세헿더라 허여.

@1 음, 겐 그걸로 제 지냈구나예.

#2 어.

@1 (웃음) 삼춘 경허고예, 우리 집에 이렇게 하면, 그 집 짓는 거.

#2 집 짓는 거?

@1 아니, 집에 지어갓고 가신예. 그 제 지내는 건 어떤 거 잇어마썸? 올레  
코시니 뭐니 이런 것도 험니까?

#2 아니, 토신이엔만 허주.

@1 토신제만 헤예. 게문 토신제는 언제 험니까?

#2 집 짓기 전에 날 방은예. 토신제 언제 허렌 택일방에서 허메.

@1 아, 택일해서예.

#2 어.

### 상량식

@1 아, 게문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집 다 지어나면, 아, 집 다 짓기 전에 그 상량식도 허지예?

#2 아, 건 집 지을 때, 상동 올리는 날.

@1 예.

#2 상머루 올리는 날 상량식이 잇주게.

@1 예. 그 상량식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2 그거 택일기에 잇는 거주. 난 어느 날 혼다는 것이 흐를에 못 박앙 시민 어느 날이엔 허주마는 이걸.

@1 택일기에 잇는 거.

#2 택일기에 잇일 거난.

@1 좋은 날을 골랑.

#2 어.

@1 게민 그때는 희생은 뭘로 써?

#2 상량식은게 득 혼 머리 드는 거주기게.

@1 득 혼 머리, 장득.

#2 어.

@1 게 그거 혼나 헤영.

#2 갱 상량이오, 상량이오 거 목수가 불르명, 상동에서 자귀로 득 데가릴 끊으면 득이 떨어져, 피나는 걸 심어아정 네 꽃지동에 불를 거고마는. 불르고 득 머리는 이제 문첻상에 퇴출해논 거허꼭 이잇돌 앞에 묻어. 경허더고마는.

@1 이잇돌 앞에예. 예, 게니까 여기는 문첻상이렌 허는구나, 여기는. 문전 안행 문첻상예?

#2 어.

### 성주풀이

@1 게문 그렇게 이제 목시가 허는 거고.

#2 목시가 허는 거.

@1 예. 게 그렇게 해난 득은 뭐허여?

#2 다 머친 지 후제.

@1 예.

#2 모친 지 후젠 성주풀이가 잇거든.

@1 예.

#2 성주풀이, 모든 거 다 출려놔근에, 큰 목수 빌어근에, 것도 택일해야.

@1 예.

#2 택일해근에 춤 거 뭘 낭도 베노라, 뭘 낭도 베노라 허멍 목시 곱으민 그 조름에 사름도 그 곱으멍 도끼로 낭 강 툃툃 거찌곡, 영허는 거주게게. 성주풀이엔 현 건.

@1 성주풀이 현 거예. 삼춘도 성주해낫구나예?

#2 흘 줄 몰라. 우린 기자 구경만 해낫주게.

@1 예. 건 심방이 왕 허는 거 아니?

#2 심방이 허주게.

@1 심방이예. 게민 성주풀이엔 험니까? 성주늑린덴 험니까?

#2 성주풀이영만 헤여게.

@1 성주풀이엔예. 그다음에 집에 문제는 언제 허는 거?

#2 문제? 뭘 문제가 셔?

## 문제

@1 그 식게 때 문제 안 험니까?

#1 제사허는 날게.

#2 아니, 성주풀이헐 때 문제 싣주게.

#1 아니 제사헐 때, 제사헐 때.

#2 음?

#1 제사헐 때.

#2 제사헐 때 문제 잇지게.

@1 예, 문제허고예.

#2 명절 헐 때나 제사헐 때.

@1 응, 여긴 문제렌 험구나예. 이 동넨예.

#2 어, 문제.

@1 문제예. 그다음에 조왕을 위헤근에 딱로 제는 안 험니까?

#2 다 이 저 뭉 무당덜은 칠성이여 조왕이여 거느리뉘 여긴 안 거느려.

## 칠성코시

@1 여기는 안 허고. 게난 별도로 웨 일 년에 집안에 평안허게 헤줍서 헤갓고 집에서 허는 제는 무신거렌 곱아?



#2 그것도 칠성코시라고.  
 @1 예.  
 #2 칠성제가 있고, 토신제가 있고.  
 @1 음.  
 #2 토신만 조용히 현관 빌어근에 제허는 제가 있고, 무당 빌어근에 칠성코시허는 딴 동네 사름도 막 구경가곡 헤여.  
 @1 음. 게난 여기는 칠성코시는 햄구나예?  
 #2 칠성코시 허는 집, 안 허는 집.  
 @1 허는 집, 안 허는 집. 이건 정초에 험니까?  
 #2 음?  
 @1 정초에 허는 거 이거는?  
 #2 정초. 정월달에 허주게.  
 @1 정월달에 헤갓고. 게민 여기도 칠성을 안네는 안 헤도, 칠성을 허기는 허는 거라예. 여기 칠성코시 허는 거 보면예?  
 #2 아니 코시할 때는 무당 오랑 허는디, 칠성코시 말을 미리 곶아.  
 @1 음, 칠성코시 말에예. 게난 그냥 그 유세차 헤갓고 허는 거는 집 뒤에서 거는 유교식으로 허는 거고. 음, 이 칠성코시허는 거는 일 년에 험 번?  
 #2 일 년에 험 번.  
 @1 일 년에 험 번 꼭 허는 거고.  
 #2 토신제도 일 년에 험 번.  
 @1 토신제도 일 년에 험 번 허고예. 아, 요즘도 요거 허는 집 이시카마씨? 칠성코시허는 집 이시카? 요새도 이시카마씨?  
 #2 응?  
 @1 요새도 칠성코시허는 집 이신가?  
 #1 몰라.  
 #2 엇어, 칠성코시 요즘 안 허여.  
 @1 안 허여.  
 #2 토신제도 아녀곡, 칠성코시도 아녀곡.  
 @1 삼춘네 여기 포젯당 헤갓고 일 년에 포제는 허지예?  
 #2 포제헤여.  
 @1 포제는 언제 험니까, 여기는?  
 #2 정월에.  
 @1 정월.  
 #2 초정일에.

@1 여기 당도 큰 당 잇지 안허우꽈? 당덜, 여자덜 텅기는 당.  
 #1 당? 엇어.  
 #2 거 저 오당빌레 신 디 아이 뉘여. 이제  
 #1 아니, 낭 끊어 불엇어, 오당빌레 낭 끊어 불언.  
 @1 아, 오당빌레 잇어난 거 이제 엇어져 불엇수가?  
 #4 아, 이수다. 이수다.  
 #2 그디 오씨 할망, 오름에도 당 하나 잇고, 불레낭 이신디.  
 @1 오름에도, 오름은 어디.  
 #4 고내봉.  
 #2 고내봉.  
 @1 고내봉예. 거긴 할망당.  
 #4 하르방.  
 #2 거기 하르방당.  
 @1 거기 하르방당 웰 겨우꽈? 거기 돌 큰 돌 영 이신디.  
 #4 어.  
 #2 오당빌렌 오씨 할마님.  
 #4 할마니고.  
 @1 오당빌렌 할망당이구나. 아이고 여기까지 집 관련헨예, 대충 들어보고예.  
 나중에 또 정리허당 몰르민 또 왕은예 또 들어보쿠다.  
 #2 에이, 그만헿 설러 불자게.

### 3. 성읍1리 초가 구술 <1>

### 3. 성읍1리 초가 구술 <1>

- 일시: 2019년 4월 23일
- 장소: 성읍1리 경로당
- 조사자: @1 김순자 @2 양성필 @3 고창근 @4 오경임
- 제보자: #1 현동욱 #2 변정석 #3 홍상표

#### 3.1. 구조

##### 집 지었던 경험

@1 계난 삼촌은 집은 멧 채나 짓어 붓디가?

#1 아, 멧 채라고 허면은 뭐허고 하 나 서너네 채. 어, 한 서너 곤데 뭐 쫘 짓어보긴 헛수다.

@1 예, 계난 이제 그 삼촌 이제예, 그 집 짓었던 경험. 초집예. 우리가 조사하는 거는 초집이난.

#1 예.

@1 초집 지었던 그 경험 한번 돌아줘봅서. 잊어불지 못허는 경험덜 잇일 건디.

#1 아, 초가집 짓젠 허면은 뭐 우선 그때는 여기 재료가 쥔 필요헛엇고. 그 나무가 없으니까. 재료가 쥔 필요헛엇고 것은 뭐 목수안티 메경 기자 집을 짓는 겁주 뭐.

@1 예. 계난 그 목수안티 집 짓젠 해도 그 나무, 그 낭허레 덩겨보진 안헛마씨?

#1 예, 옛날에 저 낭 도둑질도 헤봤수다.

@1 예.

#1 저.

@1 그 말씀 돌아줍서. 낭 도둑질허레 덩겨난 말.

#1 이 내창에 그자 낭도 헤박 저 할로산에도 강 헤박. 쟁 모두왕 모두왕 집을 짓엇주. 그때 당시에는.

@1 예.

#1 겐데 옛날 원래 옛날 집은 춤낭으로 헛 거니까 춤 멧 백년 가도 이제 끄막이 엇는데. 지금 현재 왕 뭐 헛 때는 그 바깥데 낭 좀 서리 같은 거 끄트머리는 다 망가져부난 지금 엇입주게, 현재.

@1 현재.

#1 계난 서리도 다, 게 춤, 춤낭으로 헛엇고 요새 집덜은 나가 현 서너 닌 채  
짓어봤는데 뭐 뭐 숙대낭, 기낭 소낭, 나 잡동 게 모든 게 모두와근에게 그렇게  
춤 현 집을 짓어나십주.

@1 아까 삼춘 집 짓을 때 그 목재 춤낭 짓엇잖아양.

#1 예.

@1 그 춤낭은 그 어떤 종류들이라마씨? 춤낭이렌 허민.

#1 그 춤낭이라는 거는 예, 여기서 ㄱ뜨민 가시낭, 또 굴무기, 뭐, 뭐 이름 다  
알아지커라, 이젠. 이름 여러 가진데.

@1 예, 튼내는 대로.

#1 예, 뭐, 뭐 나중에 그 ㄱ뜨머린 낭이 엇어가니까 그 소리낭이엔, 소리낭.

@1 소리낭.

#1 소리낭 ㄱ튼 거 굴무기. 또 뭐 뽕낭.

#2 노가리.

#1 종, 종낭 ㄱ튼 건 약허난 그런 건 안 허고.

@1 노가리도 허고.

#1 예, 노가리.

#2 야생종이지. 완전 옛날 야생종 그대로 죽지도 안허고 자연생으로만.

#1 춤낭은 춤 질기낭.

@1 예.

#1 다른 거는 짓게 됬은 춤 빨리 망가져부는 때문에 뜰어져불곡 뭐 경현 따문  
에 그 춤낭을 옛날부터 헤나니까 그런 걸 찾앙 하니까 낭이 엇어마썸 그런 것이  
그때 당시에. 그니까 잡낭으로 뭐 숙대낭 ㅏ오니까 숙대낭도 헤박 이것저것 허곡  
집을 짓은 겁주.

@1 그 굴무기 ㄱ튼 거는 이 동네 하낫수가?

#1 아, 이 동네 하난 것이 아니고 마 옛날에는 뭐 이 성읍리가 곳도 됬니까 아  
마 그래서 그 저 집을 짓엇지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그 집도 현재  
ㄱ지 남아 잇으난에.

@1 예.

#1 현재ㄱ지도 아니 고흥 지금 현 집덜이 멧 집 잇입주게. 게고 것 보면은 다  
참낭 헤가지고 어, 그 찢긴 낭으로 어 경 허연 집을 짓은 겁주.

@1 예, 이 성읍은 옛날에 보면 관청들이 하잖아양.

#1 예.

## 집 종류

@1 계난 관청덜이 하난에 집들도 초집도 잇주마는 종류들이 어떤 집들이 잇어  
신고예?

#1 아, 종류. 집 종류는 보통 그 다 이 초가집인데.

@1 예.

#1 뭐, 뭐라 험니까? 그 뭐 스칸집도 잇곡 삼칸집도 잇곡 정, 정제 부억이엔 허는 거 정제도 잇곡 밧거레도 잇곡.

@1 음.

#1 그 종류가 여러 가집주.

@1 지에집은 일반은 안 해낫수가?

#1 예, 기와집이 기와집은 한 곤데 성읍리 한 곤데 잇어낫수다.

@1아.

#1 한 곤데허고 저 향교허고 어 한 곤데 그 저 현○○네 집이가 그때 옛날에 저 기와집 셔나고 나머지는 다 초가로.

@1 음, 다 초가라예.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여기 집 셀 때 초집 셀 때 여기는 뭇런 험니까? 험 채 두 채 안 행은에 험 거리 두 거리?

#1 험 거리, 두 거리. 험 채, 두 채 안 허곡 험 거리, 두 거리. 우리 셀 때는 험 거리, 두 거리. 험 채 두 채엔.(웃음)

@1 안 허고예. 게민 보통은 험 집에 집이 뭇 거리씩 잇어마씨?

#1 뭇 보통은 세 거리, 두 거립주게.

@1 예.

#1 안팓거리.

@1 예.

#1 안거레는 큰사랑방. 밧거레는 소막.

@1 예.

#1 거 부억 부튼 거. 거 해근에 기자 안거레 밧거레.

@1 안거레, 밧거레.

#1 불치막 아래 바궤디 저 뭇.

@1 불치막.

#2 쉼막. 축사.

#1 건 허면은 뭇니까? 뭇감을 이제 밥허곡 굴묵 진곡 그 재 ?튼 거 무스거 보 관할 디 예. 또 허뜩헌 거 기자 너저분 거 작업허당 너저분헌 거 앓당 놓는 디. 불치막 그런.

@1 불치막. 경 허고 여기 몽커리 이런 건 엇어마씨? 이 동네. 모커리. 모커리렌 말은 안 들어받예?

#1 모커리렌 말은.

@1 예, 건 안 들어보고. 게문 삼춘예. 안거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어마씨? 안거레? 안거레?

#1 안거레는 삼관집이주, 보통 삼관집이고.

@1 예.

#1 어, 특이헌 디는 스칸집 한 두 군데 정도 어, 저 잇는 걸로 보고. 보통은 기자 삼간거립주, 예.

@1 삼관거리예.

#1 예, 삼관도 어 옛날 이관막살이, 삼관막사리 영행 허는디 춤 저 삼관집을 허는데 없는 사람은 이관막사리도 그때는 춤 집이 어떻게. 우리, 내가 어릴 때 집이 엇엇어 그때 헐 때 당시라놓니까[-노니까] 어 집을 지언 춤 고역이 이만저만 아납주게.

@1 예.

#1 것도 아까도 골앗주마는 낭도 어렵고 인부 자체 노임 관계 품 주젠 허믄은 뭐 그런 거 관계 따문에게 자기 손수로 허곡 허다 보니까 이관막살이도 잇고 게믄 보통 잇는 사름덜, 엇는 사름덜은 이관막살이도 좋앗지요 뭐, 땅 헐 구석에라도 좋앗엇고 지금 현재는 아무 것도 안 닦주마는 그때 당시에는 그만큼 어려왔다 춤 볼 수 잇주.

@1 게난 삼춘네예, 옛날 안거리 삼관집 아니파양?

#1 예.

### 안거리 구조

@1 게믄 그 안거리 구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수과?

#1 예. 구조는 보통은 두 개로 나누엇주게.

@1 아.

#1 게믄 동녱거리는 방. 다음에 저쪽 방 저 허니까 그다음 두 개 나눠 가지고 저쪽은 고평.

@1 예.

#1 그 쌀 놓는, 저장허는 디.

@1 예.

#1 이쪽 저 쪽은구들. 아래 저, 서녱방이면은 어 동녱방이면 서녱방 허면은 어 이쪽에는 쪽은방으로 해서 그 방 허곡 또 또 그거 허민 방이 세 개, 아, 세 개 되엇구나.

@1 아, 게민 여기는 방은 옛날엔 구들이엔 안 골앗수과? 구들.

#1 아, 구들.

#2 구들이엔.

#1 구들.

@1 구들이엔예.

#1 구들. 이제난 표준어 방이엔 햄주마는 구들. 큰구들, 쪽은구들.

@1 게민 큰구들은 어느 쪽에 잇인 게 큰구들이우과?

#1 건 지형에 따라서 뭐허는디 대략은 보면은 우측.  
 @1 네.  
 #1 남쪽에 보통은 남쪽에 돌아앉이니까. \*인변방으로 돌아앉이난에 보통은 우측 방. 또 어떤 디 가면 또 그거는 잘 구분이 안 뉘겟네.  
 @1 건 집안마다 좀 뜨나구나예?  
 #1 예, 그거.  
 @1 삼촌네 집은?  
 #2 대개 그렇게 허주. 대개 보면 이렇게 허주 요쪽에 큰방을 많이 헤십디다.  
 #1 예.  
 #2 나가 집 일어 보난.  
 @1 집이 이렇게 앉이면.  
 #2 이쪽에가 큰방.  
 @1 으, 왼쪽 방향에.  
 #2 예. 그게 영 구조를 보니까 큰방이 많이 이십디다.  
 @1 예.  
 #2 나가 보건대 그렇게 많이 잇었다는 거.  
 #1 동쪽.  
 #2 꼭 이리 그거는 딱 지정뉘지 아년게 보니까 주로 그런 방들이 집이 많이 잇었다.  
 @1 게민 삼촌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그 안거레 허면은 그 정제는 어디에, 그 안거레 안 헉니까? 여기는?  
 #1 아니, 그 저 그 집 엇을 그때 당시에는 첨 아까 식으로 그 저 저 이관막살이.  
 @1 예.  
 #1 그때는 정제 경 요새 7뜨민 부역이라고 하쥬.  
 @1 예.  
 #1 정제허고 구들허고 이렇게만 허였고, 삼관집을 만약 헉 때는 그 정제는 뭐 우리 나 현재 살단 저 마지막 살단 집은 안거레는 이쪽에 잇으면서도. (잡담)  
 @1 예. 그 안거레 이제 얘기해다가. 그 정지는 예 그 여기는 정지렌 헉니까? 정지렌 헉니까?  
 #1 정제.  
 @1 정제예. 안거레 밧거레 하고.  
 #1 예. 안거레 헤근에 저 족은구들 옆에가 그 정제.  
 @1 아, 족은구들 옆에가 정제고.  
 #1 으.  
 @1 큰구들 옆에는?



#1 만약에 집이 영 잇다면은.  
 @1 예.  
 #1 영 갈랑 요거는 죽은구들.  
 @1 예.  
 #1 요거는 정제.  
 @1 예.  
 #1 요거는 큰방.  
 @1 예.  
 #1 고팡, 이렇게.  
 @1 아. 게난 큰구들 옆에가 고팡이 잇는 거라예.  
 #1 고팡, 예.  
 @1 그다음 보통 이 성읍하면은 집을 동쪽으로 앉집니까? 서, 남쪽으로 앉집니까?  
 #1 아 보통은 저 인변방으로 남쪽입주게.  
 @1 아.  
 #1 보통은 남쪽.  
 #2 여기 우리 마을은.  
 @1 예.  
 #2 그 지형상으로 동향, 남향, 이추륙.  
 @1 보통.  
 #2 북향도 엇고, 서향도 엇고. 아 이걸 나가 조사했습니다.  
 @1 아, 예.  
 #3 근데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면은 동향을 허느냐, 남향을 허느냐 허는 거는 보통 그 옛날 어른들이 남향을 많이 헛는데, 동향을 헛 때는 거 특이현 뭐가 잇습니다. 웨냐른 그 사람의 띠.  
 @1 예.  
 #3 운, 운에 따라서 집 방향도, 사람도 죽으면은 문을 때 작을 봅니다.  
 @1 예.  
 #3 남향을 요렇게 무덤을 헤도 그 안네 거는 관을 이리 약간 이렇게 비틀어지게 놓고 이런 식으로 집도 바로 이 저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도 특이하게 동향집을 짓는 그 성씨를 가진 분들이 잇어요.  
 @1 아.  
 #3 옛날 어른덜이 동고칩[동꼬칩]이라 헤가지고 고칩 사름덜은 거의가 다 동향집을 짓었습니다.  
 @1 음.  
 #3 그 생각을.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저 서상동 가민 고칩이 다 동향집이우

다. 옛날부떠.

@1 응.

#2 동향이라.

#3 게 또 젊은 사름덜이 집을 지어도 그 저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동향 집을 그 저 거리가 짓고 살았습니다.

@1 예. 우리는 제줏말 허니까예, 다 제줏말로 골아줘야 뉘예.

(일동 웃음)

### 집 방향

@1 아까 그 삼촌 골았던 것처럼 이 동네서 집 짓젠 허면 그런 방향들이.

#2 예 그 제가 어떤 일이 잇어서냐 허민예, 것도 몰랐는데 그 이, 이 자리에다가.

@1 예.

#2 이 자리에다가 저 마을회관을 짓을랴고 참 계획했습니다게.

@1 예, 예.

#2 근데 이런 것을 난 그 당시 잘 몰랐는데 여기다 짓으면 서향집을 맞이게 뉘엇어. 그런 걸 방향을 난 몰랐는데 전화가 딱 와십다다게. 어디 성읍리 서향집 짓는 디가 잇느냐고 해서. 게 조사를 해십주, 다.

@1 아, 삼촌이 다?

#2 아, 예, 예. 한 집만 서향집이 나왔어.

@1 아. 집에.

#2 한 집만. 엇어. 그거는 조금 그 풍수지리.

@1 예.

#2 아는 사름이라.

@1 음.

#2 게서 아 이거 안 뉘겐다 해서 그저 탄 뉘로 가서 지금 남향집 짓어십주.

@1 아, 그 서향집 짓을 사람이예.

#2 이디 짓게 뉘민 서향집을.

#3 아니, 마을회관.

#2 서향집을 짓으게 뉘수다. 이디.

@1 아, 예.

#1 이 자리, 이 자리.

@1 아 이 자리가.

#2 예. 게서 아 안뉘단 걸 안 뉘겐다 해서 이제 탄 데로 가서 짓엇수다. 아, 그 때 그 쇼큰가 뭐 받아가지고 조사도 헛고, 아 보니까.

@1 게난.

#2 서향집, 북향집이 있어.

@1 계남 그때는 몇 거리를 조사했수가?

#2 성읍 전체.

@1 전체는 몇 채 정도 됩니까 여기는?

#2 예, 성읍리가 그때 전체 초가집 뭐 이 상태니까 거의 이 상태 그 저 초가집 거의 이 상태.

@1 그니깐 남향하고 동향은 뭐가 합데가?

#2 아, 그런 거 자세히 별로 전할 받아가지고 안 된다는 걸 받아가지고 안 돼겠다 이거 내중에 무슨 일이 나면 책임추궁도 당허곡 안 돼겠다 해서 부랴부랴 남향 집으로 간 해서 마을회관 헛수다. 이디는 마을회관 짓젠 현 디.

@1 아, 경헨 저쪽에 강은에 짓은 거구나예.

#2 늦게 알아십주. 그 전엔 몰란

@1 예.

#2 아이, 그 전할 받아갖고.

@1 예. 맞수다. 집 짓젠 허면 그 사람 운에 따라서 이제 방향을 정해서 하는데 보통은 동향하고 남향을 주로 짓는 거라예? 그 이유는 잇인가마썸? 무사 동향하고 남향을 선호헸신고예?

#3 아, 그니까 아까도 그런 얘기를 헛주만은. 그 남향은 우리 저 베운 대로 헛 빗도 잘 들고 생활허기가 좀 편허니까 그렇고, 이 동향 같은 집은 아침에 헤가 일 짝, 뜨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이 남향집보다 온도 차이가 이제 나고.

@1 응.

#3 우리 그 지금 여기 그 옛날 그 이 저 마을 그 동헌, 그니까 그 월님의 집무 실도.

@1 응.

#3 여기 남향으로 크게 지엇다가 지금 뜯어 가지고 새로 동향으로 지엇습니다, 저.

@1 응.

#3 저기 가 보면 그.

#1 현청사.

#3 현청사, 현청사가 아니고 저.

#2 근민헌.

#3 근민헌.

@1 근민헌예. 옛날에 잇던.

#3 그것도 웨 이거 이렇게 좋은 집 말여 혈어 두고 이렇게 동향으로 짓느냐, 물으니까 아 이거는 이 저 조사를 헤 보니까 집이 동향집이어. 동향집인 걸 몰라가지고 남향으로 지어 버리니까 마침 태풍에 이 저 훼손되고 그러니까 동향으로 지

었다. 이 어땠 저 동향으로 지은 이유들이 있을 거라 허멍허니까 뭘엔 허느냐민 이거 그때 현감이 와 가지고, 이거 그 저 목수들이 허는 얘기가, 현감이 와 가지고 이녁 띠에 안 맞으니까 동향집 짓어실 거우다.

@1 응.

#3 영 허길래 나가 아, 게민 그런가 자세히 우리가 그 뭐 알 필요가 엇고, 그 저 발굴허는 분들이 발굴헌 대로 이거 복원시키는데 구나 허곡, 그거밖에 그 저 저는.

@1 예.

#3 그런 들은 기억이 없어요.

### 구조

@1 예. 알앗수다예. 게민 아까 이제 돌아강예? 삼관집 해서 이제 허면은 그 구들허고 큰구들허고 족은구들 그 사이는 뭘렌 헛수가, 여기는?

#1 삼방.

@1 삼방.

#1 으.

@1 응. 삼방이렌 허고예.

#1 마루주 그니까. 삼방.

@1 그니까 옛날은 마리 이런 말은 잘 안 써서예?

#1 아니, 무사 뭐 그때는 마루.

#3 그대로 복덕방도 많앗주마는 저 헛꿈 허민 마리 놓젠 허난, 마리 놓젠 허난, 마리를 놓젠 허민은.

@1 예.

#3 어땡허느넌 허민 저 산에 가근엥에 낭을 하나씩 베어 오는 거라. 소예.

@1 예.

#3 소예다가 그 나무 꺾뎡이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거를 소예 해서 나무 하나 끌어오면은 이제 막걸리 한 잔에 옛날 돌레떡 하나.

@1 아.

#3 그런 식으로 주어가면서 그걸 헤다가 이거를 그 옛날엔 다 그 쪽마루잡아요? 이, 저.

@1 예.

#3 요만큼씩 헤 가지고, 요만큼 넓이로, 이걸 다 자귀로 아, 저, 저, 도끼로 깨 가지고 그 선, 선자귀라고 해서.

#2 옆자귀.

#3 큰 거, 큰 거.

#2 옆으로 까끄는 거.

#1 귀자귀.  
 @1 귀자귀.  
 #3 그걸로 헤 가지고 그걸로 해서 까까 가지고, 거 지금 우리 집에도 그 한 백 한 이십 년쯤 된 마루가 그대로 지금 있는데.  
 @1 예.  
 #3 그 다 나무를 그렇게 헤 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그 마루를 놓았다고 우리 저 할머니들이 살 때 그 말씀하시던데.  
 @1 예.  
 #2 아까 운반 그, 허는 그 것이 지금부터 백 년이나 이백 년 전쯤 그렇게, 백년 전엔 그 모습이 엇엇수다.  
 @1 예.  
 #2 백 년 전이.  
 @1 게난 들은 이야기잖아예?  
 #3 아, 실제로도 집에 잇고요. 마루가 놔 잇어요.  
 @1 아니 아니. 그 저 쉼 헤갓고, 그 낭 꺾어왔덴 헨 말은 누게한티 들언마썸?  
 #3 우리 할머니.  
 @1 아 할머니한티.  
 #2 그러니까 백오십 년 전이나 이백년 전에 그 지을 때에 헤난 거.  
 @1 예.  
 #2 백년 전에, 나가 팔십칠세, 그땐 그런 상황은 하나도 없고.  
 #1 우리 태어나서는 그건 못보고.  
 @1 그러니까 어머니들 할머니들한티 들은 거 아니라예?  
 #1 예.  
 @1 예, 알앗수다. 게은 이제 보통 삼관집을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그 만약에 정제가 그냥 원래의 집에 잇으면 족은방 옆에가 정제고.  
 #1 예.  
 @1 그다음에 가운디는 삼방이고.  
 #1 상방이고. 안쪽 큰구들에 또 고평.  
 @1 옆에는 고평이고. 그다음에 집 앞이도 또 잇지 안 허우파?  
 #1 텃마루.  
 @1 텃마루를 여기선 뭘렌 굴앗수가?  
 #2 난간.  
 #1 난간.  
 #2 난간이라고 헛수다.  
 @1 난간에.  
 #2 예,

@1 계난 뿔마리라고 안 행 난간이렌 현 거라예?

#2 뿔마리도 허고 난간.

#3 뿔마리엔 말도 많이 쓰고.

#1 옛날, (하하) 옛날 들은 말이주, 기자.

#2 구조가 다양해십주게.

@1 예.

#2 그 뿔 하나 건 엇이 보니까 큰방, 큰방 예염에 고팡, 마리, 또 부엌, 정제 잇  
영. 정제 옆의 작은방이엔 잇인 디도 잇곡 엇인 디도 잇곡.

#3 작은방 엇는 디가 많아. 많고.

@1 예. 엇인 디가 하예. 계민 보통 이제 허기 되면 구들은 하나, 삼관집은 하나  
나 두 개. 식구 하면은 어떻게마썸?

#3 아, 식구 하도 다 그렇게 헨 살았주.

@1 응.

#1 오망오망오망 뿔 현 구들에 자는 거주 무신 뿔.

@1 오망오망 자예?

#1 아, 옛날. 요새, 요새는 다 영 옛날엔 그렇지만 다섯 식구 으섯 식구도 현  
방이주 무슨, 현 스무 설, 뿔 스무 설이 뭐라 현 열여덟 뿔가민은 뜯롤 재와야 어  
명 아방이 자지 못 허니까, 뿔 그때부터 죽은방을 생기길 시작헌 거주.

@1 응.

#1 계민 요새 7뜨민 연애를 합니까?

@1 응.

#1 거민 저 뒤로 와근에 솔짜기 곶앙 지네끼리 뿔 얼버무렸주게 무신. 계니까  
옛날은 지금 7추록 허지 안 행 옛날은 다 모다들영 발 막안 잣주 서로 뿔, 응.

@1 맞수다, 발 막앙.

#1 어, 계난 쥘게 두린 것덜은 안자리 영 돛은 더레 허곡, 우린 밧자리에 해당  
뿔고 경 헛주. 아 우리도 경허연 살았어게.

#3 아, 식구 한 집은 어디 놀레 갓당 늦게 들어오민 발 놀 디가 엇는 거라.

(웃음)

#1 문딱 사름이 막 다 들어누워 버리니까.

@1 예.

#3 거고, 이 저 집 구조는 보통 이제 삼관집이나 이 저 이렇게 허면은 앞에도  
구돌문.

@1 예.

#3 삼방문, 그다음은 이 저 정젯문 영 이시민, 뒤에도 요기 안방 이 정제 바로  
뒤에가 저 고팡이니까. 고팡문 잇는 집도 잇곡 고팡문 없는 집도 잇곡. 그다음 이  
삼방도 꼭 그 통풍을 위헤선진 몰라도. 이 뒷문 잇곡.

@1 예.  
 #3 또 정제도 꼭 뒷문을 잇어 가지고 그 뒷문 바로 뒤에는 장독, 장독대.  
 @1 장독대는 이 동네선 뭐렌 험니까? 장독대, 장 놓는 데.  
 #1 아, 여기서 그냥 장독 놓는, 장독.  
 @1 장팡뒤.  
 #3 장독, 장 담양 그자.  
 @1 게난 그걸 장팡뒤렌 안 헤마썸? 장항두에. 잇어 불언예? 건 우리 여자 삼춘  
 덜한티 들어봐야크라.  
 #3 장항 놓는 디 뵈산디.  
 #2 아까 이야기주만은 마루, 마루 엇는 집이도 많이 잇어났수다.  
 @1 예.  
 #2 마루가 잇고, 마루가 엇인 집은 북덕방이라고 헤가지고양.  
 @1 예.  
 #2 검질 이 뭐 저 깔아 가지고 가운데 저 불 때는 거 돌로 이렇게 부섭이라고  
 험니다.  
 #1 부섭, 부섭.  
 @1 예, 예. 부섭.  
 #2 거 해서 험 집도 잇고, 마루 논 집도 잇고, 여긴 두 가지로 잇어났수다.  
 @1 예. 게문예 다시 한번 제가 삼춘한티 들어보크라예. 우리가 북덕집 할 때 이  
 게 삼관집 아니우파예?  
 #2 예.  
 @1 이렇게 세 칸, 그럼 여기를 북덕방으로 만들라마썸? 가운데를.  
 #2 예, 예.  
 @1 마리를.  
 #2 마리를 안 낳.  
 @1 아, 예. 옛날에 이간집은 정제를 북덕방추룩 써신디예?  
 #2 예, 이런 집도 잇어났주. 나가 건 나가 그런 집을.  
 #1 이거 원래 마루가 잇는 것이 아납주게.  
 @1 예, 예.  
 #1 검질 깔아근에 북덕방 아까.  
 #3 아이, 게난 그거는 미쳐 마리를 못 놓니깐.  
 @1 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  
 #3 노동력이 없으니까.  
 #2 옛날엔 마리가 엇엇단 차차 발전뵈면서 마리를, 마루를 만들지 안헤신가? 건  
 우리가 요런 것도.  
 @1 봐나난.

#2 뵈, 이런 디서 우리가 우리 집은 엇어났수다만은 땀 집인 잇이난 7찌 놀곡.  
 #3 아이 보통 이 부섭이 저 삼방에 허질 안 허영은영에 부억에 허영 기자 그디 서.

#2 아, 부억에 현 집도 잇고.  
 @1 피도 물리곡.  
 #3 노도 꼬곡.  
 #2 예.  
 #3 이, 저, 미시거 조코고리, 조도 툃곡. 저 피도 옛날은 타작을 허젠 허민 그걸 다 조코고리, 그 피고고리를 다 호미로 다 따가지고 쟁 그 부섭을 그디 겨울에 꼭.  
 @1 예.  
 #3 가을에 막 저 얼지 앓을 때까지는 농사를 이제 거두와들이고 그때 그 당시에는 이런 저 조 같은 거 피 같은 거, 웨 조하고 피가 주식이니까. 그거 헛다가 이제 겨울에 막 추우믄 그때 뵈야 그걸 툃양은영에 장만헤영 도께질헤영은에 밥헤 먹곡 헛주게.  
 @1 예, 알앗수다. 하나씩예? 이젠 삼춘만 곱읍서예. 이제 삼춘 아까 북덕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헤줍서. 그 마루, 그 북덕방 이신 집은 그 방 구조가 어떤 것들이 이십디가?  
 #2 방 구조는, 아 여기 바로 여기 마루에서 여기가. 아, 이렇게 앓앗으니까?  
 @1 이렇게, 이게 남쪽.  
 #2 여기가 주로 큰방.  
 @1 예.  
 #2 요기가 큰방, 여기 이게 곱팡.  
 @1 이게 큰구들.  
 #2 북덕방.  
 @1 예.  
 #2 여기가 정제.  
 @1 이건 전부 행 정제.  
 #2 예, 정제. 또 작은방은 또 요기다가 영 꾸미민 작은방 셔나고.  
 @1 그 작은방 이름은 뵈렌 불러났수가?  
 #2 작은방, 작은방 우리 헝 덕에.  
 @1 죽은구들.  
 #2 예, 죽은구들.(웃음)  
 #1 저 안구들이렌도 허주게.  
 #2 죽은구들.  
 @1 안구들.



#2 족은구들.

@1 안구들에. 족은구들을?

#1 안에 잇다 허는 식으로 안구들.

@1 예, 예, 안구들예.

#2 우리, 나도 그런 방에 살아났는데, 족은구들, 족은구들 헛수다.

@1 그러면 그 족은구들은 나중에 이 멘들 수도 이시켜예?

#2 그때 만드는 과정은 나가 안 봐서.

@1 안 봤는데.

#2 우리가 그딴서 태어나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만드는 과정은 내가 안 봐서.

#3 이 식구 한 집덜이 보민 족은구들이 다 있어.

@1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족은구들을 여기서는 안구들이렌 헨 거라예. 웨냐면 가끔가다가 안구들 허면 큰구들로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예.

#3 아.

@1 여기는 큰구들은 큰구들, 제지내고 허는 거기가 큰구들에서 허는 거지예?

#1 예.

### 집 짓기

@1 예, 알았수다. 안구들이 족은구들. 그다음에 이제 그 삼춘, 집 삼간집 직접 짓어 봅디가?

#1 예.

@1 삼간집 짓젠 허면.

#1 어.

@1 땅 다지는 것부터 시작행예, 한번 쪽 굴아봅서. 뭘부터 시작헤야 뉘는지. 삼관집 완성헤 보게마썸. 말로.

#1 어, 저 집짓는 데?

@1 예. 맨처음 집 짓젠 허면.

#1 우선 포, 포.

@1 아니, 땅부터 다지고.

#3 아니게. 달귀부터 짓어살 거 아니우꽈?

#1 아, 그 처음부터 기초부터?

@1 예. 처음부터. 예게 고사지내는 것부터 시작행.

#1 우선은 언제 헌다면 고사 지내는 집도 잇고, 그때도 고사 지내민 심들엇거든.

@1 예.

#1 건데 고사 처음이랏고. 그다음 달귀도 여기 뭘 허는 집 잇고 안 허는 집도

있고, 옛날은 그렇게 달귀부터 합디다, 보니까.

@1 예.

#1 겐디 나 혈 때는 달귀는 없었고, 그자 바로 설계로 들어가는 겹주. 기자 집 만드는 걸로.

@1 예.

#1 겐 낭 헤다근에게 기자 어느 집터 허민게 어 상하층 멧 저 얼마 크기 기냥 기려낭 목수?라 메경 이걸로 헤 줍서 허면은 목수가 알앙 기자, 뭐 첨 낭 다듬어 근에 집을 짓는 겹주. 경허민 내부에 들어가든 뭐 나무 이름 곤젠 허민 무슨 포부터 종포, 무슨 뭐 지둥 뭐 다 그렇게 헤연 짓어났주. 나 헤보난에.

@1 응.

#3 아, 그 소리.

@1 그거를 촌근촌근 허나씩.

#3 그 소리허는 거 잊지 안허우파? 이, 저.

#1 달구소리.

#3 달귀소리 말고 이 저 보통 이 저.

@1 응.

#3 어른덜 이 흑질혈 때나 영 허민, 뭐 보면 이 저 포 걸라 무신 저 상무루 허 영 무시거 저 테기 허곡 허멍 막 그 소리로 그 저 허는 할망덜 지금 이디 소리허는 할망들이 엇어부니까 거지.

#2 게난 집지을 적에게.

#1 거 소리허는 할망덜.

@1 예. 잠깐만예, 삼춘이 곱읍서.

#2 어튼 집이서 살아시냐 허면 지금 근대 초가 짓는 방식허곡 또 그 옛날에 집을 짓는 건 안 보고 우린 짓은 집에 살앗는디 짓은 집의 구조를 보니까.

@1 예.

(잡담)

#2 주춧돌로 놓고 기둥을 세우고 헤났어. 담은.

@1 예.

#2 담은 이만씩 헌 담은, 저 돌 헤다가 흑 하나 놓고, 한 칭 놓고, 돌 놓고, 흑 한 칭 놓고 돌 놓고 해서 집을 지은 집이 난 살앗수다게.

@1 예.

#2 근대는 저 뭇니까, 담부터 막 다놔근에 저 서리 걸쳐부려.

@1 예.

#2 게난 요새 근대 초가집 짓는 뭇허고 옛날 거허고 틀렸다는 걸.

@1 예. 게문예. 다시 한번 확인할게예? 삼춘이 옛날 살앗던 집은 삼간집이우 파?

#2 예. 삼간집.  
 @1 삼간집예? 그러면 삼간집이면 그 포가 멧 갯디가?  
 #2 아, 그것까진.  
 @1 건 모르고.  
 #2 예.  
 @1 계난 포를 놓고.  
 #2 예.  
 @1 그다음에 돌 하나 놓고.  
 #2 예, 담, 담혈 때 축담혈 때.  
 @1 축담.  
 #2 축담혈 적에는 그렇게 쌓습디다.  
 @1 아, 돌 한 줄.  
 #2 흑.  
 @1 흑 놓고.  
 #2 예.  
 @1 계난 그 돌 크기들이 족아마썸?  
 #2 큰 게 아니라.  
 @1 아, 큰 거 아니예. 계민 축담을 혈 때는 거는 한 겹만 허는가마썸?  
 #2 한 겹, 한 겹.  
 @1 한 겹으로. 계민 이 축담이 잘도 얹아시키여예? 옛날에는예?  
 #1 경해도 그것이.  
 #3 이 저 자빠지거나 뭐를 안 허니깐.  
 #1 저 근래 와서는 흑 놓곡 돌 놓는 거 그런 집은.  
 @1 없고.  
 #1 으, 나도 안 헤 보고.  
 @1 예.  
 #1 어, 담 둘러 다 가지고 흑질 허는 거. 아까 식으로 침 테기. 테기는 각 저 뭐 허는 거니까 쟁 저 흑 불르고.  
 #3 거 테기는 여기가 만일 삼방이곡 저짜이 방이곡 허민 이 사이를 막을 때 여 기 테기라고 나무로 헤 가지고 요렇게 헤 가지고 전부.  
 @1 여깁.  
 #3 여꺼 가지고.  
 @1 예.  
 #3 그디, 저 새라고 헤 가지고 중간중간 놓는 그 저 나무가 잇어요.  
 @1 예.  
 #3 헤 가지고 그래 가지고 흑질을 이제 양쪽으로 이제 손으로 이제 싹 바르면

은 이렇게 이제 아주 이쁘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도비지가 없으니까 보통 그자 신문지나 저 비료도 다 수입할 때 그 종이덜 그 비료 담양 온 거 그걸로 허영 이제 많이 도배를 허여마씨.

@1 예.

#3 겨고 이제 저, 좀 선비나 사는 데는 그 연습해난 그 저 종이.

@1 글 써난 화선지 그거?

#3 예, 그게 종이가 그렇게 귀한 시절이니까.

#1 뭐, 귀혈 때난게, 귀혈 때난 아까 그 푸대 곤는 말 나왕 저 뭐 종이 엇이난, 거벳긔. 신문지 불량 거벳긔 엇어나난게.

@1 예.

#1 요샌 막 짹허든 딱 헛주마는 옛날은 참.

#3 경허고 옛날엔 못살아도 집을 짓젠 허민 만일 우리 큰아들 집을 짓젠 허민, 두 번째 아덜을 집 짓어 주젠 허민 못 살아도 꼭 토신제를 지내여.

@1 예.

#3 게, 토신제 지내젠 허민은 이 띠가 안 맞으면은.

@1 예.

#3 띠가 안 맞으면 다른 사름 이름을 빌어 가지고라도 꼭 그 토신제를 짓어 가지고, 지내 가지고.

#2 내용에 맞아사.

#3 저, 저, 집을 지엇주게.

@1 응.

#3 게난 나가 내년 집 짓으켜라 허면은 그게 멋대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그 자기 운이 맞아야. 경 허면 이제 나가 띠가 안 맞으면은 우리 이 형님이라도 이름 빌어근영에 경 해근에 토신제 저.

#2 개토제주, 개토제주양.

#3 개토제. 아 집 짓는 디마다 지금도 개토제는.

#1 아까 굿사 그 하르방 이레 옅센 해도 그 분이 주로 허는다.

@1 아.

#1 아까 하르방 나 걸읍센 해도 아아.

## 개토제

@1 아, 기구나. 게문에 삼춘, 아까 개토제렌 헤 토신제렌 헤?

#3 보통 이 저.

#1 개토제엔 헤.

@1 이 동네서.

#3 개토제라고.

@1 계난 개토제는 집을 짓기 전에 하는 거잖아예? 개토제 허젠 허민 어떤 식으로 뭘 행은엿 제 지내는 거우꽈?

#3 장독 하나 허곡.

@1 응.

#3 그다음 이디 그 토신제 지내젠 허민은 이런 거 저 뭐니 옛날은 이 저 이런 서숙밥, 서숙밥.

@1 예.

#3 그거 허곡, 또 무신거 멩테, 또 생선.

@1 응.

#3 거 감주도 거 담양.

#1 생감주.

@1 응.

#3 생감주라고 여기 그 저.

#1 청주, 소주.

#3 생감주허곡 감주는 틀리주게. 감주는 뭐냐문 그 골 놓곡 헤영은엿에 그 요즘 말로 하면 식혜 모양으로.

@1 응.

#3 그런 거 허고 저, 술도 담앗당은에게.

@1 생감주는 머우꽈?

#3 생감주 이 저.

#1 골 낳은에 그.

#2 익히지 아니헌 거.

@1 영 딸리지 안 헌 거?

#1 딸리지 안 허영, 생차.

#3 생감주 허젠 허민 다 딸려얍디다. 안 딸령 어떻 생감주가 나오니까게.(웃음)

#1 아, 청주, 청주 만들젠이.

#3 거 청주는 술이고, 생감주허고 청주는 근본적으로 거, 감주허고는 감주는 달 감이고게 우리.

#1 골감주, 골감주.(웃음)

#3 그래 가지고 이제 술도 집에서 그 좁쌀로 헤가지고 오메기떡 행은에.

@1 예.

#3 담앗당 아주 정성을 들이는 편입니다.

@1 음. 계난 그 개토제 잘허는 분은 누게라마썸? 이름이.

#1 아까 그.

@1 아까 그 할아버지 삼춘?

#1 그 형님도 이레 읍센 허니까 발 아프덴 허멍.

@1 내뽐서. 이땅은에 강은에 물어보면 됩니까.

#1 아, 응.

#2 지금 그 일을 마탄.

@1 지금 허는 거예. 알았수다.

#1 지금 현재도 저 어른이 전부. (전화소리) 저 형이 저 허니까. 현재??지도.

@1 예.

#1 우린 뒤에서 기자 망만 보고 이십주.(웃음)

#3 (전화)

@1 음, 그러면 이제 그 집짓기 전에 바로 개토제를 해 갖고 짓는 거라예?

#1 예, 예.

### 축담 쌓고 포 걸기

@1 게난 아까 그렇게 헨 다음에 축허고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목수한테 말 길 거 아니우파예? 게민 목수한테 허면 축담을 싸고.

#1 응.

@1 그다음엔 뭘 만들어? 축담 다 싸지면.

#1 아, 축담 다 싸면은 목순 목수대로 일허곡. 이제, 이제는 포 걸기 시작할 겁 주게.

@1 예.

#1 축담 다 싸니까 이제 포, 양포. 포는 두 개

#3 쌍포.

@2 포 걸기 전에 축담을 먼저 쌓습니까?

#2 예.

#1 우리 아까 곶은 식으로 도면 기려 놓으면은.

@1 예.

#1 어, 멧 자 딱 허면 이제 축, 저 담을 싸기 시작헉주게.

@1 예.

#1 쟁 담 다 다면은 뭘 목수도 이것 출처라 허믄 포 올림 시작해 가면은 흑질도 허고.

@1 응.

#1 포 올리고 기냥 다 만들어 헤가민가.

#3 웨냐 그러면 우리 서민들 사는 그 저 집은 담부터 문저 다야 포 걸어가지고 그다음 이 저 서리를 포가 다 올라가고 마루꺼지 다 저 올라가야 이, 저 서리를 걸치기 시작을 허고, 이 관공소의 집들은 옛날도 어떻게 지었냐면은 전부 기둥부터.

@1, 2 응.

#3 딱 해가지고 형체를 딱 만들어 놔 가지고 지붕에서 요만큼은 한 한 자나 두 자씩은 다 그까지는 놔두고 담을 담니다.

@1 응.

#3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는 그 테기 해가지고 저 흑 불르고.

@1 응.

#3 게고 이 서민덜 사는 집은 담부터 문딱 다 낳은엔에 이제 그.

#1 포 걸곡.

### 흑질

#3 이제 그 비 오민 자빠지카부덴 이 담 다명 흑질은.

@1 응.

#3 이 저 동네사름덜이 다 수눌음으로.

@1 예.

#3 이 저.

#1 흑질혈 땀 막 목시혈 땀 막 마당에 흑 갖다냥.

#3 이 목시엔 해도 목시가 전부 허는 게 아니고 목시 훈 사름 이렇게 이시민 동네 그 장정덜이 와가지고 ㄱ찌 낭도 까까 주곡 다듬아 주곡 거죽도 벗겨 주곡 다 그추룩 헤영은영 허지, 목시 혼자만 지금 모냥으로 그 저 직업적으로 해가지고 (웃음) 처음부터 꺾꺾지 다 허는게 아니고 수눌음이 거긴 하영 들어가.

@1 동네 사람 모다들영 해주는 거라예. 누구네 집 짓엄저 허민. 예.

#3 게민 흑질헬저 허민 마당에 흑질혈 걸 마당에서 파. 게민 여자덜은 허벽에 물 질어오는 거에 그.

#1 것이가 부지라.

@1 응.

#3 그 부지고. 그다음 이 남자덜은 쉼허곡 이제.

#1 밧 불령

#3 이제 물이나 쉼나 물이나 허영.

#1 흑질에 들어강.

#3 그 흑을 꾸영.

@1 응.

#3 산뒤짚이나 아니민.

#1 모믈썩.

#3 이 저 모믈썩 낳은에

#1 그신새.

#1 썩허고 흑을 막 문대문은. 이게 짤라서 놔도 그게 또 쉼발에 끄차도 지곡 영 허면은 이런 테기가 영 엉글엉글허게 해도 탁 붙이민 떨어져 나가질 안 해가지고

그, 이 저 째에 째에 이제 다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저 흐끔 톤아진 사름은 흑질혈 때도 막 손가락으로 그 테기 트멍더레 흑을 담양은에.

@1 응.

#1 경 헤사 안 떨어지주.

#3 안 떨어지곡 든든하고.

#1 기자 영 허민 떨어져 불고.

@1 예.

#1 고망마다 그니까 손 다 베어. 무신 그때 장갑 있어? 장갑도 엇주.

@1 맞수다.

#2 (웃음)

#1 요새 7뜨민 고무장갑이라도 찌주마는 허당 보민 훈 잔 먹은 짐에 허당 보민 손이 다 굵어불곡. 아까 이 사람 굴암구나마는 테긴 영 고망이 뉘어 있어 이렇게.

@1 예.

#1 딱 영허게 쪽 일로 영 딱 밀문 야 조그만이 밀리라 이레 나온다. 야 이거 양 쪽에서 7찌 올라가야지.

@1 테기 허젠 허민 양쪽에 상 헤야 되는 거구나예? 흑질을예? 아.

#1 어, 아까 식으로 탁 고망에 그런 거 아까 저 산뒤째이영 모믈째 낱 그 저 흑질, 흑질을 허는데 거 그것이 그거 힘으로 흑이 부뜨는 거라.

@1 예.

#3 게민 울로 영 고망 나민 이쪽 잇는 사람이 올라상 숙 썰면은 이것 딱 드레 또 들어오는 수가 잇거든. 경 허당 보민 뭐 멘짜허게 그렇게. 옛날엔 거 다 동네 사름 모다들영 집 짓지, 혼차 집 짓는 거 아니여.

@1 맞수다.

#3 공동생활이라고 춤 그 또 아까 우리 총무도 굴앗지만은 흑질혈 때는 부지가 물허벅으로 물 질러다 주는 것이 나 멧 번 완, 서너네 번씩. 또 어떤 사름은 괜당 쯤 뉘 사름은 거 마지막7진 헤알 거니까.

@1 예.

#1 보통 사름은 훈두 번 헤근에 기자 왔다간 승시라도 허고. 게난 옛날엔 집 짓을 때는 다 몰려들어서 다.

@1 예.

#1 우알동네가 엇어.

@1 아, 맞아.

#1 누게네 집 짓엄저 허민 그자 그날 흑질날, 전부 누가 동원시킨 것도 아니라.

@1 응.

#1 그땐 그렇게 춤 이웃 간에 춤 좋앗지. 요새 닳지 안 허영.



@1 계믄예 아까 이제 다시 또 돌아갈 거.

#1 예.

## 포

@1 이제 축담허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포를 걸 거잖아예?

#1 예.

@1 포는 멧 개우파? 삼간집 헐 때.

#1 저 삼간집 두 개.

@1 두 개. 무슨 포, 무슨 포?

#1 이 장포가 잇고 종포가 잇고.

@1 예.

#1 거 포 우에.

@1 예.

#1 게서 이 포 검 시작허믄은 이제 상량식. 서리 걸면 상량식이야 헐 때는 또 동네 어른덜 와근에 또 친촉들허고 뭐 행 그땐 뭐엔가, 광목인가 뭐 올려근에게, 그때 독도 행 그레 놓고 뭐 허는 상량식헐 때 식으로 그렇게 그, 목수도 그날은 목수가 쉬는 날로 해서 아마 그 옛날부터 그걸 헤나신고라. 아니 나가 집을 두어 서너 개 춤 아까 굴앗주만은 짓어 보니까 마 그러허더라고이.

#3 포를 걸어난 다음에는 우선 이 마루를 세와야 뵈 거니까.

@1 예.

#3 마루를 세와난 다음에는 귀포를 걸어.

@1 귀포.

#3 귀포는 이 이렇게 헤가지고 이 나무가 이렇게 큰 포가 낚지면은.

@1 이렇게 하면 이게 포가 뵈 거 아니라예?

#3 예.

@1 예. 포가 뵈고.

#3 포는 이 중간쯤에 허믄은.

@1 여기는 상무루 아니?

#3 예. 계민 이게 포면은.

@1 예.

#3 그다음은 이 귀포라고.

@1 예.

#3 귀포는 나무도 좋아야지만은 길어, 다른 것보다는. 웨냐면 여기서 요렇게 나무가 낚, 포가 낚 잇으면 요기서.

@1 모서리에. 응.

#3 모서리에 놓는 거를 귀포라고.

#1 저, 저 추년.  
 @1 추년.  
 #1 추년서리.  
 #3 예, 추년은 영 나온 게 추년이고마씀. 이, 저 줄 때는 아래가 추년이고.  
 @1 응.  
 #3 이거는 귀포마씀.  
 @1 계난 귀포 밑에 추년을 허는 거 아니라예?  
 #3 귀포.  
 @1 추년서리에.  
 #3 저 추년서리는.  
 @1 응.  
 #3 저 귀포에 영 보민 이렇게 포를 걸면 서리를 걸면은 요만큼씩 그 저 밖으로 이 비 들이빠지 말게시리 이걸 많이 냉기지 안 험니까.  
 @1 응.  
 #3 그 육지도 보면 기와집 짝 허게 멀리 나가가지고.  
 @1 예.  
 #3 그런 식으로 그 아래가 추년서리고. 이 우선 귀포를 걸어놔야 서리를 이제 걸게 됬은 이걸 다 전부 간격은 이쪽은 요만큼씩 해도 요딘 가민 다 다닥다닥 붙을 거 아니꽈?  
 @1 예, 예, 예.  
 #3 그렇게 헤가지고 현 다음에는 서슬 허고.  
 @1 예, 다시 한번 정리에. 그다음 우리 집 짓젠 허민 지붕을 이제 올릴 거니까. 그 전에 아까 포가 장포 있고.  
 #1 예.  
 @1 그다음에 종포 있고, 종포는 멧 개우꽈?  
 #1 종포도 두 개.  
 @1 장, 장포는?  
 #1 장포도 두 개.  
 @1 장포 두 개, 종포 두 개라예.  
 #1 으.  
 @1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허는 게.  
 #1 계난에 장포는 절로 요 사이 보고 장포라고 허고.  
 @1 예.  
 #1 또 위에 또 저 양쪽에.  
 @1 그려 줘서.  
 @2 잠깐 그럴 게예? 일반적인 지붕 구조가예. 보통 우리는 대들보라고 얘기하

는데 걸 장포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긴 하네예.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마루, 마루에 종포, 요게 두 개가 생기잖아예? 요게.

#1 이거 저 이거는 저 곱은도리에 저, 곱은도리 아래 받치는 거. 그 알로 받치는 거 요 삼각형 올로 요 새 받치는 거보고, 거 뭐엔 골아라마는 나도.(웃음)

@1 곱은도리?

#1 거 뭐엔 곧나마는 나도, 부쉐엔?

#3 그 휘지 말라고.

@1 부쉐?

#1 부쉐?(웃음)

#3 아, 이거 ○○아방이 그거 잘 아는다.

@1 그거는 나중에 또, 나오거든예. 그니까 이제 포가 아까예? 장포가 잇는 거고 여긴 대들보렌 말은 안 헤여? 삼춘?

#1 아니 그런 말은 들어보지 못 허고.

#3 무사 대들보.

@1 대들보. 무사?

#1 장포. 기자 포 놓을 때 기자 들은 소리주. 종포.

@2 장포라는게예, 집이 요렇게 잇으면, 이쪽 방향이 아니고 요쪽 방향으로 허는 거잖아예?

#1 아니, 여기 허민 저기 훈 멧 메다 념겨동 요 특으로 요 사이에 허는 거 보고 장포고.

@2 예, 예.

#1 포. 그다음에, 아까.

@2 장포 위에다가.

#1 그 우에다가 중심.

@1 잡는 게 종포.

#1 여기 중심 양쪽에 뭐이가 그.

@1 종포.

#1 또 그 위에 또 종포. 그 위에 종포. 또 그 위에는 이제 첨 상량식 허는.

@1 상목루.

#3 상량목, 상량목 그거 허는디, 보통 이 포 우이 또 하나 놓곡 그 쥬 나중에 그 상량목.

@2 예, 예.

#3 그 저 놓는디, 지금도 이 저 초집 짓는 사름덜은 거의가 다 그런 식으로 그 이디 문화재 보수.

@1 게난 그 상량목이 상목루우파?

#3 예.

#1 상무루.

@1 예, 상무루가 여기 상량할 때 거기 하는 거잖아예? 가운데 하는 게.

#3 예.

## 서리

@1 예, 예. 그렇게 이제 하면 그거는 이제 좋은, 쉰 낭들을 허는 거고, 춤낭 가 쳐근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리 걸젠 하면은?

#1 돌아가명.

@1 돌아가명, 서리는 무슨 나무로 보통 헉니까?

#1 아까도 글았주만은 낭이 어려우니까 요즘 요새 말로 저 숙대남 거즘.

@1 요만큼 헉 거 죽. 길게 이렇게.

#2 근간이주, 숙대남도 근간에 헉 거.

#3 숙대남은 박정희 그 저 대통령이 지난 후에 그 애림녹화로 헤가지고 이 저 많이 심으니까 이 지금 삼나무라는 게 많이 있지. 그전에는 한라산에 가도 삼나무 뭉, 그렇게 많이 심어져. 일본 가면은 뭉 산마다 가면은.

#1 춤낭, 주로 좇긴 좇았져. 좇앙 엇어가니까 나중에는.

@1 예.

#3 나가 우리 집을 이 멧 꺾 해체헤 봤는데, 요만, 요만큼밖에 안 헤도 이놈의 나무가 못도 안 들어가.

@1 어, 완전히.

#3 춤낭을 쓰니까.

#1 오래 가주. 춤낭.

@1 예, 춤낭예. 다 가시낭 이런 것덜이구나.

#3 지금도 초집이 우리 저 사는 집은 초집인데 거 기둥 같은 거 뭐해도, 좁은 쓴 거 같애도 나가 마루를 뜯어 불라고 이제 허니까 아, 목수가 아이고 이 족한 걸 뜯어 불면 뉘느냐 헨에 그대로 지금 저 허고 사는데. 그 못을 박아도 안 들어 갈 그 나무들이우다. 기둥에도 못을 못 박는다니까, 요즘 피스가 나오니깐 그걸로 박지.

@1 예, 그럼 보통 서리는 허젠 허면 낭이 멧 개 정도 들어마썸? 삼간집 짓젠 허믄.

#1 낭, 약, 그.

#2 숫자가 엇수다. 간격 맞춰근에.

#3 나도 혼 자 반.

#2 그대로 선택헿, 멧 개 기준이란 게 엇읍디다. 크민 큰 대로 하영 많이 놓곡 간격이 어느 정도민 그것에 맞창.

@1 예, 주로.

#1 아, 계난. 저 서리 깊을.  
 @1 예.  
 #1 이 사이가 보통은 흔 자라, 흔 자.  
 @1 예, 흔 자.  
 #1 흔 자 보통 이제 해서 집들이 영 막아정 허는 거니깐. 겐 우이는 뭐해도 집이 이렇게 됩니까.  
 @1 예.  
 #1 이쪽은 쫓아들곡 바깥에는 너브니까 계난 흔 잘 거라.  
 @1 예, 흔 자 너비로 이제 서리를 걸어오는 거라예.  
 #1 아이고 옛날엔, 그거 확 웨와전 저 기억도 됩는디 야, 기억이 잘 안 나네. 예, 약 한 서른 개?  
 @1 응.  
 #1 문딱 행은에 칠십 갠가? 전부 돌아가명 칠십 갠가 여간 그 정도 들 거여.  
 @1 사방으로 이렇게 허는 거난예, 예. 그럼 이렇게 보통 흔 자 허는데 그때 여기에서 흔 자는 오십 썬치.  
 #1 예, 흔 자.  
 #2 그거 나오니까 흔 자가 멧 센친 중 아 거 몰라가지고, 나 이제사 좇았는디 어떤디 알아지쿠과?  
 @2 그게 설이 좀 잊어가지고예.  
 @1 계난 요즘은. 응.  
 #2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가 이때 조사를 하면서 잘 몰라가지고 (전화통화 소리) 대충은 약 사십 썬치, 오십 썬치 될 것이다. 요 정도 될 것이다 알아신디 지금 현재로 멧 센치인지 정확한 건 몰랐단에 나 이거 조사허젠 \*\* 공부하는데 흔 번은 제주신문엔가 나왔어. 오십이 센치로 나왔어. 정확허게.  
 @1 오십이 센치.  
 #2 겐디 그 후에 현물을 또 발견헐어.  
 @1 예.  
 #2 옛날, 옛날 자 나완.  
 @1 옛날 자.  
 #2 계민 정확히 재민 딱 나와 오십이 센치 딱 맞아.  
 @1 예.  
 #2 오십이 센치, 흔 번 신문에 나와서 알았어. 몰라 가지고.  
 @1 계난 옛날 조선자들이 보면은 오십이 센치도 잇고예, 어떤 걸 보든 오십일 센치도 잇고예, 집마다 영 험디다게.  
 #2 조금 차이 나.  
 @1 요즘 현대 자는 우리가 삼십 센치 자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옛날에는.

#2 조선자.

@1 조선자예. 오십 센치예.

#2 지금 현물이 옛날 걸 내가 발견했 지금 보관해 있는데.

@1 예, 예.

@2 갖고 계셔마씨?

@1 사진 찍어야.

#2 신문에도 나십디다.

@2 예, 예.

#2 게 그걸 참고로 헨에 현품을 발견해십주.

#3 거 ○○이 조사한 것엔 한 칠십 개 정도.

@1 예, 아까 삼촌이 칠십 개예.

#1 아까 나 골았어. 대략은 그렇게 될 것이다. 나가 예측해 보는 거지.

@1 예, 예. 웨냐믄 오십 센치 요런 식으로 허니깐. 그러면 삼간집 하면 보통 이 넓이는 어느 정도 헤마썸? 한 칸에. 삼간이난 세 칸 아니우파예. 큰구들 이것도 험디다, 한 발, 뭐 이렇게 헨덴 허멍.

#3 아, 게난 그 집을.

#1 집 평수에 따라.

#3 평수는 삼간집 큰 거는 옛날도 암만 커 봐도 열여덟 평 넘질 안 헛어.

@1 예.

#3 열여덟 평.

@1 열여덟 평예.

#1 십팔 평.

#3 십팔 평, 쪼금 족으면은 한 열다섯 평.

@1 예, 아무튼 이젠 그런 식으로.

#1 보통, 보통.

#3 이 열여덟 평 넘은 집이 엇엇어. 삼간집 열여덟 평짜리민 막 큰 거라마썸.

#2 밧그레, 밧그레는 집을 열다섯 평도 안 나오주? 헨 십삼 평 정도.

#1 (웃음).

## 서슬

@1 경 허영 삼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리 걸고 다 하고. 서리 건 다음에는 뭘헤마썸?

#1 서슬헤야주.

@1 서슬, 서슬은 뭘로 험니까? 이 동네선.

#1 아, 것도 옛날엔 막덩이로, 대나무로 헛는데. 그 대나무가 귀허니까 아 으 중간에는 또 이제 나무.

@1 예.  
 #1 냇바위에 잇는 나무 해당 그 자귀로 깨어 가지고 그, 그걸로 이제 서릴 헛주게. 그때 당시에는 옛날 지금 보면 노꼬아근에 전부 하나하나 이렇게 헛는데.  
 @1 엮어갓고.  
 #1 어려우니까 이제는 줄.  
 @1 예.  
 #1 줄 놔근에 그 고망에 꿰어.  
 @1 아.  
 #1 게민 고망이 이만큼 뒤어. 나무 막덩이 논 건 데깁허는데.  
 @1 예.  
 #1 옛날 집은 이 데깁허게시리 저 양토허곡 우일 다 씩우니까.  
 @1 응.  
 #1 양토를 허니까 뒤허는데. 이제 중간 저 나 7튼 경우는 저쪽 집 헛 때는 힘드니까 거 줄 낱에 기자 꿰언.  
 @1 응.  
 #1 꿰면 흑도 뵤아도 조금 내려가 불곡. 으, 게난 것도.  
 @1 옛날 어른들이 대단한 거라예.  
 #1 게, 나도 집은 멧 개 짓어낫수다.  
 #2 겐디 종류를 보니까예, 저 대나무로 현 디도 잇곡.  
 @1 예.  
 #2 그 전에 건물인가 이렇게 보니까 나무를 이디 솔진 걸 자귀로 깐엔 좀 쪼개서.  
 @1 예, 쪼개서.  
 #2 게 그걸로도 현 디가 이십디다.  
 @1 게은 대나무는 어떤 대나무 씽니까, 여기서는?  
 #3 이 수리대.  
 #2 아, 저 수리대, 여기.  
 @1 수리대예. 다 집에 다 수리대 싱그니깐. 응.  
 #3 거 집 짓으면 옛날 뒤에 방풍으로.  
 @1 예.  
 #3 대나무를 많이 심엇고.  
 #1 거 대나무 심은 아, 저 집 옛날 집 살아낫구나 허거든.  
 @1 예, 맞습니다.  
 #1 저, 옛날 수삼사건 난 후에 철거민도 아 저, 대나무. 아 저기 옛날 사름 사름 살아낫구나 이렇게 생각허주.  
 #3 서슬을 헤나면은.

@1 예.

#3 꼭 허는 게 이 발을, 이 대나무로 발을 짜가지고 요만큼 길게 헤가지고.

#1 어.

#3 집 이렇게 사각 이렇게 잇으믄 돌아가면서 여기 처마에 짝 깔아요.

@1 예.

#3 그래야.

#1 그 서슬 우에.

@1 예.

#3 이 저.

#1 서리가 \*\*은덴 허주. 서리, 서릿가지.

#2 받침이주, 받침.

#3 짝 같은 거 올려놔도 알더레 흘터 불지 아녀게시리.

#2 가지가 든든.

#3 이거 영 새 ㄱ튼 건 영 어웁 ㄱ튼 거민 이게 좀 세월이 가가면 짝 흘터부니까.

@1 예.

#3 발을 딱허게 놓음으로써 이게.

@1 응.

#3 흘르지를 안허니까.

#1 어, 일 메다 길이로 해서 아까 그 짜거든 발을.

@1 예.

#1 걸 보고 발이라고 허는데.

@1 대발이엔 헨 게 그거지양?

#1 이렇게 서리 걸어놔 테기헤나믄 저 우에 서슬헤나면은 그 우에 또 깔아요. 흑 켜 다음에. 그다음에 드는 거보고 발이라고 허지.

@1 발예, 예.

#1 여하간 일 메다 정도 짤라가지고 여깁 것이, 것이 발.

### 발과 펑고대

@1 그러면 그 발은 저 지붕 위쪽까진 안 가켜예? 이 집 가지에로부터.

#3 가지만. 가지만 도는 거.

@1 가지만 뽕 돌아가명예.

#1 요디 가지 꾀깁이 나간다 하면은 이렇게.

@1 어.

#1 요걸 보호해주는 거주게.

@1 예, 예, 예.



#3 서리보단 좀 나가게.  
 @1 서리보단 나가게예.  
 #1 게아녀믄 이걸 안 허면 처저불어.  
 #2 서리보단 나가. 이거는 나가 자세히 공부헛는데, 서리보단 나오는 규격이.  
 #1 쪼금 나가, 쪼끔.  
 #2 십 센치부더 십오 센치.  
 @1 예, 예.  
 #2 나가 거 공부헛주게. 실지 헛고.  
 @1 예. 그거를.  
 #1 서리 꺾갱이.  
 #2 서리.  
 #1 삭지 안 허기 위해서 보호해주는 거주게.  
 #2 이렇게 나와야 뉘요. 이렇게 십오 센치를 나와야 뉘.  
 #1 비가 와도 비 맞아가믄 썩어 불 거고.  
 #3 근데.  
 #2 서리보단 나와야. 나오는 규정이 십 센티에서 십오 센티.  
 @1 서리꺾장 나와예.  
 #3 그리고 서리가 요렇게 쥘 꺾덩이에 오면은.  
 @1 예.  
 #3 이 발, 발 이 펴기 전에 돌아가면서 이 저 나무를 요만이 굵은 놈 헤가지고.  
 @1 예.  
 #3 이거를.  
 #2 고대, 고대.  
 #3 짝 박아 이걸 팽고대.  
 #2 팽고대.  
 #3 팽고대.  
 @1 팽고대. 예.  
 #3 팽고대를 짝 박아야 뉘.  
 @1 예.  
 #3 게 안허민이 거 발이라도 처지니까.  
 @1 예.  
 #3 거난이 발이 처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팽고대를 놓는 거라.  
 @1 아, 발 처지지 안 허게예. 예.  
 #1 서리를 아까도 곱앗주만은 서리를. 만약에 예를 들어 칠십 개 든다 허면 앞  
 에 현 삼십 개 정도 들 걸로 각오를 허면은.  
 @1 예.

#1 딱 이 서리 걸어가면은.  
 @1 응.  
 #1 것이 평면치 못 허거든.  
 @1 예.  
 #1 펑고대 딱 행 못 박아가민 이놈으 거 처졌던 거 우트레 올라와.  
 @1 예.  
 #1 것이 펑고대.  
 @1 게민 삼춘 다시 한 번 정리에. 우리가 서리를 걸고 서슬을 헐 거잖아예?  
 #1 아.  
 @1 서슬 헐 때 그.  
 #1 흑 헤난 다음.  
 @1 서리 우에 흑을 놔서 저기 거릅니까?  
 #2 서리 헤난 다음에.  
 @1 예.  
 #2 펑고대에 묶어. 그 다음 흑질허고.  
 @1 아, 게민 순서, 순서 다시. 게민 삼춘이. 서리를 걸고.  
 #1 예.  
 @1 펑고대를 박고예.  
 #1 으, 펑고대, 펑고대 박곡.  
 @1 펑고대 박은 다음에 그다음 허는 거?  
 #1 서슬.  
 #2 서슬은 다 뉘 거고예.  
 @1 서슬을. 서슬 허기 전에 거기 흑은 안 올립니까?  
 #1 아니 아니, 게난 그 우에 발을 올리는 거주.  
 @1 아 그다음에 서슬을 하고.  
 #2 흑고데허곡.  
 @1 흑고데, 그건 고데엔 허잖아예.  
 #1 어, 고데.  
 @1 고데를 올리고.  
 #1 그 우에.  
 #2 펑고대, 아니 그 다음에 발.  
 @1 아, 고데 현 다음에.  
 #1 서리 헤난, 서슬 헤난 다음, 저, 저 펑고대 메난 다음에 서슬 헤영.  
 @1 예.  
 #1 그다음에 펑고대 헤영, 그다음에 발 돌아가멍.  
 #3 아니, 서슬.

@1 아니, 삼춘 평고대 두 번 골안.  
 #3 보통 이 저 평고대를 딱 허면은. 평고대에 그 서슬 헤 오는 거를 다 썰 나중  
 에 마무리할 때 그 평고대에 무껏어.  
 @1 예, 예, 예.  
 #3 요, 요 상머루에도 무끄곡.  
 @ 예.  
 #3 요기도 무껴야 이 저 서슬헌 게 바짝허니까 이 평고대에다 무껏다고.  
 @1 응.  
 #2 계난 순위는 저 서리 다음은 평고대, 평고대 다음은 흑질이 들어가는 거, 흑  
 질이 그다음.  
 @1 예.  
 #2 지붕 흑질.  
 @1 지붕 흑질.  
 #1 그다음 발.  
 #2 그다음은 발.  
 @1 예.  
 #2 발 다음은 그다음에 \*(잡음) 억새, 억새를 처음에 주로 허면 한 차례 일고  
 두 번째, (잡음) 세 번은 두 번 세 번은 이제 새로 허영 완성되는 거.  
 @1 예. 잠깐 쉬쿠다, 게문예.  
 (식사)  
 (부분생략)  
 @1 우리 아까 이제 서리도 다하고 평고대도 헛잡아예.  
 #1 응.  
 @1 예전에는 평고대를 낭 이런 이런 솔진 낭 헤갓고 이렇게 들른 거잡아예. 요  
 즘 강 보니까.  
 #1 요새는 저.  
 @1 왕대로.  
 #1 \*다루끼, 다루끼로.  
 #3 본래 왕대가. 이 저 썩지 안 허곡.  
 @1 예.  
 #3 썩 바람만 잘 통허면은 오래 갑니다, 그계.  
 @1 예.  
 #3 옛날도 왕대를, 옛날엔 많이 썼는데 지금은 점점 왕대가 이제 옛날보다는 귀  
 허진 안 헛지만은 요즘은 뭇로 많이 헤부느냐면은.  
 @1 예.  
 #3 일본말로 허민 각구목, 사각, 다루끼 좀 얇은 거 그걸로 많이 뒹 버리는데,

그거는 한 삼 년쯤 우리 성읍 같은 경우는 삼 년이면은 삭아 불어.

@1 삭아 불어예. 게니깐 가끔가다가 성읍이 초집 보면은 이 널빤지같이 나무로 해갖고 뒀 건 나중에 헛 겨우파?

#1 아, 건 나중에.

#3 아, 그거는 임시 이런 테기도 허지 아녀곡 이제 해가지고 이 저 뭐냐면 합판 가지고, 합판 가지고 그대로 저 그 팽고대 놔가지고 저 박아근에게.

@1 예게, 합판으로. 아, 거는 원래 그건 아니구나예.

#3 아니 그건 가짜마씨.

@1 예, 게난 옛날에는 진 낭이나 그 저기 왕대로 행은에 헛 겨우나예.

#3 대나무 해가지고.

@1 응.

#3 그 옛날 집 지은 거를 이렇게 뜯으면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못도 귀허니까.

@1 예.

#3 이걸 다 새끼 꼬아가지고.

#1 잡아멧지.

@1 예.

#3 팽고대를 다 서리에 무껏어.

### 집 일기

@1 예. 서리에 무경예. 예, 알앗수다. 게문 이제는 이제 축도 다 허고 이제 서리영 다 걸엇잖아예. 이젠 지붕만 일흔 뒀 거예. 지붕 일젠 허면은 그것도 큰일이라예.

#1 응.

#3 게난.

@1 어떻 해야 뒀니까? 지붕 일젠 허민?

#3 이 저, 지금 이보다 쪼금 일찍.

@1 예.

#3 한 일월 달에 어웁.

@1 예.

#3 어웁 그 이파리가 다 거의 떨어지면은 그걸 비어다가.

@1 예.

#3 초불을.

@1 응.

#3 초불을 이제 아주 두껍게 입니다게.

@1 예, 어웁으로?

#3 그래가지고 어웁을. 어웁도 이런 풀어웁 그 푸린 거 파란색이 들어가면은 일

년 뒤편은 그게 썩어 붙어. 그 좀이 쳐가지고 다 내려앉아버리니까 지금 한 선달, 선달 이쯤 비면은 이 어웁 이파리가.

@1 예.

#3 이 단풍은 들면서도 그 떨어져버립니다.

@1 예.

#3 이 약한 놈덜은. 게문 그걸로 일어야 이 오래 가곡 이 처마, 처마 가는 디는.

@1 예, 집가지에.

#3 집가지에는 그걸 끝으로 놔야 이게 오래 가주게. 썩지도 안 허곡.

@1 계난 이 밑부분을 이렇게 놓는 거잖아예. 이렇게예?

#3 예, 이렇게 놔나가지고 그다음은 이제 그 이 형님네 그 집 일레 다니주만은, 새로 초불 일엇당.

@1 예.

#3 줄을 이제 막 등상등상 매는 거라. 이만씩, 넓이를 이만씩 허게. 열 개 맬 거면 한 다섯 개만 매 가지고.

@1 예.

#3 임시 그 지붕에서 그 띠허곡 어웁이 잠자게.

@1 응.

#3 잠을 잔 다음에 어웁으로 일언에 메틀 잇당은에 새로 잎 시작합니까?

#1 보통은 비도 오곡 뭐 허믄 팔일인디, 팔일 넘어야 줌자지.

@1 응.

#1 팔일 전에 집 일엇당은 안 뒤어.

@1 응.

#3 계난 이젠.

#1 경과허는 것이 팔일, 혼 십일 이상 잇어야주.

#3 경 헛당은에 그 어웁이가 어웁이 다 허곰 줌잔 거 닻으민 새로 초불 일영.

@1 예.

#3 이제 완전히 그 줄을 매는 게 아니고 등상등상 대강 헛다가.

@1 예.

#3 또 쫓 기다려가지고 이 그 집 곧 저 앙토 아년 집, 앙토 안 허고 우이 그 테기 우이 흑 안 올리고, 고데 아년 집은. 이제 저 집짓영근에 강 영 안으로 영 보민 밤에 보민 벨이 소망소망허게 다 보입니다.

@1 아.

#3 낮에도.

@1 예.

#3 그렇지만은 저 옛날 어른덜은 그거는 꼭 그 저 이 앙토는.

@1 예.

#3 필수적으로. 것도 양토허는 집도 좀 뭐 먹을 것도 잇꼭 식구도 잇어야 그 양토를 허지.

@1 예.

#3 양토허는 게 보통 저 힘든 작업이 아니우다. 이 밑, 이 천장을.

@1 밀어야 됩니깐예.

#3 밑으로 이 저 흑을 발라야만 밀어야 됩니까.

@1 음.

#3 경허지 안 현 데는 우이로 흑만 낡.

@1 예, 고대만 올령

#3 고대만 올려근앵예, 찢앵은예, 어웍으로 일앵, 새로 일앵은예 허민은 이제 제 일 마지막 단계에 새로 이제 잘 깔아가지고.

@1 응.

#3 그때는 줄도 제대로 매면은, 이제 줄을 대강 맏다가.

@1 예.

#3 이제 그 맏다가 이제 또 새가 잠자면은 집줄 봉을르는 거라.

@1 예.

#3 게, 집줄 봉을르면 곳.

@1 예, 게문예, 이제 삼춘 집 일레 덩기니까 그 우리 어웍도 퍼런 거는 뭐 무슨 불르는 일름이 잇수가? 익은 거허고.

#1 풀어웍.

#3 풀어웍.

@1 풀어웍허고.

#1 어.

@1 그다음 집 짓는 건 무슨 어웍이렌 곶아?

#3 찢어웍.

#1 찢어웍.

@1 다시 한번예.

#1 찢.

@1 찢어웍?

#1 어.

@1 거는 찢만 이렇게 잇어부난 찢어웍인가?

#1 저 뭐냐? 대나무 식으로 아까 낙엽 떨어진다는 말이 맞추게. 낙엽 떨어질 건 떨어져볼문.

@1 예.

#1 뭐.

#3 이파리영, 그 저 뭐 영.  
 #1 나 뭐 저 음력으로 말하면 말하자면은.  
 #3 선돌 뉘사.  
 #1 시월 말, 십일월 달에.  
 @1 예.  
 #1 걸 거뒀다다가 내년 나가 집 지은다 허면 미리 그 미리 해놓은, 장만을 허는 건데.  
 @1 예.  
 #1 비영 집에 놀었다가 겨은 집을, 봄 나른 집을 짓게 뉘면은 그 아까 얘기대로. 이걸 내 저 그 돌문화원에 간에 그 말을 자꾸 헤지는데, 예 이거는 멍청헌 놈이 와근에 이거 옛날 집이엔 허지 이런 식으로 허지 말렌.  
 @1 응.  
 #1 난 걸 몰랐는데 거 북군에서 관리허더라고.  
 @1 예.  
 #1 북군 직원이 아저썬 어디우파? 허길래, 나 아, 성읍리렌 허니까, 아, 이젠 쪽저렇게 해난, 그리 까진 이유가 뭐, 저 \*\* 이렇게 허난 까졌다고 허지.  
 @1 예.  
 #1 삼십 센터 이상행은 단작 까진다고 내가.  
 @1 응.  
 #1 계난 걷어진 거거든, 걷어전 고칠 때니까 아무튼 나 말 들영 혼 번 해보라고 했지. 게, 삼십 센치 정도 혼번 쫓아가믄, 삼십 센치 뉘어.  
 @1 응.  
 #1 어, 그 높이만 쪽 깔안 이 집을 어웁으로 딱 일엇어.  
 @1 예.  
 #1 게 뉘에도 그다음 아까 곶앗지만 그때는 저 드문드문.  
 @1 예.  
 #1 줄 맏다가 또 또 새로 일게 뉘면 요걸 걷어쫓형 새로 이제 모형을 내\*, 내는 거지,  
 @1 예.  
 #1 모양을. 게믄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를 등체기 갖는데 이렇게 많이 놔볼믄.  
 @1 예.  
 #1 여기가 빵꾸난 이유를 모르겠냐고.  
 @1 으.  
 #1 요것도 얇게 해서 널엇당 또 해근에 이런 식과 이거 하영 낱 허게 뉘믄 천성 까진다고.  
 @1 대개가.

#1 대부분 보면은 이 추년서리광 한간이 항상 이거라.

@1 예.

#1 기와집 모양으로.

@1 음.

#1 지금 저 저디 간 보니까 거 나도 저 일레 가왓지마는 아 거 높은 산 겁나게 헛주마는, 가난 어웁 이렇게 하영 낳은 안 된다고. 적게 놓게 해서 저걸 만들어놔는디. 남문 앞이 지금 새로 만든 거 잇어요. 게, 걸 가 세멘허고 다 이제제 콘크리헤부니까 빈 안 새게 돼어 잇고. 아, 집이 이제 그거 헐 때 보난 퍼런 기와집이라. 모형, 모형이 기와집이어서 거 육지 그거 저 집가지 모양으로. 아 익거 활 재니까. 도저히 이거는 메울라면은 나카나카 춤 워놈 말 써점꾸나마는, 메울 수가 없어.

@1 으.

#1 메울라면 막 또 이런 거 게문 요거랑 저 이디 이는 사름은 하여튼 어, 요레 가게 좀 많이 놓곡 요디랑 조금만 놔근에 우선 덮어 놓으라 헤연 덮어놓은 건디 저 지금은 고와 베도.

@1 나중에 까져볼어예.

#1 내, 내년 봄쯤 만약 허게 돼민 또 까진다고.

@1 으.

#1 천성 이거 까져, 중심이.

@1 으.

#1 계난 이것도 집 이는 사름이 알아맞춰서 허는 사름이 해야 돼는데 이 사람 저 사람 헤나든 우리도 가근 뭐 또 파 잣혀뵤 거 저 메꾸라시 헐라면 아, 힘들어.

@1 음.

#1 게 일당은 하루 강 허든 헤난 거니까 아 우선 이걸 아, 비 새람서, 어떻 허든, 이걸 해야 돼거든.

@1 예, 예, 예.

#1 새걸 헤놓고 어떻든 메꾸라시 허멍 걸 해야 돼는데 지금 사름은 그거 아니거든.

@1 메꾸라시 험니까? 그걸.

#3 계난 그.

#1 노란물.

#3 채와 놓는 거난.

#1 노란물만 칠허민 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1 안 돼지.

#1 그림 그리고 영 험다고. 안 된다.

#3 지금.



#1 아이, 난 그 저 집 짓는 거 내 자랑, 자부하고 있어.  
 @1 예.  
 #1 그것만은 내가 딴 거는 몰라도.  
 @1 우리 삼촌은 지붕 이는 선수구나게예.  
 #3 겐디 지금 지붕이 켈 그 보존이 잘된 디가 어디냐 허면 제주민속촌이라.  
 @1 아아.  
 #3 거기 제주민속촌은 집을 딱 허민은 거기 그 이 저 부소장 허는 아이가 저 하천리 아인디. 개가 이렇게 집 이는 거 보민은 뭐 잘못 일엄다, 잘 일엄다 딱.  
 @1 알아.  
 #3 알아. 젊은 아인디. 겨고 집을 이 저 집이 초집은 매년에 거 뭐 좀 이 한 예를 들어 백오십 단씩 이 지붕에 올라가갠 이 두터워지고 허니까.  
 @1 에에.  
 #3 저기는 많이 걷어붙지를 아녀. 이 딱 어느 정도만 걸으면 안 걸어. 우리 여기는 그냥 이거 걷는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1 확 걷어제쳐동?  
 #3 싹 걷어붙면 그냥 물 들어가면 어떻 허느냐. 물 새가민은 비닐을 깔아 붙여.  
 @1 아.  
 #3 비닐 까는 집이 물은 저 지붕은 고장이 더 잘 나.  
 #2 더 나.  
 #3 웨냐면 비닐은 안 깐 지붕은.  
 @1 이게 소통이 안 뉘난예.  
 #1 증발이 뉘야.  
 #3 공기가 유통이 뉘야 하는데. 그게 공기 유통이 안 뉘니까 싹어붙어. 그래가지고 표선민속촌에 가보민 절대 이 저 비닐도 못 놓게 허곡. 딱 그 저 뭐가. 체계적으로 저 뉘니까.  
 @1 예.  
 #1 건 한 사람이 관리를 허니깐. 경해도 이 저 뭐 화장실꺼지 다 허민 한 백이십 동이 넘는데.  
 @1 음.  
 #3 내가 거기 한 멧 년 동안 줄 비는 거를 맡아서 헤 봤는데.  
 @1 아아.  
 #3 허민은 이 사고가. 이 지붕에 까지는 사고가 나질 안 헤.  
 @1 음.  
 #3 계난.  
 #1 하천리 아이 거 부지런헌 아이라. 멧 번 7찌. 작년 한 이삼 년은 같이.  
 @1 일헛구나예.

#1 아 어떻게 나 못 헨다 못 헨다 삼촌 나옵서. 겐 그거는 허는 거 보니까, 젊으니까.

@1 예에.

#1 뭐 저 사람 어디라? 나 저 하천리마썸. 저 사람 참 진짜 나 보기에도 너무 일 잘한다고. 아이구 삼촌이 더 잘. 게난 삼촌, 헙서, 헙서 헨다고. 아니 헙서 허는 것도 어느 정도지.(웃음)

#3 거 우리 이런 성읍 같은 경우에도 웨 지붕이 고장이 잘 나느냐믄 이 그전에는 수눌어 가지고 앞뒤칩이 앞집 뒤칩 우리 멧 사름 헤 가지고 허민 가서 줄 매주고 또 집 일해주민은 와서 그디는. 요즘은 우리 그.

@1 돈 받았 일해부난 안 뉘는 거우다게.

#3 돈 받았 일해 가니까. 옛날 할아버지들은 집, 집 일레 올라갈 때, 맨발에 올라가든가.

@1 예.

#3 경 아녕 보선만 신영 올라가는데. 지금은 작업화 그 무거운 거 신어 가지고 막 콕 콕 밟아버리니까.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붕 일면서 그렇게 하는 거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허느냐 허믄 아, 저추룩허민 지붕이 안 까져게. 저추룩허난 지붕 까점주게.

@1 으음.

#3 게난 옛날 어른덜은 아침, 아침에 이제 상강이 이렇게 내리면은.

@1 예.

#3 한 열한 시 이후에는 집을 안 일었어, 바람이 자도.

@1 음.

#3 웨냐믄 아침에 촌곤혈 때 올라가그넝에 지붕 일당 이제 오전 작업이 끝났면은 널 허는 거라. 널. 널 아침에.

@1 으음.

#3 웨냐허민. 이 오후 뉘가민 지붕도 미끄럽고 저 새도 쪼금 잘못허민 찌룩찌룩이 저 미끄러워요.

@1 예에. 미끄러워. 위험할 수도 있고.

#3 게니까 옛날 할아버지덜은 절대로 이 오후에 집 짓는 법을 었어요.

@1 아아.

#1 게난 그 이슬짐에 인다는 것이 이슬을 지게 되면 새가 가만이 있어.

@1 예에.

#1 아까 식으로 우이 강 올라강 밟아가민 이놈으 새가 깨나.

@1 음.

#1 줍자는 거 깨운다고. 게, 게니까 촌곤혈 때, 촌곤혈 때 허게 뉘면. 게 그 지붕도 네 사름 이상 올라가믄 안 뉘.

@1 예.

#1 많아야 네 사람이지. 겐에 혼잔 못허거든, 저것이.

@1 응.

#1 어떨 때는 나도 혼자 일어봤는다. 침 지루하여. 거 것도 브름 잘 때나 아다루 뉘든 허는디 경 혈 때가 엇이니까.

@1 응.

#1 요새는 젊은 사람들 허당보면은 너댓 올라불든 와상와상. 게니까 아까 그 말이 맞추게. 대낮엔 집을 안 인다는 거라.

@1 응.

#1 거 일엇당 딱 깨나게 뉘어. 밧게 되면은.

@1 예, 예, 예.

#1 게난 초근혈 때 집 일어사 뉘다. 초근혈 때. 게난 옛날 동네사름덜 허면 누게 집 인다 허면은 또 수눌어.

@1 예.

#1 요샌 돈 받지만. 수눌어 아정. 내가 저 집이 강 해주면은 자네도 우리집 왕 일헤주어. 그런 식으로 허든 품도 엇어.

@1 음.

#1 잘사는딘 곤밥 해주국 못사는 딘 조팝도 해주국.

#3 못사는 딘 아예 밥을.

#1 일당이 엇어.

#3 아예 일허는 사름덜이 예에, 이디서 먹지말앙 가주 허는 그런 아주 미풍양속이 잇엇는다.

@1 예에.

#3 요즘은 무조건 한나 일면은 얼마 해놓니까 많이 일헤야 뉘거든. 자기 그 이 일당을 올릴려고.

@1 으.

#1 우리 영 혈 때는 아침 세백이 가거든.

@1 예에.

#1 어둑혈 때 가면은 춤 줄 기칠락말락 어둑으니까. 지금 그때는 초롱불 썰 때고 이 전기 엇일 때니까 뉘 박박 끊어도 뉘는 거야.

@1 음.

#1 지금은 가가지고 또 그런 거 잇지마는. 쟁 뺏 이제 끊어. 끊어 허면은 영 집 일라든 집 흐 거리 거저 일어가든 주인이 깨난다고.

@1 으음.

#1 온 것도 모르게 집을 일어이.

@1 예.

#1 쟁 영 일어나믄 아 대문 소리가 싸악 헤가면 아 이거. 예펜만 박쳐가민 이제 밥 먹어야되니까.(웃음)

@1 으으.

#1 여자 와서 밥은 줄 거니까.

@1 으.

#1 게영 그렇게 아침 일찍 강 일허곡 서로 으, 수놓면서 허니까. 경 허다가 아 까 그 저 줄 봉. 만약에 비니루 사용을 허민 제일 첨 저 지붕에 더 까져붙어.

@1 으.

#1 어. 임시는 차단이 돼되, 이 습기도 증발도 안 돼부니까 썩는율이 많고. 그 옛날은 일어난 사람. 줄 봉을 때도 그 사름 빌어근에 저 고팡에 어디 구석에 비 새랏어. 그디 흐뎡 잘 헤줘 허민 어디 말이짜? 확인허곡 가근에 그디 줄 봉을르느 사름이 걸 메꾸라시 헤줘야 돼.

@1 음.

#1 올라강 걸 잣곡. 어 새 들으멍 잣곡 헤근에. 걸 만들어야 게 강 들어강 보면 이렇게 헨 디가 없잖아 잇지.

@1 음.

#1 현재는 영 뭐 지붕 베끗디서 보기에에는 아 멘짱해서 고운데. 사람 많이 올라 나면은 아무리 까져도 까진다고.

@1 예.

#1 나가 아무리 잘 헨다고 헤도 아까도 곱앗지만 저, 남이 이거 또 까질 걸로 봐.

@1 예.

#1 어떻든.

@1 예예.

#1 저거는 묵은, 예 그신새가 일수록 쪼금 저 부러져 잇은 상태니까. 헨디 저건 새집이라부니까.

@1 으.

#1 나 아까 곱앗주만은 북군 쪽은 어느 정도믄 단단허여.

@1 예.

#1 게난 거는 걸어근에 또 비닐 씌우믄은 거는 아, 나도 싣거든. 난 비니루 안 씌와. 나 사는 디는.

@1 게믄 예. 그 이제 묵은새. 그신새렌 허잖아예.

#1 예. 그신새.

@1 이거는 어쨌든 맨 밑에 거는 걸을 일이 엇이켜예?

#1 예.

@1 맨 아래 거는.

#3 맨 아래는 그.  
 @1 어웁.  
 #3 어웁이지.  
 #1 걸으믄 안뵈.  
 @1 어웁은 걸으믄 아니켜예. 게믄 그 새만 걸엉은에 다시 이는 겨우파?  
 #1 계난. 어느 정도.  
 @1 새도 어느 정도.  
 #3 어느 정도 거. 새 그.  
 #1 거스면은.  
 #3 기신새 이제 이렇게 나와가면은 어느 정도 층이 얇아지니까. 게민 이제 잘 골라가지고.  
 @1 골른 다음에 더 덮어주는 거구나.  
 #3 예.  
 @1 으.  
 #1 계난 옛날에도 집 걸음을 스 년 이상 뵈 집은 걸으라 허지.  
 @1 아.  
 #1 높으니까.  
 @1 예, 예, 예.  
 #1 고가 높아가니까. 이거 걸, 저 집 이는 사름도 아이고 걸은. 무섭거든. 그 옆에, 옆에 인제 일라고 허면은.  
 @1 네.  
 #1 게믄 기신새는 어떻든 데끼는 수도 있고. 마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잇주마는. 걸엇당은에 혼 스 년 이상 뵈가믄 여유 잇는 집은 그때 흙부로 걸지도 못헤. 저 혼차 허는 일이 아니라부니까.  
 @1 예, 예.  
 #1 무끄는 사름. 걷는 사람. 치와내저 허젠 계난. 나도 그건 알고도 촌 나 집 두 번 겨우 걸엇어.  
 @1 음.  
 #1 그거 따문. 치워가기, 허믄 뭘 과수원 가튼 데 놓긴 허는데. 거 허믄 또 인력이 너무 들어가지고.  
 @1 음. 위로만 이제 저기 하고예.  
 #1 계난 옛날 하르방 찹찹하게 일어 도라. 찹찹하게 일어 도라. 찹찹이란 말은 얇게.  
 @1 음. 찹찹허게.  
 #1 어. 야, 그 손지야, 거 찹찹허게 일라이, 찹찹허게. 거 얇게 일어달라는 거.  
 @1 얇게. 얇게 일어도 뭘 비 새거나 이런 건 아니난예?

#3 거니까 이 새를 어느 정도 잘 펴, 펍느냐에, 펍고.  
 @1 아.  
 #3 요 새와 새를 어느 정도 잘 연결을 시켰느냐에 따라가지고.  
 #1 아, 그렇지.  
 #3 그거는 이 저 고장이 안 나고.  
 @1 예.  
 #3 울통불통 울통불통 이 저 폐와버리고 새가 이러든 이파리 잇꼭 끄트머리 잇 으른 요 이파리와 이파리 사이를 너무 띄면은.  
 @1 안 돼고.  
 #3 물이 흐름이 방해돼 가지고.  
 #1 간격을 어느 정도, 게난 이는 사람이 조정하는 거지.  
 @1 게난예. 집을 일 때에 아까 어웁을 일 거 아니우꽈예. 어웁이영 새 일 때는 그 가지부터 이렇게 올라갑니까?  
 #1 예.  
 @1 저기 지붕 저기 물매 잇는 그쪽 그 위에?  
 #3 그니까 이게 가지, 가지 가트른 새를 요만큼 이, 저, 이 나오게,  
 #1 나오게.  
 #1 초불 허민 이걸 다 찢라.  
 @1 예.  
 #3 이거는 이제.  
 #1 어느 정도 나오게 만들어 붙어야. 딱 잘 맞아. 이디만 허면은 얇거든.  
 @1 예, 이게 몇 번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3 아 게난 새가 긴 게 잇고 짧은 게 잇으면.  
 #1 게난 이게 그, 저 서리 곳이라 허면은.  
 @1 예.  
 #1 새가 뭐허든 예를들어 일로 이 새 기러기라고 하면은.  
 @1 음.  
 #1 이렇게 붙이면은.  
 @1 예.  
 #1 얇고, 요렇게 붙이면 다 손가락 다섯 개 다 찢루는 식으로.  
 @1 으음.  
 #1 그렇잖아 이치상.  
 @1 예.  
 #1 겐 그다음에 이껏지 나오게 만들어야 돼.  
 @1 음.  
 #1 갱 연결 연결. 게난 가지광 뭐 이는 사람이 거 조정을 안 해볼면은 안 된다

이거주.

@1 음. 그러면 지붕은 두볼을 이는 거라예. 새로, 새로 일 때는. 혼불 해서.

#1 새집 헐 때는.

@1 새집 헐 때는 두볼 일고.

#1 두볼 일고 아까 나 곧는 식으로 그때는 제대로 줄 메가지고.

@1 예.

#1 줄 잘 제대로 메면은 비가 썰 경우에.

@1 그땐 잣고고.

#1 그때는 올라강 잣고.

@1 음, 잣곡. 예, 예.

#3 거이 저 지붕도 새집 헐가지고 딱 허면은 그 지붕 인 사람이 누구 한 사람 이렇게 그 잘 해줘이 영 행 놔두면은 그 분이 자꾸 와서 돌아본다고.

@1 음.

#3 어딜로 까점신고 어딜로 저 새를 더 놔야 될 건고 허영 행났당은엔에 이제 두볼 일 때는 아주 제라하게 새가 그때는 많이 들어.

@1 예예.

#3 다른 때보다.

@1 으음. 보통 삼간집 일젠 허면, 지붕 일젠 허면 그 아까 어웁.

#1 응.

@1 그 쓸어웁예. 몇 단 정도 필요해마썸?

#1 옛날은 백단 여산 해났어.

#3 에이고. 백단으로 똥니까. 거 백 단이민 세 바리도 안 똥는 거.

#1 백단 헛는데.

@1 예.

#1 요즘은 단이 단이 아니라.

@1 응, 옛날엔 단이 컷구나예.

#1 으. 두 배 똥, 두 배.

@1 으으. 게문 그 바리 여기는 물을 하영 허니까. 옛날엔 물로 다 시꺼온 거 아니, 쉼로?

#1 게난 구루마에 시끄주.

@1 구루마에. 쟁은에 게 몇 단 정도 실러져마씨, 거기에 어웁?

#1 아, 마차에?

@1 예.

#1 흔 이백 단.

@1 이백 단.

#3 아이 옛날부터 이수다게. 쉼은 어웁은 열여섯 단.

@1 음, 거 훈 바리.  
 #3 훈 바리.  
 #1 마차에.  
 #3 마차엔 다숫 바리 월, 다숫 바리 백오십 단.  
 #1 저, 겐디, 마차에 어웁은 백오십 단 못 시꺼.  
 #3 췌는 백오십단.  
 @1 예, 췌는.  
 #3 한, 여튼 백 단 시꺼. 백 단.  
 @1 백 단. 게문 아까 그 바리 혈 때. 췌 허면 열여섯 단. 새는?  
 #3 예. 게난 한쪽에 으덥 단씩 시끄는 거주게. 이쪽에서 하나 부찌른 요쪽에서 하나 부찌고 헤가지고. 으덥 단을 헤가지고 열여섯 단. 조는 으섯, 아 으덥 단. 아, 으섯 단인가? 조.  
 #1 존 으섯 단.  
 @1 조는 으섯 단. 건 고고리가 이시난.  
 #3 질메에.  
 #1 석 단씩.  
 #3 거 질메에 그렇게벳기 모멸도 으섯 단.  
 @1 모멸도 으섯 단.  
 #3 훈 바리엔 헌 게 그 췌에 올려 놀 수 잇는 그걸 계산헌 거주.  
 @1 새는 어떻게? 새는.  
 #3 새는 서른 단.  
 @1 새는 서른 단.  
 #1 사름이 그 소 질메에영 앓아 부치기가.  
 @1 예예.  
 #1 아래 거 무거운 단을 훈 쪽으로 심어서 탁 부치기가 어렵거든.  
 @1 응.  
 #1 게난 곡식. 아까 뭐 모멸, 모멸 이만큼 허거든, 단이.  
 @1 예.  
 #1 건 석 단.  
 @1 응.  
 #1 훈 쪽에.  
 @1 예.  
 #1 쟁행 으섯 단이고. 조도 으섯 단.  
 @1 으섯 단.  
 #1 게 조코고리 막 헌 것쯤은 많이 허면 올라 부치기가 힘들어.  
 @1 음.



#1 지금 우리 말로 이거지.  
 @1 맞아예.  
 #1 (웃음)  
 #3 이만씩 단을 해 노니까 뭐.  
 #1 게, 출, 출은 서른 단이 혼 바리.  
 #3 출도 서른 단.  
 @1 출은 서른 단예.  
 #1 아.  
 @1 게문 여기는 그 새나 이런 어웁 빌 땀 낫으로 비어수과, 무시걸로 비어수과?  
 #3 좀호미.  
 @1 아, 좀호미로 비는구나, 그거는. 호미로예. 아무래도 낫은 이거 허면은.  
 #3 이 낫은.  
 #1 각단 헐 때.  
 #3 집 이는.  
 @1 아.  
 #2 집 이는 그 어웁은 그 낫으로 비질 못 해. 낫이 딱.  
 @1 어어.  
 #3 날이 다 나가분다니까.  
 @1 예, 예, 예, 예.  
 #3 워낙 그 저 어웁이 저 겨울 뒤편은 쎄노니까.  
 @1 게문 각단은 낫으로 비어예.  
 #1 예, 옛날은 저, 스무 단이 혼 바리라고 해가지고.  
 #3 에이, 각단은 열 으섯 단마쓰게. 저 낫으로 빈 건.  
 @1 응.  
 #1 저, 스무 단이 혼 바리로 해서. 거 그때는 단도 컷주마는 막 저 각단 비당 보면은 썩른 거 진 거 이렇게 해서.  
 @1 응.  
 #1 게문 막 짬뽕이 뒤편어.  
 @1 예.  
 #1 어, 쟁 저 무꺼아정 왕 허는디, 요새는 낫으로 헐 디가 별로 엇이니까 좀호미로 비영.  
 @1 응.  
 #1 응, 작은 거. 경 걸로 각단을 이용허고 잇주.  
 @1 걸로 각단 이용허고예.  
 #3 게니까 새는 혼 바리라도 각단은 열으섯 단을 해낫주게. 워나허민 각단은 저

뭉클, 단이 크니까.

@1 예예. 알았수다. 거난 이런 지붕 하나 일젠 해도 그 수고로움이에 잘도.

#3 예.

@1 큰 거라예. 게문 여기도 새왓들도 하낫수과?

#3 그 거의 집집마다 새왓들 다 잇어낫주게.

@1 아. 그리고 여기는 집 이는 거는 일 년에 혼 번?

#3 일 년에 혼 번.

#1 일 년에 혼 번.

@1 예. 여기가 습기.

#1 건 일 년에 혼 번 안허믄 안뒤어.

#3 북군은 이 년에.

@1 이 년에 혼 번.

#3 거난 여기.

@1 여기가 비가 하영 오고.

#3 그 새 때문에. 어떻게 허느냐믄 옛날 그 운반 수단이 이 저 좋질 아녀 노니까.

@1 예.

#3 새를 비어가지고 밧에 데며놓는다고. 건데 이 일찍 헨 사름덜이 이 축산허는 사름덜이 방아를 부찌불어.

@1 응.

#3 게문 그 새 비어논 거 또 막 타불영은에 막 그냥.(웃음)

#1 으, 옛날은 허긴 경 헛주. 새왓디 가근에 그 요샌 직시직시 헛지마는 그때 당시에는 무꺼근에 데명 내불주게.

@1 으.

#1 게문 눈도 왁 비도 왁 허다 보면은 물든 것도 잇고 안 든 것도 잇주마는 주로 그렇게 다 야작을 그렇게 헤 낫주게. 그렇게 헤단 첨 아까 곤는 그 허단보믄 봄 나가니까 방에 부치는.

@1 예, 예.

#1 으, 그 방화도 자꾸 난 따문에 게문 하 어디 불남찌 허믄 새왓드레 들음 반긴 반 허는 거지.(웃음)

@1 으음.

#3 저 새란 놈이 어디 자기 몸을 저 감추지 못 헌덴 그 어른들이 허는다. 집에 와가지고는 아무리 잘 이, 저 데며도 물이 들어.

@1 예.

#3 헌데 드르에는 그자 어영부영 낱 내불어도 물이 금방 말라버리니까.

#1 것도 석 단, 닷 단, 일곱 단 짝, 홀수로.

@1 응.

#1 홀수로 데명 내불믄 물 안 들어, 거 침 묘허여.

@1 으음.

#1 여기 왕은에 아까 굴암직이 잘못 놀믄.

#3 아멩 잘헤도.

#1 물통이 뒤투는 수가 많주게.

@1 아, 계난.

#1 계난 저디는 아까 굴은 거 급허믄 비 와가믄 석 단씩 막 허당 아이 새 무끄  
지 말앙 저, 저 무꾼 거나 빨리 데미라고 영 허믄은 석 단씩 석 단씩 그자 뭐 다  
섯 단 이렇게 놔가지고. 계민 물 안 들어.

@1 다 그냥 몰라분 거주게.

#1 쟁 영 놔근에 혼 단 팍 놀믄 물 안 들게 뒤투.

#3 옛날은 새를 내우면은 워낙 초집들이 많으니까. 뭐 혼 집이 초집 네 거리 있  
는 디는.

@1 예에.

#3 이 저, 네 거리 세 거리 잇는 디가 보통이니까. 새를 허민 다 놀어요.

@1 으.

#3 놀 놀영, 놀 놀영.

@1 놀 놀영예.

#3 놀 놀어야 비도 안 들고, 이 보관허기도 좋곡.

@1 으.

#3 이 저, 터도 많이 차지허질 아녀니까. 허는데, 이 우리가 집을 지으민 네 거  
리를 짓는 집이 이제 잇는데.

### 집 짓는 순서

@1 예.

#3 이거는 안거리부터 짓는 게 아니고 이 저, 도횡지 가보믄은 집 짓젠 허면은  
저 이문간부터 짓는 식으로.

@1 예.

#3 목거리부터 먼저 짓어.

@1 으으.

#3 이 서쪽, 서향, 이 저, 서쪽에 잇는 집부떠.

@1 예.

#3 서쪽에 잇는 집 지어놓곡 그 다음 안거릴 짓는다니까.

@1 음. 미리 이제 다 짓어난 거. 건 무산고예?

#3 집을 안거리부떠.

#1 옛날에 정시덜, 정시덜이.

@1 으음.

#1 처음 집 짓을 때 저, 우쪽 방은 저 우쪽에는.

@1 막아야 뉘는구나게.

#1 저 우쪽에는 문쳐 짓으라는 거라. 게난 아까 서쪽 문쳐 짓으라는 말은 만약에 내가 남쪽에 돌아왔게 뉘 이디 안거리 앓게 된, 뉘 때에는 우선 서쪽 집을 짓어야 동쪽 집이나 무슨 것도 무슨 탈이 없다 헤가지고.

@1 예, 예, 예.

#1 쟁 서쪽부터 문쳐 짓는 거라.

#3 아니 게난 집 네 개 허민 쉘 이 저 우리 사는 집은 안거레.

@1 예.

#3 이 그 반대 방향 거는 밧거레. 이 동쪽에 짓는 거는 저 동녱거리. 서쪽에 건 목거리 헤영은에.

@1 으.

#3 그, 집도.

@1 예.

#3 앓앙 아무렇게나 앓앙 뉘 어느 건 밧거리 저 뉘 동녱 착에 앓은 건 저 그것도 밧거레 헤도. 밧거레는 이 안거레에서 바로.

@1 반대, 반대편.

#3 반대편.

@1 응.

#3 동쪽에 잇는 거는 동녱거리. 서쪽에 잇는 거는 목거리. 게난 요렇게 네 개를 짓을 때도 제일 목거리부터 집을 문쳐 지어야 탈이 안 난덴 허영은앵에.

@1 으음. 서쪽이 좀 사악한 기운이 잇는 거구나.

#3 그거주게.

### 주춧돌

@1 예예. 알앗수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한번예. 물어보커라예. 삼촌, 집 짓을 때에 주춧돌예. 몇 개 들어마씨? 주춧돌은?

#1 주춧돌?

@1 예. 삼간집 지을 때 주춧돌이 몇 개나 허는 거 알아지쿠과?

#1 주춧돌은 거. 확 곧진 못허큰게.

@1 음. 거는.

#1 지동굽에 그거 이디 네 귀. 하나 둘 셋 넷. 으섯 개.

#3 이 저.

#1 으덜 아웁.

#3 저 구석에덜은 잘 저, 집 뜰엿 봐도 구석에는 주춧돌이 엿고, 보통.  
 @1 응.  
 #3 이 앞에 대문허고 대문 사이에.  
 @1 예.  
 #3 이쪽에 두 개.  
 #1 두 개.  
 #3 그 다음 요디 그 저 삼방에.  
 @1 예.  
 #3 삼방허고 저 구들 사이에 그디 두 개.  
 @1 응.  
 #3 그다음 중간에 저 이런 저 뭐허는 디 백션 허는 디 두 개. 또 저 뒤에 두 개, 한 여덟 개가 들어가는 게 이제 보통이고.  
 @1 여덟 으.  
 #3 이 저 이런 삼간집 짓을 때 저 집 구석에는 아멩 뜰어봐도 저 주춧돌이 안 나와.

### 지둥

@1 그 주춧돌이 안 나오고예. 그 집 지둥은 몇 개 세웁니까? 삼간집 헐 때.  
 #3 거난 거기서도 백션, 백션을 멧 개 셉느냐에 따라 틀린 거주.  
 @1 응.  
 #3 백션이엔 현 건 그 부엌허고 아, 저 저, 부엌허고 이 저 마루 사이나.  
 @1 예.  
 #3 마루하고 방 사이에.  
 @1 예.  
 #3 이 문 7튼 거 돌젠 허면 그 백션이 잇어야 그 저 의지허영은에 새도 놓곡 헤영은에 그디 저 헐 거난에. 야튼 이 보통 이런 집도 지금 이거 집이 요까지.  
 @1 요거 잇어난 거지양.  
 #3 옳로 저렌 잇은 건디, 영 허민은 저 앞이 난간에.  
 @1 예, 예.  
 #3 난간 허고 이렇게 부튼 거 두 개.  
 @1 두 개.  
 #3 두 개. 그다음 또 여기 들어왕 요만쪽 저 난간하고 마루 사이에.  
 @1 예.  
 #3 그디, 그디 네 개 놓는 디도 잇고, 두 개 놓는 디도 잇고. 무사넨 대문 돌 디.  
 #1 응, 응, 응, 응.

#3 큰대문 돌 디.  
 @1 그니까 백선은 주로 문 돌 디들 놓는 거우꽈?  
 #3 문 돌 디하고 테기헐 디 그 저.  
 @1 테기헐 데 하고.  
 #3 예예.  
 @1 기둥, 기둥 세우젠 허민 그 사이에.  
 #3 이 저 새엔 허여근엔에. 구멍을 팜은엔에 나무떼기를 거기 꼽읍주게.  
 @1 예. 아 백선에 행은에.  
 #1 가신새.  
 @1 가신새.  
 #3 가신새.  
 @1 음.  
 #1 (웃음) 가신새 거보고.  
 @1 게난 이 웨냐면 테기 이렇게 멧 개 이렇게 헤야 될 거 아니우꽈. 벽, 벽 만 들젠 허면.  
 #1 원래는 네 개라.  
 @1 아. 이 벽 만드는 게 네 개우꽈?  
 #1 아. 요 저 들어가는 디가.  
 @1 예.  
 #1 거꼴로 파근에 헛 세 개 들여냥 탄탄허게시리 행 움직거리지 아녀게 튀기 허는디, 겐디 요새는 세 개로 뒤어 있어.  
 @1 음.  
 #1 요새 저 새로 집 이는 거 보면은.  
 #3 거 구멍을, 옛날은.  
 #1 옐 들어근에. 요것이.  
 @1 예. 테기헐 거.  
 #1 요기 헛다 허면은 하나. 올로 멧 센치 헤서 요거.  
 @1 예.  
 #1 멧 센치 몰라도 그자.  
 @1 예.  
 #1 헛나.  
 @1 응.  
 #1 둘.  
 @1 응.  
 #1 셋.  
 @1 예.

#1 요 끄트머리.  
 @1 예.  
 #1 영 넷.  
 @1 네 개. 아, 벽허면 네 개를 해서.  
 #1 예, 예.  
 @1 그 저기 가신새?  
 #1 어.  
 @1 가신새를, 가시새.  
 #1 예. 가신새.  
 @1 게은 그 가신새를, 가신새를 이렇게 해근에. 거는 무신 낭으로 험니까?  
 #3 아, 거는 영 방 이 곧은.  
 #1 대나무도 좋고.  
 #3 곧은 낭으로 험주.  
 #3 저 원래는 그 나무, 나문데.  
 @1 응.  
 #1 지금 저 나 아래 새로 험 거 간 보니까. 세 개로 된 험 걸 내가 봤주게.  
 @1 응응.  
 #1 겐디 아, 이젠 이추록 허민 약혈건디.  
 @1 으음.  
 #1 이젠 네 개 해야 돼는데.  
 #3 건디 그 우리 집 같은 경우엔 영 보니까 나물 굶은 걸 댕더라고. 요만씩 넓은 거.  
 @1 아아.  
 #3 허면은 지등을 이렇게 그 세우기 전에.  
 @1 그니까 단단할 거지, 예.  
 #3 그 백선을 세우기 전에.  
 @1 예.  
 #3 구멍을 파는데 쥘 위쪽은 이제 야트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프게 밑에. 그걸 우의서부터 한쪽은 그걸 아녀고.  
 @1 예.  
 #3 한쪽은 이렇게 해 가지고 우의서부터 때려가문 그 내려왕 기프게 파지니까 아래 간 딱 허게 맞게시리.  
 @1 으음.  
 #1 딱 영 재문 대략 흐꼼만 노프민.  
 #3 그 이렇게 가는 낭으론 허민 영 땡경 끼울 수가 잇는다.  
 @1 예.

#3 굵은 낭으로 해 놓니까. 위에서부터 파고 들어가.

@1 으음.

#1 건 팡, 팡 낚야주.

## 테기

@1 음, 음. 경 행 그 사이에 이제 테기들을 허는구나예.

#1 예, 경 해야 든든해.

@1 예.

#1 이리저리 밀려지질 안 허주.

@1 예.

#3 그 테기 헐 때도 꼭 두 사람이 해야 합니다.

#1 쟁 안 허민 흘랑흘랑하고.

#3 무사냐민.

@1 양옆으로.

#3 양옆으로 행. 일로 새끼를 집어넣으면 저쪽에서 좁아덴경 또 찢르곡.

#1 거난 거 가시새가 든든 안 헐 경우에는 너 밀력 나 밀력 허다 보문.

#3 꺼꺼져.

@1 튀기가 꺾어 으, 으.

#1 웃음.

@1 가신새는 벽을 든든하게 허젠 허난 경 허는거구나예.

#1 사이과 사이에 든든헌 걸로 해서. 이레 밀어도 아니 가게끔 이런 보조해 주는 거. 보호해주는 거주게.

#3 계난.

@1 예. 그니까 옛날 벽에 이렇게.

#1 으.

@1 중간에 이렇게 나무를.

#1 으.

#3 이렇게도 허곡 이렇게 ㄱ는새, ㄱ는새도 잇곡 저 무신 새도 잇곡 행은에 두 개를.

@1 아아. 것도 ㄱ는새 험니까? 그거를?

#3 으, ㄱ는새.

@1 ㄱ는새.

#1 으.

@1 ㄱ는새는 세로거고?

#3 계난 세로, 가로 세로 이 말 그.

@1 예.



#3 쓰는 게 그거 주게.  
 @1 으으. 그럼 가로 댜 거는?  
 #1 영 ㄱ르여 ㄱ르.  
 @1 예. ㄱ루.  
 #1 웃음.  
 @1 건 ㄱ루새합니까? ㄱ른새?  
 #1 ㄱ른새.  
 @1 ㄱ른새 이거는?  
 #1 이거 셤는 거난 뒛산디. 나도.  
 #3 가시새엔 헨에 영 허곡, 그다음 ㄱ른새는.  
 #1 가시새는 백션과 백션 사이에.  
 #3 게메, 또 우이 것에 아랫 것 영 허는 것 저 두 개. 허는 게 이게.  
 @1 예, 건 ㄱ른새.  
 #3 칸 널.  
 @1 음. 세로가 ㄱ른새.  
 #1 응, ㄱ른새.  
 @1 예, 알앗수다. 게문 그런 식으로 지둥은 세우는 거라예. 지둥은, 백션 세우  
 져 허면 지둥을.  
 #3 게난, 백션이 세워 낱. 그 뒛기만 헨 거만 그것만 딱 꼽아놔도 이게 움직이  
 질 아녀니까.  
 @1 예예. 고정시경.  
 #3 고정 되니까.

**포, 상머루, 도리**

@1 그다음에 삼춘 아까 포. 종포 헨에 그거는 아까 넛 개? 포, 포는?  
 #1 포는 두 개.  
 #3 두 개.  
 @1 두 개.  
 #1 종포 두 개.  
 @1 응.  
 #1 이디 허고. 저디 허고.  
 @1 응. 종포 두 개 허고.  
 #1 으.  
 @1 그다음에.  
 #3 상머루.  
 @1 상, 상머루 헨나 허고.

#1 그다음은 뭐 중축 저 한간, 한간 뭐 이디 이실 거여.  
 @1 그건 도리. 한간도리는.  
 #1 다 도리, 도리로 저 바깥데까지 다 도리로 뿔 거라.  
 @1 응.  
 #3 계난 이 저 무시거 걸어낱게, 귀포 걸어노민 그다음은 귀포에 도리를 저 강 직산허는 거주.  
 @1 으, 예.  
 #1 요 저 포 씹우, 포 올리면은.  
 @1 예.  
 #1 포가 짧으주게.  
 @1 예.  
 #1 으, 거 이, 이걸 걸떼기 안 뉘난. 이 종포 해근에 위이 포 영 놓면은. 이 저 포광 저 사이에 저 저펜 담까지가게 저 곱은도리.  
 @1 곱은도리.  
 #1 기억 제 닳은 거. 영.  
 @1 예.  
 #1 영 현. 어, 이리 곱은 것이 현 약 석 자에서 석 자 정도에서 그다음엔 멧 자 들어간 건 모르고.  
 #3 겐디 그거양.  
 #1 곱은도리가 으섯 개. 으섯 개.  
 #3 집을 영 튼영 보면은.  
 @1 응.  
 #3 귀포를 현 거는양 냥을 아예 끄칠 때부터 영 뉘 냥을 다 낱서.  
 #1 다 낱주게.  
 @1 거난 아까 삼춘이 얘기헛던 귀포가 곱은도리인 거지예?  
 #1 응, 곱은도리가.  
 @1 곱은도리가 귀포예?  
 #1 것이 으섯 개 들어.  
 @1 계난 하나, 여섯 개 뉘 겨우짜?  
 #3 네 개, 네 개.  
 @1 하나, 둘, 셋, 넷.  
 #1 으섯 개, 으섯 개.  
 #3 네 구석에.  
 #1 아니, 중간까지 으섯 개, 으섯 개.  
 @1 중간까지 행은에 으섯 개, 곱은도리가. 귀포는 네 개고.  
 #1 아.

## 빈지, 귀클

@1 곱은도리는 두 개까지 하면 여섯 개 이렇게 되는 거고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서리가 서까래고. 으. 그다음 아까 그 여기 벽 튀기를 허잖아예. 튀기 허면 밑에 지금 요 이 지방, 문지방 잊지 안우꽈. 문데방 요, 그 밑에 거는 뭐렌 험니까 여기? 그 우리 벽하면 맨 밑에 이렇게 틀로 허지 안험니까? 빈지 노는 그 밑에 꺼.

#1 아 요, 요, 저.

#3 빈지 아래에 아, 귀클.

#1 저, 저 거 귀클.

@1 그냥 귀클이엔 험니까?

#3 거 귀클이.

#1 귀클.

#3 귀클에, 귀클이 좋아야 마릴 놓주게.

@1 아. 양쪽에 귀클을 놓고.

#3 으.

@1 귀클 위에 빈지를, 튀기 허젠 허민 밑에는 빈지허지 안험니까예.

#3 우터레가 빈지헤여.

@1 게니까 밑으로, 위로 저기, 어느 정도까지는 영 등 직산허는 데는 빈지 논디 아니?

#3 빈지. 그거 저 그거 판자로.

@1 으.

#1 빈지는 판자로.

#3 판자로.

@1 빈진 판자로.

#3 예.

#1 거 아까 곱은 저 무슨 자귀로 저 무슨 도끼로 허엿젠 그.

@1 예.

#1 옛날 그렇게 뒤편이.

#3 귀자귀.

#1 어, 귀자귀로. 그것이 잇다고. 그런 널이.

@1 응.

#1 쟁은에 빈지 이만큼 헤여근에 저 빈지 들이주게.

@1 그럼 보통 그 빈지 높이는 어느 정도 허여마씨?

#1 어, 거.

#3 우리 앞은키.

#1 막 흔.

#3 우리 앞은키만이.  
 @1 거 집마다 조금씩은 뜨나기는 험디다.  
 #1 우리 앞은키? 영 앓으믄.  
 @1 직산하는.  
 #1 우리 독지쫘, 앓이민 독지쫘 뉘 거라.  
 @1 으. 걸 이제 빈지.  
 #1 아 게난 목적 험 자 흐쫘 더 뉘 거라.  
 @1 걸 이제 빈지, 빈지 들인덴 허는구나.  
 #3 그 빈지널 험이.  
 #1 이거 다 돌아가명 빈지 들이주게.  
 #3 빈지널 험이 아주 그 저 힘들엇주게. 무사냐믄.  
 @1 예에.  
 #3 굶어야 뉘니까.  
 @1 아.  
 #3 거 보통 보민 빈지들인 거 보민은.  
 @1 예.  
 #3 나무 하나로 뉘어 잇어 거. 이만이 넓은 것도.  
 @1 어.  
 #3 경 안 허민 거 두 개로.  
 @1 거난 요즘 무슨 막 베니다판 이런 걸로 해도.  
 #3 으.  
 @1 옛날에는 그 낭이 이제 마리 놓는 그거랑 똑?튼 춤낭.  
 #3 그게 춤낭이 아니면은.  
 @1 예.  
 #3 이게 이렇게 사름들 헤여 놓고, 아이들이나 많은 디서 헤불면은 이게 자꾸.  
 @1 물러낭.  
 #1 아까에도 곱앗지만, 이 사름네 안거레가 지금도 저 옛날 집이난에.(웃음)  
 @1 그니까 그 강은에 사진 나중에 찍어야크라. 게난 빈지를 잘.  
 #3 겐디 빈지는 다 뜯어버서게 나도.  
 #1 (웃음)  
 @1 빈지 현 다음에 그 위에 뉘기를 허는 거 아니라예, 뉘기를.  
 #1 으, 으, 으, 으.  
 @1 거난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막 뉘 단단 안 해도 뉘니까 저기를 하는 거구나  
 게. 으음. 그다음에 이제 흑 할 때. 아까 양토도 험잖아예. 양토허는 거는 안으로  
 흑 불리는 게 양토허는 거짜?  
 #3 예.

#1 으.

### 서슬, 고데, 앙토

@1 그다음에 그 서리헌 다음에. 서리 건 다음에 그다음에 서슬. 서슬헌 다음에  
흑 놓는 거는.

#3 게 서슬힐 때 우이부터 먼저 해야주게.

@1 서슬은. 으.

#3 서슬 허영 그 저 위에부터 흑을 놓은 다음. 골라 논 다음에 앙토는 젤 나중  
에 허는 거.

@1 아아.

#1 게난 저것이 여유 잇는 집 힐 때는.

@1 예.

#1 거 나도 그걸 헤 봐주마는. 우이 이제 흑을 올리면은.

@1 예.

#1 흑 다 짹 깔지 안 허여. 게문.

@1 예.

#1 당일에 해야 흑은 잘 부뜨게 뒤텔어.

@1 음.

#1 게문 흔 메칠 잇당 허면은 잘 안 부떠.

@1 예.

#1 게난 당일에 힐 때도 허문 이거 다 헤 논 다음에는 안에서 팡 다 놔근에.

#3 아이 옛날도게. 저 우의 거 다 헤 낡 나중에 저 앙토힐 때는 저 콧박세기.  
저 콧으로 만든 박세기.

@1 예, 예.

#3 그거로 헤영 물 거려당 천장에 막 주어가명.

@1 물 뿌리명. 어어.

#3 물 뿌령 그거 부찌곡. 예.

@1 물 주명예. 웨냐면 거 저 털어지카부덴.

#1 게난 저, 허는 날 허면은 잘 부뜨고.

@1 예예.

#1 아까 이 사름 곤는 거는 저 여유가 엇인 집이는 멧 들인지 며칠인지 모르지  
뭘 경허당 보민 물 치대경허는.

@1 으음.

#1 건 그때는 사름 손으로 다 허게 뒤텔 잇는.

@1 예예.

#3 이 옛날은 집짓는 게 하루에 준공검사 다 저 일 년에 한꺼번에 허는 게 아

니고.

@1 으. 여유.

#3 금년 우의 거 해 낱.

@1 잠깐만예.

#3 우의 거 해낱.

@1 삼춘, 여기 골아난 다음에.

#3 7만 이십서 보게. 거 우의 거 해낱 그다음 사름만 들어강 방에 이.

@1 살명.

#3 짚이라도 낱 줍 자명. 그다음 문도 문도 나중 뉘가야. 이제 나중 뉘가민 문  
하나 들곡 삼방에 마라도 놓곡.

@1 으.

#3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멧 년을 이 집 하나 짓는디 멧 년을 걸립니다. 지금  
모양으로 그자 문 허민 사름 강 딱 들어사게 만들어, 저 짓는 집이 별로 없고.

@1 예. 하나씩 하나씩?

#3 하나씩 하나씩.

@1 으.

#3 다 그 자급자족 허는 땀에.

@1 맞습니다.

#3 그런 그 저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 북덕방

@1 예. 삼춘. 이제는 삼춘 옛말 골아봅서.

#1 저 아까, 거. 이거는 저 마르기 전에 허민 잘 부땡 뉘허고. 아까 그 대문 말  
허고 잇구나마는. 옛날 못사는 사람은.

@1 예.

#1 새로 집을 짓어도 방도 제대로 꾸미지도 못 헐 때게 삼방에 잔다고. 삼방에  
다가 저 뉘, 짚을 깔앙 잇는 상황이니까.

@1 음.

#1 거 위에 명석 길곡 초석 길곡 헤영 거기서 허믈. 저디는 옛날 뉘라 험니까  
그 가마니, 가마니테기라도 영, 뉘라게.

@1 거적대기 해가지고.

#1 (웃음) 그러면 어느 때만에 목수나 빌어지믈 방도 뉘야지. 게난 하나씩. 험  
번에 허질 못 헛으니까.

@1 게난 그 북덕방에서 살명.

#1 아. 그렇지.

@1 으. 북덕방에 이제 살명 험 거라예.

#3 그러니까 아까도 그 저 북덕방에 그 화리.

@1 예.

#3 돌로 헤영 영 만들언. 이 방도 방이지마는 겨울 뉘민 굴묵.

@1 예.

#3 굴묵은 항시 겨울에 때니까. 물똥이나 쉼똥 좇어당 그때는 그걸로 해야 오래 가곡 허니까. 거 굴묵 앞의서 좀 자는 사름도 잇곡 영 보민 그 화리 에염에 그자 그디서 앓양은에 무시거 허당, 그자 그디 누워근엥에 그 북데기 썩은에 누웁 좀자는 사름덜이. 우리도.

@1 으.

#1 그 어릴 때 보면은 아, 그추룩 행, 아, 저추룩 해도 좀이 올 건가 해도 다 그추룩 허멍 살더라니까.

@1 응, 어려울 때난예. 게난 삼춘 그 북덕방. 북덕은 뭐우파?

#1 북덕이란 거는 아까 그 째보고 북덕이엔 허주.

@1 째들. 음.

#3 북데기.

#1 (웃음)

@1 게난 북덕방, 북덕방 헛구나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이 마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냥 그 모습이 그대로 잇잖아예.

#3 으.

@1 천아반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헤마씨? 천아반. 천장.

#1 천아반은 이.

@1 으.

#1 저 구들 위 보고 천아반이엔 허주게.

@1 구들 우에예. 게난 이런 식으로 된 거잖아예.

#1 아니, 이런 식이 아니고.

#3 옛날은.

@1 으.

#3 양토해도 서리가 다 보였주게.

@1 게니까 옛날 다 보였지않우파?

#3 보이면은.

@1 으.

#3 저 물건 보관허는 거엔 헤영은에 이 백선허곡 저 백선 사이에.

@1 예.

#3 나무를 요만이 굵은 놈 두 개를 놔가지고.

@1 음.

#3 거기 쟈자리도 올려놓곡. 이 저 뭐니, 맥, 맥도 그레 올려놓곡. 무사니 허민

다른 디 농민 쟁이들 쓰물아부난.

@1 으음.

#3 사름 사는 디 그 우이 그 물건 보관하는 장소로도 많이 썼주. 삼방에.

@1 예. 게난 그렇게 그 두 개 낭 걸친 거는 무신겨우파 그건?

#3 것 굴앙 뭐엔 험니까?

#1 아이 나도 걸 모르겠어.

#3 아이 나 중간엔 잘 알아전게.

#1 (웃음.)

@1 선반 메는 것도 아니고. 시령도 아니고.

#1 선반이엔 굳지 안 허여? 나도 거 이름.(웃음)

@1 휘 걸엇던 험니까?

#1 나도 저 쉼막에 지금 그거 잇는디 나도 모르겠어.

@1 튼내지 못허쿠과?

#1 그거 이름은.

### 흑질

@1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허는 거고. 그다음에 삼춘, 그 집 지을 때에 흑일이 쟈 큰일이잖아예, 또.

#3 예.

@1 흑질허는 거. 흑질허는 거는 어느제 허는 겨우파? 벽 이거 막고 해야 될 거 아니?

#3 아이 게난.

@1 땅 팡은에 허는 거.

#1 거제 됴든.

#3 이거 다 집까지 일어놓민.

@1 아. 집 인 다음에?

#3 아. 집 안 인 때에 흑질을 헤 불민 비 오민 판씩 다 떼져불주게.

@1 아아.

#1 이거 다, 이 저.

@1 게든 아까 지붕 일면 그 다음에가 흑질 험 차례구나.

#3 으, 으, 으.

@1 흑질 해봅서.

#3 흑질은 이 보통 옛날은 운반. 요즘은 차들이나 뭐 이시니까 어디 강은에 흑 파오면 됴주마는 보통 마당에서 파서 헛어, 마당에서.

@1 으.

#3 마당에서 파가지고 이 째 7튼 거 모물째이나 산, 보통 제일 산뒤째이 좋덴



허주게. 질경.

@1 예.

#3 산뒤짚. 산뒤짚은 그 저, 우리 요즘 말론 허민 무슨 들베엔 허느냐, 그.

@1 으응. 산디 밧벼.

#3 밧벼. 그거 그거 짤랑. 요만씩 작두로.

@1 예.

#3 짤랑은에 낱 쉼로 그걸 이제 막 불리는 거라.

@1 으.

#3 불령, 초불 불려지민 이제 그다음은 이 뉘쌍. 흑을.

@1 예.

#3 데쌍은엔에 또 훈 번 짚 놓고 행 또 불령. 그다음부턴 이제 그 저 허는다. 지금은 이런 지붕 우의 그튼 것도 포크레인으로 거렁 흑을 올리주마는 그 당시에 는 다 요만씩.

@1 예.

#3 경 아녀민 좀 심 좋은 사름덜 이 저 지게에 정 사다리로 올라가고.

@1 으으.

#3 그렇게 허면서, 그 집 십팔 평이엔 헤도 거 작은 그 넓이가 아닙니다.

@1 예.

#3 거 그걸 다 헐라면은.

@1 예.

#3 굉장헌 노동력이 필요한 거주.

@1 그러면 지붕에 집 다 새 일어낭도 흑도 올립니까? 지붕에도.

#3 아니.

@1 아니지예.

#3 건 저 헤놔야. 그다음 저 어웁으로 일고.

#1 서슬 헤나믄.

@1 으.

#1 서슬 헤나면은.

@1 흑, 흑하곡.

#1 흑을. 사다리 놔근에. 저기서 몰아주는 사람 흑도.

@1 으.

#1 게난 데끼면은 그 사람 또 데낄 때 잇고, 경허믄 훈 세 사람이 헤서 이렇게 올리고.

@1 게믄 흑 이긴 거를 이렇게 적당히 허는 거를 몰아준덴 헤마씨?

#1 어. 쟁 데끼민 그 사람 반양. 또 우터레 데껴주곡.

@1 으으.

#1 데껴주곡 또 우이선 또 반양 데꾸라시 시켜가곡 경.  
 @1 그제 고디흑 올리는 거구나. 고디흑 허곡.  
 #3 예.  
 @1 그 다음에 벽에 저기 하는 거는?  
 #3 날라당. 굴체에.  
 @1 그것도 그날 허는 거?  
 #3 예.  
 @1 으으.  
 #3 산테에. 사름이 많으면 뭐 하루에 다 돼는데.  
 @1 예.  
 #3 그래도 보통 이 동네에서 여기 집 짓는다 허면은 그 동네 사름뿐만이 아니  
 고, 마을이 전부 동원되다시피.  
 #1 거저. 거저 오는 거지.  
 @1 네.  
 #1 놀앗당은 욱 먹겠지게.  
 @1 예.  
 #1 저놈의 자식은 저 누계 집 아니 왔다고. 동네 사람이 욱허지. 직접 그 사람  
 주인이 욱 허는 것이 아니고.  
 @1 음.  
 #1 응. 흰허거든. 다 동원된 걸 알고 잇거든. 뭐 영장나도. 예를 들어.  
 @1 예.  
 #1 그런 때도 다 동서남북이 엇지 뭐. 다 영 헤낫주.  
 @1 아까 모멸하고 그신새를 놓거나 이제.  
 #3 기신새 잘 안 놓고.  
 @1 기신새는 안 놓고?  
 #3 이 저.  
 #1 거 엇을 경우에 기신새를 놓고.  
 @1 그 산뒤짚 놓구나예.  
 #1 산뒤짚.  
 @1 한 이 정도 크기로 썰어마씨?  
 #3 예, 요만씩 썰어근예.  
 #1 보통 저 썬다고 해도 그 써는 기계도 옛날 거 이서도 잘 저 쓰질 안 허영.  
 @1 예.  
 #1 그자 첨 뭐라 합니까, 그 산뒤짚을 놓영 놔두면은.  
 @1 예.  
 #1 어떤 땐 또 아까? 추록 썬은 것도 잇고.

@1 음.  
 #1 계난 흑꾼들이 걸 안아당 막 쉼 불러 가명 그냥 막 뿌리주. 뿌리면은.  
 @1 으.  
 #1 거 쉼가 뱅뱅 돌아가명허민 잘 꺾어졌어.  
 @1 으.  
 #1 그라문 흑꾼 들어사시오 하면은 한 잔 짹 걸치곡. 흑꾼 아무나 허는 거 아니.  
 @1 예예.  
 #1 힘 존 사람.  
 @1 으.  
 #1 요령 잇는 사람이 이렇게. 스나이라고 다 허는 거 아니.  
 @ 으으.  
 #1 게 흰허거든. 어느 동네 누게 누게 영. 게문 또 꺾 헤영 안 들어갈 수도 엇거든.  
 @1 예.  
 #1 게문 욱헤여 동네 사람이.  
 @1 음 안 들어가면.  
 #1 갱 쉼스랑 가지고 들어가.  
 @1 으.  
 #1 그 흔 잔 짹 걸쳐근에. 풋, 거 솔직이 나도 여라 번 헤연  
 @1 으.  
 #1 이 정도 두껍게 데쓸라면 뚝이 나.  
 @1 으으. 게민 \*\*\* 속았어. 술 한잔 더 헤여, 더 헤여. 계난 아무나 그 저 흑밭에 들어가질 아녀는 거.  
 @1 그니까예. 땅을 팡은에 일허는 그 사람들을 흑꾼이렌 허는 거?  
 #1 예.  
 @1 흑꾼. 거기 그 사람이 땅도 파고.  
 #1 파고. 아니, 파 놓은 상태에서서니까.  
 @1 응. 파논 상태에서.  
 #1 계난. 뒤쓸 때만 흑꾼이.  
 @1 아. 뒤쓰고 뽀으고. 쉼 불리고.  
 #1 아. 불리고.  
 @1 으. 그다음에 그 아까 저기 모멸, 모멸짹이나 이런 거 놓는 거를 무신거렌 험니까?  
 #3 수세.  
 @1 수세.

#1 수세, 수세.  
 @1 옛날 수세렌 헛지에. 게니까 이 수세를 놔야만이 잘 부트는 거지예.  
 #1 아. 잘 부뜨는 거.  
 #3 잘 부뜨는 게 아니고 흑은 벌러지는다, 말라가믄 이 저 벌러지는 그런 뭐가 있는데 이 수세를 놓으면은 이게.  
 @1 엉켜갖고. 서로가.  
 #3 이게 땡겨주니까.  
 @1 으. 거난 절대 벽에 거 떨어지질 않는다고예.  
 #1 안 떨어져.  
 @1 수세를 놔야예.  
 #1 좀체론 안 떨어져.  
 @1 게난 그 흑질 헐 때는 옛날에 성읍에도 보면 만뒤떡도 해당 맥인다. 뭐 저 집에서 헌덴 헉디다?  
 #3 아, 그런 게 그.  
 @1 피력. 흑피력  
 #3 으. 피력. 친척들이 많으면은 이런 영장밭디나, 이 저 또 집일 집일 헐 때에 전기떡 지정왕은앵에 이건 누게가 험수다 헤영 저 요즘은 뭐 커피 헤영 와근앵에 이거 저 헉 잔씩 주고 영 허지마는 그 당시에는 전기떡이나 만뒤떡이나 친떡이나, 친떡헌 집은 막 부제칩이고.  
 @1 네.  
 #3 보통 그자 켈 이 물자가 적게 드는 게 전기떡.  
 @1 전기떡.  
 #1 겐디 그 떡도 첨 옛, 옛날이주. 것도.  
 @1 예.  
 #1 그때 당시 일부지 전부는 안 허고.  
 @1 거난 잘사는 집들.  
 #3 잘 사는 집.  
 #1 못살아놓니까.  
 #3 형제간 많은 집이. 특히.  
 #1 특히 성제간에는 조금 잇는 아시나 또 형이나 뉘면은 좀 그런 거 좀 잇었다고 봐야주.  
 @1 예. 게난 그런 거를 흑피력이렌 허드라고예.  
 #1 예, 피력. 예.  
 @1 여기 성읍 완, 흑피력이렌 허고.  
 #1 예, 피력.  
 @1 그다음에 밥헤 주는 거를 흑밥이렌 허고.

#1 (웃음)  
 @1 지금도 저 흑밥 저기?  
 #3 계난 흑곳에 든 사름은.  
 @1 예, 흑곳.  
 #1 흑곳, 흑꾼.(웃음)  
 #3 아니 일 허는 사름은 군이주마는.  
 @1 예.  
 #3 흑에, 흑밖은 흑곳.  
 @1 흑곳 구덩이니까 흑곳. 흑구덩이에.  
 #3 흑곳에 드는 사름은 술도 더 주곡, 밥도 더 주곡.  
 @1 으.  
 #3 쟈 밥도 먼저 먹으렌 허고.  
 @1 예.  
 #3 쟈 저.  
 #1 막 우찬 허는 거주, 그렇게.  
 #3 막 속암젠 헤영은앵에. 경 허면은 이제 그거 운반은 산테나.  
 #1 요새 요새 그래 허민 아널 걸. 하나도 안 나갈 거라.  
 @1 예에.  
 #3 산테나.  
 #1 아니 나가 경험헌 거라 노니까.  
 #3 굴체.  
 @1 으.  
 #3 그것도 들러가멍 막 소리덜 헤가멍. ‘학교 아나루가 지났네’ 허멍 거 발 맞  
 추어 가지고 막 그런 소리도 헤가멍.  
 #1 아까 산테 말이 나오는데.  
 @1 예.  
 #1 저 양쪽에 두 사람이 들르는 거 보고 산테라고 하는데.  
 @1 예.  
 #1 그 산테도 힘꾼 잇는 사람. 흑 멧 방울 낱 들러당 뉘나? 심센 사름.  
 @1 예.  
 #1 과거는 힘자랑 헛거든. 너가 이기나 나가 이기나 어느 놈이 지나.  
 @1 심백허멍들예.  
 #1 헤보자. 아.  
 @1 음.  
 #1 그런 걸로 헛지. 지금은 아이 돈 노우, 나도 진짜 몰라.  
 @1 (웃음). 그러면 그 산테는 이렇게 낱 두 개 이렇게 해서 가운데는 무신 걸로

멘들아마씨?

#1 거, 것도 하랑베낭? 낭 이름이 화랑베낭이엔 헐 거라게. 화랑베낭 그거 헤근에 그 부출이라는 것이 양쪽에. 그것보고 부출이라고 허고.

@1 예. 부출. 손잡이. 예.

#1 또 사이에.

@1 으.

#1 그 살 허는 것이 네 갠가. 다섯 갠가 들엄실 거라 그.

@1 으음.

#1 확 굳젠 허난 그것도 잊어불엄신게. 산테 그거 허면은 것도 썬 나무로.

@1 예예.

#1 저, 만들 때 그 썬 나무로 우선. 자귀낭 그런 것도 아니고.

@1 음.

#1 아이 뭐엔 굳, 굽으난 나도 하 또 잊어불엇저.

@1 음.

#1 게난 춤낭으로 헤근에. 산테도 그렇게 헤나고. 참, 아까 굳는다. 들은데로 힘 자랑 허는 사름덜 아무나 그. 나도 춤 그때는 좀 뭐 헛지마는 헐 두어 번 헤받에. 아이고 나 시끄럽다고.(웃음)

### 방 구조

@1 으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예. 또 이제 그렇게 헤근에 집을 다 하면 방들 꾸며야 될 거 아니우파예.

#1 으, 으.

@1 이제 방 꾸미면 아까 이제 큰구들, 그다음에 작은구들.

#1 작은구들.

@1 고팡.

#1 으.

@1 뭐 마리 이렇게 이제 허는 거고. 혹시 여기 방에 이불 개 놓거나 허는 이런 거 만들지예?

#1 거 백장.

@1 백장.

#1 어.

@1 백장은 요즘이 백장이주, 옛날엔 백장이렌 안 굽지 안헤수과? 여기서.

#1 아니, 옛날에 그 백장 우에다가 그 궤.

@1 예.

#1 뭐 사람 옷을 입던 히여득헌 것도 집어놓곡.

@1 음.

#1 거 백장 위에.  
 @1 시령은 뭐우짜?  
 #1 시령이엔 현 건 그 저, 아까 그 백장 우에다가.  
 @1 예.  
 #1 그걸 보고 시령. 이 저쪽은 저 굴목이거든.  
 @1 예.  
 #1 굴목.  
 @1 으.  
 #1 굴목 짚는 그걸 보고 시령이라고 허는데.  
 @1 으.  
 #1 게 그 위에다가 아까 나 곁은 대로 궤가.  
 @1 예.  
 #1 궤짝을 이불도 올려놓꼭 궤도 놓꼭. 그디 보고 시령.  
 @1 게난 옛날에 이제, 요즘은 백장이주마는 옛날은 성읍에서 시령이렌 허지 안  
 헨? 그디 곱아?  
 #1 예. 그.  
 @1 백장. 그 궤 놓는 디 곱아.  
 #1 쟁 굴목으로 강 영 앓앙 혈 땀 시령이엔 허고.  
 @1 예.  
 #1 여기서 혈 땀 백장.  
 @1 아, 방에서 볼 때 백장이고, 굴목에서 볼 땀.  
 #1 저 굴목으로 강 볼 때.  
 @1 예.  
 #1 볼 때는 디. 그 온돌방, 거는 저 시령.  
 @1 으, 거도 불르는 게 뜨나구나 예.  
 #1 어. 시령.(웃음)  
 @1 게난 어딘 가니까 백장을 시령이렌 허드라고. 서귀포도 가니까.  
 #1 아.(웃음) 게난 알로 볼 때는. 몰라 건 난 그렇게 지금도 알고 잇으난.  
 @1 예. 예. 예. 게난 백장을예 시령이렌 요런 식으로 곱읍디다게. 쟁 궤도 놓고.  
 #1 지금, 지금 사람들한테 백장이렌 곱아야주 시령이렌 곱으믄 모를 거라.  
 @1 음.  
 #1 요새 사람 모른다고.  
 @1 시령이 시에 사람들은 시령을 이렇게 냥으로예.  
 #1 아.  
 @1 물건 올려놓는 걸 시령이렌 허거든.  
 #1 아, 아.

@1 계난 그게 뜨나예.

#1 으.

@1 삼춘 이제 방에 잇으면 안자리 밧자리?

#1 예, 안자리, 밧자리.

@1 응. 이걸 안자리, 밧자리 하고예.

#1 으.

## 구들

@1 그다음에 예전에 그 구들 놓젠 허민 어떻 놔난 것도 알아지쿠과?

#1 구들?

@1 예. 구들 놓젠 허면. 옛날 온돌.

#1 얇은 돌.

@1 예.

#1 어, 얇은 돌을 헤영 아래 뭐랍니까. 그 저 구는데로 들어왔당 이제 그 저 째 같은 거나 말뚝 아까 으.

@1 예.

#1 이제 놓게 뉘면 들어왔당 나오게 뉘면 공기가 통허는 디가 다 잇어요. 갱 그 부분은 나도 그 방을 놔, 직접 놔보고도 헤봤지마는 좀 가운데는 흠파야 뉘.

@1 예.

#1 이런 경사지게 좀. 그래야 화력이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1 음.

#1 계난 나 손 벌는 식으로 허는 거지. 게문 중간중간마다 그 모형에 따라.

@1 예예.

#1 그 돌 넓이에 따라서 거 아래 저 틀을 놓는데.

@1 음.

#1 그 모형에 따라 건 놓난. 쥘 중요한 거는 가운데.

@1 음.

#1 으, 가운데 중심을 쥘 넓은 걸로 허고. 구는데 갖다왔다 허는 거니까 허곡. 나머지는 공기만 나가게시리 이렇게.

@1 으음. 계난 굴목 짚을 데를 잘 허는 거구나예.

#1 그거 허면은 돌과 돌 사이에. 으. 돌과 돌 사이에는 흑으로 멧 치. 흑으로.

@1 아.

#1 흑으로 멧 치 헤 난 다음 마른 흑.

@1 예.

#1 걸 역불 저 만들어야 뉘요.

@1 아. 구들 놓는 데예.



#1 아아. 분가루식으로.  
 @1 음.  
 #1 말라가지고 건조하게 됬면은 이거를 꼴아.  
 @1 예.  
 #1 꼴게 됬면은.  
 @1 예.  
 #1 만약 높이가 이렇게 귀클??지. 이 아래보고. 아까 귀클이라 헛으니까.  
 @1 귀클예.  
 #1 귀클??지 이제 어느 정도 행. 마 요 정도. 종이 부짚 정도. 그 정도만 해서.  
 @1 예.  
 #1 걸 허게 됬면은. 이거를 뒹여. 저.  
 @1 체 같은 걸로.  
 #1 체로 쳐 가지고.  
 @1 예, 예에.  
 #1 막 이제 가루 됬거든. 그 흑이. 게문 걸 행은 꼬아난 다음에는 물로다가.  
 @1 예.  
 #1 우에다 뭘 놔가지고 물 우에 물로다가 이제 쑤욱 주거든.  
 @1 음.  
 #1 게문 차근차근 밟아.  
 @1 예.  
 #1 게, 다 뽏아지면은 약간에 곧 허면서 거 불 때보면 안 됬고.  
 @1 예.  
 #1 응. 게 안 허민 불 때불면은 이 부짚 것이 다 떼져붙어.  
 @1 으음.  
 #1 게니까 요것도 어느 정도 건조뒹 갈 무렵에 으 거 불도 떼고. 경 그걸 헤가  
 면 자꾸 마개로 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 때리면서 이걸 헤 가면 이게 바짝 부떠.  
 @1 으으.  
 #1 거 마른 흑이 바짝 부뜬다고.  
 @1 게난.  
 #1 으.  
 @1 반죽 헤영 부짚는 게 아니라 마른 흑을 해서 물을 뿌리명은에 허는 거구나  
 예, 예.  
 #1 쟁 행 나중에는 뒹병.  
 @1 예에.  
 #1 게 안 허믄 저.  
 #3 쟁 흥두개로 밀었주게, 옛날.

#1 뭐니. 던드렁마쨌가 무스거.  
 #3 그걸로 허당 영영 짝당. 그걸로 밀곡.  
 @1 으.  
 #1 (웃음) 거 알암신게. 거 툽툽 쩡엉.  
 #3 아 그건 요자기??지도 우리 저 장판을 그추룩 들이면서.  
 #1 (웃음)  
 #3 유기름[유끼름] 빠당은엔에. 그, 저. 장판지 저발랑.  
 #1 게 가만이 두영은 안 부뜨거든.  
 @1 예.  
 #1 게 물 주면서 헤가믄 그때는 땀 시작, 은근히 땀서 헤가민 열이 올라와.  
 @1 으으.  
 #1 게민 툽툽툽툽툽.  
 @1 게난 거 구들둘도.  
 #1 완전히 뒤면은.  
 @1 으.  
 #1 이제 구들이 식나. 식으면은 어떤 데 보면은 안 까진다 해도 좀 까지긴 까져.  
 @1 예, 예.  
 #1 완전 그 찬후으로 헨다 해도.  
 @1 으.  
 #1 거 찬후으로 해야 뒤.  
 @1 예.  
 #1 이디 꺾은후으로 말고. 찬후.  
 @1 찬후.  
 #1 어. 거 찬후으로 허뒤 으, 걸 허면은 나중에 이젠 저 아이고 흐뎡 거 마분지엔 곤느냐 뭐야. 허 참.  
 @1 으. 종이, 종이.  
 #1 쥘 얇은 종이가 잇어.  
 @1 예.  
 #1 거 창호지 닳은 거. 걸 낄아, 저 부찌거든.  
 @1 으음.  
 #1 걸 허게 뒤믄 이제나 저제나 그거 쥘 좋은 거라. 쥘 얇고 풀 부짱 내불면은 거 마른 다음 후에 또 다른 벽으로 부찌는 거라.  
 @1 예, 도비, 도비하고.  
 #3 거 요즘은 그 옛날은 뭐 종이 중에 쥘 싸고 거 저 허는 종이가 그 마분지엔 행은엔에. 이 색깔이 아주 거므룽헌 거 저, 종이가.

@1 예.  
 #3 얇은 게 있는데, 요 중간에는 이런 나이롱 장판 나오기 전에는 뭘 썼느냐 하면 저 이 창호지.  
 @1 예.  
 #3 창호지로 그 바닥 초불을 빌라.  
 @1 음.  
 #3 그다음은 이 장판지를. 그 장판지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세멘 포대 그 종이 가튼 거.  
 @1 예, 예, 예.  
 #3 그거 나오지 안 험니까. 그거를 이제 그걸로 도비 해놓고. 그다음은 유치름.  
 @1 예.  
 #3 들깨, 들깨기름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솔로.  
 @1 으.  
 #3 그 멧 번 칠, 한 여남은 번 칠하면은.  
 #1 빈직빈직허주, 바짝허여.  
 #3 깨끗허고. 청소허기도 좋고.  
 @1 음.  
 #3 거 이제 그 장판 들이젠 허면은 그 촛흑.  
 @1 예에.  
 #3 요샌 촛흑. 촛흑 허는디 그 황토.  
 @1 예에.  
 #3 그걸 어느 지, 지역에 가서. 여기도 한, 땅 한 일 메다나 이 메다, 특히 이런 저 내창에 가면은 촛흑층이 짙어지게 있으니까.  
 @1 음.  
 #3 거기 가서 이제 파가지고 것도 이 저 마차도 엇곡 허민. 저 푸대에 짙어정 왕.  
 @1 예.  
 #3 방 하나 깔젠 허민 거 꿰 들거든.  
 @1 예에.  
 #3 계민 이제 그거 헤다가 막 마께질 허명. 그, 그게 그디 이런 저 모래 가튼 거 잇는 흑도 안둬고 그 제라헌 좋은 흑이라야 허는데, 걸 곱게 그거 허젠 허민 이 도베도 봄에는 안 헛지마는 보통 이 저 가을에.  
 @1 으.  
 #3 가을에 장판들을 이 저. 구들 그 바닥을 전부 해가지고.  
 #1 가을에 햇빛이나.  
 #3 저 거 워냐허믄.

#1 저 건조가 좋으니까. 보통.  
 #3 북풍이 북풍이 계속 부니까.  
 #1 가을에 보통.  
 #3 하늬브름이 부니까. 하늬브름에 다 몰리와근엔에. 그거 저 장판 다 들영 나  
 사민 겨울이 뉘부는 거라.  
 @1 예. 경해근에 불 때믄 뉘는 거구나게.  
 #1 거 아무 때나 해근에 장판 못 들여.  
 @1 예예.  
 #1 특히나 이 저 성읍리는 장마가 심헌 곳이라, 제일 우량이 많다고 허는 지역  
 인데.  
 @1 음.  
 #1 쟁 여기는 집도 저디 서귀포도 헛 해 헛 번 집 일질 아녕, 헛 해 거스령도  
 허는데.  
 @1 음, 음. 남쪽에는.  
 #1 성읍리는 꼭 헛 해 헛 번 일어.  
 @1 예예.  
 #3 이 겨고 특히 이런 집을 지을 때 이 마루 같은 거 이렇게 놓잖아요? 여기  
 방이거든.  
 @1 예.  
 #3 방하고 이 마루 사이에 돌을. 이제 이 밑에.  
 @1 예, 예, 예.  
 #3 이 도리 아래 그 저, 돌을 구멍이 뼈끔뼈끔 나가게 헤.  
 @1 예.  
 #3 웨냐허민 굴목을 살르면은.  
 @1 음. 연기가.  
 #3 그 연기가 마룻바닥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제주도 굴뚝 없잖아요.  
 @1 예.  
 #3 그게 이런 저, 이 저.  
 @1 소독 효과도 잇고 좋다고.  
 #3 아이 그, 요런 텃마리 알로 다 나가게시리 만드는데.  
 @1 고망, 예.  
 #3 그래야 그 불기운도 방에 골고루 돌아가고. 마루에 그 연기가 들어옴으로써  
 마루가 썩질, 저, 쯤을 안 쳐.  
 @1 쯤 안 치는 거, 예.  
 #1 나무도 썰고.  
 @1 예. 맞아마씨.

#3 그 나무가. 우리가 그 마루를 뜯어서 보민. 걸레질 자꾸 헤버리니까. 우에서  
요만큼은 썩어 들어갔다고 지금.

@1 예에.

#3 썩어 들어가도 그 빈들빈들 허는데. 거 이제, 지금 이제 한 달쯤 두 달쯤 잊  
으면은 이 저, 감옷 들일 때.

@1 예.

#3 마리를 감옷 들이다 남은 감 찌꺼기를 던져버리지 아녀고 마루에다 헤가지  
고 그걸 막 걸레질허는 거라.

@1 아.

#3 경허민 니스 칠 현 거처럼 이제 마루가 새카맣게 뉘.

@1 옛날도 경 헛습니까?

#3 예. 옛날, 옛날에

@1 옛날에.

#3 조상님들이 그렇게 현 거를 우리도 이 저 와 배운 거주.

@1 예에. 그니까 어쨌든 그 마리를 헤보면 뒤에는 꺼멍허지만 썩진 안 한잖아  
예?

#3 예. 누렁합니다, 아 저 마루 때영 보민.

@1 꺼멍, 누렁.

#3 위에는 거멍허고 아래는 누렁해.

@1 으으.

#3 이 저 완전 요기.

@1 불 숨어나니까 시커멍해. 예.

#3 요거보다도 조금 더 꺼멍해.

@1 으.

#1 게민 저 뭐여, 온돌 때면은 연기가 다 새 나왕.

@1 그니까 그 연기가 소독 효과가 다 있는 거잖아예, 예.

#1 연기 원 안 나오게는 못 허지게.

#3 아무리 좋은 낭으로 집을 지어도.

@1 음.

#3 사람 안 살아 십 년만 뉘믄은 그 낭 다 썩어버립니다.

@1 예, 예.

#3 게난 여기 사름들토 그 우리 하르방덜토 저 뭐엔 잘 곱으나 허면 사름 독이  
독헌 거라이. 사름 그 이 들락날락헌 데는 그게 나무가 그대로 잇는데.

@1 음.

#3 십 년만 안 살민 그자 폭삭 다 삭아불어.

@1 맞아예.

#3 그니까, 우리가 이제 부엌에 강.

@1 지혜가 우리 어른들의 지혜가.

#3 예. 부엌에 강 밥도 해 먹곡 거 허멍 그 침 눈물 찰찰 허멍 그 저 정지에서 해 먹는 게. 집을 보호하기 위헌 그 저 뒷도 잇는 거라.

@1 예예. 게난 굴묵 행 단순허게 저기, 방만 띄시는 게 아니라.

#1 으.

@1 거기 다 이 돌들 틈 해 갖고예.

#1 예. 거 자연적으로 다.

@1 골고루 연기들 다니게끔. 예예. 게난 굴뚝 역할을 그 마루 밑에가 다 헌 거 네예.

#3 예.

#1 다.

@1 으, 으.

#3 육지는 굴뚝을 딱허게 허면은 굴뚝도 그 세우면은 그 연기도 잘 빨아들이고 불도 잘 부뜨는데 우리 이 굴묵식은 이거 이거 어디 저 몽고나 가보면은 저, 몽고 가면은 이런 저 굴묵 살르는 데가 많아요, 그.

@1 예.

#3 현대 우리가 꼭 그 식이라.

@1 음.

#3 거 옛날은 이 저 여름에 소덜을 방목허지 안 험니까?

@1 예.

#3 방목허고 또 이제 바령 들이고 허면은 가을 뉘가면은 이제 추수허고 뉘행 쫓곰 여유가 이시믄 뉘똥, 뉘똥 좃으레.

@1 예예.

#3 쉼똥 좃으레 식구가 다 나가는 거라.

@1 음.

#3 경 그거를 막 헤다가 굴묵에도 데며놓고. 밧거래도 데며뉘당은엔에 이제 겨울 뉘가지고 이제 한겨울 뉘민은 이제 그 뉘똥으로, 뉘똥이나 쉼똥으로.

@1 음.

#3 굴묵을 때면 아침이 저 불을 부찌면 하루 종일 가니까.

#1 아. 따듯허주.

@1 오랫동안예.

#3 예.

## 마리

@1 그런 식으로 하고. 삼춘예 마리, 마리도 직접 뉘 뉘디가? 마리?

#1 마레.  
 @1 예. 상방 그, 마루 놓는 거. 널.  
 #3 안 놔봐주. 그건.  
 #1 목수가 허는 거난.  
 @1 아아, 마루는.  
 #3 아니, 아니. 조수를 헤 봤는다.  
 @1 예. 조수 헤 봐수까?  
 #3 이 마리널이.  
 @1 예.  
 #3 이거 쪽, 쪽마루니까.  
 @1 예.  
 #3 이 저 중간에 귀클을 걸 때.  
 @1 음.  
 #3 한쪽은 젤 옆에는 요만큼 그 판자 하나 들어갈 만큼 이거 따.  
 @1 예.  
 #3 따고. 그다음 요런 식으로 한쪽은 영.  
 @1 걸칠 수 있게 되지 안허파예?  
 #3 아니, 아니. 걸치는 게 아니고.  
 @1 으.  
 #3 요렇게 허고 요렇게, 요렇게. 이, 한쪽이 좁고.  
 @1 으.  
 #3 한쪽은 넓게 헤가지고 저쪽부터 이 넓은 쪽부터 놔가지곡 얇은 쪽으로 미는 거라.  
 @1 아.  
 #3 이, 저.  
 @1 귀클 따라서.  
 #3 귀클 따라가지고.  
 @1 으.  
 #1 귀클에 영 파져 잇주게.  
 @1 예, 예, 예.  
 #3 그니까 그 옆이 마리가 들어가젠 허민 널판자도, 널판자도 얼마나 이 귀클이 트라졌느냐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다 찢라가지고 허면 딱 전부다 맞고, 너무 세게 놔버리면은.  
 @1 으음.  
 #3 장마 뉘면 이게 파악 밀려가지고 베틀어볼어.  
 @1 예, 예. 무슨 말인지 알쿠다.

#3 이 판자가 요렇게 틀어붙어. 겨니까 겨울 뒤민 또 이게 흘랑흘랑흘랑하고.  
 @1 계난 옛날 마리들 보면 그 저 틈도 영 벌어진 게 그거구나예.  
 #3 예. 예, 예. 그거.  
 @1 아아.  
 #3 일부러 계난 놀 때 이 보통 나무를 아주 그 저, 여기 우리 현청사 가튼데 공사하는 데 가보민. 이걸로 마리 놓민 안될 건디. 조금 잇으면 다 갈라지고 다 휘어져 버리고.  
 @1 으음.  
 #3 그냥 그 막 몰아놓으면은 장마 때 뒤면은 다 갈라져불고 다.  
 #1 으.  
 @1 으. 물 먹으면 이거 커지는 거구나예.  
 #3 경허고 귀클이 좋질 안 해놓니까.  
 #1 으.  
 #3 귀클 잇는 데로 다 짜져버린다고.  
 @1 아아.  
 #3 쟁 우리 할아버지네 그런 식으로 저 현 마리들은 그 워낙 이제 뭐를 좋은 걸로 해놓니까 그게 엇고. 쥬 끝애 가면은 요만큼씩 냉겨 놔뒤어, 그게.  
 @1 으음.  
 #3 쥬 얇은 걸로 뒤더라고. 웨냐허믄 요거를.  
 #1 막 몰라사.  
 #3 이 장마 때 뒤면은 이 막 저 늘어나거든. 가져불고.  
 @1 예예.  
 #3 근디 우린 그걸 몰라가지고 막 그냥 다른 거 해당 대멍 딱 붙게.  
 @1 딱 딱 이렇게 맞게 헛는데예. 으음.  
 #3 쟁행 나중에는. 아하 이거 다 생각이, 거 철도도 말이여 이거 이만씩 저 틈을 낳은애 이어가는다 이거 마루도 놀 때 다 그런 원리를 이용헛구나 현 걸 알아져마썸.  
 @1 아아. 거난 요만큼 끝애 틈을 벌여지는데. 어느 날은 다 짝 차잇고. 어느 날은 벌여지는 거네예.  
 #3 아. 오월 장마 뒤믄.  
 @1 짝 차.  
 #3 이제 앞으로 한 달만 잇어가믄 이게 다 차가.  
 @1 다 부떠.  
 #3 부떠.  
 @1 으음.  
 #3 그러다가 오월 장마가 넘으면 또 이제 싸악 벌여지믄. 마루에 누워도 시원헌



게 머냐믄 그런.

@1 틈들이 잇으니까.

#3 틈이 잇으니까 시원하고. 굴목을 때면은 그게 밑에 마룻바닥에 다 소독이 됩니까.

@1 음.

#3 모기 같은 것도 안 생기고.

@1 예. 보통 마리는 무신 널을 하영 썬수과?

#3 이 굴무기.

@1 굴무기.

#3 이 저 문은 사오기.

@1 문은 사오기 하고.

#1 옛날에는 다 아까도 굴앗지만 옛날은 춤낭으로만 다 헛어.

@1 그러니까예.

#3 저 굴무기나 가시낭.

@1 예. 가시낭도 예.

#1 지금은 그런 거 허젠 허민 침 어렵주.

#3 그 썬 그저 무시거파. 저 무시거 몽클인가 무시거 영 허는 거.

#1 자.

#3 그 낭이 가신 엇어도 무사 가시낭 가시낭 험신고? 그게 낭이 썬장히 세어.

#1 그.

@1 이름이 가시낭. 종가시낭 허는 식으로예.

#3 으. 게메 게난 그게 나무가 썬장히 저 단단하고.

@1 예. 상수리나무 가튼 것들.

#3 으. 이 저 우리 성읍리는 보통 보면은 문은 사오기로 많이 허고.

@1 음.

#3 그 저, 지금 사꾸라낭.

@1 예.

#3 그걸로 많이 허고. 이 마리는 굴무기를 많이 헛어.

@1 굴무기로 하고. 아. 게문 삼춘 아까 이제 우리 북덕방 허면 부섭을 낫잖아예.

#3 예.

## 부섭

@1 부섭을 이제 놓는 경우도 잇지만 마리에 부섭을 박은 집도 잇어나수과?

#3 이 저 마리 논 디는 부섭을 잘 안 박아.

#1 성읍린 엇어.

@1 아. 성읍린 엇어예?  
 #3 아니 아니. 없는 게 아니고양 무사 그걸 허민. 이게 마리에 부섭을 낫던 디는 북덕방 혈 때는 낫당, 마릴 놓게 되믄 정제터레 저 이살 가버려.  
 @1 아아.  
 #3 화재 따문.  
 @1 화재 따문.  
 #3 예.  
 #1 건디 저. 우리 웨가는. 저 신평리 강 보면 없는 집이 엇어.  
 @1 예. 마리에 부섭 다. 으으.  
 #1 거 전부. 저 뒷무뚱 옆에다 그 다 덕이 이서. 신평리 거자라.  
 @1 신평리 거저예.  
 #1 성읍린 엇고 저 강○○ 할망, 그 강○○ 집이 그 부억에 그 하나 낫어.  
 #3 아. 무사. 조○○네 집이도 잇어나수다. 조○○네 부억에 탁 들어가는 디 저.  
 @1 성읍리도 옛날 나 조사할 때도 보난. 그 저기 부억에 부섭 낳은에 이제 피물리젠 허민 고리도 영 멩은에예 이런 것도 잇었는데. 마리에 박지는 안 헛구나. 게믄 마리에는?  
 #1 마리에 논 거는.  
 #3 게고 이 성읍리가.  
 @1 예.  
 #3 성읍리가 옛날부떠도 이 해변에 사름덜이 성읍리 오젠 허민 성내 감저 헛다고 성내.  
 @1 성내. 예.  
 #3 뭐 제주시 성내 가는 게 아니고.  
 @1 예.  
 #3 이 우리.  
 @1 여기도 성 이시난.  
 #3 성내 감저 행은에. 말을 타고 오다가도 남문, 저 남문에서 한 한 이 삼백 메다 떨어진 디서부떠.  
 @1 내령.  
 #3 내령 걸어오지 안 헤가지고 말 타가지고 요 앞이??지 왔다가는 이 저 어디 잡아다가 막.  
 #1 득투아낫젠 말도 잇어.  
 #3 곤장도 쳐. 아니, 아니. 실지로 때렸젠 헛디다게.  
 @1 고문동산에서?(웃음)  
 #3 현청사에서.  
 #1 저 물 타당 내려왔젠 말도 거 춤.(웃음)

#3 건 경 안 허민 매 맞넨 헤영은엿에.  
 @1 걸영 들어와예.  
 #3 걸영 들어와야.  
 @1 으음.  
 #3 아이, 성안네 어디 아무라도 그 말 탕 텅기는 게 아니고.  
 #1 아무나 뭘 타든 못 들어오주게.  
 @1 예. 게든.  
 #1 공문동산 허는 디가 유명한 디주 또.(웃음)  
 #3 경 허당 보니까. 주택환경도 이런 삼달리나 이런 신평리나 이런 가시리허고는 틀려.  
 @1 예예.  
 #1 아. 그디허고는  
 @1 거난 집들도예.  
 #3 옛날부터 원님이 살멍 그 좀 많이 거 뭍를 헤놉가지고.  
 #1 관청이라 헤가지고.(웃음)  
 @1 예예. 게난게 그 관청.  
 #1 텃세가.  
 @1 경 헛덴 헛디다게 성읍리가.  
 #1 텃세주, 텃세.(웃음)  
 @1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게든 식게 때 가튼 때 적은 뭍로 뭍에서 구워수과? 부섭 안 하면.  
 #3 화리.  
 @1 아, 그냥 돌화리?  
 #3 돌화리.  
 @1 거는 갖다당 헛 거구나.  
 #3 건 들렁 텅기명도 허고게 그.  
 @1 예.  
 #3 거기 석쇄.  
 #1 돌화리덜은 여러 집이 잇주.  
 @1 으. 돌화린 잇엇는데 마리에 부섭 박지들은 안 헛구나. 아.  
 #1 부섭은 나 아까 굴은 식으로 신평리 각 가구에 잇어.  
 @1 예.  
 #1 그니까 우리 웨삼춘네 집이 강 보든 뭍 없는 디가 없어.  
 @1 으.  
 #1 거긴 다 마루에 잇어.  
 @1 예, 부섭을 헛은에 거기서 적 허고.

#1 성읍린 별로 엇어.

#3 여기는 이 돌화리덜은 아주 치레해났어.

@1 예. 돌화린 치레허고예.

#3 게 이 골동품 허는 사름덜 통에 없어져, 없어져버린 게 이 저 사오기 대문  
덜.

@1 아.

#3 그거 저 목판허젠.

@1 음.

#3 그것덜 다 사가버리니까 엇고. 옛날 궤.

@1 예예.

#1 궤 7튼 거.

#3 또 이런 돌화리 7튼 것도 와근에 말여, 옛 쥐근에 바꿔가불곡 허다 보니까.  
(부분 생략)

### 고팡

@1 경 허고 삼촌 이제 여기 옛날 고팡에. 고팡에는 주로 뭐 놓는 거우파?

#3 곡식.

#1 곡식 전부. 창고주게 창고.

@1 창고예.

#3 향아리 낱은엿에.

@1 예.

#3 그 두지는 마루에 놓고.

@1 음.

#3 향아리는 저 그 고팡에 놓고.

@1 고팡에 놓고.

#3 고팡은 꼭.

#1 겐 할망 집이난. 할망.(웃음)

@1 음.

#3 고팡은 꼭 그 주인장 자는 안네.

@1 예예.

#3 안네 잇어. 게난 그 며느리한테 고팡 열썰 주젠 허민. 첨 시어멍이.

@1 음.

#3 며느릴 안 미워혈 수가 엇주게.

@1 그러니까.(웃음)

#3 아, 금고를 메끼는디.

@1 음.

#1 게 맞추. 계난에. 금골 메끼난에 씨앗도.  
 #3 예. 그 때문에.  
 #1 씨 혈 거는 젤 안터레 놓고. 임시 먹는 건 도에 놓고.  
 #3 이녁 젤 아까운 아들 도둑질 헤가불지.  
 #1 (웃음)  
 #3 금고 주젠 허면은 고부간의 갈등이 엇일 수가 없어.  
 @1 계난 이 성읍리도 계난 고부 갈등이.  
 #3 아, 옛날은. 경 허니까 다 따로 살아버리는 거라.  
 @1 으으.  
 #1 그렇덴 말이주.(웃음)  
 #3 씨집가면은, 씨집 장가가면은.  
 @1 예.  
 #3 이제 딱 집을 마련해줘가지고 놈이 집을 살아도.  
 @1 아.  
 #3 내쫓가 부는 게.  
 @1 내쫓가 부는 거?  
 #3 으.  
 @1 으.  
 #3 아 같이 살면은 결국엔 그놈은 저 고팡을 쥘살 거난에.

(부분 생략)

### 창곰

@1 아, 예, 이제 우리 허는 디까지 허영예. 그다음에 여기에 그 아까 고팡에 허면, 이 창문 닳은 거. 이런 게.  
 #1 장궤.  
 @1 아니 장궤 말고 고팡예.  
 #1 고팡.  
 @1 문 드는 대신에 뭐헙니까? 영 고망 풀르지 안 헙니까?  
 #3 창곰.  
 @1 으.  
 #1 창곰.  
 #3 창곰 헤도. 보통 이디도 저 그 집 관찮으다 현 집은 다 뒤에 문 잇엇지.  
 @1 아.  
 #3 문을.  
 @1 반창 달앗구나.

#3 반창보담도 대문은 대문이라도 좀 작게.  
 @1 예.  
 #3 저 그 그래야 자꾸 이 저 환기시키곡.  
 @1 응. 그 고팡문은 경해도 그 뒤에는 쪼꼬만허게 행은에 창곰.  
 #1 창곰인데, 창곰 그 큰 돌로 헤가민 7망을 영 네귀방장허게시리 톨라근에 옛날 집은 대략 보민 고팡에 그거 다 있어.  
 @1 예, 거기 영 쌀도 이렇게 박기도 합니다.  
 #1 응. 문 돌아근에 허는 집도 있지만, 보통은 영.  
 #3 건, 도둑 방지도 기곡 개 고녕이 못 텡기게시리.  
 @1 개 고녕이 못 텡기게.  
 #1 게난, 고팡 영 허민.  
 @1 창곰.  
 #1 낭 영 세와 잇주게 또.  
 @1 예,예.  
 #1 낭 그 워냐면 고녕이 텡기니까.  
 @1 응.  
 #1 그런 거 다니명 또 곡식이나 먹어 불카부덴 행 거 방어라 거.  
 @1 예, 예.  
 #3 아니, 그것도 그거주마는 옛날은 톨이나 아덜을 시집 장깬 보내젠 허민 도세길 잡아. 도세길 잡으민 놀 디가 고팡벧긔 없어.  
 @1 응.  
 #3 고팡에 그 이 다라에나 구덕에나 놔근앵에 궤길 놓면은. 그.  
 @1 창곰.  
 #2 창곰으로 고녕이덜도 텡기곡 개도 텡기난, 우선은 그걸 방지허기 위해 가지고.  
 @1 쌀을.  
 #3 쌀을 박고.  
 @1 예.  
 #3 보관힐 데가 뭐 어디 정지에도 놓을 수 엇고 삼방에도 놓을 수 엇곡 허니까 고팡에 꼭.  
 @1 응.  
 #3 이 저 큰일 날 때는 대소길.  
 #1 아, 그렇게 어렵게 살아놓니까, 보관도 다 고팡에 강 헤불곡 어, 우리 포제, 마을에 포제힐 때도 경해서.  
 @1 아, 고팡에서예.  
 #1 우리가 나가 한창 당시에 어느 분이라고 얘긴 안 헛지마는 그 00보고 예 형

님, 뭐 말이나, 거 형님!

@1 응.

#1 멩텅이에다가.

@1 예.

#1 전기떡 막 들어 온 거 잇잖아.

@1 예.

#1 게문 건 자기네 막음대로 쓰는 거거든. 거 형님 거 멩 개.(웃음) 게서 우리가 쫘 뭐랄까, 뭐 춤 우리가 도움을 받았. 우리도 먹어본 도렌. 겐 고망에다가 막.

#3 옛날에는.

@1 고팡에다가 숨건.

#3 옛날은 옛날은 이런 포제? 뜯 거 이런 거 흘 때, 지금처럼 콘테나도 잇곡 뭐 햄시든 이 그릇이 혈건디 그런, 옛날은 이 떡을 해오면은 이런 전기떡을 해와도.

@1 예.

#3 놓을 데가, 멩텅이 소곱에.

@1 응.

#3 멩텅이에 놔. 멩텅이. 멩텅이에 낫다가 그거 또 쟁반에 놔가지고 소님 오면은 접대헛곡.

@1 응.

#3 그런 식으로 해놔는데, 주 그, 그릇이.

@1 예.

#3 멩텅이헛곡 구덕이주게.

### 안칠성과 바깳칠성

@1 예, 맞수다. 여기 안칠성도 모십니까?

#3 예.

@1 안칠성.

#3 예, 우리집이 잇어마씀.

@1 아, 안칠성헛곡 바깳칠성헛고는 어떻 차이나마씀? 그거 곱아줍서.

#3 안칠성은 고팡에 모시곡.

@1 예.

#3 바깳칠성은.

#1 베꿏디.

#3 이 베꿏디 놀허영,

@1 으.

#3 이, 저 주쟁이.

#1 주쟁이.

#3 주쟁이 차근엔에 그 저 일 년에 한 번, 것도.  
 @1 응.  
 #3 지붕을 골아줘야 허는다. 아 이젠 그것도, 단가가 올란. 허난 삼십만 원 받아가대.  
 #1 (웃음).  
 @1 아아, 이거 밖에 주쟁이 허는 거. 어, 게문 집 바로 뒤에 험니까?  
 #3 예.  
 @1 바로 집 뒤에 놔? 건 어디 놔? 그 저기, 바깥칠성은.  
 #3 이 좀 울타리 안에도 오소록헌 디 그걸 험주게.  
 #1 보통은 집에서 험주, 집이서.  
 #3 게 아니허믄 보통은 집 뒤에 저 집 두에 험엇는데, 우리는 집허고 약간.  
 @1 으.  
 #3 저, 떨어진 디 허는다.  
 #1 성읍리에서는 집이 몇 집 드물고.  
 #3 아, 이게.  
 #1 해변가엔 지금도 허고 이실 거라.  
 @1 음.  
 #3 이게 이 우리 옛날 할머니들 때부떠 험던 거라. 아녀민 몸이 찻찻하고 이제 시대가 변헤가난 이거 설러볼게 허젠 헤도 며느리들도 영보당 예, 그거 돈 얼마 안 드는 거난 헤뵈서게 허멍.  
 @1 응.  
 #3 거 경허니까 나가 이 저 지금??지라도 그것을 명맥을 유지헤 오는다.  
 @1 응.  
 #3 아이 참, 불필요험 때도 쯤 잇긴 잇어도. 것도 사람은 마음이 쯤 편헤야.  
 #1 아, 안심허난.  
 @1 예게. 맞수다게.  
 #3 예, 그 돈 삼십만 원 들여근에 멧 사람이 쯤 마음 편허게 헤불자험 나 지금도 저거.  
 @1 게문 안칠성은 아까 이제, 그 안칠성은 뭉고 바칠성은 뭉우짜?  
 #3 게난 안칠성은 모시진 안 헤.  
 @1 예.  
 #3 그 저 제사 지낼 때나 멩질험 때.  
 @1 예.  
 #1 잡식만 허는 거주.  
 #3 그 저 저 이런 밥 이제 놓고 이렇게 헤근엔에 강 영 그자.  
 #1 케우리는 거.



#3 케우리는 거.  
 @1 건 어디로, 어디 올려?  
 #2 이 본래 이 저 어디 옛날은 고팡에 낚나신디, 이젠 고팡덜이 다 엇이난. 그  
 자.  
 #1 싱크대.  
 #3 저저 씽크대, 우이 낡.  
 #1 이제는 씽크대.  
 @1 이제 씽크대 우이 낡당은예.  
 #3 아, 옛날은 다 그.  
 @1 고팡에예.  
 #3 아니 옛날은.  
 @1 음식도 다 행은에 올리는 거지예?  
 #3 아, 옛날은 이 저 안네도 허곡 그 밧칠성도 잇곡 안칠성도 잇곡. 이 저 조왕  
 이엔 헤영은엔예..  
 @1 예.  
 #3 따로 헛엇거든.  
 @1 조왕도 따로헛엔예?  
 #3 조왕엔 뭐냐하면 문제 지내난 걸로 조왕에 강은에 다 허곡 그 저 허곡 허주  
 게.  
 #1 겐 요새는 안네허면은 저 아까 씽크대 위에서 현 거 그건데, 과거는 고팡에  
 춤 뭐 신이 멧 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다 헤낫주게.  
 @1 예.  
 #3 제주도는 헛 팔만 멧 천 신이 잇덴 헛디다.  
 @1 게난 그게 안네렌 현 게 고팡에 논 거를 안네렌 헛니까? 여기서. 안칠성은  
 안네, 안네예.  
 #1 안네.  
 #3 게난 이, 이런 그 밧칠성 그 저 곱젠 허민 여기는 안네 덩긴다, 안네 덩긴다  
 허영. 저 밑에 가믄 안할망이라고 잇어.  
 @1 예.  
 #1 관청할망.  
 #3 관청할망.  
 @1 예.  
 #3 거기도 가근엔예 갓다와야 저 집에 와서 또.  
 #1 그디 갓다와근예 집에서 정월보름날이라도 집에서 어.  
 #3 아, 나도 이거 믿거나 말거나. 저, 저 허는다. 우리 작은 아버지가 이 동네서  
 는. 아주, 이 면 안에서는 손꼽히는 갑부라.

@1 아.

#3 현대 ○○이가 뭐렌허느냐, 뭐엔 허느냐민, 우리 족은아버지네 집이 먼저허 곡 그다음. 야, 올리 족은하르방 죽으크랍디다 허난. 막 건장훈, 건강한 분이주. 몸무게도 현 구십 키로썸 나가고 심도 좋고.

@1 응.

#3 에이 무신, 겐 나 하르방안티 좀 정리허렌 헛수다 허멍. 계난 하르방도 응 허멍 헛게. 아, 그해 여름 나니까 죽어불더라고. 아, 계난 나 아니 설러불젠 허단 에 이런 것도 잇구나 헤가지고.

#1 맞아, 으.

@1 계난 그 심방이 경 골은거라마썸?

#3 예.

#1 의심이 병 아니라.

@1 으, 의심이 병 예, 맞수다. 게문 고평 그 주쟁이 갈 때는 정월 보름에 헤마 썸?

#3 아니, 아니. 그.

#1 그거는.

@1 안할망 가는 날이 정월 보름날에 가는 거우파?

#3 아니, 그 정월보름날 택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우리 마을에 포제를 지내 난 후에.

@1 음.

#3 그게 저 우리 저 동네 말로 저 올레코시라고 헤 가지고.

@1 올레코시. 예.

#3 올레코시, 문전, 문전코시 허는 겁주게.

@1 예.

#3 이게 본래 이 포제를 지내난 다음에 개인 집이는 헤야 뉘여.

@1 음.

#3 저 포제는 천제기 때문에.

@1 예.

#3 겐디 여기 몰지각헌 사름덜은 이, 날 좋덴 행은에 포제허기 전이 헤부는 그 사름덜토 잇는데. 보통 그 올레코시허는 것도. 이 저 입춘이 넘어야 새해니까, 그 때 들영 허는디. 포제도 입춘이 지나면은 쥬 그 정해일을 골라가지고 허는 건데. 그 그것보단 좋은 날이 앞이 메칠 없는디, 옛날은 여기 관청 그 소재지 땀에 절대 그런 거를 금헤났는데 요즘은 이렇게 보민 가끔 허는 사름덜이 잇어.

@1 음.

#1 이제는 차차 그 신앙이라는 것이 뭐 사라지고 잇다.

@1 응.

#1 마 그렇게 봐도 뵈 거 찜, 아까 이 사람이 골암주만은. 정해일을 정해서 포제도 지내곡. 어, 또 안할망안티도 다닐 때면 보름이 뉘민은 각 가정마다.

@1 예.

#1 그런 거 뉘가 우린 해났는데 요새는 조끔 아마 나도 우리 할망?라 아 그만 해달라고 허니까.

@1 삼촌네도 계난 그거 햄구나예?

#1 으, 현재??지는 찜, 어딘가모르게.(웃음)

#3 게고, 지금 그 안할망당이엔 저 밑에 보면은 이 저 입시철에.

@1 예.

#3 입시철에는 이 동네에서만 다니는 게 아니고 제주시에서도 오는 사름덜 잇곡, 특히 요기 난산리, 가시리서가 많이 온다고.

@1 응.

#3 저 관청할망이니까.

@1 예.

#3 이 저 어떻 강 공무원이라도 잘 부뜨게 해줍센 허영 그렇게.

@1 시험볼 때. 예.

#1 아, 계난 지금 깨끗이 지어놔잖아요.

@1 예.

#1 게, 나무 아래 헛다가, 큰 나무 아래 헛다가.

@1 예.

#1 저쪽으로 그.

#3 옮겨가지고.

#1 ○○ 당시 한 몇 년 넘었어요. 새로 만든 게.

@1 예.

#1 지금도 다니는 사람 막 하.

@1 시험보기 전인 다 간덴 헛디다.

#2 예, 시험보기 전에 오는, 이제 널 모리 수능이다 허면 그때 보면은. 이 어른덜 많이 와.

@1 예.

#1 성읍만 허는 것이 아니고 찜 아까 말헌 대로 뉘 이 근방에서 다 와.

## 정지

@1 응. 계난 그런 칠성도 이제 그렇게 허는 거고예. 그 정지는 뉘 뉘 놔 놔수과? 정지엔.

#1 밥허곡 갱.

#3 아, 저 제를 이제, 물항.

@1 물항.  
 #3 솟도 큰 솟부터 쪽, 쪽쪽 허게시리 그 저 젤 동솟??지 허영.  
 #1 우쪽에 뭐 가마렌 헐 수 잇는 큰솟.  
 @1 큰솟.  
 #1 어, 무쇠로 헐 솟.  
 @1 예.  
 #1 옛날 아루미가 엇이난.  
 #3 아, 게난 옛날은 무쇠솟이고 요즘은 알미늄으로 다 큰솟으로 차근차근헤가지고 젤 쪽은 것?라 동솟이엔 허주게.  
 @1 예, 동솟.  
 #3 건 아멩헤도 아이 동제 쓰는 모냥이라 이거양.  
 #1 동제, 동제.(웃음)  
 @1 동제 허는 거.  
 #3 동솟 그거 헝은엔에.  
 #1 작은솟, 동제 헤먹는 하르방. 그거 옛날 부제칩 하르방, 동제. 헐 사름만 먹는 거.  
 @1 예.  
 #1 그 동제.  
 #3 물항, 그 물항.  
 @1 예, 물항 놓고.  
 #3 그다음 저 살레.  
 @1 살레 놓고. 예.  
 #1 물항은 바로 그 솟, 큰 솟 뒤에다가 살레영, 물항이영 바로 옆에.  
 @1 응, 큰 솟 옆에구나게, 그계.  
 #3 경허곡 이 저, 저 멍석을.  
 @1 예.  
 #3 멍석을 쉼왕이나 정지에 많이 걸었어.  
 #1 아.  
 #3 멍석이 잘 썩어 불거든 저계.  
 @1 예.  
 #3 게니까 이 자꾸 이 저 연기 나는 디 힘으로 그 꼭 멍석을, 우리 할머니 살때도 보문 멍석 헐 열댓 질 헤도 꼭 그 저 그 부억에 헤가지고 그 저 무시거 영매어가지고.  
 @1 예.  
 #3 저.  
 @1 줄 매영예.

#1 줄 매영.  
 #3 줄 매영 그디 다 저 허곡. 이 정제 그 무똥은 보민 이 다 귀클이 다 높아.  
 @1 예.  
 #3 지팡이. 거 무사 지팡을 노프게 헤신지 몰르.  
 #1 (웃음).  
 #3 몰르는다, 지팡이 다 노파, 다른 디보다.  
 @1 맞수다. 발 영 올려냥예.  
 #3 들러사, 들러사.  
 #1 옛날 지팡은 다 높아.  
 @1 음.  
 #3 게고, 그 딱 부억 앞이는 물팡.  
 @1 예, 물팡.  
 #3 물팡은 원 그 어느 집을 막론허고 집 짓젠 허민 우선 물팡을 놔.  
 @1 예.  
 #1 물팡돌.  
 @1 물팡돌들예. 게문 그 물팡돌 이렇게 허지만은 동네에 큰 팡들도 놓지 안협 니까양? 그런 덴 뭐렌 협니까? 사람들 강은에 앞앙 놀기도 허고 여름예.  
 #1 거 물 잇는 데?  
 @1 아니, 그 물 잇는 디 말앙.  
 #3 아이.  
 @1 여기 저 느티낭 잇는데, 영, 웨, 영, 큰돌들 낳은예, 그 침팡추록 허는 데 뭐 렌 협니까? 이름.  
 @3 폭낭 아래.  
 @1 폭낭 아래 여기 저기.  
 #1 아 폭낭 아래?  
 @1 그 저 대들 이렇게 잇지 안 허우파? 영허영.  
 #3 아, 이제도 각 동네마다 그런 것들이 잇는디 그, 저.  
 @1 삼촌네 불를 때는 뭐렌 헤서?  
 #1 아니, 우리 그.  
 #3 성읍리는 공론동산이엔 헤영.  
 @1 거기 그냥 공문동산예?  
 #1 지금 저.  
 #3 공문동산이 아니고 본래 어른들 옛날 말은 공론.  
 @1 공론허는 디. 의논하는 데.  
 #3 공론동산이엔 그렇게 저 불릿덴 허는다.  
 @1 공론동산.

#1 지금 몰궂레. 몰궂레 각 동네에 있어났거든.

@1 음.

#1 몰궂레 현 몇 곤데 딱 동네 마다 잇는데, 그 궂레를 춤 아까 엇은 풀아 분 사람도 있고. 성읍 몇 개만 좀 남아 있어게.

@1 응.

#1 근데 낭아레 그렇게 앗앙 노는 그건 엇어.

@1 그런 건 없고.

#3 아이 계난 그 우리 성읍가튼 데는 공론동산이라고 헤가지고, 이 정치, 경제 문화가 다 거기서 이루어져.

@1 다 거기에서예.

#1 계난 그 느티낭 아래서 앗앙 놀안.

#3 원님이, 원님이 그 공론을 저 잘못 저 허는 것도 거기서 양반들 앗아근엿에 아 그 원님, 이렇고 저렇고 허민 다 그게 귀에.

@1 가고.

#3 그 우리 그 성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1 예.

#3 성 옆에는 옛날에 요렇게 집덜이 다 자그만 자그만 현 집덜이 몇 개 있어 낫는다, 거기에 다 그 관청에 그 사름덜이 다 그 관청에 일하는 사름덜이라.

@1 음.

#3 그 관청에 일하는 사름덜이 웨 이 성 옆에 살앗느냐 허면 빨리 와가지고 빨리 그 이 심부름도 허곡 뭐 소문도 나면은.

@1 으.

#3 전허곡 허젠 아멩헤도 이 성 옆에 다 조금만씩허게 집을 지언에 하나씩 그 저.

@1 살아.

#1 유스덜, 그 그디 살게 현 모양이라.

@1 아.

#3 나 생각에 영 보면은.

@1 으, 그런 유서들 살아난 데가 잇구나예.

#1 연락 빠른 속도로 헨다고게, 전화도 엇이난게.(웃음)

@1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 여긴 찾방도 잇수과? 그 부역에서 이렇게 셋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건 엇인가?

#2 그런 건 저, 지금 옛날 집에는 그런 게 엇곡. 옛날은 차 마실 그 그런 시간 적 여유가 엇어시니까.

문

@1 예, 맞수다. 그 여기 문들은예, 가장 중요헌 게 대문.

#3 대문.  
 #1 대문.  
 @1 아까 사오기로 헛덴 허난 허곡. 성읍은 보니까 문도 대문 잇곡, 소문이 이십 디다?  
 #3 예, 호령창.  
 @1 호령창.  
 #3 거 우리 집도 그 영 큰문이 잇곡 그 호령창, 삼간집이라도.  
 @1 예.  
 #3 삼간집 치고는 좀 커. 거 호령창 있어났는다. 그던 저 대장 하르방이 영 앓 양 큰일 때도 영 허영 누게 잘못 헤가민 어허, 영 허난 헛주.  
 @1 음.  
 #3 글론 아무나 주인 말고는 드나들지를 못허는 디라. 호령창.  
 @1 호령창은예, 게 그걸 호령창이렌 헤마썸?  
 #1 호령창.  
 @1 호령창이렌 헤?  
 #3 예.  
 @1 아아, 창, 대창.  
 @2 창이라고 한 거 아닌가?  
 #1 거 구령 부찌는 던계.(웃음)  
 @1 아아, 청일 수도 잇겠다는 생각이 들어.  
 #1 대문 옆에.  
 @1 대문 옆에.  
 #1 옆에 문 잇주게.  
 #3 문이 하나 더 잇주.  
 #1 어, 스스헌 건 대문이 허난데.  
 @1 응.  
 #3 그 호령창 이신 디가, 그 사간집은 그거는 의무적으로 그 저, 문이 두 개 달 렸어, 마리에. 겐디 삼간집이는 두 개 달린 집이 드물어.  
 @1 예, 근데 그게 그 문 그 여기 조○○ 하르방네 보면은 영 족은 문이 잇잖아 예.  
 #1 예.  
 @1 그게 호령창이잖아예.  
 #1 응.  
 @1 거기를 창문 식으로도 만듭니까?  
 #3 아니.  
 #1 아니, 아니. 대문 저.

@1 대문보다 작은 대문으로 만든 거라예?  
 #3 아, 우리는 앞에 샷시를 달아부니깐 현디, 요디 ○○이아방 살아난 디 보면 거긴 호령창이 그대로. 그디 이실 거라.  
 #1 어디?  
 #3 요 ○○이 아방 살아난 디.  
 @1 응, 호령문이렌은 안헤마썸, 삼춘?  
 #3 아니, 호령문이엔 쓰는 사람은 잘 엇고 하르방덜도 저 호령청 안에 저.  
 @1 호령청 안에. 호령청이나, 창이나. 이게 또 관건이네.  
 #1 고 이장네 살아난 디 신가? 고○○네 살아난 디.  
 #3 거기도 잇수다.  
 #1 응. 나 고 이장네.  
 @2 혹시 그 머리방이라는 이름 혹시 들어봤수과?  
 @1 머리방. 머리방이엔 말 들어봅디가? 머리방. 그런 말은? 머리방 물방은 허는데.  
 @2 아니, 그 저쪽 어디 한림쪽 옛날에 한번 들은 적 잇었는데, 귀통이 그 방 용도가 아니고.  
 @1 아까 그 족은구들 식으로.  
 @2 응, 근데 그게 좀 노는, 애들이 노는 공간으로 쓰는.  
 #1 옛날엔 노는 방이란 건 엇어.  
 @1 물방이 강 많이 놀아신디 우린. 물방을 머리방 이렇게 소리난 거 아닌가?  
 @2 아니, 건 아니고. 방은 방인디예, 그건 나중에 내가.  
 #1 (웃음)  
 @1 예, 예, 그건 다시 한 번 들어보믄 뉘고. 그러니까 그 호령창이 이제 잇는 거고. 그 우리 문 잇지 안허파예? 문들을 한 번 헤봅서. 이렇게 집 정낭 잇는데 여기는.  
 #1 정낭.  
 @1 정낭이렌 험니까, 정술 험니까?  
 #1 정낭.  
 @1 정낭, 올레로 들어오믄 정낭이 잇고.  
 #1 으.  
 @1 정낭 말고 어떤 데는 이문이 잇지예? 정낭 대신에.  
 #3 이문은 건 대문간 든 집.  
 @1 대문간 든 집.  
 #1 대문간, 대문간.  
 #3 아이, 이문간, 이문간. 대문이엔 안행 이문간 이문간 헤낫주.  
 @1 이문간 헛지예, 이문간에.



#3 거 집 전체가 이문, 이문허여. 그 문 든 집을 이문간이엔 허주.  
#1 성안에 지금 멧 개 잇주.  
@1 멧 군데 잇잖아예. 게, 이문이 잇고 그냥 들어오면 이 안거리 이렇게 잇으면 대문이 잇고 그다음에 호령청이 잇고.  
#1 응.  
@1 그 옆에 정짓문?  
#3 정짓문.  
@1 예. 그다음 방 잇는 대문은 무슨 문이우파?  
#3 창문.  
#1 창문.  
@1 건 창문이렌 허여?  
#1 창문.  
@1 예, 게난 옛날 창문에는 이 저기 문이.  
#1 밀장으로 저 저 지계문으로 헛는데.  
@1 예.  
#1 요샌 밀장.  
@1 밀장.  
#3 견디.  
#1 켈 처음은 저기 지계문이주.  
#3 거 다 지계문으로 헛는다.  
@1 응.  
#3 밀장은.  
#1 건 나중에.  
#3 일본놈들이 완 집 짓음 시작허니까 그 밀장이엔 현 게 거 저 나온 거주.  
@1 아.  
#1 영 열엇당 하는 거.  
#3 거 밀장을 돌아도.  
@1 예.  
#3 지계문을 돌아도.  
@1 그 안으로, 밀장뚜께비 헤갖고.  
#3 그 안으로 밀장을, 그, 밀장을 들앗었다고.  
@1 응.  
#3 겨꼭 그 저 방에서 마루로 나오는 건 셋문.  
@1 방에서 나오는 건. 게난 밀장은 옛날엔 엇어난 겨우파?  
#1 예, 저저, 촌 아까 이 사람 곱앗주만은 워정 때 저거 저 나온 지 얼마 안 뉘 엇어.

@1 그 저 누구네 고평오 가옥 잇잖우파양. 문화재.  
 #1 고평옥.  
 #3 고평오, 고평오.  
 #1 아.  
 @1 거기도 밀장 이십디다.  
 #1 거기, 밀장 이실 거라.  
 #3 거기도 나중에 그 저.  
 #1 나중에 단 거.  
 @1 아, 나중에 단 거.  
 #1 저것도 새로 만든 거라게.  
 #3 게난 그게.  
 @1 예.  
 #1 지붕이 너무 그게 또 노프게 헤불고.  
 #3 그 고평오네 살기 그 전에 하르방네 살멍 그 만들어놓난 복원할 때는 그자  
 잇어신가 허연에 복원허레 온 사름덜 저 우리 성담 단 거 보면은.  
 @1 예.  
 #3 한심한 게 잇다고. 저 성 위로 사름이 걸어가민 총 쏘민 어디.  
 @1 다 죽어예.  
 #3 다리??지 저 맞앙 죽어불지.  
 @1 옛날엔 높영은에예, 예, 맞아.  
 #3 방호막이 잇어야 웰 건디 겐 저기도 그 성읍리도 옛날은 말을 타고 순찰을  
 헛다고 허는디.  
 @1 으.  
 #3 저렇게 지금 저러면 말을 타고 순찰은커녕.  
 #1 너무 족고.  
 #3 게 내가 그 저 우리 그 저 누구야. 제주대학교 우리 양 무신 교수니, 이름  
 확 곤젠 허난 잇어불엇저.  
 @1 응.  
 #3 흔 번 나허고 저 대정 그 이 따위 식으로 말이며, 저 교수들이 저 어떻게 조  
 언을 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성담을 다와놔냐고. 거기도 보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놔다고.  
 @1 응.  
 #3 아, 가서 육지 가서 말이지 성을 그만이 구경허민, 아, 이거 차후에 헐 거.  
 차후에 허지 말고 한꺼번에 돈 들일 때 옳로 요만이라도 만들어 놔야지. 그거.  
 #1 형식적이주게.  
 @ 큰소리로 강 좀 험서게.

#3 아, 나가 그렇게 얘기허니까 아이고, 이제 저.  
 @1 계난 문제라마썸. 문화재 돈 퍼 쓰명들.  
 #1 아, 계난 지금 거 성도, 것도 거니와 성도.  
 #3 아, 지금 그렇게 만들어 논 것도 그 또 이걸 다 가져볼었다고.  
 #1 (웃음)  
 #3 아, 겐 나가 그때 얘기했지. 이렇게 허는 디가 어디 잇냐고 말여. 이거 저 좀 옛날 거 복원을 허믄 복원.  
 @1 제대로 좀 허고.  
 #3 제대로 허고 해야지 허난.  
 #1 아주 문화 관청에서는 솔직히 헐라믄 똑바로 헤볼곡 안 헐라면 저 그 뭐 성 쌓음만은 아니고.  
 #3 성도, 성도 지금 막 낮춰버리고.  
 @1 으.  
 # 타리 사름덜도 와 가지고 형님네 살명 이거 뭐헐니까? 아 이런 지적을 헐다고.  
 #3 적군을 방어허젠 허민 자기 그 방호막이 있어야 어떻게.  
 #1, @1 (웃음)  
 @1 웃음.  
 #3 머리라도 그 숨겨가지고.  
 @1 영 곱기라도 헐 건디.  
 #2 이걸 다 우에 뭐 이런 식으로 다 헤놓니까, 이런 순찰 돌다가는 뭐 발가락 맞앙 죽게 생겼다고.  
 @1 (웃음)  
 #1 진주성 간 안 받가, 진주성.(웃음) 창곰만허게시리.  
 @1 그니까 문제라예 그런게.  
 #1 아, 계난 이것도 우리 성 째만 볼 것이 아니고.  
 @1 예, 맞아마씨. 저희들도 문제우다게.  
 #1 관청에서 전부 이걸 해야되는데, 겐디 아까도 곱앗주만은 어, 그 헐 해 헐 변씩 우리가 상가축제를 헐다고. 행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온다고.  
 @1 예.  
 #1 거 형이 잇으면서 저렇게 헐냐고 이렇게 막 지적을 헐다고.  
 @1 으.  
 #3 아니 내가 그 우리 손자들을 데리고 강화도를 갔어. 강화도를 갖는데 아 우리 그 지금 중학교 일 흑년짜리가 아 할아버지, 우리 저 성읍리 성은 영 막. 다 평평허니까 이 저 헐디, 이 성은 그 강화, 아 이 성은 이렇게 그 전쟁허믄 이 구멍으로 그 총 쏘면 좋겠다고.

#1 으으(웃음).

#3 왜 우리 저 제주도는 저렇, 이렇게 평평하게 헛느냐. 아, 대답할 말이 엇는 거라.

#1 아, 맞아게.

#3 이거 누가 이거 잘못된 걸 누구안티.

@1 옛날은 경 해나신디 영 뉘불엇저 헛 거(웃음).

#3 게난 난 나중에 우리도 이렇게 헤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구멍도 돌로 헤 가지고 만들엇었는데 저거 다 자빠져 부니까 지금 임시 저 복원헌 거라니까 아이, 허면서 잘허지.

#1 (웃음).

@1 어 허면서.(웃음).

#3 애이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1 예.

#3 게니까 애이들 생각에는, 아, 우리 성이 이거 본래 성은 이렇게 허는 걸로구나 헛다가 그디 가서 보니까 아이 성이 틀리구나 헛는 걸 아는 거라.

@1 응. 게난 삼춘네 어렸을 때는 그런 구멍들이 다 잇어난 거 아니라예?

#3 아, 예.

#1 다 잇어났주게, 다 으.

#3 이 지금 거는.

#1 이 성이 다 늦아가 또.

#3 이, 이 건 형님 나이 먹어간 커부난에 그거고. 그 두린 때는 보민양, 낭도 막 커뵈곡 헛니께게.

@1, #1 (웃음).

#3 어, 지금 저 성은.

#1 웃음.

@1 예.

#3 안성이라고 헤가지고 사삼사건 때 요 바깳성이 이 바로 뒤로.

@1 예, 예. 이 이 성담들 가정 또 둘러분 거 아니?

#3 아니, 아니.

#1 습격 훈 번 뜨니까.

#3 그때는 이 성 이.

#1 다 성 단 거주게.

#3 앞쪽에 잇는 밧담덜, 밧담덜 전부 헤다가 성을 쌓앗다가 사삼사건이 다 끝나가지고 줌.

#1 헤지뉘난.

#2 뉘니까, 그 담을 또 다 가져가 불엇어.

#1 (웃음).

@1 맞아.

#3 밧담 헐라고.

@1 예.

#3 게, 저것도 많이 가져 불었는데 외부에서 돌을 많이.

@1 응.

#3 지금 헤다가 채운 거라니까.

#1 지금 얘기허난 허주. 사삼사건 때는 그 뭐 아으, 내일이냐 오늘이냐 헐 때라 놓니까, 거절도 못허지.

@1 맞수다.

#1 나도 학교 다닐 때지만은. 나 육학년 때라. 어, 겐디 이 성담 달 때 나가 이 곳인허물 낫거든.

@1 으.

#1 그거 짜듬서 어 보리쫄 보리, 보리밥에 소금에 헝 난 물 잘잘허멍 덩겍거든. 그때 뭐 안 허면 죽게 뒀으니까.

@1 응으.

#1 게 뭐 옆에 밧 전부 앓단 뭐 뭐 군소리 어떤 놈이 군소리 허민. 저 앓다 논 거 이제 해제되니까 아까 모양으로 다 이제 복귀라.(웃음).

(부분 생략)

## 문 달기

@1 알앗수다. 그건 그렇고 이제 삼춘, 문을 돌아알 거 아니우짜예? 문 들젠 허면 옛날에 이 지금 문하고 옛날 문들은 트나잖아예?

#3 예.

@1 대문 드는 거 한 번 영 생각을 해봅서. 위에 이렇게 고망.

#3 예.

@1 그거 무신거렌 헤? 대문 들젠 허민 옛날에 문 영 허면 이렇게.

#3 구멍을 뚫어야지.

@1 구멍 뚫러야지 안 헉니까? 그거 이름 알아지쿠과?

#1 아, 거 대문에 거?

@1 예.

#1 아이고, 거 나도. 거 ○○ 목수 살아시민 헐 건디. 우리 형님도 그자 확 죽어.

#3 무신 돌기엔 헉다마는.

@1 들찌귀.

#3 아, 도절귀는 이 저.  
#1 도절귀, 도절귀.  
#3 이 저 썸, 썸로 만들앙은에.  
@1 썸로 만들민 도절귀고.  
#3 그 창문 들 때.  
@1 어.  
#3 창문에는 도절귀를 하고.  
@1 예.  
#3 그.  
@1 썸문은 다른 거구나.  
#3 대문에는.  
@1 응.  
#3 그 문도 이렇게 해 가지고.  
@1 문지도리?  
#3 저 영허민 요 요 옆이는 맞.  
@1 문주도리? 주도리.  
#3 요 옆이는 맞다고 워 맞느냐 허면은.  
@1 예, 예.  
#1 문을 영 열면 우에 낭에 걸리카부덴.  
@1 예, 예.  
#3 그. 그걸 구멍을 다 돌려분 게 영 들러가지고 아랫 걸 맞출려고 허니까 그거 다 돌려분 거주.  
@1 응. 게민 영 허민 거기 허곡 영 두 개 해갓고 열엇닥 달앗닥 허는 거 아니 라예? 문주도리. 그런 말 안 들어봅디가?  
#3 아, 무신, 무신 무신 도리엔 현 말이 있어.  
@1 문지도리 아니면 문주도리? 문골, 그런 말은 모르고예? 건 또 나중에 잘 튼 내봅서예.  
#1 거 걸랑 기록헛당 송○○이한테 물어봐.  
#3 예, 그디도 모릅니다게.  
#1 (웃음).  
#3 미신 목시질 해낫수과, 뭐 헛수과?  
#1 (웃음).  
@1 그다음에 이제, 그 문이 아까 지계문예?  
#1 지계문.  
@1 지계문은 어떤 걸 지계문이렌 헛니까?  
#1 지계문은 아까 곶은 식으로 저 이렇게 시각구(?), 저 그 사각형 나게시리 현.

#3 저 구들에.  
 #1 구들에, 저 창문.  
 #3 창문.  
 @1 으, 창문도, 저기허잖아, 옛날 삼방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지계문 아니  
 우파?  
 #1 셋문.  
 #3 거 셋문.  
 @1 건 셋문이렌 허고.  
 #1 셋문에도 그렇게.  
 #3 것도 지계문 식으로 만들어도 셋문.  
 @1 셋문.  
 #1 계난 여기.  
 #3 계난 거기를 아래는 판자 박고.  
 @1 예.  
 #3 이제 아래 한 요만.  
 #1 판자 박은 건 셋문.  
 #3 헛 자, 헛 자 반쯤.  
 #1 판자 안 박은 건 창문.  
 @1 지계문.  
 #3 옛날 거 헛 자쯤.  
 @1 창문. 아.  
 #1 요것만 행 쪽 헛 건 창문.  
 @1 예.  
 #1 이디 이다(?) 박은 거나 판자 박은 거는 셋문.  
 @1 셋문. 그것은 보통 마리에서.  
 #1 마리에서 이디 들어가는.  
 @1 방에 들어가는 거잖아예?  
 #1 저 문 말이주, 저 문.  
 @1 예, 예.  
 #1 저 방드레 들어가젠 허민 셋문.  
 @1 셋문. 그다음에 옛날에 이제 보통 정지에서 헛 때 이렇게 밀문도 쓰지 안  
 됩니까? 거는 나중에 나온 후엔가?  
 #1 성읍리에서, 아니.  
 @1 나중에 나온거우파?  
 #1 아니.  
 #3 거 미달이, 미달이 헤영은엥에 원래 일본, 그저 일본 그 가보민은 지금 그런

미달이엔 행 그런 문들 많이 쓰는다.

@1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다 저기 뭐구나, 지계문이구나, 우리는?

#3 겐디.

#1 고팡문. 고팡문.

@1 고팡문.

#3 또 정제허고,

@1 예.

#3 정제허고 삼방에는

@1 예.

#3 문을 저 저 문에.

@1 영 미는 거예?

#3 이렇게 허는 거라도 다 이 저, 나무로 뉘 잇어. 판자로.

@1 판자로.

#3 판자로 그 다 세를.

#1 삼방과 부역 간은 문은 것도 판자.

@1 예.

#1 이 셋문 관계 허곡 틀려.

@1 예.

#1 저레 부역 간은 판자고 이디는 셋문에 아까.

@1 밑에.

#1 밑에는 저 뭐허곡. 그 저 뭐헌 게 셋문이고.

@1 응.

#1 또 고팡문 아까 헌 고팡 여기 잇다 허문 고팡문.

@1 고팡은 또 대문처럼 그런 걸로 헛잖아예?

#3 예. 대문처럼.

@1 널문으로 행.

#1 어, 것도 널문?치록 행 멘들양 헌 거.

@1 고팡으로 허곡. 성읍 오난 반창이렌 헌 말도 헨게마는.

#3 아, 반창은.

@1 으.

#3 이추록, 문, 문이.

#1 창곰 닳은.

@1 높이 올라 가근앵에.

#3 아니 아니, 문이 이렇게 그, 문 반착이주게. 게난.

@1 반착, 거난 반창예.

#1 헨 착, 헨 착 말이주. 헨착, 반착문.(웃음) 반착짜리.(웃음)



@1 반착짜리.

#3 그 옛날 집에는 그 잘 지은 집이든 뭐든 그 저.

@1 고팡에 보낸 반창 헌 디 이십디다.

#3 저 반창 헌 디가 잘 없었는디, 우리 그 저 요자기 여기 그 저 풀아분 거. 그 것에는 옛날 학교 집 뜰어단에 그 짓엇젠 헨게. 그거는 족은구들에 반창문을 헛더라고. 계난 나가 아 이거 우리 아버지 일본 간 살명 왕 베와단 이추룩 짓어신가.

#1 초등학교 그 담 그때 뜰엔 뭐 헐 때난게.

## 풍체

@1 굴, 굴묵은 허고 풍체.

#1, 2 풍첸 저 앞에.

@1 예, 그 풍체는 어떤 식으로 멘드는 거라마썸?

#1 풍체는 이거 이거는 저 비 방진디.

@1 예.

#1 예, 풍체허영 영 수랑허게 만드아근에 그 뭐여, 산테 만드는 식으로. 그건 멧 가지 집 크기에 따라서.

@1 예.

#1 게문 대부분은 두 개라, 앞에.

@1 응.

#1 헉나는 벽차니까.

@1 예.

#1 어 두 개를 달되 마, 이걸 저 만드아근에 이거 새가 멧 개 들어 갖는가 모르겠어. 두 갠가 세 갠가.

#3 예, 건 길이에 따라근에.

#1 길이에 따라서.

#3 새가 틀리는디 요즘들은 허기 좋다고. 그자 이런 데 저 허민 그자 이렇게 저 나무를 대가지고 똑딱똑딱 못 박아 부는디. 옛날은 다 구멍 뚫어 가지고.

@1 예, 풍체살 그거.

#1 구멍 뚫어.

#2 구멍 뚫어 가지고 이거를 웨 작데기를 그 저 허느냐 허든 이게 매달아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허기 좋게.

@1 예.

#3 바람이 썰 때는 좀 내리고.

#1 비가 올 때나.

#3 태풍 불 때는 완전 지와 버리고.

#1 어.

#3 이 또 햇빛이 이 저 많이 비출 때는 좀 올리고 바람 많이 잘 들어오라고.  
 @1 어.  
 #1 보통은 저거 저 뿔마루 썩기 아니허기 위해서.  
 #3 뿔마루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1 예, 난간예. 음, 아 그거 뿔마루 썩지 않게 허기 위해서 저기 풍체허는구나.  
 #1 비가 온다 헐 땀 다 내려.  
 #3 그렇지 않으면 비 조금만 오믄.  
 #1 또 날이 좋은다 허믄 싹.  
 @1 아.  
 #3 뿔마리드레 비가 계속 들어빼니까.  
 @1 예.  
 #3 그걸로 이제 방지를 허고.  
 @1 그, 거 영 세우는 작대기는 무신거렌 허여마썸?  
 #1 건 작대기.  
 #3 작대기, 풍체작대기[작대기].  
 #1 풍체작대기[작대기].  
 @1 여기 풍체작대기 말은 안 험니까, 이 동네?  
 #3 아니, 여긴 작대기 기자.  
 @1 작대기, 풍체작대기예.  
 #3 풍체작대기.  
 #1 풍체작대기.  
 @1 예, 그 물팡.  
 #1 또 작대기엔 허민 틀려이.  
 @1 예.  
 #1 그 곡식허는 것도 뭐허는 거 보고 작대기엔 허곡.  
 @1 작대기. 예.  
 #1 풍체작대기.(웃음)  
 #3 그거 쓰는 용도에 따라 작대기가.  
 #1 풍체, 풍체작대기 지러기가 요만허고.  
 @1 예.  
 #1 작대기 마당에 건 기러기가 이만이 크고 으.  
 @1 음, 그렇게 이제 크고예.  
 #1 작대기 하나로만 방은 안 뉘어. 풍체작대기, 또 짝 7튼 것도 허는 그 작대기가 있어.

**팡들**

@1 삼춘, 여기 물팡 멘들 때는 직접들 만들어마썸? 어땡 그건 어떤 식으로 만

들어마썸?

#1 돌, 돌.

#3 게니까 돌 작업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돌이 아, 요건 팡돌이나 험직허다 허민은 따로.

#1 모형에 따라, 허는 거 기러기.

#3 일렁은앵에, 일렁 놔 두는 거라.

@1 아아.

#3 그 돌은 이렇게 캐다보민은 이렇게 좀 편편허고, 딱허게 그런 거 놓을 저 뭐는 허고.

@1 음.

#3 집에 잇돌은 까까.

@1 잇돌은 까끄고.

#3 으.

#1 까끄고.

@1 음, 게난 그 돌 집에 놓는 것도 다르지 안 험니까? 집에서 집안으로 들어올 때 발 젓지 말렌 헤영 영 놔진 돌이 잇지예?

#3 팡돌.

@1 건 팡돌이엔 허고. 팡돌로 영 오당 보면 그다음에. 그 난간으로 올라가젠 허면 그게 잇돌.

#1 잇돌.

@1 잇돌이잖아예. 그것 말고 집 주변에 여기 성읍 오니까 그 말 허던데, 예. 물비 내리는데 잇지 안우꽂? 거기 이제 영 돌멩이가 이렇게 영 앞에 작지에.

#3 아, 그거.

#1 아, 지슬돌.

#3 그 지슬돌. 그 전 박아, 전 박아 가지고 옛날은 지금은 이렇게 이제 짓는 집들 보민 막 요 그 담, 축담??지.

@1 응.

#3 그 저 그 돌을 이렇게 헤버리는데, 그 당시는 이 지슬담 그거 놔가지고 이제 양엘 싱것어.

@1 예.

#3 양에.

@1 음.

#3 거 저 표준말로 양하. 그, 저.

@1 음. 양하예.

#3 그 양애가 빗물이 떨어져도 이 파지질 아녀.

#1 파지지를 아니혀.

#3 그게 그 흑내림 방지로 그추룩헌 거주.  
 @1 계난 삼춘, 아까 지슬담이렌 허더라예.  
 #1 예.  
 @1 계난 거 지슬담, 지슬담 헌 거구나.  
 #1 어.  
 @1 지슬담. 어딘 가난 또 순전 박는덴 헌 건 무슨 말이우파?  
 #3 아 순전. 그거 그것도 그거 순전 산에도 순전 박는 디가 있고 이 집에도 그  
 그추룩 놓는 돌을 순전 박넨도 허주게.  
 @1 계난 지슬담허곡 순전이 ㄱ튼 말이우파?  
 #3 예.  
 #1 글쎄, 조금 틀릴 거로 봐게.  
 @1 예.  
 #1 지슬담허고 순전 박은 거는 좀 차이가 있어게.  
 @1 지슬담은 그냥 담으로 놓는 거고.  
 #1 어, 계난 돌아가명 놓는 것광 또 또 우에 그 가이당 놓는 식으로 허는 거 허  
 곡 흐끔 좀 차이가 나주.  
 @1 계난 순전 박는 건 무시거우과?  
 #3 아이, 순전 박는 거는 이 좋은 돌 좇어당 좀 이.  
 @1 치레허면서 허는 거.  
 #3 치레허면서, 거 순전이 코칭허게. 계난 요즘 새로 짓는 초가집들 보면은.  
 @1 예.  
 #3 이렇게 헤가지고 그 저 축담??장 그 부찌근앵.  
 @1 예.  
 #3 막 그 순전을 영 박아불곡 허는디. 이 옛날은 빨리 일을 헤사 저 드르에 가  
 근앵에 허다 못헛 물똥을 좇어도 헤알 거니까 대강대강 놔근앵에 그레.  
 @1 돌허곡.  
 #3 저저 양에 싱거부는 거주게.  
 @1 예. 계난 순전 박는 대신 옛날은 양에를 싱근 거라예?  
 #3 양에를 안 싱그민.  
 #1 대부분 앞에.  
 #3 양에 엇인 집이 엇어.  
 #1 앞에만 순전 박아근에 그 삼각형은 세 곳은 다 양에로 춤 복원을 헛주. 땅  
 도.  
 @1 지슬담이젯네예, 거기는?  
 #1 어, 이슬, 비 내리면은 지붕에서 비 내리면 파져.  
 @1 예.

#1 그 때문에 그 양에를 좀 심그주.

@1 싱그고예, 게영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 아까 이제 그 풍체도 뭐 영  
드는 풍체 있고, 영 세우는 풍체도 있고 험니까, 그 말도 들어봐?

#3 아이, 드는 풍체나 무시거나, 다 이 집 그 서리에나 저 뭐에 무끄주게.

@1 아.

#3 무꺼.

@1 무경 놔뒀당은에 이제 지와불민, 이렇게.

#1 어, 어.

#3 그게 드는 풍체주게.(웃음.)

@1 어.

#3 돌아메민 드는.

@1 아아.

#1 돌아멩, 도새기 돌아멩 죽는다는 허는 식으로 돌아멘 거. 풍체 돌아멘 거 보  
고.

@1 아, 풍체 돌아멘 거구나.

#1 어. 만들어 논 거 돌아메는 거 보고.(웃음) 풍체 들안.(웃음)

## 올레

@1 예, 예. 그다음 삼춘 여기 올레들, 여기 올레는 뭐렌 헤, 여기 그냥 올레렌  
헤?

#1 아, 올렌 올레.

@1 올레도 먼올레도 있고 부딘올레도 이십디다예?

#3 아, 게난 우리 집.

#1 저.

#3 우리 저 올레가.

#1 올레가 긴 디는 먼올레.

@1 응.

#3 성읍리서 켈 긴디 먼 디 이신 거 먼올레, 부딘 디 이신 건 부든올레.(웃음)

#1 부딘 건, 부딘올레.(웃음)

@1 부딘올레허곡예.

#1 (웃음).

@1 우리 가끔 이제 그 건축허는 사람들이 올레는 에스자로 뒤엇져, 막 영 허는  
데 성읍도 경 에스자로 뒤어신가마썸?

#3 에이, 올레. 여기도 옛날 사름덜 이렇게 봐도 여기서 제주시까지도 그 저 옛  
날도 그 길 헤논 거 보민.

#1 소룻길.

#3 고짜헤 놓거든. 그 여기도 올레는 고짜고짜 다 헛어. 어디 요.

@1 거는 집 땅 엇인 사람들이 경.

#3 김녕 7튼 디는 옛날에 마차를 못 헛어.

@1 예.

#3 웨 못헛느냐 허민 골목이 좁으니까 김녕은 다섯 술만 됴민 지게 지는 걸 배 워야 됴.

@1 예, 지금도 김녕 경 헛디다게, 지게.

#1 계난 김녕은.

#3 여기는 옛날부터 도로가 아주 발달이 잘뻐 디라. 웨냐하면.

#1 도로가 좋고.

@4 관청이.

@1 관청이, 관청이 이신 동넨데.

#3 관청보담도 그 물을 하영 물, 쉼을 하영 허젠 허민 몰양 뎡기젠 허민 길이 좁으민은 놈의 담 다 몽크려 불민 욱허니까 경허니까 도로를 옛날부터 넓게 헛 거 라.

@4 아, 그렇구나.

## 이문간

@1 그다음에 여기 이문간은 용도가 뭐우파?

#3 이문간은게 좀 이 요즘 말로 허민은.

#1 잘사는.

#3 자세, 자세허젠 허는 건디, 이문간 든 집이 보통 이 다 부젯집이라.

@1 음.

#1 다 부제칩이주.

@1 거기 보민 헛간 요런 용도도 잇고 옆에.

#3 거 양펜이는 양편에는 헛간으로 사용허고.

@1 예.

#1 한가운디, 쉼 한가운디는 문, 대문도 돌아 가지고.

@1 어떤 집은 한쪽으로 행 영 쉼막으로 쓰는 데도 이십디다.

#3 건 쉼막 미쳐 못 짓은 디.

@1 못 짓은 디고. 음.

#1 보통은 쉼 메는 건 잘 안 보이고 그 뭐 허지령헌 거 놔.

#3 예, 기자 돛 7레착도 놓고, 느람지도 짱 놓고.

#1 농기구 7튼 거 조금 놓는 거.

@1 헛간에.

#1 어.

@1 그리고 우리 밧거리에 가튼 데 죽은구들도 영 멘들양은에 살게도 헤낫수과?  
#1 예.  
@1 머슴들 사는 거.  
#3 예, 머슴덜.  
#1 그건 저 식구들이 많이 헐 때도 잇엇고, 머슴살이가 잇어낫주게.  
@1 예.  
#1 그 우리 아이 때 보면은 그 사람덜 멧는 방.  
@1 예.  
#1 안거레 헐 수, 못 됴니까, 밧거레에.  
#3 아이, 우리 할아버지네 집이 저 밧거레에 허영 허민 이 ○○이 아방네양 성제가 와근엿에 쉼 보곡 믹쉬 보곡 허멍 그디 허민 꼭 그디 살더라고. 게민 또 바팍지민 또 다른 사름이 오민 그디 살렌 허곡.  
@1 그 방을 무신 방헝니까?  
#3 저, 밧거렛방, 밧거렛방허주게.  
@1 그냥 밧거렛방, 밧거렛방. 다른 불르는 이름은 엿고.  
#2 하르방덜은 뭐, 저, 도사리 사는 방, 도사리 사는 방 헤도 옛날 하르방덜은 도사리, 도사리 헤낫주게.  
@1 도사리에. 흑시, 그 도사리허고 장남허고는 어뎡 똥나마썸?  
#3 거.  
#1 그것이 그거주.  
#3 거 장남으로 둘앙 사는 거나 도사리로 둘앙 사는 거나.  
#1 그거는 매헌 가지주.  
@1 아 어떤디 가민 도사리는 여자한티 헐 때 도사리렌 허곡 남자들은 장남이렌 곱읍디다.  
#3 아니 게도.  
@1 여긴 경 안 헤?  
#3 보통 이 저 여기.  
#1 아, 이사람 말처럼 보통 우리 쓸 때는 장남은 장남인가 허지.  
#3 예, 누계집 장남 영 허는디.  
#1 어, 어느 장남. 박 서방이든 박 서방이엔도 부르곡.  
@1 음.  
#3 저, 저 하르방덜은 우리 집 저 도사리 이시난 저 빌어당 허여.  
@1 으, 도시리에?  
#3 게난 도사리 허민 쉼만 몰만 보는 게 아니고.  
#1 이것저것 다.  
#3 나라도 저 나 업엿 어디 가겐 허민 업엿 가야 뉘어. 안 가민 하르방한티 매

맞으난.(웃음)

@1 그니깐 어쨌든 그 사람은 살면서 이제 밥 먹고 이제 일을 해주면서 그 집에 사는 거잖아예.

#1 예, 가치.

@1 경 행 장계도 보내주곡.

#1 다 계난. 밥이나 무시거 뭐, 일도 거기 그 사름은 허는 거고, 또 주인도 그 대신에 또.

#3 계난 옛날은 이 요즘 7트민 그 노동력 착취엔 허영은에 허는디, 옛날은 밥 맥여 주는 걸로 그 노동력을 보충해 주는 거라.

@1 그러니까예.

#3 게, 거난 이제 오래 살명 말도 잘 들으민 쉼도 주곡 멩생이도 나민 허나 영 췌근영에 저 분가도.

@1 분가도 시키곡예.

#3 분가시경 결혼시경 분가시키민 그 후제 부제된 사람도 많아.

#1 잘뉘가문게 거.(웃음)

@1 예 계난.

#3 착허문 그추룩 허곡.

@1 웨냐하면 성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관청예, 옛날 저기도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발달할 것 같은데 하인이런 이런 말은 안 씁니까. 집에 사는 사람? 라.

#3 집에 사는 사름덜은 하인이엔 아녀고 마을예.

#1 마을예.

#3 마을예 그 일을 보던가 관청예 일을 보는 사름덜은 하인.

#1 계니까 부락, 부락.

@1 예, 육지허고 좀 다른 게 그런 거거든마썸.

#1 부락 일 보는 사람, 그.

#3 그니까 그 하인덜이 보통 성곽을 위주로 헤가지고 다 저 가차운 디 살앗다 니까.

#1 옛날에는.

@1 음. 아까 유사해난 사람들에.

#1 옛날에는 하인들이. 하인들이 결혼식 때도 전부 와서 헤주고 다 그.

#3 다 그 몰 이끄곡 그 이 저 무시겨우파? 그 저 무신 흥세함 지곡.

#1 흥세함. 흥세함.

#3 흥세함 지곡 행은에 하인들이 다 헛주.

**놀와치**

@1 하인들이 한 거고예. 여기는 놀와도 따로 만듭니까. 성읍도?



#3 아, 놀왓이엔 헌 건 우영팻디 기자 저.  
 @1 우영팻.  
 #1 아, 놀 누는 거. 아 옛날에 놀와치, 놀와치 헛주게.  
 #3 아 그거는.  
 @1 으.  
 #3 놀 누는 사름을 놀와치엔 허고.  
 @1 예, 예.  
 #1 놀 잘 누는 사람. 잘 누는 사람 놀와치.  
 #3 이 우리 선생님 말은 허는 건 놀왓을 만드느냐, 놀 놀 디 따로 만드느냐. 건 디 출 놀 디는 딱 지정헤져 잇어.  
 #1 우영팻디 다 출이고 무시거고 다 누난게.  
 #3 우영팻디 그, 축사허고 가참곡 헌 딜로 그.  
 @1 게난 옛날에는 그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게. 우리 저쪽 서쪽은 놀왓이 따로 잇어예?  
 #1 예.  
 @1 건디 성읍은 왕 조사헤보난, 놀왓 헤갓고. 쉼 나가불면 거기에 송키 갈앙 먹 더라고예.  
 #1 예.  
 @1 예. 우영팻디 놀왓을 만든, 놀을 눈 거잡아예. 여기는.  
 #1 응, 응.  
 @1 그게 다르드라고마썸. 여기는 쉼 올려부니까. 으음, 놀 허는 사름을 놀와치.  
 #1 놀와치.  
 @1 송당 가난 씨와치렌 헨게만은. 여기도.  
 #3 거 씨와친 씨 뿌리는 사람.  
 @1 여기도 씨와치렌 말 허고예?  
 #1 여기는 보통 저 그 씨와치, 씨와치라고 안 허여.  
 @1 아.  
 #3 아, 게민 무시거 씨 뿌리는 사름?라 씨와치, 씨와치 헛주.  
 #1 아이 아, 여기서는 씨, 그 표현은 안 쓰고.  
 @1 삼춘은 헌 모양인게.  
 #1 (웃음).  
 #3 아니, 씨와치엔 험니다게.  
 @1 예, 어쨌든 그다음 밧가는 사름 밧갈아치.  
 #3 밧갈아치.  
 #1 아, 밧갈아친.  
 @1 밧갈아치 험니다. 근데 아까 이제 놀와치는 처음 들엇수다.

#2 놀와치 그건.  
 #1 놀와치란 것은 놀을 놀 때.  
 @1 잘 누는.  
 #3 전문가주게.  
 #1 특히허게.  
 @1 응.  
 #1 다른 사람보다 잘 누다.  
 #3 옛날 이 저 지금 그 옛날, 그 치 자 바치 그런 허는 게 이 동녕바치, 요즘은. 거지?라 동녕바치. 그런 뭐가 이시난 그 놀와치여 무신 씨와치여 경 허염주.  
 #1 (웃음) 씨와치도, 아아.  
 @1 게난 집 잘 이는 사람한테는 와치렌 안 헤?  
 #3 아니, 아니.  
 @1 집 이는 사름.  
 #1 씨 잘 뿌리는 사름은 씨와치.  
 @1 예, 놀와치예, 알앗수다.  
 #1 잘허는 사름 보고 거 이제.(웃음).  
 @1 옛날 그 놀와치 이런 디 강 막 놀아나곡 영도 헛수과?  
 #3 예?  
 @1 놀, 놀트명에 강.  
 #3 아, 그 놀, 놀트명에 뭐 옛날 솜바꼭질, 거 저 곱을락허민 그 곱는 디가 그 놀트명이 좋주게.  
 @1 예.  
 #3 놀 하나만 누는 게 아니고 큰 놀덜 막 두 개 세 개 곡석놀이여, 출놀이여, 이 셋놀이여 허영 다 그디 저 헤 놓면은.  
 @1 으.  
 #3 그 트명에서 그자 기어 덩기당 저 자파리 잘허는 놈 불 놉불민.  
 @1 난리나곡.  
 #3 그냥.(웃음) 그 일년치 다 놀아나게.  
 #1 아이덜 멍심허렌 허주게.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 멍심 안 허면은 그 성냥 잇으니까.  
 @1 예.  
 #1 아이들 그것 때문에 성냥도 우에 놉불곡 그런 뭘 있지.  
 #3 게난 옛날에 그추룩 놀을 하영 놀어도 불이 확 부뜨지 안 허는 게, 성냥이 발달이 안 뉘고 라이터가 없으니까.  
 @1 엇으니까.  
 #3 옛날은 이 저 쉼불이허곡.

@1 부싯돌 헤근엿에.  
 #3 저 폭낭. 저거 폭낭으로벳기 안 뉘어. 착허영 불 부찌민.  
 @1 아, 경험디가?  
 #3 그 폭낭 썩은 게.  
 @1 예.  
 #1 복삭복삭 불 그자 영 허영 불 착 행은에.  
 #1 아, 옛날은, 거 옛날 부시 부싯돌로.(웃음)  
 @1 부싯돌.  
 #3 것?라 그 낭?라 무시거엔 헨다만은. 무신 새, 무신 새엔 험니까? 그저 저 폭낭 그 저.  
 #1 거 쏘옥?  
 #3 허영은엿에.  
 @1 부싯뿔, 부싯돌.  
 @4 불쏘시개?  
 #1 ?만 시라 그.  
 @1 불수세.  
 #1 나무 이름을 모르켜. 아 그 부싯돌 허문 잘 부떠.  
 #3 건 폭낭입주게.  
 @1 아.  
 #3 폭낭 썩은 거. 워, 원 손으로 영영영 헤도 복삭복삭허고.  
 @1 아아, 걸 무슨 새렌 헤마썸?  
 #3 무슨 낭이엔 헨다마는.  
 #1 우린 그자 키는 것만 알주, 우린 그런 거 안 켜나부난에.  
 #3 우리 휘장도 그건 알안게.  
 @1 예, 그다음엔 삼춘, 그 집안에 이렇게 잇으면 쉼막. 여기는 쉼막을 뉘렌 험니까?  
 #3 이 쉼막.  
 #1 으, 쉼막.

### 쉼막

@1 그냥 쉼막, 보통은 밧거리에 쉼막 험니까?  
 #3 밧거레 쉼막을 허는디.  
 @1 으.  
 #1 주로 밧거리.  
 #3 그 저 거왕을 저, 저 저 만들어. 양펜으로 허영.  
 @1 예.

#1 건 메왕.  
#3 메왕 춤, 메왕.  
@1 메낭.  
#1 메왕.  
@1 메왕.  
#1 으, 튼튼영헌 거.  
#3 거왕은 줄 메는 게 거왕이고, 줄 영 무끄는 게 그게 거왕이고.  
@1 예.  
#3 메왕이엔 허영 칸갈이, 칸갈이 헤 가지고.  
@1 예.  
#3 이렇게 헤 가지고 쉼가 이레 튀어나지 못하게. 영 중간에는 출도 빠다놓고 거기 방애를 놓아.  
@1 음.  
#3 이 저 이쪽 쉼 메고.  
@1 낭에?  
#3 이쪽 쉼 메고 이쪽 쉼 메면은 이 중간에 방애를 놓는 디, 만일 이 쉼왕에서 불이 낫다 허민 겨울에.  
@1 예.  
#1 그 방애를 내치기 전에는 쉼덜이.  
@1 안 나온덴 허명예.  
#3 이걸 빨리를 클르던 저 호미로 끝던 헤도 안 나와.  
@1 음.  
#3 게난 불 나면은 우선 장정들이 들어강 그 방애를 베껏드레 내쳐야 쉼덜이 튀어나온덴 허니까.  
@1 음.  
#3 그거 보면 침 기가 맥혀.(웃음).  
#1 방아 짝는 거.  
@1 예, 예.  
#1 옛날 정미소 엇을테니까.  
@1 남방에 그거예.  
#3 남방에.  
#1 거로 저 밥 저 썰 만들앙 밥 헤먹을 때니까, 아까 굳는 설명이 거주게. 이거 부터 치와야 소가.  
#3 소가 나온다.  
#1 튀어나온다는 거라.  
@1 그걸 아는 거잖아, 쉼들도예.

#1 아으.

#3 거니까 그걸 보면은 이 신이 없다 뭐 이거 이거 어떻게 저.

#1 아, 진짜. 계난 방에를 우선 내쳐볼어야 췌가 도망헌다 그거지.

@1 삼춘, 아까 메왕이렌 헤신디 어떤 디 가난 메왕이렌도 굴읍디다.

#3 메왕이엔 이디도. 아 건 낭이 이디, 그 낭으로 그 헤나난.

#1 저 모슬포허곡 성읍리 말도 조금 틀려게.(웃음).

@1 아, 계난 성읍리서 들어보는 거, 성읍린 뭐렌 곤는지.

#3 아, 메왕이엔도 굴아.

#1 메왕이엔.

@1 메왕이렌 곤지예?

#1 으, 메왕이주게.

@1 메왕인데, 아까 웨냐 하면 그 7레왕 이렇게 허니까 메왕 헌 거 닳은디. 메  
 낭 닳아 내가 보기엔.

#1 메낭, 어.

@1 나무니까예, 메낭예. 예, 예. 메낭.

#1 췌 메는 디7라 메낭.(웃음)

@1 이렇게 앞에 출 주는 그 앞에 영 이렇게.

#1 게메 창, 영, 영 댜.

@1 예. 계난 메낭.

#3 게메 우리 하르방덜은 영 말을 굴을 때 영 헤보민. 저 하르방덜은 7치 살명  
 영허민 무시거 이런 영 췌 영 주덩이에 막는 그거라도 영 허는데 그 메낭 어염에  
 강 보라, 돌아젧저 허곡. 놉덜안티 저 무시거.

#1 무제미.

@1 무제미헐 때.

#3 저, 저, 저 놉덜한티 무신 말 굴아근엿에 저 방에 저 어디 흐꿈 빌립서 허  
 민, 거 우린 메왕 앞이 저 저 이시난에 그디 강 문 열앙 허여. 영 헛다고.

@1 메왕 앞이도 쓰고예.

#3 예.

@3 왕이라는 게 방이라는 말이거든마췌. 옛날에 췌왕 헛잡우파. 췌막7라.

#3 췌왕, 췌왕.

@1 췌왕.

#1 췌왕.

#3 췌왕을 췌왕이엔 허니까 그 메왕이엔 헌 거를 쓴 것 닳아.

@1 예.

#1 메왕이 췌왕.

@1 췌왕이렌 헛지예. 요즘 췌막허지만은 췌왕, 오양간도 허곡. 음.

#3 우리 제주도에서는 오양간이엔 쓰, 잘 쓰진 아녀고.

#1 제주도말 어려와.(웃음)

@1 예.

#3 췌왕, 췌왕.

#1 아, 나 영 그 대훼도 흔 번 가봤주만은이.

@1 아.

#1 아 흔 번 허단 보난 아 그만 악센트가 잘못 올라가벗어게.

@1 예.

#1 게부난 아이, 할아버지 그것만 안 헤시민, 아이 등수 올를걸.

#3 나영 삼십 년 전의 밀감축제혈 때 삼십만 원 탄 거주.

@1 삼십만 원 타완.

#1 실수해연에.

### 통시

@1 그다음에 삼촌 이제 저 돛통, 여기는 뭐렌 험니까?

#1 돛통, 통시엔도 곤곡.

#3 통시.

@1 옛날 여긴 통시.

#1 으.

@1 통시허고, 저 도새기 사는 집은?

#1 돛통. 그것보고 그냥 통시.

@1 돛집.

#1 돛집.

@1 돛집.

#3 경헌디이 그 돛통에서 그 저.

@1 돛통.

#3 이 저 티가 나면은 동티엔 허는디, 동티 낭은에 사는 사람이 엇어.

@1 동티 나문예.

#3 게난 이 화장실을 함부로 옛날 어른덜은.

@1 고치.

#3 거 건들이질 안 헛덴 허니까.

@1 으.

#3 꼭.

#1 아무 때나 건들지, 허는 거 아니.

#3 친구간이나 아니민 쳇멩에도 것도 좋은 날, 쳇멩이나 좋은날. 쳇멩이엔 허영 다 좋은 날이 아니고 쳇멩도 좋은 날이 잇고 굿인 날이 잇어.

@1 좋은 날, 계난 꼭 날 뵈은엔에에.  
 #3 날 뵈.  
 #1 유명해났주. 그 통시.  
 #3 아이고, 동티낭은에 현 사람은 옛날부터 사는. 동티낭 허곡 그저 우리 영장  
 뵈디 강은엔에 하관헐 때.  
 @1 예.  
 #3 그디서 이 동티낭 사름은 원, 살질 아년덴 헛주게. 하관헐 때 저 그 무시거.  
 #1 헤치 보지 말렌.  
 #3 아니, 아니. 그 미시거엔 헛니까?  
 #1 척호, 척호.  
 #3 그걸 허면은. 척궈질에 걸렛젠 허민은 사는 법이 엇어.  
 @1 척궈?  
 #1 척. 응.  
 #3 척궈질에 걸렛젠 허는다.  
 @1 척호?  
 #3 척궈질이엔도 잘 곧곡.  
 @1 척궈질.  
 #3 그거는 이런 하관헐 때.  
 #1 보지 말라 헐 땐 보지도 말곡.  
 #3 하관헐 때 잘못허민은 그것에 걸리민은.  
 #1 척호에 들리, 걸리면은.  
 #3 건 그자 영장해낭은에 흐꿈 이시민.  
 @1 척호, 이름 부르는 거에 배척되는 사람이구나게.  
 #1 무슨 헤치에 보지 말라 헐 때는.  
 @1 예.  
 #1 보지 말아야 뉘.  
 @1 예.  
 #1 거 자기가 자기에 해롭지 뉘. 계민.  
 @1 맞수다. 허지 말렌 현 건 허지 말아삽주게.  
 #1 딱 뉘 잇소, 허든 다, \*\* 엇다 이렇게 헤붙어야. 잇어도 없다 그래야 뉘.  
 #3 그 저 이런 하관헐 때나 입관헐 때 보민 뉘 뉘 경인생 잇소 허민 없소, 잇어  
 도 그자 없소, 없소 허민, 잇어도 그자 없소, 없소 허민 엇인 걸로 구신은 다 알앙  
 가부난에.  
 #1 계민 세상 만사 허사로다 허민 딱딱딱 박아부는 거지.(웃음)  
 #3 계난 그 이 택일헐 때 무슨 생, 무슨 생은 보지 말라.  
 @1 다 나와예.

#3 계난 만일 이 임진생이라도 임진생 중에서도 멧 설 보지 말라 허는 그런 계.  
제라헌 그.

@1 희한해 그런 거 보민.

#3 지관덜은 그 딱 허곡.

#1 잇어도 엇다고 허믄 뉘어.

@1 아, 그 답을 헤볼어야.

#1 개토제 허는 디도 매흔가지라.

@1 응.

#1 어느 제라도 헤영 머 떨어졌단 말이여.

@1 음.

#1 자기 자신도 내가 출려놔도.

@1 예.

#1 그럴 때가 업지 앓아 잇을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아 이디 잇구나게 허명.  
엇다고 헛당은 자기가.

#3 어, 우리가 흔히 매년에 저 포제를 혈 때 포제를 그 혈 때, 희성이라고 헤가  
지고.

@1 예.

#3 그 돼지를 올리는데, 이게 좋냐 나쁘냐 그 평을 혈 때는 그 대축이.

@1 으.

#3 그걸 이렇게 웬착으로 세 번 돌고 오른착으로 세 번 돌고 나중에 좋덴 헤근  
에 충 허민 뉘는데 불충허면.

#1 (웃음).

#3 그 도새기를 못 써가지고 새로 도새기를 새로 사와야 뉘여.

@1 어.

#1 옛날에 경 헤낫다 허여.

@1 예, 무조건 좋다 딱.

#1 (웃음) 요새는 현실적이라.

#3 계난 무조건. 계난 아예 저 우리도 옛날에 대축 멧길 댕 영 허면은 헌관덜신  
디 허여. 너 불충허지 말앙 충허라이.

#1 웃음.

@1 예.

#3 아, 도새기 강 또 그것도 또 당장 사당은엥에 저녁에 제를 지내야 뉘 건디.

#1 계, 게니까 충허민 충분하다 이 뜻인데.(웃음)

@1 예.

#1 불 헤볼민.

@1 계난 옛날에 그 돛통에서 그 아까 저기 동티나는 거 건, 무사 나는 건고예?



#3 그니까 뭐 그 돛집을 고쳐볼던가.  
 @1 예.  
 #3 특히 이 저 잇돌, 저저 영 화장실 올라가는 돌.  
 @1 예, 예, 부춘돌.  
 #3 그게 어땡허영은영에 흐꼼 저 흥글어볼 때나 저 무시거 허민게 예그 이거 저 흐꼼 현 거난 어땡 아널 테주 허영은에 고쨌당은에 그만 그게 동티가 나부는 거라.  
 @1 음, 게난 그런 돛집 허, 돛집 일어주거나 이럴 때는 날.  
 #3 그런 거는 엇고. 건 그자 집 일 때 ㄱ찌 일어불민.  
 @1 건 상관없고.  
 #3 뜬어데껴똥 새로 일어도 저 만들어도 뉘는다.  
 #1 그렇게 옛부터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절대 멍심허라는 거지.  
 @1 예.  
 #1 조심허라고 허는 건데. 나도 저거 허젠 허난 우리 와이프가 못허겔 막 허더라고.  
 @1 으.  
 #1 아, 어딜 간 그 얘기허난. 에이, 요새에 뭐 이 새마을운동 지금 허지 안햐시냐. 대통령 명령이여 허영 깃발 세왕 헤보라 영허여. 게 와이프 어디 가분 때.  
 @1 응.  
 #1 대통령 명령이오 허연 이만큼 허연 나냥으로 썬 탁 부쨌어.  
 @1 예.  
 #1 경헨 부수닥질을 다 헛어, 다.  
 @1 예.  
 #1 어 어땡헨 완보난. 와이프가 영 보난 아허난, 돛통 저 허엿구나. 어허 대통령 지금 멍령 지금 저 봐 대통령 와잇잖아. 게 사람이 요거는 조금 의심뉘든 병이지.(웃음).  
 @1 음, 대통령령이 컷구나게.  
 #3 아니 아니, 보통.  
 #1 구신.  
 #3 저 옛날도 뭐 이저 뭐 현 사름덜은 붉은 걸로 대통령 명령이오 허영 새마을 사업이오 허영 그걸 썬 부쨌근영에 그 이 저 뭐 울담을 고치거나.  
 @1 음.  
 #3 특히 이런 저 올레 입구.  
 @1 예.  
 @1 예.  
 #3 아무 때나 그 저 저 고치지 안 허여.

#1 흠부로 못 만져놔주.

#3 못 만져. 그럴 때는 그추룩덜 헨에.

@1 헛덴 헨 말덜이 잇구나예, 올담.

#3 아니, 허곡. 실질적으로. 그추룩허고.

@1 아, 그다음에 우리 돛통담[도통땀]도 함부로 안 허는 거고예.

#1, 3 예.

@1 돛통담도 안하고. 그 돛통허게 됨민 거기 이렇게 것 주는 것?라 뭤헨 험니까?

#3 돌토고리.

@1 돌토고리.

#1 돌토고리.

@1 음. 삼춘하고 삼춘이 흐끔 발음 다른 거 닳아. 삼춘 무시거마썸?

#3 돌토고리.

@1 삼춘은?

#1 으, 돌토고리, 돌토고리.

@1 아, 돌토고리 으. 돌토고리 이렇게 하고. 그 여기 보난 그 누구네 여기 그 조 하르방네 집 거기는 지붕도 이십디다, 우리 저기 변소에.

#3 예, 그 저 돌로 헤가지고.

@1 으.

#3 그런 게 성읍리 두 군데 잇엇는, 두 군데 잇는다.

@1 으.

#3 저기 가민 그디 동생 조○○라고 옛날 그.

@1 조○○. 예. 사삼 때.

#3 그 사삼사건 때 아주 유명허신 분이다. 그디도 그 사름 집 짓은 디 보면은 그런 식으로 저 지붕이 뒤어 잇어, 돌로.

@1 계난 그 공간은 무신거렌험니까?

#3 뭤 공간?

@1 거 우리가 응가허고 허는 그 공간은, 여기서?

#3 팡돌?

#1 저.

#3 똥 싸는 디, 똥 싸는 디.

@1 여기 영 팡 두 개.

#1 팡돌.

@1 걸 또 팡돌이렌 험니까?

#3 거 푼는 건 팡돌.

#1 팡돌.

@1 그냥 팡.  
#3 그 또 저 뭐 큰 거 보는 건 그 칙간, 칙간허주게.  
@1 그냥 칙간, 칙간 헤.  
#1 짓은 지 오래됐서. 아까 그 조○○ 말했는데 옛날에 조○○네 살 때부터 그 집 그대로라.  
@1 그대로예.  
#1 그저 돛통시는.  
@1 돛통시는 그대로예.  
#1 어, 그대로.  
@1 게난 그 밧거리도 보니까, 그 저 쉼 메는예? 그 이쪽에 막 저 뭐 노는 디 말고 거기도 영 방도 있고 영 험디다. 조그마한.  
#1 거 저 전에는 옛날은 그렇게 아녜는데, 저 풀아부니까 딴 사름 간 짓을 때, 저 ○○○에서 짓은 집이주게. 그 ○○○ 아방이 저걸 짓었는데 저쪽 집이.  
#3 예에, 그디 저 밧거레 저 방 엇수다게. 저 지금 이디 조일훈 가옥 말허는 거지?  
@1 예, 조일훈 가옥.  
#3 조일훈 가옥에는 밧거레는, 그 밧거레도 저 삼간집이라, 저 사간집이라, 그거.  
@1 아, 사간집.  
#3 그 안거레도 사간집이고. 그 저 서녁거리는 그 목거리는 뭐 헤낫느냐 허문 쉼왕이 아니고 그디는 저.  
#1 물고랑.  
@1 물고랑이렌.  
#3 물고랑 뉘나고 동녁거리는 쉼 메는 디고.  
#1 어.  
@1 지금 동녁거리는 메낭이영 영 이십디다예.  
#1 아, 거 쉼막.  
#3 그디허고 밧거레 서녁쪽에 쉼막 있고.  
#1 밧거레도 쉼막 잇주.  
@1 쉼막 잇곡. 게난 쉼막 맞은편에 쪼꼬만헌 방 이션게. 그 쉼막으로 들어가갓고.  
#3 아, 그 이쪽에. 예, 그 거기 사름 살아났어.  
@1 게난 거기가 머슴 살아났수과?  
#1 밧거레방. 밧거레방.  
@1 밧거레방.  
#3 밧거레 그 마루도 있고.

@1 예, 마루도 있고.  
 #1 아, 마루도 있고 이쪽 쉼막이주게.  
 @1 쉼막 옆에.  
 #1 그다음은 대문 있고.  
 @1 예 예, 경 이십디다.  
 #3 거기 이문간 있고.  
 #1 이펜짝엔 밀고랑.  
 @1 으.  
 #1 그 옛날에 그 남○○씨 물 아닌가.  
 #3 어, 성읍리 집 다섯 거리 잇는 디가 두 군데라게.  
 @1 아, 다섯 거리 집도 잇어마썸?  
 #3 그 저 조일훈 가옥도 다섯 거리주마는.  
 @1 하나, 둘, 셋 넷, 저 뭐까지?  
 #1 이문간까지.  
 @1 이문간까지 다섯 군데, 음.  
 #3 또 이 고○○이네 집이도 저 저 집 다섯 개우다. 동, 서, 남, 북.  
 #1 동동네가문 조○○네 집, 저 한○○이네 집.  
 #3 한○○이네 집은 집 네 개고게. 세 개고.  
 #1 거 대문간.  
 #3 아, 계난 세 개고마썸.  
 #1 또 이○○이네 집허곡.  
 #3 아, 우리 집도 저.  
 #1 계난 또 고○○네. 저 다음 요디.  
 #3 무사 셋동네 가민 현○○이네 집도 있고 하우다게.  
 #1 누게?  
 #3 현○○이.  
 #1 아, ○○이네 집 맞아.  
 #3 저 일본집들.  
 @1 계난에.  
 #1 일본집.  
 @1 네 거리, 다섯 거리.  
 #1 험 아홉 거리가 뉘네.  
 @1 보통 네 거리.  
 #3 보통 네 거리집도 힘들고.  
 @1 예.  
 #3 다섯 거리 집은.

@1 더 힘들고.  
#3 더 힘들고.  
@1 다섯 거리는 보통, 예. 허질 안허니까.  
#2 세 거리 집은 많고.

### 장투에

@1 안거리, 모커리까지 해근에 하고. 그다음에 삼춘, 장독대 놓는 딴 뭐렌 해?  
#1 장투에. 장투에.  
@1 장투에.  
#1 예.  
@1 아깐 안 나와신디.  
#1 (웃음) 장투에.  
@1 장투에예, 두에예, 투에.  
#1 두에, 두에.  
@1 장투에.  
#1 으.  
@1 게민 그럼 옛날 장투에를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놨수과?  
#1 아, 별도로 그 부억 부튼 옆으로.  
@1 예.  
#1 부억 바깥에다.  
#3 저 무시거 낭으로나.  
@1 예.  
#1 어.  
#3 낭으로 꼬아은엥에 이렇게 만들거나 담을 영 둘러거나 해놔주게.  
@1 아, 제주도도 낭으로 이렇게 둘러놨수과?  
#1 예, 담으로 행 공간 잇어근에 이거 영 첨 뭐랄까 요새 ㄱ트면 나무 조금씩 심어근엥.  
#3 심엥 안 허곡.  
#1 돌로 요렇게 다근에.  
#3 보민 놀낭 그차단에 요디 ○○하르방네 집이 보니까 다 꼬안 내부니까 문딱 살았어.  
@1 으.  
#3 그, 그.  
@1 으, 울타리 뒤엇구나. 나무예.  
#3 울타리 뒤니까 여름엔 그늘 지곡 낙엽수로 허난에게.  
@1 아.

#3 겨울엔 판씩 그 저 떨어져불민 엇곡.

#1 계난 옛적에 뭐할 때는 둘러막던가 그 나무가 쯤 일부 심고 꽃이는 거 뭐 근래에 와서 그 꽃이지.

@1 으.

#1 이제 육지 가 보민 그 울타리 허는 식으로.

@1 예.

#1 거는 나중이고. 전부 뭐 울타리 이런 식으로 쯤.

@1 둘럼예.

#1 막 그 부억 두에다가.

@1 부억 두에.

#1 예.

@1 고○○네도 거기도 이렇게 뉘어선게예. 그다음 밑에도 돌들 깔아마씨? 아니면 어떻게.

#1 예, 거기도 저 향아리 아래다.

@1 예.

#3 워 향아리에 그.

#1 녀작녀작헌 돌 해당은예.

#3 돌 꽃느냐믄 밋에 습기 따문.

@1 으.

#3 장 7튼 거 담양 습기차면은 장이 고려.

@1 아.

#1 게, 펜펜헌 돌덜 헤다근예.

#3 보통 이 저 이 7렛돌 저 작품 버린 놈, 그거가 향 많이 저 췌주게.

#1 그거 딱 맞추, 그것이.

@1 보통, 그런 돌 이름도 뭐 이십니까, 이름 불러. 뭐라고?

#1 그건 잘 모르크라.

@1 뭐 장팡돌, 이런 말은 안 헤?

#3 팡돌.

#1 한꺼번에 거 이름을 팡돌.

#3 팡돌, 장항팡돌이엔 잘헤낫주.

#1 장투에.

@1 장투에. 장항팡돌.

#1 (웃음).

춤

@1 예. 장항팡돌. 여기 성읍에도 춤들 메낫지양?

#3 아, 춤 하낫주게.  
 @1 춤은 어떤 데, 여기 물이 귀찮니까? 성읍이.  
 #3 여기도 봉천수라 가지고.  
 @1 예.  
 #3 요기, 저기 해 가지고 이 몇 군데 밖에 없으니까. 게 아니허민 내창에 강은  
 앵에.  
 @1 음.  
 #3 천미천물.  
 @1 예.  
 #3 저 길어오고 헛엇는데. 그 이 춤허영은앵에 허드렛물을 하영 씻주게.  
 @1 음.  
 #3 나무덜은 좋아났으니까 여긴.  
 @1 보통 무슨 낭에 춤 메마썸?  
 #3 이 보통은.  
 #1 동백낭.  
 #3 동백낭이나 보통 이 저 이런 신낭.  
 @1 예, 신낭 이런 거에.  
 #1 보통 먹는, 먹는 물은 동백낭에 좇주. 게난 동백, 각 집에마다 동백낭은 하  
 나씩 다 이시난.  
 @1 아. 집집마다.  
 #1 춤 받거든.  
 @1 춤 받은 거에.  
 #1 게 봉천수가 그건데.  
 @1 예.  
 #1 게문 이걸 만약에 건 시건이라고.  
 @1 예, 시건이.  
 #1 마 일키로썸 웰 거라.  
 @1 예.  
 #1 허벽으로 저와야 뉘어. 게, 여자덜은 아침마다 닭 울기 전에 강, 두 번, 두세  
 번 질어다 놔뵤 또 밧디레 나가곡.  
 @1 으.  
 #1 또 정 7레 굴 때도, 것도 보리를 굴아놔두고.  
 #3 아 그때 그 우리.  
 #1 저 옛날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3 이 저 춤 반양 놔두민 그디 그 저 모기 새끼들 그.  
 @1 고노리.

#3 고노리 막 일어. 아 그 께기 먹을 때는 어디 아프지도 안 허연게.  
#1 (웃음).  
#3 이, 저 지하수 먹어가니까.  
#1 (웃음) 것이 영양제라.(웃음).  
#3 아프곡.  
#3 지금은 아무나 못 먹잖아.  
@1 예.  
#1 아, 과거 이 사름 험주마는. 그 것이 솔직히.  
@1 예.  
#1 거 족은 것도 아니라. 풀리 7리쳐치은 그대로 먹었지. 그 뭐 뭐 어떻 다듬  
양 먹을 말이라게.  
@1 그거 영 체에 영, 저 무슨 험벅 짚앙 헛덴 허던데.  
#1 (웃음)  
#3 형겅 영. 그건 진쉬. 진쉬 골를 때.  
@1 아.  
#3 이런 봉천수 요런 디 저 등 부튼 디 강 허젠 허민 그 천을.  
@1 형겅.  
#3 형겅 영 대영은에 물 질민 그디 시별경허여.  
@1 진쉬.  
#3 난 게민. 그 요만히 혈 때도 저 우리 그 저디 영 허난 영 왕 그디 영 샷당.  
양, 이거 께기 아니우파, 이거 저. 담양 갑서, 담양 갑서 허민. 아 이놈으 새끼허  
명 욱도 하영 듣고.  
#1 (웃음)  
@1 (웃음).  
#1 아니 또 허나 우스개를 훈 번 허저. 꿩 사농을 갖는데.  
@1 예.  
#1 사농 간 오단에 저 동문 념영 \*\* 그 저 물 골르는 디 있어. 확 곤젠 허난.  
그, 그디 간 보니까 물은 먹고 싶고 어떻게 이디벳기 물 없으니깐.  
@1 예.  
#1 간 앞더정 먹젠 허니까 고노리가 어떻게사 만헌지. 거 어떻게. 닥낭 이파리.  
@1 예.  
#1 테와놓고 빨아 먹, 안 들어 갈 수가 있나. 그래도.  
#3 아니.  
@1 (웃음.)  
#1 게도 그때 건강헛엇는데.  
@1 예.



#1 근래 와서는 아무 디나 못 먹잖아. 농약 관계로다가.  
 #3 근디 다른 것은 모르는 디 신대접에다가.  
 @1 예.  
 #3 물항에 강은에 물을 평 영 허면은 이 물박으로 거릴 땐 잘 몰라.  
 @1 예.  
 #1 (웃음).  
 #3 그, 저.  
 @1 색깔이.  
 #3 진쉬, 진쉬가 잘 안 보이는데. 그 저 흰 사발로 허민 진쉬가 막 희영해도 경해도 물을 브짝 먹고 싶고게 먹어진덴 허니까.  
 #1 (웃음) 게난.  
 @1 진쉬도 막 거기 잇어났구나게.  
 #1 하천에서 지금 물 먹젠 허믄, 아무거라도 먹어졌지만은 이제는 못 먹잖아. 이젠.  
 @1 예.  
 #1 농약으로 이젠, 흙부로 못 먹거든. 이젠 또.  
 @1 게난 진시도 안 살암수게, 요즘.  
 #1 예게. 성읍리도 이제는 지하수로, 성읍리 좋아요, 솔직히.  
 #3 성읍리 지하수 먹어도.  
 @1 예.  
 #3 물 사다 먹는 집이 성읍린 딱 조사해 보민 반 이상이 물을 삼다수 다 먹넨 허니까.  
 @1 예 맞아.  
 #3 나도 방아집이서 삼다수 박스채로 영 행 놔두민 아이들토 기자 덩기당 왕 앓아가고.  
 @1 그다음에 아까 춤 허는데, 춤 메는 거잖아예. 춤 받았 먹는데 그 밑에는 뭘로 받아마썸? 물을.  
 #1 새로.  
 #3 아니 향.  
 #1 아, 향아리. 아 저 물 받는 건 향아리.  
 @1 거 무슨 향?  
 #1 큰향.  
 @1 그냥 큰향 헉니까, 춤향이렌도 곱아?  
 #1 어.  
 #3 겐디 그 그게.  
 @1 예.

#3 거의 거가 물을 받을 때는 이런 진쉬나 이런 저 뭐가 어디서 여과가 됩느냐 하면 그 저 저 누람지 예픈.

@1 예.

#3 우이서 다 여과돼어.

@1 음.

#1 누람지 이렇게 이렇게.

#3 오래 놔두민 와서 또 알을 싸니까 그거 고노리도 일어볼곡 허는 건디. 곧 받을 땐 아멩 좃아봐도 못 좃아.

@1 음.

#3 쟁은에 춤받는 우이.

@1 예.

#3 영 보민 늣도 잇곡. 그거 영 행 툃툃툃툃 툃민 알아져.

@1 으, 게난 그 새로 영 쟁은에 허잖아예. 머리처럼예? 그 쩐 거를 뭇렌 곶아?

#1 춤.

#3 춤.

@1 그게 춤인 거지예?

#1 춤.

@1 예, 거기에서 춤물 받으난 춤, 그렇게 받은 물은 춤물,

#1 어, 춤물.

@1 춤물.

#3 게난 그 춤이 그 이 저 영 쩐 게 누람지 쫄르게 쩐 거라게.

@1 으.

#3 질민 누람지고 쫄르민 춤이라.(웃음)

@1 아, 게난 그것도 또 누람지 영 머리 영 땀 것처럼 요렇게 영 헉디다.

#1 아, 여자, 처녀덜 머리 땀 거.

@1 예.

#1 거 앓당 영 졸라메문.

@1 누람지로 영.

#3 어느 쪽에서 여과가 됩느냐 허문 그 띠 무꾼 우이서.

@1 예.

#3 거기서 여과가 다 됩.

@1 여과돼면서 보통. 게난예, 그 춤이 저쪽 서쪽이나 해변은 이런 뉀 엇거든마 씬. 거기는 물들 나니까.

#3 아, 경허고 물도 나고 이 저 해변에 보민 큰 나무가 옛날엔 엇곡.

@1 으.

#3 다 촌물 치대겨 불면은 이 나중에는 저 수종 개량 헤가니까 그 촌물에 견디

는 나무덜을 예를 들어 소나무 이런 것들 헤단 심으니까 헛지, 옛날은 촌물 치대겨불민.

@1 으.

#3 워 월 무시거. 밧디 갈앙 놔뒤도 아무것도 엇어났어.

#1 아무 것도 안 난.

@1 음. 계난예 이런 참 모든 게 이게 다 지혜갈애, 지혜.

#3 이 지금 촌물을 치대기면 영주산 뒤에.

@1 예.

#3 셋부름으로 태풍 불었다 허문 그 영주산 뒤에??지 와근예, 우리 출왓이 흥번은 강보난 별경해불었어.

@1 으.

#3 야, 거 이상허다.

#1 태풍 불어나문 경허여.

#3 그게 촌물 치대겨분 거라.

#1 근래 와서는 그런 건 엇주마는 과거는 촌물 치대겨 불민 뭐 농사.

@1 바당 게 이까지 오는 거라예.

#1 바닷가, 저 바닷가에 옆에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고.

@1 예.

#1 이??지도 바람에 날아와가지고 피해가 잇었다고.

@1 으, 어쨌든 이제 허고. 삼춘 막 버치지예. 오늘랑 여까지만 허카?

#1 어, 나 흥 점은 슬져서. 나 웃음으로.

(부분 생략)

### 3.2. 초가 지붕 이기

#### 집 이는 준비

@1 어어, 계문 이 동네는 집 일젠 허면은 멧 년에 흥 번씩 일어마씨?

#4 일 년에 흥 번.

@1 일 년에 흥 번.

#4 으, 이거 다 일 년에 흥 번씩.

@1 계문 그 집 일젠 허면 저기 그 과정예, 준비허는 과정 쫘 곶아줍서.

#4 준비허는 건 저, 저런 역새, 저런 새 허곡

@1 으.

#4 또 즐 저 노 꼬앙 허는 거 허곡.

@1 응.

#4 그거주게.

@1 그거예. 게믄.

#4 게믄 강 그 밧디 가근엿에 이저 새 강 막 비어다근엿에.

@1 응.

#4 비어다근에. 무꺼근엿에 왕 데멧당 새 집 일 때 뉘가믄 딱 이는 거.

### 새, 어웁새, 각단

@1 음. 게믄 밧디 그 새도 종류가 으라 개 잇어마씨?

#4 뭐 저 종류. 어웁새 잇고, 저 새 잇고.

@1 음.

#4 종류가 두 개주. 어웁새는 만약에 저 집을 파믄, 파지믄 막 흥파지믄 그거 멧 단 앓당 탁 문영 저 새로 싸악허게 멘짱.

@1 멘짱허고.

#4 게믄 그추룩 멘짱 그자 물매가 나잖아. 물매가 안 나주, 그거 만약에 흥파진 디 저런 새로만 허믄 새가 많이 들어부난.

@1 응.

#4 어웁새 흐끔 놓고 행 물매 내우젠.

@1 음, 게믄 물매가 무시거마씨?

#4 물 굴르믄 느려가는 거. 저치룩 이 비슷하게 물 느리는 거.

@1 응, 그거를 물매렌 허는 거라예.

#4 으응.

@1 예, 알앗수다. 게믄 삼춘예, 그 새는 언제 비어?

#4 동짓들, 설들.

@1 동짓들, 설들에. 그 집 이는 새는 동짓들, 설들에 비어예, 예.

#4 막 눈 팡팡 올 때 비어 가사주. 설들, 게난 동짓들엔 막 눈오곡 허난에 혼 설들 나가믄 비어가.

@1 설들 나가믄.

#4 음력으로, 음력으로, 음력으로 설들 나가믄.

@1 아아, 게믄 옛날에 그 새도 청새도 잇고.

#4 청새도 잇주게.

@1 그난 집 이는 거는 무시거?

#4 게난 저것가 막 익어볼지 아널 땐 청새, 막 저 파랑헌 때는 청새.

@1 응.

#4 또 저것가 시간이 오래영 헤가믄 저추룩 발믄 저 집 이는 거.

@1 집 이는 새는 무신 새?

#4 게문 그 새, 그 새 바람.

@1 건 익은새?

#4 익은새.

@1 여기도 익은새렌 골읍니까?

#4 으응.

@1 으응.

#4 익어서 새 익어서 빌 거. 청새는 만약에 파랑헌 때 헤민 막 옛날 ㄱ뜨민 막 초석도 막 사났주게. 청새 헤근에.

@1 응.

#4 옛날에 그걸로 행 청새로 행 곱닥헤나신디 이젠 그런 거 엇이난 저 새 그자 익어가민 저거 집이는 새.

@1 그거는 새초석이렌 험니까, 건 무슨 초석이렌 헤?

#4 옛날은 새초석헤났주게, 그때 막, 저 완도가근엿에 초석 저 사근에 헤났주. 경헤신디 이젠 그런 거 엇이난 기자.

@1 음, 이 동네 뜸도 짜났수과?

#4 아이고, 뜸도 짫주게. 예전에도 짜곡 뜸도 짜곡.

@1 음.

#4 막 다헤났주게.

@1 뜸은 무신 새로 짜?

#4 저런 걸로 짫주게. 뜸은 저런 걸로.

@1 익은새로? 으응. 게난 줄 비젠 허면 집이는 새허곡.

#4 응.

@1 줄 비는 새허곡 뜨나지 안험니까?

#4 아니, 저 새로.

@1 각단은 뭐라?

#4 게난 각단 저 새로 물 적정 각단허는 거. ㄱ뜨 새.

@1 각단허고 새허고 구분헤봅서.

#4 게난 각단은 흐꿈 줄른 거.

@1 응.

#4 저거는 진 거.

@1 으, 각단은 흐꿈 줄른 거.

#4 흐꿈 줄른 거.

**호랭이, 두치기**

@1 예. 게문 줄 비젠 허면 필요한 도구들은 무시거 잇어?

#4 그 호랭이, 호랭이 영 뱅뱅뱅 돌리는 호랭이허곡.  
 @1 예.  
 #4 그거뿐. 그거허곡 또 저 뭐 영 두치는 것도 잇잖아.  
 @1 예.  
 #4 두치는 것도 있어.  
 @1 계난 두치는 건 이름 뭐우짜?  
 #4 거는 두치는 거.  
 @1 응.  
 #4 두치기 아정오라, 줄 왕 어울리게 헤영은에.  
 @1 왕 어울리게 행은에.  
 #4 응.  
 @1 두치기 아정오라.  
 #4 응.  
 @1 이렇게 허는 거라예.  
 #4 으응.

#### 줄 놓기와 줄 비기

@1 예예, 그 다음에 그 줄 놓젠 허면예, 멧 사름이 필요헤마썸?  
 #4 그거?  
 @1 줄, 줄 비젠 허민.  
 #4 그거는 멧 사름이나 마나 제기 비젠 허민 여라이 비곡.  
 @1 으.  
 #4 또 재기 안 비여근에 저런 거 헛 거리썸 허민 딱 네 패로.  
 @1 응.  
 #4 두 사름씩 놓곡 두 사름 비곡.  
 @1 쟁 그걸 네 패렌 곶아?  
 #4 으응. 네 패.  
 @1 게민 헛 패가 아니고 네 패? 네 명을 허면.  
 #4 헛 사름 허민 헛 패, 두 사름 허민 네 패.  
 @1 으응.  
 #4 경 허여근엔에 경허민 저거 헛 거리 놓젠 허민 저런 거 두 거리에 딱 두 패로 헤근엔에 흐루 놓는 거.  
 @1 두 패로. 계난 집 두 거리 일젠 허면은 헛 패로.  
 #4 헛 패로. 또 흐나만 허젠 흐민 헛 패로.  
 @1 으응.  
 #4 경헌 거.

@1 계난 혼 패는 몇 명?

#4 두 명.

@1 두 명을 혼 패라예.

#4 응.

@1 계면 두 패는 네 명.

#4 응, 응, 네 명.

### 진줄, 즈른줄

@1 그러면 줄 몇 개를 비어야 돼.

#4 거 저거 집이 집 크면은.

@1 응.

#4 크면은 혼 진줄쯤은 혼 서른, 서른다섯 개.

@1 으.

#4 줄른 거쯤은 혼 마흔 다섯 개 경 해.

@1 계민 진 줄은 어느 쪽으로 메는 걸 진줄이렌 험니까?

#4 진줄은 이 집 저, 영 지리기, 진 거는 진줄.

@1 응.

#4 즈른 건 즈른줄.

@1 으, 즈른 건 즈른줄예. 경혜근에 허는 거고. 그믄 삼촌 봐봐. 줄 이렇게 비젠 허면 이 각단을 이렇게 맥이는 사람이 잇지예?

#4 응.

@1 건 뭐렌 허여?

#4 으, 줄 거 우리는 놓잖아.

@1 으.

#4 계민 판 사름은 호랭이 허영 비잖아.

@1 으.

#4 우린 놓는 사름. 재기재기 줄 비라, 우리 혼저 놓켜 영 허영.

@1 으, 아, 삼촌네는 줄 놓는 거.

#4 으.

@1 삼촌은 비는 거보다 놓는 거를 잘허시는구나.

#4 으응, 우린 놓는 사름.

@1 아, 줄 놓는 사름.

#4 으, 으

@1 으, 줄 놓으면 줄 비는 거라예.

#4 으, 으.

### 줄 비기, 줄 어울리기

@1 게민 줄은 처음에는 혼자 이렇게 비어 가고.

#4 응, 혼자 우리 영 재기 놔가민 재기 비라 재기 비라 허민 혼자 놔가민 또 이 착에서도 놓는 사름이 이디 앓으민 비렌 허곡. 두 사름이 비어가곡. 경 행 두 패로 비민.

@1 응.

#4 저런 거 집 두 거리치 놓는 거.

@1 그럼 어울릴 때는 멧 사름?

#4 어울릴 때는.

@1 응.

#4 그 두치기.

@1 으.

#4 두치기 허민 게 하나로 허민 두 사름 비곡.

@1 으.

#4 헛 사름은 어울려가곡 헛 사름은 두치곡 허는 거.

@1 으, 어울리는 사람까지 허민 네 명이 필요헌 거네예.

#4 으, 이거는 딱 네 명 들어사.

@1 아아, 그래서 두 패가.

#4 으, 으, 으.

@1 저기 허는구나.

#4 으으, 우리 두 사름으론 못 허잖아 이거 줄허는 비는 거. 딱 네 사름 들어사.

@1 예.

#4 이거 헛 사름 저디서 두 사름은 비곡 헛 사름은 영 어울려가곡 이디선 두치곡 헛 사름, 경 헤영 너이 딱 들어.

@1 으음.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허커라예.

#4 으.

@1 패렌 허잖아. 패. 헛 패, 두 패 흘 때.

#4 으, 으.

@1 그 패가 뭐우파?

#4 게난 줄 비는 사름이 헛 패, 두 패.

@1 으.

#4 거주게.

@1 줄 비는 사름을 헛 패 허는 거라.

#4 으응.

@1 게민 삼춘이영 나영 줄 비민 이게 헛 패.



#4 흔 패. 또 이디서 흔 패 허민 흔 패, 허민 두 패.

@1 계난 두 패가 이서야만이.

#4 으으, 두 패가 이서야만이 이거 줄을 어울령은엔에 허는 거.

(중간 생략)

@1 예. 그다음 집줄 놓는 거부터.

#4 (웃음)난 줄 놓는 거 설명허멘.

### 호랭이

@1 예, 삼춘, 그 줄 호랭이 잇잖으파양, 이 호랭이는 누게가 만들안?

#4 그 멘든 사름이 잇지.

@1 으.

#5 목수덜이 만들주, 목수덜이.

#4 으응. 멘드는 사름이 있어.

@1 예, 그 어서 오십시오. 예, 그니까 이 그, 저기, 호랭이는데, 멧 년에 흔 번  
그걸 멘듭니까?

#4 판나지 안허민 멧 년이라도 쓰지.

@1 그 낭은 무신 낭으로 멘든 거?

#4 저런 나무.

#3 아이, 이 지금은 아무 나무라도 쓰고. 허는디 옛날은 이런 질긴 가시낭 ㄱ튼  
것, 돛박낭 ㄱ튼 거.

#4 돛박낭.

@1 으.

#4 돛박낭으로 질기주게.

@1 돛박낭 ㄱ튼 거예.

#3 요렇게 생긴 놈이 오래여 가민.

#4 판나 붙어.

#3 질기지 않은 낭을 허민 다 다여 붙어.

@1 예.

#3 거니까 나무가.

#4 나무가 질긴 놈이 잇잖아, 호랭이 멘드는 질긴 나무. 저, 돛박낭.

#3 이런 가시낭.

#4 가시낭 ㄱ튼 거.

@1 으응.

#3 굴무기 ㄱ튼 거 판자해가지고.

@1 예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예.

#4 으.

**팽고대, 거왕**

@1 그다음에 그, 집 헐 때 그 팽고대, 팽고대 허영 알아집니까?

#4 팽고대가 뭐라?

#3 여자덜은 모릅니다.

@1 으.

#3 팽고대엔 현 건 흑질허젠 허민.

#4 아아.

#3 지붕에 흑 시끄젠 허민 거 느리지 말곡 이저 무시거 허게시리 허영 앞이 저  
짜악허게 이 저.

@1 왕대로 허는 거?

#3 왕대로도 허곡.

@1 음.

#3 뭐 요즘덜은 이 저 이 다루끼로도 허곡 허는데.

@1 예.

#3 옛날은 왕대가 많이 그 왕대 못헌 사름은 기자 이 저 고지 가민 곧작헌 낭  
덜 이시민 해당은엔에.

#4 곧작곧작허게.

@1 그게 거왕이지.

#4 응, 거왕.

#3 아니, 거왕허고는 틀려.

#4 거왕은 틀리주게.

@1 아아, 게문예, 거왕허곡 팽고대 그 구분 쫘 곱아줍서. 어떻 뜨난 거.

#3 팽고대는.

#4 거 남자들. 그거는 남자들이.

#3 이렇게 허문 서리 위에 놓곡.

@1 응.

#3 거왕은 밑에, 이 서리 밑에.

@1 으음.

#3 줄 메젠 허민 거왕은 이 서리 밑에 놓고 이 저, 팽고대는 이 위에 놔가지고  
이 옛날도 치레허는 집 아니면은 경 앙토허곡 우이로 시끄지, 흑을 시끄질 아녜주  
게.

@1 예, 예.

#3 거 화재 방지도 허곡 이 열 방지 이 저 추위 방지도 허곡 그 목적으로 많이  
허니까.

@1 으음. 흑 시끈다고 햄구나. 그다음에 집줄 메젠 허면, 예, 집줄 메는 거.

#4 으.

### 집줄 메기

@1 그걸 골아줘 봅서. 집, 집줄. 삼촌이 집줄은 메는 건 누계가 헛수가? 건 남자들이.

#4 건 남자들이.

#3 그거는 남자들이.

@1 으.

#3 집 일젠 집 만일 헛 거리에 네 사름 올라가면은.

@1 예.

#3 밑에는 두 사름이 새도 올리곡 줄도 메곡.

@1 으음.

#3 줄은 뭐 아무렇게나 이 저 메는 게 아니고 것도 순서가 있어. 요 지붕 이렇게 허면은 울로 짧은 거 두 개면 두 개나 세 개 메민 또 이제 긴 줄 또.

#4 두 개로 메곡, 두 개 메곡.

#3 두 개 메곡 허면서 서로 이 저 이렇게 다.

#4 어울리멍, 어울리멍.

#3 지들라지게.

@1 예.

#3 우리 제주도 말로 지들라지게. 게야 바람이 불어도 이게 왔다갔다를 안 헤.

### 집 이는 순서

@1 게믄예 삼촌, 그 집 일 때 그 순서예, 그거 쯤 골아줘 봅서. 집 이는 순서. 새 올리고부떠 뭐 이런 거 잇잖아. 응.

#3 아, 게난, 새 비어당.

@1 예.

#3 이제 집에 오면은 이제 그걸 집 일젠 허민 지붕 우터레 올리민.

@1 예.

#3 이, 이는 사름덜은 그걸 폐와가면서 그 가에부떠 이렇게 돌아가면서 퍼면 바람 불까봐 가지고 이 옆에부떠 메어.

#4 줄 메영.

@1 줄 메영.

#3 줄 메가면서 이제 쭈욱 지붕 꼭데기까지 상므르궂지 이제 저 이 짚을 깔아, 저저 썰 깔아 가는 거주게.

@1 예, 그 삼거리집, 예? 삼간집. 삼간집 하나 지붕 일젠 허면 새는 멧 단이나 필요헤마썸?

#3 헛 다섯 바리.

#4 다섯 바리. 큰 건 다섯 바리민.

#5 아니, 저.  
#3 요즘은 경 안 드는, 저저 요즘 단으로는.  
#5 아니 저 삼관집?  
@1 예.  
#5 거 보통 여기서 삼관집이라는 허면 삼관집에.  
#4 다섯 바리.  
#5 저 세 바리 옛날에. 옛날에는 세 바리, 세 바리민 삼관집 흔 거릴 일어났는 디요사이는.  
#4 단 즐안.  
#5 그저 단이 즐아노니까.  
#3 요만큼씩밖에 안해. 옛날은 이만씩.  
#4 다, 다섯 바리.  
#5 하여튼 네 바리 이 정돈 들어야, 한 바리 더 추가행.  
@1 예, 옛날은 세 바리라예.  
#5 예예.  
@1 게문.  
#5 옛날부터 세 바리 원, 삼관집 흔 거리 세 바리로 일어났주.  
@1 삼촌 그 세 바리가 새 멧 단이우꽈?  
#5 저, 흔 바리가 서른 단.  
#3 게난 구십 단.  
@1 구십 단. 음.  
#5 서른 단이난 삼스 십이 네 바리면 백 스무 단이네.  
@1 예. 백 스무 단예.  
#3 겨고 즐 놓는 것도 흔 바리.  
@1 즐 놓는 것도 흔 바리.  
#4 경 허문 다섯 바리. 집 흔 거리 허민 다섯 바리 들주게.  
@1 아아, 집 흔 거리 허젠 허면 다섯 바리 들어예.  
#4 즐꺄지 다섯 바리 들지.  
@1 게민 여기는 다 집집마다 새왓들이 잇어신가마씨?  
#4 예고.  
#3 옛날에는 거의 잇어.  
#5 옛날에는 거의 또 잇다시피 헛주만은 지금은 새왓이 원 엇언에 군에서 산 거 그 새왓덜벧긔.  
#4 다 사명. 돈 주명 사명.  
#5 개인 새왓이 벨로 없어.  
@1 예.

#4 돈 주멍 사멍.  
 #3 옛날은 필수로.  
 @1 예.  
 #3 자기 자급자족할 그 밧ㅎ곡.  
 @1 음.  
 #3 새밧은 거의 이제 갖췄다고 봐도 뵈고, 그 옛이면은 이런 데 들에 가서.  
 #4 뽑아뵈.  
 #3 쉼 안 먹은 딜로 강은앵에 뽑아.  
 #4 뽑앙.  
 @1 으음.  
 #3 뽑는다는 거는 거 어웁 트멍에나 이런 트멍에 쯤금씩 이렇게 무덕무덕 그 새가 나 있으면 그걸 헤다가.  
 @1 게난 그거는 빈덴 안행은에 뽑은덴 곶암수다예.  
 #3 예.  
 @1 여기는 저기 고망새렌 이런 말은 안 나오니까?  
 #3 고망새 그런 건 아니(웃음).  
 #4 고망새.  
 @1 으, 놈의 거 강 이렇게 도둑질도 행은에 헛뵈 험디다. 따른 동네 가난.  
 #4 도둑질 헤 강. 그런 건 엇어.  
 #3 아, 그렇게들 많이 헛는다.  
 @1 예.  
 #3 이게 여기는 그 옛날부터 이 저, 어떤 현청소재지고 뵈허다 보니까 이 아멩 헤도 이 저, 파출소가 가차우민 도둑놈덜이 덜헤여.  
 @1 음.  
 #3 그, 그런 영향도 여기는 많이 있어.  
 #4 이제는 새깁이 하영 가노난 놈의 걸 도둑질 못허여.  
 @1 예.  
 #4 옛날에는 새깁이 안 가난 강 놈의 밧도 개인으로 강 뽑아당 도둑질헤도 뵈는다. 견디 이젠 새깁이 하도 하부난 만약에 걸리민 들어갈 건디.  
 @1 으. 꺾리믄 들어갈 건디.  
 #4 꺾리믄 들어갈 거주.  
 #3 아니, 게니까 옛날은 어떻게 많이 허냐면은 새왓을 많이 가진 사름덜한테 가서 일 도와주곡 그만큼 이제 그 뵈 열 단 비면은 멧 단 가정, 작업헌 사름한테 주곡 그런 식으로 많이 헤. 반작, 반작.  
 @1 반작예, 반작헤 갖고 이제 허기도 허고.  
 #3 반작도 멧 분파 헤가지고.

@1 예, 멧 분파 험니까. 여기서는.

#3 그 옛날은 이 보통 그 열 단이민, 하여튼 험 바리민.

#5 삼 분파.

#4 삼 분파.

#5 보통 삼 분파.

#3 삼 분파. 게민 세 바리 비민 험 바리 이녁 적시.

@1 그다음에 그 집줄 그 봉을를 때. 이 집줄은 보통 여기 멧 번 메마씨? 여기.

#3 거는 집 일영.

@1 예.

#3 집 이는 날 대충 이제 그 풀기 좋게 해놔다가 그다음 한 열흘쯤은 비 맞곡 이 벧 맞으면 그걸 땡겨. 땡기면은 이제 쪽쪽 줄이 늘어나면은 그때는 이제 마지 막으로 봉을라.

@1 예.

#3 줄을. 경허민 이제 그, 그게 마무리주게.

@1 게영 그 다 짜르는 것까지 다 험 게 이제 봉을랑 허는구나예.

#3 예.

### 집 이는 날

@1 게민 한 열흘 간격을 두고 게민 두 번을 허는 거구나, 예. 그 집 일거나 이러면 날도 땡 험니까, 아무 때나 험니까?

#3 아, 옛날은 날 봤주게.

@1 언제?

#3 이, 이 삼춘. 그것사 잘 알주. 무신 날, 무신 날 피험니까?

#5 아, 옛날은 그, 묵은해, 묵은해는 날 안 땡은엔에 일고 이 새해가 새해 오면은 새해 일게 땡면은 그 대충 이 천화일.

@1 예.

#5 천화일로게, 천화일에 그 집을 일면은 그 가정에 또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고 해서 이 천화일을 봐서, 그 천화일에 집을 안 일어.

@1 천화일에는 집을 안 이는 거예.

#5 예.

@1 게민 천화일은 무시겨우파?

#5 천화, 천화일이라고는 옛날부터 그, 그, 천화일, 하늘,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1 예.

#5 이런 뜻으로 해서 그 자기네 집에 저 그 좋은 일이 안 생긴다고 해서 그 천화일은 집을 안 일어, 안 일어난.

@1 그 띠로 허게 되면 무신 날이 천화일이 땡는 겨우파?

#5 아, 그건 이 그.  
 @1 헤치로.  
 #5 그 둘로 해서.  
 @1 예.  
 #5 그 즈축인묘 허면은 즈묘 오유해서이.  
 @1 예.  
 #5 이 정월, 정월 즈, 이월 저 유 묘, 묘유해서 이거, 이, 예, 사계절이엿 허영  
 은에 이걸 되풀이허여. 열 두 둘에.  
 @1 예예.  
 #5 이렇게 풀이허면은 다시 오월 둘 나민 즈일이 되지?  
 @1 예.  
 #5 그런 식으로.  
 @1 그난 네 개 띠를 그 사 개월해서 번갈아가는 거라예.  
 #5 예.  
 @1 천화일이.  
 #5 천화일이 그러면은 예 이것이 열 두 둘, 열두 둘이민 또 정월, 정월둘이 즈  
 일이 되나면 다시 오월둘이 즈일이 되곡, 해서 이거 열 두 둘이면은 네 번에.  
 @1 게믄 쥐날 안 허곡, 예.  
 #4 뱀날 아니 허곡.  
 @1 뱀날 안 허곡.  
 #4 독날 안 허곡.  
 @1 독날 안 허곡.  
 #5 오불개옥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오일에 ㅁ날에도 취급을 안헤낫어.  
 #3 물날, 물날.  
 @1 ㅁ날도 안하곡. 음, 이게 아까 오, 오육?  
 #5 오일, 오일, ㅁ날.  
 #4 ㅁ날.  
 @1 아, 오일 아 저.  
 #5 ㅁ날, ㅁ날. 다섯 개 아니고.  
 @1 예, 예, 예.  
 #3 물 오 제.  
 @1 그 다음에 토끼날 안허곡.  
 #3 묘일.  
 #5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 토끼날 ㅁ튼 그런 건 일 년에 걸리지 안허여.  
 @1 걸리지 안헤예. 예.  
 #4 걸리는 건 독날허곡 배염날허곡 ㅁ날일 거라게.

@1 쥐, 쥐혹곡.  
 #4 쥐, 으.  
 #3 거 옛날은 왜 이 저 새해 입춘 들기 전이 집을 일려고 허느냐면 날 안 보는  
 맛으로, 아무 날이라도.  
 #4 날, 안보는 날, 묵은해는.  
 #3 이 입춘 전에는 날을 안 보고.  
 @1 예.  
 #3 입춘이 지나면 새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날을 보는 거주.  
 @1 예, 그니까 이제 그 새해를 여기서도 입춘을 기준으로 허는구나예.  
 #3 응.  
 @1 그날 새철드는날 기준으로 해갖고.  
 #3 아무 때도 저, 새철이 저 새해난애.  
 @1 예.  
 #3 뭐 정월 초하루 멩질이엔 행은엔에 저 새해가 아니고.  
 @1 음, 그렇게 해서 하고. 삼춘, 집 이는 거 전문이렌 골안게만은. 집 한 번 순  
 서대로 쪽 말로 한 번 일어 봅서. 어떻게 허는 건지.  
 #5 뭘?  
 @1 집 이는 거. 순서.  
 #4 집 이는 그 무시거마씀게.  
 #3 집 이는 방법을.  
 #4 새 돌아가명 폐우는 그 뭘 골아줍 봅서.  
 #5 새 영 폐우는 방법?  
 #4 예, 예.  
 @1 예.  
 #5 아, 그거 저기, 초가집이 잇으면은.  
 #4 돌아가곡. 헛 도리씩 짹짹.  
 #5 한 도리 폐와가는 게 요런 저, 이, 모. 저런 구떼기, 구떼기로 시작해서 사람  
 이 네 사름이 오른다면 한 구떼기씩 마타.  
 @1 예.  
 #5 쟁은에 헛 사름이 쭈욱허게 일어가민 또 다음 사름은 그 뒤로.  
 #4 또 돌아, 또.  
 #5 뒤로 해서 뱅뱅 도는 거라.  
 #4 으, 뱅뱅뱅 돌멍.  
 #5 뱅뱅 돌아근엔에 므루레 다 가면은 그, 좀 잘 이는 사름이 므루엔 가근엔에  
 그 므루를 저 잘 더프는 거.  
 @1 게문 집 헛 번 일젠 허면 네 명이 올라갑니까? 지붕 우의?



#5 아, 보통 네 명, 네 명이 올라가.  
 @1 네 명 올라가예? 그 네 명 중에도 대표가 있어마씨?  
 #5 으, 그래서 저, 좀 잘 이는 사름이 잇고 또 못히는 사름이 잇주, 건. 그러면  
 고참은 므루 헝 영 더프곡, 더프당 더 다 일어지민 그 또 내려와 불곡.  
 @1 예.  
 #5 그 헝 사름이 므루 덮어. 므루는 헝 사름이 마타근엥에.  
 @1 음, 므루는 헝 사름. 잘 허는 사름만 허는구나예.  
 #5 응.  
 @1 예, 그 므루가 중요한 이유는 무시겨우짜?  
 #5 아, 그 비 세지 말라고.  
 @1 비 세지 말렌. 으응.  
 #5 므루 잘 안 더프면은 그계 영 헝은에 톡 까정은엥에 또 비가 세민 또 지붕  
 이 썩어.

**물매, 므루 짚다**

@1 예, 게난 그 물매 같은 경우도 그 므루허고 영향이 잇수과?  
 #5 응?  
 @1 물매, 물매.  
 #3 아, 그렇주게.  
 #5 아, 것도 물매. 것도 물매도 게민 싹허게 일면은 그 므루도 이러큼저러큼허  
 든 안 돼지게.  
 @1 예.  
 #5 영허영 ㅋ짚헤야 돼니까이, 일직선으로.  
 @1 음, 그계 물매라예. 예.  
 #3 그 므루를 잘 짚어야 이, 물, 그 물매가 좋앙은엥에 비가 안 세지. 이게 므  
 루 잘 못 짚어볼민 비가 쉐아근엥에 지금은 안으로 뭉뭉, 이런 천장이라도 영허난  
 헛주만은 옛날, 옛날이야 앙토 아녀민 잘잘잘잘 그대로 쉐아져. 저런 디 이런 므  
 루가 나쁘다 허면은 건 십중팔구 비가 세어.  
 @1 예예. 아까 삼촌 므루는 짚어, 짚.  
 #3 짚은다.  
 @1 므룬 짚으는 거렌 굴읍니까?  
 #3 으.  
 #5 여기선 여기선 므루 짚어.  
 @1 예.  
 #5 짚은다고.  
 @1 짚은다. 짚은다.

#5 말들이 다 조금.

@1 예, 그 짚은다는 무슨 뜻인고? 므루 짚은다.

#3 이.

#5 므루 짚은다.

@1 음, 새는 더프는 거 아니라예.

#3 예, 계난.

#5 새는 더끄는 거.

#3 새 므루로 출놀이나.

@1 예.

#3 이 집은 므루를 저 그 짚은다 허는 거는 이 더픈다, 마지막 그 저 저 더픈 단계를 말허는 거주게.

@1 맨 마지막에 덮는 것을 므루 짚은다.

#3 아게, 우리 육지 강 보민 여깁, 영 여깁은엔에 그, 저 그디도.

@2 혹시 므루에 집은.

#3 예.

@2 다른 새는 이렇게 퍼면서 더퍼서 올라가잖아예.

#3 예.

@2 므루에 그 그거는 혹시 미리 엮어서 덮거나 허지 안허여마씨?

#3 아니 아니,

@3 경 안허여 마씨?

#3 우리는 제주도는 낙람지를 많이 쓰고 육지는 영을 여끄는데.

@3 예.

#3 그, 영 여끄는 사름은 지금도 육지 가민 아무나 여끄질 못허고.

@2 음.

#3 거기도 므루 짚은다고 그래. 이 저 영, 영으로 므루 짚은덴 허영, 그 육짓분 들토 그렇게 말을 허더라고.

@1 예. 그, 그니까 이제 육지는 이렇게 엮어서 이영처럼 한데, 우리는 낙람지로 안 허잖아예.

#3 안 험니다.

### 줄방석

@1 예, 예. 그다음에 옛날에 그 집줄 헤난 남은 걸로는 뭇들 써신고예? 집줄 허민 남지 안 험니까?

#3 아, 계난 지금은 막 데껴벗주마는 그땐 다 걸 때어서.

@1 예.

#3 저, 이 삼춘네 잇주마는 춤 진을커가 옛날 이, 저 뭐 집에 장비나 엇영 소나

이런 저 이런 달구지가 엇이면은 강은에 어웍을 헤도 쉼로 시꺼오곡 허젠 헤도 쉼도 엇이면은 강은엔에 보리찹도 진곡 허니까 거 집 일어난 걸로, 저 불 솟앗주게.

@1 불 솟고.

#3 예.

@1 그다음에 줄 허당 남은 걸론 방석도 헌덴.

#3 아, 건 줄 남으민 방석을 허젠 줄을 더 비곡.

@1 아.

#3 더 비어. 줄을 영 멧 개 허당은에 남아야 줄은 길어야니까. 것도 그 저 봉을 르멍 쫄른 건 뭐 허느냐는 보리 무플 때나 무신거 영 허영 께.

@1 예.

#3 께로 써.

@1 께로도 쓰곡.

#3 건 단단허니까.

@1 음, 게난 줄방석 멘들젠 허면 더.

#3 예.

@1 비엿구나예.

#3 거 줄 허나 거의 들어가는디.(웃음)

@1 아, 줄방석 허는 데 줄 허나 들어갑니까?

#3 으.

@1 보통 그 멧 미터를 헤마씨? 멧 발을 험니까?

#3 멧 발을 허질 안 허영은엔에.

@1 예.

#3 이 나가 영 허게 헤보니까 진줄은.

@1 음.

#3 한 여기 사관집에는 허주만은 삼관집은 이 집보단 밑으로 훈 발씩 더 저 질게 허는 때문. 왜냐면, 그래야 멀리서 이 저 잡아당기거든. 줄을 양쪽에서.

@1 예.

#3 그 또 너무 짧으게 헤버리민 가차이 서서 땡겨버리면은 이 미리 매논 줄이 흘러붙어.

@1 예.

#3 밑으로. 그 줄에 줄 따라가지고 이렇게 와버리니까. 한 이 미터 하면은 야튼 한 구 메다, 짧은줄은.

@1 짧은줄은.

#3 어.

#5 하여튼 저, 그 삼관집에 원 그 옛날부터 마련헌 게 있어.

@1 예.

#3 멧 발, 멧 발 허영.  
 #5 저 아주 삼관집 큰 집엔 아홉 발, 즈른줄은 일곱 발.  
 @1 으음.  
 #5 아홉 발, 일곱 발.  
 #3 거난 메다 수로, 메다 수로.  
 #5 옛날 어른덜이 쪽 행 마련헤 눈 게 이시난에 딱허게 그자 그 그렇금 헤근에 저 재어근에 그 줄을 놓으민 딱 맞게 뒤어.  
 #3 겐디 또.  
 @1 그니까 어른 발로 헤갓고 아홉 발허고 일곱 발.  
 #5 응, 응. 아홉 발, 일곱 발.  
 #3 경 허곡 집이 오묵어가면은 줄이 더 질게 들어가.  
 @1 으으.  
 #3 왜냐허든 이게 자꾸 헤가든 자꾸 쌓여지니까. 이게 이렇게 노파 가든 줄이 좀 차이가 있어. 이 저, 새로 헌 집보다.  
 @1 예.  
 #3 그니까 보통 이 저 제주민속촌에는 지금도 이, 거기 지금 초집이 한 백스무 개 정도 뒤는데. 요 표선.  
 @1 예.  
 #3 거기는 일 년에 멧, 멧 개 헤 가지고 계속 걷어.  
 @1 으.  
 #3 올리 요 집, 요 집 세 개 걸으면은 내년은 요거 세 개 걷고. 경 행 주기적으로 돌아오면은 백 멧 동이 다 걸어지는 거라.  
 @1 으응.  
 #3 십년이면 십년, 뭐 십오년이든 십오년 주기로 헤 가지고. 여기도, 여기도 그 옛날은 집을 노파가면 그 걷는 이유가 이 재목이 좋질 아녀다 보니까 새 무게허고 겨울엔 눈이, 눈이 오면은 무게에 의해 가지고 이 저 쓰러져 버린 뒤도 잇고 허니까 거, 지붕을 걸어십주게.  
 @1 예예, 알았수다.

### 3.3. 민속

@1 삼촌, 그예, 집 짓젠 허민 옛날 제들 지내낫지예. 삼촌 그게 전공이렌 골안 게. 그, 무사 집젠 허면?  
 #5 예.  
 @1 토신제 허곡 허지 안 험니까?  
 #4 예, 예.

@1 토신제 허곡. 삼춘 그거 잘헌덴 허멍 지난번에 골안게 마는, 그거 쯤 골아줍서.

#5 그 집 짓젠 허면은.

@1 예.

#5 집터, 집터를 영 골라근엥에.

@1 예.

#5 골라근엥에 그 개톳제라고 헝은엥에.

@1 예, 개톳제.

#5 개톳제라고 헝은엥에 제를 지네주게.

@1 예, 그 개톳제 지내젠 허면 무시것들 필요헌고예. 제물덜은 무시거 출립니까?

#5 제물?

@1 예.

#5 아, 제물, 제물사 그 골으민 알아지카? 다.

@1 게도 골아봅서게.

#5 아게, 도량서직 그, 밥.

@1 예, 도량서직. 으.

#5 도량서직허곡, 허곡. 또 무신 저 그거 올리곡.

@1 예.

#5 또 해어.

@1 예.

#5 그, 옛날엔 노리고기 헛는디 지금은 소고기 대충은 소고기 올리곡.

@1 예.

#5 또 과일도 오과.

@1 아, 옛날도 오과해낫수과?

#5 어, 옛날부터 이걸 오과, 오과가 들어낫수다.

@1 예.

#5 그러고 또 그, 미나리, 미나리.

@1 예.

#5 미나리채소.

@1 응.

#5 또 무.

@1 늠뻬?

#5 늠뻬채소.

@1 응.

#5 경 허곡 또.

@1 고사리?  
 #5 아니, 그런 거.  
 @1 미나리허곡 무밖에 엇어, 두 가지 채소는?  
 #5 으으.  
 @1 으  
 #5 또 폐백. 폐백.  
 @1 예, 폐백.  
 #5 그리고 그리고 그거뿐.  
 #3 생독은 안 헉니까?  
 #5 으응?  
 #3 생독!  
 @1 독, 독.  
 #3 독.  
 #5 생독, 생독.  
 @1 희생은 뭘로 헤?  
 #5 그건. 게메 생독.  
 @1 아, 생독도 올려예?  
 #5 거 저 잡앙, 잡앙.  
 @1 잡앙, 잡아갓고.  
 #5 잡앙은앵에.  
 @1 으.  
 #5 그 온차.  
 @1 예예, 온차로예. 익히진 안 행은앵에.  
 #5 저 원래는.  
 @1 예.  
 #5 저 돼지, 저 옛날에는 돼지머리로 썰는다.  
 @1 으.  
 #5 그 저 농가에 집집마다 독은 다 질루고.  
 @1 으.  
 #5 또 돼지는 돼지도 다 질랐지만은 돼지는 일 년에 한 번 저 잡아근앵에 무신  
 추렴을 흥나마나 옛날엔 헤나난 그건 어려워.  
 @1 으.  
 #5 독이 그 쉬운 걸로 헐에 도새기 대신 독을 썰어.  
 @1 아.  
 #5 원래는 돼지머리 썰지.  
 @1 원래는 돼지머리 쓴 거라예.

#5 으.

@1 게민 이게 이제 우리 그 제물이 되는 거라예. 그럼 하나씩. 아까 그 도량서  
직이렌 허면 그건 무신 말이우파?

#5 그건 저.

#3 쓸밥.

#5 쓸밥계.

@1 예, 예. 쓸밥허곡.

#5 쓸밥, 그다음 기장.

@1 기장.

#5 좁쌀.

#3 좁쌀.

@1 응.

#3 피.

#5 피쌀.

@1 으으, 그거를 이제 도량서직이렌 허는 거구나예.

#5 예, 예.

#3 아 거, 피 직계, 저 무슨.

@1 예.

#3 기장 서 그거 그대로, 그대로 허곡.

@1 예, 예, 맞수다. 게도 이걸 다 풀어짚 골아줘야 나중에 사름덜이 아는 거난.  
그렇게 해서 밥, 메를 네 개를 허는 거.

#5 예, 그 저, 밥도양.

@1 예.

#5 그 저, 짬니다, 찌.

@1 아.

#5 그냥 저.

#3 솟디서 허질 안 허영.

#5 솟디서 그냥 허질 안 허영.

@1 사발에 영 낳.

#3 #5 사발에 거려 낳은앵에 찌, 찌.

@1 찌예, 어. 그러면, 쓸, 기장, 조, 피. 옛날 여기 네 가지 밥을 해서 이제 올  
리고. 개토제혈 때에. 헤어는 보통 무신 고기 써마썸?

#5 헤어는 바닷, 바닷고기가.

@1 으.

#5 이게 저, 이 올리는 순서가 있어. 바닷고기 올리곡 또 저 소고기 올리곡 허  
난. 저 이 집에서 허는 딴 저, 세, 세 개.

@1 예.

#5 바릇고기 세 개, 소고기 석 점.

@1 예.

#5 경 행은에 올리는데, 또 이 포제밧디는 또 다섯, 다섯, 으 다섯 점 올리곡 또 다섯 머리 해어 올리고 저 해근에 그걸 양쪽에 올리주게. 동쪽에 올리고 서쪽에.

@1 포제밧디는.

#5 아니 여기.

@1 개토제 할 때는 전부.

#5 여기도.

@1 예.

#5 여기도 동쪽에 올리곡 서쪽에 올리곡 여길 메 가운데 올려놔 동쪽 서쪽에 올리는데 경 행은에 동쪽에는 경 세 개씩 올리지.

@1 예.

#5 동쪽에 세 개씩 올리민 서쪽엔 가민 저, 이, 멘테가 들어가.

@1 멘테에.

#5 멘테가 들어가면은 이 저, 이 뭐 고기는 소고기는 석 점 허연에 또 이 서쪽에도 올려도 여기는 멘테를 더 들어가난에 바릇고기는 요쪽에 세, 세 머리 올리곡.

@1 으.

#5 요디는 바릇고기는.

@1 네 개.

#5 아니 요쪽에는 아니 올려근에 그자 멘테만 혼 머리.

@1 아아. 멘테만 올라가예.

#5 으.

@1 보통 그 바릇고기는 어떤 종류 고기 헛수과?

#5 아, 생성.

@1 생성.

#5 생성으로 허여.

@1 생성으로만예.

#3 제주는 옥돔이 일등이고.

#5 으, 옥돔은.

@1 예.

#3 육지는 조기가 일등이여.(웃음)

@1 예예.

#5 계난 전부 생 거.



@1 생 거로만.  
#5 생 거로만.  
@1 아, 익은 고기.  
#5 으.  
@1 고기들은 다 생 거로만 올립니까?  
#5 으, 메만 찌꼭 다 생 거. 계난 계난.  
@1 아아.  
#3 원 채소도 그대로.  
@1 채소도 다 그대로예.  
#5 다, 다.  
@1 게문 삼춘, 옛날은 아까 노리궤기 썰던 헹게마는.  
#5 응, 옛날에는 노리궤기 썰났저.  
@1 아, 그 노루궤기 썰 지는 언제까지 썰신고예?  
#5 아, 계난 그 이게 아멩헤도 포획 못허게 헹 때궤지는 썰났일 거라.  
#3 아, 거 보민 옛날 그 문서에도 보민 녹포라고 헤가지고 이런 천제 지낼 때.  
@1 예.  
#3 썰고기를 안 쓰고 노루고기를 썰는데, 지금은 노루가 흔허니까.  
@1 예.  
#3 이 표선 같은 데도 꼭 그 저 노루를 올린, 노루고기를 올린다고.  
@1 아, 요즘도 경 헹니까?  
#3 요즘. 왜냐하면 쉬우니까.  
@1 음.  
#3 거 미리 얘기헹 놔두민 거 쏘아당은엥에 다 저 이장이 어디 저장헹 낫당은  
에.  
@1 게민 그 포제헹 때도 노루 썰서예. 요즘도 이쪽에서는예.  
#5 계난 우리 마을엔 지금궤지는 소고길.  
@1 쓰는다.  
#5 으.  
#3 이것도 허나의 그 준비 과정이 좀 간소화허고 쉽게.  
#5 것도 노리 잡젠 허민 거 허가 받아사, 허가 엇이 헤엇당은엥에 또.  
@1 예, 맞수다.  
#5 징역 가곡.  
#3 여기는 이 동네는 그 옛날도 노리 썰젠 허민 어디서가 그 노리고기나 그 플  
레 오느냐면 요기 지금 드리엔 헹 디.  
@1 예.  
#3 교래리.

@1 교래리.

#3 교래리에서 야튼, 요 대천동, 요 송당, 요 근방 선흘 여기 이 다 노리 사냥  
꾼덜이 아주 전문적인 사냥꾼덜이 곳자왈 헌 디는 다 있어.

@1 예 ,예, 예. 그 다음에 아까 삼춘. 과일은 오과 헛덴 헛잖아예.

#5 음.

@1 그 오과는 어떤 겨우파?

#5 그 비, 비즈.

@1 예.

#5 대추, 은행, 또 감, 저 뭐 안 골아져시니? 밤, 밤.

@1 밤.

#5 응.

@1 거난 뭐 사과니 귤이니 이런 게 아니고?

#5 그거 아니, 아니.

@1 그건 아니고예.

#3 거 사과허고 이런 귤은 근래에 와가지고.(웃음)

#5 사제에 자기네 집이 제사할 때 그런 건 올리는 거고.

@1 예.

#5 그 이디.

@1 개토제.

#5 천제, 개토제, 저 천제는.

@1 안허고예.

#5 사과 7튼 건 안 들어.

@1 게난 집 짓젠 해도 개토제 허는 거 아니라예. 그 자기 집 지을 때는 꼭 개  
토제를 해갖고.

#5 개토제 게난 땅을 골라 낳은엔예.

@1 예.

#5 그 개토제를 먼저 해 낳, 게난 집을 기초.

@1 허는 거예, 땅 골라난 다음에 개토제를 허는 거구나.

#3 겐디 그 자기 띠에 맞아야 그 자기 집 짓는 사름에 일름에 개토제를 허지,  
이 저 제를 허지, 게 안 허민 놈 명의 빌영.

@1 아아, 그 말도 골아줍서.

#5 으, 자기 그 운이 맞지 아녀민.

@1 음.

#5 운이 맞지 안허민 그러는 거고. 저 나가 예를 들어근엔예 집을 짓젠 허민 나  
가 올리 행은엔예 운이, 운이 안 맞아. 안 맞으면 놈의 운에, 차운이라고 해서 놈  
의 운을.

#3 빌려오는 거주계.  
#5 빌영은영에 그 개토젤 헤영. 그 옛날에는 그, 그러큼 헤나면은 그, 그 집을 내가 또 샀어.  
@1 예.  
#5 사는 식으로 옛날에는 헛어. 놈의 운에 빌어.  
@1 아, 차운이라 버리니까.  
#5 으, 놈의 운에 집을 짓어낳은영에 또 집을 다 짓어나민 그 자기 운이 맞는 맞는 해에 그 집을 또 문세를 해서 사, 사났어.  
@1 으음.  
#5 옛날에는.  
@1 게난 놈의 운에 헤부난, 자기 건데도.  
#5 놈의 운에, 놈의 운에 허니까, 이제 따시 내가 또 사야 내 집 돼니까.  
#3 사야 나 집 돼주, 경 아니허민 그 사름 거 돼부난.(웃음)  
@1 게문 이 동네도 그렇게 헤 갖고 집.  
#5 #3 옛날에, 옛날에.  
#5 그런 식이 다 헤났주.  
#3 올리 집을 짓엇, 아들이라도 큰아들헌티 올리 집을 짓어 줘야돼겟는데 띠가 안 맞으니까 이젠 흘 수 엇이 동네 사름이나 친척 그 이름 빌영.  
@1 예.  
#3 집, 집 짓어낳 그다음은 이제.  
#5 자기 집 가족이 운이 맞으면은 그 서로 문셀 안 해도 돼는데.  
@1 예.  
#5 남의 집 사름 빌어근영에 그 남의 운에 집을 짓으면은 자기가 또 사.  
@1 예.  
#5 사는 걸로 헨에.  
@1 문서, 문서를 꾸미는 거라예. 아, 게문 삼춘 그 아까 또 이제 그 미나리허고 그 채소, 그 무채소 헌덴 헛잡아예.  
#5 예, 예.  
@1 그건 어떤 식으로 허는 거라마씨?  
#5 그건 그자 채소 영 행은에 썰어근영에 요만, 요만큼헌 길이로 썰영 접시에 흔 접시씩 올리는 거라.  
@1 놈빠도 썰영 올려예.  
#5 놈빠도 썰영은영에.  
@1 예예. 그렇게 하고. 페백은 뭘로 험니까?  
#5 페백은 지금은 종이, 옛날에는 멍지 비단.  
@1 예.

#5 비단 멩지 헤난 것이 그제 폐백인디, 지금은 저 종이 불천지.  
 @1 예.  
 #5 불천지.  
 @1 으, 창호지 그거. 그 얇은 종이 말허는 거지예?  
 #5 으으.  
 @1 으, 으.  
 #3 창호지허곡 불천지는 틀려.  
 @1 예, 예, 예.  
 #5 불 테와 부는 거난 알룬 거.  
 @1 예, 그거는 폐백은 어느 정도 올립니까?  
 #5 아, 그거 저 그자 그냥.  
 @1 헛 권.  
 #5 헛 권이민 그자 요새 열장 들어가는 거난.  
 @1 예.  
 #5 헛 권. 그자 헛 권.  
 @1 아, 헛 권 올리고예. 옛날 멩지로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올려난?  
 #5 아, 게난 그 비단을 허연에 열만큼 올려난 거 지금 건 자세히는 모르겠는디.  
 #3 그, 영 보민은 할망덜이 이런 곳을 허나 무시겘 허게 되민 거 영 필차 올려.  
 필차.  
 @1 필차예. 예, 게영 헛 빌 이렇게 올리는 거구나.  
 #3 으.  
 @1 예. 그다음에 그 멩지 헛 빌이 열만큼인지 알아지쿠과?  
 #3 그거 멧 잔 줄.  
 #5 그거 멧 잔지는 잘 모르겠는데.  
 @1 멧 자.  
 #3 이디 할망덜이나 나왓이믄.  
 @1 어, 뭐 옛날은 스무 자 이렇게 멩지 같은 건.  
 #3 예.  
 @1 경 곧긴 헛디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생독은 헛 마리.  
 #5 음?  
 @1 독. 헛 마리.  
 #5 아 독, 하나. 생독은 헛 마리.  
 @1 헛 마리에. 게난 이 독은 뉘지머리 대신에.  
 #5 으, 으.  
 @1 요즘 올리는 거라예. 그다음 멘테 올리는 이유는 뭐우과?  
 #5 건 멘테는 원 보통 그 제에, 큰제에 보면은 아무디서고 육지서든 어디서든

꼭 올리더라고.

@1 예.

#5 건 아멩해도 그게 멘테가 아멩해도 그 신이 아멩해도 그걸 좋아하는 모양이라.

#3 아니, 거 맑은 고기로 헝은앵에 올리는 거주게.

@1 맑은 고기로.

#3 꺾기로 허영은앵에.

@1 이 멘테는.

#3 이런.

@1 이런 물론 걸로 허는 거 아니라예?

#3 고기도 바당에 이시명도 사람 죽은 것도 뜯어먹는 고기 7튼 고기가 있고 이런 이런 명테 7튼 거는 이런 우리나라 근방에서보단 저 북쪽으로 강은앵에 좀 추운 지방에서 많이 나니까 저 좀 깨끗한 고기로 헤가지고 옛날부터 저 뒤편에 보면은.

@1 예, 그믐에 그 종이 하나만 줘\*. 삼춘, 개토제혈 때 그 제물 올리는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라예. 거기 제단 이시믐예.

#5 으, 으.

@1 그 어디 어디 올리는 거 헤지쿠과?

#5 나 이 손이.

@1 예.

#5 손이 무시거 헤노난 글을 지금 즐바로 못.

@1 예. 어디 어디 현 거만 곱아줘 봅서.

#5 아, 요런 건 그냥 요디.

@1 여긴 뭐?

#3 이걸랑 동쪽으로 생각허곡 오른쪽은 야튼.

#5 아니 아니, 요기도 사발.

@1 여기도, 예.

#5 여기도 동그레미 그려.

@1 여기도 그리고.

#5 동그레미.

@1 예.

#5 여영.

@1 여기도 그리고.

#5 경 그려 낳은앵에. 요기서부터 요기.

@1 여기가 동쪽이라예, 삼춘예.

#5 으, 으.

@1 예.  
#5 계은 요디부터이, 요기, 요기서 소금, 소금 향념, 소금.  
@1 소금.  
#5 그디 요 우이, 바룻고기.  
@1 바룻궤기.  
#5 바룻고기 세 개.  
@1 예.  
#5 요디는 그 저 뭐 소고기를.  
@1 예, 소고기.  
#5 소고기, 으.  
@1 예.  
#5 요기는 오과.  
@1 오과, 예.  
#5 거 이쪽에.  
@1 예.  
#5 또 요쪽에 허민 또 이 소고기.  
@1 소고기.  
#5 요 요기는, 요쪽에 멘테.  
@1 멘테.  
#5 또 요디는 미나리.  
@1 미나리.  
#5 요기 요기는 무.  
@1 무, 무채예.  
#5 요 흥가운딘 페백.  
@1 여기가 페백, 예.  
#5 응.  
@1 예.  
#3 잔은.  
#5 또 요디 닭.  
@1 요기는 독.  
#3 잔은 몇 개 겁니까?  
#5 잔 흥은앵에 요디 하나, 둘.  
@1 예.  
#5 세 개.  
@1 잔은 세 개 거는 거예?  
#5 응.

@1 예.  
#5 여긴 초.  
@1 어디?  
#3 썰 앞이.  
@1 여기 향료, 초.  
#5 여기도 초, 촛불.  
@1 초 두 개, 예.  
#5 요리 요디 향.  
@1 향.  
#5 향허고 그 향돌 그자.  
@1 예, 향돌예.  
#5 으.  
@1 향돌 놓고예.  
#5 경. 경만 행은엥에 벌려근엥에 영 벌려근엥에.  
@1 예.  
#5 제 지내는다.  
@1 예.  
#5 그 옛날에는 아으 이거. 지금, 지금도 저 이 우리 그, 이 포제 땀 지금은 저 세 번 고허는다 축을 고허는다.  
@1 예.  
#5 여기도 여기서도 처음에 개토제 하는다 세 번을 고허야뉘.  
@1 아, 축을 세 번 고헤예.  
#5 예.  
@1 예.  
#5 요 잔, 잔을 흥 번 올려근엥에 축, 축 고허곡.  
@1 예.  
#5 그거 또 두 번차 올령 또 축을 익고.  
@1 예.  
#5 세 번차 올령은엥에 축 익곡 허영은엥에 세 번, 개토제 허는 딴 슝 슝 십육, 열여섯 번 절을 해야 뉘어.  
@1 열여섯 번을, 예.  
#5 으, 게난 흥 번 절허는다 이 천제엔 네 번을 절을 해야 뉘어.  
@1 음.  
#5 네 번.  
@1 네 번을 예.  
#5 응.

@1 계문 이 잔 흰 디 술은 어떤 술을 올려마씨?  
 #5 아 계난 저 예를 들었은에 집의서 만들양은엿에 감주, 감주라고 해근엿에 만  
 들곡.  
 @1 예.  
 #5 또 청주.  
 @1 청주.  
 #5 소주.  
 @1 예.  
 #5 그거 경 해근엿에 쳇잔에 감주.  
 @1 예.  
 #5 두 번차 청주.  
 @1 예.  
 #5 세 번찬 소주.  
 @1 예.  
 #5 그러크름 올려근엿에 그 흰 잔 올려근엿에 또 그 축을 고히어나근엿에 또  
 배허고.  
 @1 예.  
 #5 그러크름 허당 보면은.  
 @1 열여섯 번.  
 #5 결국은 열여섯 번을.  
 #3 그 왜 열여섯 번이나면은 쥬 처음 네 번 빼니까.  
 @1 예.  
 #3 이 잔을 드리기 전에예.  
 @1 예.  
 #3 기본 네 번.  
 @1 기본 네 번.  
 #3 게 기본 네 번을 해알 거난.  
 @1 으, 그래서 이제 하는 거, 계난 이 잔은 왼쪽부터 드리는구나예.  
 #5 아.  
 @1 왼쪽 잔부터.  
 #5 자기 이쪽, 옛날은 오른쪽.  
 @1 왼쪽으로 이렇게 하고, 삼춘 여기 지금.  
 #5 이건 쓸밥이고.  
 @1 이건 쓸밥.  
 #5 도, 량, 기장.  
 @1 여기는, 량이 뭐우파?



#5 도, 기장, 기장.  
 #3 기장.  
 @1 기장.  
 #3 아, 이거 도량이 거 미시겨주게.  
 #5 여기는 저 조 서.  
 @1 조, 예 조.  
 #3 서숙.  
 #5 여기는 피.  
 #3 피 직.  
 @1 요기는 피. 예 게난 이제 쓸 쌀밥, 기장밥.  
 #5 으.  
 @1 조팝, 피밥 이렇게 헛어예.  
 #5 으.  
 @1 아, 이게 우리 개톳제나 그 포제나 똑같아예.  
 #3 아 포제는 좀 틀려마씨.  
 @1 아, 포제는 또 뜯습니까?  
 #5 포제는 이 좀 이.  
 @1 꺾기 숫자가 다른 거고.  
 #5 숫자, 숫자 머리가.  
 @1 네 개.  
 #5 머리만 다섯 개.  
 #3 아이 올리는 것도 이 저 이런 채소도 뭐 근저 고사리도 올리곡.  
 @1 아, 거기는.  
 #3 청저도 올리곡.  
 @1 으.  
 #3 소금도 올리곡.  
 @1 그난 여기도 소금 올림신게예.  
 #3 으.  
 @1 이거 찍어먹으라고 딱 소금도 이제 올려주곡 하는구나. 예, 알았수다. 요거  
 는 이제 개톳제 이제 하는 거고. 그 축은 어떤 식으로 고헤마씨? 축.  
 #5 축.  
 @1 삼춘 축고 허는 거?  
 #5 축은 그 집 짓는 사름 운에.  
 @1 예, 운에.  
 #5 운에 허민 그 사름, 그 사름 이름으로.  
 @1 그 사람 이름으로 행은에. 유세차 뭐 오늘 모일 모시 뭐 이렇게 허멍 허는

거우파?

#5 계난 토지지신이엔 행은앵에 금일 계민 나, 나 운이민 나 이름을 행은앵에 불러들이멍 그 축을 고허는 거주.

@1 응.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예, 개토테를 잘 지내야 그 집이 이제.

#5 자기가 뉘는 거주, 자기가 거 사는 거난에게.

@1 예.

#5 자기집.

#3 계난 그 개토테 지내는 사름은 아주 그 집주인도 집주인이주마는 명심해야 뉘.

@1 예.

#3 이런 부정도 허지 말곡. 저 계난 옛날도 이 다 나이 드신 분덜 빌영 허는 게 다.

@1 계난 삼춘, 이 동네 집 짓을 때 개토테 하영 헛디가?

#5 개토테 뭐 이디 저디 그 저 하영 헛저.

@1 하영 헛저. 하하하. 계문 그 저기 개토테 해주면 이런 대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헤마씨?

#3 요즘은 뭐 다 현찰이고.

@1 예, 옛날은?

#3 옛날은 이 저 뭐 이 삼춘이 알다시피 썰, 썰로 많이 허지 아녜수과양?

#5 뉘?

@1 개토테 흔 번 들어주면.

#3 품, 품.

@1 품, 어떤 식으로 받았수과?

#5 옛날, 옛날에는 품을 안 받안에 저 그 기자 해주고.

@1 예.

#5 서로 간에 유식헌 분이 개토테 쉰 허는 거난에.

@1 예.

#5 경 그거 허는 사름이 벨로 엇주게.

@1 예.

#5 거 기자 영 뉘헨 인정만으로 그냥 허어나고. 뉘, 요새엔 또 모든 게 다 돈이라노난.

@1 예, 맞수다.

#5 (웃음) 요새 계난 그 이거 헛젠 허민 그자 헛꺼번에 얼마 쉰불면은.

@1 음.

#5 알아근앵에 이게 물자 전부 사당근앵에 그자 멧겨근에 허는 거주.

@1 예.

#5 메껴 버령. 경혜사 자기 집에 부정해도 관계가 없고. 계난 멧겨버리민 이 제관이 알양 허는 거난, 예, 주인이 강 보나마나 민영근영에 멧겨근영에 허는 거. 주인이 계난 집엿 사름이 뭐 부정허곡 무시거 이런 딴 다니질 아녀주게.

@1 예예.

#5 어디 영장밧디도 가온 사름이나 자기 몸이 뭐 곳인 거 보나 허민 저 이런 제지냄도 취급을 안 허여. 어디 저, 계난 이런 거 지내 난 건 집에 안 가정 와.

@1 예예.

#5 이 드르에서 소비허기 때문에 그 주인이라도 부정헌 땀 그 장소엘 안 강 어디 뭐 헌 디 강 예를 들어근에 영 앗앗당근영에 제 다 지내난 거 닻으면은 가근영에 이제 그걸 행은영에.

#3 이거 산소 쓸 때.

@1 예.

#5 드르에서 이걸 헤영은영에 저 숲양은영에 음복을 허여.

@1 예.

#5 경 허여근에 허민 이 독 7픈 거나 무시거 허영 가면은 아, 혼자 그걸 먹지 못헐 거난에 어디 저 동네 사름 친헌 사름 7라도.

@1 예.

#5 오렌 허영 먹곡 아, 옛날엔 막 이것도 귀허난 먹으레 오렌 허민 땡겼어.

@1 예예, 맞수다. 계난 집에서 썬난 거는 어떻힙니까? 그거는 이제 산소헌덴허민 집에서 개툏제 해난 이 제물들은.

#5 아 집에 건, 집에서 해난 건 먹어.

#3 그디, 그디서.

@1 그디서 이제 해서.

#5 그디서.

@1 왜냐하면 이게 다 썬 거니까 계문 그디서 이거 다 굽고.

#3 계난.

@1 제 지내나면.

#3 그 제를 다 지내나면은 이젠 이딴 부정헌 사름도 왕은에 먹어도 뉘고 그자 그디서 숲은민. 이제 제는 다 썬난 거니까.

@1 그런 식으로 하고예. 그 삼춘, 이 동네에 그 뭐 정월에나 뭐나 올레코시같은 거 허지 안힙니까? 가신.

#5 으.

@1 여기는 어떤 식으로 힙니까? 이 동넨. 집집마다, 올레코시.

#5 계난 옛날에는 집집마다 해낫주마는 뭐 헌디 그 심방 빌어당은영에 심방 빌어다근영에 올레코시는 다 허주.

#3 근데 여기 올레코시는 지금 우리도 지금 우리 집이는 지금도 허는디 그, 이

저 주쟁이가 있어.

@1 예.

#3 베끗디 밧칠성이엔 허여근엥에 근디 그 이제는 심방덜토 돈을 하영 드렌협디다.

@1 으응.

#3 허여근엥에 허면은 이제 날 뵙. 본래 옛날은 이 포제 허기 전에는 이 자기네 집이 개인적으로 그런 올레코시도 못허게 헤나신디 요즘덜은.

@1 으.

#3 그냥 그런 거를 가리지를 안헤. 옛날은 우선 마을 이런 그 저.

@1 큰제부터 행예.

#3 예, 마을 그 제, 제를 우선 헛는다, 그 옛날은 이 저 무을제 지내기 전에 그런 거 헛당은엥에 저 멍석에 밑앙은엥에 매맞곡 헛젠 허는다.

@1 으.

#3 지금은 거 심방 빌어당 허민은 이런 저 그 베끗칠성만 허는 게 아니고 이제 조왕으로부터 시작허여근엥에 뭐 쉼왕도 가곡 행은엥에 다 그 식구가 만약 열 사름이든 아이덜 그 운도 봐주곡. 굿이민은 액도 막아주곡. 경행은에 그 놀을 새로 주쟁이 차근엥에 굴면은 그제 끝.

@1 음, 계난 보통 그 올레코시헛 때 새벽에 헛니까, 언제 헛니까?

#3 아니 그 계난 시간이.

@1 예.

#3 낮이 뵙는 수도 잇곡.

@1 아.

#3 이 새벽에 뵙는 수도 잇곡, 뭐 밤 흥 두시 뵙영도 뵙는 그, 이 강 날 보면은.

@1 예.

#3 이제 몇 시에 지내렌 이제 그 허난.

#5 날 보는 건 황, 황도시가 잇고 흑도시가 잇지 안허여.

@1 예.

#5 그러면 황도시. 자기 운에 황도시를 맞추아근엥에 그 날을 보는 거주게.

@1 흑도시는 뭐우꽈?

#5 흑도시는 쓰지 못허는 거.

@1 으응. 황도시는 쓸 수 있는 날.

#5 쓸 수 있는 거.

@1 예. 그렇게 이제 그 올레코시는 보통 어느 철에 헤마씨?

#3 정월에.

@1 정월에.

#3 정월에, 정이월에, 정월에 허다가 이월 뒤편은 이 영등이 들어와 붙어.  
 @1 예.  
 #3 영등 들어오민은 이제 영등이 이제 나가 붙어야 혼 삼월 나야 또 스월 낭은  
 에.  
 @1 아아, 건 집안에 따라서 이제 다르는 거구나예.  
 #3 아 그, 옛날은 영등 들어오민은 올레코실 안헛는디 요즘은 영등할망 나시 밥  
 혼 사발 더 거려 놓민 헌덴 행은앵에 영등들에도 허여.  
 @1 아, 게난 것도.(웃음)  
 #3 거 심방덜 자기네.  
 @1 멋대로.  
 #3 아, 이거 일 년 시즌이.  
 @2 (웃음)  
 #3 완전 그 성수기라놓니까.(웃음)  
 @1 게난 옛날에는 다 지켰는데, 예. 이제, 혹시 여기 이제 집 인 다음에 성주들  
 도 내립니까?  
 #3 집 짓어낭.  
 @1 예.  
 #3 겐디 요즘은 이, 그런 게 없었는데 혼, 혼 이십 년 전만 해도 집 짓으면 심  
 방 빌은앵에 성주 느렸는 디가 많아나신디.  
 @1 응, 삼촌네도 성주해난?  
 #3 아이고, 저 허고말고. 우리 저 옛날부터 거 저 우리 할머니가 곳을 좋아해가  
 지고 그 옛날부터 이 저 큰 곳 허민 큰 밧 사곡 족은 곳 허민 족은 밧 산덴 허영.  
 @2 (웃음)  
 #3 아이 우리 할머니넨 그추룩허멍 재산을 하영 불라났어.  
 @1 아아.  
 #3 아덜덜 여라이난 다 갈라주곡 헛주마는.  
 @1 그 성주 느려난 거 굴아줍서.  
 #3 아, 성주게 그 심방덜 허면은 집 짓는 걸 다 처음부터 허는 거라. 달귀부터  
 징영.  
 @1 음.  
 #3 그다음 이 저 한라산에 강 그 무시거 지등 뭐 저 지등 무시거 베어오자, 므  
 루 베어오자, 미신 포 베어오자, 서리 비어오자 허멍, 그거 다 헤영은앵에 집 처음  
 부터 그 기초부터 시작행은에 그 저 이 세우는 걸 전부 그 심방덜이 거 노래로 여  
 끄멍.  
 @1 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집 지어서 하는 거.  
 #3 예.

@1 그 다음 문전도 험니까? 여기.

#3 문전예.

@1 문전제 제사, 식계나 이럴 때.

#3 허는 집도 잇곡 아니 허는 집도 잇는다. 우리 성읍리는 문전 허는 디가 많아, 영 보민.

@1 음, 문전은 뭐 누구 나시 허는 겨우파? 문전은.

#5 문, 문전은 그 집 그 집계, 주인.

#3 아이 그 나 일본 간에 우리 형님이, 그 우리 형님 그 족은메누리가 그 어디 한국 그 저 뭐를 그걸 연구허는 걸 영 옆에서 영 보니까. 이 문전은양 잡귀신 나시엔 허명 험디다. 이녁귀신이 아니고 잡구신덜 미리 먹영.

@1 으.

#3 다 가렌.

@1 어, 거는 일본에서 허는 거고. 삼춘은 문전이 뭐렌 헛수과? 옛날 문전제 꼭 허잖아예?

#5 응, 제사 땐 문전 허여.

@1 게난 그 문전은 누게 나시 허는 겨우파?

#5 누게 나신 누게 나신 뭐.

#3 잡귀신 나시주.

#5 ㄱ 뜬 말이주 그것사.

@1 어.

#3 아니 그 우리 한국 그 저 뭐를 자료 채취해온 걸 보니까 이거 어디서 헤져니 허니까 너 한국말도 잘 몰르는디 어뎡 이걸 헤져니 허니까, 그 어디 교수덜을 만나가지고.

@1 으, 헛덴예.

#3 제주도 와가지고도 그 많이.

@1 그 우리 문전제 허든 아까 조왕에 허든 이 제물들도 다 뜨나지 안헤마씨?

#5 뭐 허는디 제물이 뜨나?

@1 문전제 지내는 이런.

#5 아, 그 제사, 제사 때 그 차린.

#3 차린 거 궤기 허나.

#5 차린 거 허영은영에.

#3 거 또 놓고.

@1 다 똑같이.

#3 적 놓고 다 행은영에, 베크칠성에는 뉘지고길 안 가정 가.

@1 아아. 베크되는예.

#3 게난 뉘지고기 잡이서 적을 다 해도.

@1 예.  
 #3 다른 건 다 놔도 그.  
 @1 밧칠성안티는.  
 #3 밧칠성에는 뉼지고길 안 놔.  
 @1 아, 안칠성에는 놓니까?  
 #3 예예.  
 @1 안네 놓는 거에는 뉼지고기 놔도.  
 #3 예, 밧칠성에는 안 놔.  
 @1 밧칠성에는 안하고. 예전에 안네 놔난 거는 놔신디 안준덴 험디다. 음식도.  
 #3 계난 그 이녁네 애기들 주나, 이견 느네 먹으렌 허영은에 아이덜한티 주나 허주.  
 @1 예, 그견 밖으로 안 내친덴예.  
 #3 예.  
 @1 안칠성은. 그다음 조왕은 어떻험니까? 조왕안티는.  
 #3 아 거 조왕도 마찬가지로우다. 저 그 저 험 상 출령은앵에 조왕에 강 나중에 저 미시거 허면은 미리 다 이 저 잡식허영은앵에 그레 잔 올리곡 허여근앵에.  
 @1 계난 올리는 견 조왕이나 다 마찬가지로구나예.  
 #3 예.  
 @1 계난 다시 돌아가서 삼춘, 그 안칠성, 밧칠성.  
 #3 예.  
 @1 거기는 그 제를 멧 번 헤마씨? 식게 때만 허는 겨우파. 아니민 또 별도로 또 허는 것도 잇수과?  
 #3 아, 계난 그 칠성 그 올레코시는 일 년에 딱 그견 험 번 그거 올영은앵에 허는다.  
 @1 예.  
 #3 다른 거는 제사 때마다 헤여근앵에 강 그 올려.  
 @1 아, 제사 때도 항상 올리는 거라예.  
 #3 예.  
 @1 칠성.  
 #3 멩질, 멩질 때도 올리곡.  
 @1 멩질 때도 올리고예.  
 @2 칠성도 제사 때 항상 올려수과?  
 #3 예.  
 @2 아.  
 #3 계난 미리 제 지내기 전이 그 칠성 7튼 디 그 안에 다 들렁 나강.  
 @1 그럼 조상제 하기 전에.

#3 예.

@2 하는 게 문전, 조왕, 안철성, 박철성 이거 다허는 거마썸?

#3 어, 그저 문전해나민 그자 칠성더레 가근엔에.

@1 계난 문전해나민 안철성부터 먼저 험니까, 박철성부터 먼저 험니까?

#3 이 저 벳, 바깓디부터 먼저 허주게.

@1 아, 바깓디부터 먼저. 문전헌 다음 바깓디 들어왕 조왕에 들어오고.

#3 아, 계난 문전은 그 우리 보통 마루 그.

@1 앞에.

#3 앞에서 허니까 헤여낭은엔에 그 상을 그대로 들러다가.

@1 조왕허잡아예.

#3 조왕에 출린 것에 헤영 ㄱ찌허는디.

@2 아, 따로 차리는 게 아니라 그 상을 들고 가서.

#3 예.

@2 예.

#3 허곡 또 딱로 헉는 디고 잇곡.

@2 예.

#3 딱로 그자 차반지나 이런 뭐에 허영 저 찻판에 올리는데.

@2 이 성읍에서는.

#3 예예, 영 허는 디도 잇는디. 이 날이 좋으믄 허는디 비가 오민은 말이여 바깓디칠성은 그 비가 아멩 크게 와도 헤난 거라부난 아니 허지도 못허곡 아이덜 시키민 막 짜증내곡.(웃음)

@1 계난 밖에, 안철성이나 박철성안티는 음식을 올리지 안험니까?

#3 예.

@1 조왕에는 문전 거 올려도.

#3 예.

@1 예.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라예, 예.

#3 거 이제는 고팡덜이 거의 엇지 안 험니까? 계난 기자 거 옛날 안철성 헤난 거 요즘 그 싱크대 우이.

@1 음.

#3 거 올령은엔에 그자 잡식허고.

@1 예. 싱크대에 그냥 올려근에 허는 거고예. 예, 알아수다. 영허면 우리가 하  
고.



### 3.4. 연장

@1 집 짓는 연장 ㄱ튼 거는 누게가 잘 알건고? 연장.

#3 연장이엔 헌 건 옛날도 이 뭐 이 삼촌네나 우리 무시거 다 알주마는 옛날은 귀자귀, 켈 일등이 귀자귀라. 아, 이 저, 저.

@1 집 짓는 연장이 뭐가 필요헤마썸, 삼촌.

#5 무시거 허젠 허민?

@1 집 짓젠 허면 필요한 연장덜?

#5 연, 연장 아, 연장 무신거 저 나물 비젠 허민 톱이 필요헐 거고.

@1 예.

#5 도끼, 옛날에, 옛날에는 낭을 헤단에 저 귀, 그 귀자귀라고 해서 옆자귀, 옆으로 행은에 영.

@1 예.

#5 돈 가간에 집을 짓엇주게.

@1 예.

#3 귀자귀엔 헌 건 영 넘고.

#5 넘작헌 거 허영은에 옆자귀.

#3 영 넘작허게 자루 영 달령은앵에, 그문은 이 마루를 놓젠 허면은.

@1 예.

#3 그걸로 다 깎어.

@1 음.

#3 그 틈에 세주멍. 올로 영 허게시리 찍어 놔낱은앵에.

@1 예.

#3 나무를 박아가멍 또 일로 딱 ㄱ튼 딜로 행은에 때리민은.

@1 예.

#3 그 나무덜이 짹짹 나가니까.

@1 이렇게 생긴 거 아니라예. 여기 하나 영.

#3 예.

@1 귀자귀 헤갓고 이렇게 서서 하는 거예.

#3 예, 그거.

@1 귀, 귀자귀. 그다음에.

#5 귀자귀목시라고 해서 건 아무나 못 헤여. 서툰 서툰 목시는 그 귀자귀질 못 행 옛날에도.

#3 발꼬락 그차불고.

#5 성읍리도 이 안OO. 그 어른이 귀자귀목시로 행은앵에 품도 많이 받곡 헤낱젠 헤여.

@1 음.  
#5 낭 가끄는 일은.  
@1 낭 가끄는 일에는.  
#5 으.  
@1 계난 집을 다 하는 건 귀자귀로 낭은 다 가끄는 거구나예?  
#5 으, 돈 가깃주.  
#3 계고 이 저 톱도.  
@1 예.  
#3 그 이런 저 빈지 7튼 거 들이젠 허민 대형 톱 양쪽에 서가지고.  
@1 예.  
#3 우리 저 무신 영화나 무시것에 보민 흥부놀부전에 보민 거 박 키는 식으로.  
@1 예.  
#3 양쪽에서 헤가지고 이 큰 목시덜은 그걸 가지고.  
@1 예.  
#3 그거는 옆으로도 이렇게 허지만은 이렇게.  
@1 이렇게,  
#3 놀 돌리면은.  
@1 예.  
#3 이렇게도 저 싸지곡 이렇게도 싸지곡 허는 거를 그거 거도.  
@1 그 톱 이름이 뭐마씨? 그 양쪽으로 영 영 허는 톱 이름 뭐우짜?  
#5 그건 대톱이주, 대톱.  
@1 대톱예, 대톱. 그다음 거도는 뭐할 때 씩니까?  
#5 거도는 족은 거.  
#3 나무 베러갈 때.  
@1 예.  
#3 나무 베러갈 때, 강 건 벌목할 때.  
@1 벌목할 때 이렇게 쓰는 게 거도에.  
#3 건 지금도 이런 저 옛날 모양으로 그 대장간에서 베리진 안해도 그대로 이젠 좀 크게 헤영 나오는 건 잇긴 잇인디 옛날 모양으로 대장간에서 베리는 그런 거는 이젠 없고.  
@1 그 거도, 이렇게 된 톱도 이십디다. 이렇게 헤근예.  
#3 계메 그추룩헌 거.  
@1 거도가 이런 거 아니라예? 그다음에 이 이 요즘은 요런 톱 나오지 안합니까? 이렇게.  
#3 예.  
@1 이런 톱은 뭐렌 합니까?

#5 것도 다 거도.  
 @1 이것도 다 거도렌 헤예. 작은 건 거도렌 허는구나, 예. 그다음에 톱은 두 가지?  
 #5 톱은 그거 대톱해서, 남 오리는 거게. 두 사름이 해서 오리는 거.  
 @1 예.  
 #5 큰남덜 오리쟁 허민.  
 #3 옛날은 이런 쪽마루니까 쪽마를 허나 빈질 허나 허젠 허민 이 톱이 필히 있고 그 자귀는 이 귀자귀가 있어야.  
 @1 귀자귀가 있어야예.  
 #3 이서야 마릴 놔근엥에 거 다 저 저걸로 까깃다니까.  
 @1 으.  
 #3 대패로는 못 까끄니까.  
 @1 예 예. 귀자귀 필요하고 대톱이 이제 크게 허는 거라예?  
 #3 대패.  
 @1 대패. 대패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꽈?  
 #3 아, 대패는 막 여러 가지주만은. 이런 귀클힐 때 허는 저 그것도 있고.  
 @1 귀클허는 저 대패는 무신 대패렌 곶아?  
 #3 건 이름 저 흠베기 파는 것도 잇곡 행은엥에 허는디, 거 봐남은 헤도 이름은.(웃음)  
 @1 개탕대패여, 무신. 그런 거는 모르고 그건 목수가 아는 거고예.  
 #5 목수가 다 알주 우린.(웃음)  
 @1 그다음에 그 못 뽑젠 허면은, 못도 뽑아야 할 거 아니우꽈? 그건 무신거라?  
 #3 못 박는 건 요새 거 신식 그 일본놈덜 들어완에 췌 좀 다름 시작허니까 못을 박고.  
 @1 예.  
 #3 옛날은 집을 헤도 다 이런 요렇게 지등도헤가지고 귀물림 헤가지고 못을 안 췌주게.  
 @1 예 귀물림헤갓고. 예, 맞수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자는 어떤 자 췌수과? 옛날 집 짓젠 허면.  
 #5 자?  
 @1 예.  
 #3 옷자 쓰지 안헛수과? 옛날 목시들 그자 옷자.  
 @1 그냥 옷, 옷 그 우리 조선자로 췌수과?  
 #3 으 멧 치 멧 푼 허멍 막 그냥.  
 @1 옛날 그 저기 곱자는 안 췌? 곱은자.  
 #5 곱은자?

@1 예.  
#5 곱은자도 옛날에도 낭곶은자라고 해서 낭으로 만든 곱은자도 있어났어.  
@1 아. 그럼니까?  
#3 거 경허연 발달뒤언 스텡으로 나온 거 그건.  
@1 예. 거난 삼춘 옛날 낭곶은자도 봐난예? 음. 그다음 낭곶은자허고 일반 자 쓰고. 그다음 먹술허고.  
#5 으.  
@1 먹통.  
#5 먹통.  
#3 먹통. 예, 그거는 옛날 하르방덜토 있어났주.  
@1 먹술허고 먹통은 뭐할 때 쓰는 거우파?  
#3 아, 이런.  
#5 영 그릇 굶는디게.  
#3 그릇 굶영 괄작허게시리 이거를 톱질이라도 괄작 허젠 허민 양쪽에서 이걸 탁 텅겨가지고.  
@1 예.  
#3 이거 줄이 나와야 그 줄 따라.  
#5 제일 그 먹통이 집 짓는 디 일차론 그게 들어야 뒤주, 먹통.  
@1 먹통, 먹줄이 제일 필요한 거라예, 예.  
#5 그거 허영근영에 딱 거 헤영은에 그릇을 놔사사 귀자귀질도 허고 오림도 허 곡 문 허는 거난.  
@1 예.  
#3 근데 지금 이, 지금은 뭐 뭐 장비가 좋으니까 이렇게 딱허게 세워놔서도 허고 이러는데 옛날은 영 돌아메영.  
@1 예.  
#3 이 저 이 직선 7쁜 거, 토라진 지둥 토라져시냐 안 토라져. 이것 7라 무시 거엔 헌다마는 팡이 7추룩 행 만들앙 저 하르방덜.  
@1 예.  
#3 그것도 다 불미황에 강 만들영은영에 그거 실 무경은영에 저 허단 이젠 수평도 나오곡 허난예.  
@1 옛날 수평보는 거 이거 물로도 헛덴 험디다.  
#3 예, 물자우레기.  
#5 물자우레기.  
@1 거 무시거렌 헤마씨?  
#5 물자우레기.  
@1 물자우레기, 물저울예. 물자우레기. 그건 수평.

#3 이건 수평.  
 @1 수평 맞추는 거예.  
 #3 으.  
 @1 으, 게난 이 물자우레기 수평 맞출 때는 무시거예 물 담양 허는 거? 사발에 아니면은?  
 #3 그 옛날.  
 #5 아니 그 소굽에 그 소굽에 그 물이.  
 @1 잇어.  
 #5 잇언에 자동으로 물 담아전에 만들안, 만들안 나온 거라.  
 @1 아, 기우짜?  
 #5 으.  
 @1 어떤 덴 사발에 물 넣은에 헌덴.  
 #3 아이 게난 그거 나오기 전에는 그추룩헛젠. 이 저 큰 것에, 큰 녀석헌 것에 물 영 넣, 들러당은에 영 넣은엔에. 게난 그 물 흥창흥창 아녀게시리 그 기다리는 거주.  
 @1 예.  
 #3 갱은엔에 영 봐은엔에 영 토라져시민 아 이거 요착이 노프다 행은에, 보통 옛날 집덜은 집 지은 거 보면은 북쪽이 높아.  
 @1 음.  
 #3 남쪽은 야트고.  
 @1 예.  
 #3 건 다, 다.  
 @1 건 이유가 뭐라마씨?  
 #3 그 여기는 그 북풍이, 이 저 그 추위가 심허니까, 이 저 바람막이도 뒹곡. 보통 남향집 많이 짓으니까 남향집덜이 다 앞이 노프니다 높아. 줄 맬 때도 보면은.  
 @1 예.  
 #3 뒤엿줄은 팡 엇이도 줄을 매고.  
 @1 예.  
 #3 앞인 팡을 놔사.  
 @1 으음. 거난 앞이 높고 뒤에가 낮은 거라예.  
 #3 경허고 그 저 옛날도 그 집 짓젠 허민 발판은 꼭 만들앗주.  
 @1 예예.  
 #3 발판허고 사다리, 낭으로.  
 @1 음, 게니까 이거, 이거 이거 높이 땀에?  
 #3 예, 높이 지붕에 올라갈 때영.

@1 예.  
#3 그 저.  
#5 산태라고.  
@1 예.  
#3 산태 그건 흑 7튼 거 물건 날릴 때 산태를 쓰고.  
#5 사름 올라갈 때도 사다리가 잊어주게. 옛날에는 사다리 잊영 산태.  
@1 예.  
#5 산태 뉘근에 그걸로 올라도 가곡 또 무슨 흑 날릴 때 흑질힐 때도 그 흑도 날르고.  
@1 계난 그 산태허젠 허면, 흑 날르젠 허면 거기에 무신 걸로 영 꿀양은에.  
#5 그.  
@1 헤얄 거 아니예?  
#5 거 줄 헤여근엔에.  
@1 예.  
#5 줄 허영은에 그걸 영 다 헤여. 줄로.  
@1 줄로 여꺼예.  
#5 으.  
@1 그건 무슨 줄로 합니까? 보통.  
#5 아, 게 집 이는 줄.  
@1 아, 집 이는 줄로 여꺼 갖고.  
#5 거 영 여까근엔에.  
#3 거 흑꿈 이 저.  
#5 77노롱허게 꼬아근엔에 여꺼.  
#3 툃툃툃 하르방덜은 대 끄차당.  
@1 아.  
#3 대 끄차당 새 영 들여근에 또 다 여피고.  
@1 산태 그렇게 행도 만들고.  
#3 그 살레, 저 살레 허영은엔에 그 사발 어프는 디.  
@1 예, 예.  
#3 그런 식으로 행은에 그 산태도 만들고.  
@1 음.  
#3 그 산태 그 부출은.  
@1 예.  
#3 그거는 아무 걸로나 헤영 뉘질 아녀, 이거 왜냐면 무거운 거 들르는 따문 잘 못 들르민 꺼꺼져부는 따문 거 막 춤낭으로.  
@1 것도 춤낭으로.

#3 예.

@1 음. 그다음에 무사 요즘이야 이제 그 저 썰멘 허젠 허민 썬손도 필요허곡 허지만 옛날에는 다 손으로 이렇게 다 헛잡아예. 경해도 낭으로 만든 낭손덜도 잇어나지 안헛수과? 이거 영 흑 불르젠 허면. 이런 천아반 같은 거 잘 허젠 허민.

#5 천아반에 불르젠 허민?

@1 예.

#5 앙토라고 그건.

@1 예.

#3 아이, 앙토 전문가를 이 저 이걸 안 쓰고 손바닥으로.

@1 손바닥으로

#3 거 저 이 저 미시걸로 밀기 시작.

@1 썬손이여 이런 흑손이여 허는 거는.

#3 그런 거는.

@1 응.

#3 거 일본 사름덜 완 이디 완 저 집 짓으멍 막 유행이 뉘고. 이런 뭐 저 이런 큰.

@1 초집이나 이런 건 다.

#3 저 뭐 요런 현청사 7튼 거 헐 때덜은 뭐 건 목시덜이 어떻 알아근앵에 다 헤신디. 여기도 우리도 저 아래 저 일허레 가근앵에 그 앙토를 거 조○○네 집도 헤봤는디, 그거 보통 거 시끄러운 게 아니더구만.(웃음)

@1 음.

#5 앙토는, 그 집을 앙토를 허젠 허민 고대를 올려야 뉘어.

@1 예.

#5 고데, 고데 올리는 거 알지이?

@1 예, 예.

#5 그걸 올리지 아녀면은 흑이 안 부뜨니까. 게난 그 흑을 헤영 안으로 헝은앵에 그걸 메꾸라시허젠 허면은 그 고델 올려사.

@1 예.

#5 흑질을 헤근앵에 담에 문 블라냥 테기영 헤난 다음에 흑이, 남은 흑은 마지 막앤.

@1 으.

#5 그걸 헤근앵에, 지봉 우의 올려근앵에 .

#3 게난 그 이 저 뭐를 허면은 이 찻을 놓면은 그게 그대로 탁 부찌민 잘 안 부뜨난 양쪽으로 영 부뜨게 허젠 허민 그 저 테기 영 허게 헤진더레.

@1 으, 으.

#3 손으로 허영 찻르고.

@1 흑 담양.

#3 으, 담양, 담양 행 부찌근엿에.

@1 예. 게난 두 개를 이렇게 잘 먹으라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하는 거구나예, 예. 요 정도 하면 이제 할 거고예. 지난번에 물어보지 못했는데, 우리 축담, 축담 이렇게 쌓으면 요 축담은 지붕까지 쪽 올라가서예. 근데 이제 조일훈 하르방네 집에 가면, 이 뒤에 가면 이 반축 해갖고.

#5 바, 반축.

@1 반축이렌 험니까 여기도?

#5 예.

@1 반축 그 위에 호미도 영 놓게 뒹고예.

#5 반축이라고 옛날에는.

@1 예.

#5 돌 하나 놓고 그다음에 흑 흰 도리 놓고.

@1 예.

#5 게서 반축을 싸낫주게.

@1 아.

#3 아 겐디 그거 그런 집을 짓는 거는.

@1 예.

#3 집을 이런 기둥을 전부 다 해가지고 다 짜놔가지고 담은.

@1 으.

#3 나중에 다명 그, 뭐 다른 집덜은 담부터 먼저 다놔은엿에 거 서리를 이 저 포도 그레 걸치곡 헛는디 그런 집은 아예 지둥부터 먼저 세왕 포 같은 거 다 그 기둥에, 기둥에 해놔가지고.

@1 아, 그것도 다르구나예. 이 성읍에서도예.

#3 아 그건, 그건 아주 치레허는 집덜 아니민은 그추룩 저 허질 못헤여.

@1 음.

#3 지둥도 좋아야 뒹곡. 우리가 이 기와집을 짓젠 허면은 이런 포 7튼 것가 아주 실패야, 멧 톤 올라갈 걸 계산해가지고 허는 식으로. 그것도 그건 이제 전부 이런 상다리 모양으로 만들어 놔.

@1 응.

#3 담을 다우당은에 흰 자나 두 자 냉경은엿에 허민 그단 테기 허영 저 흑만 불르곡.

@1 음.

#3 알더렌 담 다 올라오고.

@1 게난 여기도 우리가 돌집이렌 해갖고 일반 서민들 집은 돌부떠 다 이거 축담 다 쌓아놔은에.



#3 예.

@1 흑질을 허는 거고, 그 반축 헤영 그 조일훈네 이런 데는 미리 기둥 다 세와 난 다음에 저기 축을 현 거라예. 쟁 쟁행 돌 하나 놓곡 흑 현 도리 놓곡. 돌 현 도리, 흑 현 도리 이렇게 행은에 쌓는 거.

#3 그, 성읍리도 특이헌 그 조일훈이 그 하르방.

@1 예.

#3 하르방 그 거기는 화장실을 전부 돌로 다 더퍼어.

@1 그니까마썸.

#3 돌, 돌. 그 하르방이 짓은 집은 다 돌로 더퍼져 있다고. 지금 그 사는 집이 나 저 안OO이네 살, 살단 그 집이나, 요기 현청사 예염에나. 또 저 어디냐. 거 왜 그렇게 헛는진 몰라도 야튼 그 하르방은 저 손지덜을 주나 아덜덜 줄 때 화장실을 꼭 그 돌로 더퍼. 저.

@1 돌로 만들안예.

#3 더퍼근예, 예.

@1 것도 낮게도 아니고 막 노프게. 음.

#3 계난 거 그 지둥 하나 까끄젠 허민 꽤 그 공력이 든 거. 지붕도 그대로 담 다 가지고 그걸 엮어논 게 아니고 똥그랴게 그 까까 가지고.

@1 예.

#3 기둥 세와 가지고 걸 엮어놔어. 이 또 이 변 보는 디도.

@1 예.

#3 이렇게 다른 집인 보민 이렇게 거 긴 돌 두 개나 놓는다 거기는 보민 저 이렇게 큰 넓은 돌을 구멍 뚫러근예.

@1 예, 예. 하나에 가운데 구멍 뚫랑예. 예, 맞아. 계난 그런 돌은 무신 돌이엔 험니까?

#5 디덜팡.

@1 디덜팡. 으, 디덜팡. 계고예 삼춘, 여기 보면 돌들이 집 마당에 돌덜 하영 낚지지 안 험니까예? 집안에서.

#5 득릿돌.

@1 득릿돌 놓고.

#5 음.

@1 안에서 이제 집 밖에서 안에 들어가는 득릿돌 놓고예. 득리가 잇잖아예.

#5 음.

@1 그다음에 득릿돌 말고 그 물 떨어진 지숫물 떨어지는.

#5 이힛돌.

#3 건 이힛돌.

@1 그건 이힛돌.

#5 으.

@1 그다음에 이힛돌 말고 마리레 올라가젠 허민 또 돌을 영 두 개 올려놓든가 행은에.

#3 건 이디 할망덜 팡돌, 팡돌.(웃음) 거 올라가는 것도 팡돌이엔 허곡 물팡, 물 팡돌 잇곡.

@1 건 걸 팡돌이엔 험니까? 댓돌 헌 걸 팡돌?

#3 댓돌 예.

@1 음, 팡돌.

#3 거 그자 팡으로 그자 영 올라가기 좋게.

@1 게난 여기가 그 돌 구분허는 게 네 가지더라고예, 이 성읍이. 그다음에 지숫 물 떨어지는데 이 이힛돌 말앙 또 흑 이렇게 허면 순전 박는 거는 뭐우짜?

#3 아, 거 돌은 순전인디.

@1 예.

#3 거 그걸 못허는 사름덜은 그 순전 저 돌 기자 아멩케라도 낵.

@1 그다음.

#3 양에 싱것주게.

@1 양에 싱그고예.

#3 거 저 빗물에 흘러가지 못허게시리.

@1 예, 예. 게니까 이제 이힛돌은 집 밖으로 이렇게 논 거고. 그 우리 저 무스 거 풍체 헨 그 앞에예.

#3 예.

@1 그 처마 이렇게 하는 거. 거난 도리 잇고.

#5 드릿돌은 영 허영 사름이 블라근앵 영.

@1 들어가는 거예, 집에, 옛날. 드리, 이힛돌, 팡돌, 순전. 순전 박고.

#3 겐디 옛날은 무사 그 저 들어가는 디 그 저 돌 영 쪽허게 잘 놓느냐민 흑질을 허젠 허니까 장비가 엇이난 마당에서 팡 흑질을 헤부니까 마당에 다 물이 고여.

@1 예.

#3 그니까 비온 날 덩기젠 허니까 굿이난.

@1 드리 다 낵예.

#3 돌 다 낵.

@1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헛수다.

@2 우리가 보통 그 무똥이라고 얘기하는 디가 잇돌 잇는 데짜?

#3 예.

@1 무똥은 뭐우짜? 삼춘.

#5 무똥은.

#3 바로게.

#5 집 베꿨디 저.

#3 대문 앞이.

#5 나가는, 나가는 덜 무똥, 무똥이라고.

@1 예, 무똥에. 게문 대문 앞에도 무똥.

#3 예.

@1 방 앞에도 무똥, 정지 앞에도 무똥. 으, 문등어리.

#3 게난 그 옛날도 그 무똥에 그 저 돌덜은 보면은 우리도 그 옛날 집 영 뜬으  
명 보민 치레 헛어. 이따위 웬 것덜 그냥 그 널븐 것덜 위에 다 까강은에 밑엔 안  
까끄고. 그 그 저 헛 거 보면 첨 하르방덜이 얼마나. 거 옛날은 이 지금 겐노라고  
저 거 뭐 일본말이주마는.

@1 예.

#3 거 돌망치.

@1 메, 메.

#3 아니 메가 아니고 돌 다듬는 그 겐노가.

@1 예.

#3 그 일본 놈덜안티서 그 저 넘어온 건디, 그런 게 지금 그 뭇메라고 헤가지  
고.

@1 예.

#3 아몽케나 생긴 걸로 기자 돌 크민 그자 두드려 뭇앙 심으로 뭇앙 담 다곡  
그추룩헛주게.

@1 예.

#3 저 막 정으로 다듬곡 허질 안 허연에.

@1 음.

#3 장비가 엇이난.

@1 예. 맞수다. 예, 아까 뭇메, 뭇메는 뭇우짜?

#3 뭇메 그 저저 이 저 멘 메라도 그자 저 췌뭇치에 기자 조록 박게시리 만들  
양은에 기자.

@1 예, 그런 걸.

#3 으.

@1 뭇메렌 헤예. 어쨌든 메.

#3 메 종류주.

@1 메예. 요 정도 하면, 선생님 혹시 여쭙볼 거 잇는 거, 집과 관련.

@4 처음부터 집 짓는 거, 집 지을 때 준비하는 거, 여자들이 준비하는 거, 남자

들이 준비하는 거, 그리고 그 집 지으는 과정을 축약해 가지고 한 번만 말씀해주 시면. 집을 우리 집을 지으려고 딱 한다 했을 때, 예.

### 집 짓는 순서

@1 삼촌, 정리하면예, 집 짓젠 허면 준비허는 게 잇일 거 아니우파? 우리 전체 적으로 하긴했는데, 이걸 요약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렌 허는 거 같아예. 집 짓젠 허면 일단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뭘지, 그다음.

#3 그 우리가 보통 이 집을 짓을 때, 뭐 요즘은 경제적으로나 뭐를 허면은 그자 몇 평 허민 유리문이 몇 개, 이런 목재가 얼마, 세멘트가 얼마 허지만, 옛날은 이 집에서 일을 허다가 이제 집은 하나 마련, 마련해야 될 거니까, 그 집을 하나 짓 어 주젠 허면은 한꺼번에 마련허는 게 아니라, 재목은 재목대로, 재목을 뭐 이런 어디 요 일이 키로 가가지고 헤오는 게 아니고, 옛날은 저 지금 이 두리나 이런 손당 그 근방 손당이 아니고 저 교래리, 그 위쪽으로 그 민오름 쪽으로, 그쪽으로 강 헤오젠 허민, 이 저거는 사람으로 끌어올 수도 었고, 이 나무 같은 것도 준비 허젠 허민 이 포 같은 거는 이만큼 그 굵으면은 그걸 뒤에 고망을 풀라.

@1 으.

#3 썬 뒤에 이 저 뭐에 톡 허게 돌아매기 좋게. 썬 그걸 이제 썬에 굵은 건 하나, 경 아년 건 두 개 허면은, 만약 저 교래리서 이디 하나 끌어오면은 막걸리 한 사발에 저 돌레떡 하나 주곡 허멍 그 저 마련허는디, 그다음은 이 돌은 흔해도 다 지게로, 저 저 등짐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지어당. 뭐 여자덜은 별로 그 그런 것에 신경 안 썬은엔에 그 저 집 짓으면 흑질혈 때나, 흑질혈 때는 동네 여자덜이 다 이 저 부지로, 부조로 이 저 허벅 정 왕은에 뭐 흑을 꾸민 그 물 다 질어다 주고, 이 또 남자덜은 이런 그걸 다 꾸멍, 흑질 헤영 집 이는 거??지 다 건 이 동네서 옛날은 돈을 썬은에 허는 게 아니라 이 저 수눌음. 수눌음 놔두면은, 이제 우리 집 짓을 때 이 삼촌이 왕은에 해주민 또 이 삼촌네 자식들이나 누게네 허면은 다 가. 거 동네서 집을 짓는디 그디서 누게 안 나왔다 허면은 이거는 동네서 손가락질 받아가지고 살질 못할 정도로 그 허고. 그 새 같은 거는 미리 지금은 이 역새도 아무거나 역새를 저 막 비는데 옛날은 이 여자덜은 역새 역새를 이파리가 노랗게 이 단풍이 잘 들어가지고 헤야 썬질 안허지. 파란 그 역새 그 파란색만 잇으면은 이건 일 년도 안 가서 폭삭 삭아버립니다. 이 저 좀 처가지고. 그니까 그 역새 헤당 놀영 낫당. 그해에 허는 게 아니고, 그걸 잘 집에 잘 놀영 낫당. 이듬해에 이 집 짓젠 허면은 그걸로 이제 초불 일영. 새 7튼 거는 당년에 헤당은엔에 헤도 뉘는디, 역새만큼은 미리 비어당 놔두곡. 여자덜은 우선 이 양식을 마련허젠 헤도 여자 힘으론 마련할 수가 었이난에 그 당시도 친척들이 잘 살민 이 쓸도 닷 뉘 가져 오는 사름, 부지가 닷 뉘 가져 오는 사름도 있고, 한 말 가져오는 사름도 있고, 막 잘살민 한 말 가져오고 헤근에 그런 식으로 헤여근엔에 집이 한번에 그냥 당장

다 지엥은에 문장 다 허곡, 마리 놓곡 영 헌 집이가 보기가 힘들어마썸. 계난 이  
게 멧 년에 걸쳐가지고 올히는 이제 영 꺾데기만 만들앙 낫당, 이제 검질 꼴앙은  
에 살당 마루에도, 경 허당 이제 흐꿈 이제 쫘 이 농사 안 짓곡 이제 농한기 뉘면  
은 이제 이런 마릿널 같은 것도 허젠 허민 이런 귀클도 해야지, 이 마릿널도 해야  
지 행은에 허당은에 그걸 다 말리왕 낫당, 목시 빌엥은엥에 이제 그 요즘 모양으  
로 기계로 싹싹 험시민 흐 번에 뉘주마는, 돈딱 귀자귀질 허멍 또 그 통낭 다 이  
깨는 거, 지금 마리 뜯어 가지고 딱 뒤집어보믈은 거 훗히 볼 수가 있어마썸. 그  
추룩 헤영은에 이제 허다보니까 집을 다 헤가지고 이 아멩헤도 들어가젠 허민 멧  
년 걸려마씨.

@1 으.

#3 옛날 할아버지들도 이제 영 보면은 부억에 자는 사름도, 부억에 자고렌 허는  
사름도 하곡, 방에는 아이덜토 하곡 뭐 헤노민은, 거 방을 옛날 거 보면은 뉘뉘  
훈 두어 평 헌 디 거 식구는 여남은 헤농민 거 잘 틈이 엇일 겁주게. 경 행은에  
경허영 막 여유 있어가민 이 저 어디 정지 에엣터레 족은구들이라도 만들앙은에  
아이덜 흐꿈 갈라놓곡. 그추룩허멍 밧거레는 우선 쉼 집을 짓어도 밧거렌 쉼 그디  
쉼가 들어가살 거난에 것도 쉼왕이라.(웃음) 쉼왕, 그거 허당 보민 방도 못 만들  
곡. 우리도 이 어릴 때 할머니네 집이 일찍 가보면은 거의가 부억에 사는 거 닳  
아. 그 정지에 기자 화리 흐나 요만이헌 거 헤영 그 에엣에서 멩석 짜곡 멕 즐곡.

@2 이 집 만들 때 그 판 같은 것들은 그 마당에서 현장에서 만들엇을 거 아니  
예? 나무를 까까서.

#3 예.

@2 근데 살문들 잇잖아예?

#3 예.

@2 창호지 발르고 하는 문들. 그것도 현장에서 만듭니까?

#3 현장에서.

@2 현장에서.

#3 거 목시덜이, 목시덜이 와가지고.

@2 저 장빌 설치하고 이렇게 헤가지고.

#3 옛날도 보면은 거 쌀문 만들 때 보면은 그 다 오리면은 이걸 딱 쉼는 게. 양  
쪽으로 이. 나사식으로 헤가지고 조여가지고. 거 조이지 았으면 이게 다 휘어버리  
니까. 걸 이제 잘 말려가지고 놔뉘다가 그걸로 쌀문 헤가지고 저.

@2 아, 문 만드는데 다 따로 잇는 게 아니고?

#3 아, 거 저 다.

@2 그리고 그 새를 그 집줄을 맬 때 잇잖아예. 그 때는 순서가 잇수과? 긴줄  
잇고 짧은줄 있으면.

#3 예, 짧은 줄부터.

@2 짧은줄부터 먼저 다 걸고 난 다음에.  
 #3 아니, 아니. 짧은줄 두 개나 세 개를 매면은.  
 @2 네, 매표.  
 #3 그다음 긴줄을 이렇게 매어.  
 @2 매표.  
 #3 계문 어떻게 뒤편 이제 요기 두 개 매면 요렇게 허민 요거.  
 @2 예.  
 #3 지들라질 거 아니짜?  
 @2 예, 예.  
 #3 그다음 또 세 겹 매어. 그문은 또 이 진줄을.  
 @2 음.  
 #3 찢른줄을 세 개 매면 진줄이 눌러지민.  
 @2 두 개씩 이렇게 엇갈려 가면서 하는 거구나예.  
 #3 예, 엇갈려. 거니까 저거 보민, 지봉 이렇게, 게 나중에는 저.  
 @2 저 저 집은 그렇게 안 뒤편 있는 거 같은디.  
 #3 아 저 지금 요렇게 뒤편 데까지는.  
 @2 예.  
 #3 요까지는 다 뒤편.  
 @2 예예.  
 #3 그다음 그 양쪽 요기는 찢른줄부터, 아 저 저 긴줄 전부 매놔가지고, 진줄은 저거는 지들르는 거라.  
 @2 아 아. 긴줄이 지들르는 거마썸 나중예?  
 #3 아니, 아니 짧은줄로.  
 @2 짧은줄로 긴줄 으, 예.  
 #3 그렇지 않으면 줄이 좀 오래 있다 보면은.  
 @2 예.  
 #3 태풍 불 때 보민, 왓다갓다 허다 보민.  
 @2 예, 예.  
 #3 그차져 버린다고.  
 @2 그러면 반대로 중간에 줄을 갈려고 하면.  
 #3 예.  
 @2 줄을 당겨서 뽑은 다음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넣어야갓다예.  
 #3 예. 이 맨 식으로.  
 @2 예.  
 #3 그러지 안허고 옆에까지 저 찢라져 불엇덴 헤영 그대로 매면 줄이 이레착 저레착해 가지고 바람에.

@1 완전 바둑판 모양으로.  
#3 예.  
@1 어쨌든 양쪽 곳텅이부터 이렇게.  
#3 예.  
@1 하는 거네예?  
#3 요디 두 개 매민 또 요디 두 개 매고.  
@1 으.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고.  
#3 요디 두 개 매민 또 저쪽으로 두 개 매고.  
@1 맨 마지막에는 가운데로.  
#3 가운데는 이제 짧은 줄로 헤가지고 요 무루.  
@2 아, 가운데는.  
#3 딱 허여근에.  
@1 이 마루 이 요 무루는 이는 것도 잘해야 되고, 줄도 잘 매야 되고, 또.  
@2 줄 매는 것도 그 새를 다 더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줄을 한꺼번에 매는 거지예?  
#3 아니. 밑에서부터 이렇게 집을 이렇게 가에로부터.  
@2 가에로부터 올리면.  
#3 이렇게 허면은. 이 먼저.  
@2 먼저 매고.  
#3 깔아 놓 디부터.  
@2 아, 그러면.  
#3 왜냐면 바람이라도 불면은 이 저 다 흩어져버리니까.  
@2 아 새를 덮는 거랑 줄 매는 게 같이.  
#3 예.  
@2 진행이 되는구나예.  
@1 계난 어쨌든 집을 다 일어논 다음에 줄은 매는 거 아니라마썸?  
#3 아니, 아니.  
@2 그게 아니고.  
@1 아, 그게 아니고.  
@2 그게 아니라고.  
@1 음.  
#3 한바퀴 돌아가면은, 돌아가면은.  
#5 줄 맬 만큼 뒤편 사람이 그 왔다갔다 헤볼면은.  
@1 음.  
#5 이런 여깃 말로 까진다고 해서 발 놓으면 물싹물싹 들어가불민 거 집을 저 펜펜허게 이 저 수평선으로 영 만들젠 허면은 사람이 안 다녀야지게.

@2 그러면 줄을 무끄는 게 거왕이잖아예.

#3 예.

@2 거왕을 맨 처음에 뭐 뭘로 고정합니까? 줄 매기 전에는.

#3 아, 아니, 거 옛날은 다 이 저 새끼 꼬아가지고.

@2 예.

#3 그 신사라라고 것도 난인디 집집마다 신사라덜을 다 저 여기 우영팻디 재배 해놨어요. 거 허민 그건 뭐냐민 사람 죽은 때도 쓰고, 또 이 저 거왕 땄 때. 저거 질기거든.

@2 음.

#3 쉼베, 저 쉼베나 질메 헐 때 그런 걸로 행은앵에 허민, 지금은 철사로 잇곡 플라스틱 있으니까 저거 허는데, 옛날은 다 새끼를 꼬아 가지고 무꿨다니까.

@1 신사라로?

#3 예.

@2 그리고 그 또 못을 안 썼다고 그랬는데 거 평고대도 못 없이 고정했수과?

#3 예.

@2 평고대.

#3 거 뭘로게. 새끼로 다 무꿨주게 옛날은.

@2 새끼로 무꺼가지고, 아.

#3 게민 이제 발을 거 평고대 위로 발 더핀다고 그게.

@2 예.

#3 경 행은에 그 발도 그 다 새끼 꼬앙은앵에

@1 여끄고 여꺼갓고.

#3 여기 그 뜸 차듯 그냥 하나하나 다.

@1 음.

@2 그리고 축담을 아까 그 반축 쌓는 방식은 돌 놓고 흑 쌓고, 돌 쌓고 흑 쌓고 이렇게 번갈아 헛다고 헛는데, 그렇지 않고 돌만 쪽 쌓고 흑을 발르는 식으로도 헛었는가마썸?

#3 견디 그추룩, 옛날은 돌이 일정허게 지금 모양으로 다 이 저 규격을 헛으면 현디.

@2 예.

#3 큰돌도 잇곡 작은돌도 잇으니까 그자 큰돌은 기자 먼저 놓곡 작은 돌은, 바깥 디 면은 좀 보고.

@2 예.

#3 안에는 면을 안 봤주게. 경허단 보니까 안으론 보면 뭐 울퉁불퉁.

@2 음.

#3 그 집 고치명 보문은 이 그거 안 치와볼젠 헤도 거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



헤버리니까.

@1 음, 축담이, 아.

@2 제가 이렇게 축담을 보면 돌을 이렇게 가지런히 쌓기가 어려웠을 거란 생각이 들 때가 많아가지고.

#3 아, 게난 그추룩허난에 지금 만일 이 집을, 좀 초집, 초집에서 이런 저 다른 집으로는 쓰레트집이나 이런 걸 못허게 딱 규제를 허니까, 이 담만이라도 좀 헤가지고 안에 좀 넓힐라고.

@2 예.

#3 막 돌이 이만큼 긴 돌로 막 놔볼곡 헤부니까.

@1 음, 옛날에 이만큼 긴 거에 존돌에 막 서꺼져갓고.

#3 막 서꺼정.

@1 거난 어쨌든 반축 안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돌부터 다 쌓아놔 흑질을 헛다라는 거네예. 근데 그게 이게 넓어지는 거예?

#3 게난 이 저 담 다멍 빨리 흑질을 안 헤버리면 비 오민 자빠져불어 다.

@1 으음.

#3 비 오민. 거고 이런 포라도 걸영 놔두면은 덜 자빠지는다. 담 당 그대로 저 놔 내볼문 저.

@1 의지혈 게 엇으니까.

#3 비만, 비 와근에 바람 조금만 불민 다 넘어가 분다니까.

@2 그 축, 그 기둥에다가 포를 걸 때는 이렇게 그 구멍을 따가지고 맞춤을 허 째아예.

#3 예.

@2 근데 담 위에다가 서리를 걸칠 때는 어떻게 고정합니까?

#3 아, 그거는 그자 담 우이 그대로 나무 이렇게 대문.

@2 대게끔.

#3 고정이 됩니까.

@2 아 그런 식으로 무게로 눌러갓고

#3 이 저 담 넘어가지 말게 이 나무로 이 좀 벽 받아주고 헤가지고.

@2 예.

@1 예, 참 그 지혜가. 툭 허면 툭 넘어갈 거 같은데.

@2 혹시 그 성읍에는 굴목 안에 창고를 만드는 경우가 혹시 이신가마썸? 거 본 적 잇수과?

#3 굴목?

@2 굴목은 불 때는 데째아예? 그 안에 혹시 창고를 따로 만들거나 그런 적은 엇어마썸? 다른 데서 본 적이 있어서.

#3 그건 엇고, 굴목 현 디 이쪽 그 신 벗는 쪽으로는 장괘라고 헤가지고.

@2 예.

#3 장래 문 달고, 이런 신 같은 거, 신장 7튼 거 올려놓고, 옛날은.

@2 난간 쪽에.

#3 이 굴목을 살라도 고팡이든 마루든 방 이 저 부엌 밖으로 그 연기가, 이.

@1 다 돌아다녀.

#3 저 방 밑에서 다 돌게 만들었어. 왜냐면 이게 병충해 방지도 되고.

@2 예.

#3 나무 좀 먹지 말게. 좀 먹지 말게. 굴목 살라근에 허민 마루에도 보문 문막 기실린 게 흰히 나온다고.

@2 그러면 혹시 연기가 이렇게 방 밑으로 흘러서 나가게 할려고 하면 그 구들 밑에는 구들장 놓기 전에 그 밑에는 돌로 이렇게 채웠을 거 아니예? 그 돌을 채울 때는 흙을 안 쓰거나.

#3 아니 거난.

@2 예.

#3 구들도 이추룩 편편허게시리 해낭.

@2 으.

#3 그 돌을 이렇게 다 중간중간 이렇게 놔가지고.

@2 예.

#3 이제 넓은 돌로 구들돌이엔 헤영. 그 구들돌은 좀 넓어.

@2 예.

#3 그걸 그 우에다 이렇게 놓는데, 켈 옆에.

@2 예.

#3 이런 저 이 건물 켈 옆에.

@2 예.

#3 흙질을 다 안 허고 구멍을 좀 놔둬.

@2 예, 예.

#3 왜냐면 글로 연기가 나와야 이 나무더레 그 연기가 가가지고 질기니까.

@2 그런데 그 초집에는 그 옛날에 고래는 안 만들었잖아예? 만들어신가마썸?

#3 무신 고래?

@2 그 연기가 다니는 통로.

#3 아 그.

@2 으.

#3 방에만 그자 이렇게 그 굴목 그 켈 중간에 좀 넓게 해가지고.

@2 예.

#3 거기에 허고 또 이 가에로는 좁게. 이렇게 다 이 저 불기운이 가게.

@2 게니까 통로를 좀 만들어신가.

@1 계난 가로, 다른 데는 불길을 만들었는데.  
 @2 으.  
 @2 여기는 가에 그 고래 역할을 할 수 잇는 그거를 만든 거 같애.  
 #3 켈 중간에 구는데라고.  
 @2 예.  
 #3 구는데라고.  
 @1 구는데, 구는데.  
 @2 구는데?  
 @1 굴묵 짚을 때 쓰는 거.  
 #3 구는데, 굴묵 짚을 때 쓰는 게.  
 @2 예.  
 #3 흔 발은 허게시리 행 앞에 헤가지고.  
 @2 예.  
 #3 말뚝 7튼 거 안에레 막 담는 거라.  
 @2 으.  
 #3 갱 이제 또 그거.  
 @2 깊이는 어느 정도 뒤마썸?  
 #3 하여튼.  
 @2 흔 발 정도?  
 #3 한 발 정도. 한 발 정도믄 저 많이 들어가는 거주.  
 @2 으.  
 #3 그 굴묵을 이 저 살르면은 자꾸 재가 쌓이니까.  
 @2 예.  
 #3 걸 또 그 구는데로 또 꺼내고.  
 @1 꺼내고.  
 @2 꺼내고, 예.  
 #3 꺼내 가지고 이 따로 낫다가 이 저 거름으로도 쓰고. 또 잘못 그거 그만 불 잇는 거 헤가지고 그 옆더레 잘못헛당 불 나곡 또 많이 헛주게.  
 @1 계난 아까 우리 굴묵 창고 얘기를 헛는데, 무사 굴묵 안에 이제 득 저기 텅 에도 놓곡 허지 안 헛수과?  
 #3 예.  
 @1 그 옆에 짚을케들도 쌓아 논 역할도 잇고.  
 #3 계난 보통.  
 @1 여기도, 으.  
 #3 짚을케덜 저 굴묵 살룰 걸 그딘 저 많이 헤다낫주. 뭇뚱이나 쉼뚱.  
 @2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앓고?

#3 으. 갱.

@1 그 안에, 으.

#3 경 혜영 그 바로 굴묵허고, 굴묵허고 이 고팡이 부떠 있어.

@2 예, 예.

#3 벽 하나 사이로.

@2 예, 예, 예.

#3 계난 굴묵 잇곡, 방 잇곡, 고팡 잇곡, 그다음 마루 잇곡.

(부분 생략)

### 상량식

@1 삼촌, 상량식 언제허고예, 그날 필요한 게 뭇고, 장독 딱 하는 거까지 곶아 줍서.

#3 아, 거 저 상량식은 허젠 허민.

@1 예.

#3 집 짓을 때부터 그 상량혈 날짜를 그 이제 그 봐가지고, 그날에 맞춰가지고 이제 집도 이제 그 진도도 이제 허는디, 보통 상량식은 허민 이 목시 잔치라.

@1 예.

#3 또 그 친척덜토 와가지고 다 그 부지도 허지만은 이, 저, 이 뭐야 광목 걸 영.이쪽에서 저쪽으로 걸어가지고 닭을 이 저 올릴 때민 이 저 방상 많은 데는 일 가친척덜 많은 디는 이제 와서 다 돈도 올리고, 또 이 부지도 그 집 짓을 때 그 상량식 허는 날 거의가 들어와.

@2 상량 때도 심방 불릅니까?

#3 아니, 아니.

@2 상량 땐 심방 안 불르고?

#3 저, 저 목시만.

@2 목시들이 헤가지고?

#3 목시만.

@2 으.

#3 계문 이제 동네에서 글 잘 쓰는 사람은 이 상량문이라고.

@2 예.

#3 뭐 뭐 예를 들러근영에 저 소문만복래 이제 뭐 뭐 얘기 잘 냅은영에 저 무슨 다산 거 무시거엔 경혜근에 막 거 써, 써도 주고. 경혜근에 그거 그 광목으로 올리주게. 올려난 다음 이제 그 독을 저 앞에서 혜영 뒤터레 올령은에 그 상량목 우의서 그 독 그 모가지 영 허는 건 하나의 이 저 뭐니 이제 그 쌀.

@1 예.

#3 쌀.

@1 쓸드림이주예.  
 #3 쓸드림이주.  
 @2 상량할 때는 서리는 아직 걸지 않은 상태지예?  
 #3 다 걸어.  
 @2 서리 다 걸고? 그러면 서리까지 걸었으면.  
 #3 아, 서리는 아 그.  
 @2 으.  
 #3 이것만, 이 저 그 중간에 것만. 상량목 요 놀 디만 안 걸영 놔둬.  
 @2 으.  
 #3 걸영은영에 다 훈 번씩 걸어보는다.  
 @2 예, 예.  
 #3 걸어보는다.  
 @2 으.  
 #3 헛당은영에 상량, 그 상량목 올라가민은 나머지 훈 멧 개 그 양 옆이 것덜은 다 허고.  
 @2 상량목이라고 허는 게 제가 좀 헛갈린데. 그 상량하는 저 어디.  
 #3 거 제일 저 마루.  
 @2 마루에다가 하잖아예?  
 #3 으, 으.  
 @2 아.  
 @1 그니까 상마루 가운데 거는 게 상량문 아니? 예?  
 @2 예, 예.  
 @1 상마루를 그때 안 걸어마썸, 그때? 상마루 이미 걸어진 거 아니우파?  
 #3 아니 계난.  
 @1 으.  
 #3 그때 그 걸엇당 내리와 분덴 허니까. 상량허는 날은.  
 @1 아아, 이미 걸엇던 걸.  
 #3 으으.  
 @1 이제 시늬할려고?  
 #3 예, 왜냐면.  
 @1 걸어야만이.  
 #3 상량목을 안 걸면은. 이게 넘어나, 넘어가볼 수 있으니까.  
 @1 으.  
 @2 으.  
 #3 다 이 저 벗정(?)시키긴 허는데, 그니까 저 상량하는 날은 그거를 광목으로.  
 @1 올령.

#3 무꺼근엥에 이제 목시덜이 빨리 올리질 안 허여. 돈 안 걸민 아니 올리곡.  
 @2 거난 그 상량목. 그니까 그 저 마루, 마룻대 잇잖아예. 그 가장 긴 거.  
 #3 예.  
 @2 그거를 올리지 안허민 서리를 못 거는데.  
 #3 아 게니까 그것에 그 박을 것만.  
 @2 예.  
 #3 그것에 그 박을 것만 저 아래 놔둔덴 허니까.  
 @2 아.  
 #3 세왕 놔두민.  
 @1 게난 상량문 쓴 것만 밑에 이렇게 놔가지고.  
 #3 거 이거를, 이거 이렇게 상량목인다.  
 @2 예.  
 #3 이거를 딱 놔가지고 이제 서리를 다 걸엿 낫당.  
 @2 예.  
 #3 상량허는 날은 요거 알더레 내리와 불어. 이렇게 양쪽으로 .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3 으.  
 @2 내리와 불어마썸?  
 #3 으, 으. 게민 요거 이제 나중에 이 저 광목에 무꺼근에 요 올라가근에 이제 상량 상량 허멍 이제 헨 다음에 그.  
 @2 으.  
 #3 서리, 건 멧 개 안 뉘난에.  
 @2 예, 예, 예.  
 #3 금방 뉘주.  
 @2 그럼 그렇게 해서 상량식이 다 끝나고 나면 소위 말하는 문이나 이런 거를 빼고는 집에 들어가는 목수 작업은 다 끝난 거네예?  
 #3 그, 이 저.  
 @2 문은 안 달았을 거 아니?  
 #3 으 저 무시거는 다 끝난 거주. 이 저 이 테두리는.  
 @2 예.  
 #3 끝나고.  
 @2 예.  
 #3 목시는 문. 문장은 이제 다 해낭 비도 새지 말곡 헤사 이 문장을 시작헤. 무 사냐민 그게 집 다 아녀냥은엥에 문 돌아냥은에 비 맞아볼민 문이 다 비틀어져부 니까.  
 @2 예.

#3 계난에 그, 그 집을 곧 일민 이런 디 앙토나 잘 아녀곡 그 저 뭐를 안 시끄민, 흑을 안 시끄민 영 허민은 하늘에 밤인 별 다 봐지곡.

@2 으.

#3 비 와가민 비도 새곡 행 그계 좀 행 좀 자가민 그다음 비가 안 셀아도.

@2 예, 알겠습니다, 으.

@1 그니까 이제 비 새는 거 안 새는 거 다 확인허멍.

#3 예.

@1 마무리 현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방 꾸미고 방은 이미 꾸며져 잇지만, 예, 그런 부분들 하계끔.

#3 경 행은에 거 방도, 이 저 구들 놓젠 허민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라. 구들 놓는 거는 간단해. 그자 낱은엔에 것도 이 저 이렇게 큰 돌덜 요렇게 얹으면 이런 디 고망 나민 흑 꾸어근엔에 저 다 고망 흑으로 막곡 허는디, 그 위에 흑을 깔앙, 그다음 이 저 촌흑 해당은엔에 걸 막 물리왕 낮당 대체로, 저 저 체로 문딱 치명 방에 깔앙은엔에 물 주멍 그걸 다령, 그다음 장판을 들이는 거주. 장판지 지금 모양으로 장판지 푸는 게 아니고 옛날은 어디 저 비료 푸대나 세멘 푸대 그거 저 집 짓젠 허민 막 어디 강 흐나 봐지민 저 좇어오곡 무시거 행 낮당은에 그것에 바닥 이 잘 뒤면은 장판 그거 발랑은엔에 유썸, 유치름.

@1 으.

@2 으.

#3 유치름을 발르, 불리는 거주게.

@2 근데 벽에 하는 흑이나 그 저 지붕에 하는 뭐 앙토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마당에 잇는 흑으로 허잡아예?

@1 예.

@2 그 구들에 이렇게 메우는 흑들도 다 마당에 걸로 험니까?

#3 아니, 아니. 그거는 어디 그 촌흑 나는 디 강.

@2 으.

#3 역불로 촌흑.

@2 건, 그.

#3 저 구해당은에 그걸 밖에서 막 말립는 거라. 이 말리와 가지고 이 저.

@1 막 뽏아얄 거 아니파.

#3 던드령으로 막 그 저 던드령이엔 헤영 마께 이만이 동글랑헌 마께 헤가지고 그걸 막 흑을.

@2 던드령마썸?

#3 예.

@2 던드령?

#3 던드령마께. 그 던드령이엔 현 건 돌을 말허는 거고, 거 던드령마께엔 헤영

은에.

@2 예.

#3 이만헌 굵은 걸로 손잡이 있게 행은에, 흑을 말려가멍 자꾸 부시와.

@2 으, 곱게시리.

#3 곱게.

@2 음.

#3 그래야 방이 저 다 완료되는 거주. 방 하나 험도 정말 (웃음) 기가 맥힌다니  
간.

@1 그니까 그 곱게 행은에 틈 없이 할려고.

#3 예.

@1 흑 깔아주는 거 아니라예.

#3 경허영 그 저 막 팽으로도 밀곡 경 아녀민 거 던드렁마께로도 놓앙 밀곡.

@2 그 방바닥에 흑 깔고 허는 것도 다 도와줘근은에 허는 거우짜? 집주인이 허  
는 거우짜?

#3 건 집주인이.

@1 집주인이.

@2 건 집주인이? 음.

@1 그거 헐 때 막 수평 보멍 이.

#3 아이고 저.

@1 예, 예.

#3 경 헤영은영에 그 저 지금은 이디 그 풀 잘 안 쓰주만은 옛날은 가시리풀이  
엔 허영.

@2 으.

#3 바당에서 나는 가시리엔 헐 게 잇어.

@2 예.

#3 그걸 헤다가 이제 막 딸령 풀 만들앙, 그거 헤여근영에 밀가루 조금 서끄곡  
헤영은영에 이제 종이를 막 그냥.

@2 으.

#3 거 저 굿인 이런, 옛날엔 그 종이 나와나신디, 이 그거 옛이민 이제 신문지  
는 게도 건 고급이라. 신문지는 초불 불리는 거. 거 옛날도 이 저 방게 흑질허곡  
헌디, 초불은 거의 저, 신문지나 아니민은 마분지.

@1 으, 마분지.

#3 옛날 마분지엔 헤여근영에.

@2 으.

#3 짠 종이가 잇엇거든요. 게난 그거 사다근영에. 그 마분지엔 헐 거 지금 저  
화장지만이도 못헌 거주게.(웃음)



@3 상량식혈 때 장독 모가지 치지 안협니까? 경혜영 앞에서 뒤터레 던지곡 뒤에서 앞더레 던지고 협니까?

#3 예.

@3 그 다음 또 어디 피.

#3 아, 그거 영 허영은에 허민양.

@2 피 어디 강 막.

#3 그, 그거, 아 그거 영 행은애에 허민양 그거 영행은애에 저 목시들이 영.

@1 주변에도 뿌리지 안협니까.

#3 이런 지춧, 저 지둥?튼더레 영 영 영.

@3 지둥에 가근에.

@2 지둥에도, 지둥에도 바르고, 예.

@3 쟁 그다음엔 그거 먹어마씨? 장독, 숲아 먹어?

#3 그건 목시들 나시라마씨.(웃음)

@3 아.

@1 쟁 그 상량이여 허영은에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위에서 사탕도 뿌리곡.

#3 사탕도 뿌리곡.

@1 먹을 거 이거저거 막 뿌려주고.

@2 사탕 나오기 전엔 뭐 뿌려실 건고예?

#3 예?

@2 사탕 나오기 전에.(웃음)

#3 계난, 계난 옛날은 그 사탕 ㄱ튼 거 아니헐 때는 보통 떡을 많이 헛주게, 떡 그레.

@1 상량허는 날 돌래떡 같은 거 행은애 노나주고 혜수과?

#3 정기떡 ㄱ튼 거, 저 이런 만뒤떡 ㄱ튼 거 좀 이런 잇인 집이는 허고, 잇인 집은 그자.

@1 어쨌든 그날 부주덜.

#3 예.

@1 들렁 오고 허니까.

@3 목시가 혜수과? 이거 들러근에 영.

#3 예.

@3 지둥에 허는 거 주인이 아녀근에.



## 4. 성읍1리 초가 구술 <2>

## 4. 성읍1리 초가 구술 <2>

- 일시: 2019년 5월 16일
- 장소: 성읍1리 경로당, 송순원 씨 덕
- 조사자: @1 김순자 @2 양성필 @3 고창근 @4 오경임
- 제보자: #1 현동옥 #2 변정석 #3 홍상표 #4 김춘화 #5 문명옥 #6 송순원

### 4.1. 구조

#### 집 짓는 순서

@1 예.(웃음) 그 삼촌 옛날에 집 짓젠 허면 처음 땅 다지는 거부터 시작헿 끝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쭉 골아줍서.

#6 초가집은 벨로 그 설명헿 게 없는데.

@1 으.

#6 이딴 초가집은 나무로만 집을, 초가를 짓기 때문에 목수들은 집을 짜꼭 석공들은, 초가는 담을 문여 싸야 집을 지어.

@1 예.

#6 그 때문에 석공들은 담 다 놓민 뭘 집 짓는 건디. 이 지금 신식집허고 틀려서 간단허주.

@1 예. 간단히 헤도 그거 삼간집 헿 번 짓어봅서.

#6 삼간집?

@1 예.

#6 이디 삼간이면은 방 이쪽 방, 이쪽은 부엌, 이건 마루.

@1 으.

#6 옛날은 나무로 헤서 마루 놓니까. 게민 부엌 헿 짝, 헿 짝은 고팡.

@1 예.

#6 그렇게 헤서 이 초가집 삼간을 짓주.

@1 게문 그 저 석공들 담 쌓을 땐 어떤 식으로 쌓아?

#6 어떤 식으로 쌓아? 석공덜 그자 시방 초가집 이 저 기능보유자덜 짓는 집 짓는 거나 마찬가지로 돌담 쌓아.

@1 음.

#6 옛날은 이 겐노가 엇엇거든.

@1 음.

#6 그니까 순전 손으로만 담을 다.

@1 예.

#6 돌망치도 엇이.

@1 돌망치도 엇이, 음. 그 담들은 어디서 행 오는 거마썸?  
#6 돌?  
@1 돌들, 으.  
#6 돌은 이디 성읍리 같은 경우는 이 돌 모여서. 옛날에 그 화산지대라노니까 돌 모여진 디가 많아.  
@1 음.  
#6 그러니깐 그런 디 가서 그 갖다가.  
@1 돌 쌀 땐 어떻 썬앗수과?  
#6 돌?  
@1 음.  
#6 쌀 때는 기냥 썬 도리 놔낭 그 다음 또 썬 도리 놓곡, 게난 작은 돌로 달 때는 흑 썬 도리, 저 돌 썬 도리 썬 놔낭 그 우의 흑 썬 도리 썬 허게 또 놔낭 또 또 담을 다.  
@1 음.  
#6 매 자꾸 그런 식으로 담을 다. 큰돌은 그대로 한꺼번에 저 높이를 일 메다 한 팔십 정도는 계속 그자 돌로만 싸.  
@1 돌로만 싸고.  
#6 으.  
@1 경 헤영 안에 흑질을 허는구나.  
#6 안으로나 밖으로나 다 흑 부르주.  
@1 음, 거난 존돌 헐 때만.  
#6 존돌 헐 때는 흑 썬 번 놓곡 돌 썬 번 다곡.  
@1 거 또 반축헐 때는 또.  
#6 반축헐 땐 절반만 다. 게민 반축 허쟁 허면은 이 저 반축 엇인 집은 가에 돌 아가멍 기등을 안 세우는데, 반축허는 집은 돌담 다는 디 돌아가멍 기등을 세와 다. 기등 세왕, 거기서 테기 헤영 반으로 우트레 테기 헤영 흑을 부르주.  
@1 으, 아, 위쪽에만 테기허는 거우파?  
#6 으, 밑에는 그대로 흑 블라 버리고.  
@1 음, 쟁은에 그렇게 돌 다 썬아지면 그다음에 허는 거는 무시거?  
#6 그다음에 초가집이사.  
@1 으.  
#6 무시거 헐 게 이서? 그다음은 목수들 행은에 문 썬 돌곡 그자 방 꾸미곡 허 민은 또 방에는 옛날은 이 뭐니까 구들을 놔야주게.  
@1 예.  
#6 돌로, 돌로 구들을, 구들을 놔야 절로 불 때는 덜 만들어근에 허는 거주. 무신 벨다른 게 엇주, 무신.

## 4.2. 초가 지붕 이기 ①

@1 계민 지붕, 지붕은?

#6 지붕은 저 대로, 대나무로 서슬을 헤여.

@1 예.

#6 대나무로 서슬헤영 그 우에 흑 꾸영 올령, 걸 고데라고 허는디, 그 고데 올령, 그 위에 어웁으로 저 더펏주, 처음은.

@1 처음은 어웁으로예.

#6 어웁으로 더핑, 그다음은 새로 더프는디.

@1 음, 그 왜 상믄루도 허고, 이런 저기.

#6 상믄루 중믄루 다 있어.

@1 으, 건 어떻.

#6 상믄루는 젤 노픈 덧 게 상믄루고.

@1 예.

#6 그다음은 중믄루,

@1 음.

#6 이 문, 대문 드는 디 건 대문도리라고, 대문도리.

@1 대문도리.

#6 거긴 대문 들젠 허니까 우에 이 중포가 있어. 거기에다가 대문을 들주.

### 포

@1 음, 계민 그 포는 멧 개라?

#6 포? 상믄루 말아 두 개.

@1 음.

#6 계난 젤 저 앞에는 개윗지둥이엔 현 게 또 있어.

@1 개윗지둥.

#6 어, 개윗지둥에 또 도리가 하나 잇주. 계난 그쯔지 허민 세 개.

@1 으음.

#6 계난 이쪽으로 세 개, 이쪽으로 세 개, 상믄루 허민 일곱 개가 들어가주. 나무가.

@1 음. 큰 나무가예.

#6 으.

### 서리

@1 쟁 그렇게 이제 도리영 포영 이렇게 하면, 그다음 지붕 허젠 허면 서리 걸 거고.

#6 서리, 서리 걸어야주. 게민 처음은 네 컷데기에 거는 서리는 추년서리라고 그거. 그건 좀 이 다른 서리보단 한 일 메다 한 삼십 정도는 더 길어.

@1 음. 추년서리가예.

#6 그거 해영 걸면은 그 추년서리를 중심으로 해서 술 이렇게 이쪽 걸곡 이쪽 데기 걸곡 허면은 줄 처근에 서릴 걸주.

@1 음.

#6 서리 걸면은 서리 우에는 서슬허기 전이 뭘 메느냐면 팽고대엔 현 걸 매어. 옛날은 왕대로 헛는다.

@1 예예.

#6 지금은 대개 이 목재로 허는다. 옛날은 저 왕대로.

@1 왕대로.

#6 왕대가 시방 나무보단 질기주. 비가 맞아도 덜 썩어.

@1 예.

#6 썩질 안 허여.

### 팽고대, 거왕

@1 경 행 왕대로 이제 그 하고. 왕대허고, 아 저 저기 팽고대허고 거왕하고는 딱난 거?

#6 거왕은 알로 허는 게 거왕.

@1 예.

#6 알로 허는 게 거왕, 우에 서리 이렇게 걸면은.

@1 예.

#6 이디 놓는 거는 팽고데고.

@1 예.

#6 밑으로 허는 건 거왕이고.

@1 아, 그러면 서리 위에.

#6 예.

@1 이제 지붕 더끄기 전에 영 고정해주는 게.

#6 으.

@1 저기 팽고데구나.

#6 으. 우에.

@1 밑에 거는 거왕예.

#6 예.

@1 음.

#6. 밑에 거는 거왕.

@1 우리 이거 제주어사전에는 같은 걸로 나왔거든.

@2 아, 건 원래가 다른 건데 그건.

@1 예, 예.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서리 걸면 그다음 서슬을 해야 될 거?

#6 예. 서슬 해야주.

## 서슬

@1 서슬 하고. 서슬은 어떤 식으로 헵니까?

#6 서슬은 좀 이 저 잘 사는 사름덜은 대나무로 해서 이렇게 줄을 쳐근에, 노꼬왕, 노를 영 짜주게.

@1 예.

#6 대각허게. 허는디 못사는 사름덜은 대나무도 귀하고 허니까 줄 놔서 줄을 꿰면은 사이가 이만씩 공간이 생겨.

@1 예.

#6 그렇게 허는디 잘사는 사름은 대나무 헤영 가\*\*, 게민 대나무는 백 년 나도 집 튼영 보민 그대로 있어.

@1 대나무가예 썩지 않아.

#6 으.

## 집 일기

@1 갱 그렇게 행은에 이제 서슬하고. 그다음에 서슬 다 끝나면 지붕 이는 거.

#6 예, 그 저 고데 올리는 날 집을 더프주.

@1 아, 고데 올령예.

#6 역새로. 어웁으로.

@1 어웁으로.

#6 으.

@1 그 어웁은 어느 정도 듬니까? 집.

#6 집 하나 허젠 허면 헛 사백 단.

@1 사백 단. 어웁만.

#6 어.

@1 새는?

#6 새는 보통 헛 백오십 단.

@1 백오십 단. 줄 허젠 허면?

#6 줄 허는 거는 집 하나에 삼십 단 들어 딱.

@1 삼십 단. 그렇게 행은에 하는 거고. 삼춘, 옛날 그 흑질허는 건 언제 허는 거라?

#6 흑질허는 건.

@1 음.



#6 집 이 저 서슬 다해지민 허주게.

@1 서슬 해영은에 흑질허는 거?

#6 으. 서슬 다 해지민. 서슬 다 해놔사 이디, 이덜부떠 문여 흑 올려야주게. 이 덜 흑 올려똥 밑에선 흑 블루주.

### 흑질

@1 아, 흑질하는 것도 위에서부터 허는 거구나게. 게민 흑질허젠 허면 옛날은 보통일이 아니잖아예. 그날 준비헐 것도 할 거고.

#6 준비허는 게 옛날은 흑을 어디서 파당 헛느냐 허면은 보통 초가집은 집 짓젠 허민은 마당이 잇잖아.

@1 예.

#6 마당에 흑을 팡 헤여. 마당에 흑을 팡 허면은 물은 거리가 멀주게. 한 거리가 먼 디는 한 일 키로 거의 똥 디도 잇어. 물 강 질어오는 게.

@1 어디 어디 물 질영 왓수과?

#6 내.

@1 내 이름 뭐?

#6 이디 올란이엔 현 디가 옛날 성읍리 소덜, 우리 동네 소덜은 거기 강 겨울에도 강 물 맥여 와. 올란이.

@1 올란이물.

#6 물 이젠 하천 공사 헤부니까 이젠 물 없어져 불엇어.

@1 음, 그 물 허젠 허면은 동네 사름 다 들어사 헐 거 아니?

#6 다 아니 게난.

@1 그 얘기 굴읍서.

#6 동네 사람들이 누구네 집에 메칠날 흑질한다 하면 여자들은 이 허벅 질 줄 아는 사람은 전부 허벅 정 나와. 왕 헤달렌 안 헤도.

@1 음.

#6 겨고 남자덜토 마찬가지로 누게네 집의 흑질헬젠 허민 그날 원 다 나왕 동네 사름덜 그렇게 돌아가면서 헛주게.

@1 게난 흑질허는 거 풍경을 좀 굴아줍서, 어떤 식으로 허는 건지.

#6 흑질 어떻. 처음은 담 돌아가명 불르고, 그다음은 테기 불르주.

@1 음, 테기 불르고.

#6 테기 불를 때는 소나이는 불르고. 여자는 옆이 앓앙 접아주고.

@1 음. 아, 불르는 건 남자가 헤예.

#6 아, 경 안 허면 남자는 자꾸 굶어알 거니까. 여자가 앓앙 잡아주주게.

@1 게민 그날은 흑밥도 헛덴 허멍예?

#6 아이구, 흑, 점심도 두 번씩 헵 맥여.

@1 예, 그 점심 맥엇던 얘기 좀 골아줍서.

#6 점심은 어떻게여. 물 질어근에 물 다 질어오면은 여자덜은 우선 물, 물, 저 점심을 먹주.

@1 음.

#6 경허곡 흑굿디 들어가는 사람은 흑 데쓸 사람.

@1 음.

#6 데쓸 사람 네 사람.

@1 음.

#6 흑 불릴 사름 두 사름 허면은 으슥 사름 문여 남보다 문여 점심 맥영, 그사름덜은 흑 불리렝 헤뵤 나머지 사름들은 또 점심 먹고 그렇게 헛주.

@1 여섯 명이 드는구나예.

#6 어.

@1 그때 막 췌도 7치 불리지 안 헛?

#6 계메. 췌로 불릴 거주.

@1 으.

#6 계난 불릴 사름 두 사름.

@1 으.

#6 흑 데쓸 사름 네 사름.

@1 음, 것도 팀 이렝은에 하는구나.

#6 어. 흑 데쓰는 사람은 젊은 사름덜. 힘 잇는 사름 아니믄 못 허여, 버청.

@1 경 허영 그 수세 같은 것도 놔난 거?

#6 수세. 수세 많이 놔야주. 수세 안 놓면은 이 흑이, 담에 블라진 거는 수세가 없으면은 비가, 바람 비가 오면은 다 시쳐 내려와 불어.

@1 으.

#6 근디 수세가 잇는 거는 시쳐 느리지 안 허여.

@1 경 허니까. 참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와신고.

#6 (웃음)

@1 그 저기 물 질 때 저기 친척들은 떡도 헤영 오지 안 헛니까?

#6 아, 헤오주.

@1 건 무신 떡 헤 옹니까? 보통은.

#6 건, 그건 저 보통 무시거 만뒤 옛날.

@1 으.

#6 만뒤.

@1 만뒤.

#6 만뒤를 많이 헛주, 만뒤.

@1 건 누게가 헛 옹니까?

#6 거기 일가. 가까운 친척들이 헤 오주.

@1 으, 게민 이제 만뒤 맥이곡. 밥은 무슨 밥 헤 맥여?

#6 이 옛날은 보통 보리쌀에 풋 낱 숯앙. 그거 따시 밥 헐 때에는 곤쌀 쪼금 놓  
곡 헤근에 밥을.

@1 그때 부주덜도 헤 옴니까?

#6 부주는 흑질 헤 올 때는 안 허고. 이사허는 날덜은 헤오는다.

### 상량

@1 아. 집 들어올 때. 상량 헐 때도 헝 온덴 허멍?

#6 으?

@1 상량.

#6 상량 헐 때는 일가덜.

@1 아. 일가덜.

#6 상량 험젠 허면은 일가덜이 오주게.

@1 예.

#6 게민 목수가 상량 헐 때는 이 봉투를 아니 올리민 저 상머루가 올라가질 아  
녀.

@1 으음.

#6 게민 그레 일가덜이 저 봉투를 걸면은 그 목수는 다 알거든. 이 집이 으 친  
족이 누게다 누구다 다 알면은 봉투를 아니 올린 사름 시민, 누구 봉투 안 올렸젠  
목수가 막 웨곡 헤여.

@1 으음, 경 헝 친척들이 부주하곡 허는 거구나예. 그 상량 헐 때 잊어볼지 못  
허는 이런 건 잊어마씨?

#6 그런 거 무신 잊어볼곡 헐 거.

@1 득 잡아근에 뭐.

#6 득 헝 올리주게. 득 절로 헤근에. 베.

@1 예.

#6 옛날 베 헤근에. 이렇게 저 위에서 두 사름이 영 헝 잡곡 아래서 두 사름이  
잡으민 득 이디 놓민 이 득을 코 꿰여근에 저레 줄 흘려.

@1 예.

#6 게민 목수가 땡기주게. 땡기민 득이 올라가주.

@1 코 꿰영 올려마씨?

#6 어.

@1 어어, 거 경헝 올리면. 그 다음에 그 목을 칠 거 아니? 득.

#6 건 건 목수가.

@1 예, 건 뭍렌 헤영은에 험니까?

@1 어?  
#6 그거 허는 거 뭐렌 곶아?  
#6 그거 날짜 얘기허곡.  
@1 예.  
#6 그날.  
@1 으.  
#6 그냥 멧 시.  
@1 으.  
#6 멧 시에 상량헌덴 허영 목수가 얘기허영.  
@1 으.  
#6 자귀로 그 독 야가지를 찻라.  
@1 음. 쟁 그 피 뿌리고.  
#6 피, 피를. 게민 그 독을 떨어지면은.  
@1 으.  
#6 그 피를 지등마다 덩기멍 굽덩이에 믿히주.  
@1 피를, 건 누게가 문합니까?  
#6 건 복친들이 해야 뉘. 떨어지면.  
@1 음.  
#6 일가덜.  
@1 게난 목수들은 지봉에 이신 거라.  
#6 으.  
@1 아직도예.  
#6 으, 으.  
@1 일가들이 이렇게 하고. 경행 거기에 무사 피를 저기 묻히는 건고?  
#6 건 모르지. 뭐 무슨 때문인지. 하여튼 핀 지등굽마다 덩기멍 묻혀.  
@1 지등굽마다.  
#6 으 지등굽은 돌로 놓니까 돌에 강 다 믿히주.  
@1 돌에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허고. 새 비거나 이런 날도 특별허게 행은에  
합니까?  
#6 무시거 허는 거?  
@1 새들은 그냥 아무 때나 비영 놔뉘?  
#6 새? 아니주. 입동이 지나서.  
@1 으.  
#6 입동이 지나야 새를 비주. 그전에는 새가 파랑허는 디 입동이 지나민 새가  
빨갈게 노랑게 익어. 경헤야 비어.  
@1 음. 그런 식으로 하고. 그 피력 헌덴 헌 말은 무슨 말이파? 옛날에.

#6 피력은.  
 @1 피력도 허고 흑밥도 헌덴 허멍.  
 #6 흑밥이엔 헌 건 점심 행 맥이는 게 흑밥이다.  
 @1 응.  
 #6 피력이엔 헌 건. 게난 거 쫘 잘 사는 집이나 허지. 못사는 집은 피력 안 허여.  
 @1 게난 떡들 헤오면 그걸로 저기.  
 #6 경 행 그거.  
 @1 준다고.  
 #6 그거 동네 사람들. 일가덜이 헤 오면은.  
 @1 으.  
 #6 그 내중에, 쟈 곳 나중에 허주.  
 @1 그다음에 아까 이사 헐 때는 부주 행은에 온덴 헛지 안 허파예?  
 #6 예.  
 @1 집 다 지으면 암만헤도 축하하는 거니까.  
 #6 예.  
 @1 그 이사 헐 때는 무시거 가정가 보통?  
 #6 보통 옛날, 지금은 봉투로 허는다.  
 @1 예.  
 #6 옛날은 대개 쓸이라, 쓸.  
 @1 쓸은 어느 정도 가져갑니까?  
 #6 쓸, 저, 관뎨로 두 개.  
 @1 관뎨로 두 개, 어.  
 #6 관뎨로 두 개도 생각허는 사름이라. 경 안 헌 사람은 관뎨로 두 개도 안 헤여.  
 @1 음.  
 #6 엇이니까.  
 @1 헌 뉘 가져가는 경우도 잇곡.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경 헤도 집 짓젠 허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예? 멧 년.  
 #6 그렇주.  
 @1 울영은에 짓는 거 아니? 보통 어떻 헐 때 집을 짓읍니까?  
 #6 미리 예산을 하는 거주.  
 @1 으.  
 #6 게난 대개 자식들 결혼 시키면, 지금은 결혼 전이 다 집을 마련해 놓주마는 옛날은 그추룩 안 헛거든.  
 @1 으.

#6 결혼 현 후에 씨부모네광 7찌 현 일 년을 살던지 이 년을 살던지 현 후에 집을 지영 따로 나강 살렌 했지.

@1 으.

#6 그전에는 씨부모네하고 같이 살았주.

@1 게난 그 집 짓젠 하면 미리, 요즘은 돈 주민 아무 때나 사오주마는 미리 멧 년을 집 짓젠 준비를 할 거 아니.

#6 으, 으.

@1 낭도 행 와야 뉘고.

#6 게난 그게 미릿 준비 헛다근에 허는 거주. 갑자기는 옛날은 못 헛어.

@1 예, 그 낭 같은 경우도 이제.

#6 산에 강 낭 비어오는 것도 도벌목 헤여 오젠 허면은 밤에나 강 그차 오곡 헛주.

@1 삼춘도 도벌목 하영 헛잡아예. 옛날엔양.

#6 하영 헛주. 우리가 현 열으덥 설부터 도벌목 허기 시작 헛는다. 군인 가기 전인 게나제나.

@1 으음.

#6 도벌목만 허멍 풀아먹언 살았주, 무신.

@1 (웃음) 그렇게 이제 하고.

#6 게난 그때 우리 도벌목헛 때는 한라산에 강도 나무 현 마차 비영 오민은 팔 백 원벳기 못 받았어. 팔백 원.

@1 팔백 원.

#6 으.

@1 그때 팔백 원이면 뭐 헛 수 있는 돈이엇수과? 팔백 원으로.

#6 아. 그때 나 돈 천 원만 가지면은 밧 천 평을 산덴 허니까.

@1 게니까 하영 받아신게.

@3 이 원, 삼 원 뭐 이렇게.

@1 그니까. 게난 팔백 원 하영 받았네.

#6 하영 받는 거지.

@1 예.

#6 게난 건. 팔백 원 받아도 거 고생허는 걸로 받은. 아침 세, 여기서 세 시 뒤 영 떠나민은 뒷날 아척이야 와.

@1 응.

#6 낭 기창.

@1 으.

#6 낮에는 못 허니까. 밤, 거기 강 밤에 나무 기창 붉아가민 시경 나오주게, 산 에서.

@1 계난 그 도별목들이 다 집 짓을 때.

#6 으.

@1 저기 들어간 거라예. 그때 해온 낭들은 무신 낭.

#6 소낭이 많주. 겨고 저 낙엽송이 많고.

@1 음,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을 지은 거고.

### 4.3. 초가 지붕 이기 ②

@1 아, 그다음 이제 들 수 있는 게 그 정도 뉘갯다예. 그 저기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붕 이는 일도 큰일 아니예?

#6 지붕 이는 일 홀어멍쯤은 걱정 뉘주.

@1 예.

#6 지붕. 겨울 들어가민 저거 어떻 행 일코 걱정 미리부터 허주.

@1 지붕 일젠 허면 그 순서. 줄 비는 거부터 쪽 곶아봅서.

#6 줄은 돌이[돌리]가. 너이가 해야 뉘어.

@1 예.

#6 너이 허면은, 너이가 비면은 집 두 거리. 이런 삼관집 두 거릴 놓주게, 흐루.

@1 흐루예.

#6 두 사름이 흐 거리.

@1 으.

#6 갱 너이가 허면은 이제 돌이[돌리] 비곡 돌인[돌린] 놓곡.

@1 으.

#6 계민 멧 번 이게 가민 흐나가 뉘어. 계민 이걸 이레 낮당 내중엔 어울린덴 허주게.

@1 예. 줄 어울리는 거.

#6 으, 그거 해근에 허는디 저디 어울리는 것도 잇어, 호렝이영.

@1 호렝이영예. 삼춘예 줄 놓는 거 아까 다른 분이 흐 패, 두 패 영 험디다. 건 무슨 말?

#6 계난 흐 패가 너이라.

@1 흐 패가 너이.

#6 으, 으. 두 패 허민 으답 사람.

@1 아, 흐 패가.

#6 이디는, 이디는 집이 이 앞집 7튼 디는 네 패로 나뉘. 흐루예.

@1 아아.

#6 집이 많으니까.

@1 아아, 그니까 이제 흐 패가 삼간집 두 개 혈만큼 줄을 비는 거.

#6 으, 으.

@1 어울리는 거까지 다?

#6 으.

@1 게문 그것도 삼간집에 허민 줄도 진줄하고 즈른줄?

#6 으, 진줄.

@1 진줄 몇 개? 즈른줄 몇 개마씨?

#6 진줄이 보통 한 스물일곱 개 스물일곱 개. 삼간집 쪼금 크다 허면은 스물일곱 개 들고 경 안허민 스물일곱 개.

@1 으.

#6 즈른줄은 삼간집 큰 집은 마흔다섯 개, 경 아녀민 마흔세 개.

@1 으.

#6 보통 집은 마흔세 개. 그렇게 들어.

@1 게난 이런 것도 집집마다 조금씩.

#6 예.

@1 떠나지마는 대충 그렇게 이제 가는 거라예. 혹시 예전에 나 무슨 사진 보당 보난 집줄 이는데 집줄에 이렇게 뭐 창호지 같은 것도 영 매다는 거 뭐 이수과? 거 영.

#6 창호지 매달?

@1 심방들 헤영 허는 거.

#6 거 심방질 헐 때나 창호지 허영 쓰는 거주.

@1 거난 줄에도 그렇게 매달리는.

#6 아니.

@1 아니? 누구 찍어신디 무슨 사진이엔 허명 물어봐라게.

#6 그것이 요새는 집이 박헌 집이는.

@1 예.

#6 종이에 글 써근에 멧 번 어느 집 어느 집 표시 헤영 줄에 돌아메어.

@1 아, 요새.

#6 으, 지금은. 지금은 이 집이, 저 알녁집이도 집이 혼 열두 개쯤 됴난. 그렇게 아녀 낳은 어느 게 어느 집이 걸 모르주게. 갱 거 표시로 거 헤논 거주.

@1 줄에 헤논 게 그런 거고.

#6 으, 표시로.

@1 아니 집 저 인 다음에도 지붕 밑에 그 영 종이 매달려 잇는 사진이 잇더라 고마씨.

#6 아이.

@1 그런 건.

#6 성읍리엔 그런 거 엇고.



@1 그런 거 엇고예. 으으, 그렇구나. 그, 집 일젠 허민 지붕 위에는 몇 명 올라 갑니까?

#6 그거는, 사람 숫자는 흔히 없어.

@1 음.

#6 돌만 올라강 잇는 디도 잇곡, 셋이 올라간 디도 잇곡. 요새는 우께도리라노 니깐 집 허나에 어떤 딴 다섯 사람도 올라강 일어.

@1 으.

#6 집 허나에 요새 허나 일민 얼마 허거든, 돈을.

@1 으.

#6 게노난 젊은 아이덜 재기만 허젠. 사름, 저 옛날은 보통 네 사름 아니믄 다섯 사름 행 집을 일엇는다.

@1 으.

#6 요새 젊은아이덜 보면 한 열두 사름씩 행 집 일어.

@1 열두 사람. 거 집 멜라지지 안 헤여게

#6 게난 집을 흔꺼번에 두 개, 세 개 흠치 시작행 일어가주게. 그 집이 가민은.

@1 으으.

#6 흔 밧딕만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1 그렇지. 안거리 밧거리 영 이시난예.

#6 으.

@1 게난 보통 네 명 올라간덴 험디다. 집 일 때.

#6 네 명??지 올라가갠 지붕이 빨리 판나.

@1 아.

#6 젊은 아이덜은, 옛날 사름덜은 우리 어린 때 집 일레 덩길 때는 어른덜 지붕 위에 올라가게 뒤면은 이 신발도 못 신게 헤여.

@1 음.

#6 딱, 옛날은 양말을 신어. 보선 신엇거든.

@1 예.

#6 보선 신은 냥 그냥. 신 신영 올라가민 지붕 빨리 판난덴 헤여근예.

@1 예.

#6 그 신도 못 신영 올라가게 헤여.

@1 으음, 게난 그게 웨냐면 저기에 그 잘 안 허면 비 들고예, 이렇게.

#6 이게.

@1 으.

#6 새가 이렇게 더핑 따시 이렇게 더픈 건디.

@1 음.

#6 사름이 이걸 잘 멩심헤영 불르민 허는다. 탁 불라 불민 이게 내려불주게.

@1 예.

#6 줄 매기 전이난. 그 때문에 이 젊은 아이덜 지붕에 올라 돌아댕겨가면은 집이 빨리 판나.

@1 으.

#6 계난 요샌 비 새는 집이 많아.

@1 그 옛날에는 삼춘네 일 때는 비 안 새연?

#6 아이, 비 새게 일질 안 허주게.

@1 예, 예. 계난 아까 그 집 일 때는 우에 멧 불을 입니까? 이렇게 돌아갈 때.

#6 돌아가?

@1 어웁 인 다음에.

#6 어웁 인 다음, 어웁 인 다음에 보통 두 번을 일어야 비가 안 새라.

@1 으음, 두 번예. 경행 여기는 성읍은 일 년에 혼 번 일잖아예?

#6 아 이건, 이런 집들은 일 년에 혼 번벳기 안 허주만. 새 집은 두 번 더퍼 줘야 돼어.

@1 일 년에마씨? 아니, 아니, 아니.

#6 처음 시작할 때.

@1 으.

#6 새로 더픈 다음에 두 번을 새로 두 번을 더퍼야 돼어.

@1 어웁 다음에 두 번을?

#6 으.

@1 요즘은 혼 번 험수과?

#6 어?

@1 요즘은 혼 번만 헤어?

#6 아, 이런 집은 혼 번만 허주게.

@1 음, 이미 오래된난.

#6 새집, 새집.

@1 새집은 두 번 하고예. 음, 그렇게 하는구나. 그다음에 이 집 일거나 집 지으멍 잊어볼지 못하는 이런 추억거리들 잊어마씨?

#6 추억거리렌 현 게 집 이는 날을 날 뺑 일어.

@1 예.

#6 이 베염날 안 일젠 허고. 천화일 안 일젠 허곡 허는디, 그 문세가 곳인 사름 델은 나쁜 날에 집을 일어. 방세허는 방법이주게.

@1 어.

#6 계난 옛날 하르방이 앞집잇 하르방은 잘사는디 뒤집잇 하르방은 앞집잇 하르방보다 일도 더 허곡 해도 못살거든. 아, 이상하다 어떤 일인고 허연 이 하르방이 켈 쓰는디 저 하르방 허는 일, 저 하르방 검질메민 검질메곡 저 하르방 밧 갈

레 가민 밧 갈레 가고 꼭 그 식으로만 헛단 말이여. 게난 아, 이 하르방이 7만이 보니깐 저놈이 꼭 나대로만 허니까 나보다 더 잘 살아간단 말이여. 게난 에이 이젠 피를 쓴다고 해서 천화일에 집을 일었어. 게난 당신은 천화일에 집을 일영 지붕에서 내릴 때 방세를 허젠 일었는디. 아, 그놈도 덩기단 보니까 그 하르방이 집 일엄시난 완 집 일거든. 요 자숙, 오늘은 나쁜 날이난 천화일에 집을 일민 불이 잘 난덴 허주게. 오닐은 나, 나 허는 대로 헛당은에 얼먹을 것이다 속으로 생각 헛는다. 아, 그놈이 집을 다 일어지니까 지붕에 앓안에 오줌을 싸거든. 아, 저놈 팔자에 테운, 원래 그 천화일에 집 일면은.

@1 예.

#6 다 집 일영 내릴 때 물 훈 박세기 거렁 올리렌 헤영 지붕 우이 막 뿌려.

@1 아아.

#6 그게 방셴디.

@1 예.

#6 그놈은 벌써 오줌을 싼 방세를 훈 거라. 게난 그 하르방이. 저놈 이젠.

@1 타고났다.

#6 으, 팔자에 테운 놈이엔. 그런 속담이 있어, 옛날에.

@1 응, 그니까 이제 천화일 헛 때는 물을 뿌리는구나예.

#6 게난 지금도 이 어떤 집인 아는 할망덜, 훌어멍칩이도 집 일레 가면은 천화일이건 말건 무조건 가민 집 다 일영 내리젠 허민 물박세기에 거렁 왕 이거 뿌려도렌 헤여.

@1 으.

#6 그런 할망덜이 있어.

@1 옛날에야 초집은 다 불 나는 게 제일 큰일 아니예?

#6 으으.

@1 경 허니까 이제 하고.

#### 4.4. 연장

@1 그다음에 우리 집 짓젠 허민 연장들 있어예. 연장은 뭐 뭐 필요헤마씨?

#6 연장덜은 목수 연장벳긴 탄 연장은 필요가 엇주.

@1 으.

#6 목수 연장.

@1 석공 필요허는 연장은?

#6 석공은 옛날은 석공 연장이 엇덴 허난.

@1 으.

#6 우리 옛날 초집 짓을 때는. 겨니까 담 다는 사람은 그대로 담만 돌담 모양 보명 그냥 담만 달주.

@1 으, 그다음 목수 연장은?

#6 목수 연장은 자귀도 잇곡, 톱도 잇곡, 먹통도 잇곡, 곱은자도 잇곡, 으.

@1 으.

#6 곱은자엔 현 건 지금 목시덜 나 지금 그 곱은자 하나 잇는다.

@1 으.

#6 그거 보면은 지금 목시덜은 몰라.

@1 예, 거난 그 자귀도 종류가 으라 개 아니?

#6 자귀도 곱은자귀엔 현 게 있어. 곱은자귀는 이 저 큰 나무 까끄는 거.

@1 예.

#6 그거는 아무나. 목수덜토 아무나 그 자귀로는 못 까까. 건 좀 익숙헌 사름이 나.

@1 삼춘, 곱은자귀하고 귀자귀하고 ㄱ튼 겨우짜?

#6 귀자귀하고 곱은자귀하고 틀려.

@1 아, 틀려?

#6 곱은자귀 이렇게 오그라진 거고.

@1 으.

#6 귀자귀는 나무로.

@1 선 채로 영 허는 거?

#6 나무로 이 저 이렇게.

@1 길게.

#6 길게 해근에 옆으로 까끄는 거고.

@1 으.

#6 곱은자귀는 이 이렇게 앞으로 까끄는 거고.

@1 아, 앞으론데 영 헤영. 그냥 또 일반 손자귀.

#6 손자귀는 거 앓앙 그자 뭐 그런 건 큰 거는 못 까끄곡 헛주.

@1 아, 게난 곱은자귀 용도는 무시거라.

#6 어?

@1 곱은자귀 용도는?

#6 곱은자귀 용도는 나무 저 산에 강 도벌목 헤오면은 나무가 오그라진 것도 잇주게.

@1 예.

#6 게민 그걸 보투기(?) 위해서 튀어난 디만 까까부는 거라.

@1 아아, 그게 이제 곱은자귀 용도고.

#6 으, 으.

@1 그 다음에 귀자귀는 그냥 낭 까끄는 거고.  
#6 예.  
@1 옆으로 헤갓고. 음, 그다음에 또 연장, 목시 연장 또 뭐 이수과?  
#6 옛날 목시덜 연장이 별로 잇었어? 그거주. 그거허곡 저 대패 그자 하나허곡.  
@1 대패는 무신 대패?  
#6 대패도 저디 하나 있어. 거 잇당 베와주크라.  
@1 예, 예. 잇당 사진 찍으쿠다.  
#6 (웃음)  
@1 대패도 잇고, 삼춘 또 그다음 저 톱도 이실 거 아니? 낭 싸젠 허문?  
#6 낭 싸는 톱도 이디. 낭 찰르는 톱은 잇는다.  
@1 으.  
#6 옛날 이런 널을 쓰젠 허면은 옛날 대톱이라고 해서 낭 오리는 톱 있어. 게난 그 톱은 없어.  
@1 그 낭 오리는 톱은 둘이서 영 허는 그거지예?  
#6 어. 아니. 땡기는 사람은 둘리가 허곡.  
@1 으.  
#6 저쪽에서는 혼자만 허곡 허여. 경허여.  
@1 아아, 세 명이 들엉은에 허는 거.  
#6 으.  
@1 게민 낭 쌀 때는 어떤 톱 쓰는 거?  
#6 낭 쌀 때는 저 굳작헌 거 영. 요만인 헌 거.  
@1 음.  
#6 저디. 옛날 써난 거 잇는다.  
@1 아, 잇지예. 거난 삼춘한테 왓지. 그 옛날 사진 찍을 거. 그다음에 그거 하  
고. 그다음에 그 먹술하고 먹통은?  
#6 먹통은 목수덜. 지금 목시덜토 먹통은 가전 덩검실 거라.  
@1 음, 옛날 거허고 호끔 톱납디다.  
#6 옛날 목수덜은 자기대로 먹통을 만들언 썬주.  
@1 아.  
#6 요새 목수덜은 푸는 걸 상 쓰는다.  
@1 으.  
#6 옛날은 나무 까깁 목수가 자기대로 만들언 썬어.  
@1 아. 동글랑허게 이렇게.  
#6 으.  
@1 쟁 행은에 이제 먹술, 먹술은 뭘로?  
#6 먹술은 썰로.

@1 썰로예. 것도 영 꼬아근에 허는 거?

#6 아니. 썰. 저 먹술 허는 썰이 있어.

#### 4.5. 민속

@1 그다음에 삼춘. 옛날에 우리 집 이런 거 할 때에, 신 있잖아, 가신. 여기서 는 가신 허게 되민 무신 신을 말허는 거짜?

#6 가신?

@1 으, 올레코시 허는 이런 거?

#6 올레코시?

@1 으.

#6 올레코신 심방 빌어당 올레코시, 심방질 허는 게 올레코시. 정초에.

@1 정초에. 거는 집집마다 다 험니까?

#6 아니, 아니.

@1 아니 허여?

#6 허는 사람 잇고.

@1 삼춘넨 안 해난?

#6 우린 그런 거 안 해보난 몰라.

@1 음.

#6 이 동네도 꼭 그거 허는 사름 있어.

@1 누구네 집이짜? 그 올레코시는.

#6 그 저번에 우리 이디 앓인 때.

@1 할망?

#6 그 할망, 현OO이.

@1 예.

#6 그 집에는 꼭 헤여.

@1 아.

#6 지금도.

@1 지금도 헤마씨?

#6 금년도 헛어.

@1 아. 현OO 할머니 만나야젧구나게. 음, 그다음에, 올레코시 하고. 삼춘네 성 주도 해난?

#6 우린 그런 거 안 헤여.

@1 예, 이런 건 안허는구나. 문전은 식계 헐 때 허는 거고.

#6 식계 헐 때사 문전허는 거주.

@1 삼춘은 칠성도 안 헤?

#6 칠성도 안 해.  
 @1 아.  
 #6 우리 아버지넨 칠성을 헤낫는다, 난.  
 @1 음. 삼춘부떠 아예 안 헛구나.  
 #6 안 현 게 아니라 그 칠성이엔 현 건 그 집터에 잇는 거주. 난 딱 디 살레 오  
 니깐 흘 필요가 없는 거주.  
 @1 으으, 그 집터에.  
 #6 그 집터에 잇이난에 우리 형님이 그 아버지 살던 집을 인계 받으게 됬민 형  
 이 허는 거주. 나가 뭐, 난 헐 필요가 엇주.  
 @1 삼춘네 사는 집에는 아니?  
 #6 아, 아니.  
 @1 아니고. 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  
 #6 이디도 완 보니깐 그런 게 엇언게.  
 @1 요즘도 그거 저기 허는 사람 이신 거 닥음디다, 성읍에?  
 #6 아이. 칠성눌 허는 사름 허여.  
 @1 아직도 잇지예?  
 #6 거 현OO이네도 허여.  
 @1 아, 지금 거기도 하고. 음, 나중에 사진도 찍어야 됬키여. 올레코시하는 거.  
 요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또 물어볼 거 잇나요?  
 @3 그 흑질, 흑질 헐 때에는 그냥 맨 손으로만 험니까? 무신.  
 #6 손으로.  
 @3 기구나 도구 엇수과? 발로?  
 #6 손으로 험니다, 손으로.  
 @3 손으로? 어.  
 @1 게난 그 썬손, 흑손 나온 건 언제 나온 거우과?  
 #6 거 이제사 헛주. 옛날은 썬손 잇엇어? 썬손 잇어, 잇어도 담에는 썬손으로  
 불르질 못헤여.  
 @1 담에는?(웃음)  
 #6 그 담구녁에.  
 @1 예.  
 #6 이게 흑 심영 힘 내영 처야, 그 구녁에 들어가거든 흑이. 경헤야 든든허지,  
 그냥 손으로만 영 행 내비영은 비 오민 문 시청 내려와 불어.  
 @1 게문 담에 흑질 허는 거는 다 남자들이 허는 거구나.  
 #6 으으. 여자들은 안 허여.  
 @1 아, 이렇게 이렇게 치면서 다 안으로. 돌 틈 사이에.  
 #6 으.

@1 다 맥이는 거?  
 @3 경 허기 전이 막 이겨야 뿔 거 아니우파?  
 #6 이기는 거는 소로 불립니다. 소.  
 @3 췌?  
 #6 으.  
 @3 아, 췌가. 으.  
 #6 췌로, 췌도 흔.  
 @3 데쓰는 건?  
 #6 데쓰는 건 게난 인척이 곁은 게 거주. 남자 너이 헤근에 췌스령으로 데쓰는.  
 @3 췌스령으로?  
 #6 으.  
 @3 췌로 데쓰고.  
 @1 췌로 불리곡.  
 @3 불리는 건 췌로 불리곡.  
 #6 췌.  
 @3 췌로 불리고.  
 #6 물론 못 합니다.  
 @3 아아.  
 @1 예.  
 #6 물론 저 뭐 각이 흑곳에 강 빠지민.  
 @1 나오지 못해.  
 @3 전각.  
 @1 빠져불어.  
 #6 각 빠져불어.  
 @3 아. 게난 췌로만 불리고.  
 #6 췌는 이 걸음페기가 시난에. 어떻 안 허주.  
 @1 음.  
 #6 물론 통이 웨통이라노난 불리민.  
 @1 그냥 빠져부는 거.  
 @3 어.  
 #6 물론 못 불려. 물론 밝은 불려도 흑은 못 불려.  
 @1 아.  
 @3 어, 췌로 불령 췌스령으로 데쓰곡.  
 #6 예.  
 @3 게민 또 그걸.  
 #6 이레 갖다 놀 때는 산태로 합니다.



@3 산태로?  
#6 예.  
@3 산태로.  
@1 산태로 행은에 이제.  
@3 그대로 와근에 맨손으로 탁 탁.  
#6 산태로 비와 농민은 이 돌아가멍. 담 돌아가멍 베끗딜로 쭉허게 돌아가멍 비와, 그 흑. 그 산태질허는 사름덜이 쭉 허게 돌아가멍 갖다 놓니다.  
@3 갖다놓면.  
#6 예.  
@3 그거 그자 맨손으로 닥닥.  
#6 예.  
@1 쟁 그 갖다놓면 여자는 심어주고.  
#6 아, 여자는 튀기힐 때만.  
@1 튀기힐 때만.  
#6 으.  
@1 그냥 보통 이제 집.  
#6 담 힐 때는 스나이만 허곡.  
@1 스나이만 허고예. 으, 그렇구나.  
@4 아, 그 흑질 힐 때 팻, 보리밥 한다고 헛는데 반찬 같은 건 뭐 행 먹어마씨?  
#6 반찬이사 옛날에사 무신 반찬이 별로 잇엇어, 그자.  
@1 무신 반찬 행 줍니까?  
#6 어?  
@1 무신 반찬?  
#6 아, 시방 우리 옛날 일반 사름덜 먹는 반찬이 그 반찬이 그 반찬.  
@4 그 반찬이 어떤 반찬인지?  
#6 그냥 무시거.  
@1 국은 어떤 거허여?  
#6 보통 녹물국이나 메역국 끓이주.  
@1 어딘 가난 콩국도 헌덴?  
#6 콩국 허는 사름도 이실 테주마는.  
@1 으. 게난 딱 그 음식을, 오늘 뭐 흑일 햄저 헤 갖고 미리 준비헤 놓거나 이려지는 안 헤여?  
#6 준비헤 놀 게 엇주게.  
@1 예.  
#6 건 집주인이 허는 거난에. 흑질 허젠 허민 그 저 마당 팔 때도 옛날은 따비

로 파.

@1 예.

#6 샅으로 파는 게 아니고 따비로.

@1 따비로.

#6 파곡. 주인 준비할 건 수세미 헐 검질이나 준비 해당 놔 두면 되는 거.

@1 그 수세미허는 검질은 무신 걸로 보통 헵니까?

#6 대개 그신새가 좋아.

@1 그신새가.

#6 집, 집 튼은 그신새.

@1 음.

#6 그게 잘 부서져.

@4 술 같은 것도 준비해 두꼭 하지 안 헵니까?

#6 술, 술은 헵니다.

@1 어떤 술?

#6 술은 보통 이 성읍리는 소주[쏘주].

@1 소주. 고소리 행은에. 오메기 안허고 그냥.

#6 아, 이딘 막걸리엔 헌 건 잘 안허여, 성읍리.

@1 계난 고소리.

#6 고소리술이주.

@1 고소리 허젠 오메기 허는 거구나.

#6 아, 그거 해영 술 헛다근에.

@1 으. 계난 술 대접허는 게.

#6 예.

@1 고소리술 대접허는 거라예. 그런 큰일 헐 땐. 고기 잡거나 이런 건 안 허고?

#6 아이 그런 건 안 허고.

@4 힘든 일 허니까 고기 같은 거 먹을 거 같은데.

#6 돼지, 돼지고기 잡는 거는 영장 날 때벧긴 안 허여.

@1 으, 큰일, 잔치나 영장벧기 안 허고예.

#6 잔치나 허고 영장이나벧기.

@1 우리 삼춘 노래 잘 부르니까, 이런 새 강 비영 오거나 이제 집 허거나 허는 이런 노래도 잇어?

#6 집 허는 노랜 없고.

@1 예.

#6 집 일 때 허는 노랜 없어.

@1 집 일 땐 없고.

#6 으.  
 @1 흑 불릴 때.  
 #6 흑 불릴 때는 잊주게.  
 @1 흑 불릴 땐예?  
 #6 으.  
 @1 흑 불릴 때 허는 노래나 한번 불러봅서.  
 #6 흑 불릴 때 허는 소리가?  
 @1 으.  
 #6 얼덜이여 어허 어허 어허 어 흥 어 얼덜이여도이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허  
 이야 이야동 이어 어러오우 어어어 오우우 얼얼이여. 이렇게.  
 @4 와.  
 @1 이거는 쉼 모는 저기 소리구나.  
 #6 으.  
 @1 여기에는 가사는 엇수과? 으, 가사는 엇고. 근데 너무 잘 하시지 안허멘. 목  
 청이 너무 좋으셔. 그때 우리 다른 땅 멀구헐 때, 으, 집 헐 때가 멀구? 삼춘?  
 #6 으.  
 @1 집 지을 때 땅 다질 때 멀구 헛엇잖아?  
 #6 집 질 때, 그건 멀고.  
 @1 으, 그 다음에 산 헐 땐 달고.  
 #6 으.  
 @1 달귀 짙는 거.  
 #6 멀고 허곡 멀귀 허곡.  
 @1 으, 멀, 집헐 때가 멀귀예? 멀, 멀고?  
 #6 이건, 집 헐 때는 어어허어허 멀고야 이렇게만 허는 거주게.  
 @ 산 헐 때는?  
 #6 으? 산. 그디는 멀귀허곡. 멀.  
 @1 게난 멀구허고 멀귀.  
 #6 으.  
 @1 달구 허는 건 언제 허는 거.  
 #6 으?  
 @1 달구는?  
 #6 달구는 이 집 다질 때도 허곡.  
 @1 으.  
 #6 그자 뭐 허긴 허여.  
 @1 으, 달구도. 게난 멀구허고 달귀 차이점은 뭐우파?  
 #6 멀귀는 뭐 멀리 가렌 헨 뜻이주게. 멀리 재기 가렌.

@1 음. 멀구는. 알았수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알았수다.(웃음)

@4 그럼 아까 그 달귀는 무슨 뜻이우파? 그건.

#6 이 집터를 다진덴 허는 뜻인다.

@1 으, 달귀질 헐 때 달구. 그니까 달구, 우리가 보통 달구 허면 그냥 산 헐 때만 달구질 헐다라고.

#6 아이, 건 아니고.

@1 이렇게 헛는데. 그건 아니고 집 터 다질 때도 달구렌도 허고예. 멀구. 그때 삼춘 멀구허고 달구허고 저 딱난덴 허니까 산허고.

#6 거 훗소리만 틀리주, 선창, 선소리는 마찬가지로.

@1 예.

#6 훗소리 허는 사름만 틀려.

@1 아, 훗소리가 딱난 거구나. 알았수다. 영 행 우리 사진 좀 찍으카마씨?

@2 예, 예, 예.

@1 예.

@3 새 빌 땀 호미로만 비어수과?

#6 예. 이 각단 헐 건 낮으로 밍니다.

@3 낮, 이 저.

@1 긴 거. 후리는 거.

#6 후리는 거. 저디 가민 낮 이수다.

@1 예.

@3 각단은 낮으로 허고. 새는 꼭 호미로만?

#6 예. 그건 ㅋ짱이 비어가사.

@3 아, ㅋ짱이 비어사니까.

#6 예.

@3 ㅋ짱허게 비어야 됩는구나.

@1 서른 단이 헐 바리?

#6 예.

@1 예, 알았수다. 강은에 저디 가근에 물어볼 거 잇일 거우다.

## 5. 신례리 초가 구술

## 5. 신례리 초가 구술

- 일시: 2019년 7월 22일
- 장소: 신례리 경로당
- 조사자 @1 김순자 @2 양성필 @3 고창근 @4 오경임 @5 김미진
- 제보자 #1 정기령 #2 양군필 #3 양태춘 #4 이순하 #5 양영생 #6 길석중 #7 양태길

### 5.1. 구조

#### 집 지은 경험

@1 자 이제부터 시작허쿠다예? 그 집 지엇던 경험 이신 분 누게우꽈? 직접 집 짓엇던 경험. 삼춘, 집 지엇던 경험 훈 번 곶아 줘서.

#2 집? 우리 나가 스무 설 때 집을 우리 형님허곡 꺾 짓엇는데.

@1 예.

#2 그때 사삼사건 난에 우리 집에 그 사삼사건 \*\*\*\* 부모 훈 집은 잇엇고, 그때 공비덜 완에 막 틀어 부니까.

@1 예.

#2 공천포 갓단 우린 올라 와서 놈이 집에 살다가.

@1 예.

#2 우리,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 형님허고 나허고 같이 짓어서 살았는데, 그 때가 딱 스무 설 때.

@1 스무 설 때.

#2 아, 스무 설 때.

@1 게난 그때 짓은 집이 지금 이수과?

#2 아이고, 그것도, 그때 짓언.

@1 예.

#2 건 형님 살고 그루후제 또 나 힘으로 헨에 간 돌 답고 헤연 또 나가 제대로 집을 짓언 또.

@1 예.

#2 꺾든 그 우리 형님네 집 예염에.

@1 집 예염에예.

#2 예 살다가 이젠 또, 또 흰두 설에 또 판 디 간에 슬라브집 짓고 살안.

@1 게난 처음 짓을 때는 무슨 집 짓언마썸?

#2 초집.

@1 초집 짓언예.

#2 초집.

@1 어, 스무 설에 처음 집 짓언?

#2 예.

@1 계민 두 번째는 몇 설?

#2 두 번째는 나 스물일곱에 결혼해서, 게서 스물오답에.

@1 그때 짓은 집은 몇 칸 집 짓읍데가?

#2 어?

@1 몇 칸 집 짓언?

#2 아, 그땐 삼간이엔도 허고 사간이엔도 허주. 집 흥썰 크게 허민 사간이  
고.

@1 예.

#2 족으면 삼간칩.

@1 예, 삼간집. 삼촌네는 삼간집 짓언예?

#2 어, 어.

### 집 종류

@1 예. 우리 이 신례리는데, 옛날에 집 허게 되면 어떤 집들 짓영 살았수  
가? 돌칩이우파? 흑칩이우파?

#2 흑칩, 돌 다와서 저 흑으로 다 고망 막고.

@1 고망 막고.

#2 어, 웬 둘레.

@1 어, 갱 그 밖에 둘레.

#2 어, 건 돌로 다.

@1 돌로 먼저 다 헤서예?

#2 어.

@1 그다음에 여기 지에집덜도 잇어신가마썸?

#2 으?

@1 지에, 기와집?

#2 아이, 엇엇어.

@1 기와집 이 동네는.

#2 여기 어른덜 오래 살아도 기와집 없엇어.

@1 기와집은 안 보이고예.

#5 지금 기와집 한 채 잇수다.  
 @1 지금은 현 채 잇어마썸? 지금 이신 기와집은 무슨 누구네, 일반 기와니까, 아니면은?  
 #5 일반 기와, 일반 기와.  
 @1 일반 기와예. 그믐 개인집마썸?  
 #5 개인집.  
 @1 아, 지금 현 채고, 나머지는 다 뭐 스투트집이고.  
 #5 스투트집 아니면 슬라브.  
 @1 여기 그 지붕 개량은 언제 현 거라마썸? 이 동네.  
 #2 지붕 개량 허건 지가 오래지.  
 @1 예. 그 새마을운동 허멍예.  
 #2 예.  
 #5 육십 년대부터 잇엇는데.  
 @1 예.  
 #5 뭐 그 확실헌 해는 모르겠는데, 하이튼 육십 년대부터 이 오일육 후에 헛으니깐.  
 @1 예.  
 #5 오일육이 육십일 년도, 뭐 육십이 년 잇어불엇는다.  
 @1 맞수다.  
 #5 한 육십오,칠년 이렇게 쉼 겁니다.  
 @1 오일육 이후에 지붕개량덜 허렌 현 거구나예? 게믐 이제 보통 집은 멧거리 짓엉 살아마썸?  
 #2 안팓거리덜.  
 @1 안팓거리. 게믐 안팓거리 허믐 안에 잇는 거는 무슨 집이렌 험니까?  
 #2 안거레, 밧거레, 안거레, 밧거레.  
 @1 안거레, 밧거레, 아.  
 #5 안거레는 크고.  
 @1 예.  
 #5 밧거레는 작고.  
 @1 예.  
 #2 밧거레, 일, 일부는 소 메고, 뭐, 뭐, 살림 같은 거 쯤 집어넣고.  
 #5 안거레, 밧거레, 몽크레.  
 #2 몽크레. (웃음)  
 @1 몽크레도 잇고예?



#5 계난 그자 방엿간 같은 것도 놓고.  
 @1 음 계난 보통 몽크레는 쉼막으로도 쓰지 안합니까?  
 #5 예, 예, 흥 쪽에는 쉼막, 흥 쪽에는 방에.  
 @1 어, 방엿혹 허는.  
 #5 어, 어.  
 @1 방에, 남방에 그거.  
 #3 남방에.  
 @1 그 남방에 논 디는 뭐렌 골읍니까?  
 #3 지금은, 지금은 엇지. 남방에 잇은 디 엇을 거우다.  
 #4 남방에 엇어.  
 @1 엇어예?  
 #4 엇어.  
 #3 다 풀아 먹엇지.  
 #4 풀아 먹어도 지금도 어디 신 줄을 몰라.  
 #2 엇주, 다 풀앗주.  
 #4 풀아 먹어도 사간 사름은 실 건디, 몰라.  
 #2 우리 정ㄱ레 잇어, 정ㄱ레.  
 @1 어, 삼춘네 정ㄱ레 이수가?  
 #2 예, 영 영 돌리는 정ㄱ레. (웃음)

## 집 짓기

@1 예, 나중에 삼춘 이름 저기 헤갓고 집이 강 정ㄱ레 사진 하나 찍어사쿠다예. 그다음에 삼춘 그 집 짓을 때, 삼간집 지엿던 헛잖아예. 땅 다지는 것부터 시작행은에 돌 담고, 그다음에.  
 #2 땅은 올리지 안행 기자 주춧돌.  
 @1 예.  
 #2 주춧돌을 싱거서 그디 지둥해서 허는 거.  
 @1 계문 그.  
 #2 땅은 고를 거 엇곡.  
 @1 고를 거 엇고예.  
 #2 으, 웨냐문 펜펜헌. 거의 펜펜허주.  
 @1 삼간집 지을 때 주춧돌 헛던 것부터 시작행은에, 그 줄 일영에 집 다 멜 때까지 쪽 굴아줘 봅서.  
 #2 (웃음)

@1 맨, 맨 처음 허는 건 무시거봐?

#2 처음?

### 주춧돌

@1 예. 집 짓젠 허민 맨 처음.

#2 맨 첫째 주춧돌이주게. 주춧돌이 있어야주.

@1 삼간집 허민 주춧돌이 몇 개 필요해마썸?

#2 주춧돌 네 개는 있어야 됴.

@1 네 개.

#2 특히.

@1 건 어디 어디 놓는 거봐?

#2 요 사각, 저 마루, 마리 이건 또 그땐 상방이라고, 상방.

@1 상방.

#2 마루?라 상방.

@1 음.

#2 겐디 딱 허민 포 허잡아 포.

@1 예.

#2 포 허는 디가 주춧돌 네 개를 꼭 헤야 됴어. 그 사각 외에도 잇주마는  
으답 개, 원칙은 으답 겐디.

@1 예.

#2 우선 네 개 필요허주, 주춧돌.

@1 거난 포 밑에 받치젠 허면은 주춧돌 네 개는.

#2 예.

@1 큰 게 들어가는 거예?

#2 예.

@1 그다음 외로 하면은 여덟 개.

#2 여덟 개, 또 바깥디로 주춧돌이.

@1 아.

#2 계난 주춧돌 많이 들어.

@1 많이 들어예.

#2 으. 그거 다 숫자대로 놓젠 허민 계산헤야 됴어.

@1 계산헤야 됴고.

#2 (웃음)

## 기둥

@1 어, 주춧돌 그러면 이제 하고, 그다음 기둥 허젠 허면은 어떻 준비해수  
가?

#2 기둥 네 개는 좋은 지등을 사용해야주.

@1 어떤 나무로?

#2 이렇게 그 사각, 나무를 까까서 사각을 만들고.

@1 예.

#2 고사리를 만들어야. 여긔 말로 고사리라고.

@1 예, 고사릿줄.

#2 이렇게 벌어지게 해서 나무를, 그때는 못이 없어요.

@1 예.

#2 못이 없으니까 그걸 접저. 이렇게 딱 뭐 해서 고사리 짜서 딱 물려, 옛날  
은.

@1 음, 그러면 고사리지등 허는 거는 뭐에 물리는 거우파? 이게. 고사리지  
등 허면.

#2 고사리지등 포, 포.

@1 포에.

#2 예.

@1 게문 포도 고사리로 멘들어야겠네?

#2 아, 포에는 특을 만들어야 돼 특.

@1 아.

#5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딱 갖다 물리야 돼. 물리니까 특저 가지고  
딱 갖다 물려.

#2 딱 갖다 물리면 까딱 안 해.

@1 응, 거난 지등에만, 폿지등에만.

#2 응, 폿지등이만.

@1 폿지등에는 고사리를 멘드는 거라예, 예, 예. 쟁 그 주춧돌 행은에 폿지  
등 세왕.

#2 응.

## 포와 도리

@1 그다음엔 헐 일이 뭐우파?

#2 중, 포가 있어야 돼 포.

@1 예. 포가.

#2 \*\*\* 포, 그다음에 중포.  
 @1 중포.  
 #2 중포. 해근에 중포 우에 저 상므르라고 놔, 상므르.  
 @1 상므르.  
 #2 응, 상므를 놓메.  
 @1 그러면 그 대들포는 뭐우짜?  
 #2 대들포?  
 @1 대들보.  
 #2 대들포가 그 대들포가 중포일 건디, 중포 위에 그.  
 #4 대정포는 상므르 영 받후는 거, 대정포. 상므르 영 놓는 게.  
 #2 영 헤영 거 판자 닳은 거로 행 요만이.  
 #5 \*\*\* 허는 게 대정포.  
 @1 대들포. 아, 상므르 가운데 받쳐 주는 게. 대들포라예, 대들포.  
 #2 상므르 딱 허게.  
 @1 음, 대들포 이렇게 받치고, 그다음 헐 일이 뭐 이수가?  
 #2 도리.  
 @1 도리, 으.  
 #2 도리.  
 @1 도리는 멧 개가 필요헌 겨우짜?  
 #2 아, 도리가 으라 개주. (웃음) 중포, 중도리, 하도리 거 뭐. 도리 거 으라 개라. (웃음)  
 @1 게문예, 가운데 이렇게 허면 상므르.  
 #2 그 제일 가에 허는 것이 웨도리고.  
 @1 예, 도리가 하나 둘. 상므르 다음에면 중므르도 이실 거 아니짜?  
 #2 어, 중므르, 중므르허고. 대들포 예염에 거 허고 세 군데.  
 @1 세 군데.  
 #2 어, 중므르.  
 @1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놓여 잇는 게 중도리.  
 #2 예.  
 @1 그다음에 그 밖으로 현 게 하도리.  
 #2 예, 웨도리라고.  
 @1 여기는 웨도리렌 굴읍니까? 젤 밖이라고.  
 #2 웨, 웨에 잇으니깐. 웨도리.  
 @1 아, 웨도리에?

#4 도리가 총계 멧 개가 들어가냐고 허면.  
 @1 응.  
 #4 밧도리, 중도리 또 중도리 잇으면.  
 #2 세 개가 들어가.  
 #4 여섯 개가 들어가. 영 서리 받후는 게.  
 @1 서리 받후는 게.  
 #2 어, 돌아가면 다.  
 #4 다 허젠 허면 열두 개씩은 들어가야, 돌아가는 게.  
 @1 네 군데니까.  
 #4 어, 서른으섯 개 들어가요, 도리가.  
 @1 아, 도리만예?  
 #2 \*\* 허젠 허민 하영 들어. 집 짓젠 허민 하영 들어가주.  
 @1 아까 웨도리도 잇지마는 밧도리렌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온 겨우  
 다. 밧도리.  
 #2 (웃음) 밧도리.  
 @1 그다음에 도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곱은도리는 뭐우짜?  
 #2 곱은도리.  
 #5 그거는 부억에, 부억에 이렇게 오그려 가지고 그냥 앓다 대가지고 게 곱  
 은포, 곱은포 허는데 이게 나무 자체가.  
 @1 예.  
 #5 나무 자체가 그걸 찾아가지고 꼬부라진 놈.  
 @1 예.  
 #5 해서 그 곱은도리라고.  
 #2 곱은도리란 건 밖에 조금 집은 짓어놔 밖에 이렇게 내와.  
 #5 거의 부억이나.  
 @1 예.  
 #2 집 바깥드레 영 또 내와, 내운 게 곱은도리렌 허주.  
 @1 음. 밖으로 나온 거.  
 #2 밖으로, 집을 딱 헤 낳 요렇게 곱앙, 곱아근에 빙허게 또 넓게 허는 거.  
 #4 즉 말허민은 영 행 카보해서 영 걸치는 거.  
 @1 예.  
 #2 난간, 난간 만들젠 허민.  
 #4 카보지면서 요영 헌 거 영 걸친 거라 카보진 디서.  
 @1 예. 아까 부억에서.

#4 이추룩헌 디서 허면은 요영 걸치는 거.

@1 예, 예. 옆으로예. 그 여기 저 양금석 선생네 부엌에도 보난 그런 거 이십디다예, 그게 곱은포.

#5 곱은포.

@1 그다음에 포가 있고, 도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머르 이렇게 받치는 작은 그 동자?

#2 으, 으 동자.

@1 예, 동자는 뭐우짜?

#4 동자엔 헌 건 그 포지등 위에 포를 세와 가지고, 포 우에 다시 또 작은 포가 있어.

@1 예.

#4 그거 받후는 거. 요영 행 받후면 요 우에 요만이 받후 때 요걸 요영 헤사 이 우트레 올려 놓는 거. 요만이 헌 게.

#3 집을 딱 보멍 굴아사 잘 굴아질 건디.

#5 상머른 높고 중, 저 포는 족고 허니까 하난 노프게 허고 하난 낮게 헤가지고 이렇게 각이 뒤잖아. 여기 영.

@1 예.

#5 이렇게, 이렇게 헌 말을 얘기허는 거지.

#4 츠츠츠츠 노프게 허는 거. 계단 올라가는 거.

#5 상머른 노프고 \*\*\*.

#2 집을 직접 보멍 설명헬시믄 우리가 좋은디.

@1 예, 맞수다. 험 번 성읍 험 번 모성 가야 뒤쿠다.

#2 (웃음)

#4 아이고, 머리 아파. 초가집.

#5 포가 다 올라난 다음에는 서까래가 올릴 거 아니라고?

## 서리

@1 예. 계난예 포가 험 다음에 그 양쪽 지등 저 모서리에는 뭐우짜? 서리 거는 거?

#4 서리.

@1 그다음 서리 걸어얄 거 아니짜?

#5 서까래가 서리.

@1 서리.

#2 서까래, 서리.

@1 서리, 서리는 보통 삼간집 허면 멧 개나 들어마썸?

#2 육십 개 이상.

#4 저거 저, 일흔두 개.

@1 일흔두 개.

#2 육십 개 이상.

#4 일흔두 개.

@1 아.

#2 집이 여러 가지.

#4 일흔 두 개.

@1 그냥 보통 그때는 무슨 낭으로 서리는 혜수가?

#4 아무 낭이나 뭐.

#2 소나무나 아무 낭.

#4 굳작헌 거, 7노롱헌 거 그냥 걸치는 거난.

@1 음, 서리 하고.

#4 낭 일름 하.

#5 이렇게 곧은 거. 곧은 것만 훑았으니까 나무를.

#2 대부분 소나무 많이 혜. 우리는 그때는 소나무가 대부분. \

## 서슬목

@1 응. 그렇게 해서 이제 지등을 만들면, 서리 걸고, 서리 건 다음에 허는 일은 뭐우짜?

#4 서슬목.

@1 서슬?

#4 서슬목.

@1 서슬목.

#4 여꺼사 우트레 흑을 놀 거난에. (웃음)

#5 흑받침.

#2 거 놔근에 영 바쳐야 그 우에 흑을 놓는 거야.

#5 거 해야 흑 갖다.

@1 서슬목에 대허영 좀 곁아줘 봅서. 서슬목은 어떤 식으로 이제 헛던.

#2 나무, 나무로 존존헌 거 해서 거 깨서.

@1 예.

#2 것을 이 놈으 것을 다 여꺼.

@1 음.

#2 서리레 헤영 딱 허게, 저 중간으로 무시거 노 놓고 해서 그레 놓아근에  
흐나흐나 전부 서꺼 지각허게, 지각허게 양쪽 네 군데 전부, 서꺼요.

@1 음.

#2 서슬목을 깨어서.

@1 서슬목을 깨.

#2 음 깨근에 막 7늘게 헤근에.

@1 게난 서슬 하는 그 낭을.

#2 예, 목.

@1 서슬목이렌 허는구나.

#2 예, 서슬.

@1 게문 그거 여끝 때는 뭘로 여끝니까?

#2 영, 노, 노로.

@1 노로.

#2 어 이제 옛날에 기자 신사라라 헤영 신사라로 행 꿰영도 헛고, 노 꼬양  
도 헛고.

@1 예.

#2 건 여러 가지, 꼭으로도 헛고.

#3 칙, 칙.

@1 칙.

#2 칙.

@1 예. 근데 그 서슬목 헛 때 보니까 다른 동네 같은 경우는 저기 왕대도  
헛덴 허고.

#2 아, 왕대 헤근에 왕대도 헛주.

#5 왕대 잇는 디 왕대가 최고.

@1 왕대가 최고파?

#3 왕대가 어디 서?

#2 왕대로 헛 건 좀 잇는 디우다, 잇는 디라.

#5 보통 칙이 아니라.

#2 왕대 값이 얼마나 갖다고. (웃음)

#3 그거 없는 사름은 그런 거 못 허여.

@1 게문 삼춘네는 무슨 낭 깽 헛디가?

#2 아이, 잡남덜 헤다근에 잡남.

@1 잡남 헤당은에.

#2 어. 잡남.



#5 거 베당 자귀로 닥닥허멍 깨근에 거 싹 끝아난 다음에 흑질을 허거든.

### 흑질, 고뎃흑

@1 음. 게문예, 서슬목 다 여꺼근에 이제 지붕에 영 더플 거 아니파예?

#2 어, 그때 흑으로.

@1 게문 그 우에 흑 더프는 건 뭐렌 곶아?

#2 흑.

#5 흑질.

#2 흑질, 흑질이라고.

@1 흑질허는데 그 서슬목에 올리는 흑?라 무슨 흑헉니까?

#2 고뎃흑.

@1 예, 고뎃흑.

#2 고뎃흑.

@1 고데 올린덴 허잡아예.

#2 (웃음) 고뎃흑.

@1 고데 올리는 거예. 고데 다허면 이게 잠잠헤지면 그 다음에 허는 거는?  
고뎃흑 헉 다음에 뭐 헤?

#5 거 헤난 다음에는 집이는 거지.

### 집 일기

@1 집 이는 거예.

#2 \*\*\* 싹 헤근에 싹 골라놔근에 허곡.

#5 처음은 그신새.

@1 예. 거난 시작할 때도 그신새로 먼저 일어놔마씨?

#2 어, 그렇지. 건 초벌 저, 새가 귀허니까.

#5 또 흑을 사용할 수 잇도록 만들 때도 그슨새.

@1 아.

#5 그거로 밟아가지고 흑허고 버무려.

@1 예.

#5 경 행 올려가지고 지붕에.

@1 고뎃흑 헉 때도.

#2 그신새 놔.

@1 그신새.

#5 그신새.

@1 그 그신새 놓는 거를 무신거 논덴 험니까?  
 #2 그것이 알고 보면 뭐엔 허는 거라. (웃음)  
 #4 미신거?  
 #2 그신새 험 거.  
 #4 어?  
 @1 무사 흑질허젠 허면.  
 #5 흑질험 때. 흑 불릴 때.  
 @1 흑에다가 나룩짚도 놓곡.  
 #2 예.  
 @1 허잡아예.  
 #4 수세 놔, 수세.  
 #5 수세.  
 #2 (웃음) 알아지크라.  
 @1 예, 수세 놔야만이 흑이 돌에 부틀 거 아니라예?  
 #4 게, 그 범벅도 허젠 허민 범벅도 헤 먹젠 허민 수세 놔야 범벅이.  
 #2 (웃음) 수세.  
 @1 신레리 말은 몰라부난예. 신레리 말 조사허는 거난. 그다음에 이제 고뎛  
 흑 올리고, 아까 그신새로 험 불 일어낭예.  
 #2 어.  
 @1 그다음에는 뭐 헤? 그신새 올린 다음에는.  
 #5 그 준비가 똬으면은.  
 #2 그다음은 낀자면은, 낀자면은 그때 새로 제라험 새로.  
 #5 준비가 똬면은 한 며칠 얼마 잇다가.  
 @1 예.  
 #5 좋은 새로 일곡.  
 @1 예.  
 #5 엇이믄 기신새로 다시 더끄고.  
 @1 아. 엇이민 기신새로 더끄고예.  
 #2 아, 새로, 새로.  
 @1 다른 데 가난 그 새로 덮기 전에예, 그 어웁으로도 한 불 영 인덴 험디  
 다.  
 #2 어웁. 게난 어웁으로도 똬고게. 어웁 엇이민.  
 #5 어웁이 아니고, 어웁이 허는데 어디 허느냐. 제일 가쟁이.  
 @1 응.

#5 제일 끝에.  
 @1 가쟁이만?  
 #5 가쟁이만 싸악 돌아가면서.  
 @1 아.  
 #5 사각.  
 @1 사각으로예.  
 #5 그러면 좀 보기도 좋곡 그렇게.  
 #2 어웁은 어웁 신 디 저 대부분 어웁은 안 해도 뵤고.  
 @1 우리 양금석 선생님네 보난 거긴 대낭으로 헤십디다.  
 #2 대개 저 신레리에선 어웁으로 헨 이는 사름 엇을 거라.  
 #5 대가 잇으면.  
 @1 수리대로?  
 #2 어?  
 #5 수리대.  
 #2 어, 수리대.  
 @1 수리대로 영 헤십디다.  
 #5 대가 잇으면 그개 잇는데, 없으니깐.  
 #2 발, 발이라고 발.  
 @1 발.  
 #2 딱 발이라고 얘기헤 이제.  
 #5 발 멘들어서 싹 사각으로.  
 #2 여기에선 근즈리 헤다근예. 싸리, 싸리.  
 @1 싸리.  
 #2 어, 싸리 ㄱ튼 거나 ㄱ는 대로나 헤근예 여꺼서 쪽허게 가에만 허는 발.  
 @1 아, 게문 이 동네 근자리가 하나수과?  
 #2 근즈리 산에 강 근즈리도 허고.  
 #5 근즈리 산에 가민.  
 @1 어.  
 #2 근즈리 엇이민 나무.  
 @1 그자 잡낭을 깨근예.  
 #2 나무 질긴 나무, 가는 나무덜 헤다근예 허고.  
 #5 그때도 또 깨멍 그렇게 헛어.  
 @1 예, 낭으로 깨어근예예. 아 근자리를 헛덴 저기 발 짜는 거는 처음 들엄  
 수다.

#2 (웃음) 발, 발.  
 @1 발허고예, 게난 그 발은 지붕까지는 안 가는 거 아니라예.  
 #2 응, 그 가에만, 가에만.  
 #5 사각으로 가에만.  
 #2 이거 ㅋ짱허게.  
 @1 하기 위해서?  
 #2 어, 허기 위해서.  
 @1 예.  
 #2 경 행 딱딱 끊어근에.  
 @1 그러면 발을 한번 딱 쳐서 마지막으로 새를 일 거 아니라예? 삼간집 일  
 젼허민 새는 어느 정도 들어마씨?  
 #2 새 하여튼.  
 #5 보통 백 단 이상.  
 #2 세 바리 이상.  
 #5 백 단 이상 들어가주.  
 #4 집도 큰 집도 잇곡 족은 초가집 집 이시난.  
 #2 (웃음)  
 #4 족은 초가집으로는 백 단.  
 @1 예.  
 #4 큰 초가집이는.  
 #2 백스무 단.  
 #4 네 바리 든다고 헤 가지고 백이십 단.  
 @1 어. 그러면 삼춘, 훈 바리가 서른 몫?  
 #4 서른 단.  
 @1 서른 단예? 어.  
 #4 게난 네 바리 들어야 뉘, 네 바리가.  
 @1 여기는 새 비젠 허면은 무슨 걸로 비어수과?  
 #4 이거.  
 @1 호미로? 줌호미로?  
 #2 줌호미.  
 #5 저기는 낮인데, 여긴 줌호미로.  
 @1 아, 여기는 낮 안 쓸니까?  
 #5 낮 안 써.  
 @1 출 빌 때도 여긴 낮 안 쓰고?

#5 호미로.  
#2 저기 동쪽더레 가면 낮을 쓰는데.  
@1 예게. 성산은 경 허는다.  
#4 아니 동이도.  
@1 응.  
#4 새는 좀호미로 비어야 뉘. 웨 그러냐면 서터져부난 집을 못 일거든.  
#2 (웃음)  
@1 맞수다, 출 후릴 때만.  
#4 이걸 ㅋ짱허게 헤사 집을 일기 따문에.  
@1 예.  
#2 좀호미로.  
#4 좀호미로.  
@1 아, 여기는 아예 출 빌 때도 낮을 안 하고.  
#2 응, 출 비는 것도 좀호미로.  
#5 아이, 출 빌 때도 좀호미.  
@1 예.  
#2 낮으로 허젠 허믄 밧도 좋아야 뉘고.  
@1 예, 게믄 그 새 행 오젠 허면, 그 어느 철에 새 비어마씨? 여긴.  
#2 새, 동짓덜.  
#5 십이월.  
#2 동짓덜.  
@1 동짓덜.  
#4 돛걸름 밧 끝나면 비주, 뉘.  
#5 하이튼 십이월, 십이월.  
@1 무슨 밧 끝나면?  
#5 돛걸름밧.  
#4 돛걸름밧 끝나민.  
@1 돛걸름밧 끝나민?  
#5 보리 파종.  
@1 어, 거난 그걸 저기 돛걸름밧이렌 허는구나. 보리.  
#4 어, 보리 파종. 돛걸름밧 끝나민.  
@1 어.  
#2 (웃음)  
@1 게믄 이제 보리 가는 거를 돛걸름밧이렌 헉디가? 옛날엔?

#2 예.

#5 돼지걸름으로.

#2 응. 돼지똥으로 해서 보리 서꺼서 갈기 때문에 똥걸름밭이라고.

@1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붕을 일 거 아니파예? 지붕 이제 일젠 허면 또 줄을 낚살 거라예?

#2 예, 줄.

## 튀기

@1 그 줄 놓는 거는 이제 잇다가 이제 허크라예? 보통 이제 그, 그거는 지붕이고. 그다음에 이 안에들은.

#2 튀기.

@1 튀기, 그 튀기를 헨 거 곱아. 어디 튀기들을 허는 건지?

#2 튀기는 각 방마다 튀기 해야주.

@1 각 방마다?

#2 으 예, 경계선에 튀기허는 거.

@1 계난 우리 벽에.

#2 어.

@1 이를테면 벽에 이제 튀기허는 거 아니우파예? 예. 계난 튀기 헨 때는 어떤 식으로 튀기 हे수과?

#2 그거 튀기.

@1 무슨 낭?

#2 것도 뭐 짜야 튀. 이렇게 영 좀 대나무나 헤근에 세와근에 또 ?로 헤근에 여까야 튀여.

@1 예.

#2 이만씩 고망 나게끔. 쟁 행 양쪽으로 그 첨.

@1 흑질하고.

#2 응, 해서, 밀면서.

#4 걸 할라고 하면은 부락, 부락분들을 동원헤 가지고. 와가지고 속아줍서 헤 가지고.

#2 하루에 멱쳐, 하루에.

@1 아.

#4 경 헤야 즉 말허면 서로 협조.

@1 예.

#4 협조라고 할까, 오랑 협조헤 주는 거.

#2 흑질한다고 흑질.

@1 흑질예.

#4 흑질할 때 물을 문힐라고 하면은 아줌마들이 물허벅들 지고. 베로 저가지고, 와가지고 협조로 문, \*\*대엇물, 대엇물.

@1 예.

#4 저다근에 거레 풍풍풍풍 비와주면은 흑 버무려 가지고 협조 도와주러 온분들이 멘 오라근에.

#5 상부상조허는 거주.

@1 예. 예. 그 순서가 틀려붙어신디예. 아까 지붕부터 올려붙엇수다마는.

#2 (웃음)

### 축담

@1 벽은 어떻 쌓안마씨? 이제, 벽.

#2 벽?

@1 으, 축담.

#2 축담?

@1 예.

#2 아, 축담. 건 축담은 첨 담 허는 디도 잇주만은 축담은.

@1 예.

#2 축담을 허는 거는. 돌 멩당이 놓곡.

@1 예.

#2 흑 놓곡. 흑 흰 번 놓곡, 돌 놓고 허면서 축 쌓수다[쌓수다].

@1 축 쌓 때는 흑을 게문 한 번.

#5 한 도리.

#2 돌 놓곡, 흑 놓곡.

@1 음.

#5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여.

@1 예.

#5 저, 흑 하나, 돌 흰 하나 해근에.

@1 예, 보통 그때는 돌도 깡은에 허는 사람도 잇주만.

#2 아이고, 저 돌은 깨도 내중에 저거 흑썰씩 살아져가난. (웃음)

@1 아. 중간에, 옛날은 그대로예.

#2 어.

@1 예, 그추룩 해근에 축 멘들문.

#2 어?

@1 축, 축담 다올 거 아니우파예? 담 다으면. 안에는 뭐부터 만듭니까? 이제 방 꾸미고, 뭐 구들예, 여기.

#2 어.

@1 구들 꾸미고, 상방 꾸미고 허는 거는 언제 허여?

#2 아, 그땐 직접 헤가는 거지.

#5 같이들 허지. 사람들 많이 잇으니까.

#2 건 흑질헤 낱 그다음은 흑으로 촛흑 헤다근에 짝 허게 앙토 까는 \*\*밧겨.

@1 음.

#1 일 메다 가까이는 밑으로는 나무판자로 헤서 막아 놓고.

@1 예.

#1 그 우에는.

#2 튼기, 튼기.

@1 튼기.

#1 튼기로 헤서 여꺼가지고.

#2 빈지, 빈지라고 해서.

#5 빈지판.

@1 예.

#2 빈지.

@1 빈지.

#2 빈지 헤놔근에 그 우에 튼기 허고.

#1 그래서 저 흑질을 흐는 거주.

@1 게난예.

#5 빈지판, 백.

@1 백.

#5 백이 아니라 뭇엔 무시거 거 뵈고, 백선.

@1 백선.

#5 백선, 백선과 백선 사이에.

#2 빈지, 빈지.

#5 가풀목 하나씩 구멍 뚫러다 놔가지고 그다음은 여끄는 거여.

@1 예.

#5 그게 뭇야 튼기가 뵈는 거지.

@1 예. 그니까 여기는 보니까. 아까 양금석 선생네 집도 보니까. 우리 저쪽



서쪽에는 만약 벽허면은 이렇게 다예, 허는데 여기는 다 낭마다 이렇게 칸 갈르면.

#2 아, 이렇게.

@1 예.

#2 아, 것이 빈지라고 빈지.

@1 그게 아까 백선.

#4 백선.

#2 백선.

@1 백선이잖아예. 빈지는 그 밑에 낭으로 헤갓고.

#5 빈지 나무.

@1 이렇게 댄 거고.

#5 판자.

@1 예, 판자고. 그 빈지 밑에도 이렇게 저런 식으로 댄 거 뭐렌 험니까?

#2 귀클.

@1 귀클.

#5 귀클, 귀클.

@1 귀클헤 갓고.

#2 (웃음)

@1 계난 귀클 우에가 빈지널 넣고.

#2 예.

@1 그다음에 그 위에 우리 백선과 백선 사이에가 튼기.

#2 예.

#5 튼긴데.

#2 튼기.

#5 ㄱ로, ㄱ로대가 뭐지, 모르겠어. 빈지판에.

#2 갈목.

#5 빈지판에 콕허게 물리는 거.

@1 어.

#2 무신 목?

@1 ㄱ른목?

#2 가풀목, 가풀목.

#5 가풀목인가.

@1 가풀목.

#2 어, 가풀목.

@1 가풀목도 잇고 가풀목은 세로우파?  
#2 영 현 것이 가풀목.  
@1 가로 현 게?  
#5 가로 탁 막은 거. 빈지판 우에.  
#2 백선 헨에 우에 저 것이 판지 현 위에 박는 것이 백선, 저 가풀목.  
#5 빈지판을 더끄는 거.  
@1 빈지판을 위에 이렇게 더프는 게.  
#2 어.  
@1 가풀목이우파, 아.  
#2 (웃음)  
@1 게문 가풀목 허면 그 저기 튀기힐 때도 이렇게 왼쪽 세로로 나와잇는,  
웨 그건?  
#5 세로는 구멍이 안 돌르고 가로 허는 디를 구멍 한 쪽에 다섯 개, 여섯  
개 돌람실 거라.  
@1 예.  
#5 갱행 영 세우는 건데.  
@1 세우잖아예? 영 행 세와근에 이제 여끄는 거니까. 아, 가풀목이 빈지 위  
에 빈짓널 위에 더프는 게 가풀목.  
#2 빈지 우에 고망을 툐랴요, 고망.  
#4 빈지 우에가 아니고 빈지판.  
@1 예.  
#2 요만씩 요만씩 고망 툐라.  
@1 예.  
#2 이렇게 그 나물 헤영 그레 박아.  
@1 예.  
#2 영 흐썰 \*\*끄듯허영 박아근에 거기에 해서.  
#5 세로로 헤 가지고.  
#2 그디 해서 튀기를 만들어.  
#5 서슬, 서슬해가는 거지.  
@1 예, 예, 예.  
#2 (웃음)  
@1 벽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말하면은 아까 튀기.  
#2 예, 튀기.  
@1 튀기 해서, 튀기를 해야 벽이 다 생기는 거 아니라예?

#2 어.

@1 예, 계민 그게 구들도 그렇고, 마라도.

#2 어.

#5 이런 디 경계선에는 다 그거.

@1 아, 경계선엔 다.

#5 문을 제외하고는.

#2 경계선은 전부.

@1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튀기 허멍은에 방도 꾸미고.

#5 방도 뒤고.

@1 어.

#5 경계선도 뒤고.

### 구들, 고팡, 삼방, 정지

@1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간집을, 삼춘네 집 짓을 때. 그 맨 왼쪽에는 무신거? 그 큰구들은 어느 쪽에 헉니까?

#5 거 큰구들은 보통은 부엌 반대편에 허여.

@1 부엌 반대편에가 큰구들.

#5 큰구들.

@1 예.

#5 게꼭 그 부엌 옆에 잇는 게 작은구들.

#2 부엌 엠에는 작은구들.

@1 예. 부엌 옆에가 작은구들예. 큰구들 옆에는 무신거 이수과?

#5 큰구들 옆이는 고팡.

#2 고팡.

@1 여기 고팡헉니까? 궤팡헉니까?

#2 고팡이라고 허고, 고팡. 여깃말론 고팡.

#5 여기선 고팡.

@1 고팡 아까 삼춘 서쪽이니깐 궤팡.

#5 고팡이란 게 거 한자로.

#2 저 서이말 허꼭 여깃말도 틀려.

@1 맞수다.

#5 그게 아니라.

#2 제주도도 틀려, 밧도 이령이엔 허고. (웃음)

#5 고팡이란 건 한자로 창고 고자 쓰고 방 방자 썩 고팡이라.

@1 예, 고방이우다. 예.

#2 곡식덜 농곡.

#5 우리가 발음상에 고팡, 고팡 헤부는 거주.

@1 맞수다, 맞수다. 고팡. 자 게문 고팡을 옆에 놓고. 가운데는.

#5 삼방.

#2 삼방.

#5 다 정해진 거니까.

@1 예. 삼방, 삼방 이제 그 오른쪽에는 정지.

#2 정지.

#5 게 삼방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 되는 거지.

#2 (웃음) 여러 가지주게, 지역에 따라.

@1 어쨌든 큰구들 맞은편에가 정지, 예?

#5 응.

@1 그다음에 정지 옆에가 작은구들.

#5 작은구들.

## 문

@1 음, 그니까 여기는 그쪽 양금석 선생님 보니까 문들을 막 다 들었더라고  
예? 문들 경 하영 돌아수과?

#2 어, 문이 정젯문이 허고.

#5 정젯문허곡.

#2 대문허고.

@1 예.

#2 중창문허고.

@1 음.

#5 창문, 대문 잇거든, 그디.

#2 여러 가지라. 하이고 복합문.

#5 삼방에도 뒷문도 잇곡.

#2 뒷문허곡.

#5 부역에 셋문 그.

@1 셋문, 셋문 잇고.

#5 고팡문도 잇곡.

@1 예.

#5 방문이 잇고 허니까 상당히 많은 거지.

#2 뒷문까지 막 해주. 고팡문도 뒷문 잇곡.  
 @1 고팡문도 여기 뒷문 잇더라예.  
 #5 고팡문도 뒷문 잇곡.  
 @1 근데 고팡문.  
 #2 삼방문에 뒷문도 잇곡.  
 @1 저쪽 시에나 이런 디 가면예 고팡문에 뒷문 안 하고.  
 #2 창굼[창꿈].  
 @1 창굼.  
 #2 창굼, 어.  
 @1 창굼 허잖아예. 여기도 창굼 말고 그 뒷문도 헤십디다. 고팡 뒷문.  
 #3 예, 뒷문 거의다 헤.  
 @1 어, 거의다 헤예? 이 동네는예?  
 #4 말씀하는 도중인디 나 한마디 하겠는디.  
 @1 예.  
 #4 여기서 설명을 들었으면은 초가집 잇는 데 가 가지고 이분을 데령 가가지고 요것은 상무르, 요것은 백선. 요것은 나 이걸 일일이 알아야, 좁자도 머리에 딱 차 잇지. 여기서 들은 글만 봐가지고 모른다고. 요건 뭣 요건 뭣. 딱딱 들어놔야 기억이.  
 #2 알았수다게. 알았 왕 질문 허는 거 아니우짜? (웃음)  
 @1 우리 기본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한번은 가서 이걸 뭣짱? 헤근에 들어보쿠다. 우리 삼춘.  
 #4 그렇게 해야 머리에 들어간다고.  
 @1 예, 맞수다. 그런 게 중요한 거예. 예, 저 그다음에 그 마릿문하면 아까 이제 그 여기는 보니까, 마루에 부섭도 박아놔십디다.  
 #6 응, 그렇지.  
 #2 무시거?  
 #6 부섭 말이여.  
 #2 아, 부섭?  
 @1 예.  
 #2 부섭, 화로, 화로.  
 @1 집집마다 부섭헤수과? 아니면 어뎡 헤수과?  
 #4 집집마다 잇어야 겨울엔 그것에 불살랑. 맥도 존곡 멍석도 존고.  
 #3 집집마다 다 잇어야지.  
 #4 놀라면 영 앓고.

#2 부섭은 다 있어야.  
#4 그건 다 있어야 돼주.  
#1 난 가보로 딱 잘 보관행 놔뒀저.  
@1 아, 부섭 놔뒀수과? 어. 그 저 돌에 박은 거예?  
#1 어.  
@1 웨냐면 어떤 딴 가면 마리에 안 행. 우리 서쪽은 부섭을 안 놓거든예.  
마리에.  
#2 대정더레 가면.  
@1 예.  
#2 아랫담에 그 영 헤근에 영 담다아근에 불 살르는 디도 잇꼭. 여러 가지  
여, 거 마루. (웃음)  
@1 예, 이쪽은 와 보니까 그 마리에 아예 박아놨더라고예?  
#2 어.  
@1 그걸 부섭 박은덴 허더라고양?  
#2 응, 박아. 거의 박아.  
@1 다 박고예.  
#2 견디.  
@1 그렇게 하는데 그 문, 이렇게 아까 대문이 두 개 아니파양?  
#2 예.  
#6 대문, 창문.  
#2 창문.  
@1 그거는 대문이렌 허고. 그 옆에 문은?  
#2 작은문, 창문.  
@1 창문이렌 헤예.  
#3 창문.  
#4 창문은 어른 앓는, 어른 앓는 문이고.  
@1 예.  
#4 또 창문은 소님덜 들락날락허는 문이고.  
@1 대문은.  
#2 대문.  
#1 대문이 그렇고.  
#4 창문은 어른들 앓는 방이고 어험, 영.  
@1 어험.  
#4 어험 영 앓는.

#1 창문으론 아무나 못 댕겨, 거기.  
 @1 예.  
 #2 창문, 창문으론 사람 안 댕겨.  
 @1 근데 또 대문도 여자들은 또 안 댕긴덴 험디다.  
 #2 어.  
 #4 어, 여자들은 함부로 못 댕기주.  
 #1 정제로만, 정제로만 댕겨.  
 @1 여자들은 정제로 댕기고.  
 #4 부억문으로, 부억문으로만 댕기주.  
 #2 절대 외래 사람 와도 부억으로 들어가지, 창문으론 여잔 못 댕겨.  
 #4 경 허민 요놈.  
 #2 (웃음)  
 #4 요놈 허메.  
 #1 그건 이 동네가 철저해.  
 @1 이 동네가 아, 그 엄격했구나예?  
 #2 어, 여기 양반촌이라고.  
 @1 예.  
 #2 옛날 어른들이.  
 @1 계난 삼촌 아까, 창문이렌 험 거 할아버지네도 창문이렌 골읍디가?  
 #2 어, 창문.  
 @1 근데 거긴 창이 아니라 이제 대문처럼 널문으로 댕어 잇지 았우꽈?  
 #2 대문?  
 @1 대문 옆이 것도 널문으로, 창문도 널문으로 댕신디?  
 #2 아, 널창으로 댕긴 댕 잇지.  
 @1 아, 그냥 널창이엔 허는구나예.  
 #2 게도 널창문 잇어.  
 @1 계난 그거를 호령창이렌도 험디다?  
 #2 어, 호령창문 맞추게, 호령. 근디 거기서 호령허는 거지.  
 @1 어.  
 #2 그게 어른 앓아근에 기자 호령.  
 #4 호령창.  
 @1 호령창. 계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창문이렌도 골멍, 곤곡. 그냥 호령창이렌도 골앗구나예.  
 #2 호령창문이라고. (웃음)

#6 여기선 호령창문이렌 안 골았어.  
 @1 그냥 여기서는 창문이렌?  
 #5 그 창문 앞에 제일 나이가 든 어르신이 앉았어. 게난 작데기 이 담베통 잇잖아요.  
 @1 예.  
 #5 그거 물고 거기 탁탁 두드려서 호령헛단 말로 호령창.  
 #2 기자 경 허는 거주게.  
 #5 창문이.  
 @1 기냥 말로는 창문이엇던 거라예.  
 #2 응, 창문이주게.  
 @1 게난 비유적으로 해서 호령창이라고.  
 #2 거 호령창문 \*\*서 말 골아본 거주게.  
 #5 담벳통으로 따따닥 두드려서 \*\*\*.  
 #2 어른들 그냥 호령한다고 해서 호령창이엔 헤 분 거.  
 @1 아니 웨냐하면 이제 저희들도 정확하게 이제 기록을 해야 됩니까. 해서 그래서 제가 여쭙본 거거든요. 경허고 이제 방문 이제 하는데, 방문은 널문이 아니 아니우파예? 보니까 지계문으로 방문은 돌아져십디다.  
 #2 아아, 방문은, 방문은 지계문, 지계문.  
 @1 예.  
 #2 지계문.  
 @1 구들문이 밖으로 들어가는 구들문은.  
 #2 어, 다 지계문.  
 @1 지계, 지계문으로 뉘 이십디다예?  
 #2 어.  
 @1 게난 널문 드는 디가 어디, 어디 널문 돌아수과? 보통.  
 #2 부억에.  
 @1 예.  
 #2 부억허곡 대문허고 셋문허고.  
 #5 널문 들어가는 디는 간단히 얘기해서 방문을 떠냥 전부 널문이야.  
 #2 뒷문허고.  
 @1 아, 잠깐만예. 예, 뒷문허곡. 아까 삼춘 뭐라고마씨?  
 #5 방문을 떠나가지고 떠나면 전부 널문이라.  
 @1 아, 방문을 떠나면?  
 #5 방안에 그, 그 방에만 출입구만 그 지계문이고. 또 삼방에서 나오는 건



밑으로는 널찍이 들어가 있어 거기도.

@1 어, 삼방에서 나오는 그 저.

#5 방에 들어가고 나오고 허는 문.

@1 예, 예, 예.

#5 그 널찍이 들어가 있고 그 위에는 전부 판자야, 판자.

@1 널문예?

#5 널문이야, 널문.

@1 아, 그리고 보니까 다른 데 창굼[창꿈] 하는 거는 그냥 고망만 영 트지 안협니까예? 양금석 선생네 보난 여기 쌀도 이렇게, 그 쌀 박어져십디다. 그 연기 나가는.

#2 아, 여기 부억에?

@1 부억에 하고.

#2 어.

@1 굴묵에 하고.

#5 그런 건 거의 없는데.

@1 아, 거긴 특이하게 현 거구나예?

#2 아.

#5 거의, 거의 없지.

#2 옛날은 저 부억에, 그 부억에 요만헌 구멍 있어, (기침 소리) 거기 닥, 닥 올르는 디.

@1 예.

#2 거기 닥 헨 질랐어요.

@1 음.

#2 부억 위에 따뜻하게.

@1 예.

#5 닥.

#2 (웃음)

@1 그다음에 삼춘 방에 보면 그 시렁들 다 멘들었지양?

#2 시렁, 응, 시렁.

@1 이 동네는 벵장이렌은 안 굴아수과?

#2 벵장?

@1 예.

#5 벵장이라고 안 헤, 기자 시렁.

@1 시렁.

#2 시렁.  
 @1 시렁 위에 궤 놓곡예?  
 #2 어, 시렁 위에 궤 놓고.  
 @1 예, 예. 그다음에 이렇게 손님 오면 방 이렇게 허면은 굴묵진는 안에는 뭐 안자리, 밧자리 영 험니까?  
 #2 아, 안자리, 밧자리.  
 @1 아, 손님 오면 안자리 읍서, 이렇게 하고. 마리는 어떤 식으로 꾸몄수과? 여기. 마리.  
 #2 마라도 여러 가지주.  
 @1 삼방.  
 #2 옛날엔 텃마리고.  
 #2 옛, 옛날.  
 #2 텃마리.  
 #5 옛날 마루는 텃마루고.  
 @1 예.  
 #5 지금은 그, 그 훈춤 지나면은 장마리 그냥.  
 @1 아, 옛날 텃마리는 어떤 식으로 헌 거마씨?  
 #2 나무 깨어서.  
 @1 음.  
 #2 이렇게 큰 나무를 깨근에. 까깁 그대로 텃마리 그 와근에 그 트멍트멍에 그 꿀앗어.  
 @1 어, 다 귀클.  
 #2 응, 귀클. 큰 귀클 해근에.  
 #5 저쪽에는.  
 #2 툃 나와근에 꽃고.  
 #5 저쪽부떠 몰아, 싹싹 몰아오고.  
 #4 텃마리가 \*\*\* 문똥에 영 올라산 건 텃마리고. 그 문 베끼디 거.  
 @1 난간. 난간마리.  
 #4 건 텃마리고, 난간.  
 @1 예.  
 #4 난간보고 텃마리라 하고. 또 안에는 안, 마리, 삼방마리.  
 @1 예, 삼방마리.  
 #4 예.  
 #2 것도 테, 떼, 떼로 놓니까 텃마루나 마찬가지로.

@1 예, 예, 그거를.  
#5 하나씩 땔 수 있는 게 뿔마루라마썸.  
#2 아. (웃음)  
@1 어.  
#5 예, 걸 어떻게 허느냐.  
#2 땔 수 이시난 뿔마루주게.  
#5 마루가 이렇게 뿔면은.  
@1 예.  
#5 요렇게 뿔. 여기 만드는 과정이.  
@1 예.  
#5 여기는 좁고 여기는 길곡. 계민 여기서부터 들어와.  
@1 예.  
#5 마루로. 마루가 게서 여기서 끝난다고.  
@1 음.  
#5 웨 그러냐면 훈 번에 하면 다 들어가지 못 허거든.  
@1 음, 넓이에.  
#5 넓으니깐.  
@1 음.  
#5 자근자근 오다가 여기서 딱 스톱허는 거지.  
@1 음.  
#2 떼, 땔 수 있는.  
#5 다시 땔 수 있으니깐 뿔마루.  
#2 땔 수 있는 마루, 땔 수 있는 마루. 땔 수 있으니까 뿔마루지. 떼진다는  
말이지.  
@1 예, 예. 그러니까 사각형, 직사각형이 아니라.  
#5 예.  
@1 조금 이제.  
#5 예, 각이 있어. 숙어서.  
@1 위에가 좋아서. 예, 예. 그다음에 삼춘 문 들젠 허면. 밑에 문은 어디 들  
아수과? 그 저기 대문은?  
#2 지팡 위에?  
@1 지팡 위에. 음.  
#2 지팡 대방 뉘근에.  
@1 지팡 놓잖아예. 쟁 이건 알지팡, 여기 위에 대방이렌 험니까? 지팡이렌

합니까?

#2 어, 대방, 대방.

#5 알대방, 웃대방.

#2 알대방, 웃대방.

@1 알대방, 웃대방.

#2 어.

@1 게난 지팡이엔도 허지만은 알대방, 웃대방예?

#2 어.

@1 게난 옛날 널문 들 때, 이 그 낭에 이렇게 흠도 이렇게 허고 이렇게 박는 것도.

#5 도저귀.

#2 도저귀.

#5 도저귀가 아니고 도저귀는.

@1 도절귀는 문 채 저.

#2 건 \*\*\*째 허는 게 도저귀고. (기침 소리)

#4 영, 영, 영 허는 게 도절귀주게.

#5 것?라 뭐 요만이 헛 거 고망에 영 들어가게 허는 거.

@1 예.

#5 그 이름 뭐니?

@1 지두리고망? 주두리.

#5 주두리고망인가? 그계.

#2 주두리고망? 고망은.

@1 주두리.

#5 고망이 주두린가. 밑에 건 고망이고.

@1 문주두리 헛지예?

#2 문주두리, 문주두리 고망.

#4 잊어불지 안헛 잘도 튼냄저.

@1 문주두리.

#2 예.

@1 돌저귀는 저 뭐 헛 때 허는 거고.

#5 방에 문.

@1 예, 지계문 옆이 할 때.

#2 도절귀는 방문, 방문헛 때 도절귀.

#5 도절귀.

@1 건 돌져귀고예?

#6 아이고, 그런 거 알젠 허민 초가집 짓는 이 동네 이 근방에 잇는 목수, 옛날 목수 해근에 알아당 확실히 알아지주.

#4 \*\*\* 직원들이 걸으레 왓주게.

#2 (웃음)

#5 지금도 이 정도면 잘 곱아주고, 잘 아는 거지 뭐.

@1 예.

#2 이 정도민 말주, 뭐.

@1 다 알암신게마씨. 모르커라, 영혜 불민.

#5 난 지금 뭐 팔십도 난 안 뉘 사람인데.

@1 예. 너무 잘 알암수다게. 이제, 그렇게 인제 하고. 옛날 그 고팡엔 무신 거 뉘신고예?

#5 곡식들 놓는 거주.

#4 곡석.

@1 곡석.

#4 고팡이란 건 안팡, 곡식.

@1 안팡이엔도 험니까? 여기?

#2 안팡이엔도 허곡 고팡이엔도 허곡.

#2 안네 잇으니까 안팡.

@1 어.

#2 (웃음)

#6 음식 먹는 음식들 다 그레 쌀 같은 거 다.

#2 쌀 그땐 곱곡이니까, 곱곡이라고.

@1 곱곡.

#4 모든 걸 다 곱지는 데니까 고팡.

#5 조, 보리.

#2 모물, 산디.

#4 곱지는 디난 고팡.

### 고팡

@1 예. 그난 여기도 안네들은 험구나예? 다 이 동네는. 안네 식게 때나 뉘 험 때 다 안네들 놓니까?

#5 저기 놓는 디가 잇고, 안 놓는 디가 잇어.

@1 아.

#5 다 놓는 게 아니고.  
 @1 다 놓는 건 아니고예, 예.  
 #6 새, 새집 짓어분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거 지금 한 구십프론 엇어졌수다.  
 @1 저기.  
 #5 거의.  
 @1 그 고팡신한테 제사 때.  
 #4 뒤주.  
 #2 뒤주 무시거. (웃음)  
 #4 뒤주 놓는 거주게.  
 #3 궤팡 향아리 이던 뒤주가 없어요, 다 향아리.  
 #4 옛날엔 뒤주가 잇엇엇주게, 지금 뒤주 말허는 거주게.  
 #2 거니까 아주 우리, 우리 옷대는 뒤주 놔실지 몰라도 우린 힘들어.  
 @1 예.  
 #3 뒤주 못 봤어, 우리.  
 @1 삼촌네는 다 향에예?  
 #2 향아리.  
 #3 예, 향아리에 다 놔근에 거기 곡식 놔근에.  
 @1 예, 거난 식게 때나 이럴 때. 그 고팡에 해서 저기 상 찰리진 안헤마씨?  
 제사 때.  
 #5 그런 디 잇엇어, 잇어났는데.  
 @1 어.  
 #2 아니, 여기 흑시 허는 사름 이시카.  
 #5 지금은 거의 엇어.  
 @1 거의 엇고예. 집 뒤에 칠성은마씨?  
 #5 칠성도 헛던 사람 많은데.  
 #2 칠성은 조금 놓는 사람도 잇곡.  
 #5 지금은 안 험 걸로 알아.  
 #2 지금도 허는 사름 잇어.  
 @1 아, 허는 디가 잇곡.  
 #5 허는 디가 잇긴 잇일 거라.  
 @1 어.  
 #2 지금도 잇곡.  
 #6 흑시 한두 군데 쯤 잇일 거우다.  
 #2 아마도 잇어.

@1 예. 예. 어떤 덴 보면 고팡에도 허고.  
#2 밖에, 밖에.  
@1 안칠성이렌 헤 갖곡.  
#5 안칠성, 밧칠성 다 헨다고.  
@1 예.  
#2 지금도 험서, 밖에서.  
@1 아, 여기도 안칠성, 밧칠성 헤나긴 헛구나예?  
#2 아.  
#5 허는 디가 잇긴 잇어.  
#6 안칠성은 고팡이주게, 고팡.

### 정제

@1 예, 맞수다게. 안칠성은 고팡이고예. 그다음에 정지엔 헛니까, 정제엔 헛  
니까, 여기는?  
#5 여기서는 정지엔 안 헛 정제엔 헛어.  
@1 정제예.  
#4 정제 부억?  
@1 정제 부억. 거난 정제를 한번 그려봍서. 정제에 뭐, 뭐 들어가는지, 정  
제.  
#2 뭐 들어가.  
#4 정제 뭐 들어가는 게 솟단지.  
#6 솟단지허고 물항아리.  
#5 우선 살레주게, 살레.  
#2 살레.  
@1 흔 분씩.  
#5 살레.  
@1 예, 살레, 살레 놓고.  
#4 사발 어프고.  
#5 살레 허민 전부 그런 거 들어가는 거.  
@1 사발 어프고 그다음?  
#4 물항 놓고.  
@1 물항 놓곡, 물항은 몇 개 놓니까?  
#1 허나.  
@1 허나. 그다음에 밥헛 먹젠 허민 살레보다도.

#5 솥, 솥은 기본이니까게 안 해도 돼주게.  
 #3 솥은 기본이니까 건 뭐.  
 @1 솥은 몇 개 겁니까?  
 #5 보통 세 개.  
 #4 부자칩은 네 개, 게 아니허면 세 개.  
 #2 세 개, 보통 세 개라.  
 @1 보통 세 개에.  
 #2 두 개, 세 개주.  
 #3 두 개, 세 개.  
 @1 어.  
 #5 두 개는 아니고 다 거의.  
 #2 흠꼴 잘사는 디는 세 개.  
 #4 보통으론 세 개주.  
 @1 보통으론 세 개, 어떤 데 가민 다섯 개 걸은덴 헤신디.  
 #5 아, 건 부자칩이주.  
 #2 내중에주, 다섯 개 거는 디사.  
 @1 그 저기 부억에는.  
 #4 아주 부제칩이덜은 네 개.  
 @1 큰방 바꼈디니까, 솥도 안칠 때 방쪽으로 안 하고 꺼꾸로 안치지 안협니  
 까양?  
 #2 어.  
 @1 솥덕, 솥덕 안치는 거를.  
 #1 옛날엔 그랬어요.  
 @1 옛날에 그렇게 하고.  
 #5 안에는 제일 큰 사름, 큰솥이곡.  
 @1 예.  
 #5 착 바꼈드레 갈수록 작은 솥이지.  
 @1 순서대로 하고, 그 불치 이렇게 여기 불치 협니까? 불껍 협니까, 여기  
 는?  
 #5 불껍이엔도 허곡, 불치엔도 허고.  
 #2 불치, 불치.  
 @1 불치엔도 허곡 불껍도예.  
 #2 어.  
 @1 게민 그 솥덕 뒤로 불치 허는 그 공간을 뭐렌 헤마씨? 재 내치는 공간?



#6 공간 이름 엇어.  
#4 거 무신 불그네로 밀림도 허곡.  
#2 아니 \*\*\* 불덕, 불덕.  
@1 불등?  
#5 불치를 모으는 디 말허는 거 아니라게이?  
#2 불치 놓는 디.  
#3 아, 불치 놓는 디, 아. 뒤으로 헤근에 영 밀려근에.  
#5 거 이름.  
#3 뒤에 그냥 밀려근에 그거는 쌓앗다근에 그걸로 다 걸름했어요, 걸름했어.  
#5 걸름을 헛는데 이름을 말허렌 허는 거지.  
#1 일름이 잊어부니까.  
#2 일름은 엇어. 일름은 엇어.  
@1 일름은 엇어예, 알아수다. 게난 어쨌건 솟등 뒤에 그 하고.  
#5 예.  
@1 거기에 독도 올려수과? 흑시.  
#2 아, 독.  
#5 독, 독, 독 올렸주게.  
#2 대부분 독 올렸주.  
@1 올련예.  
#2 위에, 위에.  
@1 거기에 그 독 앓젠 허면은 영 저기 낭 영.  
#2 어, 거기서.  
#5 거. 거 이름이 뭐니? 저.  
@1 휘?  
#5 휘, 휘.  
@1 휘.  
#5 겐디 휘도 이 스방에선 휘엔 안 골았어.  
@1 어.  
#5 휘는 저 순수한 저 방언이 아닌 것 같애.  
@1 예, 예. 표준어도 휘우다.  
#5 방언이 아니라, 게서 것?라.  
@1 독서령.  
#5 독, 수림이엔도 아니고.  
#4 독수령 굴목에 놓는 건.

@1 득.

#5 건 아니고 하튼 영 낭 멧 개 헤 가지고 짜가지고 영.

#2 득 올리는디 낭 서너 개 놔근에 낭 걸친.

#5 영 돌아맨 건디.

@1 예.

#5 거 모르켜.

#1 겐디 아는 사름도 저 별로 안 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은 엇을 거고.

#2 건 뭇엔 굴아신지 나도 몰라.

@1 응.

#1 잇긴 잇었는데 우리들에게 전수를 못 받은 거지.

@1 예, 그다음엔예. 삼춘 그 문 들젠 허면 이제 문들 들젠 허면 양쪽에 이렇게 뒹어 잇는 거를 뭇엔 험니까? 문 들기 위해서 이렇게 네모나게 영 만들지 안험니까예? 건 뭇엔 헤여?

#4 무신거?

@1 문 드는 디.

#4 어?

@1 문 들 때, 문 들 때.

#4 문 들 때.

#3 돌체귀, 돌체귀.

#4 어명헌 문?

@1 돌체귀 그냥 그 지게문이든.

#4 아 건 도절귀.

@1 거난.

#4 지, 지겟문이엔 헌 건 영, 영 끼우는 거, 도절귀.

@1 거난 도절귀는 연결허는 거잖아예?

#2 아.

#4 어.

@1 게난 문 들젠 허면.

#4 영 끼우민 영 뱅뱅 도는 거. 도저귀.

@1 여긴 문벽선? 뭇엔 험니까? 문.

#2 문벽선, 벽선.

#5 것도 벽선.

@1 벽선을 만들어야 문 들 거?

#5 문벽선.

@1 아, 여기도 문백선.  
 #2 어, 문백선. 문백선은 좋은 걸로 허는 거.  
 @1 문백선은.  
 #5 든든한 낭으로.  
 #2 어, ㅋ짱허게.  
 @1 예, 일반 여기 현 것도 백선이고.  
 #2 어, 백선인디 건 특히나 좋은 걸로 허야되는 거고.  
 @1 예. 그다음에 혹시 여기 창문들도 만들어수과? 아까 그 호령허는 창 말  
 고. 다른 창도 반창들도 있어수과?  
 #1 반창은 잘 엇엇어.

### 굴묵

@1 반창은 엇고 다 널문으로 크게 만들언예? 그 뒷문들예. 굴묵은 어떻습니  
 까?  
 #5 굴묵은 굴묵 저 난방허는 디게 그 굴묵이주게.  
 #6 방 때는 디.  
 @1 방마다 굴묵을 멘들어신가마씨?  
 #6 예.  
 #5 만든 디도 잇곡, 못 만든 디도 잇고.  
 @1 아.  
 #2 큰굴묵만 때고.  
 @1 큰굴묵만예.  
 #2 큰방만.  
 @1 그 큰방예.  
 #2 큰방만.  
 @1 그러면 큰방에 굴묵이 만약 두 개면 큰방 이신 건 큰굴묵이렌 곱아마씨?  
 #2 음.  
 @1 어 큰굴묵이란 말.  
 #2 그자 굴묵이주.  
 #5 기자 굴묵, 저 방에 굴묵, 저 굴묵, 저 굴묵, 이 굴묵.  
 #2 저디 강 굴묵 짚으라. (웃음)  
 @1 저디 강 굴묵 짚으라. 예, 맞수다.  
 #2 저디 강 굴묵 짚으라.

## 풍채

@1 여기 경허고 여기 워낙 비도 하영 오는 동네니까, 집 앞에 뭐.

#3 풍채.

@1 풍채도 있어나고.

#2 아, 풍채.

@1 풍채는 보통 멧 개 멘들었습니까?

#3 두 개.

#5 풍채.

#2 네 개, 세 개, 네 개. 족게는 넓게 허느냐 족게 허느냐 따라야 하는 거고. 나무에 따라.

#5 잘허민 두 개 허지.

@1 음. 두 개로예?

#5 허나 한 것도.

@1 허나도?

#2 정제까지 허민 세 개 해야 돼어.

@1 보통 풍채허게 뒤편 어느 앞이레 놔마씨?

#2 대문 앞에 허던데?

@1 대문 앞에.

#2 뭐 저 구들 앞에 하고, 대문 앞에.

@1 아, 구들허고 대문하고. 부억쪽에는 안 허지예?

#5 부억엔 안 허고, 하여튼 두 개.

#2 거 태풍 불거나. 비 뵈 땀 풍첵 내리와 불어, 어.

@1 내리와 불어.

#2 창문더레 아니 오게.

@1 영 세울 때 쓰는 거는 뭘렌 험니까?

#2 작데기?

@1 어, 거는 풍채작데기?

#2 건 풍채작데기로고.

@1 여기는 풍채작데기렌 허고예? 예, 혹시 그 풍채작데기 허는 거 말고 창문에 이렇게 부치는 것도 있어나신가? 지직 같은 것도 부썰수과? 여기 지직은 안 들어보고?

#5 지직 무시거?

@1 지직, 거적.

#4 창문에 무신거?

@1 창문에 영 저 비 안 들어오게 따로 이렇게 부치진 안 해수과?  
 #5 그건 엇곡.  
 #4 그게 풍채 들면은 그걸로 다 방지가 다 돼지.  
 @1 어.  
 #5 풍채가 거 느람지, 느람지 여끄는 식으로 여꺼가지고.  
 #2 짹 허면은 일체 안 들어와. 영 비속허게 세와 불면은 비 들어도.  
 @1 아, 비 올 때나 바람 불 때는 내려불어예.  
 #2 흐쓸 내려도 비속허게 세우고.  
 @1 예.  
 #5 비 오민 그 저 놀 위에 더끄는 건 느람지. 느람지 식으로.  
 #2 풍채 강 좀 내려 불라 허주게, 비 빼어가면은.  
 @1 으, 아, 풍채 강.  
 #2 좀 내려와 불라.  
 @1 내려와 불라. 예.  
 #2 게민 흐쓸 발을 틀어지게 흐쓸 세워야지 비속허게 세와 불면은 비가 집 안더레 안 빼어.

### 물팡

@1 그리고 여기 정제 앞에는 또 물팡.  
 #5 물팡.  
 #2 물팡, 어. (웃음)  
 @1 물팡은 보통 멧 개, 한 집에 멧 개 세와마씨?  
 #2 하나.  
 #5 하나벧긔 안 낱.  
 @1 하나예. 쟁 거기에는 이제 평소에는 그 위에 뭐 올령놔뒤마씨?  
 #5 허벅.  
 @1 허벅.  
 #2 허벅, 물허벅 기자.  
 @1 물허벅.  
 #2 빈 허벅도 놓고 기자, 어.  
 #5 물구덕에 그 허벅 놔근에 올려놓는 거주.  
 @1 예.  
 #5 확 정 나가곡 들어오곡 허는 거지.  
 @1 이, 여기 신레리 옛날 말은 예춘? 여기는 뭇렌 해수과?

#2 예촌.

@1 예촌이우파? 여기 신레리에, 여기 예촌에는 물이 귀한 펜이우파? 아니면?

#5 아주 귀한 디주.

#2 아니, 산간촌으로 베랑 귀허진 안 허고.

#5 물 자체가.

#2 냇가에도 물 잇으니까.

#5 물이 잇는데, 쓰질 못헛거든게.

#1 지금 현재 우리 부락이 그 \*\*\*를 보면은 저 여기.

#2 산간촌은 권차년디, 동드레가 물 귀헛주 무신.

#1 저디 가민 신레교로부터.

@1 예.

#1 쭈욱 기우다리 저 밑에 다리까지 하면은 아까 물 관리 나오난 제가 말씀 드리는데, 그 물이 귀허니까.

@1 예.

#1 냇가에서부터 사람들이 그 저 살기를 시작헤 가지고, 그래서 나중들은 저 뭐 헛지만. 우리 그 기록에 보면은 저 조선조 위에 고려말부터 우리 신레리에 살기 시작헛으니까 그 신레리 분포도는 물 때문에, 내 때문에 살기 시작헤 가지고 오늘에 이른.

@1 거난 여기, 그 내 이름은 뭐우파?

#5 신레천.

#1 아니, 게난 내 일름이 그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막 여러 개.

@1 예. 예.

#5 \*\*허민, 신레천.

@1 신레천.

#2 여러 개 뉘요. ㄱ튼 신레천인데.

@1 으. 그 이름을 곱아봅서.

#2 여기 상동, 중동, 하동 여기 살았는데.

@1 예.

#2 우에 오면은 말젧도라고 하고.

@1 말젧도.

#2 어. 말지넛도라고, 요디는 저 김서방물때라하고, 한짚대엔도 허고, 저 벨르넛도엔도 허고. 그 지역마다 틀려, ㄱ튼 낸디.

#4 그것보담도 막 옛날부터 내려오는 내가, 내 이름이.

@1 예.  
 #4 췌깃내여 췌깃내.  
 @1 췌깃내?  
 #4 어, 췌깃내. 내 일름이 췌깃내.  
 #5 여기는 이젠 췌깃내가 아니우다양.  
 @1 여기는 아니렌, 저 삼춘. (웃음)  
 #2 옛날에 가까운 디 지형을 이름 지왕 허니까 아까.  
 @1 예. 맞수다게. 그 내 잇어도 그 지형에 따랑 일름들이 다.  
 #2 어. 그 동네별로 지형을 허니까.  
 @1 예 게문 여기.  
 #2 물도.  
 @1 음. 물 먹는 거는 내에 거 질어당 먹은 거?  
 #2 예, 내에 거.  
 @1 나는 물은 엇수과?  
 #2 어, 여긴 엇곡.  
 @1 어, 나는 물은 엇곡.  
 #4 선달이 오랑 문딱 끊어부난 뭐.  
 @1 예.  
 #2 (웃음)  
 #5 처음에는.  
 #2 그때는 바닷가에벳기 나는 물이 없어요.  
 @1 그리고 삼춘.  
 #4 종달이가 끊어 비엇구나.  
 @1 옛날에 이제 집들 지으면예, 그 길을.  
 #4 종달이.

## 올레

@1 큰길 말고 집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이런 골목길 잇지 았우파예?  
 #2 으.  
 @1 건 여기선 무신거렌 헤?  
 #4 종달이 오란.  
 #5 속숨협서게.  
 @1 올레?  
 #2 올레.

@1 어, 올레도 보면 짧은 것도 있고, 막 긴, 부잣집들은 또 올레가 막 질잡아예?

#2 응.

@1 그런 올레는 뭐렌 헉니까?

#2 긴올레, 긴올레.

@1 아, 여기서 긴올레렌 헤예?

#2 어.

@1 먼올레라는 말은 안 헉니까?

#2 무사 먼올레엔도 허주, 먼올레엔도, 긴올레엔도.

#5 긴올레엔 안 허고 먼올레엔 헤여.

@1 먼올레예.

#3 먼, 먼올레엔 헛주. 주로 먼올레엔 허여.

@1 예, 그 영 그다음에 그 집앞에예 그 뭐지? 정낭, 여기 정술?

#2 정술낭.

@1 정술?

#5 정술낭.

@1 정술낭예, 정술낭은 바깥디 올레에 세웁니까? 아니면은 저 어디 세웁니까? 집 앞이 세웁니까?

#1 가운데.

@1 가운데.

#1 올레 가운데.

#5 마당 입구.

#2 정설낭?

@1 응, 정술낭.

#5 마당 입구.

@1 마당 입구.

#2 정설낭은 거 우연, 우연.

@1 예.

#2 우연뵈 담 다운 디서 바로 앞에.

#5 하여튼 마당 입구.

#2 마당 앞에.

@1 마당 입구에.

#2 어.

@1 또 아까 삼춘 말은 올레 진 데는 중간쯤에도 세우기도 하는데.



#5 아니, 아니. 마당 입구.  
 @1 마당 들어가는 데.  
 #2 (웃음) 중간쯤에 허는 디도 잇긴 잇주.  
 @1 게니까 이 동네는 정술낭이엔 헤예.  
 #5 정술낭, 정술낭 허는디.  
 @1 정술낭, 응. 정낭 안 허잖아예?  
 #5 거 지금에야 정낭이지, 옛날엔 정술낭이라고.  
 @1 예, 거난 우린 신레리 말이 좋아마씨.  
 #5 신레리 정술낭.  
 @1 예, 알아수다. 신레리 정술낭. 그다음에 그 정술낭 세우젠 허면 옆에 돌로 헤갓고 동그란 구멍 푼랑헌 건 뭐렌 허여?  
 #1 부잣집이만 하는 거. 야, 나 거 잊어빚저.  
 #2 여긴 매 집에 그거 없었어.  
 @1 이름 잊어불엇수과?  
 #1 아, 우리 집이 잇단에.  
 @1 예, 그거 튼내지 못 허쿠과?  
 #3 예촌에선 정술낭 헌 집이 멧 엇어실 거라. 예촌에.  
 #2 아니, 정 다 놨은 놓앗수다게.  
 #3 정술낭덜 경 많지 안허여.  
 @1 잠깐 삼춘. 아까 정술낭이지만, 정이렌도 허지예?  
 #2 어?  
 @1 정, 정, 정 다 낫덴, 아까.  
 #2 어, 정, 정, 낭, 정낭.  
 @1 낭을 정이렌 했잖아예?  
 #2 어, 겐디 우리는 그 당시에는 그 춤 돌 헤영 구멍 푼랑 헌 디는 부자칩이나 허고, 오래 뭐 헌 사람이나 하고, 경 안 허민 나무, 나무해서.  
 @1 예.  
 #2 낭 박아서 이렇게 대, 낭 잇어.  
 @1 예.  
 #2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낭 중간에 메어서 그레 걸쳐근에.  
 @1 그니까 양쪽에 낭, 낭에 헌 거 아니우파예?  
 #2 어, 나무, 나무.  
 @1 나무, 그 낭은 무신거렌 헤?  
 #2 그거 받침목 뉘지. 아니 거.

#3 \*\*이주.  
#2 이렇게 끝에 이렇게 해근에.  
@1 정주목이렌 안 헷디가?  
#2 응?  
@1 정주목.  
#2 정주목? (웃음) 그런 거.  
@1 그 말은 안 들어받?  
#2 예.  
#3 정주목이렌 헨 건 또시 육지서.  
#4 정주목이란 게 나 생각에는 정과 주먹이란 말이야.  
@1 예, 정주먹.  
#4 나 생각에는 정기목이란 게 정주먹이여.  
@1 게난 삼춘 정주먹이 필요헨 거 나는.  
#4 정주먹이라 한 것은 이렇게 세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여꺼가지고 요디 타앗게시리 놓는 거.  
@1 예, 예 맞수다.  
#4 그거 정주먹.  
@1 정주먹.  
#4 응.  
@1 게난 정주먹이라고 해서 나무로 허기도 허고, 가난한 집은 나무로.  
#2 나, 나무는.  
@1 부자칩은 돌로.  
#2 영 헨 거 해당 이렇게 영 무껍 이레 걸치는 거.  
@1 예.  
#5 정술낭, 정낭 헐려고 생각도 안 헷어.  
@1 아, 그냥 안 해근에 그냥.  
#5 그냥 살엇지 뭐.  
#4 우리 두린 때도 저디 강 보라. 정주먹 놔져시냐?  
#2 거 옛날.  
#4 우리가 굴앗지. 정주먹 놔져시냐?  
#2 도둑 방지가 아니고 소 방지여, 소 방지.  
@1 맞수다, 맞수다. 예. 소 방지.  
#2 소 방지.  
@1 집안으로 들어오는 거예.

#2 어, 짐승덜 뭐 저 소 방지지 뭐.

#4 사름 엇인 때 세 개 딱 놓고. 임시 어디 간 때 두 개.

### 이문간

@1 그다음에 혹시 이 동네도 이문간들도 들었수과?

#2 이문간 들었주.

@1 아, 그 집으로 헤 갖고 이문 잇는 데가 잇어난마씨? 게문 그런 거를 무슨거렌 허여?

#2 예?

@1 그런 집은 무슨 집이렌, 이문간 든 집을.

#2 이문간, 이문간.

#4 이문간이 이문간이지. 무신거라?

#2 이문간집이 안 살아보니까 원. (웃음)

@1 아, 아니 웨냐면 어느 집에 가면 그 대문 요즘 대문처럼 지붕 저기 지붕 잇고 헤 갖고, 대문 든 집이 잇어났잖아예?

#2 예.

#4 그난 대문, 거 큰 대문이란, 대문. 지금도 잇잖여. 문든 집은 이문칩이. 문, 대문.

#5 이문은 그 집 흔 채가 따로 잇어야 허여.

@1 예, 예. 집 흔 채 따로 이신 거.

#5 게야 이문이지.

@1 으.

#5 게 안 허문 보통사람은 그런 집이 살아난 적이 없어요.

#4 예춘도 한 밧디. 저, 양, 양, ○○네 집. 그디 하나 이서.

#5 아이고, 가리맞디도 잇어나고 여러 밧디.

#2 여러 군디, 여러 군디.

#4 지금 잇는 집이.

#5 지금 흔 집 잇어.

@1 예, 아, 지금 잇는 집도 이수과, 이문?

#5 그디 뜯어볼지 안허난 잇어.

#4 딱 흔 밧디 잇어.

@1 아, 지금예. 한번 우리가.

#5 뜯어볼지 안헤신가, 무사?

#6 아니, 안 뜯었어.

#2 잇어. (웃음)

@1 누게네 집이우파?

#6 문은 엇어, 문은 엇어.

@1 문은 엇인디 이문헛던 저 집은 잇구나예? 거기 누게네 집이우파? 우리 강 사진 찍어야켜.

#5 ○○이, 양○○이. 저 김○○이.

#6 김○○.

@1 김○○. 예.

#2 어, 위에.

### 놀awat

@1 웨냐면 어쨌든 사진을 하나 찍어야 됩니까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놀awat도.

#2 ○○이네 집이도 헤나지 안헛어? 옛날에.

#6 잇어신디 틀어비언.

@1 놀awat도.

#5 놀awat?

@1 예.

#5 놀awat?

@1 놀awat.

#5 놀 누는 디.

@1 응.

#5 거 지금 그거 이신 디가 잇는가?

@1 삼촌 여기 놀awat들 옛날에는 다 멘들지 안헤신가?

#2 다 멘들엇주.

#5 멘든 게 아니라.

#2 우연팻에, 놀 허연에 놀awat.

#5 우연팻에 그냥 집 옆이.

@1 아.

#2 어, 우연에.

#5 특별히 이거 놀awat이다 헤 가지고 헛 게 아니고.

#1 소를 기르니까.

@1 예.

#1 소를 먹이 7튼 거.

#2 아, 소 3튼 거 출 헤다 놓는 디가 놀왓.  
 @1 예.  
 #1 여러 밧디들, 그때 거의 다 잇엇지.  
 #2 다 잇엇주, 뭐.  
 @1 게문 별도로 놀왓만 헨 게 아니라, 우연에.  
 #2 아, 우연에, 우연에.  
 @1 우연에 헛당 이제, 나중에 거기 송기도 갈아먹고?  
 #3 게, 안 허민 마당 넓은 딴 마당 헨 쪽에 말이지. 놀왓 헤근에 출도 놓고 말이지. 거 다 그렇게 헤낫주.  
 @1 예, 별도로 안 허고예?  
 #2 옛날사 다 놀 놀엇주.  
 @1 놀 놀젠 허면 돌들 이렇게 영 놓지 안헤마씨?  
 #2 아, 아래, 아래. 거 비 방지로게.  
 @1 게난 그런 돌은 무신거렌 굴아?  
 #2 (웃음) 것도.  
 #4 무시거?  
 @1 놀굽.  
 #4 놀굽이 놀굽이주, 잘 알암신게.  
 #2 그 따문 나무들 헤여근에 놀굽을 놓는 거야, 나무덜.  
 @1 나무예, 돌허고 나무들.  
 #2 어.  
 #4 게, 안 허민 돌 앓다근에 돌로다가 \*\* 돌로 문 메우고.  
 #5 나무나 돌이나 영 싸근에.  
 @1 예.  
 #2 게난 거 물이 안 올르게끔 놓는 거.  
 #4 습기 차지 말라고 놓는 거, 습기 차지 말라고.

### 돛통

@1 예, 맞수다. 그다음에 삼춘 여기 옛날들은 지금은 허지만 여기 통시협니까? 통제협니까? 여기는?  
 #2 돛통. 돛통.  
 @1 돛통.  
 #5 통시엔 허는 건 드물고 돛통.  
 #4 통시엔도 허곡 돛통이엔도 허곡. 통시엔도 허곡.

@1 예.  
 #2 거 으라 가지.  
 @1 옛날 다 돛통예. 게난 돛통허면 도새기가 사는 집도 있고, 우리 응가하  
 는디는 무신거렌 헤?  
 #5 그디 지들팡이주게.  
 #4 지들팡.  
 @1 지들팡. 지들팡은 혹시 낭으로 만듭니까?  
 #5 나무로 거의 나무로 헤.  
 #2 예. 나무로 대부분 낭으로.  
 @1 아.  
 #5 돌로 헨 게 아니라 돌로 허는 데도 있는데.  
 #2 돌은.  
 @1 예.  
 #2 중간에 돌로 헛고 옛날엔 다 나무.  
 @1 아, 이쪽에는 낭으로 헛구나.  
 #2 응. 다 나무.  
 @1 저쪽 북쪽 가도 거의 돌로 헛덴.  
 #2 거난 건 내중에 헨 거주.  
 #4 영 헨디 화장실 본 평 뜨로 요만큼 허영 돌 놓곡.  
 #2 여기도 내중엔 돌로들 다 허엿는디 그전엔 나무, 나무.  
 #4 \*\*\*저 나무로만 두개 딱 낫주.  
 @1 아.  
 #4 건 중간에들 이렇게 잇어가지고 화장실 개명허라고 헨 때에 돌로덜 담  
 다양 허곡.  
 #2 나무로 헨 건. 돌로 헨 건 거 뭐 헨 사람들도 치레헨 사람들이고.  
 @1 예.  
 #2 다 나무로, 옛날은.  
 @1 게문예, 나무로 한 그거를 얘기를 해줍서. 게문 그 옆에 저기 그 지들팡  
 놓는 디 이렇게 돌로도 영 쌓읍니까? 사람.  
 #4 옛날은 엇어.  
 #2 옛날은 것도 엇고.  
 @1 것도 엇곡.  
 #2 으. 엇어. 우리 알 건디.  
 #4 강 앓이민 똥꼬망도 다 베리고, 다.

#2 다 무지건 다 보여.  
#4 다 베려져.  
@1 다 베려져.  
#4 이웃집이서 다 보주.  
#2 거 이거 중간에지.  
#4 \*\*\*\*난에 \*\*\*\* 또꼬망 똥 쌀 때 보는 거 다 \*\*\*\*.  
#2 어, 사삼사건 후에 옛날은 그런 거 엇곡.  
@1 거난 사삼사건 이후에야 돌을 쌓고 헨 거예?  
#2 어, 워놈 와서 가메니로 처음 안 보이게 허곡.  
#5 중간에 약간 좀 카바가 뉘고 헛지.  
@1 음.  
#2 옛날 사름덜.  
@1 계난 삼춘네 어렸을 때는 그냥 나무로 지들팡?  
#2 어. 나무로.  
#5 그냥 도새기 쪼아가민 돌아나불엇주. (웃음)  
#4 막 몽둥이로 두드려.  
@1 예.  
#2 설사 낭 똥 싸면 도새기 머리에 가민 닥닥 털민.  
@1 옷, 맞수다.  
#2 옷에 좀. (웃음)  
@1 그렇게 헤 갖고 이런 도새기 질러난 것도예. 칠십년대까지는 다 질루지 안헛수과, 여기도?  
#5 예.  
#2 어이구.  
@1 음, 그때까지.  
#1 그땐 재산이랏주.  
@1 재산예?  
#2 어, 재산이구말구.  
@1 워냐믄 이 동네는.  
#2 결혼허젠 허민 삼 년 채와야 결혼허, 도새기 헨 마리 키와근에.  
#5 난 육십구년 뉘서, 제대헨 완.  
#2 삼 년 키와야.  
@1 아.  
#2 토종도새기. 삼년 키와야 이십 키로 뉘나마나. (웃음)

@1 음.  
#2 삼 년 키워야.  
@1 삼 년 키워, 게른 만약에 집에 풀이나 잇고 허면은 삼년 전부터.  
#2 어. 그래 미리 준비해야지.  
@1 음.  
#2 허, 촌 옛날은 어떻 살아신지.  
@1 그 예전에는 그 도새기 집집마다 다 잇잖아예.  
#2 예.  
@1 그 밖에 도새기 그, 것 주젠 허면은 거 뭐 낫수과?  
#5 돛도구리.  
#2 돛도구리.  
@1 돛도구리 여기? 돛도구리 농곡. 돛도구리. 밖에 그 저 돛통 밖에는?  
#5 밖에 그 도새기 체 놓는 디.  
#3 향아리헤근에, 굿인물 담아근에.  
#5 굿인물 향아리엔 곧는가?  
#3 향아리에도 굿인물 반양놔뵤 그걸로 뜨멍 뉘지.  
#2 그릇 싯져나면 그디 강 비왓다근에 거 주지.  
@1 예. 거 굿인물향아리양?  
#2 예.  
@1 굿인물 그 체 같은 거 담아논 걸 뉘렌 굴아?  
#3 체도 거 고급이주, 어디.  
#2 (웃음)  
#3 거 혀드령헌 거 헤근에 그자 헤근에 굿인물에 서터근에 그냥 돼지 행 주  
곡 헛주.  
@1 게난 이 신레리가 땅이 좀 저기 박헌 편이지예? 땅 토질이 안 좋은.  
#2 예, 토질이 안 좋아, 이딘 토질 쉐 안 좋아.  
@1 예.  
#5 뜬땅이라 버리니깐.  
@1 뜬땅? 여기는.  
#2 응, 뜬땅, 뜬땅.  
@1 농사 같은 거 잘 안 뉘시크라예?  
#2 잘 안 뉘.  
#5 뜬땅.  
#2 대정더레가 잘 뉘고, 여긴 안 뉘어.



@1 예, 게문 비와 나고, 여기 비도 하영 오니까, 그 도새기 그 짓 주기도 해야 할 거 아니라예? 뭘로 짓 짓수과?

#5 그때는게 보리찍이지 거의.

#2 보리, 아니게 하튼 풀들.

#5 거의 보리찍이주게.

#2 고사리도 베다주고.

@1 아, 고사리.

#5 고사린 거 무시거, 보리찍 거의.

#2 어, 걸름 허젠 허민 고사리 많이 베당 주고.

@1 아.

#2 돼지걸름 허젠 허민.

@1 보리낭 그.

#5 동시에 뚫통엔 고사린 거의 안 들어가고.

@1 아.

#4 그것보담도. 여기는 물을 많이 질러가지고, 물이 많으니까.

#2 에이구 어디 물 많이 이수과게.

#4 물똥을 좇어다가, 새벽에.

@1 예.

#4 물똥을 좇어다가 뚫통더레 낫다근에, 놔 가지고 걸름을 맨들야. 게난 옛날 사람들은 새벽잠을 못 잤다는 거야.

@1 예.

#4 그 남보다 먼저 가야 물똥 싹 것들 나가 좇어당 해야 그것을 걸름을 하지.

#2 아이고, 부지런헌 사람들이.

#4 물똥 좇엉.

@1 게난 말똥도 좇어당 놓기도 헛주만은 쉼막에 그 쉼.

#2 으, 쉼, 쉼.

@1 그 쉼걸름도.

#2 아이고. 그거.

#4 쉼 잇는 사람이 엇는 사람이 잇주게.

@1 예.

#4 물도 엇곡 소도 엇곡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봄 뉘면은 물똥 좇어다 근에 놔가지고.

#2 소 잇는 사람은 걸름 많이 허고, 보리도 많이 갈곡.

#4 그거는 걸름이 엇으니까.  
 @1 예.  
 #4 뭇똥벧기는.  
 @1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4 고사리 비어당 놔도 뭇똥을 놔야 걸름 뉘니까, 고사리만은 걸름이 안 뉘.  
 @1 맞수다. 그다음에 그 뭇똥 쉼똥 좇으민 굴묵진을 때도 하영 쓰지 안헤마  
 씨?  
 #4 그것은.  
 #2 아, 거 물리와근에 물리와서.  
 #4 그것은 처서 넘어야, 가을 들어야.  
 @1 예.  
 #4 가을 들영 현 거라야 불을 잘 타지. 가을 전에, 전에 것은 불에 안 타.  
 #2 그건 물려서 안 타, 물려서.  
 @1 아, 그것도 또 뜨나다예?  
 #4 그것도 절기로 따라 가지고.  
 #2 절기.  
 @1 거는 무산고예?  
 #2 거 가을에는 똥이 저, 뭇똥이 딱딱허니까 뉘고.  
 @1 예.  
 #2 이 풀 어린 때는 그 풀이 먹어도 똥이 물려서 안 뉘, 물려서.  
 @1 아, 거난 좀 익은출 먹어야 이게 똥이 좀 단단하는 거구나예?  
 #2 어.  
 #4 절기에 따라가지고 허는 따문에.  
 @1 그러면 우리 그 굴묵진은 거는 아까 처서 지난 다음에.  
 #2 어, 소똥도 허고.  
 @1 아, 소똥도.  
 #2 아, 소똥도 좋주.  
 @1 삼춘네도 좇이레 뉘겨받마씨?  
 #2 어?  
 @1 삼춘네도 좇이레 뉘겨받?  
 #2 아이고, 좇으레.  
 @1 그거 좇이러 갈 때 무시거 쟁 갑니까?  
 #4 뉘추력 멘들아근에 뉘추력에 메어근에. 뉘추력.  
 #2 뉘, 뉘추력.

@ 멜추력 멘들아근에?  
#4 멜추력, 멜추력 알아져?  
@1 예게.  
#4 멜추력 메어근에 끈 들앙 영 메어근에.  
@1 아.  
#4 게난 영 영 손으로 좇어 놓곡.  
#2 맥, 맥, 맥 헉쓸 맥 가지고.  
@1 아, 맥 ㄱ지고.  
#2 맥 가지고, 출구덕 가지고. (웃음)  
@1 예, 여기는 멜추력, 조례기, 조락. 다른 데는 멜망텡이, 멜망텡이 하는데, 여기는 추력이라고.  
@5 멜추력이라고.  
#2 멜추력.  
@5 멜추력.  
#4 똥멜추력, 똥멜추력.  
#2 으.  
@1 그니까. 멜추력 뉘는데 추력이 뉘는 거지 멜이 있어서.  
@5 멜추력.  
#6 멜망텡인 똥 좇는 게 아니주게.  
@1 예, 건 씨 뿌릴 때 허는 거고.  
#2 (웃음) 게난 말이 다 틀려. 말이 다 틀려.  
@1 게난 삼춘 멜추력은 무신 걸로 멘들아수과?  
#4 대.  
#2 대.  
@1 대로.  
#2 어, 대로.  
#4 수리대 허영.  
#2 조그마니허게 헨 것이 멜추력이고.  
@1 예, 조그마니 헨 거예? 게난 멜망텡이는 씨 헐 때 허는 거고?  
#2 멜망텡이는 거 뭐 찍으로나 무시거 새로나 헤사 멜망텡이지.  
@1 삼춘 게문.  
#2 멜망텡이로 똥 좇으레 안 가.  
@1 아, 여기는 멜추력 헤야.  
#2 어. 멜추력이라야지.

@1 영 어깨에 메어근에.  
 #2 어, 어깨에 메어근에.  
 @1 삼촌, 거난 뿔망텡이는 거는 귀하게 여기고. 이쪽에는 산뿔들도 잘 안 뿔지양?  
 #2 어?  
 @1 산뿔 같은 거. 그 저, 꺾이 귀하 편 아니우꽈? 이 동네.  
 #2 아, 산뿔?  
 @1 예.  
 #2 산뿔는 잘 아이 뿔는 썸이주, 여기는 모든 게.  
 @1 경 허니까 대나무를 많이 헛고. 바당에 갈 때, 바당에 갈 때 이제 그 조 레기 들렁 갑니까? 여긴 뿔 들렁 갑니까? 바당에 갈 때는.  
 #2 (웃음)  
 #3 조레기.  
 @1 어, 것도 조레기.  
 #3 조레기도 잇고, 출구덕도 잇고.  
 @1 출구덕도 잇고.  
 #4 조레기는 바당에 갈 때.  
 @1 바당에는 이거, 이거예, 어깨에 조레기들은 어깨에 메어근에.  
 #4 조레기도 메고, 출구덕도 어깨에 메곡.  
 @1 출구덕은 허리에 차는 거.  
 #2 조레기는 요만이 헛 게 조레기라. (웃음)  
 #4 츠락구덕. 츠락구덕.  
 #3 조레기는 쫓그만헛 거곡.  
 @1 예.  
 #2 조레기라고 요만이헛.  
 #3 출구덕은 큰 거.  
 @1 큰 거, 허리에 차근에 허는 거예?  
 #4 차기도 허고, 받후는 건 뿔엔, 뿔엔 헛다마는, 꺾에기.  
 @1 꺾에기, 예. 받치는 거.  
 #4 어, 받후는, 물 나지 말렌.  
 @1 예, 예.  
 #4 꺾에기 놓고, 거.  
 #2 건 질구덕으로 헤.  
 @1 질구덕이렌.

#2 질구덕에.

@1 그 물 질레 덩길 때에예, 뒤에 허는 걸 궤에기렌 허는 거 아니양?

#2 예.

@1 물구덕 받추는 거.

#4 물 질레 덩길 때, 그 등, 등파데.

@1 등바데.

#4 으, 등바데.

@1 응.

#4 물구덕 뒤에 옷에 영 물 오카부덴 놓는 거, 등바데.

@1 게난 궤에기는 보통 밀로 멘듭니까?

#2 궤에기는? 가죽, 가죽. 췌가죽으로나.

#3 궤에기는 바다에서 무시거 해물 해근에 데역 ㄱ튼 거 말이지 거 해서.

#4 거 췌가죽.

#3 정 올 때 그것이 그 물 막 허니까.

#2 췌 잡아근에 췌가죽으로 빠삭허게 해근에.

#3 예.

@1 음.

#3 거 막 몸에 물 가지 못허게시리 받후는 거, 그건.

@1 예 거난 그거 췌가죽으로 해근에예.

#4 췌가죽, 물가죽.

#2 췌가죽이주, 거의. 거의 췌가죽.

@1 거난 바당에 덩기는 사람들이 허곡. 물구덕에는 이미 아예 여기 잇으니까. 물바데렌, 등바데렌 햄구나예.

#4 어, 이추룩 옷 헨 거 이디서 바늘로 헤 가지고 어찌 막 헨옷 해근에.

@1 예, 예.

#6 너무 오래다 시간이.

#2 (웃음) 질문을 너무 하영 해부난게.

@1 게문게 집은 삼춘, (잡담) 멧 시간에 집 짓어집니까, 집 짓젠 허민게 며칠도 가야돼곡 허난.

#2 아이고, 집 짓젠 허민 오래주. (웃음)

헛간

@1 삼춘, 여기 헛간은 어디 멘들아?

#2 어?

@1 헛간은?

#2 헛간은 집 엠에 어디 뭐 공지에 허든 뭐 헛간 만들지.

@1 어.

#2 헛간 안 만든 사름이 하주.

#4 창고주 창고, 헛간이란 게.

@1 거난 아까 저 목거리 같은 데 쉼막 옆에 헛간들을.

#2 어. 계난 헛간이게.

@1 거기 뭐 주로 뭐 놓니까?

#2 허는 디 잇고 안 허는 디 잇고.

#3 헛간도 거 좀 사는 집이나 경 헛간 짓영 거기 허주. 못사는 집에 헛간도 안 했어요.

#2 이막살이 허나 짓영 사는 사람이 하느디, 옛날게.

#4 헛간도 새도 들어사곡, 줄도 들어사곡 또 경 아무 집이나 헛간을 짓어서 카부덴.

@1 맞수다.

#2 계난 이거 방 꾸밈 해도 옛날은 이기가 이문간.

@1 예.

#2 이, 조그만 집 헤근에, 부억허고 구들 허나 헤근에.

@1 맞수다.

#2 마루도 없이.

#4 요만이 현 방에 모다정 자고.

@1 두 칸 집들예, 이간집 짓영 살안예.

#2 이간집 헨, 이간집.

### 복덕방

@1 삼춘. 근데 이간집도 허주만은 옛날에 삼간집 헤더라도 마리 못 놔근에.

#2 으.

@1 마리 안 놔근에.

#2 안 낳도.

@1 그런 디도 잇어수과?

#2 예.

@1 그건 무슨 방 헤수과?

#2 예?

#4 복덕방.

#2 복덕방이라고.  
 @1 복덕방.  
 #2 게 무시거 꼴아근에, 아무것도 엇인 디게 복덕방.  
 @1 복덕방예? 복덕방? 복덕방?  
 #2 복덕. 복덕방이 맞주, 복덕방.  
 @1 복덕예. 복데기들 꼴아근에.  
 #2 예, 복데기들 꼴아근에.  
 #3 복덕방이엔도 허고 복덕방이엔도 허고.  
 @1 게난 옛날 정제에도 막 뭐 꼴앙 살고 헛잡우파?  
 #2 아, 아. 정제도 꼴앙게. 그놈이 꼴아근에 앓앗주게.  
 #4 뜻아근에 좋음은 허여. 복삭헌 게.  
 #2 (웃음)

### 장항뒤

@1 그다음에 삼춘 여기 그 장항들은 어디 놔수과? 장항, 똥장?  
 #2 아, 건 뒤에, 뒤에, 뒤에.  
 @1 뒤에?  
 #2 어.  
 @1 그러면 집에.  
 #4 뒤에 놓면은 장 도둑이 왕 퍼가는 때문에 부억 안에.  
 #2 아니 뒤에, 대부분.  
 #4 거 흔편 구석에 놔근에.  
 @1 어.  
 #4 바깥디 놓면은 장.  
 #2 건 으라 가지, 우린 뒤에.  
 #3 뒤에 놔, 뒤에.  
 #2 뒷담 해근에, 뒤에 놔.  
 @1 무슨거 해근에?  
 #2 뒷담 뒤에 담 다아근에 노프게 다앙 뒤에.  
 @1 아, 그, 그 장항 놓는 디를 무시거렌 험니까? 여기서는.  
 #2 아, 거, 장항뒤라고 하지, 장항뒤.  
 @1 장항뒤.  
 #2 으, 장항뒤.  
 @1 게민 장항뒤 놓는 데를 여기는?

#2 집 뒤예를 말한 거주.  
 @1 예, 집 뒤에 허민 따로 이렇게 담도 쌓읍니까?  
 #2 아니, 아니, 거 집에 집이 연결헤근에 쌓고.  
 #1 집 이렇게 헤 가지고, 여기 앞으로 뒤이면은 요렇게 해서 싸근에 여기 장항 놓고.  
 #2 집이 딱 부찌근에 담을 싸불어.  
 @1 담을 장항에예? 이렇게.  
 #2 집을 이렇게 이게 집이면은.  
 @1 예.  
 #2 요렇게 헤근에 담을 쌓아 불지.  
 @1 예, 예.  
 #4 게난 거 이름이 뭐냐면, 뒷담.  
 @1 뒷담.  
 #4 이름이 뒷담.  
 @1 으, 게난 집 울타리담 말고, 장항뒤에 뒷담.  
 #2 어.  
 #4 뒷담, 이름이.  
 @1 뒷담, 장항뒷담.  
 #2 어.  
 @1 예.  
 #4 그 우에 또 울타리 담이 잇주게, 잇어.  
 @1 예.  
 #4 베끗디로 또 울담이 잇고.  
 #2 뒷담을 벨도로 헛주.  
 @1 아. 그러니까 포물선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뒷담.  
 #2 으.  
 @1 뒤쪽으로만 싸는 거지예?  
 #2 쪼그만이 허게.  
 @1 앞으론 안 싸고예?  
 #2 어.  
 @1 어, 거 집집마다 다 싸신가마씨? 그 뒷담을?  
 #2 게메 싸는 디도 잇고, 아년 디도 잇고.  
 #1 싸는 디가 많아실 거라.  
 #2 아, 대부분.



@1 아, 계남 장 도둑들이 하부난 경헌 건가? (웃음) 건 모르고예?

#4 삼일만 이추록 행 살앙 가이.

@1 양?

#4 삼일만 이추록 행, 조랍지 안행 좋다. 살앙 가렌 말이주.

#2 (웃음)

@1 아, 삼일만 살앙 가카마씨? 알아수다. 집을 삼일만 지어 뵙주.

#4 먹을 것도 잇고 허니까 걱정 엇겠네, 뉘.

### 츄항

@1 예, 먹을 거도 잇곡. 알아수다. 또 삼춘 여기도, 이 동네도 츄 메신가마 씬?

#2 어?

@1 츄. 츄항.

#1 음, 츄항.

#2 츄항, 츄, 츄. 예.

@1 물 귀헛덴 허난.

#2 아이고, 츄 잇고말고.

@1 츄은 어떤 식으로 멘드는 겨우짜?

#2 어떤 식으로?

#3 거 나무에 행은앵에.

#2 슝철나무.

@1 아.

#2 대부분 슝철나무.

@1 아, 여기는 슝철나무에 헤예?

#2 으, 슝철낭, 대부분 슝철낭에.

#3 아, 돛백낭 동, 돛백나무 ㄱ튼 디이, 그런 디 행은에 무꺼근에 츄 받아근 앵에 향아리에 비우믄 그 츄 반앙 그 물 헤근에 먹곡 그렇게 헛주.

#2 먹진 안허고.

#4 게우리, 게우리 빠진 것도 막, 막.

#2 먹진 못허고. (웃음)

#4 경.

#3 먹엇어.

#2 먹진 못허고 고노리라고, 고노리.

@1 고노리.

#4 아게 춤 받았 허는 거 맞추게. 게민 그 물 먹고게.  
 #2 고노리. 모기.  
 @ 예, 모기 장구벌레.  
 #2 모기 허는 거 모기 바글바글헌 거. (웃음)  
 @1 그거 험벅에 영 행 허민 벌경헌 거 톨라뿔 먹엇덴 험디다.  
 #2 (웃음) 아이고.  
 @1 고노리.  
 #2 고노리.  
 @1 예, 그치룩 헤근에 춤향이 아까 슝철낭에도 허고 돔박낭에도 허고예?  
 #2 응.  
 @1 예, 지금도 그 춤 메난 흔적은 엇인가?  
 #2 지금은 엇주.  
 #1 각단이영 저 메영.  
 #4 거 이제 만들민 뉘는 거주.  
 #1 새로 멘들양은에 단단히.  
 #2 거 새로, 새로 헤서 영 여까서 딱 허영 졸라메근엥에 허민 뉘주, 새로.  
 @1 게민 그거.  
 #2 간단헤여.  
 @1 그걸 춤이렌 허여예?  
 #2 응, 춤.  
 @1 춤이렌 허고. 그 거 밑에는 향을 놔둬니까?  
 #2 향.  
 @1 아, 걸 춤향.  
 #2 어, 춤향.  
 @1 아아, 게난.  
 #2 향도 큰 거 낱은에.  
 @1 큰 거 낱예, 물.  
 #2 어.

## 5.2. 초가 지붕 이기

@1 그다음 집 한 번 아까 새로 일어 봅주. 여기는 초집은 몇 년에 한 번 입니까?

#4 일 년에 한 번.

#2 일 년에 한 번.

@1 일 년에 한 번. 도비, 창호지 불리는 것도 일 년에 한 번?

#2 아, 창호지, 그건 때에 따라서.

@1 때에 따라서.

#2 음.

### 준비물

@1 그다음에 이제 집을 일젠 허면은 준비해야 될 게 뭐, 뭐 잇수과? 집 일젠 허면.

#3 새허곡.

@1 새 행 와야 뉘곡.

#3 각단허곡.

@1 각단 행 와야 뉘고.

#3 호랭이허고.

@1 호랭이허고.

#4 휘랭이엔 험서. 호랭인 사람 뜰어 먹는 것가 호랭이주.

#2 (웃음)

@1 여기는 휘랭이?

#3 호랭이.

@1 휘랭이나 호랭이나예?

#3 (웃음)

#4 휘랭이나 호랭이나.

#1 뒤치는 거허곡.

@1 뒤치는 거하고.

#1 \*\*\*\*.

@1 그다음에 삼춘네 호랭이는 여기는 진 거 씹니까, 쫄른 거 씹니까?

#2 족은 거.

@1 쫄른 거 손에 영 잡아근앵에 허는 거?

#2 어어.

@1 어, 그렇게 허고.

#4 진 건 뒤치는 거고 뒤치는 거에.

@1 뒤치는 거 허고예?

#4 뒤에 앓앙 영 허는 건 뒤치는 걸 영 영 허멍 비어가는 거고, 우리는 휘

랭이로 허고 휘랭이로 영 허고.

@1 휘랭이로. 예, 게문 그 집 줄 놓젠 허면 아까 그 새는 열, 백 단을 든덴 헛잡아예, 백 단이나 백이십 단 든덴 헤신디.

#2 어어.

@1 그 줄은 허젠 허면 각단이 멧 못, 멧 단 필요헤마씨?

#2 각단 현.

#4 하영 들어, 하영 들어. 요만씩, 요만씩 현 거라 놓난 하영 들어.

#2 현 삼십, 현 바리, 두 바린 들 거라. 거의.

#4 두 바린 안.

#2 두 바린 들 거우다.

#4 두 바리로 당추 못 허여.

#2 아, 두 바리문 됩니다, 두 바리. 각단 두 바리민 뉘어.

@1 그, 삼관집 하게 뉘면예?

#2 예.

@1 게문 그 줄은 멧 개나 필요헙니까?

#2 줄 많주.

@1 진줄허곡 즈른줄 이실 건디.

#2 야, 게메.

#3 그 멧 갠 알아져?

#4 몰라.

#2 진줄이 현 쪽 열다섯 개 현.

#3 진줄이.

#2 진줄이 한 사십두 개쯤 들까?

@1 예, 마흔두 개에서 마흔다섯 개.

#2 어어 약, 약으로.

@1 즈른줄은?

#2 즈른줄은 그거어.

#4 스십 갠 안 들어도 열, 서른 갠 들엄직허다. 현 영 가운데로 허민 열다섯 개, 열다섯 개 두 개 허난.

#2 서른 줄은 헤도 어 오분에 삼, 오분에 삼, 오분에 이는 긴줄 뉘곡 경헙니다게.

@1 예, 예.

#4 그 즈른줄은 육십 개.

@1 육십 개에서.

#4 이치가 그렇게 뽕직허다.

@1 예.

#2 오십 개민, 오십 개민 뒤어.

@1 경 허당 보민 각단도 행 오젠 허면 하영 행 오고예. 여기서는 새나 각단은 어디 강 행 와마씨?

#2 아, 요 드룻밭디 가근앵에. 여기서 그 것도 귀행 여기서 허젠 허민 저 동드레 가야, 새 비레 가야주.

@1 으.

#2 가근에 놈의 밧디 새밧디 강 도둑질도 헤오곡.

@1 도둑질.

#2 (웃음) 목장에 가서도 헤여오곡. 새 거, 새 뽑젠 허민 이녁 새왓 신 사름은 뒤지만은.

@1 예.

#2 없는 사름은 거 메칠, 메칠 강 행 와야 뒤어.

#3 메칠. 막 뽑앙 와야 허여.

#2 메칠 강 뽑아야 뒤어.

@1 아, 메칠 강예?

#2 아.

@1 몰르게.

#2 아.

#3 아, 몰르게 아니고.

#2 아무디도.

#3 가시밧 ㄱ튼 디 그런 디 잇는 디 가근에 뒤 디 강은에 새를 뽑아근에 그 거 헤근에 뽑아 와야주.

@1 이 동네엔 새왓 잇는 사람들이 하진 안헛구나양?

#2 아, 겐디 부자칩이덜은 밧 잇는 사름은 새왓 역불 헤근에 허곡게.

#3 일부러 새왓 들여근에, 새왓 들여근에 다 허는디. 없는 사름들은.

#2 험도 허곡, 허당 남으민. 아이고, 새 뽑으레 뒤.

@1 게문, 삼춘네는 새왓 잇엇수과, 엇엇수과?\

#2 우린 엇엇주.

@1 엇언예? 게문, 그 워냐 하면 일 년에 집 흥 번씩 일젠 허면 새 뽑는 일도 엄청.

#2 어이구, 엄청나주게. 흥 번 강 잘 뽑앙 헤야 열닷 단 뽑앙 오곡.

@1 응, 한 번에예?

#2 응, 열닷 단.  
 @1 열닷 단.  
 #4 응, 열닷 단.  
 @1 거난 그거를 새, 새 뽑앙 온덴 곶암저예?  
 #2 응, 새 뽑으레 가는 거.  
 @1 새 뽑으레 가는 거. 웨냐면.  
 #2 으응. 강 곶령, 곶령 뽑기 때문에 그.  
 @1 곶령은에 하니까.  
 #2 어어.  
 @1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집 이는 시기가 늦어지는구나, 여기는.  
 #2 으응. 하여튼 여기선 봄 나가사.  
 @1 봄 나가사예. 거난 아까 동짓들에 아까 새 뽑은덴 허지 안헛수과예?  
 #2 어, 동짓들에.  
 @1 동짓들에 새 뽑고 각단 비고.  
 #2 정월, 정월달쯤에.  
 @1 그 집 이는 거는 정월에 일어예?  
 #2 어어.  
 @1 계민 정월 멩질.  
 #2 전에 허는 거.  
 @1 전이 이제 허는 거라예. 예. 그렇게 행은에 이제 하고. 집줄은 어떻 됩니까?  
 #3 에구, 못 앞으켜.  
 @1 집줄은 어떻 됩니까?  
 #2 어떻?  
 @1 집줄은 영.  
 #2 여자덜 비고.  
 @1 멧 명이?  
 #2 남잔 놓고.  
 @1 아, 남자가 됩니까?  
 #2 응.  
 @1 그 줄 놓는 거는 이렇게 각단 멕이는 거를.  
 #2 어, 멕이는 거 줄 놓는 거.  
 @1 줄 놓는 거, 그다음에.  
 #2 것이 우리 잘 허주게, 건.

@1 아, 삼춘이 선수구나.  
 #2 어 참 뭐. (웃음)  
 @1 게고, 그다음 여자들은.  
 #2 줄 비곡.  
 @1 줄 비곡, 어.  
 #2 빨리 비민 빨리 놓고 늦게 비민 늦게 놓곡.  
 @1 아, 이거 놓는 거에 따라서 저기 하는 거라예?  
 #2 아, 그렇주. 그렇주. 우리 춤 하영 헛주.  
 @1 메칠은, 줄 놓젠 허민 메칠 걸려?  
 #2 줄사 하루에 완전히 다.  
 @1 하루에 다 끝나 붙어마씨?  
 #2 어, 하루에 끝나 붙어.  
 @1 아아.  
 #2 아침이.  
 @1 하루에 끝나고.  
 #2 응.  
 @1 그다음에 줄 다 비어 놓면.  
 #2 응.  
 @1 그다음에.  
 #2 어울리주, 어울려.  
 @1 어울리는 거.  
 #2 어울려.  
 @1 게민, 이걸 어울리젠 허면.  
 #2 어울릴 때는 여 거 비는 사람 둘이.  
 @1 응.  
 #2 으. 또 어울리는 사람 한 사름, 뒤치는 사람 하나, 경 너이가.  
 @1 뒤치는 사람 하나.  
 #2 너이가, 너이가 들어.  
 @1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 (웃음)  
 @1 줄 비는 거고예. 그다음에 직접 그 호랭이도 멘들어 붓데가?  
 #2 아이 만들주게. 이제도 뭐 대, 대, 왕대 해근에 뭐 시민 영 꼬불아진 낭 허민 금방 만들어.  
 @1 금방 만들어예. 그 저기 호랭이 헐 때 대낭은 뭐렌 헉니까? 그 이름은

뭉헐, 뭉헐 때렌 곶아? 대.

#2 대?

@1 으응, 이름 엇어?

#2 어, 거 미시거렌 헵니까? 대, 허, 호렝이 대.

#4 활통.

#2 활통, 활통이엔.

@1 아. 활통.

#4 활통.

#2 아아, 맞아. 활통.

#4 영 영, 끼우는 거 활통.

#2 으응, 활통.

@1 아, 영 영 오그라정 끼우는 건 뭉헐 허여?

#4 거 공, 공쟁이, 줄공쟁이.

@1 줄공쟁이.

#4 활통, 줄공쟁이.

#2 활통.

@1 줄공쟁이하고 활통으로 이루어져서예?

#2 어, 어.

@1 그 저기 호렝이는.

#2 어.

@1 뒤퉼치는.

#4 뒤퉼치, 저, 저, 저, 뒤퉼치기, 뒤퉼치기, 저 뒤에 앓앙 영 영허는 뒤퉼치기.

@1 뒤퉼치기. 뒤퉼치기 영 허주마는 영 세우는 거 잇잖우파?

#4 뒤퉼치기나.

#2 세우는 거 잇주.

#4 거나 거나 거나 거 뒤퉼치기 대엔 허주마는.

#2 건 뭉헐 허는고.

@1 뒤퉼치기대예?

#2 영 세왕은에 고망 톨른 거. (웃음)

#4 영 세왕은에 영 박아근에 고망으로 영 찰렁 영 영 영 뒤퉼치기 대엔 허주마는.

@1 게난 어떤 디는 그거 저기 ㄱ레로 헤십디다. 정 ㄱ레로.

#4 뭉?

@1 정 ㄱ레에 영 저 헤영.



#4 돌에 영 영 저 이제 또 \*\* 들이몰앙 영 영 영 허는 것도 있고.

#2 정ㄱ레?

@1 예, 정ㄱ레.

#2 어어, 아.

### 집 이는 날

@1 경허는 거고예. 그다음 삼춘, 그 지붕 일어나면 이제 집 일 거 아니우파 예? 집은 언제 일어마씨? 날 밤은에 허지 안헤? 집 이는 거.

#4 득 우는, 밤 끝나면은 기자.

#2 으응, 날 밤 허주, 날 밤.

#4 기자, 기자, 봄 남 새에 아무 때나.

#2 베염날 ㄱ튼 디는 안 허곡.

@1 베염날은 안 허고예?

#2 어어, 쥐날 ㄱ튼 날 안 허고.

@1 안 허고예?

#2 날 대략 그 어느 그.

@1 주로 제일 존 날은 언제가 제일 좋덴 험디까? 집 일 때.

#2 개날인가? 뭐 나 우리는 거 관심, 그거 관심 엇어놓난[노난].

#4 무시거?

@1 어느 날이 켈 좋냐고?

#2 집 이는 날, 날 봤수다게. 개날 ㄱ튼 날.

#4 집 이는 날은 툷날.

#2 개날, 개날.

#4 ㄱ튼 날이 좋주만은 아무 때라도. 헤근에 거 사근에 내릴 때 옷 벗영 오 줌 썩썩 싸불면은 다 방제가 뉘어 가지고 다 오줌 싸렌.

@1 오줌 싸렌 곱아. 게 오줌 싸렌 곱습니까? 거문 방쉬 뉘덴 허여?

#4 어, 거 방쉬 뉘덴.

### 거왕대

@1 그다음에 그 집 줄 메는예, 영 대나무 잊지 안허우파? 앞에?

#2 앞에 줄 메는 대.

@1 응.

#2 어.

@1 건 뉘렌 험니까? 왕대로 헤 갖고예.

#2 왕대도 허고 나무로도 허주게.  
 @1 나무로도 허고.  
 #2 그거 무시거엔 험니까? (웃음) 나 원.  
 #4 무시거?  
 #2 다 잊어비언 곧지도 못허켜.  
 #4 무시거?  
 @1 줄 무끄는 대.  
 #2 줄 메는.  
 #4 거왕대.  
 @1 거왕대.  
 #4 어.  
 #2 (웃음) 다, 다 잊어비영 원.  
 #4 거왕대.  
 #2 거왕대가 맞추.  
 @1 거왕대에. 그 요기 그 양금석 선생님네 집은 거왕 메는 영 줄 그 저 거왕 영 연결허는.  
 #2 거, 내중엔 그 철사로도 헛어.  
 @1 아, 철사로도.  
 #2 으으, 철사로도.  
 @1 거긴 나무로 헤십디다, 거긴.  
 #2 어, 낭으로? 낭으로 허주게. 대부분 낭으로. 대나무가 엇주.  
 @1 계난 아니, 그 왕대로 헛는데 그 왕대를 연결하는 디마다예, 낭으로 이렇게 고리들이 다 이십디다.  
 #2 어, 고리, 고리 영 나무로 헤영, 고리 찢르는 거?  
 @1 예, 예.  
 #4 왕뎃고리[꼬리].  
 @1 아, 그걸 왕뎃고리엔 헤여마씨?  
 #4 꼬리.  
 #2 고리.  
 #4 동글납작헤영 왕뎃고리.  
 @1 아, 아.  
 #2 영 나무로 헤근에 영 헤근에.  
 @1 예, 예.  
 #2 고리.

#4 줄 메난, 줄 메난 거 지금 왕뎃고리.  
#2 다 메면은 그 저 고리에 찢르민 그자 뉘어.  
@1 게니까 다른 동네는 그냥 그.  
#2 졸라메서.  
@1 서슬목.  
#2 응, 졸라메영.  
@1 서슬목에다가 서리에.  
#2 으응, 서리에 졸라메근에.  
#4 서리에 졸라메는 따문에.  
@1 아.  
#2 메영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1 아, 여기는 양금석 선생네만 경 험 게 아니라 이 동네는 아까 그 거왕,  
거왕고리?  
#2 어.  
#4 거왕, 거왕대.  
#2 거 전부 허진 안허여.  
#4 영, 허영.  
@5 왕뎃고리.  
@1 왕뎃고리.  
#2 전부 허쟁도 언 허여.  
#4 줄 등겨근에 줄 무끄는 거 왕뎃고리.  
#1 거의가 경행 멘들양 돌아메났어.  
@1 아, 거의예. 게난 그 왕대를 연결하는 그거, 거왕대.  
#2 게난 자꾸 졸라메기 싫으니까 그걸로 메어 낚 멘든 거주.  
@1 아아.  
#2 (웃음)  
@1 내려, 내려오니까.  
#2 어.  
@1 아, 예, 예, 예, 예.  
#2 것도 나무 저 썩지 안헌 나무로 잘 허영은에 오래 허영.  
@1 그다음에.  
#2 솔피나무 ㄱ튼 거 행은영에.  
#4 치레허는 집이사.  
@1 솔피냥이 좋읍니까?

#2 솔피낭 거 비에 잘.  
 @1 아.  
 #2 대부분 솔피낭.  
 @1 솔피가 그 비에 강허구나예?  
 #2 어, 강허여. 솔피.  
 @1 그다음에 집줄도 한 번에 메지 안헌, 안헌덴 허멍예?  
 #2 어게. 두 번에 메주게.  
 @1 두 번에.  
 #2 흥 번에 여사, 이는 날은 여사 멏다가 잠자면은 그때는 세계 헤영 딱 세계.  
 @1 거난 그 좀 재우는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웁니까?  
 #4 건 브름이 불기 때문에 브름에 불리지 말라고 단단허게시리 힘으로 두 번에다가 딱.  
 #2 거 두 번에.  
 #4 단단허게시리.  
 #2 제라 메민 바짝.  
 @1 쟁은에 그 줄 메는 거는 줄 멘덴 헉니까? 여기에서는.  
 #2 어, 줄 멘다고.  
 @1 그 다 줄 메나면 그 저기 호미로 다 비지 안헉니까?  
 #2 어, 거 다 비어.  
 #4 어.  
 @1 거는 뭐헌덴 헤?  
 #2 (웃음)  
 #4 무시거?  
 #2 (웃음)  
 #4 눈썹 그차 부는 거.  
 @1 눈썹 그차 부는 거예?  
 #4 어, 눈썹 끊는 거 이거.  
 #2 (웃음)  
 @1 거난 눈썹 끊는 거는 그 지붕 새 잘르는 거를 눈썹 끊는 거고.  
 #4 아, 눈썹 그치는 거고.  
 #2 어, 눈썹.  
 @1 그거 말앙 줄 그치는 건?  
 #4 어디?

@1 줄 메영은에 줄 남은 거.  
 #4 줄 메영, 아, 그건 그건 이름 없어. 그자 줄 메나민 ㅋ칭허게만 그차부는 거고.  
 #2 (웃음)  
 #4 집 임제 그랑그랑허민 \*\*\* 건 눈썹 그치는 거고.  
 @1 예.  
 #4 줄 그치는 건 이름 없어.  
 @1 이름 있어?  
 #2 줄 끊어부난에 줄 끊어불라 허영.  
 #4 거혈 때 줄 ㄱ치ㄱ치 저 눈썹 그칠 때 ㄱ치 그차 불민 뉘는 거난.  
 #2 이것 끊어나근에 줄 끊어 부난에.  
 @1 예예. 게민예 줄 끊어나면 그 남은 줄로는 무신거 헛수과?  
 #4 어?  
 #2 방석.  
 @1 방석.  
 #4 방석 만들어.  
 @1 건 무신 방석?  
 #2 저 부억에 방석 만들어. 뱅뱅. (웃음)  
 #4 줄로, 줄로 멘들아근에.  
 #2 줄방석 만들어근에 끌아 앓앙.  
 @1 예, 거난 줄방석덜 헤 갖고.  
 #2 줄방석이라고.  
 @1 옛날 다 그 정제 가면예, 줄방석덜 영 낡 있어나지 안헛수과예?  
 #2 응.  
 #4 줄방석 우에 앓앙 \*\*\* 얼마나 좋은지.  
 #2 (웃음) 줄방석.

### 5.3. 연장

#### 목수 연장

@1 삼춘, 그 집 짓젠 허면 목수들 들렁 뎅기는 연장은 어떤 거 있어신고예?  
 #2 목수?  
 @1 응. 들렁 뎅기는.

#2 목수 무신, 자귀하고 무신.  
 #4 멜망텅이 챙기고, 멜망텅이에.  
 #2 멜말텅이에 끝.  
 #4 멜망텅이에 놉근에 목수 연장 놉근에.  
 #2 대패.  
 #4 멜망텅이 메아정은앵에 덩기는 거. 멜망텅이에 낱.  
 @1 아, 옛날은 멜망텅이에 낱 덩겅구나예.  
 #4 응, 멜망텅이에 낱.  
 #2 귀자기허곡.  
 @1 귀자기허고.  
 #4 아, 귀자권 멜망텅이에 못 놓고.  
 #2 아, 건 뚜러멧어. 귀자귀.  
 #4 대패, 자귀, 끝. 망치.  
 #3 톱.  
 #4 또 하나는 또 톱. 톱, 톱은 안 들어가. 좀톱이난.  
 #2 톱도 들렁 덩깁니다게.  
 #4 톱, 계난 다섯 개.  
 #3 양밀거도. (웃음) 양밀거도라고 잇주게.  
 @1 예, 곱은자허고. 삼춘 양밀거도는 뭐?  
 #2 양쪽에 날이 잇으니까 양밀거도라고.  
 @1 아, 양밀거도라고.  
 #2 응. 훈 쪽이 흐쓸 훅게, 훈쪽이 족게 현 것이 양밀거도.  
 @1 예, 건 톱예?  
 #2 어어.  
 @1 그다음엔, 삼춘  
 #2 양밀거도.  
 @1 그 집 짓젠 허면 지둥 혈 것덜은 낭 큰 것덜 오려 와얏 거 아니우파예?  
 #2 오려? 까깁주.  
 @1 까깁?  
 #2 응, 귀자기로 까깁주.  
 @1 귀자기로 까끄고.  
 #2 어.

## 툽

@1 그다음엔 낭 싸젠 허민. 싸는 건?

#5 툽.

@1 툽으로.

#2 어어.

@1 무슨 툽으로?

#2 큰툽.

#3 거두.

#2 거두.

@1 거두. 거두는 어떻 생긴 게 거두우파?

#2 거두가이, 거두는 \*\*\*\*.

@1 날이, 날이 이렇게.

#5 보통 툽이면서 좀 큰 거.

#5 큰 거, 큰.

#2 거기서 요만이 요만이 높게 해서 거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룩 박아.

#5 이 정도 큰 툽.

@1 이렇게 영 저기.

#2 어어, 자룩 박앙 이렇게.

#4 어, 잘 그림신게. 어.

@1 이렇게 된 것이 거두지양?

#2 자룩은 이 자룩은 뽕짝허지 안허여. 이렇게 쪽허게.

#4 잘 그림신게.

@1 계난 이, 이 이렇게.

#2 어, 그렇지.

@1 이게 고비끼리우파?

#4 어?

@1 고비끼리가 이거우파? 일본말로.

#2 아.

#4 고비끼리, 고비끼리엔도 허곡 거두엔도 허곡.

@1 여기서는 거두엔 헛지예?

#2 거두, 거두.

#5 고비끼리, 거두가 고비끼리라?

#4 고비끼리는 양, 영 영 등기는 거.

#2 거두, 고비끼리허고 틀려.

@1 이거는 낭.  
 #3 둘이가 등기는 게.  
 #4 고비끼리는 둘이가 등기는 건데 저건 거두주만은 그자.  
 #3 어, 건 거두, 거두.  
 @1 아니, 이건 거두, 거두.  
 #3 이건 거두라.  
 #2 거두가 맞추.  
 @1 둘이 허는 건 대툽 아니?  
 #2 대툽.  
 #3 어, 건 대툽. 둘이가, 둘이가 등기곡 밀리곡 허는 거.  
 #2 대툽, 큰 툽 있어.  
 @1 예, 큰툽예?  
 #2 오리는 거.  
 @1 건 오리는 거고. 이건 낭 싸는 거고.  
 #2 어.  
 @1 그다음, 낭 까끄는 건 아까 귀자귀로 하고.  
 #2 어, 귀자귀.  
 @1 귀자귀, 상은앵에.  
 #4 저거 말을 제라하게 곱을라고 허면은 둘이가 등경 허는 건 좀툽이여, 좀  
 툽.  
 @1 좀툽?  
 #4 으. 영 등겼다 밀렸다 허멍 허는 거 요만허게 헨 거, 가운데허고. 경허고  
 큰 고비끼리 헨 건.  
 #2 대툽.  
 #4 고비끼리헨 건 낭 오리는 거.  
 #2 대툽.  
 @1 예.  
 #4 둘이가 영 영 영 영 허멍.  
 #2 좀툽은 요만이 길이여.  
 @1 좀툽은.  
 #2 요만이 헤서 췌, 췌 너비도 요만이 허고.  
 @1 아.  
 #2 어.  
 @1 거 완전 두꺼운 거예?



#2 어어.  
 @1 막 무거운 거.  
 #2 어어.  
 @1 건 혼자 씹니까, 둘이 씹니까?  
 #2 건 혼자 써. 혼자 쓰는 거. 거의 혼자 써.  
 @1 이런 식으로 똥 게 게문?  
 #2 아, 그건, 그건 건 이건.  
 @1 거두고.  
 #2 거두고, 거두고.  
 @1 그다음엔.  
 #2 건 큰 낭 끊는 거고.  
 @1 게민 이건 네모.  
 #2 요거 족은 것은 존존헌 거.  
 @1 요런 식으로 똥 거, 거는?  
 #2 어. 요만이 헌 거는.  
 @1 응.  
 #2 이것도 이제 내중에 그 기둥에 그 무시거 만들 때 그런 때 사용허는 거  
 라.  
 @1 아, 톱 넓이가.  
 #2 어, 넓이가 요만허여.  
 @1 두께가 아니고.  
 #2 어 그렇지계, 톱이.  
 @1 아까 그.  
 #4 즉, 말허면은 어떤 때 그 톱을 쓰느냐, 인척에 지계문, 구들문 잇지?  
 #2 그런 거.  
 #2 요만씩 요만씩 헌 거.  
 @1 예, 예, 예.  
 #4 그거, 그거 길 때에 그거 사용허는 거.  
 #2 존 거, 존 거 헐 때는.  
 @1 그래서 좀툽이구나예?  
 #2 좀툽으로 사용허고.  
 #4 그 구들문 쌀 오릴 때 거 사용허는 거.  
 @1 응, 그래서 그게 좀툽이구나.  
 #2 대툽은, 대툽은 큰 낭 오릴 때 대툽이고.

@1 예, 예, 예.  
#2 저건 큰 낭 끊을 때.  
@1 끊을 때.  
#2 으, 어.  
@1 이걸 혼자 허는 거.  
#2 거두고.  
@1 거두고예. 예, 예, 예.  
#2 어, 어.

### 대패

@1 그리고 요런. 이제 대패는 종류가 어떻 험니까?  
#2 대패도 여러 가지주.  
@1 예.  
#2 여러 가지.  
#4 흠 싸는 것도 잇고.  
@1 흠 싸는 대패는 무신 대패렌 험니까?  
#2 (웃음)  
#4 줄대패엔 허는가. 무시거 저 지게문 짤 때 영 문 짤 때영 문 흠 싸는 거.  
@1 예.  
#4 나 목수 아니난 일름 다 몰라.  
@1 예.  
#2 (웃음) 대패 일름을.  
@1 대패도 으라 개 이십디다.  
#4 대패가.  
@1 흠말이.  
#4 대패가, 대패가 민 무신거? 무신 민 무신거 영 짹짹 허는 거.  
@1 미는 거, 밀기. 밀영 허는 거.  
#2 영 짹짹허는 거주, 큰 거.  
@1 어.  
#2 대패, 대패는 뭐, 대패. (웃음)  
#4 대패는 영 허민 저 발롤 때 영 영 행은에 게 부찌는 거 잇지 안허여게.  
#2 여러 가지. 여러 가지.  
#4 여러 가지라부난 몰라, 몰라. 막 하부난.  
@1 예, 알아수다. 나도 몰라부난 들어보지 못 허쿠다.

#4 어, 막 하. 대패가.

### 못빼기

@1 그다음엔 못 영 뽑젠 허면은.

#2 어?

@1 못. 못, 못 뽑을 때 쓰는 건 뭐렌 헤?

#2 못빼기게.

#4 아하, 못빼기게.

@1 못빼기.

#5 못빼긴데, 빠루.

@1 일본말은 빠루.

#2 뻘지, 뻘지, 뻘지라고.

@1 뻘지.

#5 그런 건 빠루고.

@1 예.

#5 여기 잇는 건 못빼기.

@1 여기는 못빼기.

#5 장도리.

@1 장도리. 예, 맞수다. 장도리, 못 박젠 허민 뭐가 잇엇수과?

#4 망치.

#2 망치.

#4 함마.

@1 돌 일르는 사람들이 쓰는 거는, 석공덜.

#2 응?

@1 담 답젠 허면 뭐 뭐 가정은앵에.

#5 겐노.

@1 겐노.

#5 일본말.

#2 겐노, 겐노.

### 돌차귀

@1 예, 겐노를 우리말로 뭐렌 험니까?

#2 돌차귀, 돌차귀

#4 돌메게.

#2 돌차귀는 건 돌 까끄는 것이 돌차귀고.  
 @1 돌 가끄는 거.  
 #4 망치, 망치.  
 @1 메, 메.  
 #5 거 메는.  
 #2 메는 소메, 큰메.  
 #5 메는 큰 놈.  
 @1 큰 놈.  
 #5 와장창허는 거.  
 @1 예.  
 #5 그게 메고.  
 @1 예.  
 #2 완마라고, 완마 (웃음)  
 @1 완마.  
 #2 완마. (웃음)  
 @1 (웃음) 게니까 이제 메, 돌 깎 때 크게 내리치는 게 이제 메 아니우꽂?  
 #5 그게 메.  
 @1 큰메, 그게.  
 #5 그다음은 그, 그저.  
 @1 겐노.  
 #5 겐노.  
 #2 겐노.  
 #5 거, 그 일본말이라부난.  
 @1 예.  
 #5 일본말이야, 겐노.  
 @1 게니까 게난 메도 큰 거 잇고 작은 거 잇고예?  
 #2 아.  
 #5 완마 뭐, 그런 것도.  
 @1 다 일본말예. 그다음에 이제 잇고, 징도 잇어얄 거 아니우꽂? 돌 깨고  
 허젠 허면.  
 #3 돌 깎 때 허는 거.  
 #5 징.  
 @1 예, 징.  
 #4 무시거?

@1 징, 징, 징.  
 #2 징.  
 #5 징, 징.  
 #2 징, 징은 돌 깨는 거.  
 @1 돌 깨는 거.  
 #2 돌끌, 돌끌이렌 허여.  
 @1 돌끌.  
 #5 야.  
 @1 야.  
 #4 영 영 재는 거.  
 @1 야는 뭐우꽈?  
 #2 야는 거 돌트멍에 저.  
 #5 트멍에 가가지고.  
 #2 구멍 푼르는 게 야.  
 #4 뽕 닳은 거.  
 @1 응.  
 #4 야.  
 #5 돌 깨는 기초적인 거.  
 @1 여기서는 야렌 굴암구나예?  
 #5 으, 야, 야.  
 @1 야는 일본말은 아닌가, 췌기 이런 말은 안 됩니까?  
 #5 췌기, 원래 췌기는 췌역인데 우리말로.  
 @1 췌역, 예.  
 #5 췌역, 췌역인데.  
 @1 예.  
 #5 여기는 그 돌 깨는 걸 일본말로 야라.  
 #2 야, 야라고.  
 @1 그지예, 야는 일본말.  
 #5 췌긴데.  
 @1 어, 여긴 췌역이렌 허는 거지예?  
 #2 췌역, 췌역.  
 @1 췌역예?  
 #2 췌역은 나무 깎 때, 췌역.  
 #5 나무나 하여튼.

@1 돌도.

#5 트멍에 놓는 게 쉼역.

#2 쉼역.

@1 예, 맞수다. 쉼역, 쉼역은 우리말.

#5 예.

#2 쉼역, 쉼역.

### 곶은자

@1 그니까 아까 야를 쓰니까 하고 그다음 삼춘, 자는 곶은자?

#5 곶은자.

#2 곶은자.

@1 예, 곶은자만 필요합니까?

#2 어?

@1 집 짓젠 허민.

#4 곶은자는 곶은자주.

@1 게난 곶은자만 필요허여? 자는.

#2 자?

#4 자, 자게.

#2 아, 긴 자도 필요허고.

#4 곶은자는 곶은자주.

@1 긴 자도 가정 다녀, 목수들?

#2 아, 긴 자도 뭐.

#4 줄자는 그 당시는 엇고 곶은자.

#2 대부분 곶은자주게.

#5 옛날에는 목수 일 허는데 긴 자는 엇엇어.

@1 그지예? 다 곶은자 기억자들이고예?

#5 기억자. 곶은자여, 그계.

#2 기억자 허나 원. 곶은자 허나민 목수들.

### 먹통과 먹술

@1 그다음 목시들 허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먹통허고 먹술.

#2 먹통.

#5 먹통에는 따라다니는 게 먹술이니까.

@1 예.

#5 하나로 통허고.  
 #2 먹술.  
 @1 먹술은 뭐헐 때 씽니까?  
 #2 먹술?  
 #5 나무가.  
 #2 나무 까끌 때. (웃음)  
 #5 오그라젯는가. 폐와젯는가 그걸 재는 거여.  
 #4 나무가 말 아니허는 사름 짝 허영.  
 #2 바른말 허는 거.  
 #4 바른말 허라고.  
 #2 바른말 허는 거 먹통.  
 #4 바른말 허게 짝허게 바른말 허렌 허는 거라.  
 #2 (웃음)  
 @1 게난 이런 사람덜안티 말헐 때도 먹술 딱 허영 바른말허렌 영 곶아마씨?  
 #2 어어.  
 #4 지금 쥬인들도 먹술 갖당 탁 대면은 바른말 꺾나 불어, 쥬인덜토.  
 @1 어, (웃음)  
 #4 먹술 안 놓는 따문에, 죄인들이 바른말 안 허는 거주.  
 @1 먹술 안 헤부난예.  
 #4 응.

### 낭손, 쥬손

@1 어땡허코. 그다음 삼춘, 옛날 흑질허젠 허면 흑질허젠 허민 다 맨손으로 헛잡으파양? 그 맨손으로 말앙 요즘 이런 것들은 이렇게.  
 #3 쥬손.  
 @1 쥬손.  
 #5 고데.  
 @1 고데. 고데는 일본 말이고예.  
 #5 쥬손, 쥬손.  
 @1 예, 쥬손.  
 #2 쥬손.  
 @1 흑손이엔 말은 안 헛니까?  
 #5 흑손도 잇어.  
 #2 흑손.

@1 으. 흑손은 어떻 행 씽니까?  
 #5 거 웨, 흑손. 흑만 잡, 미니까 흑손.  
 @1 으응. 낭손이렌 말은 안 들어봅디가?  
 #5 낭손도 잇어.  
 #2 낭으로 그 만들민 낭손.  
 #5 낭으로 만드니까, 고데.  
 @1 고데. 나무로로 만드니까.  
 #2 고데.  
 @1 낭손하고 췌로 허니까 췌손.  
 #5 췌손.  
 #2 어, 췌손.  
 @1 그다음 삼춘, 이렇게 받치는 거?  
 #5 그거는.  
 #2 받이, 췌받이.  
 #5 것?라 뭇렌 허나, 세멘도 영 받아근에 쓱 밀곡 허는 거.  
 #2 (웃음)  
 @1 흑바데.  
 #5 바덴다이.  
 @1 예, 예.  
 #5 이름이 모르겠어. 바덴, 바덴디.  
 @1 예, 어딘 가난.  
 #5 흑바덴디 췌멘바덴디 그건 몰라.  
 @1 흑판이엔도 허고, 흑바데엔도 허곡.  
 #2 흑판이엔도 허곡.  
 @1 흑판이엔도 허곡예.  
 #5 몰라, 몰라.  
 #2 흑판이엔 많이 헛주게.  
 @1 예, 이렇게 해서 허다보민 거의 얼추 집은 영 지어질 거잖아양?  
 #2 어어.

### 흑질

@1 근디 집 지을 때 제일 큰 일이 흑질허는 일이렌 허멍예? 흑질헐 때 얘  
 길 좀 해줘 봅서.  
 #4 흑질헐 때 미시거?



@1 예, 흑질이 켈 큰 일이잖아?  
#4 예?  
#2 켈 큰 일이주.  
@1 예, 흑질혈 때는.  
#2 사름이 켈 많이 들어가난.  
@1 자, 밥헝 맥이기도 허고.  
#4 어.  
@1 흑도 허고 아까 물도 질어와야 뉘고.  
#4 어.  
@1 그 얘기를 곶아줍센.  
#4 흑, 흑질밥, 흑긋, 흑질, 흑 물꾼밥, 흑 상젯밥.  
#5 저기이.  
@1 예.  
#5 그 흑질허게 허젠 허면은.  
@1 예.  
#2 (웃음)  
#5 상뒤라고 헤 가지고 전부 동네 사름을 빌어야 허여.  
@1 예.  
#5 그런데 어떠냐.  
#4 물꾼밥, 물 지는 사람?라.  
#5 흑 불리는 사람.  
@1 예.  
#5 흑 뉘쓰는 사람.  
@1 예.  
#5 그다음은 날르는 사람, 그게 잇는데.  
@1 예.  
#5 그거는 밥을 어떻게 먹느냐.  
@1 음.  
#5 저 물 무슨 저 물 저다근에 흑더레 비우는 사람 잇는데.  
#2 흑긋데 드는 사람이여, 흑긋데 드는 사람.  
#5 쉼 몰양 가근에 흑을 불러.  
@1 예.  
#5 흑을 불러면 뒤죽박죽 흑허곡 저 그신새허고 헤 가지고 합쳐 가지고 그 물건을 만들어 놔야 뉘어.

@1 예.  
 #5 그다음은 이어도허라 허멍 그 좀 건장헌 청년들 와 가지고 뉘싸.  
 @1 예.  
 #5 그걸 다시 불러야 뉘니까, 경혜야 잘 불러지거든.  
 @1 으.  
 #5 그다음은 산태질 해근에 떠당 받쳐.  
 @1 응.  
 #5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이라.  
 @1 예.  
 #4 산태.  
 #5 밥은 어떻게 먹느냐, 제일 영허는 사람이 일등. 많이 먹는 거고.  
 #4 밧 불리는 사름 두 번.  
 #5 그다음은 쥬 내중에 먹는 게 밧 불리는 사람.  
 @1 어.  
 #4 (웃음)  
 #5 거 나이가 어린 아이덜이니까.  
 @1 아.  
 #5 거 영허는 거, 최고.  
 @1 계난 쉼허는 사람은?  
 #5 그 사람이 밧 불리는 사람이거든게.  
 @1 아.  
 #5 어리 어리 허멍 곳영 덩기명 그게 어린 아이들이라, 건 쥬 내중에 먹는 거, 참 불쌍헌 거지, 스물 전이니까.  
 @1 아, 흑긔 할 때.  
 #2 흑긔 허는 사름은 밥도 두 번 먹어.  
 @1 아, 흑긔, 흑긔디 들어가는 사람은?  
 #2 사람은 청년들이야.  
 #5 최고.  
 @1 멧 사람이 됩니까? 보통.  
 #5 아멩해도 다섯 사람.  
 #2 어, 다섯, 대여섯 사람 헤야주.  
 @1 흑긔에 다섯 사름.  
 #5 최소한 다섯 사람.  
 @1 경 행은앵에 이 저기 막대기 이만큼 헌 걸로 허잖아예. 이렇게 안에.

#5 아니, 막대기가 아니고 쉼스랑.  
#2 쉼스랑, 쉼스랑.  
@1 아, 쉼스랑으로.  
#2 쉼스랑.  
#5 쉼스랑으로 탁 짝엿 등기곡, 등기곡 허니까 힘이 들어.  
#2 힘들어, 어.  
#5 게니까 건장한 청년이 헤.  
#2 어, 그 참.  
@1 게문 그렇게 등기는 거는 노래 부르명 허여?  
#5 어, 게.  
#2 어, 노래 부르명.  
@1 그 노래를 무슨 노래?  
#5 그 노래는 몰르고.  
@1 (웃음)  
#2 (웃음) 노래는 여러 가지난게.  
@1 아까, 삼춘?  
#4 어, 어기와도 어어. 아 아.  
#5 이어도허나 허는 건 도께질이고.  
#4 여도 뉘싸지라.  
#5 이어도허라 허는 건 도께질.  
@1 아니, 아니, 삼춘 험신게.  
#5 아니 아니, 건 몰라, 모르겠어.  
@2 (웃음)  
#4 어기와도 허허어 뉘싸지라, 아.  
@2 (웃음)  
@1 어.  
#5 건 몰라. 뉘싸지라 허는 건.  
@1 뉘싸지라, 이거 닳아.  
#2 뉘싸지라, 응.  
@1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날 이제 흑긋 허젠 허민 여자들은 가서 이제.  
#5 물 질어 오고.  
@1 물 질어 오잖아예?  
#2 응.  
@1 그 훈 집 허나를 짓젠 허면 흑은 어느 정도 들코예?

#2 아이, 그거 많이 들어 많이.  
#5 그거 흔히 있어. 큰 집은 하영 들곡.  
#2 응, 많이 들어.  
#5 작은 집은 족영 들곡.  
#1 툇 수는 몰라.  
@1 예, 툇 수는 모르고.  
#2 하여튼.  
@1 보통은 마당들 팡은에 허곡 허지 안헛수과?  
#2 어 마당에, 마당에.  
#5 마당에 파면은 집을 짓으면 그디가 낮아.  
#2 삼십 평 정도는 파야 뉘어.  
@1 아.  
#2 삼십 평 정도는 파야 뉘어.  
@1 응.  
#2 삼십 평 정도는 파야 뉘어. 마당 허젠 허민 삼십 평.  
@1 경허난. 집보다 항상 마당이 이렇게 낮잡아예?  
#5 경 허주.  
#2 어.  
#5 그게 진짜가 뉘는 거라. 그게.  
#2 흑 허영 내부니까 낮는 거.  
@1 낮은 거. 그러면 그렇게 수세 놓고 허면 물은 멧 허백 정도?  
#5 아이고, 그걸 알암시민.  
#2 (웃음)  
#4 백 허백은 질어야 뉘어.  
#2 백 허백 더 들주, 백 허백이 뉘파? 백 허백이.  
#1 알 길이 없어, 알 길이 없어.  
@1 알 길이 엇어.  
#2 백 허백은 뉘.  
@1 계난 동네 사람들이 그날.  
#4 백 허백은 뉘 거라게. 백 허백이문.  
@1 다 부주혜 갖고.  
#5 다 허는데, 다시 흑질허젠 허민.  
#4 백 허백은 열 도라모 안 뉘켜.  
#2 백 허백은.

#4 흔 사름이 두 도라몬 놔야지.  
 #5 다 젊은 사람들이 튀기 해근에 발라주고.  
 #2 흔 사름이 당추.  
 #5 또 젊은 사람들은 우이 고데 올라강.  
 @1 예.  
 #2 이백 허벅도.  
 #5 올라강 젊은 사름덜이 허는 거여. 하나씩 하나씩 요만씩 해서 밑에서 던  
 지면은 전달, 전달허멍 탁탁.  
 @1 분업이 다 뒤텔구나.  
 #5 추년부떠 놀르기 시작해 가지고 추년 사각.  
 @1 예.  
 #5 추년부떠 놀러, 그계.  
 @1 어, 고데헐 때는 음.  
 #5 그다음은 추년부떠 우선 놔 낱. 그다음은 오는 대로 툯툯 놓면서 그 우  
 이 고데를 놀르는 거라.  
 @1 거난 고데는 다 헛수과?  
 #5 다, 전부 거의, 거의 헛어.  
 #2 어, 고데는 다 헨.  
 @1 고데는 다 하고, 어.  
 #2 어. 고데 해야주. 집이 단단하고 더 따뜻하고.  
 @1 으, 그 게문 그 흑질 허는 날은 무신 밥 해줍니까?  
 #5 보통은.  
 #2 에이고, 밥이, 옛날 밥이 뭐 잇어, 뭐 무시거.  
 #5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밥허고 좀 틀려.  
 #4 좁쌀에 감저 썰어 낱.  
 #2 감저 썰어 낱.  
 #4 물 지는 사름은.  
 #2 (웃음)  
 #5 놓이 와서 일허니까.  
 #4 일허는 사름은.  
 #2 남저가 흐쓸 첨 저 낮게 주고 여자는 또.(웃음)  
 #4 남자들은 보리쓸 놓고 좁쌀 놓고 감저 놓고 허여근에.  
 #2 잘 해주고.  
 #4 그, 그걸 반지기밥이라고.

@1 예.

#4 보리쌀 뉘가지고 현 거는. 반지기밥 헤 가지고 상뒤들 놓는 디서 잘 대 접허고 술허고.

@1 음, 그때 술은 무신 술?

#2 술 담아.

#4 술은.

#5 감저술. 고구마술.

#4 탁베기.

@1 탁베기.

#2 탁베기덜 해당.

#5 탁베기는 엇엇고 소주.

@1 반찬은 미신거?

#4 반찬이야 뭐 반치, 저 반치 바나나 님은 거, 그거 비어당 국 허곡.

@1 아, 반치국도 허여마씨?

#4 어, 반치국.

@1 으.

#4 거 미시거 국거리가 엇는디게.

#2 오이국 ㄱ튼 거.

#4 뭐, 뭐 국이 엇주, 국이, 국. 웨라도 시민 허주마는 웨도 엇고.

#2 웨도 거 웨 잇어낫주.

#4 그자, 뭐 쥬 가운데 뭐 쥬장이주. 뭐, 반찬이란 건 엇어.

@1 응.

#4 반찬, 뭘 반찬이 셔.

@1 게도 여기는 바당이 가까우니까.

#7 무사게. 메루치 잇지 안허우파게? 메루치.

#5 중간에는 메루치도 나오고 자리젓도 나오곡 다 그랬어.

#4 메루치도 엇어.

#2 툄도, 툄국도 허곡. 툄국도 헤어난. 응, 여러 개.

#5 자리젓도 나왔다고.

@1 자리젓도 나오고예.

#5 중간에는.

@1 예.

#5 멜첫도 나오고.

#2 건 내중에, 내중에.

@1 멜컷도 나오고.  
 #5 거 얼마나 좋은 반찬이라고.  
 #2 건 내중에, 내중에.  
 @1 (웃음)  
 #7 메루치에 놉삐 낱은에 보깡.  
 #2 건 오래지 안허고.  
 #4 이제사 나온 반찬이고.  
 @1 으. 옛날에는 어쨌든 반치국 행은에 주곡.  
 #4 예, 반치국.  
 @1 게난 여기는 산디가 엇어 놓니까[노니까] 보리쌀에 쯤쌀에.  
 #2 어.  
 @1 감저 낱 밥헤 준 게 으뜸.  
 #2 어어, 그렇게 허연.  
 #4 여자들은 물꾼들은.  
 #5 산디, 산디쌀.  
 #4 밥에 쯤쌀에 감저만 놉근에 허곡.  
 #5 그제 반지기밥이라, 산디쌀 안 들어간 건 반지기밥이 아니라.  
 @1 아. 산디쌀 흐꿈 들어가고예?  
 #5 어, 경헤야 반지기밥이지, 무슨 쯤쌀하곡 보리쌀만 들어간 건 반지기밥이 아니라.  
 #2 아이고.  
 #4 국은 놉물국 허곡.  
 #2 그때는.  
 #5 서숙. 서숙밥 허곡.  
 #2 밥도 하영 먹엇주게. (웃음)  
 @1 삼춘 거난 여자 물 질어 오는 사람 물꾼이렌 허잡아예?  
 #5 물꾼.  
 #2 어, 물꾼.  
 @1 남자들 흑긱디 허는 사람들은 뭇렌 헤?  
 #2 흑긱데 드는 사람, 흑긱데 든다고.  
 @1 흑긱?  
 #2 으.  
 @1 흑긱데 일허는 사람예?  
 #2 흑긱디 든다고.

@1 계난 상뒤렌 헌 거고예?  
#2 어, 상뒤.  
#4 향원이라고.  
#2 아, 문딱 해서, 상뒤.  
#4 향원들.  
@1 향원들.  
#5 놓 빌어오민 다 상뒤라.  
@1 다 상뒤예?  
#2 상뒤주게.  
@1 계난 일헤 주는 사람은 다 상뒤?  
#2 어, 상뒤.  
@1 근디 어딘 강 보난 흑질혈 때 친척들이 떡도 헤다근에 멕이고 헛덴 헛디  
다.  
#2 예, 그건. 내중예주게. 흐쓸 살아져 가난이주게. 어디 경.  
#5 여긴 엇어.  
@1 엇어예.  
#5 계난 집주인이.  
@1 어.  
#2 그건.  
#5 집주인이 잘헛던 못헛던 그렇게.  
@1 그 밥을 하고예?  
#2 살아질 때주, 옛날사 어디 경. (웃음)  
@1 계난 저기 성읍 가난 만뒤떡들 헝은예예, 그 친척들이 헝은에 멕이고 헛  
덴.  
#5 만뒤떡은 여긴 저 대소상 때나 만뒤떡 나오지 그거 엇어.  
@1 계난 여기가 땅이 썩장히 토질이 박한.  
#5 불쌍헌 곳이주게, 이곳이.  
@1 불쌍헌 곳이우파? 양반동넨디이. (웃음)  
#2 당채, 옛날 옛날은.  
@1 양반들도 다 보리밥만 멕영 살아부니까.  
#5 양반은 굶어야 양반이라.  
@1 맞수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집 일 때도 밥 헤줘마씨?  
#5 집 일 때 밥 안 줘.  
#2 아, 집 일 때 밥게.



#5 밥해 줘야지.  
 @1 집 일 때도 밥하고. 집 이는 사람은.  
 #2 흔 육십 년 전에는 다 그거주, 무시거.  
 @1 다 수놓엉 허는 거 아니라예, 수놓엉도 하고.  
 #5 수누는 거는 저 요새사 약간의 그 저 줄 등길 사람 엇이면은 하지.  
 #2 저 여기서, 집.  
 #5 다른 건 엇어.  
 #2 집 덮는 사람도 잘허는 사람덜 빌어다근에 허곡, 응.  
 @1 옛날은 담배 흔 갑만 줘도.  
 #2 별 거 엇어, 여기.  
 @1 다 헛덴 헛디다.  
 #5 아니.  
 #2 으응?  
 @1 담배 흔 갑만 줘도.  
 #5 담배 흔 갑이라도.  
 #2 아니, 담배 흔 갑은 아니주만은 허여튼. (웃음) 흐썰 뭐.  
 #5 그 사름이 우리 일헤 가지고. 일허면은 뒷날 나가 못 가면은 우리 각시  
 라도 가가지고 검질이라도 흐루 메어준다고.  
 @1 예, 예.  
 #5 그런 식으로 헛다고. 수놓음.  
 @1 수놓음으로예, 예 맞수다.  
 #2 것도 발세나 허고 뭐 허여사 잘허는 사람이엔 허주. 집 이는 사람도 아  
 무나 허는 게 아니.  
 @1 거난 발세.  
 #5 거의가 이 지역에는 수놓음을 많이 헛어.  
 @1 발세가 뭐우파?  
 #2 발세, 잘 발아다닐 수 잇는 사람. 발세 어디.  
 @1 예, 발.  
 #2 \*\*에서.  
 @1 으으.  
 #2 둔헌 사람은 발아다니지도 못허여, 지붕 우이 강.  
 @1 거난 잘 발아다니는 사람?라 발세가 좋덴예.  
 #2 발세, 발세 잘허는 사람.

## 5.4. 민속

@1 예, 예. 그다음엔 이젠 흠뻑뻑 안 남았수다. 이거 삼일 잇당 가야되는디.

가신예, 옛날 집 짓으면 집을 지켜주는 신을 위해서 제 지내거나 영 헛수과?

#4 미시거?

@1 제, 가신, 집.

#5 제, 제사?

@1 예.

#5 여기는 안 헛어.

@1 그 워 정초에 올레코시 같은 거 안 헛수과?

#5 올레코시는 헛지. 집 짓으는 헤, 무시거는 안 허고.

#1 토신제라고 헛는데.

@1 예.

#1 예, 근간까지는 토신제라고 해서 거의 다 자기, 자기가 못 허면은 그 다른 사람 빌영은에 헛는데.

#2 올레코시. (웃음)

#5 올레코시는 저 심방들이 허는 거고.

#7 올레코시사 심방들이 허는 거주.

#1 그 당시엔 허다가 나중에 가니까 거의 안 헤 불었주.

#5 토신제는 흠쉴 익을 줄 아는 사람 빌영 허는 거고.

#4 나 지금도 토신젠 다 헤어.

#2 토신제 허는 디 잇고 이제 하영 설러불어실 거라.

#4 설러불지 안현 다 헤.

@1 어.

#4 토신제 허는 것도 상당히 빗나메. 지금 육십만 원 줘야 토신제 헐 거라.

@1 계난 토신제는 지관이나 이런 사람 빌어당 허는 겨우파? 축 익는 거?

#2 아니.

#5 축, 축지관이라고 축관이라고 이서, 축관이라고.

@1 축관.

#4 그때는 누굴 빌어당 허느냐면 철학관.

@1 예.

#4 철학관 빌어다근영에.

#5 축관이라고 해서.

#4 아, 철학관이 아니고, 철학관은 택일을 하는데 그 허는 사람이 저 문밖 허는 사람덜이 있어.

#2 동네마다 \*\* 허는 사람덜 빌어근영에 제혈 때는.

#5 축관이라고 있어.

@1 예, 축관예, 축관.

#5 직업적으로 축 읽는 사름이 있어.

@1 예, 예.

#5 어디 가도. 허쓸 글 알?렌 허는 사람.

@1 유세차 모년 모월 모시.

#5 예, 유세차 뭐, 뭐. 거 뭐, 뭐 몇 년 몇 월 메칠 누가 고합니다.

#2 게난 거 글, 저 축도 적어놔야 돼어.

#5 축관이라고 있어.

@1 예, 축관.

#5 그 분들이 거의 헛어.

#2 철학관은 철학은 빌지 아녀.

#3 철학관은 택일만 허는 거주.

@1 게난 삼춘예, 토신제허는 축관 허는 거는 집 뒤에서 요렇게 허는 거짚우  
파양?

#5 오케이, 오케.

@1 그때 돛도 훈 마리 잡앙 험니까?

#5 도새기 잡는 게 아니라.

#2 도새긴 아니고.

#5 많이 생각헌 사람은 독 훈 마리.

@1 아아, 독으로? 어디는 강 보니까 그 토신제혈 때 희생으로예, 돛 훈 마  
리, 온돛으로 헤갓고.

#2 아이고.

#5 아니. 그건 기가 막힌 집인데, 데가리 허나 허는 사람은 잇엇어.

#2 거, 집, 개인 집으로 허는 디?

@1 예.

#5 돛데가리. 저, 저 돼지데가리.

#3 마을제 허는 디, 마을에서 혈 때는 돼지 잡앙 허여.

@1 마을제 혈 때.

#3 포제, 포제.

@1 포제 혈 때는예?

#4 포제 혈 때는 돼지 잡고.  
 @1 그다음에 집 지으면 성주들은.  
 #5 성주풀이는 한참 살다가 헛어.  
 @1 아, 예 한참 살다가. 바로 안 허고.  
 #5 바로 안 허고.  
 #2 (전화벨 소리)  
 #5 집 짓어서 바로 허는 게 아니고 여유가 생겨서.  
 #2 (잡음)  
 @1 그러면 성주허는 사람들은 누게가 왕 성주는 허여?  
 #5 쟁, 쟁.  
 @1 쟁, 쟁, 심방들?  
 #5 으음.  
 @1 쟁, 아까 올레코시도 심방 헌덴 허고예?  
 #5 올레코시는 심방.  
 @1 심방.  
 #5 ㄱ튼 거.  
 @1 으음, 게문 그거는 하루 종일 헉니까, 어떤 식으로 헉니까?  
 #5 하이고, 멧 시간 허영 얼마 드렌 허영 아정가는 사람들이.  
 @1 (웃음)  
 #4 시간 반.  
 @1 여기도 문, 문제[문째] 헉니까. 문전제?  
 #5 문젠[문쩨] 다 허여, 지금도.  
 @1 아아, 지금도 문제 허는 거예?  
 #2 어, 문제 허여. 문제.  
 @1 거는 식게나 멧질이나.  
 #5 겐디 문제가 가문마다 틀린 게 뭐냐면은 본 제사를 지내기 전에 앞에 허느냐, 그다음 제사가 끝난 다음 후에 허느냐 요게 가문마다 좀 틀려.  
 @1 거문 이 동네는 어떻 헉니까?  
 #5 사름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틀려.  
 @1 아, 보통은 본제 허기 전에 허지 안헉니까?  
 #5 그게 문제를 거의 그렇게 허는데 우리 저 양칩이도 후에 허는 디가 있어.  
 @1 아, 그렇구나예?  
 #5 양칩이도.

#7 양칩이도 틀려.  
#5 게, 양칩이도 틀려. 앞에 허는 사름도 잇고 뒤에 허는 디 잇고.  
@1 어어, 그러면은 그 문제는 누구를 위한 제우짜?  
#4 문전.  
#5 천만에.  
#4 문전 모르는 공사가 잇느냐. 문전.  
#5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귀신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지낼려고 하고 잇으니까 신 어서 들어오십시오, 허는 게 문제.  
#4 응. 문전 모른 공사.  
@1 예, 문전 무신 공사?  
#4 문전 몰른 공사가 잇겠느냐?  
@1 아, 문전 몰른 공사가 잇겠느냐, 아.  
#4 문전 몰른 손님이 들어오겠느냐.  
#5 신, 신을 불러들이는 제사.  
@1 예 그래서 어쨌든 문제라고. 여기는 문전이라 안 하고 문제렌 허지예?  
이 동네는.  
#5 문전.  
#2 문제, 문제.  
@1 문제렌 험디다, 이쪽 서귀포는? 문제엔도 허곡 문제렌도 허곡.  
#5 문제, 문제.  
@1 문제예?  
#5 제사 제 제를 써가지고 문 문 제에, 제사 제 자 써.  
@1 예, 예, 그다음에 조왕을 위행도 험니까?  
#5 조왕이라는 게 부역을 말하는 건데.  
@1 예.  
#5 거, 거기서 제사 지내는 사람 거의 엇일 거라.  
#4 건 가문에 따라 가지고 허는 거.  
#5 거의 엇일 거라. 거 무시거만 제물만 출렸당 끝내 부는 거지.  
@1 계난 우리 보통은 문제 헤난 거 그 들렁 강 부역에 허면은. 여긴 안 험니까, 그런 거?  
#5 걸로 끝나부는 거 여기는.  
@1 어.  
#5 몰라, 그렇게 거 아정가는 디가 잇는지.  
#7 안제엔 험 거 잇잖아, 안제엔 허는 거.

@1 여기 안제는 따로 저 고팡에 허는 거고.  
#5 고팡에 안제, 그거 문제허고 저 그건 틀린 거고.  
@1 건 따로.  
#7 틀린 건디 우리도 안제 헤나신디 그 이제는 치와불엇지만은.  
#5 게난 옛날은 헤낫주게.  
#4 조왕제 지내는 집이는 도체, 옛날에 도체비 우헤난 집이.  
@1 예.  
#4 도체비, 도체비 헤난 집이가 조왕제를 허곡.  
@1 예.  
#4 조왕젤 허곡. 경 안 허는 디는 안칠성이라고 헤 가지고, 거 보통으로 다 하고 뭐 거뿐. 이거 도체비 미신 위허는 집이가 거 불을, 불, 불을 좋아하거든 도체비는.  
@1 예.  
#5 뒤에 무신.  
#4 조왕제를 허는 거고.  
@1 뒤에는 칠성.  
#4 칠성은 안네칠성.  
#5 뒤에는 칠성.  
#4 바깳칠성사 경 아무데나 엇주마는 안칠성은 집집마다 잇주게.  
@1 게난 안칠성은 아까 고팡에서 허는 게 안칠성 모시는 거 아니우파?  
#4 거 안칠성계.  
@1 예.  
#4 게난.  
#5 게난, 이제 뒤에 집 뒤에서 허는 칠성 모시는 데가 잇는데.  
#4 건 바칠성, 바칠성.  
#5 그분들이 가끔 그걸 헛어.  
@1 아, 아.  
#5 안칠성이라고.  
@1 안칠성도 하고 바칠성도 하고예?  
#5 요것도 잘 뒤편게 헤줍서, 저것도 잘 뒤편게 헤줍서. 이거 그건데.  
@1 예.  
#5 거의 안 헛어, 거의.  
@1 아, 거의 안 하고예, 이 동네는예, 음, 그렇구나. 그러면 이 동네는 이제 마을을 위해서 하는 것은 포제?

#4 포제.  
#5 포제 저 육십팔 년도에 었어저불엇어.  
@1 아, 이젠 안 헉니까?  
#5 어. 육십팔 년도에 었어졌어.  
@1 게문 정초에는 뭐 헤마씨? 마을제 안 지냅니까?  
#5 마을제도 었고.  
#1 맞아.  
@1 아.  
#4 허는 부락도 잇기야 잇지. 잇주마는.  
#5 육십팔 년도에 나 제대행 보난. 나 반장 허명.  
@1 아니, 이 양반 동네가 포제를 안 험수다예. 그다음에 그 저기 신례리도 보면 당덜도 잇지 안허우파?  
#5 예?  
@1 당, 할망당 이런 거.  
#5 할망당 저 사무실 옆이 잇어. 잇엇는데.  
@1 예.  
#7 남밋, 남밋.  
#5 나무 밑에라고 헤 가지고.  
@1 예.  
#5 나무밋.  
@1 예.  
#5 남밋.  
@1 남밋, 응.  
#5 어, 거 허당 이제 다니는 사름 었어.  
@1 아.  
#1 다 설러 비엿주게.  
@1 다 설러불언예, 그러면 정초에 그 당에 거기가 남밋이 본향당이라낫수과?  
#5 여기가 본향당이라낫주, 게난 거의 다녓으니까.  
@1 아아, 그럼 거기 다니는 사람들도 었고예?  
#5 이제는 거의 없어.  
@1 아, 근데 여기도.  
#5 우리 집이도 뎡기단 안 뎡겸서.  
@1 아. (웃음) 게난 본향이, 아니 웨냐하면 여기는 물질허는 사람들도 이실

거 아니우파? 여기 신례리 바당으로.

#5 등록은 뉘도 다니는 사람은 없어.

#4 물질허는 사람은 신례리에 엇어, 베랑 엇일 거라, 엇어.

#5 등록된 사람은 있어.

#4 엇어, 엇어.

@1 아아, 역시 양반.

#5 멧 명 등록은 뉘어도.

@1 양반 동네여서 그런가?

#5 물건이 엇어.

@1 물건이 엇어예. 게문 하례 사름.

#5 뭐 허례 그디 강 고생을 허여.

@1 하례 사름덜은 물질헙니까?

#2 어디?

@1 신례, 하례.

#5 어데?

@1 하례리 사름.

#2 아, 여기도, 짐수질허는.

#5 하례리허곡 신례리는 틀리니까.

#2 사름 여러 사름 잇긴 잇는데. 다 늙언 이젠 뉘.

@1 늙어서.

#2 어.

#5 그게 아니라 우리 그 신례리 해녀가 신례이리 공천포.

@1 예.

#5 저기하고 같은 저.

#2 다 같은 조합덜이난게.

#5 ㄱ튼 그 험거든.

@1 해녀, 예.

#5 해녀회거든. 근데 등록은 뉘 사람이 있어.

@1 응.

#2 많주.

#5 등록은 뉘 사람이 잇는데.

#4 많주, 많아, 많아.

#5 거의가 가져올 게 없어. 바다에 가서. 게난 끝난.

@1 바당이 무사 그추록 다 ㄱ물아 불어신고예?



#5 아무것도 없어 7물아불어, 헤영.  
 @1 게니까 무사 헤영헤신고?  
 #4 폐바다가 뒤언.  
 #5 여기가.  
 #4 냇가에서.  
 #5 지역적으로 나빠.  
 #1 여기서 뭐냐 그 저 동네 사람들.  
 #5 못햐서. 안 나온덴. 아무것도.  
 #2 롯데공장, 옛날 롯데공장이 이디 허는디야.  
 @1 예, 예, 예.  
 #2 옛날 감저공장이랏어, 감저공장, 고구마공장.  
 @1 예, 전분공장예?  
 #2 그때부떠.  
 @1 그니까.  
 #2 어, 바당이 죽어 불엇어.  
 #5 그러헛는데 내 처근엿에 농약이나 뭐니 문딱 그레.  
 #2 그 따문에.  
 @1 게난, 감저공장 허고 폐수도예?  
 #5 그런 것만 잔뜩 있지.  
 @1 그다음에 그리고 롯데칠성 들어오면서 또 하고.  
 #2 아아, 물이 뭐, 뭐 어.  
 @1 아, 예.  
 #2 폐바다가 뒤주.  
 #6 이젠 흐뵀뵀 되는 모양이라.  
 #5 아, 거의 어려워 감서.  
 #2 옛날에,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이 물망도 나고 톨 7튼 거 전부 미역 7  
 톨 거 전부 나뵀는디, 그거 현 후에는 일절 나오지 안허여.  
 @1 게문 이 신레리 미깡 안 싱거시민 다 굶어.  
 #2 아이고, 아이고 다 굶어, 그걸 말이라.  
 #5 굶어 죽엇지야.  
 #2 (웃음)  
 @1 (웃음)  
 #2 토질 굶고 밀감 때문에 신레리가. (웃음)  
 #5 어디 저 대정 강 살던지 성산포 강 구좌 강 살던지 헤야지.

#2 아아, 건 틀림없어.  
 @1 게, 삼촌네도 못 만나실 지도 모르는다. 계난.  
 #4 박 대통령이 신레리 첫 번 왔어.  
 #5 어디 스라브 올리고 자동차 몰명 첨말로.  
 #2 박 대통령이 완에 신레리 첫 번 산촌 중에 제일 먼저 온 디여.  
 #5 흔 집이 차 두 대가 엇인 디가 엇인디.  
 @1 계난 이젠 완전 부자 동네 아니우꽈? 신레리.  
 #2 아, 부자 동네.  
 @1 신레, 하례 이쪽에 다.  
 #2 어디 어디, 이 근방에.  
 #5 부잔 아니고 그자 살만.  
 @1 살만헨예.  
 #5 부지런허민 살만.  
 @1 예, 예.  
 #4 다 곶안, 나 아주 유명한 얘기나 하나.  
 @1 예.  
 #4 허고 말게.  
 @1 뭐우꽈?  
 #4 그 말은 안 들어 봤일 거라. 똑 허나 뭐 셔.  
 #2 (웃음)  
 #4 야, 넬모리랑 슬각고지 가게, 그 말 안 들어봤일 거라.  
 @1 넬모리랑 슬각 꺼끄레 가게.  
 #4 슬각고지 가게.  
 @1 슬각.  
 #5 꺼끄레가 아니라.  
 #2 슬각, 슬각 알아져?  
 @1 예게, 슬각.  
 #2 응, 알주, 알주.  
 #5 슬각.  
 @1 불 피왕 살젠 허민 슬각.  
 #4 의미 기픈 얘기여.  
 @1 응.  
 #5 옛날 전기불이 엇일 때 쓰는 거.  
 #4 그거 웨 그러냐하면 옛날 섹유도 섹유지름도 배급이야 줬주마는 섹유지

름도 없지.

@1 예.

#4 불은 놔야 돼지.

#2 솔각은 모르주게.

#5 전기 대신.

@1 경허난.

#5 소나무에서 나오는 거.

#4 허면은 여기 소남 잇주마는 산에 저 지금 말허면 할로산에.

@1 예.

#4 산에 가면은 솔나무.

@1 예.

#4 송진이 모닥진 놈, 거보고는 그 놈 해당근에.

@1 예.

#4 깨어근에 글로 불 놓멍 미녕도 좇고 질쌘도 허곡 그걸로 허면서 살아나 왔지, 옛날. 게난 그것만치는 머리에 옛날, 옛날 어른들이 솔각 헤단에 불 놓면서 그 즉 말허면 옛날 바, 반딧불 반디 심어다근에 그 봐, 비추와 가지고 공부헌 사름 성공허듯이.

#5 형설지공까진 안 허곡게.

@1 (웃음)

#4 솔각 영 불 놔 가지고 걸로.

@1 미녕 짜.

#4 질쌘을 허고 미녕도 자고 게민 구들이 왁왁 시커멍 솔각불로 기시령.

@1 예.

#4 그러끔 허면서 옛날 어른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여. 중간에 요 언제나, 사삼스, 사삼사건이 그때 훈 오년 전 헤, 일본, 일본 사름이 해방된 지 후제는 솔각이 엇엇어.

@1 예.

#4 그 전인 솔각불을 싸고.

#3 거다 공출 헤났어, 그 솔각도.

#4 예?

@1 아, 솔각도 공출헤수가?

#5 예, 솔각 일본놈덜한테 공출헤났어.

#4 솔각도 공출헤났수과? 건 몰르고.

#5 공출 헤났어.

#4 그러면은 계난 솔각, 솔각으로 살았다는 거, 옛날은 불 놔 가지고.  
 @1 예.  
 #2 솔각도 상산에 저 한라산에 가야.  
 #4 저 백두산, 백두산이엔 헤점짜 .  
 #2 황솔나무, 황솔나무에서 솔각이 나.  
 @1 아, 그렇구나.  
 #2 으, 으.  
 #4 저 성판악, 성판악 넘어가야.  
 #2 여기, 여기 흑송, 흑송.  
 @1 흑송.  
 #2 소나무는 안 댕.  
 @1 아, 그렇구나예.  
 #4 그만치는 잊어볼지 말라 허는 거여.  
 @1 황솔나무.  
 #2 어, 황솔나무.  
 @1 으으.  
 #4 옛날 할망, 하르방들 그만큼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거. 걸로 불 놓면서.  
 @1 계민 삼춘, 이 동네는 길쌈을 하영 헌 모양이다예?  
 #2 어어.  
 #3 아무 디도 그때는.  
 #2 어어, 그땐 다 헛주게.  
 #4 멘네 갈아 가지고 걸로 옷을 헨 입었으니까.  
 #2 삼, 삼.  
 @1 삼도 허고.  
 #2 삼으로도 허고.  
 @1 삼으로도 허고예?  
 #2 삼, 으.  
 @1 계문 여긴 저 뭇도 누에도 첫수과?  
 #2 아아, 누에.  
 #4 누에 하영 헛주. 하영.  
 #2 아, 누에들 많이 헛주.  
 @1 예.  
 #4 웨 육지에서서.  
 #2 여기 뽕나무도 산에 가서 거 뽕 헤다가 다 키웠어.

@1 으응.  
#5 집이도 많이 심었어, 뽕나무. 뽕나무 키웠어.  
#4 왜정 때, 왜정 때도 누에 질루라고 훈 바둑, 두 바둑 헤 가지고 문 찢어.  
@1 거난 삼밭들도 잇어난 거라예?  
#2 어?  
@1 삼밭도 잇어난 거? 삼, 삼.  
#2 어, 삼, 삼도 허곡.  
@1 삼베도 허니까.  
#2 어, 삼.  
@1 예.  
#2 삼도 옛날 보리 거, 보리 걸고, 저 곳고 삼 거릴 때.  
@1 예.  
#2 음, 삼 거리기 전에, 거리기 전에 삼 헤낫주.  
#4 보리 곳고, 삼 거릴 때 든비에기 울어라.\*\*\*  
@1 예, 예.  
#2 그 말이 잇지 안허여. 삼 거리고 보리, 보리 곳고 삼 거릴 때 뭐 아이고  
게, 바쁘단 말이주.  
@1 계난 보리 곳고 허면은 어쨌든 망종 전에예, 망종까진 헤야 됩니까.  
#2 어어 계난 삼을 헤야 뉘어.  
@1 계난 보리 곳인덴 현 말은 무신 말이우파?  
#2 보리 곳고.  
@1 곳고.  
#2 어 장마 쳐가민 보리 곳고 뭐냐 하면.  
@1 어.  
#2 보리 꼬꾸라져불고.  
@1 아, 보리.  
#3 삼 거리, 삼은 거려가고.  
@1 예.  
#2 거 사름은 바빠근예. (웃음)  
@1 계난 삼 거려불민 이게 세어부니까 안 뉘어.  
#2 안 뉘, 안 뉘.  
@1 거리기 전에.  
#2 거리기 전에.  
@1 그니까 그 망종 전에.

#2 그렇지. 어.  
 @1 다 해야 허니까.  
 #4 계난 옛날 할머니들이 그렇게.  
 #2 (웃음)  
 #4 솔각불 놓면서 질쌘 놓면서 살았다는 그거.  
 #2 한결히 현 여자들이 있어?  
 @1 맞수다.  
 #4 옛날 할망들은 그만큼 고생했다는 걸 알아야 돼어.  
 #2 (웃음) 계난.  
 @1 계난 이쪽이 질쌘들을 하영 헛덴 허는데.  
 #2 으으.  
 #4 으, 솔각불 설러분 디가 현.  
 @1 질쌘 헤난 어른들 이신가마씨?  
 #2 어?  
 @1 할머니들, 질쌘 헤난 할머니들 이신가?  
 #4 현 육칠십 년 뉘서, 솔각불 안 현 디가.  
 #2 아, 아이고 현 멧 사름 시카. (웃음)  
 @1 예, 거의 돌아가션예, 질쌘.  
 #4 나가 현 여남은 살??지는 솔각불 낫이니까.  
 #2 ○○이 각시는 헤낫일 거라.  
 #4 현 칠팔십 년 뉘구나.  
 #2 헤낫주. 현 멧 사람 잇긴 잇는다.  
 @1 어어. 현 멧 사람예. 한 번 또 질쌘을 또 조사하러 현 번 오긴 와야겠네.  
 알앗수다. 요까지 허쿠다, 오늘.  
 @5 아니, 잠깐만.  
 @1 어.  
 @5 이게 집 지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은 엇엇수과? 뭐 이렇게 하면 안 뉘다. 금기어 같은 거. 집 지을 때 조심해야 뉘는 거. 집 지으면서. 그런 말들 엇수과?  
 #4 집 지으면 안 뉘다.  
 @5 예, 이렇게 하면 안 좋다.  
 @1 저, 삼춘.  
 #4 동티, 동티난다는 말.  
 @5 예, 예.

#2 (웃음)  
#4 동티.  
@5 예.  
#4 동티나니까 그렇게 허지 말라.  
#5 그거 방지허는 방법은, 제사 지내기, 저 집 짓기 전에 토신제를 거기서  
독 혼 머리 죽이곡 행은에 제사를 지냈어.  
@1 게문 삼춘, 토신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서. 워냐하면 집 짓기 전에 토  
신제도 허고.  
#2 어어.  
@1 아고, 아까 상량도 안 들어봐졌저.  
#2 상량, 상량, 상량제.  
@1 예. 토신제부터 곱아쥐 봅서.  
#2 (웃음)  
#5 게 토신제 경헨 헛주게.  
@1 게난 토신제 헐 때는 독 혼 머리허곡 또.  
#4 상량, 상량제 헐 때는 상량제도 게 양편이 지금으로 말허면은 미녕 혼  
필 허영근엔에 양끝으로다가 상물을 올리지 안허여게. 양옆에.  
@1 예.  
#2 올라가근엔에.  
#4 목수들 앓아가지고, 상량은 영 그디 돈도 걸고 문 불도 걸고.  
#2 혼쪽으로 올라가곡, 혼쪽 영 놔근에.  
#4 상량, 그게 상량이주게.  
#2 (웃음) 아니 올라 감덴 허문 돈 걸게 허곡.  
@1 게민 상량허영은에 상량목 이렇게 멜 거 아니우파양? 그다음에 그 목수  
가 상량하면.  
#4 목수, 목수 둘.  
@1 으.  
#2 글도 쓰곡.  
@1 아아. 둘이가.  
#5 그게 아니라.  
#4 목수 둘.  
#5 올라가면은.  
@1 예.  
#5 목수가 자귀 들고.

@1 예.  
#5 견주상량 허민.  
#2 (웃음)  
#5 딱, 닥데가리 치는 거야.  
@1 견주상량.  
#5 어.  
@1 건 무신 말이라.  
#5 굳을 견제에, 기둥 주 제 헤 가지고 상량.  
@1 아아, 게서 그.  
#5 단단헌 기둥해서 상량이라.  
@1 게난 그 상량목 위에 낳 독데가리 낳 탁 치는 거.  
#5 어, 그게 목수가 자귀로.  
#2 어어, 딱 그거.  
#5 견주상량 허면서 딱 독데가리, 야가지를 쳐.  
@1 예.  
#5 그게 상량식이야.  
@1 게문예, 상량 헛잡우파?  
#5 어?  
@1 상량헤근에 독데가리 첫수계양, 게문 그 독대가린 어떻허여?  
#5 거 옆드레 강, 저 앞드레 강 물어.  
#2 앞드레 강 물어.  
@1 어느 앞에 물어마씨?  
#2 기둥 앞.  
#5 저 저, 삼, 삼방.  
@1 삼방.  
#5 거 앞 가운데 짬에.  
@1 상기둥 그 앞에.  
#2 어, 어, 어.  
#5 거 묻는 게, 그게 마지막이야.  
@1 예, 그다음에 그 독데가리 가정은엔에 돌, 돌멍은에.  
#5 그게, 그게 헛 번 돌아근에 영 영 행 돌앙 그디 강 묻는다고.  
#2 (웃음)  
@1 게난 그 피 뿌리는 거를 머리로 영 헛 겨우파?  
#5 머리, 머리, 머리.



@1 머리를.  
#5 아니, 아니.  
@1 목.  
#5 데가리를 묻고 몸뚱이, 저 발 심, 발 심엉 돌아댕겨.  
#2 발 삼엉.  
@1 어, 발 심엉.  
#4 지둥드레, 지둥드레 왕 피 믿혀, 피 믿혀.  
#5 가운데 묻곡 득 다리 심어가지고.  
@1 흔 바퀴.  
#5 이레저레 툃툃툃툃.  
@1 어어.  
#5 경허는 거주.  
@1 경혜근에.  
#6 헉쓸 알면서 굴아줘야주.  
#2 (웃음)  
@1 그추룩 행은에 그 상량식 혈 때는 상량 혜근에 저 사탕들도 막 뿌리곡  
협디다.  
#5 그거는.  
@1 과자.  
#5 생각이 나름. 그 천에 그 속에 잇엇거든, 옆이.  
@1 으응.  
#5 그거 올라오니까, 미안허니까 헉나씩이라도 먹으렌. 이녁은 돈은 가지고  
옆이 사름은 사탕 먹으렌 허는 거라.  
@1 으, 으, 으.  
#2 (웃음)  
@1 게난.  
#5 돈은 봉투에 주니까 목수는 돈 가지고.  
@1 으응.  
#5 옆에 구경허는 사름은 사탕 헉나 먹으라.  
#2 거 돈도 여 당분간이주, 옛날사 어디 돈이 잇어.  
@1 아아.  
#2 (웃음)  
#5 거 것도 뭐렌 허는다.  
@1 예.

#2 요새, 요새, 첨, 건.  
 @1 계난 그.  
 #2 옛말이고 어.  
 #4 상량식도 엇엇주.  
 @1 예, 요즘은 상량식도 안 허고예?  
 #2 아주 옛날은 그거 없어.  
 @1 예. 어쨌든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우리 초집 짓고 헐 때 이런 이야기들을 헐 거잖아예?  
 #4 초가집 짓엉 상량이라고 헐 건.  
 #2 이건 육십 년 후에 것들 말허는 거주게.  
 @1 예.  
 #2 이건 뭐.  
 #5 우린 그 전에 건 모르고.  
 @1 맞수다게, 그 전엔 사람들.  
 #2 우리 알거니 그자.  
 @1 계난 육십 년도게 이제 세어봅서게.  
 #2 (웃음)  
 @1 지금 이천이십년이 다 뒹엄수게.  
 #2 계난.  
 @1 요즘 초집.  
 #5 헐 오십 년 먹으난. 뭐 저 장개간 지도 오십 년 넘어신디.  
 #2 왜정 때, 왜정 때 헐 그 후로 뭐 헐 거주, 왜정 때 첨.  
 #5 게.  
 #2 자꾸 영헌 사람들이.  
 @1 이 동네 지금 이거 신례일리잖아예. 원래 신례 이름은 예춘 말앙 다른 이름은 엇수과?  
 #2 무사 호춘이라고.  
 @1 호춘, 옛날 법호춘 허영 호춘.  
 #5 아니, 아니.  
 @1 그거 허고는 다른 거?  
 #5 그거 호춘이라고.  
 @1 예.  
 #5 무슨 호제를 쓰냐면은 여우 호제 써 가지고.  
 @1 예.

#5 지금도 거 있어.

@1 여우네.

#5 아, 여우, 여우 호제에 마을 촌제 써 가지고.

@1 으응.

#5 호촌. 어디냐면 예춘망이라고 있어.

@1 예. 예춘망예?

#5 하예리.

@1 예.

#5 거기 그걸 칭헌 거라.

@1 아아.

#5 호촌이라고.



## 6. 안성리 초가 구술

## 6. 안성리 초가 구술

- 일시: 2019년 9월 5일
- 장소: 안성리 복지회관, 추사적거지
- 조사자: @1 김순자 @2 양성필 @3 고창근 @4 오경임 @5 김미진
- 제보자: #1 송응울 #2 조이전 #3 임영일

### 6.1. 구조

@1 (웃음) 아, 우리 그 이게 녹음하당 보난 훈 사람 이야기할 때는 다른 분은 이제 그 멈춰주곡예. 이렇게 그 교차허멍 가쿠다예. 어, 사, 삼촌이 젤 집 하영 지어본 삼촌이.

#1 예, 예.

@1 우리 삼촌, 예.

#1 뭐 잇영 곱아.

@1 (웃음)

#1 초가집에 잘 안단 말.

@1 예.

#1 그.

@1 집 지어난 경험 핫덴 헨게마는 간단하게 어떤 집들 지어나고 멧 거리쫘 짓엇수과? 이제까지 살멍.

#1 멧 거리 무슨. (웃음)

@1 그냥 손지한티 곧듯이 그냥 곱아주민 뉘마씨.

#1 나 집 짓어나기는 뭐 서너 거리 짓어났주마는, 이 초, 초가집 이는 거는 또 그 근간에 그때 이제 뭐 저 우리 추사관 뭐 헐 때 그때도 저 초가집을 일엇고. 저 건 혼자만 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필요허는 거니까 여러 사람이 헤야 뉘니까 혼자만 허는 게 아납주게.

@1 예.

#1 초가집 지붕 이는, 짓는 것도.

@1 예.

#1 훈 두 사람 허는 것이 아니고, 줄 메는 사람도 이제 양쪽에 두 사람씩 헤 가지고 저거 허고 또 새 올려주는 사람, 집 이는 사람, 다 따로따로 분할식으로 헤야 뉘어.

@1 예, 맞수다. 그 이 여기는 옛날에 이제 대정이렌 허잖아예?  
#1 예.  
@1 아, 여기 안성 옛날 이름은 무신거마씨?  
#3 동성리.  
@1 동성리?  
#3 예, 옛날 대정.  
@1 한자로 말고, 대정골 여기 허는데 동성리 전에는 무신거라낫수과?  
#3 동성리 전에는 대정.  
@1 대정골, 대정골.  
#3 예, 대정골 해서 대정현 설치되면서 한 마을 대정골로 통일이 됐다가.  
@1 예.  
#3 인구가 불어나면서 이제 마을 두 개로 나뉘십주예.  
@1 예.  
#3 예, 그래서 저 서쪽은 서성리, 지금 보성리에 해당이 되고.  
@1 예.  
#3 요쪽 동쪽은 이제 동성리, 동쪽마을이라고 해서 동성리라고 이름이 이 불려졌다가, 나중에 동성리는 안성리로 또 이름이 개명됩니다예.  
@1 예.  
#3 바뀌지고.  
@1 예.  
#3 어, 그다음에 또 안성리에서 지금 인성리가 분리되고.  
@1 응.  
#3 최근에 천구백십사, 아, 십오 년도에 최근에 와서는 또 안성리에서 구역 리가 분리되고.  
@1 응.  
#3 어, 그리고 서성리에서는 예, 서성리 상동이라고 해서 저쪽 신평, 저쪽 상동하고 일과리하고 합해서 신평리가 마을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대정골이 현재 다섯 개 마을로 구성이 되었수다예.  
@1 아, 게니까 예전에 대정골이 지금.  
#3 예, 예.  
@1 다섯 개로 이제.  
#3 예.  
@1 마을이 갈라진 거네예?  
#3 예, 예.

@1 응.

#3 계남 처음은 대정골에서 한 개 마을로 불리다가 동성리, 서성리로 불리다가 나중에 인성리, 구역리, 신평리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마을로 지금 분리가 돼서 어 지금 현재 에 대정골 하면은 오 개 마을로 하는데 대정현성이 있는 곳은예.

@1 예.

#3 세 개 마을이라예.

@1 예.

#3 지금 현성을 중심으로 한 것은 보성, 안성, 인성.

@1 예.

#3 예, 그래서 보통 하면은 삼 개 마을로 저 불리는 것이 보통이라예, 대정골.

@1 예, 성 안에 있는.

#3 성안에 있는, 성안에 있는 마을이.

@1 예.

#3 세 개 마을이라예.

@1 계문 이 성안에 삼촌네 어쨌든 이 동네에서 나고 이 동네에서 쪽 자란 거잖아양?

#3 예, 예, 예.

### 집 종류

@1 그러면 그때 어렸을 때로 이렇게 보면 이 동네는 어떤 집들이 있어나신 고마씨, 초집도 있어실 거고?

#1 초집이주, 초집. 거의 다 초집.

#3 거의 다 초집이라예.

#2 거의 다 초집.

#3 예.

@1 예, 초집.

#3 저, 천구백삼십일 년도에 천구백삼십일 년도에 대정, 원래는 대정현이 예, 우면, 좌면 이렇게 해서 대정현이 해서 우면은 지금 대정하고 안덕.

@1 응.

#3 거 두 개 합친 것이 우면이었고, 좌면은 중문.

@1 예.

#3 지금 현재 중문면예, 이렇게 해서 우면, 좌면 두 개 면으로 분리되다가



예, 내중에 중면이 생겨예.

@1 응.

#3 중면이 생긴 것이 저 안덕이라예, 안덕. 게서 에 우면, 좌 중면, 좌면 이렇게 세 개 마을이 이 형성이 됩 사는데 에, 내중에 에 이 저 에 천구백십 년 이후에 한일합방이 되고 뭐하면서 삼 개, 그 우면 좌면 이것이 폐지가 되고 이름이 우면, 우면은 대정면, 중면은 안덕면, 좌면은 중문면.

@1 응.

#3 이렇게 삼 개 면으로 이름이 또 우면, 좌면이 개명이 되어예. 개명이 돼어서 대정면 소재지가 됩니다. 여기는예.

@1 예.

#3 예. 대정, 대정. 그 당시는 대정현이 없어지고예, 삼 개 면으로 분리됐면서 여기 현청 소재지인 대정면이 여기 이 있는데 천구백삼십일 년 되니까 대정면 여기 면 소재지가 지금 상하모예.

@1 예.

#3 지금 그 쪽으로 이동이 됩니다게예.

@1 응.

#3 천구백삼십일 년도에 이동이 되면서 그때 잇든 모든 에, 기와집이라든지 현 대정현에 관련됐던 관아들예.

@1 예.

#3 관아들이 전부다 팔려나갑니다게.

@1 으으.

#3 예.

@1 으응.

#3 예, 그래서 지금 객, 객사터라고 해서 어 저 영빈관 역할을 했던 곳이에.

@1 예.

#3 객, 객사.

@1 예 ,예.

#3 아, 것도 저 무릉리로 팔려가서 거 지금 무릉리하고 어 저 무릉이리 향사에, 건물을 그 진 거 보면은 그 당시 그 재목들이라든지예, 어떠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어 이렇게 아주 큰 건물들이 여기도 잇었는데 에 천구백삼십일 년도 어 저 내려가면서 여기 잇든 건물도 다 팔려가 버린 거예.

@1 게문 여기에 잇었던 만약에 객사면은.

#3 예.

@1 객사에 목재라든가 돌들을 가정강 무릉리 향사 짓고 영 현 겨우짜?

#3 예, 예, 객사에서 무릉리.  
 @1 예. 향사.  
 #3 삼리 향사하고 무릉이리 지금 복지회관,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어예.  
 @1 예.  
 #3 예, 그래서 그 건물을 가보면은 아, 과연 대정에 객사 건물이 어느 정도  
 엿구나, 헌 것을 짐작할 수가 있을 정도가 돼어예.  
 @1 게니깐 삼촌네는 여기서 어렸을 때 하면 여기, 그 여기는 기와집을 지에  
 집혀잡아예?  
 #3 예.  
 @1 그 지세집합니까, 지에집합니까? 기와집을 삼촌네는 뭐렌 들었수과?  
 #3 기와집.  
 @1 그냥 기와집이렌 헨예?  
 #3 예.  
 @1 어.  
 #3 예, 우리가 헐 때는 기와집이렌.  
 @1 기와집들은 하지 안 해난마씨, 여긴?  
 #2 아, 개인적으로 허는 집은 별로 엿엇수다.  
 @1 개인적으론 엿고예?  
 #3 예, 예.  
 #1 예, 예.  
 #3 거의 다 초가집이엇수다.  
 #2 다 초가집. 개인적으로는 별로 엿고.  
 @1 아, 현청 잇어도.  
 #2 예.  
 @1 예, 알앗수다. 게문 우리 일반 민가예, 이제 그.  
 #2 예.  
 @1 삼촌네 살앗던 집들 하면 그 집채가 잇으면 보통 멧 거리 헌 집이 멧 거  
 리 짓엿 살앗수과?  
 #1 게난 안거리, 밧거리, 저 손청거리 그래 세 거리주, 세 거리.  
 @1 예, 그럼 잠깐만예, 안거리, 밧거리, 손청거리렌 허는구나예?  
 #1 예.  
 @1 손청거리를 모커리렌은 안헤마씨?  
 #1 모커리라고도 허는데 손청거리는 이 그 저 이거 손님이 올 때 거기서 그  
 저거를 손청거리주게.

@1 예, 그러면 모커리라는 말 대신에 세 커리 잇으면 안커리?  
 #1 밧거리.  
 @1 밧거리, 손청거리.  
 #1 손청거리.  
 #3 네, 네, 네, 네.  
 @1 삼춘네도 다 손청거리렌 헤서예, 예. 알앗수다. 게문 삼, 보통 일반 사람들삼간집이난. 삼간집 짓젠 허면 그 과정예, 땅 다지는 것부터 좀 간단허게 굴아 주쿠과?  
 #1 삼, 삼간집?  
 @1 예.  
 #1 삼, 삼간이 저.  
 @1 집 짓젠허민 멘 처음 뭘부터 헉니까?  
 #1 삼간집은 정지, 마리, 저 구들허영 삼간이주게.  
 @1 예.  
 #1 그거 보고 삼간집이라고 허여.  
 @1 게난 그 집 짓젠 허민 멘 처음 헤야 뉼 일이 미시거?  
 #1 어?  
 @1 집 짓젠 허면. 집 짓젠 허민.  
 #1 예.  
 @1 맨 음 헤야뉼 일이 무신겨우과?  
 #1 맨 처음.  
 @1 땅 다지는 것부터 집은, 짓는 것은 직접 안 뉼디가?  
 #2 아니, 게메.  
 #3 집 짓젠 허민 우선 처음 게 나무를 준비헤야 뉼 것이고.  
 @1 아, 나무 준비허는 거.  
 #3 낭, 낭. 준비헿 거고.  
 @1 응.  
 #3 그다음엔 돌 준비헿 거고예.  
 @1 돌 준비.  
 #3 그다음에는 이 낭 쌓아서 그 개백질예.  
 @1 예.  
 #3 보통 저 흑 여기서 말허면 저 신펡이나 이런 디 가면 차진 흑예, 그래서 흑을 파 와야 뉼 것이고 그다음 흑예 뉼 할라면은.  
 #2 찌푸레기.

#3 찌푸레기, 예, 예.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것입주.  
 @1 예, 그거 준비하고.  
 #3 예.  
 @1 그런 거 다 준비해 놔서예. 게문 집 앞이젠 허면은 땅을 다져야 될 거 아니우파?  
 #2 예, 땅을 저, 저, 주춧돌.  
 #3 예, 다져.  
 #2 주춧돌을 저 전부 것도 준비해 놔다가 주춧돌도 사용해십주.  
 @1 예. 게문 땅부터 다져봅주. 땅 다지면.  
 #2 예, 땅 다지고 주춧돌 놓고.  
 #3 올려 놓고.  
 @1 주춧돌은 멧 개나 준비합니까, 삼간집 허젠 허면?  
 #2 아, 삼간집 허젠 허면, 주춧돌.  
 #1 두 개, 두 개, 두 개.  
 #2 어, 두 개.  
 #1 두 개는 헤사.  
 #2 예, 양쪽으로.  
 #1 그리고 그 두 개 앞에 두 개 허면은 그, 그 저 안에 집 안에, 집 안에 그 저 그 그 뭐 도리 ㄱ튼 거 받후젠 허면은 그거 저 멧 개 들어갑주게, 돌이.  
 @1 예, 예.  
 #2 좋은 돌이 아니고 주춧돌이라고 해도 그 이 앞에 그 주춧돌 허는 것은 아주 좋게 다듬어 가지고 허고, 안에 것은 경 뭐 그렇게 다듬지 안 해도 됩니까 안에 잘 안 보이는 데난.  
 @1 게문 안에 허는 그거는 것도 주춧돌이렌 곱아마씨?  
 #1 예.  
 @1 그거는 멧 개 됩니까?  
 #1 그거 지둥. 그저.  
 #3 많이 들지.  
 #1 아니 지둥을 멧 개 세우냐, 그게 문쩍주게. 지둥을 여러 개 세우면은 여러 개 들어가고.  
 @1 응, 어쨌든 기둥 세우는 밑에 거는 주춧돌인데.  
 #1 예.  
 @1 집 앞에 큰 것만.  
 #1 두 개예?

@1 두 개 잘 다듬엉 허는 거구나예?  
 #1 예, 두 개.  
 @1 두 개예.  
 #1 스간집은 세 개.  
 @1 예.  
 #1 저 삼간집은 두 개.  
 @1 스간집은 세 개. 기둥 이렇게 세우니까.  
 #2 예, 예.  
 @1 예, 예, 예, 그다음에 그 기둥도 다 으라 개 뉘켜예?  
 #1 예.  
 @1 그 삼간집은 기둥을 몇 개 세웁니까?  
 #1 삼간집?  
 @1 예.  
 #1 삼관집 두 개부터게, 앞에 거.  
 @1 큰 기둥들은?  
 #1 큰 기둥 두 개.  
 @1 그 기둥 이름도 잇입니까?  
 #1 어?  
 @1 그 기둥은 무신 기둥렌 헤마씨?  
 #1 무시거렌 허느냐고?  
 @1 주춧돌에 세우는 기둥.  
 #2 주춧돌 이름이 뭐냐고.  
 @1 주춧돌 세우는 기둥 이름.  
 #3 기둥 이름?  
 #1 주춧돌 이름이 주춧돌이주게.  
 #2 아이고게.  
 @1 지둥, 지둥 일름.  
 #3 지둥 이름?  
 #1 그건.  
 #2 그건 별도로 뭐 불리운 것이.  
 @1 어.  
 #2 잘 모르는데.  
 @1 지둥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포는 몇 개 걸어마씨?  
 #1 삼간집은 저 삼간집은 포가 저 이 하난디 하나 가지고 허고 그 저 도리

가 저 도리 싯주게, 도리.

@1 예.

#1 도리라고 헤가지고 그 저 주춧돌이 거저 저 기둥 받후는 그 돌이 뭐허고  
스간집은 이 저 포가 두 개.

@1 예.

#1 그래, 그래 이제 두 개, 두 개 허곡 또 이제 허고 또 정지 짝으로 하나  
허면 그 포가 세 개 들어가는 겁주게.

@1 사간집은?

#1 스간집은.

@1 스간집은 세 개고예?

#1 예.

@1 예, 도리는 멧 개 정도 들어가마씨?

#1 도리 여러 개 들어가. 그것도 숫자 영 뭐허젠 허면은 쪽 이렇게 허면 도  
리가 이제 쪽 잇어야 될 거 아니우꽈. 이 그 저 서까래를 저 뭐 헤젠 허면은.

@1 예.

#1 서까래 받쳐주젠 허면은, 도리 여러 개 들어갑니다.

@1 게 게문.

#1 그것.

@1 집 허민 맨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예, 그 도리.

#1 예.

@1 그거는 무슨 거렌 험니까. 여기는. 상므르 젤 그 지붕에 젤 우에.

#1 상므르.

@1 상므르.

#1 아, 게난 이제는 그저 이 에 포 두에양, 포 우에, 포 우에 저 그 저, 그  
저 뚫고 그 저 거 저 첨 도리.

@1 응.

#1 포 우이 도리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저 서리.

@1 예.

#1 서리 들어가고 그다음엔 그 저 서까래 들어가는 겁주게.

@ 예.

#1 경헨 집을 짓어가주게.

@1 예. 서리 들어가고예, 그다음 그 흑시 아까 사진 줘. 이거 그 이렇게 하  
면 이런 게 주춧돌 아니라예? 앞에.

#1 예.

@1 이렇게.

#2 예, 예.

@1 주춧돌 이제 놓는데 보통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 양쪽으로 이렇게 크게 놓니까, 앞에?

#2 앞에, 앞에.

#3 아니, 아니.

@1 앞에 요거 두 개.

#2 예, 두 개.

@1 앞에 두 개 삼간, 요게 주춧돌 허는 거라예?

#2 예.

@1 그럼 이거는 다 기둥 이렇게?

#2 예.

@1 게문 여기는 주춧돌을 안 놔마씨? 이 옆에는.

#1 그 주춧돌.

#3 그 담 싸는 거 아니?

#2 거기는 안 놔마씨.

@1 아, 안 놓고, 가운데 두 개만.

#2 예.

#3 여기는 담을 영 쌀 디난예. 담으로.

#2 예, 돌담 쌓는 거.

@1 돌담 싸니까예?

#3 돌담 싸니까.

#2 예.

@1 아, 여기는 주춧돌을 안 허는구나.

#2 예.

#1 예, 예.

@1 그러면 요걸 기둥 요렇게 이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이거 뭘지 알아지쿠과? 여기 이렇게 놓는 거, 옆으로 놓는 거?

#1 그거 포 아니우파게.

#2 포, 포.

@1 이거 포가예.

#3 상므르 포.

@1 상므르 포는 맨 우에.

#1 그 우이 게 상므르.

#3 맨 우이 게 상믄르.  
 @1 맨 우이 게 상믄르 포.  
 #1 예.  
 @1 그다음에 요, 요, 요기는 이 상믄르 옆에는?  
 #1 상믄르 옆에.  
 @1 중믄루.  
 #1 중믄루 맞아.  
 @1 예, 예. 양쪽으로예?  
 #3 예,예.  
 @1 가운데 상믄르 있으면 그 밑으로 양쪽으로 영 허믄 중믄루 텔 거 아니우  
 파예?  
 #1 예.  
 #3 예.  
 @1 이게 상믄르면 요렇게 해서 중믄루?  
 #1 예.  
 #2 예.  
 @1 예. 그 중믄르 다음에 밑에 거는 뭉우파, 요렇게 행?  
 #2 중믄르.  
 @1 상믄르, 중믄르 양쪽 허믄 요 밑에 거는.  
 #1 건 포고게, 건 포.  
 #2 포.  
 #1 대들포라고 헤 가지고.  
 @1 예.  
 #2 포, 포.  
 @1 대들포가 어느 거마씨, 여기서?  
 #3 예.  
 #1 게 그 그거 아, 중간에 그거 아니파?  
 @1 이거?  
 #3 예, 앞이 길.  
 @1 앞이 길게, 길게 헤갓고?  
 #3 대들포.  
 @1 이게 대들포가 뉘는 거라예?  
 #1 예.  
 @1 대들포 사이에 게 중믄르.



#1 예.  
 #3 상므르.  
 @1 멘 위에 거는 상므르?  
 #3 상므르.  
 #2 상므르.  
 #3 예.  
 @1 예. 그러면 대들포는 하나고.  
 #1 예.  
 @1 그다음 이 옆에 거는 옆.  
 #2 것도 도리, 도리.  
 @1 도리.  
 #2 도리.  
 #1 도리.  
 @1 그 도리는 무슨 도리 험니까, 도리도 여러 개 잊지 안허우까?  
 #1 도리도 여러 개 잊지.  
 #2 아, 거는 그 도리를.  
 @1 무슨 도리, 곱은도리여.  
 #2 곳에 따라서 중도리여 뭐.  
 @1 예. 중도린 어느 게 뿔 겨우짜?  
 #1 거 아무래도 중은 가운데가 중, 가운데, 가운데.  
 #2 가운데 도릴 보고 중도리.  
 @1 가운데 게 중도리예?  
 #2 예.  
 @1 예, 요렇게 이게 안에 대는 거거든예, 안쪽으로 대는 거라예, 저쪽 남원.  
 이 가운데가 상므르 아니우짜, 이렇게 뉘면?  
 #2 예.  
 @1 예, 이렇게 하면 이게 이게 중므르예?  
 #1 예, 예, 예.  
 @1 그다음 옆에를 이거 이거를 서리 걸친 거고.  
 #3 서리.  
 @1 예, 서리 영 행 걸친 거고, 이걸 뭐가 뉘는 겨우짜, 여긴? 이 도리와 도리 사리에 돌, 저기 낭으로 이렇게 걸치는.  
 #1 그것도 도린 도린다, 거 앞도리. 그 저 앞이 이디 이것이 정면이 뉘는 것 인디.

@1 이걸 옆, 옆에 뒀는 거우다. 정, 정면으로는 이거는 이렇게 정면으로 뒀  
거예. 여기 여기 개웃지등.

#1 예.

@1 저기 잇는 거. 튀. 여기 튀.

#1 으응.

@1 이게 튀 예. 이렇게 뒀 거 잼아예, 옆으로 하게 뒀면?

#1 예, 예.

@1 이거 난간.

#1 예.

@1 이 밖으로 나온 이거는 뭘렌 헤마씨?

#1 그계.

#2 기둥 아니우파?

#1 기둥이주계, 기둥.

@1 기둥.

#2 기둥.

@1 기둥예?

#1 예.

@1 뒀지등.

#2 응?

@1 뒀지등, 여긴 개웃지등합니까?

#1 개웃지등, 개웃지등.

@1 개웃지등.

#1 예.

@1 이렇게 뒀 거는, 개웃지등 허면 여기는?

#2 개웃.

@1 잇당 저디 강은에 들어봐야크라.

#2 기둥 우에는 포 아니?

#1 (웃음) 포 아니.

@1 기둥 우에는, 요 안으로 들어가 잇는 게?

#2 포.

@1 포, 들어간 거 닻아예. 이 안에예, 어쨌든 이거는예.

#2 지등 위에는 포주.

@1 기둥 위에는 포.

#1 포 아니.

@1 포 아니.  
#1 그 저 포 직접 기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 응.  
#1 거기 저 개웃보, 개웃도리가 잇주게.  
@1 개웃도리 영 우에.  
#1 예.  
#2 예.  
@1 예.  
#1 우에 도리.  
@1 예.  
#1 우에 도리.  
@1 난간.  
#1 예, 경 허연.  
@1 우에예?  
#1 경허여 가지고 거 동즈.  
@1 동즈예?  
#1 동즈를 세워가지고 그다음 포가 들어가는 거주.  
@1 아, 동저는 그러면은 개웃지둥하고 그 도리.  
#1 사이에.  
@1 사이에 잇는 거를 동저.  
#1 받쳐주는 거.  
@1 받쳐주는 게.  
#2 여 여 노프게.  
#1 동즈.  
#2 물매 나게 헐라고.  
@1 예.  
#2 거 동즈 걸 메낫는가, 경헤마씨.  
@1 아, 요만큼씩 헨 게 그게 동저?  
#2 으으.  
@1 아.  
#2 요만씩 헨 거.  
@1 예, 예, 예, 예. 게민 그거를 곤데곤데 이렇게 뒤편에?  
#2 예, 예.  
#1 받쳐줘야 됩니까.

@1 응, 그게 동쪽구나. 잇당 그 추사적거지 가면 그냥 다 볼 수 잇는 거 아나라예?

#3 예, 거기 가면 직접 보면서.

@1 예, 그리고 삼촌 이제 그 집을 지으면 축, 여기는 축담이렌 험니까, 밖, 집, 이렇게 네모.

#2 예, 축, 축 째다고.

@1 축 째 데.

#2 축, 축.

@1 응.

#3 축담이.

@1 예, 축 짜진 돌을 축담이렌 허는 거우짜?

#2 예.

@1 사방으로 축을 짜야 뉘 거잖아예. 앞은 아니구나.

#3 앞은 아니, 예.

#2 앞에는 안 짜고.

@1 삼.

#3 삼면.

@1 삼면으로예?

#2 예.

@1 예, 예.

#2 축.

@1 축이렌 허고. 그다음에 축 짜난 다음에 아까 개벽질 허젠 허면 이 벽 만 들어야 또 개벽도 허곡.

#2 예.

@1 그 축에도 개벽질허곡예?

#2 예.

@1 개벽하고 그러면 그 벽 째 때 무사 그 낭으로 영 여깁은에.

#2 예.

@1 그건 미신거렌 험니까. 낭 벽에?

#1 에이구, 거 그.

@1 여기는.

#3 거 대나무라든지.

#2 게메, 대나무로.

@1 예.

#3 대나무로 영 행 허는다.  
#1 대나무로 싸야.  
#3 그걸 뭐라고 하는고.  
@1 여기는 토기엔 험니까, 튀기?  
#3 튀기?  
#2 튀기.  
#3 쓰흠, 튀기.  
@1 어디 가난 오가리엔 현 말도 험니다마는.  
#1 그건 못 들어봤는데, 그런 말은.  
@1 토기, 튀 이런 말은 안 허고예?  
#3 튀, 게메 거 뭐 이름이 잇긴 잇일 건디.  
#2 가만이 서보라. 서슬.  
#3 서슬.  
@1 서슬.  
#2 서슬은 아니주.  
@1 서슬은 지봉예.  
#2 지봉 우이 거, 우이 거.  
@1 예.  
#2 ㄱ만 이서 보라.  
#3 방 안에.  
@1 예게.  
#3 이렇게 해서.  
@1 마루 벽 사이에.  
#3 벽 사이에 해서.  
@1 예.  
#2 칸.  
#3 대낭 ㄱ튼 거 칸.  
#2 게메, 칸칸마다 그거 저.  
#1 여경은예.  
#2 여깡 허는 건데.  
#3 그걸 뭐라고 허느냐.  
#1 아이고, 그걸. 그거 잇어 불언.  
@1 잇어 불언예. 걸 뭐 다른 데는 튀기니 뭐니 이런 말을 험디다마는예. 게  
문 그거허고 그다음에 튀기 밑에 이렇게 그 널도 이렇게 하지 안 험니까, 빈지

널은 들어봅디가?

#2 예. 빈지.

@1 빈지.

#1 예, 예, 예.

#2 빈지.

@1 계난, 빈지행 우에 그 저 대나무 헤 갖고.

#2 예, 예.

#1 그거 그 우이서 그 저 옆에 그저 뒹고? 아이고, 것도 확 곤젠 허난 뭐허네. 저.

#2 어떻게 허는 거.

@1 뭐 문백선들.

#1 그 축 그걸 만들젠 허면은 그 옆에 세우는 나무 잇잖아게?

#3 나무, 게메.

#1 나무 세와가지고 거기에 두는디 건.

@1 예.

#1 그 나무?라 아이고 비.(웃음) 오꼴 잇어 불언 그거.

#2 어디, 어디 옆이?

@1 뭐 ?른웨 이런 겨우파?

@2 혹시 입쟁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우파?

@1 입쟁이, 문입쟁이 세우는 거 거마씨?

#1 여기서 멘들멍 다 허는디 나오지 안허네.

@1 예, 잇당예, 현물 보문 또 알아질 겨우다.

#1 허.

@1 예,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 그 개벽질.

#1 아, 기둥, 입장, 입장.

@1 입장.

#1 어, 입장, 입장.

#3 입장은.

@1 예, 예.

#3 거.

#1 여기는 멘들멍 해도 나오질 안허네.

@1 입장을 양쪽에 세워얄 거 아니우파예?

#1 예.

#3 예.

@1 옆이는 또 문 들젠 허면 또.

#3 예, 문입장.

### 구조

@1 문입쟁이 세우고 예. 여기는 입장이렌 햄구나예. 그다음에 삼춘 이제 그 방은 예, 또 삼간집 헐 때 그 구조는 어떻 됩수과? 무시거 무시거 헛수과?

#1 뭐마씨?

@1 삼간집에.

#2 삼간집.

#1 삼관집에?

@1 예.

#2 방, 구들.

@1 구들.

#1 방, 구들게.

#3 마리.

#1 저, 저.

#3 삼관집 세 개니까.

#1 뭐, 구들.

@1 예.

#1 구들, 마리, 정지.

#3 정지.

#2 그렇게 헹 세 개.

#2 게난 삼간집은 예, 방이 세 개라는.

#3 셋, 셋.

@1 칸이 세 개라는.

#1 칸이 세 개.

#2 삼간이라는 거는 세 개에 갈랐다고 헤 가지고.

#3 세 개, 세 개.

#2 칸이 세 개.

@1 예, 예.

@2 대정에 잇는 집들이 보통 삼간집이 보통 많습니까, 사간집이 보통 많습니까? 보통.

#3 어? 삼간집.

#1 삼간집이 하주.

#2 예, 삼간집이 많아십주게.

(소음)

#3 공사 저쪽에서 हे부니까.

@1 예, 게난 삼간집 하면 큰구들 잇고, 큰구들 옆에는 무시거 멘들아마씨?

#1 삼간집은 큰구들 하나뿐.

#2 큰구들.

@1 아무 것도 엇어?

#3 사관집에.

#2 사관집이라야.

#3 스관집이라야.

#2 큰구들 잇고 작은구들 잇지.

@1 게문 방은 하나우파?

#2 예, 방은 하나.

#1 삼간집 방 하나.

#2 삼간집 방 하나.

@1 아.

#2 방.

@1 게문 방 하나 옆에는 또.

#3 고평 잇지.

#1 저.

#2 아니, 저 아니.

#1 곳간 잇거든, 옆에 곳간.

#2 고평.

@1 고평, 그다음엔 마리.

#2 예.

#3 마리.

@1 그다음에 정지.

#3 정제.

@1 정지 옆에 쫓꼴락허게 구들 안 멘들아마씨?

#1 정제 구들은.

#2 하여튼 거.

#3 거 삼관집에는.

@1 그냥 하나 일자로.

#2 예, 예.



@1 정제, 구들예?  
 #3 사간집이.  
 #2 거기 계난 그 저 구들 옆에 그 저 굴묵.  
 @1 굴묵.  
 #1 굴묵이 싯주게.  
 @1 예, 예.  
 #1 불 때는 디.  
 @1 응, 그러면은 식구가 많으면 그 방 안에서 다 산 거?  
 #2 예, 옛날엔 뭐 방 하나에.  
 #1 방 하나에 요디서 자고.  
 #2 이빠이 자주.  
 #1 건 발 막앙 자놓난, 발 막앙.  
 @1 발 막앙예.  
 #1 발 막앙.  
 @1 계난 삼춘네 어렸을 때도 방 하나에 살았수과? 삼춘네는 방 두 개 행  
 삽데가?  
 #1 방 하나에. 저 발 막앙 자곡. 식구가 많으면 발 막앙은예.(웃음)  
 @1 그렇게 살아서예?  
 #1 으.  
 #3 예, 예. 우리, 우리 클 때까지도.  
 @1 예.  
 #3 방 하나 허영 발 막앙 저.  
 #1 발 막앙 자, 발 막앙.  
 #3 너댓 오누이덜 ㄱ찌덜 잤주, 미신.  
 @2 발 막앗다는 게 무신 거?  
 @1 아, 여기.  
 #1 아아.  
 #3 아.  
 @1 머리 여기.  
 #2 머리가 앞뒤로.  
 @2 아아.  
 #2 나뉘젓다는 겁주.  
 @2 아아.  
 @1 이렇게 잔 거.

@2 아, 발들끼리 모여져 가지고.  
#2 예.  
#3 옛날엔 발 막앙 잣젠 해주기.  
#1 (웃음)  
@1 아아, 게난 여기는 삼간집 허면은 구들이 하나 밖에 없구나예?  
#1 예, 구들이 하나.  
@1 게문 밧거리도 그렇게 구성이 뉘?  
#1 밧거리는.  
#2 밧거리는 으 거 용처에 따라가지고 방 하나 꾸미는 사람이 잇고 뉘 거기 뉘 침 뉘 저 창고로 이용허는 것도 잇고, 뉘 아 밧거리, 밧거리는 방 하나, 밧거리도 방 하나.  
@1 밧거리도 방 하나.  
#2 예.  
@1 쉼막은 어디에 험니까?  
#1 어?  
@1 쉼막?  
#1 쉼막은.  
#2 쉼막은 별도로.  
#1 별도로 해주. 저저 밧거리에 저 쉼막 하나.  
#3 쉼막.  
#1 쉼막 흔 칸 허곡 방 하나 허여근에.  
@1 예.  
#3 그럴 수도 잇곡, 쉼막만 험 수도 잇고.  
#1 쉼막만.  
@1 쉼막만 험 수도 잇고예?  
#3 예.  
#2 개인 용처에 따라랑 다 틀리니까 집집마다.  
#3 건 사간집이라든지 저 좀 잘 사는 사름 집은 밧거리를 좀 크게 해서.  
@1 예.  
#3 쉼막 쉼막 쉼만 키우는 디 허곡. 그다음 방 하나 험은험에 이 거기 저 뉘 도사리덜.  
@1 예.  
#3 사는 사름덜 도사리방.  
@1 도사리방.

#1 예.

@1 밧거리예?

#3 예.

@1 계난 주인네도 안거리에 방 하나 허영 살고. 밧거리 도사리 허는 것도 밧거리허고, 손청거리는 뭐 멘듭니까?

#1 손청거리, 손청거리 허주 뵈이엔 험니까, 손청거리.

#2 손님 대우허기 위헌 거난예.

@1 손님들 허난 거기도 방 하나 멘들고.

#2 예.

#1 손청거린게, 계난게, 그 손님들 그 저 이제 그 무신 일이라고 해서 손청이 손, 손.

@1 예, 손님.

#1 손님.

@1 예.

#1 손님이란 말이주게, 손청거리는.

@1 계난 그 저 밧거리도 보면은 정제도 잇꼭 다 험니까?

#1 아니, 아니. 허는 사람도 잇지만은.

#3 밧거리예.

#3 손청거리엔 저 부억은 엇고.

@1 예.

#3 마루하고 방하고.

@1 예. 계문 거기도 어쨌든 삼간을 만들 거 아니, 손청거리는 이간?

#1 방 저 그 마루 하나 만들고 방 하나 만들꼭 경 해야 손님덜 이제 모시는 곳이니까.

@1 예.

#1 이 저 이 저 우리 ㄱ트면은 우리 사는 묵을 ㄱ트면은 손님덜 대우, 거기서 만약에 글을 쓰면 글 쓰던지 무슨 뭐 저 그렇게 해서 방 하나 허꼭, 또 손님 그 저 방을 웨 거기 저 손청거리 방이 잇느냐 허면, 손님이 와서 못 갈 수가 잇으니까 그 저 자야 뵈거든마씨.

@1 예.

#1 그런 곳이주게. 그렇게 해서 손청거리.

@1 아, 역시 여기는 성안에.

@2 손청거리가 저 멧 집에 하나 정도 잇입니까, 매 집마다 다 손청거리가 잇인가마씨?

#1 손청거리 거.  
 #2 아니, 아니 것도.  
 #3 잘사는 집.  
 #2 어느 정도 잘.  
 #3 이 저.  
 #2 잘살아야.  
 #3 사칸집이 에 에 안거리가 사칸집 정돈 댜.  
 #2 디라야 손청거리.  
 #3 디라야 손청거리도 잇주. 별로 우리 손청거리 잇는 집덜이 많지 안허여.  
 @2 많진 았고예?  
 @1 이 대정골도 이문간도 만들어신가마씨?  
 #3 아, 이문간.  
 #2 아, 이문간예.  
 @1 그 이문간 잇는 데가 손청거리로 써신가마씨?  
 #2 예, 이문간.  
 #3 이문간 곁에.  
 @1 곁에.  
 #1 이문간은 별도로 허고.  
 @1 응.  
 #3 이문간은 별도로 허는데 이문간 곁에 손청거리.  
 @1 손청거리를. 이문간 옆에를 한 거라예. 그러면은 그 사칸집 같은 경우는  
 게문 방이 두 개.  
 #3 예.  
 #2 예.  
 @1 예, 사칸집.  
 #3 예.  
 @1 그리고 고평은 항상 그 저 큰구들 옆에 헛잡아양?  
 #1 예.  
 #2 예.

### 큰구들

@1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예. 그다음 삼춘, 그 집에 이렇게 큰구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수과, 거기엔 뭐 뭐 맨듭니까? 큰구들 안에는.  
 #3 구들 안에는.

@1 예.  
 #2 아.  
 #3 이 벽장이라고 해서예. 저 지금 말하면 귀.  
 @1 응.  
 #3 귀짝, 귀짝 놓는 거.  
 @1 응.  
 #3 잇어.  
 #2 건 왜냐하면은 저 방 때기 위헌에 저 굴목이라고.  
 #3 굴목.  
 #2 별도로 저 만들어십주. 방 바닷달로.  
 @1 예.  
 #2 만들어. 방 때는 걸 만들었으니까 거 만들면서 이렇게 저 거세기.  
 @1 공간이 이렇게.  
 #3 공간이.  
 #2 예, 공간이, 공간이 뜨게 뒀니까 거기 인자 귀를, 귀짝 같은 거, 이런 거  
 를 넣으면서.  
 #1 이불도 개영 놓고.  
 @1 이불도.  
 #2 예.  
 #3 이불도 놓고.  
 #2 이불도 놓고 뭐, 뭐 주로 의복, 옷덜토 다 거기 넣고 뭐 그렇게.  
 @2 여기서.  
 #3 휘, 휘엔 형은에 옆에 영 걸은은엔에 그디 저 옷도 걸고.  
 @1 응. 휘, 휘도 허고예?  
 #3 예, 예. 옆에, 옆에 옆드레.  
 @1 게문 백장 옆으로는 휘를 또 해놓고예?  
 #3 예.  
 @1 게문 또 구들에 놓는 거는 뭐뭐 잇수과?  
 #3 게난 그 구들은 그 백장허고 그러니까 백장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  
 만은 뒤에서 저 부역에서 불 때기 위해서 그 우에 공간이 잇이니까 그 우에  
 현 것이 백장이랴어. 백장 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귀라든지 아니면 이불  
 꺾튼 거 거기 올려 놓고.  
 @1 예. 그다음 삼춘, 굴목짚는, 굴목 들어가는 그 입구도 공간이 잇잖아예?  
 #3 예.

@1 그 공간을 뭐렌 헤마씨?

#3 이, 굴목?

@1 굴목 들어가는 그 공간. 뭐 고랑케 이런 말은?

#3 아니, 그 고랑케 하면은.

#2 아니, 그 고랑케는.

#1 고랑케, 고랑케는.

@1 예.

#1 정지, 정지레 들어가는 디가 뭐엔 고랑케 뭘 놓느냐 하면 옛날엔 이제 그 솔입도 근어당 그디 낮당, 불 때고 허는 거 그게 고랑케고.

@1 아, 정지 현 구석을.

#1 예, 정지, 정지 옆에.

@1 정지 옆에.

#1 예.

@1 게난 그 정지 옆에서 만약에 사관집 그 구들 멘들면 고랑케구들이렌도 험디다, 그런 말은 안 들어보고예?

#3 아, 고랑케구들이렌도 험니다. 저 웨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주마는 그 정지 들어가는 입구.

@1 예.

#3 그 쪽에는 방 하나를 조그만헌 거 꾸며예.

@1 예.

#3 꾸며.

@1 정지 들어가는 뒷문.

#3 예.

@1 뒤쪽으로.

#3 아니 앞쪽.

#2 앞쪽.

@1 앞쪽으로.

#2 앞쪽으로.

#3 앞쪽으로 조그만허게 방 하나를 꾸며근엔예.

@2 그러면 그 고랑케구들은 어, 그 상방 쪽에 붙이지 않고 반대 쪽으로 붙습니까, 상방 쪽으로 붙습니까, 방이. 정지 들어가는 입구가 잇일 거 아니우짜예?

#3 정지 들어가는 입구.

@2 그러면은 그 정지 들어가는 입구가, 아, 상방이 잇고 정지 들어가는 입

구가 있고 구들이 있고 영 뿔 건가마씨? 아니면 구들이 먼저 있고.

#3 아니, 계난 방 허게 뒤편은 그 앞에.

@2 어, 잠깐 그려볼게예. 삼간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기 가운데가 상방이잖아예? 상방에서 여기 난간이 있고.

#3 예, 난, 난간.

@2 여기가 어 구들이고 이기가 고평이고예. 여기가 정지가 뿔 건데, 정, 여기 고평케방을 만들면 이쪽에 만듭니까?

#3 예, 이, 이쪽.

@2 이쪽에?

#3 예. 이쪽 이 요이.

@2 요기 상방 잇는 쪽에, 아 요쪽에?

#3 옴로, 옴로.

@2 요쪽으로 방을 만들고.

#3 예, 예.

@2 입구는 옴로 들어가고.

#3 예, 예.

@2 아, 아.

#3 예, 예.

@2 경 헤.

#3 그렇게 해서.

@2 여기 고평케.

#3 고평케구들은 쩌끄만허주게.

@1 예, 예. 그래서.

@2 그믐 고평케구들에 굴묵 지피는 거는 정지에서.

#3 고평케.

#2 아, 부역에서.

@2 안 지핍니까?

#3 부역에서도 하고.

@2 예.

#3 안 허는 경우도 있고.

@2 안 허는 경우도 있고. 부역에서도 하고.

#2 계난에 거기 고평케구들은 부역에서 방 때는 걸 부역에서 허고.

@2 응.

@1 여기가 고평케구들 뒤편은 거예, 계믐에 삼춘, 이렇게 삼간집 뒤편은 거예. 여

기가 난간이잖아예?

#2 난간.

@1 난간이고, 이게 구들.

#3 구들.

@1 응. 여기는 여기 고팡.

#2 고팡.

#3 고팡.

@1 고팡, 여기는.

#2 마루.

#3 마루.

@1 마루 험니까, 마리 험니까? 제주도 여기 말로.

#3 마리, 마리. 마리렌도 허곡 마루렌도 허곡.

@1 마리렌도 허곡 마루렌도 허곡.

#3 마리렌도 허곡 마루렌도 허곡.

@1 그다음에 여기 문이 잇잖우짜, 여기?

#2 대문.

#3 대문.

@1 대문.

#2 대문.

@1 그다음에 여기 구들 앞에도 문이 잇잖우짜?

#2 창문.

#1 창문.

#3 창문.

@1 아, 이걸 그냥 창문이렌 헤예?

#2 창문.

@1 창문. 그다음에 삼춘 여기도 문 잇잖우짜, 정지 들어가는 문?

#3 예, 정지문 잇수다.

#1 정지문.

#2 정지문.

@1 정지문.

#1 예.

@1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도 문 잇지 안허우짜, 정지 뒤에?

#2 아, 뒤에 뒤우로는.

#3 뒤우로는.



#1 뒤에 정지 뒤에.  
 @2 옆으로는.  
 #3 어.  
 #2 뒷문이엔벳그.  
 @1 정지뒷문도.  
 #2 예, 정지뒷문.  
 @1 삼춘 그다음에 문 여기 마리 뒤에도 문 있지 안허우파?  
 #2 예.  
 @1 예, 여긴 뭇렌 허여?  
 #2 건 그대로 마리뒷문 뭇.  
 @1 마리뒷문.  
 #2 예.  
 @1 그리고 삼춘 여기 고팡도 들어가젠 허면 여기도.  
 #2 아, 고팡.  
 #3 고팡문.  
 #2 고팡문.  
 @1 고팡문, 이 고팡문도 대문으로 허지 안 허우파, 그 낭문으로 널문으로  
 허지 안 허여예?  
 #2 예, 널문.  
 #3 예. 널문.  
 @1 그다음 마리에서 구들로 들어가는 문은 무신 문이우파?  
 #1 소대문.  
 #2 지계문, 지계문인가?  
 @1 예, 여기는 지계문, 그다음에 삼춘 여기 마리에서 또 정지로 이렇게 들  
 어가는 디도 문이 잇인가마씨?  
 #3 아, 예.  
 #2 아, 예.  
 #3 마리에서 정지 들어가는.  
 @1 그거는 무신 문이우파?  
 #3 정지문계.  
 @1 마리에서 가는 것도 정지문, 셋문.  
 #2 아니, ㄱ만이 잇어봐.  
 #3 건 별도로 불르진 안헤신디.  
 @1 셋문이렌 안 헛디가?

#3 셋문이라고 허는가.

#2 예?

#1 세, 셋문. 맞아.

#2 셋문. 맞아.

#3 셋문이라고.

@1 예, 옛날에 셋문, 마리.

#2 예.

@1 셋문예, 그다음에 여기가 정지로 이렇게 길게 되는 거라예. 그다음에 또 문이 잇을 데가 이 여기 여기도 잇일 건가, 문이. 이 고랑케구들은 문이 어디 잇입니까, 밖으로 납니까, 정지로 들어갑니까?

#1 정지로 들어가주게, 정지로. 정지, 정지에서.

@1 정지에서.

#1 예.

@2 정지라는 게 정지 안에선가, 들어가는 입구 쪽에선가?

#3 아니, 정지 이 저.

@2 들어가는.

#2 예, 그 저.

#3 그쪽이.

@1 마, 마당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잇게예?

#2 예, 예, 예.

@1 게문 이 고랑케구들 문은 무슨 문이렌 헤?

#3 그거.

#1 웃음.

#3 그건 엇일 거라.

@2 겨문 고랑케구들 문도 저 널문으로 허겟다예. 마당에서 들어가는?

#3 아니, 아니. 고랑케구들 문은.

#1 고랑케, 고랑케.

#3 지게문으로.

@2 지게문으로.

#1 그저 고랑케구들이 잇는 집이 엇고 잇고 그러니까. 별로 많지 안 현대. 웨냐하면은 고랑케 구들 꾸민 이유가 옛날 그저 그 저 어른덜 곶는 거 들으면 은 고랑케를 그 구들 만드는 이유가 웨냐하면 도사리 사는 디.

@1 도사리 사는 디.

#1 예.

@1 계난, 밧거리에 도사리 안 살면 고랑케구들에.  
#1 고랑케, 도사리 살게.  
@1 으.  
@2 계난 고랑케구들에도 혹시 난간 같은 것도 만듭니까, 그 안에 고랑케구들 안에?  
#3 아니.  
@2 그런 거 없고. 그런 거 없이. 예.  
#1 그 정지에서서 그 이 저 그 저 저 장독 잇잖아, 장항. 그디 들어가젠 허민문이 또 하나 잇거든.  
#3 정지뒸문게.  
#1 정지뒸문.  
@1 정지뒸문.  
#3 여기가 정지뒸문이다.  
@2 예.  
#3 요 정지뒸문 낸 이유는 여기에다가.  
@1 예.  
#3 그 저 장독덜예.  
@1 장독 놓는[노는] 데를 여기는 뭇렌 험니까?  
#3 장독대 놓는 디를?  
@1 장팡뒤, 장항뒤.  
#3 장팡.  
#1 장팡뒤, 장팡뒤.  
#3 장팡, 장팡이엔 헛주, 장팡.  
@1 응. 장팡뒤예.  
#1 어.  
#3 예.  
@1 장팡뒤.  
@2 장팡이우과, 장팡뒤우과?  
#3 장팡.  
#1 장팡.  
@1 뒤에.  
#1 장팡이엔 허는다.  
@1 어, 장팡.  
@2 뒤를 안 붙이고 그냥 장팡.

@1 어디 강.  
 #3 우리가 장팡뒤라고 뒤 붙였어.  
 @2 뒤 붙였수과?  
 @1 예, 붙였수다.  
 #3 장팡뒤.  
 @1 예, 장팡뒤엔 허는 디도 있고, 장팡두엔 허는 디도 있고예?  
 #3 장팡뒤.  
 @1 예, 장팡뒤 허영은에 여기 하고, 그다음 삼춘 이 뒤에, 집 뒤에도 난간을  
 멘들아마시?  
 #3 뒤에는 난간을 안 만들고.  
 #1 안 만들어.  
 @1 안 만들어예?  
 #3 뒤에는 보통 난간을 안 만들고 여기들은 뭐냐 하면 양옛근들 보통 해서.  
 @1 예, 예.  
 #3 양옛근들. 집지슬에 양옛근 심어예?  
 @1 양옛근들예, 양옛근 심고고예. 삼춘 그다음에 이 옆에가 저기 이렇게 하  
 면 구들 옆으로 들어가는 데가 아까 굴목.  
 #3 예, 굴목.  
 #2 굴목.  
 @1 예, 굴목 들어가고 그다음 이 옆에 이 앞에를 고랑케렌 안 허고 그냥 굴  
 목이고, 여기만.  
 #3 예, 예.  
 @1 정제 옆에를 고랑케렌 허는 거라예?  
 #3 예, 예.  
 @1 잠깐만.  
 @2 그리고 그 흑시 고평을 여기서도 안방이렌 안 헛수과?  
 #3 안방이라고 부르진 안 헛어.  
 @2 그러진 안헛수과? 음.  
 @1 그 안방이라는 거 여기는 그냥 고평?  
 #1 고평.  
 #2 고평.  
 @1 예. 게니까 한경은 안방이라. 한경은 이상헌 동네.  
 @2 좀 헛갈린다예.  
 @3 (웃음)

@1 대정하고 한경하고 달라. 여기는 대정골, 거기는 모관이라.  
 @2 모슬포도 안팡이렌 하거든.  
 @1 으.  
 @2 끼엇네.  
 @1 이 옆에는 앙팡이렌 말도 안 들고 그냥 고팡.  
 #2 고팡.  
 @1 궤팡이렌도 안 허고?  
 #1 궤팡, 궤팡이엔도 허고 고팡이엔도 허고.  
 @1 어, 궤팡이엔도 허고 궤팡하는구나, 궤팡예. 아, 궤팡 하고 고팡 하고예?  
 #1 궤팡이엔 순 사투리주게. 또 고팡, 고팡이엔 현 말은.  
 @1 예.  
 #1 그 한자어를 따 가지고.  
 @1 예.  
 #1 고팡이엔 현 말이주게.  
 @1 예.  
 #1 곳간이다, 이 말이주.  
 @1 예, 근데 어려, 어렸을 때 삼촌네는 궤팡?  
 #1 네.  
 @1 궤팡예. 알앗수다. 그다음 삼촌 그 마리도 요즘 마리처럼 안행 옛날에는  
 이.  
 #3 귀틀마리.  
 @1 귀틀마리? 걸 귀틀마리헤예. 귀클, 귀클 하고.  
 #1 예.  
 @1 그다음에.  
 #1 우리 집이 현재 그거 마린데.  
 @1 아, 지금마씨?  
 #1 예. (웃음)  
 @1 삼촌네 집이 강 한 번 봐야크라.  
 #1 (웃음)  
 @1 어.  
 #3 그때 마루.  
 @1 그 마루, 마루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그다음엔 음, 이 집 앞에 그다음  
 에 그 대문 밖으로 나가면 무똥, 문똥?  
 #1 무똥, 무똥.

@1 무똥.  
 #2 무똥, 무똥.  
 @1 그 무똥 앞에 세우는 건 뭐라났수과?  
 #1 무똥 앞이?  
 @1 비 들이치지 말렌?  
 #2 어.  
 #1 아.  
 #3 거 해 영 그  
 #2 거적 뭉.  
 #3 영 그거 헌 거.  
 #2 그.  
 @1 풍체  
 #2 풍체, 풍체.  
 #3 풍체.  
 @1 예.  
 #1 풍체라고 해가지고 그 웨냐허면 브름 불 때나 뭉허면 영 느리우곡.  
 @1 예.  
 #3 비 올 때.  
 #1 영 허영 올리곡.  
 #2 비 올 때 비 방지로 허곡.  
 #3 비 방지.  
 @1 어. 삼촌 여기는 그러면은 아까 거적이라는 말도 하던데 거적도 사용헛  
 수과?  
 #3 거적하고.  
 #1 거적 잘 안 사용허는다.  
 #2 거적하고.  
 @1 거적은 안, 어쨌든 풍체 해 갖고 쓰는 거 잦아예. 게문 이 대정골은 비  
 가 한 편이우과? 아니면 어뎡헌 편이우과? 여기는.  
 #3 옛날엔.  
 #2 비가 적은, 적은 셈이주.  
 #3 아니, 비가 많아서예, 게.  
 @1 게도 저 남쪽보다는 비가 적잖아예?  
 #2 예. 저쪽보다는 족고.  
 @1 그다음에 음, 아까 그 고팡에도 뭉 문을 들거나 뭉 쪼끌락허게 고팡 내

근에.

#2 거 창굼[창꿈].

#1 창굼, 창굼.

#2 창굼, 창굼.

@1 아, 창굼예. 창굼은 몇 개 내마씨?

#3 하나.

#2 하나 내고.

@1 아, 게른 거기 고냉이덜 못 덩기게 행은에 창굼 막을 땐 뭘로 막앗수과?

#2 아, 건.

#1 (웃음)

#2 막지 안헛수다. 그자 옛날은 그대로 턴 내 불엇주.

@1 텅 내 불언예. 게도 비 안 들, 안 들이뻬 건가?

#2 아, 이거.

#1 안 듭니다. 그거 텅 놔뒤사 고냉이가 왔다갓다혜사 쥐가 없어지거든.

@1 아.

#1 (웃음)

@1 다른 동네는 저 보리낭 영 행은에 막기도 헛덴 헛게마는.

#3 아, 건 비가 올 때 특별한 경우주.

#1 고냉이가 들어오는, 고냉이가 들어오는 창굼, 쥐.

@2 고팡 바닥에는 어뎡 마무리혜마씨? 보통 고팡 바닥에는.

#1 그자 흑으로.

@2 흑.

@1 아.

#2 흑 그대로 거기 향아리 ㄱ튼 거.

@1 예.

#2 엇어 놀 향아리 ㄱ튼, 놓는 자리만 돌.

@2 그 자리는 돌 놓고.

#2 돌 펜펜헌 거, 거 향아리.

@2 짜그만헌 주먹돌 같은 거 영 깔아놓거나 그러진 앓고마씨? 그런 것도 없이 그냥.

#1 없이.

#2 적은 건 아니 허고 그자 편편허게. 조금 넓은 돌덜 하나씩 넣어가지고 향아리 같은 거 엇어 놓고 그래.

@2 아아.

@1 아아, 게난 향아리 굽자리, 게난 그 돌은 무슨 돌 험니까? 향아리 밑에 놓는 돌은?

#3 굽자리.

#2 받침돌벧긔. 뭐 뭐.

#3 받침돌.

#2 그거 이름은 엇어.

#3 굽자리돌.

#2 게메, 별도로 건.

@1 삼춘은 굽자리렌.

#3 굽자리돌이렌 해야지.

@1 아, 그냥 굽자리렌 말도 들어받예?

#3 예, 굽자리.

## 정지

@1 게니깐 우리 놀굽 허면 허는 것처럼 여기도예. 그다음에예, 그 우리 정지에는 뭐, 뭐 놔마씨? 거기 놀 게 해주게.

#2 정지에.

@1 예.

#2 첫째 살레.

@1 살레.

#3 살레.

#3 그다음 물허, 저 물항.

@1 물항.

#2 물항.

#3 켈 중요한 게 물항이주게.

@1 예, 예.

#2 예.

#2 살레허고 물항.

@1 예.

#2 것이 주로.

@1 항상 살레허고 물항은 논 거라예?

#2 예.

@1 솟. 여기는 혹시 돌화리나 부섭 7튼 거는 안헤신가마씨?

#2 무사, 그 돌화리 그런 것도 헤십주.



@1 응.  
 #3 저 이간 막살이 ㄱ튼 디는 보면은 부엌에 대개 가운데.  
 @1 예.  
 #3 저 불 살라근에 거기서 뭐 이 반 생활은 거기서 허주, 이간 막살이 ㄱ튼 디는.  
 #2 예, 거 마루.  
 #3 마루.  
 #2 마루에 이런 저 나무 ㄱ튼 거 판자 거 가운데 파놓고 거기엔.  
 @1 예.  
 #2 그자 돌로.  
 @1 그러면 마리 널 그 사이에 거기를 박읍니까. 돌화리를?  
 #2 아, 건 저 집집마다 틀린데 이건 저 가져다니는 거 잇고 그대로 저 거기 만들어서.  
 @1 예.  
 #2 허는 사름이 잇고.  
 @1 아, 경 박아논 것도 잇고예?  
 #2 예.  
 @1 그거는 이름 뭐렌 헤마씨?  
 #2 아, 그거. 화린 화린데, 웃음.  
 @1 뭐 부섭이렌 헨 말은 안 들어 봄데가?  
 #2 글썸.  
 @1 봉덕.  
 #1 봉덕은.  
 @1 아니고예, 예. 어쨌든 돌화리 헤갓고 박아서도 써서예, 마리 그.  
 #2 예.  
 @1 삼관집 마리에도 그렇게 박아논 거 봐 봄디가?  
 #2 예.  
 @1 아, 여기도 박앗구나.  
 @2 예, 그 그렇게 마리에 돌을 박아서 이렇게 헛던 게예, 좀 많앗수과, 어느 정도?  
 #3 많지는 안헛지.  
 #1 많지 안허여.  
 @2 많진 않고, 드물게.  
 #3 드물게 돌화리.

#2 예, 박은 거는 많지 않고.  
 @1 예.  
 #2 그 외에는 뭐.  
 @2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많이 잇엇고마씨?  
 #2 예, 어 옮길 수 있는 건 집집마다 다 잇엇고.  
 @2 옮길 수 있는 건.  
 #2 왜냐하면은 집집마다 안 놓면은 추우니까.  
 @1 예.  
 #2 집집마다 다 불초기 위해서 불 때단 그 때어난 디 그저 나무로 때면은 그.  
 @1 잉경들 나오는.  
 #2 예, 그거 전부 해서 화로에 담아가지고 방에 갖다놔서 방 뜨시게 만들고.  
 @1 게난 그게 예전에는 돌화리로 해서예.  
 #2 아, 게난 돌화리가 많지가 않았고 그 저 저 옹기라고 그저.  
 @1 예.  
 #2 만든 것덜. 그런 것이 집집마다 그.  
 @2 옹기로 만든 거.  
 #2 예.  
 @2 아.  
 @1 옹기화리. 여기 대정골 신평 잇이난예?  
 #2 예.  
 @1 구역이영 잇이니까.  
 #3 신평 구역에서 만드니까.  
 #2 그걸 집집마다 헛고 돌화리는 가다꿈 하나씩 잇어.  
 @1 게문 예전에 식게 때 그 적 구젠 허면.  
 #2 예.  
 @1 어느, 무슨 화리에서 꺾수과? 그 옹기화리에서도 적들 구워신가?  
 #2 예.  
 @1 아, 옹기화리에도 구원예?  
 #2 예.  
 @1 그다음에 삼춘 그 궤팡에 거기에 여기도 칠성 이런 거 모십니까, 안네 해갓고, 식게 때?  
 #2 칠성?  
 @1 칠성.

#2 (웃음)  
 #3 여기 칠성은 안 모시는데.  
 @1 예.  
 #3 저 제사 때에 건 부인들이.  
 @1 응.  
 #3 건 저 고팡에다가.  
 @1 고팡신.  
 #3 예, 고팡신한테 제사를 올리는데 그건 남자가 아니라 부인이 올리는데.  
 @1 예.  
 #3 예. 건 저 집집마다 하는 집도 있고 안 하는 집도 있는데 그 전에는 거의 다 제사하면서 별도로 거기 헛는데, 근래에는 그런 거 다 엇어져 불언.  
 @1 아, 예전에는 헛고예?  
 #3 예, 예전에는 그렇게 헛수다.  
 @1 그러면 예전에는 안방에 그 고팡에 허는 거는 무슨 제렌 헤마씨?  
 #2 아, 그저 안, 안, 안제엔 허연.  
 @1 안제.  
 @2 안제.  
 #3 문전제가 있고, 안제가 있고.  
 @1 예.  
 #3 문전제는 제사허기 전에 저 문 앞에서.  
 @1 마루에.  
 #3 예, 허고 문전제, 고팡제.  
 #2 예.  
 #3 안제.  
 #2 안제.  
 @1 안제렌.  
 #3 안제.  
 @2 혹시 고팡 안하고 부역에 하시는 분도 잇수과?  
 #3 부역에.  
 @2 부역엔 안 헛수과?  
 #3 부역에.  
 @1 부역은 문전제 끝나나면 또 부역에 조왕에 허잖습니까?  
 #2 예 저, 부역에.  
 #3 조왕, 조왕.

#1 문전제 끝나가지고.  
#2 예.  
@2 예.  
#1 그냥 그걸 올리.  
#3 거 걸명.  
@1 걸명 해갖고 조왕에 하는 거고. 게문 그 안제 허는 거는 딱루 문전제처럼.  
#3 예, 따로 따로.  
@1 따로 상을 출리는구나예?  
#2 딱로 상을.  
#1 딱로 출령.  
@1 아, 따로 출릴 때는 그때는 무신 거에 출령 허는고마씨? 그 차룽에 출리는가, 아니면은?  
#3 특별허게 다른 건 뭐 아니고.  
@1 상 폐우는 건 아니잖아예, 거기에. 항 우에 놓거나 이런 거 아니?  
#3 아니, 그런 건 아니고.  
#2 아니, 아니, 그런 것도 상에 출령.  
#3 상에 출령 문전제 마찬가지로.  
@1 문전제랑 똑같이 헤 갖고.  
#1 예.  
#3 문전제랑 마찬가지로.  
#1 예.  
#3 상에 출령.  
@1 게문 그 상은 어디 놓는 거, 안제는?  
#2 아, 문도에도 놓고 문도에.  
#3 보통 문도에.  
#2 도에.  
@1 아, 궤팡문 도에.  
#3 궤팡문 도에.  
#2 도에 낚근앵이.  
@1 안제라고 해서.  
#3 안제라고 해서 여자, 부인들이 와서 어 저 제 같이.  
@1 요즘도 거 안제 지내시는 분 잇일 건가?  
#3 아, 거.

@1 건 식게 때 멩질 때 다 험니까?  
 #2 아 요즘도.  
 #3 허는 집은.  
 #2 집집마다.  
 #3 잇을 수도 잇어.  
 #2 지금??지 남아 잇는 사름덜도 많수다게.  
 @1 예.  
 @2 그러면.  
 #2 제사 지낼 때.  
 @2 그러면 제사 때 문전제, 안제 그 저.  
 @1 그다음 조상.  
 @2 조왕하고 이 세 개를 다 하는 거네예?  
 #2 아, 조왕은 안 험니다.  
 #3 조왕제는.  
 #2 예.  
 #3 걸명만 허고 제는 안 지내고.  
 #2 조왕에는.  
 @2 끝나서 걸명이라도 하는 거 아니예?  
 #3 예.  
 #2 예.  
 #3 조왕에 제, 제 걸명만 허지.  
 @1 조상, 조상 저기 하고.  
 #2 예.  
 @1 이 안제 허는 거를 사진을 혼 번 찍으면 좋을 건디, 누구네 식게날 혼 번 초청헤 줘서.  
 #3 (웃음)  
 @1 삼촌네는 안 험니까?  
 #3 우리는 허건 디 오랬어. 안 헤 불엄주게.  
 @1 그 저기 멩질날 팔월 멩질날도 허잖아예, 안 험 건가, 삼촌네 집인 험니까?  
 #2 아이, 그 건 우리는 그자 그 제사 지낸 방에 옆에 별도로 험 내불엄주.  
 @1 안제도.  
 #1 예, 안제를 별도로.  
 @1 별도로 하고.

#3 아 그.

@1 게문 문전상도 따로 허고.

#3 문전상하고 안제허고 두 개.

#2 아, 문전제는 저 대문 앞에 찰려서 허는 거고.

#3 안제는.

@1 예.

#3 거 시작허기 전에는.

@1 원래부터 문전제 상은 대문 앞에 찰립니까, 삼춘네는?

#2 아니, 아니. 방에.

#3 방에 놔뒀다가.

@1 놔다가 제 지내젠 허민 허는 거고.

#2 제 지내젠 허면 허고.

@1 안제 거는.

#2 안제는 방에 기자 옆이 구석에.

#1 영 구석에 놔두민.

@1 아, 게문 삼춘 우리가 방에 젓상이 이렇게 잇잖아예?

#1 예.

@1 젓상이 이렇게 신위 잇고, 여기 이제 문전상 놓지 안헙니까? 하나. 그다음에 따로 이렇게 방이면.

#1 예.

@1 게문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안제 거를 하는구나.

#1 예. 넣어 두는 거.

@1 이렇게 왼쪽에 놓니까? 문전상 삼춘넨 어느 쪽에 놓니까?

#1 아.

@1 상 차릴 때, 여기.

#3 오른쪽에.

#1 그 창문 발라.

#2 그 창문 발라. 문전제 헐 건.

@1 아, 창문 발라. 오른쪽이구나. 오른쪽에 문전상을 이제 놓고.

#2 예.

@1 요거는 젓상 놓고.

#1 그 오른쪽 왼쪽이 어떻게 돼냐면, 그 집 구조에 따라랑 틀리주.

@1 예, 맞수다. 창문 발라.

#3 창문 발라 아니파예.

#2 언제 지낼 것은 안쪽으로 기사 방마다 안쪽으로 놓으면 되는 거.  
 @1 게 옛날에는 안에 안허고 이제 그 고팡 안에. 요즘은 고팡들이 방이 엇  
 어부니까 그거구나게.  
 #2 예.  
 @1 옛날엔 고팡 안에 영 출려났구나예. 똑같이.  
 #2 아니 게난 고팡 문 앞에.  
 @1 게난 문 앞에예.  
 #2 예.  
 @1 예, 게문 이거 찰려근에 고팡 쪽으로 가져갑니까? 끝나면.  
 #2 아, 끝나면은 그 부인들이 알아근에 거기서.  
 @1 걸명만 허는 거.  
 #2 걸명만 험니다.  
 @1 아, 걸명 하고예? 찰리기는 험고나예?  
 #2 예. 걸명벧긔 안 험니다.  
 @1 알아수다. 그다음에 삼춘, 그 문들 들젠 허면예. 문 들젠 허면 뭐가 필요  
 한 거?  
 #1 어디 무슨, 무슨 문들?  
 @1 저기 대문 돌아봅주.  
 #1 대문은, 대문은 대문 지돌귀라고 해 가지고 대문 옆에 이렇게 이 저 만  
 돌아 가지고 지방 위에 조금 흐끔 파근에 대문에 옆 돌아근에 허민 그 지돌귀  
 라고 해 가지고.  
 @1 지돌귀.  
 #1 예.  
 @1 지돌귀 험니까? 주돌이, 지돌이 이런 말은 안 들어보고?  
 #1 게메, 그게 그 말일 건디.  
 @1 예. 삼춘네는 지돌귀.  
 #1 예.  
 @1 게민 지돌귀 허면 우에 널에 밑에 뽀족헌 게 잇잖아예?  
 #1 예, 뽀족헌 거 잇주.  
 @1 예, 이렇게 된 거.  
 #1 예.  
 @1 그다음 이거 이렇게 하면은.  
 #1 문이 영 돌리민 왔다갔다 허주게.  
 @1 예. 게민 이거는 뭐우파?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고팡은?

#1 고망, 건디 건 모르겠는데.  
 @1 지돌귀고망.  
 #1 예. 이거는 거 대문 지방에, 대문 지방에 팡 허는 거난.  
 #2 돌기고망이엔 허주. 돌기고망.  
 @1 돌기고망예.  
 #2 예.  
 @1 게난 삼춘 밑에 그 대문 지방이 잇잖아예?  
 #1 예.  
 @1 그 위에도 잇잖으파?  
 #1 그 우에예. 우에도 잇어.  
 @1 예. 우에 거는 무슨 지방 허여?  
 #1 거 대문 지방이주게 또 그게. 우아래.  
 @1 예. 웃지방, 알지방 이런 말도 험니까? 여기서.  
 #1 예.  
 @1 예 대문 지방예? 그거는 널문이고.  
 #1 예. 널문.  
 @1 그다음 지게문 만들 때는 다른 게 필요 엇인 거. 이거 밀문이니까.  
 #1 밀문?  
 @1 예.  
 #1 아.  
 @1 예전에는 밀문 헛수과? 이렇게 여는 거 헛수과?  
 #1 미달이주.  
 @1 아, 미달이헛구나. 맞다, 창문예. 지게문.  
 #1 예.  
 #2 지게문.  
 @1 지게문 들젠 허문 옆에는 또 뭐가 이서야 될 거?  
 #2 저 고리, 고리 헤수게.  
 @1 예. 고리.  
 #2 요런 똥그락헌 거에 문에 요렇게 거는 거.  
 @1 거는 거.  
 #2 거는 거 해서 꼽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게.  
 @1 으, 그건 이름이 무시거파?  
 #2 돌, 돌철귀?  
 @1 돌철귀. 예



#2 예.  
 @1 계난 돌철귀도 암커 잇고 수커 잇고.  
 #2 예.  
 @1 암커는 어느 거고, 수커는 어느 겨우짜? 돌철귀 헐 때.  
 #2 아니 이 동글락헌 것은 암커고, 영 꼬부라진 건 수커.  
 @1 아, 영 들어가는 고망은 암커고.  
 #2 예.  
 #3 암커는 지등에 붙고.  
 @1 예.  
 #3 수컷은 문에.  
 @1 문에 허고, 수컷이 문에 드는 거예?  
 #2 예.  
 #1 암커는 어디 드느냐면 지등 입장, 입장.  
 @1 입장에.  
 #1 입장에 박고, 수커는 이제 문에 박고.  
 @1 예. 계난 그게 다 문 입쟁이구나게, 예. 경행 허게 뒤편 지게문은 드는 거고, 그리고 안에서 누게 오카부덴 행 이렇게 고리 해근에 저기 잠그잖아예. 문 증글 때 보면 영 동글랑허게.  
 #2 예.  
 @1 그건 무신거렌 험니까?  
 #3 거 고리.  
 @1 문고리?  
 #1 문고리.  
 @1 문고리에도 이렇게 해야 이렇게 걸 거 아니짜. 것도 암커 수커 이수가?  
 #3 예. 그렇지게.  
 #2 아, 것도, 우쪽으로.  
 #3 건 암커 수커라고는 허지도 안허고.  
 #2 우쪽으로  
 @1 동글랑허게 영.  
 #2 요렇게 못 닳은 거 요렇게 동글락허게 멘들앙, 저 웃지방에 두 개 영 박 앙, 아래 동글락헌 거 문에 요걸 헛당은에 문 달으면은 요걸로 영.  
 @1 증그는 거.  
 #2 예. 걸엇닥 내리왓닥.  
 @1 그 이름은 무시겨짜?

#2 그건, (웃음) 문고리벧긱 뭐, 뭐.

@1 문고리벧긱예. 예. 알아수다. 그다음에 이제 창문, 창문은 어떤 식으로 돌아? 그것도 돌철귀.

#2 돌철귀 다.

#1 돌철권 거 미달이가 아니고, 돌철귀 허는 건 가르달이니까.

@1 예.

#1 가르달이 헐 때 돌철귀 쓰는 거고.

@1 삼춘 무슨 달이마씨?

#1 가르달이. 가르달이.

@1 가르달이?

#1 예. 가르 열곡 더끈단 말해주게.

@1 아. 그 창문 두 개 이렇게 여는 걸 가르달이렌 헤예?

#1 예. 가르달이 열곡 더끈단 말이 그 말이거든.

@1 예, 예. 가르달이. 그다음에 셋문들은 이렇게 여는 것도 잊지 안허우꽈?

#1 건 미달이.

@1 건 미달이고 두 개 양쪽으로 이렇게 허는 건 가르달이.

#1 가르달이.

@1 새로운 거 하나 나왔네. 가르달이예?

#2 미는 거니까 미달이엿 굳고.

@1 예.

#1 가르 열곡 더끄니까 가르달이.

@1 가르달이. 게문 삼춘 대문은 것도 가르달이렷 골아?

#1 대문은 거 가르달이엿.

#2 아니 건.

#1 대문도 무슨 거 영 양쪽으로 허주마는, 그 대문이엿 허주, 거 가르달이엿 안허여.

@1 예. 게문 가르달이엿 허는 게 어디 어디에 이신 게 가르달인 거꽈? 창문만?

#1 창문허고, 지게문도 허고.

@1 지게문도 가르달이렌 허는구나. 두 개.

#1 예. 가르달이엿.

@1 예 알아수다. 창문하고 지게문에는 가르달이. 그다음에 저기 여기 지금 창문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길게 헤갓고 가르달이로 헛지만. 요즘은 요런 창들은 무슨 창이렌 헛니까?

#1 어느. 중창. 이거 중창이주.  
 @1 중창, 중창은 무사 중창마씨?  
 #1 저 집 중간에 이시니까 중창이거든게.  
 @1 아, 중창.  
 #3 중간에 창을 만들었으니까 중창.  
 @1 반창이렌 말은 안 들어봅디가?  
 #1 그 반창 그런 말은 못 들어반.  
 @1 아, 삼춘네는 중창.  
 #2 예. 중창.  
 @1 중창예. 그다음에 혹시 여기 대문, 대문은 멧 개 돌아? 마리에.  
 #1 대문 잇고양.  
 @1 예.

### 대문, 호령창

#1 대문 큰문 대문 두 개 잇지양?  
 @1 예. 가운데.  
 #1 계민 또 그 저 옆에 저 그 조꼬만 문이 잇주. 거 저 마루 그 저 조끄만 문이 잇는데.  
 @1 예.  
 #2 그건 저 스간집이라야.  
 #1 스간집.  
 #2 스간집이라야 문이 따로 들어가는데.  
 #1 그 주인이 밖에서 누가 오는가 안 오는가 거 보는 문이주게.  
 @1 예. 그 문 이름은 뭐우파?  
 #1 아, 거 기억이 안 나는데.  
 #2 (웃음)  
 @1 호령문? 호령창?  
 #1 예, 호령창 맞아.  
 #2 예, 호령창 맞수다.  
 @1 계난 그 호령창은 지계문으로 돌아수과? 아니면 널문으로 돌아수과?  
 #1, #2 널문, 널문.  
 @1 널문으로예. 조그만허게예.  
 #2 예.  
 @1 근디 무사 창이 아닌디 건 창이렌 곱아신고?

#1 양?

@1 호령창, 호령문도 아니고, 무사 호령창이렌 굴아신고예?

#2 아, 건 이 저 거세기 주인이 그 저 뭐냐 그 노복, 노복덜 이런 디 큰소리 치면서, 큰소리치면서 그 문 열고, 부르고 저 노복덜을 이용한다고 헤가지고 호령창. 그 저 부른다는 뜻일 거우다. 호령헌다는.

#3 호령헌다는.

#1 도사리덜.

#2 예, 도사리 이제 호령헌다는.

#3 가끔 외부 손님들이 올 적에.

@1 예. 그때도 그 창 올양은앵에 허는구나예?

#3 예, 누구시파? 이렇게.

@1 예, 삼춘 이 동네는 도사리 하영 데령 살아수과? 도사리 말이 하영 나 완.

#2 아, 그렇게 많지 안헤수다.

#3 이 동네는 노비라고 헤서예.

#1 도사리 부리는 집은 아주 그 저 부제침이 잘사는 집이라야 도사리 부리 주. 경 안 허민 도사리 부릴 수가 이십니까게.

@1 겐디예 삼춘, 도사리는 누게를 도사리렌 험니까?

#1 응?

@1 도사리는 여자우파, 남자우파?

#1 남자, 남자.

@1 아, 남자도 도사리엔 헤예?

#1 심부름꾼이주게.

@1 그 장남이렌은 안 곱니까? 여기에서는?

#1 장남이엔도 허곡, 장남은 그 저 밧도 갈곡 그 큰일을 허는 거고, 도사린 존심부름도 해주곡 허는 거주게.

@1 거난 집에 데령 사는 사람을 도사리엔 허는구나예?

#1 도사리.

#3 장남허고 도사리허곤 틀리지.

@1 응. 어떻 특난고예?

#3 장남은 큰일 같은 거.

#2 큰일만 헉게 뉘 거고,

#3 일손이 모자랄 경우.

@1 빌려서.

#3 빌려서 일하는 것이. 도사리는 직접 자기 집에 데령 살면서 일을 시기는.

#2 예, 소소한 거 다 시기는 겁주.

@1 예, 도사리고예. 그다음 아까 노복이렌 헤신디다가 노복은 뭐우짜?

#3 노복, 노비가.

#1 다른 사름, 인부주, 인부.

#3 도사리를 노복이라고 헛어. 노비는 여자고이, 노복은 남자고.

@1 아, 노복은, 아, 건데 요즘은 또 달라져서 우리 일 놓 빌 때, 놓 비는 걸 노복 빌엇덴도 허잖습니까? 일헛 때. 일꾼들 빌어근예. 옛날에, 아이고 이제 일 하부난 이번에 노복 빌영 일해야 될 건디 이런 말.

#1 예.

#3 여기서 노복이엔 안 허고 놓 빌영 헛다고 허지.

@1 놓도.

#3 요사이는.

@1 예. 요새는 놓이렌 허는데 옛날은 노복 빌영 이렇게 헛거든예.

#3 예. 옛날은 그렇게 노복이렌.

@1 근데 보통 여기서 헛 때는 노비는 여잔데 노복은, 남자한테를 노복이라고 헤나서예?

#3 예.

### 굴묵

@1 알아수다. 굴묵은 어떤 식으로 이뤄졌수과?

#2 굴묵?

#1 굴묵은 방 때는 디게.

#2 방 때는 디.

@1 굴묵에 뭐 다른 거 득 올리거나 이러진 안헤마썸?

#2 아, 무사 닭도 거기.

#1 그 굴묵 우에 독서령 만들양은에 득 올라가고.

@1 으.

#2 거기 저 불경, 불경 냉중에 필요 없는 거, 불 때어나면은 매일 것도 빼어 내야지 안합니까? 걸 빼내영 옆에 쌓는 디 별도로 칸 갈라가지고 쌓곡, 그 우에는 닭 밤에.

@1 독서령.

#2 예.

@2 불경 쌓아두는 데는 따로 뭐렌 곤지 안헤마썸?

#3 불체, 불체.  
 @1 불체, 계난 불챗막을 따로 안 헛구나? 여기는예?  
 #3 아, 따로 허기도 허고.  
 #2 주로 거의가 다 그 굴묵에서. 예, 거기서.  
 #3 굴묵에는, 따로 헐 경우는 많이 생산, 그 불체가 많이 나올 경우는 허는 데, 보통은 하루하루 헐서는 많이 안 나오니까.  
 @1 굴묵 한쪽에?  
 #3 예. 굴묵 한쪽에는 이렇게.  
 #2 거기 쌓은 다음 농사철 뒤민 또 담아당 밧디 뿌려뵤 또 허곡 헛으니까.  
 @2 정지 안에도 이거 불치, 불썽 모아두는 데가 잇지 안헛니까? 정지 안에.  
 #1 아, 그런 디 이수다.  
 #2 아, 정지.  
 @2 거기도 뤼렌 이름 곤지 안헤마씨?  
 @1 솟덕 앓인 뒤에.  
 #3 아, 저 솟덕 뒤에.  
 #2 솟덕 뒤에 건 뭘.  
 #1 불 그저 뭘 불치 많아가민 담양.  
 @2 거기를 영 특별히 말허는 이름이 따로 엇인가마씨?  
 #1 별도로 거 저 이름 없는데.  
 @1 그 혹시 여기는 정지 뒤에는 독은 안 올렛수과?  
 #1 정지 뒤에?  
 @2 정지 위에.  
 @1 예. 정지 위에. 그저 불치 잇는 디.  
 #3 부역에는 안 하고.  
 #2 아, 부역에는 건 더럽다고 헤 가지고 부역에는 안 올렛고.  
 @1 굴묵에.  
 #2 예. 부역에는 허면 닥에서 하간 티끌 문 떨어지지 안헛니까?  
 @1 날아다니고.  
 #2 예. 빈뎡이 같은 거 문 떨어지니까 건 부역엔 안허고.  
 @2 아까 닭 올렛던 걸 닭서령이렌 헤수가?  
 #1 닭서령.  
 @2 닭서령.  
 #2 독서령은 독 가두는 걸 말허는 거고.  
 #3 독서령허고는 틀리지 안헛니까?

#2 틀려, 틀려. 독서령은 독 가두는 거.  
 @1 더끄는 거고, 영 행 더끄는 거고. 독 가두는 거고, 독서령은. 계민 올리는 건, 독텅에?  
 #3 독텅에 맞아.  
 #2 예.  
 #1 독텅에 그 저 독새기 나는 디고.  
 @1 독새기 나는 디고.  
 #2 독새기 나는 디가 독텅에고.  
 #3 맞아, 독새기 나는 디.  
 #1 그 저 굴목 우에게.  
 @1 예.  
 #1 굴목 옆이 우에 그 독 올리는 디 독서령이엔 허여.  
 @1 예. 독서령.  
 #2 독서령.  
 @1 그니까 독서령도 하고 그다음에 빙애기, 여기 비애기?  
 #1 비애기.  
 #2 병아리.  
 @1 병아리, 병아리 더끄는 것도 독서령 아니우꽈?  
 #1 그것도.  
 #2 예.  
 @1 건 뭐 준비기낭으로 멘듭니까 여기는, 대낭으로?  
 #2 대낭으로도 허고, 거 저 여긴 순부기가 없으니까 저 거세기 산에서 나무 해당 허는데 뭐.  
 #3 꼭.  
 @1 꼭 걷어당?  
 #3 꼭 걷어당은에.  
 #2 꼭 걷어당도 허고. 저 볼레낭.  
 #3 볼레낭허곡 꼭 허곡.  
 @1 아, 볼레낭으로도 허는구나.  
 #2 예.  
 #3 볼레낭은 휘어지기가.  
 #2 가늘고 질게 번지 안합니까. 볼레낭.  
 @1 아, 그 밋볼레낭마씨?  
 #1 꼬리보리볼레주.

#2 꼬리볼레라고.

@1 꼬리볼레낭을. 여기는 꼬리볼레렌 허는구나.

#3 꼬리볼레낭 헤근앵이 휘영, 그다음 거기 저.

#2 에 머 꼭도 허고.

#3 꼭으로 헤근앵이.

@1 여경.

#3 여꺼근앵이.

@1 아, 그 독서령예. 그다음 삼춘 아까 그 풍체하고, 그다음 정지 앞에는 또 뭐 낚야 헐 거 아니우파? 정지 앞에 무시거 낚?

#3 정지 앞에 물허벅게.

#2 뭐 안 낚.

### 물팡

@1 물허벅 놓는 거.

#2 아, 물허벅 놓는 거, 팡, 물팡.

#3 물팡게.

@1 응, 물팡 헝은에 놓고예. 그다음 여기는 대정 저기 신평 이런 데 잇으니까 그 허벅들은 다 노랑허벅 써신가마썸? 아니면.

#2 주로 노랑허벅인디 까만허벅도 가다보면.

#1 까만허벅은 신평리서 저거 헛는데.

@1 지세허벅.

#1 그게 저 판로가 좀 좋질 안허니까 안 허게든.

#3 까만허벅은 특별히 그 저 뭐냐면 이 공기 순환이 잘 됩니까.

@1 예. 공기순환 잘 뉘.

#3 물허벅은, 저 물통은 반드시 까만허벅을 썼주.

@1 아, 물항은 지세항으로 헐 거우파?

#1 물항은 검은항.

@1 아, 장 담는 항덜은?

#2 장 담는 거는 검은항으로 안 허고, 그대로.

@1 노랑.

#2 예, 노랑 걸로.

@1 그 저기 고팡에 놓는 것도 다 노랑항예. 물항만 그걸로 헛구나.

#2 예, 물항만 이제 까만 걸로.

@1 시리 ?튼 거는 검은 걸로 하영 허지 안헛니까?



#3 시리도 검은 걸로.  
 #2 시리도 검은 걸로.  
 @1 예, 시리는 보통 검은 걸로 하영 허는 거 다했어?  
 #2 예.  
 @1 그다음에 우리 집에서 이렇게 길에 밖에 나오젠 허면 좁은 길 잊지 안허우파?  
 #2 예.  
 @1 건 뭐렌 험니까, 여기서?  
 #2 골목.  
 @1 골목을 여기서 뭐렌 험디가? 골목허고에 올레허고는 어떻 딱난 거?  
 #3 올레는 집 앞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올레고예, 골목은 집 안터레 직접 들어가지 안허고 마을마다 이렇게 다니는.  
 #2 집과 집 사이 그 길을 말허는 거주. 그런 다니는 길.  
 @1 예, 집과 집 사이 길은 골목이고.  
 #3 예.  
 @1 안골목 이렇게 허잖아예?  
 #2 예.  
 @1 올레는 우리 집하고 연결되는 길이잖아예.  
 #2 예. 연결뒤영.  
 @1 우리 집하고만 연결된 거라예. 올레는.  
 #2 예.  
 @1 삼촌네 집은 삼촌네 집허고 연결된 거고.  
 #2 예.  
 #1 우리 올레, 느네 올레.  
 @1 우리 올레, 느네 올레예. 그 소유권이 딱 잇는 거라. 올레는예?  
 #2 예.  
 @1 그 골목은 올레와 올레를 연결헤 주면서 길로 나가는 거.  
 #3 지금 제주 올레길, 올레길 하는데 사실 올레길이 아니라.  
 @1 건 올레. 놈의 집이 들어가는 거니까.  
 #3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올렌디.  
 @1 예, 그다음에 그 삼촌 올레도 금방 집 밖에 나가면 골목이 나오는 경우도 잇고, 올레가 막 긴 집도 잇지 안허우파?  
 #2 예.  
 @1 그거는 긴 거는, 긴올렌 여기서 뭐렌 험니까?

#3 올레를 긴올레?

@1 먼올레, 이런 말은 안 됩니까?

#2 안골목이나벧긔 뭐.

@1 응, 그냥 올레만 찢어예. 알아수다. 그다음에 여기 이문간 든 집도 으라 개 잇어나수가?

#3 이문간 든 집은 그렇게 많지는 안헛어.

@1 근데 이문이렌은 헤마썸?

#2 예.

@1 이문예. 게문 이문행 한쪽에 아까 문 들고, 것도 널문으로 옛날예. 그다음에 그 옆엔 아까 손청거리.

#2 예.

### 놀앗

@1 그게 손청거리. 손청거리 한 거고. 놀들은 딱로 집안에 놀들은 멘들앗어예.

#3 뭐 집안마다 놀은 다 잇엇어.

#2 건 집마다 딸감도 쌓여야고 허니깐.

#3 출, 중요한 것이.

#2 또 소 먹이.

#3 소 먹이 출.

#2 그걸 하기 위해서 쌓였고, 또 집 덮기 위한 그 재료도.

@1 새.

#2 쌓여서 놀 놀엇고, 게난 놀이 집집마다 으라 개라십주.

@1 게문 여기는 별도의 놀앗이 잇엇수가? 집안에?

#2 예, 일부러 만들어십주, 거, 집집마다.

#3 보통 보면 놀터 마당 앞에.

#1 놀터.

@1 놀터.

@2 그러면 그 놀이 소 먹이는 용하고 집 더프는 용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헤신가마썸?

#3 아니, 소 먹이는 놀하고.

@1 출놀.

#3 출놀하고 불 때는.

@1 딸감예.

#3 땀감.  
 @1 지들케.  
 #3 지들케. 보리 7튼 거.  
 @1 보리낭.  
 #3 보리낭 7튼 거 보리 장만해나면은 보리낭 놀엉 낫다근앵이 흰 번씩 뽕  
 으멍 밥을 지엇거든게.  
 @1 예, 예.  
 #3 그러니까 놀에는 즐놀이 잇고.  
 @1 보리낭놀이 잇고.  
 #3 그다음에는 보리낭놀이라든지 이, 저 아까 말한 저 뭐.  
 @1 임시 땀감들.  
 #3 예. 땀감놀.  
 @1 거난 옛날에, 우리 저도 한경인데 옛날에 그 솔입놀 같은 것도 막 으라  
 개 놀기도 해낫수다.  
 #3 아, 게메, 땀감 부족하면은 그 솔입놀 같은 것도 땀감에 속하는 것들이니  
 까게.  
 @1 게난 다른 지역, 무사 이 말 물어뵈신고 허민예, 다른 지역 가면 별도의  
 놀왓이 엇엉예. 놀왓 헛당 쉼 목장에 올려 붙면 거기를 우영으로 쓰더라고마  
 씨. 승키.  
 #2 아, 우영으로 승키.  
 @1 예, 근데 여기는 놀왓은 일 년 내내 놀왓으로만 쓰는 거지예?  
 #3 예.  
 @1 거긴 다른 용도로 안 쓰지예?  
 #2 예.  
 #3 게난 놀왓을 허젠 허면은 일반 이런 디 해놓면 비 같은 거 뭐하니까.  
 #2 밑에 썩으니까 밑에 돌.  
 #3 밑에 썩으니까 돌, 돌로. 놀왓터를 둥그렇게시리 돌로 높인다고, 높여.  
 #2 미리 동글락허게 다 만들앙 낫다가.  
 @1 놀터렌 허는구나예?  
 #2 예.  
 @2 놀터가 집집마다 기본적으로 세 개 정도는 잇겠다예?  
 #2 예, 예. 세 개 정도는 뭐.  
 #3 잘사는 집 이런 데는 놀왓을 저 별도로 저 어디.  
 @1 한쪽에 크게.

#3 한쪽에 큰, 저 우녕팍 ㄱ튼 디, 우녕팍 ㄱ튼 디 헤근앵이 여러 개 헤근앵이.

@1 음.

#3 이 칩이 저디 놀왓 그디 가 보면은.

@1 아, 놀왓이 이수과?

#3 놀왓. 그딘 저 앞이 간단허게 멧 개만이 아니고 이 우녕팍디이.

@1 예.

#3 크게 헤근앵이.

@1 별도로 놀왓을예?

#3 별도로 놀왓 크게 만들앙.

#2 옛날덜은 뭐 그렇게 헤난 디 많주.

#3 게난 이 저 보리 ㄱ튼 것도 많이 헤오는 사름은 헤서 거기 놀왓디 놀엇다가 장만허곡.

@1 음.

#3 거 장만헤난 거는 또 거기 놀고.

## 정낭

@1 그리고 삼춘, 그 아까 이문 들지만 이문 엇인 집은 옛날에 다 무신거 멘 들아수가?

#1 정낭.

@1 정낭.

#2 예.

@1 정낭 옆에 영 세우는 건 뭐렌 험니까? 돌로도 세우고 낭으로도 영 세와 나신디.

#1 아이고, 거.

@1 정주먹? 정주목?

#3 정주목이엔, 거 정주목이엔 현 것은 근래에사 나온 말이고이, 우리 옛날엔 정주목이엔 안 헤서. 걸 무시거엔.

@1 어쨌든 정낭 걸치는 뭐가 잇지 안허우파양?

#2 예.

@1 아, 삼춘네는 정주목이렌 안헛구나?

#3 정주목이엔 현 건 근래에사 쓰는 말이고.

@1 나온 거라예. 예.

#3 옛날엔 정주목이엔 허지 안허고 뭐엔 헤나신고.

#1 지금 맴돌멍, 맴돌아도 아무것도 안 나왔서.

@1 머릿속에는 막 맴돌았신디.

#1 (웃음)

@1 이땅 나옵니다. 이제 저기 추사 가면 나올 거난예. 그다음에 우리 그 도새기 사는 디는 뭐렌 헤여?

#3 돛통게.

@1 돛통. 돛통은 어느 쪽에 멘듭니까? 보통 집에 헐 때는.

#1 큰구들 옆에 동쪽엘 허든지 서쪽, 게난 그 집 방향에 따라근예.

#3 구조에 따라 틀리는데.

#2 구조에 따라가지고, 하여튼 저 부역에서 반대쪽으로.

#3 완전히 반대.

@1 조왕허고는 멀어야 뉘난예?

#2 예. 부역에서 반대쪽으로.

#3 뉘도록이면 먼 곳에.

@1 게난 삼춘네는 방향, 어느 방향에 정제 멘들아났수가?

#3 우리 경우에는 동쪽, 멀리.

@1 동쪽, 멀리.

#3 아, 게난 그 집 구조에 따라서 틀려마썸? 구조에 따라서.

#1 집집마다 다 틀려.

#3 보통 옆으로, 집 뒤, 옆으로 헤근예.

@1 집 뒤쪽으로, 옆으로예?

#3 집 뒤쪽으로.

#1 돛통은 멀어야 뉘거든마씨, 조금. 조왕허고는 반대니까.

### 돛통, 돛집

@1 예. 게민 돛통 이렇게 하면, 그 돛통을 한 번 영 그려봅서. 뭐, 뭐 거기 는 도새기 좁자는 디 뭐렌 곶아?

#2 돛집.

@1 건 돛집.

#2 예.

#3 드들팡 잇고.

@1 드들팡 잇고.

#1 똥 싸는 디 드들팡.

@1 똥 싸는 디 드들팡. 그다음에.

#3 돛통. 저 무시거 도새기 먹이.  
 #2 도새기 먹이 주는 디 돛도고리.  
 #3 돛도고리 놓는[노는] 디.  
 @1 돛도고리, 보통 돛도고리 몇 개 놓니까?  
 #1 하나, 하나. 도새기 하나민 하나.  
 @1 도새기 하나민 하나.  
 #2 예.  
 @1 어떤 딴 가난 두 개 논 디도 잇언게.  
 #3 큰, 하영 키우는 집이민 몰라도, 보통 하나.  
 #1 두 개 놓는 딴 새끼 나와근에.  
 #2 주로 하나라도 큰 거 놓는 디가 많습니다.  
 @1 예.  
 #2 작은 거 놓는 디도 잇주마는, 작은 거 놓면은 도새기도 먹다가 모자라니까 흠치 큰 걸로 만든 사름이 많습니다.  
 @1 예, 돛도고리 낵예? 그다음에 그 돛통 앞에도 뭐 것 주는 향도 잇일 거고.  
 #1 예 것 주는 향도 잇고.  
 @1 예. 그건 무신 향 험니까?  
 #1 도새기 것.  
 @1 것향? 그다음에 오즘은 어디 험니까?  
 #3 보통 그쪽에.  
 @1 어, 저기 돛통 앞에.  
 #2 예.  
 #3 돛통 부튼 데.  
 @1 오즘향을 땅 팡은에 이렇게 묻기도 헤나수과, 여기?  
 #1 예. 묻기도 험니다.  
 #3 그런 집도 가끔 잇었어.  
 @1 아, 게믄 그자 이렇게 거릴 수 잇게예. 일반적으로 안 헛는데 땅 팡 묻는 디도 잇었어예?  
 #1 그런 디도 가끔 잇었어.  
 @1 거난 오즘향을 묻게 뉘민 어디로 묻을 건고 건?  
 #1 그 돛통 옆에게.  
 @1 돛통 옆에예. 그렇게 이제 오즘향 하고. 그다음에 돛통 허면은 그 막 가시 쌓은 것도 봐납디가? 수툫 좇젠 허면은. 귀아낭.

#3 아, 튀어나는 도새기 질라보지 안허민. 수컷 좇을 때나 이렇게 헐 때쯤은. 뭐 튀어나는디 그놈의 거 튀어나기 시작허민 잡질 못헤여.

@1 예, 옛날에는 수퇘 놓레 덩기는 이련에 모습도 많이 보여났인다.

#3 계난 새끼 허기 위해서 수퇘만 헤근앵이.

#2 계난.

#3 암퇘 와근앵이 저 새끼 멕이고 허는 전문적으로 허여근에 돈 받는.

#2 예 저 수커, 수커 기르는 사람이 웨냐허면 거절합니다. 자꾸, 웨냐허민 이거 헐 번 암커 와나면은 계속 도망가니까.

@1 아아, 거 수컷도 튀어나는구나. 여자, 이 암퇘만 튀어나는 게 아니고.

#2 예. 암커 와나면은 튀어날 도망가니까 거절헤마썸. 웬만헌 사름은 안 줄라고.

### 쉐막

@1 아, 그런 말도 있구나게. 그다음 삼춘 이디 헛간은 어디 멘들아마씨?

#2 헛간?

#3 헛간? 앞에는, 바로 앞에는 아니고.

@1 쉘막 옆에나 뭐.

#2 예. 주로 소막 곁에 만드는 거주.

@1 응. 소막. 계난 여기는 소막 험니까, 쉘막 험니까?

#3 쉘막.

@1 쉘막?

#1 쉘막.

@1 그 보통 쉘막은 아까 밧거리에 멘들아마썸?

#1 예, 밧거리에.

@1 아, 밧거리 헐 쪽 헤갓고. 게문 밧거리 만들면 쉘 메는 디가 있고.

#1 예.

@1 쉘 메는 디 앞에 이렇게 낭들 이렇게 영 있어났지예? 그 낭은 무시거렌 허는지 알아지쿠가?

#1 그 칸 가르는?

@1 예, 칸 가르는 낭.

#2 아, 칸멕이나무.

@1 경 행 거기 앞으로 한쪽으론 헛간도 쓰고 뭐.

#2 예.

@1 멍석덜도 가근에 허고.

#2 예.

#3 그디 낭 이름이.

@1 메낭? 그런 말은 안 들어났수가? 삼춘네도 어렸을 때 췌 하영 맥였수가?

#2 아, 췌는 뭐 집집마다 다 있어십주.

@1 예.

#2 웨냐면은 이거 소가 있어야 밧을 가니까.

#3 밧 갈고, 겨곡 또 새끼 내여근에 팔기도 허고.

@1 게문 그 췌것 주는 데예? 앞에, 거기는 무시거렌 헤여?

#2 아주 옛날에는 것 주는 게 별도로 없었어.

@1 예.

#3 출, 출 헤근에 그대로 난 췌지.

@1 예.

#2 그대로.

@1 앞에.

#3 지금 저 게난 육지 사람, 육지 경우에는 보통 출도 그대로 허지 않고 삶아서.

#2 삶아서 주잔녀.

#3 췌거든. 췌디 여긴 그대로 췌지.

#2 여긴 뭐 그대로 던정 내버리고, 그러다가 여기도 낸중에라야 이 저 어디 내일 밧이라도 갈 거다, 허면은 미리 잘 맥일라고 기자 솟에 삶아 가지고 다라에 퍼가지고 갖다 쥐십주.

@1 그냥 다라에 평예. 별도 것통 이렇게 만들어 잇진 않구나.

#3 보통 따로 만들지 안허고 그대로.

#2 아주 옛날엔 만들어 잇지 안허연.

@1 우리, 이 동네는 물이 귀헌 편이우짜? 어떻.

#3 귀헌 편이우다.

#2 물이 귀헤나수다.

@1 혹시 게문 물 귀허면 돔방낭이나 행은에 춤 7튼 것도 메나신가마씨?

#2 아, 그런 거 흔 사름도 있어십주.

@1 아.

#3 여기는 돔박낭도 허주만 즈밤낭.

@1 아, 즈밤낭에.

#3 즈밤낭덜이 있어서 즈밤낭 허면은 그 뒤에다 새로 헤근앵이. 영 쪽 헤근



에물 반양.

@1 아, 여기도 춤 메영, 춤이렌 헤수가? 그건, 혹시 뭐렌 헤수가?

#3 춤.

@1 그냥 춤예. 아, 이 동네도 춤 멧구나?

#3 저 우리 셋아버지네 집 뒤에 ○○네 그디 즈밤낭 뒤에, 우리 막 클 때?  
지도 그거 봐났어.

@1 음, 그.

**지슬물**

@2 혹시 지붕 우의서 떨어지는 물도 받아놨수과?

#2 예.

@1 그건 무슨 물이렌 헤여마씀?

#3 지슬물.

#2 지슬물.

@1 지슬물,

#2 예.

@1 그 지슬물로는 용도는 뭐라마씀?

#2 아, 그거는 저 먹지 안헤영은영이 뭐 이런 걸레도 빨고 뭐 이런 용으로.

@1 게난 지슬물 헐 때 초집 헐 때도 지슬물 받안 써수가?

#2 예, 지슬물 받안.

@1 예, 그 밑에 항덜 낳은예.

#2 예

@2 지슬물마씀?

#3 지슬.

#2 지슬.

@1 지슬, 지슬물예?

## 6.2. 초가 지붕 이기

@1 그다음에 삼춘 이제는 초집 일어보게예. 웨냐믄 짓는 거는 목시 뭉이지  
만 지붕 이는 거는 누구나 다 ㄱ찌 헤긴 헤실 거라예?

#2 예.

#3 협동 일입주게.

@1 예, 이 안성에서는, 이 대정골에서는 집 이는 거는 몇 년에 한 번 일어  
마씨?

#2 아, 이 년에 한 번.

@1 이 년에 한 번에. 저쪽 성산이나 이런 데 가면에 일 년에 한 번.

#3 거긴 비가 많이 오는 디니까.

@1 예.

#2 여긴 이 년에 한 번.

새

@1 이 년에 한 번에. 게문 그 지붕 일젠 허면 뭘 행 와야 지붕을 일 겨우  
파?

#2 띠, 새.

@1 새 강 비어와야 뉘고. 그다음에.

#3 새허고 각단.

@1 새허고 각단 비어 와야 뉘고. 새허고 각단에?

#2 예.

@1 게문 그 새 허는 거는 어느 철에 헤마씨?

#2 아, 건 저 아주 늦가을 뉘어야 비는 겨우다.

@1 늦가을에.

#2 예.

@1 예, 각단도 마찬가지로?

#2 예.

@1 여기 집은 언제 입니까?

#2 아, 봄에 주로.

@1 아, 가을에 얹고 봄에 입니까?

#1 예, 삼월달에.

#2 주로 봄에.

#3 여긴 주로 봄에 입니다.

@1 아, 다른 동네는 겨울에 집을 일러놔야 한 해가 간덴 허는데, 여기는 봄  
에 일어예?

#2 예.

@1 게문 가을에 허믄, 겨니까 아까 놀왓이 필요한 거구나. 새 놀어 논 놀왓  
이.

#3 놀 놀젠 허민 미리부터.

@1 게문 삼간집 허젠 허면 그 새는 멧 못이나 써야 될 건고예? 줄이영.  
 #2 삼간집 흔 백 못.  
 @1 백 못. 각단은?  
 #1 각단은 그 줄, 게메 각단은.  
 #3 각단에 따라서.  
 #2 틀리는데.  
 #3 각단도 긴 거 잇고, 짝른 거 잇고 허니까.

### 집줄

@1 게니까, 그 우리 게문에 줄, 집줄 놓젠 허면.  
 #2 예.  
 @1 그 집 일젠 허면 줄도 으라 개 놔야 헐 거 아니파예?  
 #1 예.  
 @1 진줄허고 쯤줄 멧 개씩 필요헤마씨?  
 #1 양?  
 @1 진줄허고 쯤줄 멧 개씩 필요헤마씨?  
 #2 아, 집 크기.  
 @1 크기에 따라 삼간집, 보통 삼간집 허면. 삼춘 그 저기 추사 헐 때.  
 #3 추사 헐 때 멧 개 헤낫수가?  
 #1 멧 개사 헤져신디 뭐 기억헤지크라?  
 #3 기억이 안나주게.  
 @1 게난 긴 줄은 진줄.  
 #1 예.  
 #2 긴줄은 한 스물네 개쯤 낫나신가.  
 #1 아니, 이 저 집이 추사 적거지 저 스간집보다 크주게, 저거.  
 @1 아, 스간집보다 큼니까?  
 #1 예. 커.  
 #2 긴 줄은 많이 필요치 안허니까 저거 스물네 개 헤나신가?  
 @1 음, 게민 짝른줄은?  
 #2 짝른줄은.  
 #1 이제 강 세박사주게. 이제 강.  
 @1 예, 이제 강 세보민.  
 #1 세보민 될 건디. 이제 강 세보민 될 거주, 그디.  
 #2 흔 육십 개 이상.

@1 응, 육십 개 이상예? 거난 약간 배 정도는 필요하는구나예, 썩른줄은예.  
#2 예.

### 줄호롱이

@1 집줄 만들젠 허면 연장은 뭘 가정 해야 됩는고예?

#1 줄호롱이, 줄호롱이.

@1 줄호롱이.

#1 예.

@1 줄호롱이 여기는 영 발 달린 걸로 허지예?

#2 예, 발 달린 거.

@1 그 줄호롱이 이신 집 이시카마썸?

#3 아, 이 우리 마을에 이수다.

@1 아, 이수가? 사진 찍영 가사켜. 웨냐면 줄호롱이가 성읍 가면 이렇게 하  
니까.

#2 만들안 우리 저거 초가집 일엇수게게.

@1 아, 줄호롱이 잇구나예? 건 이땅 사진 찍영 가쿠다예.

#1 정의선 손으로 영 뭐헛주마는.

@1 여긴 발로 영 영 밀리멍.

#3 발로 밀리멍, 손으로보단 것이 편해여마씨.

@1 게난 이거를 줄호롱이렌 허여예. 그냥 호롱이렌 앓고 줄호롱이, 삼춘네  
는. 그다음 뒤에 영 저기 돌리주는 사름은? 줄 여끄는.

#3 여끄는 사름은 건 뭐 장갑이나벧긴 무슨 다른 건.

@1 아니, 아니. 그 뒤, 손으로 허는 거고, 뒤에서 영 돌려주어야 할 거 아니  
우짜? 뒤치는 거.

#2 아, 건 뒤치는 사름이고. 돌리는 건 뒤치는 사름이고.

#1 세와가지고 영.

### 줄버텅

@1 이름은?

#1 저 줄버텅이주. 버텅.

@1 버텅? 줄버텅이렌 험니까?

#1 버텅.

@1 게난 버텅을 세왕은에 거기에서 돌리는 거 잇잖아예.

#1 거기 돌리는 거.

@1 아, 게민 그 도구를 버텨이렌 해, 여기는. 뒤치기라는 말을 안 하고.  
#1 예.  
@1 게민에 삼춘 집줄 놓젠 허면, 집 줄 놔야 거 아니파예. 네 명이 필요할 거 아니파?  
#1 응?  
@1 집줄 하나 놓젠 허면 네 사름이 필요할 거 아니파예?  
#1 그렇지, 줄 놓는 사름. 예.  
@1 게난 혼 번에 이렇게 줄 이렇게 비는 거.  
#1 줄 비는 거?  
@1 응. 줄 빌 때는 둘이가 필요할 거고?  
#1 예, 둘이가 필요허주.  
@1 예, 게민 영혜근에 그 각단 영 이렇게 맥여 주는 사름은 뭐헌덴 허는 거 우파? 줄 논다?  
#3 줄 놓는 사름, 줄 비는 사름.  
@1 예. 줄 놓는 사름이고, 이렇게 각단을 맥여 줘야 저기서 영.  
#2 줄 놓는 사름이라고 하고.  
#3 줄 비는 사름, 돌리가.  
@1 줄 비는 사름 허고 그다음에 줄 비언 논 거 두 개 이렇게.  
#2 여끄는 사름.  
@1 줄 여끄는 사름, 줄 어울리는 사름?  
#2, #3 어울리는 사름.  
@1 어울리는 사름. 근데 어울리젠 허민 줄 뒤에서 아까 줄버텨 행은에.  
#3 두 사름이.  
@1 돌아야 뒤잖아예. 다 합쳐 네 명이 필요할 거 아니파?  
#3 네 명.  
#2 예.  
@1 줄 비는 사름 둘.  
#3 예.  
@1 게민 줄 어울릴 때 돌릴 거를 줄버텨.  
#2 예.  
@1 뒤치기라고 안 허는구나예?  
#2 뒤치기도 그런 말도 합니다. 여기도 뒤치기영도 허여.  
@1 응.  
#2 이것 돌리는 사름 보고.

@1 건 뒤에 그 도구는 줄버텅.  
#1 버텅.  
@1 예. 줄버텅예. 그다음에 집줄 메젠 허면, 집줄 메젠 허면, 어디에 메어마  
씨? 보통.  
#1 거왕예.  
@1 거왕예. 거왕 우에 그 팽고데도 잇지예?  
#1 계계. 그 저 거왕이 저 거왕이 잇어야. 거왕이 엇으면 안 뉘주게.  
#3 내중예.  
@1 거왕은 뭇로 멘듭니까?  
#1 응?  
@1 보통 거왕은 뭇로 멘들아?  
#1 대나무로 저, 대나무 이실 때는 대나무로 허주마는 여기는 대나무가 귀  
허면은.  
#2 대나무 없으면은 저 그자 나무.  
#1 저, 그 나무 가는 거 헤가지고 긴 거 행 그거.  
#2 긴 거 행.  
@1 아, 이 동네는 대나무가 귀헌 편이구나.  
#1 귀허니까.  
#3 예, 왕대가 귀헤마씨.  
#2 예. 주로 나무로 많이 사용허여.  
@1 아, 대나무보다 여긴 나무를 많이 사용헤예?  
#2 예.  
@1 계문 그 나무는 무슨 낭을 주로 이용헤신고예?  
#1 잇당 저 소낭도 허고 다른 나무도 그 어디 저.  
#2 꽃밭디 가가지고 이 저 가늘게 죽 길게 빼어진 나무만 잇으면 그거 잘라  
다가.  
@1 거왕 험 걸로 행은에예.  
#2 예. 거왕 험 걸로.  
@1 여기는 꽃밭이 하나신가마씨?  
#3 아니, 여기는 지금 영어교육도시 한다는 디 거기가 다 꽃밭덜.  
#2 다 꽃밭.  
#3 여기서 조금 올라가민.  
@1 아, 여기는 왕대가 여기는 귀하구나.  
#2 예. 여긴 왕대는 주로 심은 사름이 별로 엇어부니까.

#3 그 곳자왈에 가면 그늘 아래.  
 @1 쪽쪽 올라간예.  
 #3 쪽쪽 올라간 나무들이 잇거든.  
 #2 그게 많기 때문에 또 심을라고도 않고.  
 @1 예, 예.  
 @2 혹시 초가를 무꿀 때 그 집줄로 해서 무끄잖아예?  
 #2 예.  
 @2 줄을 하지 않고 나무로 무끄는 경우도 이수가? 나무를 눌러 가지고.  
 #1 나무로?  
 @2 예.  
 #2 나무로 놀렁 무껴보지 아녀수다.  
 @1 거난 그 줄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게 줄 무끄는 딜 요렇게 고망 풀랑  
 은에 영영 줄 메는 디마다 허나씩 다 받쳐십디다게, 다른 디 강 보난.  
 #3 여긴 그런 거 엇수다.  
 @1 그런 건 엇고예. 그냥 집줄 그대로 무క్క예.  
 #3 그대로 눈으로 보면서 적당한 간격으로.  
 @2 혹시 옥계기집이라는 말 못 들어봐수가? 옥계기.  
 #3 옥계긴 잇는디 옥계기집이엔 험 말은 안 들어봤수다.  
 @2 아, 기짜? 집으로는 못 들어보고마씨?  
 #3 옥계기를 놓는 집인가? 옥계기집.  
 #2 건 다 툐 말일테주.  
 #1 식물 아니?  
 @1 식물, 옥계기, 쉼출. 쉼출해근에예?  
 #3 옥계기 그건 쉼출 중에도 최고급이주게, 옥계기.  
 @1 그 아마 옥가리 그런 거 아닌가? 워냐면 동광 이런 데는 할 때 아까 테  
 기 그걸 옥가리 엮는다고.  
 @2 아아, 그럴지도 모르지. 하여간, 그건 나중에.  
 @1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줄은 몇 번 메마씨?  
 #2 아, 두 번.  
 #3 두 번.  
 @1 두 번예?  
 #2 처음에 집일 때 한 번 메영 낫다가 한 오일 이상 지나면은 또 땡겨마씨.  
 또 땡경 메어마씨.  
 @1 아.

#1 처음에 집을, 처음에 그 저 집 일어 가지고 줄 메면은 그 지금 집을 새로 일었을 때 그 들려져 잇거든마씨.

@1 예.

#1 그다음에 흔 메칠 새로 거 좁자거든, 게민 줄 땡긴덴 허는 거라마씨.

@1 예.

#1 게민 거 바짝 뒹 붙어마씨.

@1 쟁 그거 그 줄 메는 거를 줄 봉올른다 이런 말은 안 허고?

#1 아니, 집줄 메는 거, 뭐.

@1 기냥 삼촌네는 집줄 멘덴 허고예?

#1 줄 메는 거.

@1 그 아까.

#2 골라메다는 거벳기 뭐.

### 집 이는 순서

@1 아, 골라메다예. 그 순서가 틀려 붙어신디. 그 집 이 년에 흔 번 인덴 허지 안헤수가예? 집 일 때는 맨 그, 서리 다, 이렇게 서슬 다 헤놓고, 집 이제 할 때.

#1 예.

@1 서슬 하고, 그다음에 그 우에는 고데도 올려야 뒹지 안헙니까?

#1 고데 올려.

@1 음, 고데 올령.

#1 고데 올려근예.

@1 그다음 고데 올린 다음엔 뭐 헤?

#1 고데 올령은예 그다음엔 그 저 그 아이고.

#3 고데 올령 그 우의 놓는 거?

#1 으.

#3 그 어욱 같은 거, 어욱 같은 거.

@1 어욱으로, 대나무로 흔 번, 여기 대나무 잘 안 난덴 허니까. 어욱으로 흔 불 일고.

#1 예.

#3 맨 처음 어욱으로 일어 놔근앵이, 그다음 새.

#1 새.

@1 새는 멧 불 입니까?

#1 양?



@1 새는 멧볼 일어? 웨냐믄 처음 짓는 집은, 오래 뉘 거는 거기 그신새가  
있으니까 허주마는예. 맨 처음에 헐 때는 고데 올린 다음에 어욱으로 혼 번 일  
엉.

#1 어욱으로 일엉.

#3 어욱으로 일엉 그 그신새.

@1 예.

#3 그신새로 저.

@1 걷어당은에 올리기도 하고.

#3 새로만 헐라면은 새 많이 드니까.

#2 단 집에 거 걷을 거 잇는 집에 거 걷어당.

@1 아, 걷어당예.

#2 예.

@1 게믄 그신새로 일기 전에도 어욱으로 혼 불 입니까?

#1 예, 어욱으로.

@1 응, 어욱으로 인 다음에 그신새로 혼 번 더 더퍼주고, 그다음에 새로 더  
프잡아예.

#2 예.

@1 그 지붕 하나 일젠 허민 새가 멧 못이나 들어마썸?

#1 아, 집 평수에 따라 틀립니다. 평수에 따라.

@1 평수에 따라 몇 평. 삼간하면.

#1 평수에 따라근에, 아까도 삼간집은 혼 백 단.

@1 백 못, 백 단.

#2 백에서 백 멧 못 사이.

@1 거난 집 하나 일젠 허민 백 못 이상의 새가 들어가는 거구나.

#1 예.

@1 거기에다가 이제 집줄도 하고 이제.

#1 예.

@1 그 집 이는 날도 날 뵙 험니까?

#1 집 일젠 허민 봐야주게.

#2 븐 날이라야, 불아사 일주.

@1 불아야 이는데. 언제 보통 무슨 날 집은, 그래도 집 일지 마는 날 잇지  
안허우파? 쥐날이라든지 이런 거.

#3 쥐날 안 뉘다는 그거는 잇어.

@1 보통 좋은 날은 언제가 좋덴 험니까?

#1 아니, 계난 옛날 어른덜은 거 날 봐근에, 웨냐면 좋은 날에 안 일면은 굼벵이 인다고 굼벵이.

@1 굼벵이에.

#1 굼벵이 인다고 헤가지고 좋은 날을 택헿 허는디 우리 커난 다음엔 그거 안 봤어.

#2 하여간 우리가 자랄 때는 뭐 날씨만 좋암직 허면은 언제 일켤 헤여근에 일엇어.

@1 예. 어쨌든간에 그 집 일 때도 날은 봐갓고, 천화일이여 뭐여 이렇게 피해서.

#2 옛날 경헿어.

@1 삼춘네는 여기 추사 헿 때는 그런 거 안 헿구나예?

#3 우리 세대에는.

@1 무신 거 허면 굼벵이 인덴 헿니까?

#1 아이, 계난.

#3 나쁜 날게.

#1 나쁜 날, 무신 날사 나쁜 날산디 뭐.

@1 건 모르고 어쨌든 굼벵이 인덴 헤여예. 그리고 삼춘 집 일 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이 흑질 헿 때잖아예?

#3 아, 집 일 땐.

@1 아, 집 일 때 말고 집 짓을 때.

#3 아, 지을 때.

## 흑일

@1 흑일 헿 때가 가장 큰일 아니우파? 아까 여기는 마당에 흑 파지 안허영 신평 강 흑 실어 왕 헤연?

#3 아, 그.

#2 예, 여기는 검은 흑이기 때문에 나쁘니까 저기 강 그 질흑 파당.

@1 질흑 팡 헿예. 아, 계문 그 때 질흑 파당 흑질 헿 때, 그 동네 사름덜이 부주허고 영 헿니까? 물도 질어다 주고.

#2 예. 동네 사름이 와서 다 일 공짜로 다 헤주는 거주.

@1 아.

#2 계난 주인은 맥임만 허민 뉘는 거.

@1 주인은 맥이는데, 그 흑질허는 날 무신거 맥입니까? 보통.

#1 옛날 풋죽도 썬영 맥이고.

#3 점심 출령 맥이는데 그건 뭐. 무슨 걸 먹는 거.  
 #2 그건 뭐 그 당시에 잘 맥인다는 거만 생각허민 웰 거우다.  
 @1 혹시 집 일거나 이럴 때 친척들이 뭐 떡 행 오거나 이런 건 엇입니까?  
 여긴.  
 #3 집 일 때는 그런 건 엇어.  
 #2 집 일 때는 안허고.  
 @1 예.  
 #3 집 지을 때가.  
 #2 지을 때는.  
 #1 새 집 짓을 때지.  
 @1 예, 새 집 짓을 때.  
 #1 새 집 짓을 때는 동네 친척들이 부주도 헤오고.  
 #2 쌀 같은 걸로 갖다가 주고.  
 @1 짓을 때에?  
 #2 예.  
 @1 게문 땅 다정은에 짓을 때 그렇게 허는 거구나. 게민 상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상량도 큰일입디다.  
 #1 상량할 때도게, 그 부주덜토 헤오고 그냥도 오고 그자. 그 서로 이건 서로 꾸는 거난에.  
 @1 상량할 때는 꼭 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우파?  
 #3 아, 그 독 헤근앵에, 장독 헤근앵이 그디서 모가지 탁 짤랑, 그 피로 헤근앵이 여기 칠허고.  
 @1 게난 그 얘길 헤줍서.  
 #3 건 목수가 올라강은앵이, 상무르.  
 #2 게난 목수가 올라강, 그 집 켈 우에 올라가근에 거기서 상량이오, 허면서 탁 모가지 저 찍습니다, 뭐. 저 거세기 자귀로.  
 @1 자귀로 경허면 그 독 헤갓고 다 주변마다 불라야 할 거 아니예?  
 #2 예, 기둥 큰 기둥덜.  
 #3 게난 목을 탁 짜르면은 닭이 파닥파닥 떨어질 거 아니파양.  
 @1 예.  
 #1 떨어지면 옆에서 젓목수가, 목수 조수주게.  
 @1 예.  
 #1 젓목수가 그거 탁 잡아근에 네 기둥에 피 칠허는 거주게.  
 @1 예. 아까 삼춘 그 목수 조수를 무슨 목수렌 헤?

#1 젓목수.

@1 젓목수, 젓목수는 무슨 말이고?

@2 목수 조수.

@1 젓이 무슨 말이냐 이거지. 게난 그 수목수가 이신 거 아니파예.

#1 예.

@1 게난 그 큰목시는 큰목시 험니까, 여긴는 무신 목시 험니까? 목시 대장.

#1 큰목수.

@1 큰목시에. 큰목수. 우린 목수도 아니 목시.

#1 큰목수.

@1 목수. 그다음에 그 목수 들양 덩기는 사름은 젓목수렌 헤.

#1 예, 젓목수.

@1 젓목수는 보통 멧 명 들양 덩겨?

#1 멧 명은 무신, 주로 훈 사름 들양 덩기주.

@1 그 사름을 젓목수렌 헤예.

#1 예.

## 줄께

@1 그다음에 삼춘 여기도 집줄 아까 허당 남은 걸로 뭐 हे수가?

#1 줄께.

@1 줄께.

#1 어.

@1 줄께 헤근에 뭐헤여?

#1 그 불 습는 거주, 뭐.

@1 아, 불도 습고.

#1 불 습고.

#3 아, 남는 거라는 것은 긴 거?

@1 예.

#1 긴 건 놀 우의.

#2 놀 우에 그 저 둘러 가지고 바람 7튼 거 피헤알 거 아니우파?

@1 예.

#1 걸로 돌른 다음 그다음 지돌루와십주.

@1 아, 돌 같은 걸로 놀을예?

#2 예.

#3 놀 우에 이렇게 뱅뱅 돌아가명 헤근에 놀, 바람 같은 것.

#2 느람지 바람에 걷어잡혀 볼 거니까 거.

@1 줄로 지들랏구나예?

#2 예, 줄로 뱅뱅 돌리면서 지들랏 가지고, 그다음 그 우에 무거운 것덜 뭐 나뭇가지덜로 지들루다가, 뭐 아주 바람 센 땐 돌도 갖당 지들리고 그레십주.

@1 여기도 브름이 썬지 안허우파? 여기.

#3 예.

### 줄방석

@1 그다음에 게문 놀 지들리고, 줄께로 헤 갖고, 저 뭐는 안 헤마씨? 방석 꺾튼 거는 안 짚니까?

#2 아, 방석, 줄방석.

@1 줄방석.

#3 방석은 다 걸로 헛어.

#2 다 옛날엔 걸로 다 헛지.

#3 방석 걸로 다 헛지.

#1 줄방석은 이제 멘들앙 정지에서만 깔앙 앓는 거주게.

@1 정지에서 예. 솟 앞에덜 영 낭근에.

### 6.3. 연장

@1 그다음 삼춘 집 짓젠 허민 연장들은 어떤 거 잇인고예?

#1 어?

@1 연장.

#1 집 짓은 연장?

@1 예.

#1 연장이 많읍니다. 거 저.

@1 낭 행 오젠 허민 무신 연장이 필요헤?

#1 낭 행 오젠 허민 톱이 필요허고. 자귀 필요허고, 끌도 필요허고. 마께도 필요허고. 주로 그거지 뭐.

#3 대패게.

@1 대패도 필요허고.

#3 대패는 끌.

#2 그런 건 저 거세기 문장 꺾튼 거 헛 때, 게메 그런 거, 대패 꺾튼 거 필

요했주.

@1 삼춘 배고프지예? 열두시 넘영 헤신디. 흥꿈 더헌 다음예.

#3 아니, 아니.

@1 이거 헌 다음예 밥 먹으러 가게예.

#2 이거 낫나동.

@1 빵이나 하나씩 먹영 허카?

#1 아니우다.

@1 아니파? (웃음) 아니 시계 보난 열두시 이십사분 뉘갓고.

#2 아니,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1 아니, 경해도 오분 쉬쿠다. 빵 하나씩 먹으멍.

[쉬는 시간]

@1 삼춘, 아까예 연장 허당 놔뉘신디예. 집 짓는 연장 무신거 이신지 종류 부터 한번 곱아봅서. 톱 잇고.

#3 아까 말허던 거.

@1 예.

#1 우선 톱.

@1 톱.

#1 자귀.

@1 자귀.

#1 끌.

@1 끌.

#1 마께.

@1 마께.

#1 그 저 문입장 허젠 허민 대패질 헤야 뉘거든. 대패.

@1 대패예. 혹시 삼춘 톱도 종류가 으라 갠가마씨?

#1 으라 가지우다.

@1 예. 이름은?

#1 저 줌진톱도 잇고, 굵은톱도 잇는디, 거 톱 이름이.

#2 ㄱ만 셔봐. 거두엔 헌 건 어떤 톱인고?

#3 두 사름이 영영 허는 거 아니?

#1 거두엔 허는 건.

#2 둘이 싸는 거지양?

#1 응. 둘이 싸는 거.

#2 게민 그것도 필요 헤수게. 집 지을 때. 거 저 둘이가.

#3 큰 나무 자를 때. 거두톱.  
 #2 큰 나무해서 반 짜깁라면은 양쪽에서 땡기믄서 나무 잘랏주게.  
 @1 거두예. 그 거두고. 낭 가근에 콧밧디 강 낭 행 올 때는 무슨 톱 쓰니까? 낭 오려 올 때.  
 #1 낭 오릴, 아, 콧밧디 강 나무 헤 올 때. 톱 이시믄 톱으로 헤야주, 무시거.  
 #3 거 뭐 큰톱? 거 무시거니?  
 @1 대톱. 거두는 그냥 이렇게 저 톱날 이렇게 이신 거 아니우꽈? 이렇게 영싸는 거 아니, 거두가?  
 #3 예, 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건 저 나무, 집에서 오릴 때.  
 @1 오릴 때. 아, 낭 쌀 때 저기 허는 거 아니고예?  
 #3 낭. 밧디 가서 잘라오는 건 아니고.  
 @1 예. 그건 아니고예. 그다음에, 그 톱 이름을 알아사는다. 그 못 헐 때, 아까 마께, 마께 헐 때는 어떤 마께들 쓰니까?  
 #1 췌마께.  
 @1 췌마께. 낭마께도 이신가?  
 #1 그전엔 낭마께도 헛는데, 거 낭마께 엇어진 디가 이거. 꽤 오래 뵈수게.  
 #2 나무마께도 그거, 사용헤십주, 저.  
 #1 나무마께 사용헛주게.  
 #2 그거. 나무허고, 나무허고, 서로 저 흙 파가지고 물릴라면은, 나무마께로 췌게 쳐십주.  
 @1 예. 게난 못 박거나 헐 때는 췌마께 이렇게 헤도, 낭을. 게믄 그 지둥 헐 때 삼춘, 아까 도리랑 이렇게 헤서 이렇게, 그 담아야잖아예? 이렇게예. 그 지둥을 뭐 고사리지둥 이런 말도 헛니까?  
 #1 예. 고사리머리.  
 @1 고사리머리.  
 #1 예.  
 @1 그 고사리머리가 뭐우꽈?  
 #1 양?  
 @1 고사리가 뭐, 뭘 고사리머리렌 허는 거?  
 #2 아, 이거 쓰고 영키게 허는 거. 서로. 그걸 말허는 거 아니꽈? 이디도 흙 파고, 이디도 흙 파서 서로.  
 @1 그거를 여기서 고사리.  
 #1 고사리머리, 고사리머리 모양으로 만들앙, 헤서 이렇게 어울리는 거니까

안 빠지거든. 그래서 고사리머리.

@1 고사리머리에. 게난 그 고사리머리 헐 때에. 그 기둥 헐 때에. 무슨 거하고 무슨 거하고 연결하는 게 고사리머리가 되는 거우파?

#1 아, 게난 그저.

@1 지둥허고.

#1 이쪽 지둥 세울 거 아니우파?

@1 예.

#1 지둥 세우면은 이쪽 도리하고 이쪽 도리하고 두 개. 그 기둥 위에 가서. 이제 거기.

@1 연결할 때.

#1 연결시켜 놔.

@1 게난, 게문 기둥에도 이렇게 고사리머리 세우고, 도리도 허고.

#1 게난 지둥에도 이거 이렇게 만들앙, 뭉허며는 여기 강 끼와근에 서로.

@1 그렇게 헨 거를 고사리머리렌 허는구나, 여기도예. 알아수다. 그다음에 이제 게문 낭마께 잇고, 쉼마께 잇고예? 그다음에 못 같은 거 영 빼젠 허민 쓰는 건 무시거우파?

#1 못빼기.

@1 못빼기. 못빼기도 잇주마는 옛날 길게 헤갓고.

#1 건 장도리고.

@1 건 장도리고예. 장도리는 거 이렇게 망치처럼 된 거는 장도리.

#1 아니, 긴. 그저 못빼기 긴 거 잇잖아. 거 장도리주게. 거 긴 거.

@1 아, 긴 게 장도리우파? 작은 이렇게 망치로 쓰는 게 아니고? 건 못빼기고, 장도리는 긴 거라예?

#1 긴 거.

@1 예, 게민 장도리는 쉼로만 된 거 아니우파?

#1 쉼로.

@1 쉼로 이렇게 못 빼는 거 잇고, 길게 된 거예? 게문 거 돌 일릴 때도 쓰고.

#1 그렇지.

@1 그걸 장도리렌 허는 거구나. 그다음 대패도 종류가 9라 개렌 험디다.

#1 여러 개 이십주게.

@1 예. 거 이름 혹시 모르쿠과? 목수 헤시민 알아실 건디. 게난 그 보통 대패는 용도가 뭐라마씨?

#1 용도가 이제.



#2 나무를 그 멘지럽게, 그걸 까까내는 거.  
 @1 음. 낭 멘지럽게 까까내는 거.  
 #1 주로 대패 사용 허는 건. 집, 새집 그 기초를 사용허는 걸. 입장. 입장.  
 @1 입장.  
 #1 입장, 입장을 이제 그 거칠면 안 돼거든.  
 #2 거칠면은 손 같은 거 허면은 다음에는.  
 #1 입장은 이제 문, 문을 드니까. 거 멘지럽게 곱게 헤가지고,  
 #2 상처 날 수도 있으니까. 손 같은 거 잡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게 위해서 그 대패.  
 #1 대패가 도리에도, 도리도 까까주고. 저 지둥도 까끄고.  
 @1 지둥도 까끄고. 까까주기도 허고. 그다음에 문장 헐 때 허면은 이 흠도 이렇게 하는 대패도 있지 안허꽂?  
 #1 흠베기.  
 @1 흠베기. 응, 흠밀이?  
 #1 흠베기.  
 #2 흠베기. 흠베기.  
 @1 흠베기대패도 이서예. 건 허민 짝허면, 문도 둘 때.  
 #1 예. 골 쳐지고.  
 @1 예. 골 쳐지는 거예. 그걸 흠베기렌 헤예? 그다음 삼춘, 여기 집 지을 때 자는 어떤 자 써신고예?  
 #1 응?  
 @1 자, 자. 집 짓젠 허민게.  
 #2 자,  
 #1 뭣?  
 #3 자, 자.  
 @1 자, 곱은자.  
 #3 곱은자게, 곱은자.  
 #2 자는 곱은자.  
 @1 곱은자로만 써수과? 삼춘네 그 곱은자는 어떤 곱은자를 말헬니까? 췌로 댜 것도 있고, 낭으로도 댜 것도.  
 #1 낭으로 헨 것도 있고, 췌로 헨 것도 잇는다.  
 @1 낭 곱은자도 봐반예. 그 곱은자는 주로 쓰는 게 뭇 헐 때 씌니까?  
 #1 집 짓는 데 곱은자가 없으면은 집을 못 짓주게. 각을 아이 맞아가지고.  
 #2 각, 각. 첫째 각도 맞추고.

@1 아, 각 맞출 때 곱은자를 쓰고.

#1 예.

@1 그다음에 뭐 선 그을 때. 보통은 각 맞추기 위해서 곱은자를 쓰는 거우  
파?

#2 예. 각 맞출 때.

#3 그것이 켈 중요한 거주게. 각 맞추는 게.

@1 그래야 문도 허고예. 그다음에 낭 싸젠 허면, 낭 오리젠 허면 그 자로  
이렇게 못허고, 옛날. 낭 오리젠 허민 그냥 못 헐 거 아니우파?

#1 아, 그 줄. 거 먹줄. 먹줄.

#2 먹통 헤가지고 거 튀완 헛주게.

@1 튀왕예. 먹줄 헤수과? 먹술 헤수과?

#2 먹술.

@1 먹술?

#2 예. 먹술.

@1 목시들 꼭 가정 다니는 게 그 먹술하고 곱은자예? 먹술. 그다음에 그 개  
벽질할 때는 다 손으로 헨?

#2 예. 옛날은 손으로.

@1 손으로 하고. 그다음은 요즘은 뭘로 헨니까?

#2 요즘은 그런 거.

@1 낭손이여 췌손이여 이런 말은 안 들어수과? 췌맨헐 때.

#1 지금 췌맨허는 데 낭손도 쓰곡 췌손도 췌주게.

#3 옛날에 흑질 헐 때사 무신.

#1 흑질 헐 땐 손으로.

#2 그땐 다 손으로.

@1 삼춘 아까 이제 우리 흑질 헐 때에. 하영 안 나왔는데, 흑질 허젠 허면.  
흑굿도 만들고,

#1 흑굿, 흑굿. 그거 이제 흑 파다근엥에 마당에 헤 놓고.

#2 예. 똥그랑케 놔가지고,

#1 그신새 이시민 그신새 췌어 놓든지, 게 안허면 보리낭을 췌어 놓든지 헤  
근에 헤사.

#2 계난 처음에 사람으로만 힘들면은. 소 말로도 같이 심어가지고 돌리면서,  
거.

#1 계난 흑 펼 때 그 검질 놓는 이유가.

@1 예.

#1 그 불리민 벌러지질 안허주게.  
 @1 예, 불르른예?  
 #1 벌러지지 안허게끔 그 저 그 검질 놔근예. ㄱ찌 귀영 불르는 거주.  
 @1 검질을 여기선 뭐렌 험니까?  
 #1 그 검질.  
 @1 뭐 수세 논다, 이런 말 안 해?  
 #2 아, 수세, 수세.  
 @1 수세예. 그 저기 삼간집 허젠 허면, 흑질 허젠 허면 흑은 어느 정도 필요헤마씨?  
 #1 글쎄, 어느 만이.  
 #2 아, 그거.  
 @1 옛날엔 멩텅이 헤근예 시깁 와실 건디.  
 #2 글쎄 그걸. 많이 들긴 많이 들엇수다. 웨냐면은 집 주위 돌담 싸도 그걸로 헤영 바르고.  
 @1 축담 다.  
 #2 또 집 사이 칸칸마다 그거 전부 발랐으니깐 거 상당히 많이 들어십주.  
 @1 게난 그 텨기렌 허는디 여기선.  
 #1 텨기에?  
 #2 그거 발르고.  
 @1 텨기 들어 봄디가?  
 #1 예, 들어 봐주. 거 이수게, 텨기, 간텨기.  
 @1 간텨기.  
 #1 간텨기주게.  
 @1 간텨기 예.  
 #1 웨 간텨기냐 허면은, 이 칸 막는다고 해서 간텨기거든.  
 @1 아까 간테기 안 튼난. 이제야 튼나신게. 간텨기에? 간테기 험 때 웨 이렇게 그 낭들 이렇게 허잖아예? 삼춘네도 족대, 수리대, 족대? 여긴 뭐렌 험니까?  
 #2 예. 마찬가지로. 족대엔 험니다.  
 #1 족대.  
 @1 족대도 허기도 허고, 저 곳बाट 강 낭 깨근예 낭 허잖아예? 아까 여기 대낭 하영 안 현덴 허난. 그렇게 이렇게 세워놓고, 그다음 옆으로 이렇게 저기 낭도 영 놔야험 거 아니우파?  
 #2 거 험. 여파십주. 여파서.

@1 그 옆으로 논 거는 뭐렌 험니까? 아까 간튀기. 그 허는 걸 간테기렌 허  
잡아예? 여끄는 거예?

#1 간튀기 여끈다허면 그자. 그 무시거 뭐도 안 허고 그자 낭을 세우든지  
대를 뭐허든지 옆에.

#2 옆으로 허는 거는. 거 놓 빌어당 아무라도 헛고. 길게 세우는 거는 이거  
는 주인이 미리 헤어근에 다 만들앙 낫다가, 거 흑 꾸는 날 놓들이 오며는 이  
것도 여끄고 그래십주.

@1 아, 세우기만 험 낫당예.

#2 예.

@1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게니까 이 흑질허는 날이 굉장히 저기 힘들엇던  
허는디예. 이때도 흑질험 때 흑 불르는 사람, 흑 꾸는 사람도 잇일 거고예.

#1 예.

@1 그다음에 이거 흑질험 때는 어떻게? 험 때마다 영 가정가지도 못험 거  
아니우꽂? 게문 사람들 영 사근에 영 넘겨주고 허여?

#2 아니, 아니, 저 사드레 들게끔 둘이 앞뒤에서.

#1 산태, 산태.

@1 산태?

#2 산태를.

@1 산태 헤어근에 흑?

#2 흑을 거기 이제.

#1 날라다근에.

#2 거기 집어넣으면은 그걸 둘이가 들러가근앵이, 저기 가서 둘이가 저 같  
이 하나 둘 셋허면 소리치면은 어디레 비울 때 같이 비우고 그럽니다.

@1 응. 경허면 흑 집어주는 사람도 잇일 거고, 불르는 사람 따로 경 안 헤  
마씨?

#1 따로 헤.

@1 딱로예. 집어주고 이렇게. 보통 이 개벽허는.

#1 이렇게. 흑을 이제 영 만들아근에 혼 번 불를 수 잇게 만들앙 주거든. 게  
민 그거 받아근에.

@1 이거 만드는 거는 뭐렌 험니까?

#2 하. 이걸 뭐 흑 꾸는 거벳기 뭐.

#1 그거 어디 생각이 나크라, 확허게. (웃음)

@1 이런 거 들을 줄 몰랐지예? 미안허우다.

#2 별도로 뭐, 만드는 사람 별도로 그걸.

@1 흑즈베기라도 이런 말은 안 곧는구나예?

#2 게메 그거는. 잘 별도로 얘기하는 건 잘 생각이 안 나는.

@1 예. 알았수다.

#### 6.4. 민속

@1 게믈예, 이제는 우리 집 지으는, 집신이 따로 이신가마씨? 가신이?

#2 뭐?

#1 귀신.

#2 귀신, 귀신.

#### 성주풀이

@1 집을 위행근에. 성주도. 성주 느린덴 허지 안합니까? 이런 것도 허는데. 혹시 일년에 정월에 무사 집안 도와주켄 행 안택이라든가 요런 기도들 안 합니까? 옛날 올레코시 이런 거.

#2 아, 게난 집 지엇을 때 이자 그런 걸. 옛날에 헤나십주. 집 지엇을 때 이제 한 번씩은 성주풀이라고 헤가지고 헛잡으파?

@1 집 지으면 성주 내리지 안헤? 성주풀이 허지 안합니까?

#2 게메. 성주풀이 헤십주.

#3 성주풀인 뭐 지금도.

@1 지금도 허고, 삼춘넨 집에 안 헤반?

#2 아, 게메 게난. 옛날 처음 지엇을 때 한 번 허는 겁주.

@1 예, 그때는 누게 빌영 합니까?

#2 아, 옛날엔 그 저 심방이라고 잇어수게.

@1 예, 심방 빌어당.

#3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심방 빌영.

@1 게민 심방 빌어당 허면 무슨 누구 수목시가 어찌고 헤갓고 막 네 귀에 가근에, 도끼로 가근에 찍기도 허고.

#2 예.

@1 그거는 직접. 그거에 대행은에 좀 곁아줍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건 잘 모르고?

#2 아니, 거 그 수목수, 목수는 따로 다 마련행 밖에 어디 밖에 잇고, 심방이 그 시간대 뉘영, 말미에 이 저 수목수 뭐 어떻게 허라 허면은 거기서 예,

허면서 나오고 그랬수다.

@1 쟁 다 낫잖 갈 때는 뭐 이런 귀퉁이에 뭐 붙라뿔 가고?

#2 예, 예, 예.

@1 그거는 무사 그런 거 허는 거렌 굴읍디가?

#2 그거는 뭐, 뭐라고는 안 헛주마는. 그건 낸중에.

#3 액막이로.

#2 액막이로 무슨 귀신 같은 거 침범허지 말라고 허는 뜻에서. 인자 그런 거 해근에 이런 천장에 이런 기둥 같은 디 이런 디 하나씩 다 붙여두고 갖수다.

@1 예, 나중에예. 그다음에 무사 일년에. 정월에 허민 여기 포제합니까? 이 동네.

#1 이 동네.

#2 포제 안 해봤는다.

@1 아, 이 동네 안 합니까?

#1 포제 허건 지가.

#3 그전엔 해났지만 이젠 여긴 안 해난지 오래 뿔수다.

#1 으라 해 뿔수다. 포제. 옛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포제를 헛지, 포제 쟈단이 요 저 요 성 뒤에 이수다 뭐.

@1 아, 성 뒤에 포제단이 이수과?

#1 성 뒤에 셔났는다. 이젠 없어졌어.

@1 아, 안 하는구나예. 게민 마을제도 안 해마씨?

#1 예. 마을제도 것도 없어져 불고.

#2 것도 뭐 옛날에는 뭐 저 합헛 저 가뿔 들어근에 비 안 와가민 옛날에 해났는데 그건 뭐 아주 우리 시절 어릴 때 허단 그때 설러분냥 뭐 글로후엔 안 허고.

@1 게문 집에. 집집마다 무사 그 정초에예, 심방을 빌든 아니면 축 하는 저기를 허던 간에 그 돛 잡아근에 제 지내는 것도 엇어마씨? 코시허는 거.

#3 별로 여기는 잘 안해.

#1 사라진 지가 오래수다.

#2 건 특별히 허는 집 외에는 안 해수다.

@1 예. 그런 것도 없고예. 그냥 식게 때 문전 하는 거구나예?

#2 예.

@1 문전은 누구를 위한 제사우파? 문전신 허는 거는.

#1 말 그대로게. 글자 그대로.

#2 집에 귀신을 위한 헌 거난.  
 @1 집 귀신을 위한 거예?  
 #1 대문 앞에서 이렇게 허는.  
 @1 항상 문전은 대문 앞에서 지내지예?  
 #2 예.  
 @1 가장 먼저 문전제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를 지내고.  
 #1 제 지내는 거고.  
 @1 조왕에도 제 지내는가마씨?  
 #2 이제는 조왕에는 별로우다.  
 #1 조왕에는 거 저 거시기 음식 체려가지고 거기 한 번 올렸다가, 여자가. 여자가 거기 올렸다가 거 걸명 해부는 거주. 해불민 걸로 끄나는 거.  
 @1 계난 별도로 조왕에도 음식을, 아까 언제 말고도.  
 #2 계난 거 하는 집도 있고. 안 허는 집도 있는데, 안 허는 집에는 솥뚜껑 이렇게 저 가리쳐 놓고 거기 솥뚜껑 위에 음식 올려놓고 거기서 올렸다가 한 번 걸명허고.  
 @1 음. 아, 그니까 별도로 문전 해갖고 하기도 헛는데, 그 요즘은 문전 헌 거 행 조왕에 걸명 허잖습니까예, 식게 헛 때. 근데 별도로 솥뚜껑에 해갖고 찰려서 하기도 헛어예?  
 #2 예, 예. 그런 집안마다 다 거 허는 디 있고, 안 허는 디 있고 허니까.  
 #1 거. 지금 없어진 디가.  
 @1 예. 근데 삼춘네도 그런 거 보긴 봐난 거 아니우파?  
 #2 게메. 그렇게 해난.  
 #1 예, 우리 봐났수다. 봐났는데 지금은 안 해.  
 @1 지금은 안 허고예. 혹시 여기 뭐 칠성제 이런 것도 헛니까?  
 #2 아, 그런 것도 옛날에 허는 집이 잇엇수다.  
 #1 칠성제 허는 집도 잇는데 지금은 엇수다.  
 @1 그 칠성제는 어떤 식으로 허는 겁디가?  
 #2 아, 것도 저.  
 #1 집 뒤에다가, 집 뒤에 이 저, 그 저 뒹고.  
 @1 주쟁이 해근에.  
 #1 느람지 해근에.  
 #2 주쟁이 하나 해서 거기 세와 놓고.  
 #1 저거 헌, 멧 사람 엇어수다 뭐, 여기도.  
 #2 예, 거기도 저 뭐냐. 제 지낼 때마다 우선적으로 거기 올리고 그래, 잇는

사람은 그렛수다.

#1 어튼 집안은 경 허주마는.

#3 집안 그건 멧 집안들.

#2 건 뉘 허는 디만 헛고. 안 허는 디는 안 헛수다. 새동네는 ○○이네 집에 헛고.

#3 멧 집안 안 뵙니다.

#1 담베칩이도 헛저. 담베칩이.

#2 아, 맞아. 담베칩이 헤실 겨우다. ○○이네 형제지간, 이디 ○○이네 하르 방네도 마찬가지로.

@1 게난 집안에 따라근에 것도 허는 거예?

#2 예, 집안에 따라.

#3 주쟁이, 주쟁이. 뉘에다가 뉘, 밧. 우녕밧디 주쟁이 영.

@1 멘들앙예.

#3 멘들앙.

@1 게난 주쟁이 멘들앙 허는데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허는 건고? 그 칠성은.

#1 칠성을 위해서 허는 거지 무신.

@1 게난 거기도 칠성이렌 험니까? 여기도?

#1 예.

@1 밧칠성이렌 헤? 여기도.

#1 밧칠성.

@1 밧칠성예. 밧칠성 이시믄 안칠성도 이서야 뉘는데.

#1 모르쿠다, 우린 아니 헤보니까.

@1 안칠성은 아까 안제 허는 거는 이제 안칠성이렌 허고예. 바깥에 허면 밧칠성 이렇게 하는데 그 제사헛 때도 가장 먼저 밧칠성안테 음식을 이렇게.

#2 예.

#3 먼저.

@1 거기도. 음식을 이렇게 출립니까?

#2 예. 그거 허는 사람은 음식 출련 거기 해당 허는 거 밧수다.

@1 예.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들 하고예. 삼춘네 집 짓으멍, 아이고, 이런 거는 잊어불지, 제가 물어본 거 말앙, 이런 거는 잊어불지 못허켜 허는 거. 집 짓는날은 막 재미져났어 허는 거라든가. 아니면 집 짓을 때 뉘 허지 말라 허는 거라든가. 이런 거 이시걸랑 좀 곱아줍서.

#1 그런 거 들어보지 못헤수다.



@1 (웃음)

#2 그런 건 뭐. 특별한 건 몰르고.

@1 집 짓는 날 뭐 부정 탄 사람 오지 말라 이런 말도 안 헤마씨?

#1 아이, 그런 거 뭐. (웃음)

@1 예, 그런 건 엇고. 알았수다. 애췌수다. 여기까지 할게예. 고맙습니다.

• 연구 참여자

이름	구분	소속	분야	연구 역할
김순자	연구책임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사, 3차 전사 확인, 집필, 교열
고창근	공동연구	(사)제주어연구소	"	조사, 1차 전사, 교열, 집필
오경임		동화작가	국어국문학	
양성필		제주국제대학	건축학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조사, 2차 전사 확인, 교열, 집필
서수빈	연구보조	"	동물생명공학	사진 및 영상 촬영, 정리
현혜림			국어국문학	
강영봉	자문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자문 및 감수
신석하	및 감수		건축학	



**‘제주어와 제주 전통 문화 전승과 보전’ 사업 1-‘초집(초가)’ 구술 자료  
옛날 집은 촌낭으로 현 거난 멧 벵년 가도 ㅍ딱 잇어**

.....  
발행인: 김순자

발행일: 2020년 4월 30일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http://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